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일 시 | 2014년 10월 30일(목) 오전 9시 ~ 오후 5시 15분

| 장 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 공동주최 |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한국가족복지학회·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심리학회·한국교정학회·한국사회학회·한국심리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한국아동복지학회·한국아동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한국청소년복지학회·한국청소년학회

| 주 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후원 | 여성가족부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여러 학회들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단기종단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발달 및 변화과정을 추적, 조사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소년 제반 정책방향의 수립과 제도마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진행된 제5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3개 패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7070명의 청소년과 해당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인의 성장과 발달 과정,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에 대한 종단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패널자료는 일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학술대회를 개최해 패널자료의 학문적 활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개최되는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는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총 4년간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된 학문적 성과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가족학, 경찰행정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심리학, 아동학, 청소년학 등 사회과학 전반의 연구자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학문 간 소통과 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본 학술대회가 아동과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의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와 토론이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학술 연구 및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원에서도 내실 있는 학술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송병국	한국가족복지학회 백경숙
한국교육사회학회 김천기	한국교육심리학회 김성일
한국교정학회 박상열	한국사회학회 윤정로
한국심리학회 이규미	한국아동권리학회 황옥경
한국아동복지학회 신혜령	한국아동학회 서영숙
한국조사연구학회 김영원	한국청소년복지학회 길은배
한국청소년학회 박진규	

프로그램

● 등록 09:00 ~ 09:30

● Session 1 / 09:30 ~ 11:30

제 1 주제 학교적응

▶ 사회 :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 발표 : 김혜금(동남보건대학교 보육과 부교수)
 - 토론 : 신기숙(서울지방교정청 교정심리치료센터)
- 2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발표 : 정제영(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선미숙(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토론 : 서혜전(대구의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3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발표 : 권혜진(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과정), 정혜옥(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 토론 : 김은설(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제 2 주제 학교폭력

▶ 사회 :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1 학교폭력 중복지험 학생의 특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학교폭력 유형별 집단비교를 중심으로
 - 발표 : 이수림(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고경은(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토론 : 이희현(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2 청소년의 학교폭력 집단 결정 요인 분석 연구: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을 중심으로
 - 발표 : 이기정(대구교육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김영식(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
 - 토론 : 김윤나(서울사이버대학교 청소년복지전공 교수)
- 3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과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발표 : 임재연(건국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이선숙(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박종효(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조교수)
 - 토론 : 권혜진(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제 3 주제 비행

▶ 사회 : 이순래(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1 청소년비행에 있어 피해-가해 연계의 변화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발표 : 박성훈(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유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 토론 : 조정아(연세대학교 학부대학 학사지도교수)
- 2 청소년 사이버 욕설의 영향 요인 분석: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여
 - 발표 : 서봉언(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강의교수), 김경식(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토론 : 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3 인터넷 사용유형이 사회심리문제, 학교적응, 비행에 미치는 영향
 - 발표 : 임선아(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 토론 : 김위근(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 Session 2 / 13:00 ~ 15:00

제 4 주제 청소년활동

▶ 사회 : 문성호(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 1 체육운동시간이 청소년의 외현화·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과의 상호작용
 - 발표 : 이석영(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과정수료), 이택호(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과정수료), 한윤선(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조교수)
 - 토론 : 양정호(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2 청소년의 체험활동과 자아탄력성, 교우관계, 다문화 수용성 간의 구조적 관계
 - 발표 : 이경아(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성경주(한남대학교 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재철(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 토론 : 진은설(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외래교수)
- 3 또래 집단과 관련된 긍정적 감정에 대한 체험활동의 효과성 분석
 - 발표 : 라종민(국민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김재철(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 토론 : 김태균(성산효대학원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4 청소년 체험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발표 : 신인순(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 강현주(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정평화(경기복지재단 위촉연구원)
 - 토론 : 박선영(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제 5 주제 부모가족관계

▶ 사회 : 오윤자(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1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청소년의 적응과 환경 특성 탐색
 - 발표 : 이미리(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박주희(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정현숙(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성미애(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부교수)
- 2 청소년의 휴대폰 의존도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부모관심의 시간의존적 효과 연구
 - 발표 : 허균(부경대학교 수해양산업교육학과 부교수)
 - 토론 : 이장주(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 3 청소년기 일상생활시간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 및 부모양육방식의 영향
 - 발표 : 이귀옥(송의여자대학교 아동미술디자인학과 조교수),
이미리(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토론 : 황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4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 ·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 및 성차비교
 - 발표 : 김은혜(명지 I Will 센터 상담원), 윤현민(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후 연구원)
 - 토론 : 손정연(서울대학교 노화고령화사회연구소)

제 6 주제 정서발달

▶ 사회 : 진미정(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1 아동학대 재발생 유형과 관련요인
 - 발표 : 배화옥(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손병덕(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2 학령기 아동의 사회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발표 : 김연정(아동발달환경연구소 소장), 전화은(아동발달환경연구소 연구원)
 - 토론 : 류재윤(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3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공격성 영향요인 및 조절효과 탐색
 - 발표 : 김진구(건국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박종효(건국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 토론 : 이명숙(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4 다층모형을 통한 청소년기 우울의 예측변인에 대한 단기 종단연구
 - 발표 : 임향(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오다영(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오진경(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정수진(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최승원(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 토론 : 조영일(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5 우리나라 남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연구
 - 발표 : 오승아(경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유준호(울지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 토론 : 조남익(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교수)

● Session 3 / 15:15~17:15

제 7 주제 휴대폰/인터넷이용

▶ 사회 : 이명진(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1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종단적 변화의 잠재집단유형과 심리정서적 특성의 관계
 - 발표 : 하문선(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김영숙(중앙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 토론 :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2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변인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 발표 : 이희정(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김옥태(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조교수)
- 3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구조관계
 - 발표 : 박은혁(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시간강사), 이응택(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박사과정수료)
 - 토론 : 배상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4 남자 청소년의 컴퓨터사용시간, 휴대전화의존도, 음란물 중독, 학습활동, 교우관계의 관계규명
 - 발표 : 금지현(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운영센터 팀장),
김동심(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운영센터 연구원)
 - 토론 : 정여주(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제 8 주제 건강/사회성발달

▶ 사회 : 박금주(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1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영향요인: 건강상태와 비만여부를 중심으로
 - 발표 : 이자형(고려대학교 사회통합교육연구소 연구교수), 이기혜(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토론 : 이미리(한국체육대학교)
- 2 Exploration of variables on the effect of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over three years
 - 발표 : 박혜숙(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교수)
 - 토론 : 정은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3 청소년 놀이의 양과 질에 따른 학교폭력과 상관관계
 - 발표 : 정지원(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 토론 : 최새은(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조교수)
- 4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
 - 발표 : 양영미(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토론 : 도남희(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5 중학생의 사회정서적 특성과 부모양육 방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 발표 : 박혜숙(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교수), 이명숙(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토론 : 이은경(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부교수)

제 9 주제 대학원생 공모 수상작

▶ 사회 : 이종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기초연구실장)

1 【최우수상】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 또래애착 및 부모의 양육방식과 휴대전화의존도의 구조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

- 발표 : 박새롬(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수료), 노보람(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정정화(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2 【우수상】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 발표 : 박성준(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3 【우수상】

아동·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도, 건강상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간가구소득 차이를 중심으로

- 발표 : 심도현(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강현구(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정수지(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4 【우수상】

가정배경, 교우관계, 휴대전화 오락추구적 이용행태와 학업성취의 관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 발표 : 이승진(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목 차

제 1 주제 학교적응

-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3
 • 김혜금(동남보건대학교 보육과 부교수)
- 2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 15
 • 정제영(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선미숙(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3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35
 • 권혜진(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과정), 정혜옥(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제 2 주제 학교폭력

- 1 학교폭력 중복경험 학생의 특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학교폭력 유형별 집단비교를 중심으로 61
 • 이수림(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고경은(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2 청소년의 학교폭력 집단 결정 요인 분석 연구: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을 중심으로 83
 • 이기정(대구교육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김영식(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
- 3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과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102
 • 임재연(건국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이선숙(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박종효(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조교수)

제 3 주제 비행

- 1 청소년비행에 있어 피해-가해 연계의 변화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23
 • 박성훈(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유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 2 청소년 사이버 욕설의 영향 요인 분석: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여 145
 • 서봉언(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강의교수), 김경식(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3 인터넷 사용유형이 사회심리문제, 학교적응, 비행에 미치는 영향 158
 • 임선아(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제 4 주제 청소년활동

- 1 체육운동시간이 청소년의 외현화 ·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과의 상호작용 173
 • 이석영(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과정수료), 이택호(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과정수료), 한윤선(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조교수)
- 2 청소년의 체험활동과 자아탄력성, 교우관계, 다문화 수용성 간의 구조적 관계 189
 • 이경아(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성경주(한남대학교 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재철(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 3 또래 집단과 관련된 긍정적 감정에 대한 체험활동의 효과성 분석 206
 • 라종민(국민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김재철(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 4 청소년 체험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 지역사회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15
 • 신인순(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강현주(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정평화(경기복지재단 위촉연구원)

제 5 주제 부모가족관계

- 1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청소년의 적응과 환경 특성 탐색 233
 • 이미리(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박주희(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정현숙(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 2 청소년의 휴대폰 의존도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부모관심의 시간의존적 효과 연구 261
 • 허균(부경대학교 수해양산업교육학과 부교수)
- 3 청소년기 일상생활시간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 및 부모양육방식의 영향 271
 • 이귀옥(숭의여자대학교 아동미술디자인학과 조교수), 이미리(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4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또래애착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성차 비교 287
 • 김은혜(명지 I Will 센터 상담원), 윤현민(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후 연구원)

제 6 주제 정서발달

- 1 아동학대 재발생 유형과 관련요인 305
 • 배화옥(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 학령기 아동의 사회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19
 • 김연정(아동발달환경연구소 소장), 전화은(아동발달환경연구소 연구원)
- 3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공격성 영향요인 및 조절효과 탐색 334
 • 김진구(건국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박종효(건국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4 다층모형을 통한 청소년기 우울의 예측변인에 대한 단기 종단연구	350
• 임향(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오다영(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오진경(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정수진(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최승원(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5 우리나라 남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연구	369
• 오승아(경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유준호(을지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제 7 주제 휴대폰/인터넷이용

1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종단적 변화의 잠재집단유형과 심리정서적 특성의 관계	389
• 하문선(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김영숙(중앙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2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변인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410
• 이희정(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구조관계	429
• 박은혁(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시간강사), 이용택(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박사과정수료)	
4 남자 청소년의 컴퓨터사용시간, 휴대전화의존도, 음란물 중독, 학습활동, 교우관계의 관계규명	442
• 금지현(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운영센터 팀장), 김동심(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운영센터 연구원)	

제 8 주제 건강/사회성발달

1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영향요인: 건강상태와 비만여부를 중심으로	459
• 이자형(고려대학교 사회통합교육연구소 연구교수), 이기혜(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2 Exploration of variables on the effect of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over three years	484
• 박혜숙(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교수)	
3 청소년 놀이의 양과 질에 따른 학교폭력과의 상관관계	501
• 정지원(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4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	516
• 양영미(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5 중학생의 사회정서적 특성과 부모양육 방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530
• 박혜숙(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교수), 이명숙(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제9 주제 대학원생 공모 수상작

- 1 【최우수상】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 또래애착 및 부모의 양육방식과 휴대전화의존도의 구조관계 :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 547
 • 박새롬(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수료), 노보람(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정정화(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 2 【우수상】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571
 • 박성준(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 3 【우수상】 아동·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도, 건강상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연간가구소득 차이를 중심으로 591
 • 심도현(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강현구(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정수지(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 4 【우수상】 가정배경, 교우관계, 휴대전화 오락추구적 이용행태와 학업성취의 관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622
 • 이승진(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제 1 주제

학교적응

-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 2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
- 3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김혜금*

국문초록

본 연구는 횡단과 단기종단연구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있어서 성별과 학년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간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횡단과 종단적으로 탐색하여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차년도 자료 중 초등학교 5학년과 3차년도 자료 중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성과 학년 시기에 따라 다르고 횡단적, 종단적으로 남아와 여아 모두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부모 방임학대, 학교생활적응, 단기종단연구

I. 서론

초등학교 아동의 가장 중요한 생활의 장은 학교이다. 아동이 학교에서 접하는 선생님을 비롯한 또래친구와의 관계는 아동의 사회관계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후의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된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활동은 아동으로 하여금 교과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며 자신의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면서 아동은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규범과 질서에 대해 알아나 가게 된다. 아동이 학교에서 교사 및 또래관계에서 만족감을 지니고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인정을 받게 되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니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아동은 학교규칙을 지키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가치관을 전수받으면서 사회화되어 간다(Jo, 2012).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은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이며 또래들 간의 관계에서 소외되거나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한다. 학습활동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학업성적이 부진하게 되어 수업참여도가 낮아지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며 학교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 동남보건대학교 보육과 부교수 khg@dongnam.ac.kr

어기거나 사회적 일탈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아동이 초등학교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면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초등학교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출발점에 있는 중요한 정규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Lee, Moon, & Choi, 2012).

그런데 아동의 생애주기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화 기관인 초등학교에서의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이다.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때 아동기 자녀는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선생님과 또래친구 간에 지켜야 할 예의에 대해 알려주고 학습활동에 아동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학교규칙에 잘 따르도록 지도하는 경우 아동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 반면, 부모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무관심하거나 자녀를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학대를 가할 경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매우 어려우며 중도에 학교를 그만 두는 경우도 발생한다(Lee, & Kim, 2005; Lee, Moon, & Choi, 2012).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개 여아가 남아에 비해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im, 2004; Simmons-Morton, & Crump, 2003). 반면에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는 연구결과(Jang, & Park, 2008; Jung, & Moon, 2007)도 있어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성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아동의 학년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방임학대를 인지하고 이로 인해 부모와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지각은 아동의 인지적 발달이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은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동의 학년 시기별로 그리고 성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동이 부모의 방임학대를 지각하는 경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도는 낮아지고 일탈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아동기의 학교생활적응에서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해 사회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나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부모의 방임학대를 지각하는 아동이 학년이 올라갔을 때에도 동일하게 부모의 방임학대를 지각하는지 그리고 부모의 방임학대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이 학년별로 차이가 있을지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횡단과 단기종단연구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있어서 성별과 학년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간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횡단과 종단적으로 탐색하여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초등학교 4, 5학년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 하에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성별과 학년 시기별로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성별에 따라 지각된 부모의 방임학대의 횡, 종단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성별에 따라 지각된 부모의 방임학대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횡단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아동의 성별에 따라 지각된 부모의 방임학대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종단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아동기 후기는 여전히 부모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인데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차년도 자료 중 초등학교 5학년과 3차년도 자료 중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Time 1에서는 5학년 아동이 2,264명으로 남아 1,180명(52.1%), 여아는 1,084명(47.9%)이었다. Time 2는 1년 후 아동이 6학년 때이다. 종단연구의 대상은 1년간의 간격으로 결석이나 전학 등으로 9.8% 정도의 탈락이 있어 2,219명이며 남아가 1,167명(52.6%), 여아는 1,052명(47.4%)이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

구분		5학년		6학년	
		빈도	%	빈도	%
성별	남	1,180	52.1	1,167	52.6
	여	1,084	47.9	1,052	47.4
	소계	2,264	100.0	2,219	100.0
형제유무	형제아	1,971	88.0	1,960	88.4
	외동아	269	12.0	258	11.6
	소계	2,240	100.0	2,218	100.0
아버지 최종학력	중졸 이하	45	2.1	58	2.8
	고졸	808	38.4	783	37.5
	전문대졸	219	10.4	229	11.0
	대졸	923	43.8	897	43.0
	대학원졸	110	5.2	121	5.8
	소계	2,105	100.0	2,088	100.0

구분		5학년		6학년	
		빈도	%	빈도	%
어머니 최종학력	중졸이하	40	1.9	47	2.2
	고졸	1,034	48.4	997	46.9
	전문대졸	279	13.0	287	13.5
	대졸	734	34.3	736	34.7
	대학원졸	51	2.4	57	2.7
	소계	2,138	100.0	2,124	100.0
어머니 취업	취업모	1,356	63.2	1,349	63.9
	비취업모	789	36.8	763	36.1
	소계	2,145	100.0	2,112	100.0

2. 연구도구

(1) 부모의 방임학대

부모의 방임학대 척도는 Heo(2000)의 척도와 Kim(2003)의 척도 중 일부를 참고로 하여 구성한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설문지의 8개 문항을 사용하고자 한다. 방임 4문항(예; 부모님께서서는 다른 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부모님께서서는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과 학대 4문항(예,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서서는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께서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총 8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1점=매우 그렇다, 4점=전혀 그렇지 않다)로 역으로 합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과 학대를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2) 학교생활적응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Min(1991)이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 문항 중 학교행사 관련 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보완한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설문지의 20개 문항을 통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별 각 5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은 학습활동 5문항(예;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학교규칙 5문항(예;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교우관계 5문항(예;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교사관계 5문항(예;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이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점=매우 그렇다, 4점=전혀 그렇지 않다)로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를 제외한 문항은 역으로 합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연구문제 1은 t -검증, paired t -검증, 연구문제 2는 상관분석을 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3과 4는 부모의 방임학대를 평균을 중심으로 상, 하 두 집단으로 분류하고 χ^2 검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결과

1. 아동의 성별과 학년 시기별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아동의 지각 차이

아동의 성별로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지각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Time 1의 5학년 시기에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유의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학년 남아가 5학년 여아보다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더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ime 2의 6학년 시기에는 부모의 학대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만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즉 6학년 남아가 6학년 여아보다 부모의 학대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Time 1과 Time 2에서 부모의 방임학대 지각에 대한 아동의 성별 차이

변인	성별	M	SD	t
Time 1 (5학년)	방임	남(N=1,180)	1.58	2.07*
		여(N=1,084)	1.54	
	학대	남(N=1,180)	1.89	9.50***
		여(N=1,084)	1.64	
Time 2 (6학년)	방임	남(N=1,167)	1.62	-.10
		여(N=1,052)	1.63	
	학대	남(N=1,167)	1.76	5.81***
		여(N=1,052)	1.60	

* $p < .05$, *** $p < .001$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아동의 학년별 시기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남아의 경우, 학년 시기별로 부모의 학대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는 Time 2 시기(6학년) 보다 Time 1 시기(5학년)에 부모의 학대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에도 학년 시기별로 부모의 방임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는 Time 1 시기(5학년)보다 Time 2 시기(6학년)에 부모의 방임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학년별 시기의 차이

변인	시기별	M	SD	paired-t
남아	방임	Time 1(N=1,180)	1.58	-1.83
		Time 2(N=1,167)	1.63	
	학대	Time 1(N=1,180)	1.89	4.87***
		Time 2(N=1,165)	1.76	
여아	방임	Time 1(N=1,084)	1.54	-3.98***
		Time 2(N=1,052)	1.63	
	학대	Time 1(N=1,084)	1.64	1.51
		Time 2(N=1,052)	1.60	

*** $p<.001$

2.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모의 방임학대 간 횡, 종단적인 관계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모의 방임학대 간 횡단적인 관계는 표 4와 같다. 남아와 여아 모두 부모가 방임한다고 지각할수록 학대를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모의 방임학대 간 횡단적인 관계

Time 1	Time 1	
	방임	학대
남아(N=1,180)		
방임	1	
학대	.23***	1
여아(N=1,084)		
방임	1	
학대	.28***	1

*** $p<.001$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모의 방임학대의 종단적인 관계는 표 5와 같다. 아동의 학년별 시기와 부모의 방임학대 간 상당히 안정적으로 부모의 방임학대가 지각된다. 남아와 여아 모두 Time 1(5학년) 시기에 부모가 방임한다고 지각했으면 Time 2(6학년) 시기에 부모의 방임을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고 남아와 여아 모두 Time 1(5학년) 시기에 부모가 학대한다고 지각했으면 Time 2(6학년) 시기에 부모의 학대에 대한 지각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모의 방임학대 간 종단적인 관계

Time 2 \ Time 1	Time 1	
	방임	학대
남아(N= 1,180)		
방임	.36***	.14***
학대	.13***	.40***
여아(N=1,180)		
방임	.39***	.20***
학대	.22***	.47***

*** $p < .001$

3.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 횡단적인 관계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횡단적 관계는 표 6과 같다. 5학년 남아의 경우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더 지각할수록 학술행동에 덜 참여하고, 학교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며, 교우관계가 더 좋지 않고, 교사와의 관계도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학년 여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더 지각할수록 학술행동에 덜 참여하고, 학교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며, 교우관계가 더 좋지 않고, 교사와의 관계도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횡단적인 관계

Time 1 \ Time 1	Time 1	
	방임	학대
남아(N=1,180)		
학습활동	-.41***	-.20***
학교규칙	-.32***	-.13***
교우관계	-.39***	-.15***
교사관계	-.34***	-.07*
여아(N=1,084)		
학습활동	-.39***	-.23***
학교규칙	-.34***	-.22***
교우관계	-.41***	-.27***
교사관계	-.30***	-.09**

** $p < .01$, *** $p < .001$

4.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 종단적인 관계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종단적 관계는 표 7과 같다. 6학년 남아의 경우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더 많았다고 지각할수록 학술행동에 덜 참여하고, 학교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며, 교우관계가 더 좋지 않고, 교사와의 관계도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학년 여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더 많았다고 지각할수록 학술행동에 덜 참여하고, 학교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며, 교우관계가 더 좋지 않고, 교사와의 관계도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종단적인 관계

	Time 1	
	방임	학대
Time 2		
남아(N=1,108)		
학습활동	-.27***	-.13***
학교규칙	-.16***	-.09**
교우관계	-.26***	-.10***
교사관계	-.21***	-.10**
여아(N=1,084)		
학습활동	-.27***	-.20***
학교규칙	-.19***	-.14***
교우관계	-.28***	-.21***
교사관계	-.19***	-.09**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학대에 아동의 성별 차이와 학년 시기별 차이를 살펴보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 간의 횡, 종단적인 관계를 아동의 성별로 알아보았으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횡, 종단적인 관계를 성별로 탐색하여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첫째, 아동의 성별과 아동의 학년 시기별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지각 차이 중 먼저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아동의 성별 차이의 경우, Time 1의 5학년 시기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더 지각하였고 Time 2의 6학년 시기에는 부모의 학대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만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의 학대를 더 많이 지각하였다. 이는 부모가 남아에게 보다 더 엄격하고 체벌을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Doh, Kim, Park, & Hwang, 2005; Oh & Gong, 2007)를

지지하는 것으로 부모의 강압적인 태도가 여아보다 남아에게 보다 많이 취해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성학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남아에게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5, 6학년 남아가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동의 학년 시기별 차이에서는 남아는 Time 2 시기(6학년) 보다 Time 1 시기(5학년)에 부모의 학대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아는 Time 1 시기(5학년)보다 Time 2 시기(6학년)에 부모의 방임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의 경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거칠고 통제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부모가 체벌이나 강압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6학년이 되면 신체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신체적인 체벌을 사용하기 어려워지므로 부모가 체벌 수준을 낮추기 쉽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아가 6학년보다는 5학년시기에 부모로부터 더 많은 학대를 받은 것으로 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여아는 5학년보다는 6학년 시기에 신체적, 인지적으로 성숙해지면서 부모가 여아에게 간섭을 덜 하게 되고 관심을 덜 두게 되는데, 여아는 이러한 부모의 태도를 방임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 간 횡단적인 관계에서 5학년 남아와 여아 모두 부모가 방임한다고 지각할수록 학대를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서로 상관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자녀 또한 부모가 방임과 학대를 동시에 보이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학대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방임이며 학대 범주에 방임이 포함된다는 점은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같이 맞물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단적으로 학년 시기별과 부모의 방임학대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안정적인 부모의 방임학대를 보였다. 남아와 여아 모두 5학년 시기에 부모가 방임한다고 지각했으면 6학년 시기에 부모의 방임을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고 남아와 여아 모두 5학년 시기에 부모가 학대한다고 지각했으면 6학년 시기에 부모의 학대에 대한 지각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부모의 방임학대를 지각하는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모의 방임학대를 더 많이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방임학대가 지속될 뿐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아동이 지각 또한 높아지는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들은 적절한 중재가 지원되지 않으면 학대의 정도와 빈도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부모의 방임학대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역기능을 미치기 전에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보다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살펴보고 부모를 면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개입을 제공하여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횡단적 관계에서 5학년 남아의 경우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더 지각할수록 학술활동에 덜 참여하고, 학교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며, 교우관계가 더 좋지 않고, 교사와의 관계도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학년 여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더 지각할수록 학술활동에 덜 참여하고, 학교규

칙을 잘 지키지 않으며, 교우관계가 더 좋지 않고, 교사와의 관계도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방임이 교사관계와 교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Kwon, Lee, Nho(201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한 선행연구(Keum, Son, Chae, & Kang, 2013; Kim, 2009; Kim & Yeum, 2012; Park, Chung, & Shin, 2013) 결과를 지지한다. 즉 사춘기에 접어든 5학년 아동의 경우, 아동의 성별에 상관없이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부모의 방임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 정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중재를 지원하는 것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돕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와 관련한 검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어려움을 판별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 종단적 관계에서 6학년 남아의 경우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더 많았다고 지각할수록 학술행동에 덜 참여하고, 학교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며, 교우관계가 더 좋지 않고, 교사와의 관계도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학년 여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더 많았다고 지각할수록 학술행동에 덜 참여하고, 학교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며, 교우관계가 더 좋지 않고, 교사와의 관계도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방임학대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즉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는 지속적으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후 아동의 삶 전반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학교생활적응이 이후 학교생활적응의 토대가 되고 사회생활적응으로 까지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부모의 방임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양하고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방임과 학대를 근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성과 학년 시기에 따라 다르고 횡단적, 종단적으로 남아와 여아 모두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추후연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아동의 지각에 의존하여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교생활적응의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후연구에서는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면접 및 관찰 등의 방법이 추가되어야 하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담임교사의 의견 및 관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있어서 성별 차이와 학년 시기별 차이를 살피고 부모 방임학대의 횡, 종단적인 관계를 아동의 성별로 탐색하고,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 횡, 종단적인 관계를 아동의 성별로 살펴보다 부모의 방임학대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준다.

참고문헌

- Doh, H. S., Kim, M. J., Park, B. K., & Hwang, Y. E. (2005). The Relations of Parenting Behaviors Perceived by Children to Children's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s.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3), 185-195.
- Heo, M. Y. (2000). *Act one parent parenting youth perception of scale development researc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ang, Y. A., & Park, J. H. (2008).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2), 69-85.
- Jo, E. J. (2012). A study on finding protective factors which effect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from parents' abuse - comparison between abused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Youth Culture Publishes Forum, 29*, 138-164.
- Jung, M. Y., & Moon, H. J. (2007). Relevant variables of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hild Studies, 28*(5), 37-54.
- Keum, J. H., Son, C. H., Chae, S. E., & Kang, S. K. (2013).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and the relations with family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2), 119-144.
- Kim, M. J., & Yeum, D. M. (2012). A meta-analysis for how the child abuse experience effect on the child's school adaptatio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43*, 409-430.
- Kim, J. B. (2009). A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to teenagers' maladjustment at school life: The main focus on maladjustment teenagers.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6*(2), 25-48.
- Kim, S. W. (2003).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adaptation of children abused experien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won, J. E., Lee, E. J., & Nho, C. R. (2013). Mediating effects of teacher and peer relationship on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 abuse and neglect and school performance. *Korean Society Child Welfare, 42*, 29-54.
- Lee, E. Y., & Kim, K. H.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ir children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djustment in school lif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0*(1), 105-119.
- Lee, J. S., & Moon, Y. K., & Choi, H. I. (2012). Impact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 on school adjustment in children: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ego-resilienc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1*(2), 233-246.
- Lee, J. S., Moon, Y. K., & Choi, H. I. (2012). Impact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 on school adjustment in children: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ego-resilienc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1*(2), 233-246.
- Min, B. S. (1991). *The effects of school life adjustment and the ego concept on academic perform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Oh, C. M. & Gong, I. S. (2007) The Effect of Children's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on Their Aggression.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4), 139-149.

- Park, K. I., Chung, S. W., & Shin, A. N. (2013). Exploratory profile analysis regarding parenting styles: With a special focus on students'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Studies on Korean Youth, 24*(2), 91-118.
- Sim, S. J. (2004). *Junior high school attached to their peers and self esteem and its impact on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immons-Morton, B. G., & Crump, A. D. (2003). Association of parental involvement and social competence with school adjustment and engagement among sixth graders. *Journal of School Health, 73*(3), 121-126.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제영* · 선미숙**

국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관심 및 합리적 설명과 격려와 같은 애정적 양육태도는 학교생활 적응 및 그 하위영역에도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임적 양육태도는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요인 가운데 진로정체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일관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 및 자아정체성 등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또래와의 원활한 의사소통도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성적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인과관계를 상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모의 관심 및 합리적 설명과 격려와 같은 애정적 양육태도는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학교생활 적응에 일관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관심과 애정을 기울일 때 학교 부적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생활 적응, 학교 부적응, 자아존중감, 학업성적

I. 서론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 문제,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문제 등이 교육적 관심을 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이나 학교 부적응의 문제는 가정환경이나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분위기, 사회문화 등 학생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문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를 포함하여 전 사회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jychung@ewha.ac.kr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학교 차원의 노력이 결합되어 2012년 2차 조사에서 8.5%였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4년 1차 조사에서는 1.4%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같은 시기 학교폭력 가해응답률도 4.1%에서 0.6%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2014년 초·중·고 학생의 학업중단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업중단 학생은 총 60,568명(재적 학생수 대비 0.93%)으로 2013년도 68,188명에 비해 7,620명이 감소하였다(교육부, 2014).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업중단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조사되고 있지 않아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업중단 학생 30,382명 가운데 부적응(학업관련, 대인관계, 학교규칙 등)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25,016명(82.34%)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교 부적응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학생의 인지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학교는 가족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장이며, 또래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본격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가는 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유안진 외, 2004).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건강한 성장과 더불어 이후의 성인기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정운·이경아, 2004; 장영애·박정희, 2008).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들은 각종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지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비행이나 범죄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조호운·김재철, 2011). 초·중등학교 단계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부적응하여 학업을 중단하거나 비행·일탈 등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학생 개인에게도 인생의 크나큰 손실일 뿐 아니라 미래의 우리 사회에서도 새로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정제영 외, 201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가정, 이웃, 친구, 교사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정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가정은 교육이 실행되는 최초의 장으로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양식 등을 형성해 나간다(이재성 외, 2012).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사회적응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이정운·이경아, 2004).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개념, 성격,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규범을 학습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하다 할 수 있다(허묘연, 2000; 조은정, 2012; 임선아, 2013).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 내적 요인인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하현주 외, 2008)을 분석한 연구가 있는가 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관계, 가족구조, 부모의 교육수준(김신애 외, 2008; 정미영·문혁준, 2007)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또래와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및 상호작용

용,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가 학교생활 적응의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김영춘·정민숙, 2012; 정미영·문혁준, 2007).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주요한 요인이라 보고 이와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탄력성,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연구(김정희, 안귀여루, 2013; 이재성 외, 2012; 임선아, 2013; 조호운·김재철, 2011; 하명선·이순복, 2009)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한 연구에서 대부분 개인, 가정, 또래관계 등의 개별변인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거나 혹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등의 개인 내적 요인과의 관계를 통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개인, 가정, 또래 관계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 요인과 가정 배경, 또래 관계 등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녀에 의하여 지각되는 반응양식으로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내는 일반적 태도나 행동을 의미한다(Becker, 1964; 김정희·안귀여루, 2013).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로써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을 의미하는 것이다(이재성 외, 2012).

Baumrind(1991)는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을 크게 권위적 양육태도(authoritarian parenting), 민주적 양육태도(democratic parenting), 허용적 양육태도(permissive parenting)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김정희·안귀여루, 2013: 824). 권위적 양육태도는 통제가 높고 애정은 낮은 형태로 자녀의 행동을 제한하고 많은 규칙을 부과하며 강압적 태도를 보이며, 민주적 양육태도는 애정과 통제가 모두 높은 형태로 자녀에게 자유를 허락하면서도 확실한 규칙을 정하고 자녀에게 적절한 요구와 기대를 갖는다. 한편, 허용적 양육태도는 애정은 높고 통제는 낮은 형태로 자녀에게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거의 없고 규제도 거의 없다는 특징을 보인다(김정희·안귀여루, 2013). Becker(1964)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인지적·정의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자녀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이현철 외, 2011).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지적·정의적·신체적·행동적 발달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를 분석함에 있어 아동이 양육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느냐가 실제 양육태도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Schaefer, 1965; 오성심 · 이종승, 1982). 즉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부모 자신의 보고보다는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이현철 외, 2011; 하명선 · 이순복, 2009).

부모의 양육태도가 실제로 긍정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아동이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반대로 부정적인 양육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아동의 정의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양육태도보다 아동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하명선 · 이순복,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2. 학교생활 적응

대부분의 학생들은 하루 생활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며,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 단계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부적응하여 학업을 중단하거나 비행·일탈 등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자립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학생 개인에게도 인생의 크나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일탈과 학업중단은 사회적으로 새로운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정제영 외, 2013).

학교는 가족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장이며, 또래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본격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가는 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유안진 외, 2004). 학교생활 적응이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학교수업, 학교 규칙,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요구를 적절히 변화시키거나 환경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왕식 · 임영희, 2004).

학교생활 적응은 개인적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개인적 변인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정유진, 1999; 최지은 · 신용주, 2003)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나 학년에 따라서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영역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유안진 외(2004)의 연구에 따르면 교우관계적응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잘 적응하였고, 학교규칙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잘 적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은영 · 김경혜(2005)의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대체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김지영 · 류현숙, 2003; 장영애 · 박정희, 2008).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변인을 탐구한 연구들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개인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지만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김정희, 안귀여루, 2013; 유안진 외, 2004; 이재성 외, 2012; 임선아, 2013; 조호운·김재철, 2011; 하명선·이순복, 2009).

3.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련성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자녀가 부모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학교 생활에 더 잘 적응하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지 못하고 강압적일 때 자녀들은 학교 적응에 문제를 보인다(최지은·신용주, 2003; 유안진 외, 2004).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적이지 못할 때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의 태도 때문에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부적응 양상을 보일 수 있다(하명선·이복순, 2009).

유안진 외(2004)는 청소년의 부모양육행동 지각과 학교적응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부모의 양육행동을 온정적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교사와의 관계를 더 잘 형성하고 학교규칙을 더 잘 준수한다고 밝혔다. 부모와 자녀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면, 아동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갖게 되고, 부모와의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습득한 사회적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관계 형성을 더 잘하게 된다고 논의하였다(유안진 외, 2004: 174).

이은영·김경혜(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아동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고 보고하였으며, 하명선·이순복(2009)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애정-적대 태도는 학교생활 적응의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미한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이선경·이재연(1998)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업 능력 및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문제행동에도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이어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강조하였다. 장영애·박정희(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태도는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과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던 반면,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 양육태도와는 다소 미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나 자기조절능력과 같은 개인의 내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부모와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 등 개인 내적 요인과 학교생활 적응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김정희·안귀여루(2013)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 가운데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민주적 양육태도가 자기조절능력과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때 자기조절능력은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학교생활 적응의 완전매개변수이며, 민주적 양육태도와 학교생활 적응사이에는 부분매개변수로 작용하였다. 이재성 외(2012)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행동이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임선아(2013)는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그 영향력이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는데,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에는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저소득층 아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양육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임선아(2014)는 부모의 민주적, 비민주적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학교적응력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관계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교적응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비민주적 양육태도는 자기조절학습능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학교적응력에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인지 비민주적인지, 학교생활에서 교사, 친구 등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그 영향력은 어떠한지 분석한 김영춘·정민숙(2012)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의 친구관계, 교사관계,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민주적인 양육태도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한 연구에서 대부분 개인, 가정, 또래관계 등의 개별변인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거나 혹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등의 개인 내적 요인과의 관계를 통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개인, 가정, 또래 관계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 요인과 가정 배경, 또래 관계 등을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학령기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기초자료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고자 3개(초1, 초4, 중1)의 연령 코호트를 설정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추적 조사하는 단기종단 패널조사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초등학교 4학년 패널 4차 년도(중학교 1학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변인들 가운데 한 경우라도 결측치(missing value)가 포함되어 있는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2,092명 가운데 1,76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측정변수와 분석방법

1) 종속변수 : 학교생활 적응 정도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생활 적응을 학업성적과 같은 하나의 단일개념으로 측정하고 있거나 각 영역별로 측정한 후 이 영역을 점수를 합하여 적응점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유안진 외, 2004). 그러나 학교생활 적응은 단일개념이 아니라 복합적 개념으로(이영미·민하영, 2004)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학교 규칙의 준수, 학교분위기에 대한 태도, 학업성적과 같은 하위 영역이 포함된다(박영준, 1996; 유안진 외, 2004). 따라서 학교생활 적응을 구성하는 각 하위영역별로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한 영역에의 적응이 다른 영역에의 적응을 예측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영역을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생활 적응 문항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각 5문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학습활동 .782, 학교규칙 .824, 교우관계 .612, 교사관계 .850이었다. 교우관계 문항 가운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을 삭제하고 총 19개의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이때 교우관계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1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영역인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에 대하여 각각 분석하고,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서도 종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독립변수 :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성별이나 학업성적,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능력 등의 개인 내적 요인, 부모의 학력, 소득 등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활용한다. 아울러, 개인 내적 요인과 가정 배경, 또래 관계 등을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를 감독(3), 애정(4), 비일관성(3), 과잉기대(4), 과잉간섭(4), 합리적 설명(3), 방임(4), 학대(4)의 총 29개 문항으로 측

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29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5개의 요인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분석에 사용된 변수

(N=1,764)

주요변수	평균	표준 편차	변수에 대한 설명
독립변수			
개인 특성 및 가정배경 변인			
성별	0.52	0.500	여학생=0, 남학생=1
어머니 교육수준	13.83	1.926	중졸이하=9, 고졸=12, 전문대졸=14, 대졸=16, 대학원졸=18
가구소득	8.35	0.495	ln(연간 가구소득)
학업성적	78.56	10.737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성적 평균
개인 내적 요인			
자아존중감	3.17	0.508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4)
자아탄력성	3.01	0.446	
자아정체감	2.66	0.400	
진로정체감	2.95	0.610	
삶의 만족도	3.16	0.631	
또래 관계			
의사소통	3.14	0.545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4)
소외	2.06	0.718	
부모의 양육태도			
관심	3.32	0.546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4) * 방임 관련 문항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1로 코딩
합리적 설명과 격려	3.10	0.532	
과잉간섭과 비밀관성	2.43	0.576	
방임	1.75	0.521	
학대	1.77	0.683	
종속변수			
학교생활 적응	3.00	0.426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4)
학습활동	2.89	0.555	
학교규칙	3.03	0.530	
교우관계	3.13	0.416	
교사관계	2.95	0.647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에 활용된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고 있는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셋째,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 특성 및 가정 배경 변인, 개인 내적 요인,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관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기존 문헌검토를 통해 선정된 부모의 양육태도 29개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은 주성분 분석방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의 회전은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적용하였다. 요인의 수는 아이겐 값(eigenvalues) 1.0 이상, 각 요인별 주적재치 .60이상, 부적재치 .40미만의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5개의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 요인이 추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부모의 과잉간섭, 과잉기대, 비밀관적 태도를 반영하는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16.63%를 설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합리적 설명과 격려를 반영하는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13.75%를 설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학대적 양육태도를 반영하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10.20%를 설명하였으며, 네 번째 요인은 방임적 양육태도를 설명하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체 변량의 8.70%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요인은 부모의 관심을 설명하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8.03%를 설명하였다.

이상의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전체 변량의 57.3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요인들이 갖는 내적 신뢰도 값 Cronbach's α 는 .75에서 .87의 범위를 보여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표 2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 요인 및 측정 항목

측정항목	Cronbach's α				
	.87	.87	.86	.77	.75
과잉간섭과 비밀관성					
나에게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겨야 한다는걸 강조하신다.	.724	.063	.093	.001	.013
나에 관한 한 다른 어떤 일보다 공부에 더 열성적이지 않다.	.706	-.058	.052	-.055	.045
나에게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703	.071	.182	.036	-.020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해하시며 내게는 못하게 하신다.	.697	-.014	.143	.043	-.017
나는 부모님의 기대가 항상 내 능력 이상이어서 부담스럽다.	.655	-.079	.008	-.100	.232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시고, 어떤 때는 안 치신다.	.611	.019	.114	.074	-.039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601	-.201	.330	.097	-.088

측정항목	Cronbach's α				
	.87	.87	.86	.77	.75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실 때가 많다.	.599	-.090	.282	.060	-.037
부모님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신다.	.566	-.087	.313	.121	-.159
손님이 오거나 외출했을 때, 나에게 대한 부모님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	.553	-.019	.315	.156	-.131
나에 대한 걱정을 덜 하셨으면 좋겠다.	.542	.080	-.038	-.166	.083
합리적 설명과 격려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하기를 설명해 주신다.	.025	.760	-.035	-.057	.095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 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042	.748	-.036	-.131	.139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것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	.007	.739	-.083	-.185	.089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	-.044	.694	-.134	-.319	.140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049	.693	-.126	-.280	.168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022	.635	-.117	-.356	.169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127	.520	-.178	-.168	.517
학대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227	-.068	.839	.111	-.079
내가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268	-.100	.814	.134	-.062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225	-.168	.789	.044	-.061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390	-.130	.599	-.040	-.095
방임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006	-.228	.110	.734	-.169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015	-.400	.048	.680	-.179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	.085	-.295	.155	.675	-.166
다른 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010	-.232	-.017	.670	-.078
관심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032	.161	-.090	-.161	.858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002	.237	-.083	-.153	.843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138	.302	-.053	-.204	.519
Eigenvalue	4.82	3.99	2.96	2.52	2.33
설명변량(%)	16.63	13.75	10.20	8.70	8.03
누적 설명 비율(%)	16.63	30.38	40.57	49.27	57.30

2.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중다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및 VIF값을 분석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성별	어머니 교육 수준	가구 소득	학업 성적	자아 존중감	자아 탄력성	자아 정체감	진로 정체감	삶의 만족도	또래 의사 소통	또래 소외	관심	합리	과잉	방임	학대
성별	1															
어머니 교육수준	-.060**	1														
가구소득	-.020	.377**	1													
학업성적	-.031	.254**	.280**	1												
자아존중감	.137**	.069**	.078**	.242**	1											
자아탄력성	.131**	.027	.042	.128**	.537**	1										
자아정체감	.062**	.108**	.134**	.267**	.506**	.383**	1									
진로정체감	.042	.047*	.041	.105**	.329**	.429**	.349**	1								
삶의 만족도	.224**	.017	.027	.094**	.624**	.477**	.352**	.272**	1							
또래 의사소통	-.050*	.050*	.065**	.116**	.393**	.455**	.246**	.275**	.351**	1						
또래 소외	.064**	-.074**	-.043	-.130**	-.312**	-.105**	-.269**	-.037	-.192**	-.172**	1					
관심	-.013	.113**	.109**	.259**	.348**	.325**	.272**	.260**	.310**	.354**	-.150**	1				
합리적 설명과 격려	.095**	.080**	.063**	.160**	.423**	.408**	.268**	.300**	.446**	.403**	-.134**	.532**	1			
과잉간섭과 비밀관성	.154**	-.076**	-.048*	-.127**	-.175**	.058**	-.239**	.017	-.061**	.004	.391**	-.014	-.131**	1		
방임	-.056*	-.072**	-.086**	-.197**	-.380**	-.333**	-.280**	-.293**	-.357**	-.385**	.194**	-.476**	-.640**	.090**	1	
학대	.106**	-.043	-.046*	-.154**	-.271**	-.067**	-.199**	-.036	-.166**	-.122**	.432**	-.217**	-.299**	.548**	.239**	1

** $p < .01$, * $p < .05$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관심, 합리적 설명과 격려, 과잉간섭과 비밀관성, 방임, 학대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개인 내적 요인과 학업성적,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또래 관계 등 선행연구에서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다른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우선 부모의 양육태도가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표 4와 같다. 연구모형은 46.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또래 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관심 및 합리적 설명과 격려와 같은 양육태도는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방임적 양육태도는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β	t	F	R^2 (Adj R^2)
	B	표준오차				
성별	-.014	.016	-.017	-.887	95.674***	.467 (.462)
어머니 교육수준	.003	.004	.012	.603		
가구소득	.006	.016	.007	.342		
학업성적	.006	.001	.143***	7.387		
자아존중감	.075	.022	.090**	3.396		
자아탄력성	.131	.023	.137***	5.740		
자아정체감	.061	.023	.057*	2.614		
진로정체감	.069	.014	.099***	4.852		
삶의 만족도	.028	.016	.042	1.753		
또래 의사소통	.087	.017	.112***	5.241		
또래 소외	.008	.012	.013	.636		
관심	.120	.017	.154***	7.060		
합리적 설명과 격려	.121	.021	.151***	5.844		
과잉간섭과 비밀관성	.021	.017	.029	1.266		
방임	-.075	.019	-.092***	-3.846		
학대	-.002	.014	-.003	-.130		
(상수)	.410	.173		.2.363		

*** $p < .001$, ** $p < .01$, * $p < .05$

학교생활 적응은 단일개념이 아니라 복합적 개념으로(이영미·민하영, 2004) 학교생활 적응을 구성하는 각 하위영역별로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한 영역에의 적응이 다른 영역에의 적응을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각 하위영역별로 분석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을 구성하는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각각을 종속변수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습활동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표 5와 같다. 연구모형은 40.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활동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 가운데 학습활동과 관련을 보이는 변수는 관심 및 합리적 설명과 격려의 양육태도로 학습활동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잉간섭과 비밀관성, 방임, 학대와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습활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습활동 적응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β	t	F	R^2 (Adj R^2)
	B	표준오차				
성별	-.006	.022	-.005	-.280	76.793***	.413 (.408)
어머니 교육수준	.005	.006	.017	.829		
가구소득	.005	.022	.005	.233		
학업성적	.013	.001	.260***	12.784		
자아존중감	.105	.030	.096**	3.475		
자아탄력성	.045	.031	.036	1.457		
자아정체감	.197	.032	.142***	6.154		
진로정체감	.075	.019	.083***	3.883		
삶의 만족도	.048	.022	.055*	2.190		
또래 의사소통	.037	.023	.036	1.609		
또래 소외	.011	.017	.014	.628		
관심	.131	.023	.129***	5.654		
합리적 설명과 격려	.162	.028	.156***	5.757		
과잉간섭과 비밀관성	.008	.023	.008	.332		
방임	-.024	.027	-.023	-.903		
학대	-.013	.019	-.016	-.658		
(상수)	.670	.237		-2.826		

*** $p < .001$, ** $p < .01$, * $p < .05$

부母的 양육태도가 학교규칙 준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표 6과 같다. 연구모형은 26.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학교규칙 준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래 간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학교규칙 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간 관계에서 소외를 느낄수록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 간 소외를 느낄수록 학교규칙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부母的 관심, 합리적 설명과 격려의 양육태도는 학교규칙 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방임적 양육태도는 학교규칙 준수와 부정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간섭과 비밀관성, 학대는 학교규칙 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규칙 준수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β	t	F	R^2 (Adj R^2)
	B	표준오차				
성별	-.027	.023	-.026	-1.172	39.908***	.268 (.261)
어머니 교육수준	.008	.006	.028	1.255		
가구소득	.009	.024	.008	.360		
학업성적	.004	.001	.078**	3.437		
자아존중감	.120	.032	.115***	3.727		
자아탄력성	.120	.033	.101***	3.598		
자아정체감	-.012	.034	-.009	-.339		
진로정체감	.083	.021	.095***	4.005		
삶의 만족도	-.012	.024	-.014	-.500		
또래 의사소통	.064	.024	.066**	2.643		
또래 소외	.050	.018	.067**	2.764		
관심	.160	.025	.165***	6.456		
합리적 설명과 격려	.127	.030	.127***	4.204		
과잉간섭과 비밀관성	.043	.025	.047	1.768		
방임	-.062	.028	-.061*	-2.194		
학대	-.001	.021	-.001	-.047		
(상수)	.421	.253		1.665		

*** $p < .001$, ** $p < .01$, * $p < .05$

부모의 양육태도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표 7과 같다. 연구모형은 40.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교우관계에 다소 부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간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교우관계와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간 관계에서 느끼는 소외는 교우관계와 부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 가운데 관심은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방임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설명과 격려, 과잉간섭과 비밀관성, 학대는 교우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 부모의 양육태도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β	t	F	R^2 (Adj R^2)
	B	표준오차				
성별	-.036	.016	-.044*	-2.223	75.652***	.409 (.404)
어머니 교육수준	.002	.004	.008	.409		
가구소득	.015	.017	.018	.883		
학업성적	.002	.001	.056**	2.758		
자아존중감	.060	.023	.073**	2.625		
자아탄력성	.180	.023	.193***	7.693		
자아정체감	.045	.024	.043	1.869		
진로정체감	.029	.015	.043*	1.998		
삶의 만족도	.013	.017	.020	.782		
또래 의사소통	.172	.017	.226***	10.062		
또래 소외	-.046	.013	-.080***	-3.663		
관심	.057	.017	.075**	3.264		
합리적 설명과 격려	.035	.021	.045	1.639		
과잉간섭과 비밀관성	-.004	.017	-.006	-.239		
방임	-.092	.020	-.115***	-4.599		
학대	-.019	.015	-.031	-1.288		
(상수)	1.315	.178		7.382		

*** $p < .001$, ** $p < .01$, * $p < .05$

부모의 양육태도가 교사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표 8과 같다. 연구모형은 23.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자아탄력성, 진로정체감,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또래 간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교사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 가운데 관심 및 합리적 설명과 격려는 교사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방임적 양육태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간섭과 비밀관성, 학대는 교사와의 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 부모의 양육태도가 교사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β	t	F	R^2 (Adj R^2)
	B	표준오차				
성별	.013	.029	.010	.455	34.037	.238 (.231)
어머니 교육수준	-.004	.008	-.012	-.535		
가구소득	-.006	.030	-.005	-.209		
학업성적	.003	.001	.054*	2.331		
자아존중감	.016	.040	.012	.388		
자아탄력성	.179	.041	.123***	4.306		
자아정체감	.014	.042	.009	.341		
진로정체감	.088	.026	.083**	3.419		
삶의 만족도	.064	.029	.062*	2.171		
또래 의사소통	.076	.030	.064*	2.520		
또래 소외	.017	.022	.019	.781		
관심	.132	.031	.111***	4.266		
합리적 설명과 격려	.159	.038	.131***	4.237		
과잉간섭과 비밀관성	.038	.031	.034	1.254		
방임	-.121	.035	-.098**	-3.427		
학대	.025	.026	.027	.975		
(상수)	.573	.315		1.818		

*** $p < .001$, ** $p < .01$, * $p < .05$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학교생활 적응의 각 하위영역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학업성적과 진로정체감, 부모의 양육태도 가운데 관심으로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 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태도 가운데 합리적 설명과 격려도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학습활동 적응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 및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기대나 과잉간섭, 비밀관성, 학대 등의 양육태도는 학교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 종합 :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변수	학교생활 적응 (β)	학습활동적응 (β)	학교규칙 준수 (β)	교우관계 (β)	교사와의 관계 (β)
성별	-.017	-.005	-.026	-.044*	.010
어머니 교육수준	.012	.017	.028	.008	-.012
가구소득	.007	.005	.008	.018	-.005
학업성적	.143***	.260***	.078**	.056**	.054*
자아존중감	.090**	.096**	.115***	.073**	.012
자아탄력성	.137***	.036	.101***	.193***	.123***
자아정체감	.057*	.142***	-.009	.043	.009
진로정체감	.099***	.083***	.095***	.043*	.083**
삶의 만족도	.042	.055*	-.014	.020	.062*
또래 의사소통	.112***	.036	.066**	.226***	.064*
또래 소외	.013	.014	.067**	-.080***	.019
관심	.154***	.129***	.165***	.075**	.111***
합리적 설명과 격려	.151***	.156***	.127***	.045	.131***
과잉간섭과 비밀관성	.029	.008	.047	-.006	.034
방임	-.092***	-.023	-.061*	-.115***	-.098**
학대	-.003	-.016	-.001	-.031	.027
R^2	.467	.413	.268	.409	.238
Adj R^2	.462	.408	.261	.404	.231

*** $p < .001$, ** $p < .01$, * $p < .05$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관심 및 합리적 설명과 격려와 같은 애정적 양육태도는 학교생활 적응 및 그 하위영역에도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임적 양육태도는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양육태도가 모든 영역에서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방임적 양육태도가 학습활동적응을 제외한 학교생활 적응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가운데 과잉간섭이나 비밀관성, 학대는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을 고려할 때 자녀에 대한 무관심과 같은 방임적 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을 해치는 주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

과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개인의 내적 요인 가운데 진로정체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일관적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분야가 있고, 진로에 대한 목표가 있을 때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 초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 및 자아정체성 등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또래와의 원활한 의사소통도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하여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 등을 함양할 수 있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성적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인과관계를 상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인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좋은 것인지 본 분석에서는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대중매체의 폭력성(32.1%)과 더불어 가정교육의 부재(31.3%)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이강주 외, 2013). 그만큼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으며, 그 책무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부모의 관심 및 합리적 설명과 격려와 같은 애정적 양육태도는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학교생활 적응에 일관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관심과 애정을 기울일 때 학교 부적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4). **학업중단 학생 현황**. 교육부 보도자료(2014. 9. 4.).
- 김신애 · 이형실 · 임수경(2008). 남녀 청소년의 가족체계유형과 학교생활 적응 및 행동문제의 관련성.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4), 1-17.
- 김영춘 · 정민숙(2012).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3, 51-70.
- 김왕식 · 임영희(2004).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 및 민주시민과의 관계. **교과교육학연구**, 7(3), 123-148.

- 김정희 · 안귀여루(2013).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4), 823-836.
- 김지영 · 류현숙(2003). 학령기 아동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아동간호학회지**, 9(2), 198-205.
- 오성심 ·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 행동과학연구소.
- 유안진 · 이점숙 · 서주현(2004). 청소년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161-180.
- 이강주 · 양승실 · 차성현(201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선경 · 이재연(1998).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과정 모델. **아동학회지**, 19(2), 49-64.
- 이은경 · 김경혜(2005).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0(1), 105-119.
- 이재성 · 문영경 · 최협임(2012).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1(2), 233-246.
- 이정윤 · 이정아(2004). 초등학교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16(2), 261-276.
- 이현철 · 최성보 · 김경식(201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습태도와의 관계: 부모의 애정, 감독, 과잉기대 및 간섭, 합리적 설명 태도를 중심으로**. 제1회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171-186.
- 임선아(2013). 민주적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자존감, 학교적응에 미치는 구조모형 비교: 저소득층 아동과 비저소득층 아동. **교육심리연구**, 27(1), 125-142.
- 임선아(2014). 부모의 민주적, 비민주적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학교적응력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초등교육연구**, 27(2), 73-93.
- 장영애 · 박정희(2008).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2), 69-85.
- 정미영 · 문혁준(2007).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8(5), 37-54.
- 정유진(1999).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의 관련 변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제영 · 강태훈 · 김성기 · 류성창 · 이덕난 · 이주연 · 황준성(2013). **정규학교 학업중단학생 지원사업 정책 연구**.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 조은정(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5(1), 35-50.
- 조호운 · 김재철(2011). **부모의 과잉적 양육행동, 청소년의 행복감, 공동체意識,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제1회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21-35.
- 최지은 · 신용주(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하명선 · 이순복(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3), 247-258.
- 하현주 · 박원보 · 박명숙 · 천성문(2008).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7(1), 1-19.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Hoffman, M. L. & Hoffman, L. W.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169-208.
- Baumrind, D. (1991).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 Development. 746-758. In Richard, M., Lerner, A., Peterson, C., & Jeanne, B. G.(eds). *Encyclopedia of adolescence*.
- Schaefer, E. (1965).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384.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권혜진*·정혜옥**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초1 패널의 1,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이 아동특성변인(성별, 정서문제,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인(부모 교육수준, 부모 취업여부, 가정 연소득), 가정의 사회문화자본 변인(양육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는 첫째, 취학 전 사교육 경험에 따라 아동 특성 변인 중 정서문제와 자아탄력성에서 차이가 있었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 중 부모 취업여부와 가정 연소득에서 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가정의 사회문화자본 변인인 양육태도 중 감독에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취학 전 사교육 경험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그러나 아동특성변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인, 가정의 사회문화자본 변인을 통제했을 때,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은 자아탄력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두 번째는 정서문제, 세 번째는 애정적 양육태도, 다음으로 합리적 설명을 동반한 양육태도, 성별, 삶의 만족도, 과잉기대를 가진 양육태도, 어머니 취업 여부, 가정 연소득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는 취학 전 사교육 경험보다 높은 자아탄력성, 부모와 아동 간에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통한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 등이 더욱 중요함을 논하였다.

주제어: 취학 전 사교육 경험(experience in private education during preschool), 학교생활적응(adjustment in school lif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사람은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집단에 소속되며 그 안에서 적응하면서 집단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된다. 학교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회구성원이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가는 역할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관이며 (노원재, 2006), 학생은 학교 안에서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적응의 경험을 해나간다. 아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hwchung@ewha.ac.kr

동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경험은 향후 성인이 되어 새로운 사회집단에 적응할 수 있는 경험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크게 아동 특성 변인, 가정 관련 변인, 학교 관련 변인, 사회 관련 변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특성 변인으로는 아동의 성별, 우울, 주의집중, 공격성,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능력,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 스트레스 등이 연구되어 왔고(강정혜, 2009; 곽정중, 2009; 김광영, 1999; 김산옥, 2012; 김정선, 2002; 김혜진, 2008; 김희영, 2009; 노미숙, 2003; 노원재, 2007; 박명선, 2011; 박미향, 2014; 이경미, 2011; 이현림, 천미숙, 2003; 정혜선, 2012), 가정 관련 변인으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애착, 부모 의사소통유형 등이 연구되어 왔다(고은희, 2008; 김금자, 2009; 김수진, 김혜숙, 2011; 김승봉, 2005; 김혜영, 2011; 모정은, 2011; 이은자, 2004; 이은영, 2004; 신정희, 2007; 정은하, 2006; 조윤미, 2008; 홍진희, 2013). 학교 관련 변인으로는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 또래와의 애착, 교사 행동, 교사와의 의사소통 등이 연구되어 왔으며(곽혜영, 2009; 문호영, 2005; 홍성훈, 김희수, 2005), 사회 관련 변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사회문화자본, 방과 후 활동 경험 등이 연구되어 왔다(양유림, 2013; 이경남, 2004; 하현주, 2007).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아동이 학교생활에 원활히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주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여러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며, 더욱이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학교생활 이전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아동 특성 요인과 가정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교육이란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 학교 밖에서 보충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통계청, 2014). 학업적 성취를 중요시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 상, 현재 많은 아동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에서 전국 초·중·고재학생과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비 조사 통계에서 2013년 기준 전체 사교육 참여율은 68.8%였고, 초등학생은 81.8%, 중학생은 69.5%, 고등학생은 49.2%가 사교육에 참여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원이었다(통계청, 2014). 이러한 사교육 참여비율과 사교육비 지출은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최미나, 2007). 이렇듯 높은 교육열은 점차적으로 한국의 사교육에 대한 대상 연령이 하향화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최근 취학 전 유아들을 대상으로 많은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의하면 2008년 기준 만 3세부터 만 5세 유아 중 74.3%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이들의 평균 사교육 이용 금액은 30.52만원이며 이것은 같은 해 초·중·고등학생의 1인

당 월평균 사교육비인 23.30만원보다 높은 금액이다(권경림, 2011). 이는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을 통해 선행 학습 효과를 가지고 향후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모의 기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적어 구체적으로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향후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아동 특성 변인(성별, 정서문제,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과 가정과 관련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부모 교육수준, 부모 취업유무, 가정 연소득) 및 가정의 사회문화자본변인(양육방식)이 취학 전 사교육 경험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설정된 변인 중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아동의 원활한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언하고,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은 아동 특성 변인(성별, 정서문제,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휴대폰 의존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부모 교육수준, 부모 취업유무, 가정 연소득), 가정의 사회문화자본 변인(양육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 2-1. 취학 전 사교육 경험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차이가 있는가?
 - 2-2. 아동 특성 변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 가정의 사회문화자본 변인을 단계적으로 통제한 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각 변인은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데이터¹⁾ 중 초등학교 1학년

1)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 기준 전국의 초1, 초4, 중1학년생을 대표하는 패널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향후 7년 간 매해 1회 개인의 성장 및 발달과 환경 등에 대해 반복·추적 조사하는 종단면조사이다(한국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2014). 본 연구에서 사용한 4차년도 데이터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 참가해 제공받았으며, 1차년도~3차년도 데이터는 한국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에서 열람가능하다.

을 대상으로 한 1차년도 데이터의 초등학교 1학년 보호자용 자료, 4차년도 데이터의 초등학교 4학년 보호자용 자료와 아동용 자료를 사용하였다. 취학 전 사교육 경험(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과 관련한 데이터는 초등학교 1학년 1차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그 외의 변인들은 초등학교 1학년 4차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의 1, 4차년도 설문지에 모두 응답한 2,042명이다.

2. 측정도구

1)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아동의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사교육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사항에 직접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 취학 전 주당 사교육시간, 취학 전 사교육방식, 취학 전 사교육 시작연령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사교육방식은 객관적인 처리가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주당 사교육 시간 및 사교육 시작연령은 본 연구의 통계처리결과 무의미하게 나온 항목이 많아 최종 보고서에서 제외하여서 최종적으로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에 관한 문항만을 분석하였다. 문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 문항 및 하위요인 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구성
취학 전 사교육 경험	경험 유무	13	유, 무 표시(없는 경우 하위문항 작성하지 않음)

본 연구에서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는 초1 1차년도 보호자용 자료를 살펴보았으며 경험이 있을 경우 1, 없을 경우 0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2) 학교생활적응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문선모(1977)의 학교생활적응 척도와 이상필(1990)의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문항을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제작한 초등학생용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 중 학교행사 관련문항(5문항)을 제외한 뒤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20 문항으로 각 문항은 아동이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질문 내용에 따라 4점 Likert 척도인 ‘매우(항상)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생활적응 척도 문항이 부정문으로 진술되어 있으므로 모든 문항을 역채점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산출해 보니 신뢰도를 크게 낮추는 2문항이 나타나 이를 삭제하여 신뢰도를 높인 18문항을 최종적으로

로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학교생활적응 측정도구의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는 도구와 각 하위요인의 문항번호 및 문항 수,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학교생활적응 측정 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학교생활 적응	학습활동	13-1, 13-2, 13-3, 13-4	4	.75
	학교규칙	13-6, 13-7, 13-8, 13-9, 13-10	5	.81
	교우관계	13-11, 13-12, 13-13, 13-15	4	.73
	교사관계	13-16, 13-17, 13-18, 13-19, 13-20	5	.86
	전체		18	.91

3) 아동 특성 변인

(1) 성별

본 연구에서는 아동 특성 변인 중 하나로 아동의 성별을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 여아가 남아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정유진, 1999). 따라서 아동의 성별은 학교생활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대해 보호자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남아는 1, 여아는 2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와 4차년도 자료를 비교·확인한 뒤 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정서문제

아동의 정서문제 척도는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의 정서문제 측정 척도 중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은 조봉환,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사회적 위축은 김선희, 김경연(1998)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우울은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중 우울척도 13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한 뒤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36문항으로 각 문항은 보호자가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 내용에 따라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문제 척도 문항이 부정문으로 진술되어 있으므로 모든 문항을 역채점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본 연구 대상의 정서문제 측정도구의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다. 정서문제를 측정하는 도구와 각 하위요인의 문항번호 및 문항수,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정서문제 측정 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정서문제	주의집중	6-1, 6-2, 6-3, 6-4, 6-5, 6-6, 6-7	7	.80
	공격성	6-8, 6-9, 6-10, 6-11, 6-12, 6-13	6	.81
	신체증상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8	.84
	사회적 위축	6-22, 6-23, 6-24, 6-25, 6-26	5	.86
	우울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10	.89
	전체		36	.93

(3) 자아탄력성

아동의 자아탄력성 척도는 자아인식 측정 척도의 4개 하위 영역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에 의해 자아인식 측정 척도 중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 초1 4차년도 아동용 자료에서 분석이 가능한 자아탄력성을 아동 특성 변인 중 하나로 보고 분석하였다. 아동의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 & Kremen(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 심혜원(2002)이 번안하였고, 권지은(2003)에 의해 수정·보완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아동이 직접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질문 내용에 따라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탄력성 척도 문항에 대한 답변이 긍정적일 수록 낮은 점수로, 부정적일수록 높은 점수로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모든 문항을 역채점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자아탄력성 측정도구의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척도의 문항번호 및 문항수,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자아탄력성 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자아탄력성	7-1, 7-2, 7-3, 7-4, 7-5, 7-6, 7-7, 7-8, 7-9, 7-10, 7-11, 7-12, 7-13, 7-14	14	.90

(4) 삶의 만족도

아동의 삶의 만족도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에서 삶의 목표/만족도 측정 척도의 2개 하위 영역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에 의해 삶의 목표/만족도 측정 척도 중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서 초1 4차년도 아동용 자료에서 분석이 가능한 삶의 만족도를 아동 특성 변인 중 하나로 보고 분석하였다.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김신영 외(2006)의 행복함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총 3문항으로 되어 있다. 문항은 아동이 직접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질문 내용에 따라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삶의 만족도 척도

문항에 대한 답변이 긍정적일 수록 낮은 점수로, 부정적일수록 높은 점수로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모든 문항을 역채점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삶의 만족도 측정도구의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와 문항번호 및 문항수,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 삶의 만족도 측정 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삶의 만족도	8-1, 8-2, 8-3	3	.80

4) 가정 관련 변인

(1)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

① 부모의 최종학력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 중 하나로 부모의 최종학력을 분석하였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중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와 관련된 측면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유경희, 2010).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보호자의 최종학력에 대해 ‘중졸 이하(1)’, ‘고졸(2)’, ‘전문대졸(3)’, ‘대졸(4)’, ‘대학원졸(5)’, ‘해당사항 없음(6)’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이 중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부모가 아닌 보호자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였다. 점수변환은 중졸 이하는 9, 고졸은 12, 전문대졸은 14, 대졸은 16, 대학원졸은 18의 값을 부여하여 교육연한으로 변경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② 부모의 취업 여부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 중 하나로 부모의 취업 여부를 분석하였다. 취업 모 가정의 경우, 아동의 또래 관련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이미기, 2006). 따라서 부모의 취업 여부 중 특히 모의 취업 여부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취학 전 사교육 경험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에서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취업 여부에 대해 ‘일을 하고 있다(1)’, ‘일을 하고 있지 않다(2)’, ‘해당사항 없음(3)’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이 중 보호자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뒤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1,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를 0, 해당사항 없음을 99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③ 가정 연소득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 중 하나로 가정 연소득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가정에 월 소득이 많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중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측면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유정희, 2010), 아동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가정생활 수준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혜영, 201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에서는 가정의 연소득에 대해 지난 1년간 가정 소득을 근로소득, 이자소득, 재산 및 임대소득과 연금, 각종 보조금, 개인적으로 받은 돈 등을 모두 합산하여 세후 금액으로 보호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2) 가정의 사회문화자본 변인

① 양육방식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문화자본 변인으로 양육방식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아동의 양육방식 측정 척도는 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의 양육방식 측정 척도는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 43문항을 활용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패널 연구진이 원척도의 부와 모 각각에 대한 질문을 부모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한 후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21문항으로 각 문항은 아동이 직접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 내용에 따라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양육방식 척도 문항에 대한 답변이 긍정적일 수록 낮은 점수로, 부정적일수록 높은 점수로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모든 문항을 역채점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양육방식을 측정하는 도구와 각 하위요인의 문항번호 및 문항수,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양육방식 측정 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양육방식	감독	11-1, 11-2, 11-8	3	.70
	애정	11-3, 11-12, 11-15, 11-19	4	.84
	비밀관성	11-9, 11-13, 11-14	3	.63
	과잉기대	11-4, 11-7, 11-10, 11-16	4	.65
	과잉간섭	11-5, 11-6, 11-17, 11-20	4	.69
	합리적 설명	11-11, 11-18, 11-21	3	.77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첫째, 취학 전 사교육 경험과 아동 특성 변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인, 가정의 사회문화자본변인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과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취학 전 사교육 경험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교육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회귀분석 실시를 위

한 사전 단계로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고, 이어서 네 단계에 걸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동 특성 변인을 투입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인을 추가적으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두 번째 회귀 모형에 가정의 사회문화자본 변인을 추가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최종적 회귀모형에 따라 아동 특성 변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인, 가정의 사회문화자본변인, 사교육 경험 변인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최종적 회귀 모형을 통해 사교육 경험 및 다른 변인들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일반적 영향력 및 상대적 영향력을 검토하였고 결정계수의 변화량을 통해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VIF값을 살펴보았으며 자기 상관 여부는 Durbin-Watson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Ⅲ. 연구결과

1. 아동특성,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의 사회문화자본에 따른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차이

아동 특성 변인(성별, 정서문제,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부모 교육연한, 부모 근로여부, 가정 연소득), 가정의 사회문화자본 변인(양육태도)에 따라 사교육 경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1) 아동 특성

(1) 아동 성별과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아동 성별에 따라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아동 성별과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 간의 교차표

N(%)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성별		계(행의 합)
	남	여	
있음	763(72.9)	712(71.6)	1,475(72.2)
없음	284(27.1)	283(28.4)	567(27.8)
계(열의 합)	1,047(100.0)	995(100.0)	2,042(100.0)
χ^2 검증	$\chi^2=0.44, df=1$		

아동 성별과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 간 빈도는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있는 남아가 763명(72.9%),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없는 남아가 284명(27.1%)으로 나타났고,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이 있는 여아가 712명(71.6%),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없는 여아가 283명(28.4%)으로 나타났다. 이를 합산하면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이 1,475명(72.2%)이고,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이 567명(27.8%)으로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이 월등히 많았다. 아동의 성별에 대한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의 빈도를 χ^2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chi^2=0.44$, $p>.05$). 즉 아동 성별에 따라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에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 정서문제와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아동의 정서문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아동의 정서문제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정서문제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전체
있음	<i>M</i>	1.85	1.66	1.64	1.90	1.45	1.67
	<i>SD</i>	0.57	0.54	0.55	0.72	0.50	0.44
없음	<i>M</i>	1.91	1.70	1.67	2.00	1.49	1.72
	<i>SD</i>	0.53	0.52	0.56	0.69	0.49	0.44
<i>t</i>		-2.22*	-1.69	-1.30	-2.78**	-1.53	-2.35*

* $p<.05$, ** $p<.01$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의 정서문제 전체 평균이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낮았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35$, $p<.05$). 따라서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이 정서문제와 관련한 부적 행동 증상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정서 문제의 하위 요소 별로 보면, 주의집중($t=-2.22$, $p<.05$)과 사회적 위축($t=-2.78$,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집단이 주의집중, 사회적 위축의 문제행동증상이 더 적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3) 자아탄력성과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집단 유무에 따라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아동의 자아탄력성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자아탄력성
있음	<i>M</i>	3.00
	<i>SD</i>	0.56
없음	<i>M</i>	2.95
	<i>SD</i>	0.53
<i>t</i>		2.00*

* $p < .05$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아동의 자아탄력성차이를 살펴본 결과, 취학 전 사교육 경험에 있는 아동 집단의 자아탄력성의 평균은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 집단의 자아탄력성 평균보다 높았으며,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00$, $p < .05$). 따라서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4) 삶의 만족도와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아동의 삶의 만족도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삶의 만족도
있음	<i>M</i>	3.46
	<i>SD</i>	0.59
없음	<i>M</i>	3.42
	<i>SD</i>	0.56
<i>t</i>		1.22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아동의 삶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취학 전 사교육 경험에 있는 아동 집단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 집단의 삶의 만족도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1) 부모 교육연한과 취학 전 사교육 경험

부모의 교육연한과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 간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부모의 교육연한

취학 전 사교육 경험		부 교육연한	모 교육연한
있음	<i>M</i>	14.19	13.77
	<i>SD</i>	2.08	1.85
없음	<i>M</i>	14.06	13.73
	<i>SD</i>	2.07	2.03
<i>t</i>		1.28	.37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 집단의 아버지 교육연한(14.19년)이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 집단의 아버지 교육연한(14.06) 보다 높았다. 또한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어머니 교육연한(13.77년)이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없는 어머니 교육연한(13.73년) 보다 높았다. 그러나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연한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부모의 교육연한에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 부모 취업 여부와 취학 전 사교육 경험

① 부모 취업 여부와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

아버지 취업여부와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 부 취업 여부와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 간의 교차표

N(%)

취학 전 사교육 경험	부 취업여부		계 (행의 합)
	취업	미취업	
있음	1,438(73.6)	12(40.0)	1,450(73.1)
없음	516(26.4)	18(60.0)	534(26.9)
계(열의 합)	1,954(100.0)	30(100.0)	1,984(100.0) ¹⁾
χ^2 검증	$\chi^2=16.95^{***}, df=1$		

1) 편부 혹은 편모 가정의 경우 결측치가 존재하였고 이는 분석에서 제외됨

****p* < .001

아버지 취업여부와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 간 빈도는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있으면서 아버지가 취업한 경우가 1,438명(73.6%),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없으면서 아버지가 취업한 경우가 516명(26.4%)로 나타났다. 또한 취학 전 경험이 있으면서 아버지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는 12명(40.0%),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없으면서 아버지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는 18명(60.0%)이었다.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6.95, p < .001$). 즉 취업 아버지를 둔 아동이 미취업 아버지를 둔 아동보다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 취업 여부와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모 취업 여부와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 간의 교차표

N(%)

취학 전 사교육 경험	모 취업여부		계 (행의 합)
	취업	미취업	
있음	858(70.2)	598(77.0)	1,456(72.8)
없음	364(29.8)	179(23.0)	544(27.2)
계(열의 합)	1,222(100.0)	777(100.0)	2,000(100.0) ¹⁾
χ^2 검증	$\chi^2=13.60^{**}$, $df=2$		

1) 편부 혹은 편모 가정의 경우 결측치가 존재하였고 이는 분석에서 제외됨

** $p < .01$

어머니 취업여부와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 간 빈도는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있으면서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가 858명(70.2%),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없으면서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가 364명(29.8%)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학 전 경험이 있으면서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는 598명(77.0%),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없으면서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는 179명(23.0%)이었다.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3.50$, $p < .01$). 따라서 미취업 어머니를 둔 아동이 취업 어머니를 둔 아동보다 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3) 가정 연소득과 취학 전 사교육 경험

가정 연소득과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 간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14와 같다.

표 14 가정 연소득에 따른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 차이

취학 전 사교육 경험		가정 연소득
있음	M	5105.70
	SD	2662.36
없음	M	4338.26
	SD	2243.83
t		6.00***

*** $p < .001$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 집단의 가정 연소득 평균은 5105.70만원으로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 집단의 가정 연소득 평균인 4338.26만원보다 높았다.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6.00$, $p < .001$). 즉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가정 연소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 가정의 사회문화자본

(1) 양육태도와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양육태도와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 간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5와 같다.

표 15 양육태도에 따른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차이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양육태도					
		감독	애정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설명
있음	M	3.50	3.36	2.39	2.63	2.19	3.16
	SD	0.56	0.60	0.76	0.68	0.69	0.67
없음	M	3.38	3.31	2.38	2.57	2.19	3.12
	SD	0.58	0.57	0.74	0.66	0.66	0.67
t		4.08***	1.54	.29	1.66	.18	1.31

* $p < .05$, *** $p < .001$

양육태도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과잉간섭을 제외한 모든 하위 영역에서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 집단의 평균이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 집단의 평균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양육태도의 하위영역 중 감독에서만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이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 집단의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08$, $p < .001$). 즉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집단이 감독과 관련한 양육태도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2.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1)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6과 같다.

표 16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취학 전 사교육 경험		학교생활적응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전체
있음	M	3.27	3.30	3.27	3.26	3.27
	SD	0.54	0.52	0.53	0.64	0.46
없음	M	3.15	3.21	3.18	3.24	3.20
	SD	0.53	0.51	0.52	0.60	0.44
t		4.34***	3.53***	3.41**	.67	3.38**

** $p < .01$, *** $p < .001$

학교생활적응 전체에서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의 평균은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38, p<.01$). 따라서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집단이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고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 중 학습활동($t=4.34, p<.001$), 학교규칙($t=3.53, p<.001$), 교우관계($t=3.41,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 집단이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 집단보다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에서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2) 취학 전 사교육 경험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1) 취학 전 사교육 경험과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에 앞서서, 두 변인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7과 같다.

표 17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와 학교생활적응 간 상관관계

구 분	취학전사교육 경험유무	학 교 생 활 적 응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전체
취학 전 사교육 경험유무	-					
학습활동	.09**	-				
학교 규칙	.07**	.67**	-			
교우 관계	.07**	.60**	.55**	-		
교사 관계	.01	.55**	.51**	.54**	-	
전 체	.07**	.83**	.82**	.79**	.82**	-

** $p<.01$

아동의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와 학교생활적응 중 학습활동($r=.09, p<.01$), 학교규칙($r=.07, p<.01$), 교우관계($r=.07, p<.01$), 학교생활적응 전체($r=.07, p<.01$)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이 학교생활적응 중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학교생활적응 전반에서 더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2)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8과 같다.

표 18 ▶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성별	.11*** (0.01)	.10*** (0.01)	.10*** (0.01)	.10*** (0.01) [.11]
정서문제	-.28*** (0.02)	-.28*** (0.02)	-.23*** (0.02)	-.23*** (0.02) [-.23]
자아탄력성	.31*** (0.01)	.30*** (0.01)	.20*** (0.01)	.20*** (0.01) [.25]
삶의만족도	.13*** (0.01)	.12*** (0.01)	.06*** (0.01)	.06*** (0.01) [.08]
부교육연한		.00 (0.00)	.00 (0.00)	.00 (0.00) [.01]
모교육연한		.01 (0.00)	.00 (0.00)	.00 (0.01) [.01]
부취업여부		-.03 (0.07)	-.02 (0.06)	-.03 (0.06) [-.00]
모취업여부		-.05** (0.01)	-.04** (0.01)	-.04** (0.01) [-.04]
가정연소득		0.00* (0.00)	0.00* (0.00)	0.00* (0.00) [.03]
감독			.08*** (0.01)	.08*** (0.01) [.10]
애정			.13*** (0.01)	.13*** (0.01) [.17]
양육 태도			.00 (0.01)	.00 (0.01) [.00]
비일관성			.04** (0.01)	.04** (0.01) [.07]
과잉기대			.00 (0.01)	.00 (0.01) [.00]
과잉간섭			.08*** (0.01)	.08*** (0.01) [.11]
합리적설명				
취학전 사교육경험유무				.02 (0.01) [.02]
R^2	.45	.46	.54	.55
Adj. R^2	.45	.46	.54	.54
N	2,041	1,904	1,904	1,904

1) () 안의 값은 비표준화계수의 표준오차임

2) [] 안의 값은 회귀모형의 표준화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

1단계 회귀모형에서 아동 특성 변인으로 투입된 아동의 성별, 정서문제,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모두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더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며, 정서문제가 낮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동 특성 변인은 학교생활적응의 45%를 설명하고 있다.

2단계 회귀모형에는 가정의 경제적 지위 변인인 부모의 교육연한, 부모의 취업여부, 가정 연소득 변인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2단계 회귀모형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46%를 설명하여 전 단계에 비하여 1.0%의 설명량(R^2)의 증가를 보였으며, 아동 특성 변인에서의 통계적인 유의도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가정의 사회경제지위 변인 중에서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가정 연소득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취업을 하지 않을수록, 가정 연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이 학교생활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 회귀모형에는 가정의 사회문화자본 변인인 양육태도 변인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3단계 회귀모형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54%를 설명하여 전 단계에 비하여 8%의 설명량(R^2)의 증가를 보였다. 아동 특성 변인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인의 통계적인 유의도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며 3단계에서 제시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 애정, 과잉기대, 합리적 설명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에 대해 감독을 할수록, 애정적일수록, 합리적 설명을 할수록, 더 많이 기대할수록 아동이 학교생활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단계인 4단계 회귀모형에는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 변인이 추가되었다.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가 추가되었지만 설명량(R^2)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다른 변인들이 통제되었을 때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화 계수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자아탄력성의 영향이 가장 컸고, 두 번째는 정서문제의 영향이 컸고, 세번째로 양육태도 중 애정의 영향이 컸으며, 다음으로 양육태도 중 합리적 설명, 아동 성별, 양육태도 중 감독, 삶의 만족도, 양육태도 중 과잉기대, 어머니 취업여부, 가정 연소득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아동 특성,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의 사회문화자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아동 특성 변인 중 정서문제 및 자아탄력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 집단이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 집단보다 정서문제와 관련한 문제행동증상이 적게 나타났고,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남희, 백혜정, 김현신(2005)의 연구에서 과도한 조기 사교육은 유아의 정서적 발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대치되나,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아동들이 그 상황을 스트레스로 지각하면서도 그것을 잘 대처하는 잠재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안미란(2009)의 연구결과에서 이러한 현상의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취학 전 사교육은 유아기의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오히려 아동이 적절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자신을 잘 제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문제와 관련한 문제행동증상이 더 적게 나타나며,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일 경우에 해당하며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아동의 정서 및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조기 사교육을 경험한 유아가 사회성 측면에서 주변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하고 자기 과시 경향이 있다고 나타난 한수미(2008)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 집단이 자신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을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 중 부모 취업 여부 및 가정 연소득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 집단 부모가 모두 취업한 경우가 많았으며, 가정 연소득이 높았다. 이는 김은정(2007)의 연구에서 부모의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교육적 투자에 따르는 혜택을 누리는 계층은 자녀의 교육적 투자를 더 많이 해서 그 혜택과 이득을 지속하려한다는 양정선, 김순미(2003)의 연구결과에서 이러한 현상의 근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만 3세부터 만 5세 유아의 평균 사교육 이용 금액이 30.52만원이며 이는 같은 해 초·중·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인 23.30만원보다 높은 금액이라는 권경림(2011)의 연구결과로 미루어볼 때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은 더 높은 맞벌이 가정의 부모가 외벌이 가정의 부모보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교육이 아동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김은정(2007)의 연구결과와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남희 외(2005)의 연구결과로 미루어볼 때,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사교육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많은 부모들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가정의 사회문화자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가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 집단의 부모가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 집단의 부모보다 자녀에 대해 감독하는 양육 형태를 보였다. 이는 김보림, 엄정애(2007)의 연구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의 발달에 대해 부모나 외부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자녀의 조기 사교육으로 이어진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발달을 위해 아동의 유전적 요인과 같은 내적 요인보다 부모의 영향을 더 중시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유아기 사교육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취학 전 사교육은 아동이 끈기가 없고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는 우남희 외(2005)의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 주어진 과업을 성인의 지시에 의해 수행하게 하는 사교육 경험보다는 아동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었다. 즉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 집단이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 집단보다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성식(2013)의 연구에서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성적 향상을 지각한다는 연구결과와 일부 맥을 같이 한다. 즉 사교육을 통해 학교 수업을 통해 학습할 내용을 미리 학습함으로써 학업적 성취에 대해 만족감을 가져 학교생활적응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성적 향상을 지각하는 것과는 달리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동기부여가 되지 못해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어성식(2013)의 연구결과와 사교육 개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학습동기가 낮고 스트레스가 높다는 안미란(2009)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을 통한 선행학습이 이후 학교생활적응 중 학습활동 측면에서 아동에게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은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부모에게 표현하기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부모의 의견에 맞추어 사교육의 세부 사항이 결정되기 쉽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동은 미취학 시기부터 부모의 의견 혹은 사교육 기관의 성인의 지시를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지고 이는 학교생활적응 중 학교규칙에 관련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에만 익숙한 아동은 주어진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고 따르기만 하거나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취학 시기부터 아동에게 다양한 사회적 규칙에 대해 알려주고 그것을 스스로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학교규칙을 비롯한 사회적 규칙의 의미와 역할, 필요성 등에 대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으로 또래와의 놀이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아동들이 사교육 기관을 통해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만남을 유지하게 되어 아동의 주당 사교육 시간과 또래관련 스트레스 간에는 관계가 없다는 김아연(2011)의 연구결과에서 본 연구의 학교생활적응 중 교우관계와 관련된 결과가 나타난 근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셋째,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 특성 변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 가정의 문화자본 변인을 통제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앞의 첫째, 둘째의 연구결과는 아동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인을 동시

에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취학 전 사교육 경험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만을 분석한 결과로서, 실제 생활에서는 여러 변인들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두 변인의 관계만을 분석한 결과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학교생활적응과 관련이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초등학교 진학 전에 사교육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초등학교 준비를 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의 효과에 대한 반증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두 번째는 정서문제, 세 번째는 애정적 양육태도로 나타났고, 그 밖에 성별, 삶의 만족도, 어머니 취업 여부와 가정 연소득과 같은 가정의 사회적 지위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동의 자아탄력성이나 정서문제, 애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적 경험과 부모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받음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이 아닌 부모의 아동에 대한 역할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취학 시기 아동과 부모가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이후 학교생활적응 역시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분석 가능한 자료로 제한된 변인만이 투입되었고,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학교 관련 변인과 사회 관련 변인은 포함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누락된 학교 관련 변인과 사회 관련 변인들을 통제하여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탄력성, 정서문제, 애정적 양육태도, 삶의 만족도 등이 밝혀졌으나, 이들 변인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이들 변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밝힌다면 더 깊이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의 특성 상 대상자가 초등학교 4학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종단 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드러난 변인들이 이후 아동의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의 학교생활적응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정혜. (200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은희. (2008).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인식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정중. (2009).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혜영. (2009). **아동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스트레스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경림. (2011). **유아 사교육 이용 및 지출 실태와 영향 요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지은. (2003).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영. (1999).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가정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금자. (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림, 엄정애. (2007). 유아 조기특기교육의 실태와 어머니 양육신념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8), 13-24.
- 김산옥. (2012). **청소년기 학교스트레스와 자기조절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수진, 김혜숙. (2011).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2, 203-221.
- 김승봉. (2005).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동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청소년발달지표조사 1,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아연. (2011). **아동의 사교육 경험, 자아탄력성 및 부모·또래애착과 일상적 스트레스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2007).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부모-자녀 관계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41(5), 134-162.
- 김정선. (2002). **초등학교아동의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 (2011). **가족관련변인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진. (2008). **아동의 주의력과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의 관계**.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영. (200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미숙. (2003).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와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원재. (2006).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선모. (1977). **학생의 배경적 특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학생지도연구 제 3집.
- 모정은. (2011). **초등학생 모의 모애착, 아동의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호영. (2005). **학생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와의 의사소통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선. (2011).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향. (2014). **청소년의 공격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정희. (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미란. (2009). **서울 사교육 과열지역 초등학생의 학습동기 유발과 스트레스 비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유림. (2013). **청소년의 방과후 학교 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정선, 김순미(2003).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에 관한 연구: 사교육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5), 221-232.
- 여성식. (2013). **사교육 학습이 수업 집중도와 성적 향상 지각에 대한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남희, 백혜정, 김현신. (2005). 초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학회**, 25(1), 5-25.
- 유경희.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환경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학연구**, 16(4), 189-206.
- 이경남. (2004).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미. (2011). **여고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존감, 우울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기. (2006). **취업모 가정 아동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필. (1990). **학교생활 적응수준에 따른 학업성적 및 행동특성의 차이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자. (200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정생활 및 학교 적응과의 관계**.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 (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초등 학교 고학년층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림, 천미숙. (2003).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분석. **한국청소년학회**, 10(4), 511-541.
- 정유진. (1999).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의 관련 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하. (2006). **아동이 지각한 교사행동과 부모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선. (2012). **초등학교 학생들의 행복감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윤미. (2008).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나. (2007). **사교육 경험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4). **2013 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 저자: 대한민국.
- 한수미. (2008). **유아의 방과후 사교육 경험 및 어머니의 성취압력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현주. (2007).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훈, 김희수. (2005).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과 학생의 애착안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36(1), 33-53.
- 홍진희. (2013).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제 2 주제

학교폭력

- 1 학교폭력 중복지험 학생의 특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학교폭력 유형별 집단비교를 중심으로
- 2 청소년의 학교폭력 집단 결정 요인 분석 연구: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을 중심으로
- 3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과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중복경험 학생의 특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학교폭력 유형별 집단비교를 중심으로

이수림*·고정은**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중복경험의 학생집단을 중심으로, 가해, 피해, 비경험 집단과 비교하여 학교생활적응 양상을 파악하고,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여 중복 경험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그들의 학교생활적응과 학교폭력 개입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통해 수집된 중학교 1학년 2,092명이었다. 연구문제 검증에 위해 가해집단, 피해집단, 중복집단, 비경험집단 간의 학교생활적응 및 관련 변인들의 차이가 있는지 다변량분산분석을 수행하였고,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중복경험 학생들은 학교생활적응 및 하위요인에서 교사관계를 제외한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에서 다른 집단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 가족요인, 친구요인들에서 학교폭력 경험 유형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중복경험 학생들은 다른 집단 학생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요인에서 학대를 더 많이 받고, 긍정적 양육을 접하지 못하고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학교폭력 경험 집단 유형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이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는데, 중복경험 집단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자아탄력성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학교폭력 중복경험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학교폭력 중복경험, 학교생활적응, 자아탄력성, 청소년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학교폭력은 학교와 학교주변에서 학생과 학생 사이에 힘이 불균형한 상태로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공격행위로 정의(이혜원 외, 2009)내릴 수 있다. 학교폭력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인 Olweus(1994)는 ‘bullying’이라는 용어를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반복해서 노출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힘의 불균형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학교폭력은 학교내외에서 한명 또는 그

* 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 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rhdms@daum.net

이상의 학생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의도적인 공격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를 의미한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학교폭력’은 익숙해진 용어로 각종 매체, 인터넷,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용어가 되었다.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한 전인간적 성장을 담당해야 하는 학교는 폭력이 자행되는 곳으로 갈등과 고통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지어 새 정부에서는 폭력문제에 대한 학교의 자정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할 ‘사회악’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학교폭력이라는 현상은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 가정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지게 하고 있다. 과거 학생들간의 문제로 간과되던 학교폭력의 파급영향은 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들의 상처와 고통으로 이어지고, 학교의 교사 및 학급의 학생들 역시 상처를 공유하게 되어 이제 학교폭력의 문제는 일부 특정 학생이나 그 가족들이 감당할 문제로 축소하고 외면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확대되었다.

이제 학교폭력은 학생들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하여 접근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학교폭력의 상황 안에서 학교폭력의 가해경험과 피해를 모두 경험한 중복 경험자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장덕희, 2007), 일부 가해학생들의 경우 장시간에 걸쳐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Vossekkuli, Reddy, Fein, Borum, & Modzeleski, 2000; 이익섭, 최정아, 2008 재인용). 청소년 폭력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엄격히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자라고 볼 수 없으며 가해자의 일부는 다른 경우에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박순진, 2009).

특히 학교폭력 중복경험의 학생들은 학교폭력 가해 또는 피해만을 경험하는 학생들보다 심각한 폭력을 경험하기도 한다. 학교폭력 피해집단보다 중복집단이 경험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크며, 학교폭력 중복경험을 한 집단은 가해집단에 비해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에서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보고되었다(장덕희, 2007). 중복경험의 학생들은 폭력의 심각성 측면에서 가해만 경험한 경우보다 폭력의 가해정도가 더 높을 뿐 아니라 피해만 경험한 경우보다 폭력의 피해 정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장 심각한 폭력의 경험을 가진 집단으로 나타났다(신혜섭, 2005).

이렇듯 학교폭력안에서 중복경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다른 유형집단과 비교했을 때 폭력의 문제와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양분하여 학교폭력의 유형, 현황, 심리사회적 특성 및 피해 및 가해요인, 문제 상태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학교안에서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를 순환 경험하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두고,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실제적인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학교폭력 문제는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주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중도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경우 우울, 불안, 공포감 등의 심리적인 문제와 함께 학교안에서 적응상의 문제로 인한 교육기회상실,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겪게 되며(Olweus, 1994),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한 피해 학생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폭력에 대한 불안은 공포감으로 발전함으로써 학업성취, 학교규범준수, 학교에 대한 흥미수준이 떨어져 학교적응상의 어려움을 보이게 된다(성지희, 정문자, 2007).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의 현황이나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 연구의 방향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심각성이나 문제중심의 연구주제를 넘어서 학교생활적응이라는 학생들의 현실적인 과업에 초점을 맞춰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개인, 가족, 친구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중복경험 학생들을 이해하고,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의 중복경험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른 집단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특성을 이해하고,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탐색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에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해와 피해 중복경험의 학생집단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가해, 피해, 비경험 집단과 비교하여 학생들의 개인, 가족, 친구요인 관련 특성을 이해하고,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여 중복경험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학교폭력 개입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학교폭력의 가해와 피해의 중복경험에 노출된 학생들의 폭력의 역기능적 순환 고리를 끊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생활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폭력 중복경험¹⁾

학교폭력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어 일부 특정학생이나 그 가족들이 감당할 문제로 축소하고 외면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확대되었다. 학교폭력의 결말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할로 연관된 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학급안의 교사와 학생들 역시 학교폭력의 둔감자 혹은 방관자로 문

1)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가해와 피해의 중복경험 집단에 대한 표현으로 ‘가/피해’, ‘가해/피해’, ‘가해자/피해자’, ‘피-가해’, ‘피해-가해’ 등으로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가해피해 중복경험’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오랜기간 가족들의 상처와 고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학교 폭력 현상은 갈수록 저연령화 되어 가고 있어 초등학생 사이의 학교폭력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김성이 외, 2010), 학교폭력은 학교안에서 일상화되어 가며 이제 일부 비행학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모든 학생에게 쉽게 발견되는 행동이다(곽금주, 2008).

최근 조명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주요 경향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분리된 역할이 아닌 가해와 피해의 경험을 순환적으로 경험하는 중복경험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청소년 폭력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엄격히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자라고 볼 수 없으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분법적으로 파악해서는 청소년 폭력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임신일, 이정미, 2013).

학교폭력의 가해와 피해는 동일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결과로 나타나며,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가해 경험도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김선애, 2007). 가해와 피해 중복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한 쪽만 경험한 경우에 비해 심리사회적 환경이 취약하고 폭력경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최진영, 2012). 가해피해 집단은 공격욕구나 분노 및 공격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낮은 피해집단과 달리 단순히 거부를 당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공격 가해행동을 나타냄으로써 또 다른 거부를 유발하고 이에 대한 가해의 경험을 반복하게 된다(신희경, 2006). 가해와 피해가 중첩된 청소년은 가해 행위만 한 청소년에 비해 여러 해에 걸쳐 폭력 행위를 지속하는 경향이 더 높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가해와 피해의 중첩이 청소년 폭력 문제를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박순진, 2009).

학교폭력 중복경험 학생들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으로는 가해학생과 유사한 부분과 피해자와 유사한 부분이 공존한다. Austin과 Joseph(1996)에 의하면, 학교폭력 중복경험 학생들은 운동적 능력에서 가해자와 비슷하고, 학업적 능력, 전반적 자아가치는 피해자와 비슷하다고 하였다(장윤지, 2005). 가해와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경우 가해청소년보다 더 높은 공격성과 비행성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김준호, 김선애, 2000; 김혜원, 이해경, 1999; 신헌섭, 2005) 일반적으로 가해집단으로 분류되어 취급되기도 하였다(염영미, 2011).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학교폭력의 가해피해 중복경험 학생군은 신경증적인 경향을 보이는 하나의 독립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Mynard & Joseph, 1997; 손원경, 1998 재인용). 중복경험 집단의 경우 무엇보다 다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가 되었거나(이귀옥, 2001), 혹은 보복을 하기 위해 가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심리적 특징은 일반 피해자와 가해자와는 다른 심리적 특징을 보일 수 있다(김종선, 2010).

가해집단과 일반집단에 비해 중복경험집단이 전반적인 정서·행동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복경험집단이 가해집단과 피해집단보다 심리적으로 더 혼재되어 있어 그들이 사회에 더 부적응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김주희, 2005). 가해와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자존감, 우울, 불안, 외현화된 문제행동 등에서 가해집단보다 더 취약한 상태를 보여주는 만큼 학교폭력의 개

인심리적 발생과정에서 가해집단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염영미, 2011).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신혜섭, 2005)에서는 가해-피해 중복집단은 폭력의 심각성 측면에서 가해만 경험한 집단보다 폭력의 가해 정도가 더 높을 뿐 아니라 피해만 경험한 집단과 비교했을 때는 폭력의 피해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장 심각한 폭력의 경험을 가진 집단으로 나타났다. 가해 및 피해 중복 경험 집단은 가해집단과 비교했을 때, 공격성이 높으며, 사회적 미성숙, 우울/불안,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자해/정체감 문제 척도 점수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울/불안 척도와 비행척도에서 가해나 피해집단보다 가해피해 중복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주희, 2005).

학교폭력의 경험은 개인, 부모, 학교/친구 등 다양한 요소들과 관련이 있으며, 가해 및 피해의 중복경험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가해집단이나 피해집단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인 자아인식과 관련해서 가해와 피해 중복경험학생은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적 자아개념이 낮은 수준이며, 일탈적 자아개념 인식의 경우에는 가해집단보다도 가장 일탈적으로 생각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신혜섭, 2005).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가해 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 집단, 일반집단으로 분류하여 아동인성검사를 실시한 연구(최윤정, 진혜경, 김종원, 2001)에서 가해집단은 일반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가해피해 중복 집단의 경우 가해집단과 비교했을 때 자아탄력성이 낮고, 신체화와 과잉행동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학생의 자존감이 낮으면 피해를 더 많이 받게 되고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가해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김재철, 최지영, 2011; 오주, 아영아, 2006). 학교폭력 중복경험의 학생들은 피해를 당한 후 심리적으로 억울함과 분노감을 느끼고 이를 다시 다른 친구를 가해함으로써 해소하고, 신체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최윤정, 1999).

폭력유형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폭력의 피해가해 중복집단, 피해 집단, 가해 집단에는 남자가 더 많았고 폭력경험이 없는 집단에는 여자가 더 많았다(신혜섭, 2005). Veenstra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중복경험 학생은 남학생인 경향이 있고, 공격성이 높고, 비호감이라고 평가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은혜, 2014). 폭행과 간접적 공격성은 중복집단의 공격적 성향이 가해집단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정지민, 1998), 공격성이 높을수록, 정서불안이 심할수록, 정체감혼란이 많을수록 그리고 대인불안이 심할수록 학교폭력 중복경험이 많음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오주, 아영아, 2006).

다음으로 중복경험 학생들의 부모와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복경험자 집단은 가해나 피해경험자에 비해 부모의 공격적 학대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공격성에 대한 접근 및 회피의 양가적 정서가 형성되는 복잡한 심리적 특성을 형성하게 된다(신희경, 2006; 도기봉, 오주, 2010 재인용). 피해가해 중복 집단의 경우 부모 간 갈등의 정도나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으며 부모 간 갈등의 목격, 부모로

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 등은 학교폭력 중복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신혜섭, 2005). 같은 맥락에서 부모요인 중에서는 부모불화가 심할수록 학교폭력 중복경험이 많고,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를 경험하지 못할 경우 중복경험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오주, 아영아, 2006).

남자 고등학생의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의 관계 연구에서는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은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부모 간 폭력목격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지지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이들 부모의 부부 관계에 대한 개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임신일, 이정미, 2013).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결속력 있는 애착관계는 청소년이 현재 폭력에 노출되었는지에 대해 부모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부모와 애착관계는 청소년이 피해자에서 다시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되는 부정적 순환을 끊어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최진영, 2012). 가해피해 중복집단의 발달에서 피해와 가해경험 중 어느 경험이 먼저 발생하는가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존재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복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부모의 공격적 학대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공격성에 대한 접근 및 회피의 양가적 정서가 형성되는 복잡한 심리적 특성을 형성하게 된다(신희경, 2006).

가해와 피해의 중복경험의 집단은 친구요인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친구와의 우정의 힘은 학교폭력의 순환을 막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Hodges, Boivin, Vitaro, & Bukowski, 1999). Stephenson과 Smith(1989)는 가해피해 중복경험의 집단은 강하고 단호하며 일반적으로 학급에서 가장 인기가 없으며, 타인을 가해하며 동시에 자신이 피해당하는 것을 불평하는 집단이라고 하였다(최윤정, 1999). 이춘재와 곽금주(2000)의 집단 간 비교 연구에서 가해피해 집단의 경우 피해집단 보다 더 부정적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가해피해 집단의 고유한 특성에 관한 연구와 이에 따른 개입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염영미, 2011).

중학생의 학교폭력 중복경험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오주, 아영아, 2006)에서는 학교요인에서는 친구비행 요인과 폭력목격경험은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교사와의 관계는 부적(-)관계를 보여 주었다. 이는 친구비행이 많을수록 그리고 폭력목격경험이 많을수록 학교폭력 중복경험이 많음을 나타내며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중복경험이 많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학생의 학교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특성연구(정향기, 최태진, 2013)에서는 가해피해 중복경험의 학생들은 피해경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 비난형, 산만형 방식이 두드러졌으며, 행동 특징으로 '힘이 있고 강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하며, 상대방의 결점을 찾아내서 공격하려 들고 화를 내며,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관계가 없는 행동을 하고, 관심을 받기위해 다른 사람의 대화에 끼어드는 행동'을 나타내었다.

요컨대, 학교폭력 중복학생들은 가해집단이나 피해집단 각 집단과 비교했을 때 학교폭력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며,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방향은 학교폭력의 가해와 피해의 순환과 중복경험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주목하고,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입방안과 예방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학교폭력 중복경험과 학교생활적응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주요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령기의 학교생활적응은 이후 개인의 성취, 성인기의 직업, 삶의 질, 건강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아동청소년기에 겪는 적응의 어려움은 성인기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부정적인 사건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오승환, 2009).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학교생활적응과 학교폭력 경험이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에 대해 부적응적일수록 학교 폭력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가해 집단, 피해 집단 또는 가해피해 중복 집단에 속할 확률을 모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혜섭, 2005). 학교안의 다수의 청소년들이 또래 괴롭힘 피해 및 가해에 개입되어 있으면서 이들은 일반 청소년 집단과 비교했을 때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있으며, 그들이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폭력적으로 지각하고 있다(김희화, 2001).

학교 폭력의 가해 집단이나 피해 집단 모두 학교생활에 부적응도가 높은 학생들이며, 학교생활 부적응도는 학교폭력 경험의 초기단계뿐 아니라 더욱 심각한 학교폭력인 가해피해의 폭력 중복경험으로 진행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신혜섭, 2005)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학교폭력 가해집단이나 피해집단으로 구분된 집단의 학생보다 가해피해 중복 경험 집단이 학교생활적응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희화, 2001; 신혜섭, 2005; 정지민, 1998; 조수현, 2004). 중복경험학생 집단은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가 가해집단이나 피해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신혜섭, 2005).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을 파악한 연구(이은혜, 2014)에서도 학교폭력의 중복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가해경험 또는 피해경험 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력이 더욱 낮은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과 학교생활 특성에 관한 연구(김희화, 2001)에서는 학생집단을 일반집단,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 집단으로 구분하여 학교생활 특성을 파악한 결과에서 학교생활면에서 가장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집단은 가해피해 집단으로 나타났다. 가해-피해 집단은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또래 괴롭힘의 정도가 가장 심한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응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또래폭력 가해피해 경험 정도에 따른 학교적응 역시 또래폭력을 경험하지 않거나, 피해 또는 가해만 경험하는 아동들보다 또래폭력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하는 아동들이 학

교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나타냈다(조수현, 2004).

피해가해집단은 가해집단보다 학교적응력이 더 낮았음을 보고한 연구(정지민, 1998)에서는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환경, 학업관계, 학교행정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가해집단과 중복집단의 적응력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낮았는데, 이 가운데 특히 교사관계, 학업관계, 학교행정적 측면에서는 중복집단의 적응력이 가해집단보다 더 낮았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와같이 청소년들에게 있어 주요 성장과업이며, 성인기 사회적응의 준비가 되는 학교생활적응은 학교폭력 중복경험의 학생들에게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학교폭력의 가해와 피해 경험을 순환경험한 중복학생들의 경우 가해경험 집단이나 피해경험의 집단과 비교했을 때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해서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어 주의깊은 탐색이 요구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중복경험 및 다른 학교폭력 경험 유형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학교생활적응 특성 및 학교 적응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중학생 가해피해 중복경험 집단은 학교적응에서 다른 학교폭력 경험 집단(비경험 집단, 가해경험 집단, 피해경험 집단)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중학생 가해피해 중복경험 집단은 개인요인(성별, 건강상태, 성적만족도,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가족요인(방임, 학대,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 친구요인(의사소통, 신뢰, 소외)들의 특성에서 다른 학교폭력 경험 집단(비경험 집단, 가해경험 집단, 피해경험 집단)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중학생 가해피해 중복경험 집단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개인요인, 가족요인, 친구요인)은 무엇인가? 또한 다른 학교폭력 경험집단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초4 패널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모두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전체 2,378명 중에서 결측치를 제외하고, 2,092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학교생활적응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학교생활 적응으로, 학교생활 적응은 민병수(1991)가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척도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으로는 학습활동 5문항, 학교규칙 5문항, 교우관계 5문항, 교사관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평가하게 된다.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간 방향성을 통일하여 역점수로 환산한 평균점수를 활용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수준이 높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α)는 .86으로 나타났다.

(2) 학교폭력 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집단따돌림(왕따)당하기’, ‘심하게 맞기(폭행)’, ‘협박당하기’, ‘돈이나 물건 빼앗기기(빼앗기기)’의 5개 항목으로 측정했다. 지난 1년 동안에 피해를 겪었으면 ‘1’로 피해경험이 없으면 ‘0’으로 구분하고 총합점수를 산출하여 피해경험 척도를 구성했다. 학교폭력 가해경험은 ‘심한 놀림이나 조롱하기’, ‘집단따돌림(왕따)시킴’, ‘짜싸움’, ‘심하게 때리기(폭행)’, ‘협박하기’, ‘돈이나 물건 빼앗기기(빼앗기기)’의 6개 항목으로 측정했다. 지난 1년 동안에 가해행위를 했으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구분하고 총합점수를 산출하여 가해행위 척도를 구성했다. 학교폭력 중복경험은 피해 및 가해 경험이 모두 있는 경우를 추출하였으며, 학교폭력 비경험은 가해 및 피해 모두 경험하지 않은 경우를 추출하였다.

(3) 개인요인

개인요인의 신체영역의 변인으로 성별, 건강 상태를, 심리영역으로 성적만족도,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를 선정하였다. 성별은 남학생 1, 여학생 2로 측정하였다. 건강 상태는 1점 ‘매우 건강하다’에서부터 4점 ‘매우 건강하지 않다’로 측정되었고, 분석에서는 역환산을 하였다. 성적만족도는 전반적인 자신의 성적에 대해 만족하는지의 질문에 대해 1점 ‘매우 만족한다’에서부터 4점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로 측정되었고, 분석에서는 역환산을 하였다. 자아탄력성 측정도구는 Block과 Krema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과 홍세희, 최보운(2004)이 번역한 뒤 수정·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은 총 14문제로 구성되며 4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8이었다. 삶의 만족도는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승렬, 최지영, 이가영(2006)이 사용한 3문항이다. 각 문항의 평정은 1점(매우 그렇다)부터 4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고, 역환산을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α)는 .84이었다.

(4) 가족요인

가족요인으로는 부모(보호자)의 방임, 학대,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를 선정하였다. 부모(보호자)의 방임과 학대는 허묘연(2000)과 김세원(2003)을 참고하여 패널 연구진이 작성한 것 중 방임과 학대에 해당하는 8개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하위척도별 신뢰도(Cronbach α)는 학대 .86, 방임 .77이었다. 부모(보호자)의 양육태도는 허묘연(2000)의 43문항을 수정하여 감독(3문항), 애정(4문항), 비밀관성(3문항), 과잉기대(4문항), 과잉간섭(4문항), 합리적 설명(3문항)의 6가지 하위 양육방식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크게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해 알고 있고,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며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하위 양육방식 중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의 총 10개의 문항을 총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비밀관적으로 언행하고 과잉기대하거나 과잉간섭하는 것으로 하위 양육방식 중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의 총 11개의 문항을 총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α)는 긍정적 양육태도 .88, 부정적 양육태도 .87이었다.

(5) 친구요인

친구요인으로는 또래애착 척도의 하위요인들인 의사소통, 신뢰, 소외를 선정하였다. 황미경(2010)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애착척도 중 하위영역별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각 하위영역별 3개 문항씩 총 9문항으로 재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201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또래애착 척도의 하위요인들의 문항 구성은 의사소통 3문항, 신뢰 3문항, 소외 3문항이었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으로 분석하였으며,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소외 3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총점 점수를 계산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가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α)는 .82이었다.

3) 자료 분석방법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학교폭력 중복경험자들과 다른 학교폭력 경험집단 간의 학교생활적응 및 개인요인, 가족요인, 친구요인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고자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최종 분석 대상 2,092명은 모두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으며, 전체에서 남자가 1,098명(52.5%), 여자가 994명(47.5%)로 남자가 5%가량 높았다. 학교폭력 경험 유형 집단별 빈도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전체 대상자 중에서 학교폭력 비경험자가 88%였으며, 가해 경험자 8.1%, 피해 경험자 2.3%, 중복 경험자 1.6%로 나타났다.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해경험자가 남자는 10.7%, 여자는 5.1%로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가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 중학생의 학교폭력 경험 유형 분류

	학교폭력 비경험자	가해 경험자	피해 경험자	가해,피해 중복경험자	전체	χ^2
남	942(85.8)	118(10.7)	23(2.1)	15(1.4)	1,098(100.0)	22.91***
여	899(90.4)	51(5.1)	26(2.6)	18(1.8)	994(100.0)	
전체	1,841(88.0)	169(8.1)	49(2.3)	33(1.6)	2,092(100.0)	

** $p < .01$

2.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학교생활적응 특성

중복지험 집단이 다른 학교폭력 경험 유형과 학교생활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변산분석과 사후검증(*Scheffe*)를 실시하였다(표 2 참조). 분석결과 학교 폭력 경험 유형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후검증 결과, 중복지험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M=2.63$)이 피해경험($M=2.94$) 및 비경험자($M=3.00$)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으며, 가해경험($M=2.82$) 학생들도 비경험자에 비해 낮은 학교생활적응 점수를 나타내었다. 학교생활적응의 4개 하위 항목별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중복지험 학생들이 학습활동에서 다른 유형의 학생들보다 낮은 적응도를 보였다. 둘째, 학교규칙에서는 중복지험 및 가해경험 유형의 학생들이 비경험과 피해 경험 유형의 학생들보다 학교규칙을 덜 중요시 생각하고 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학교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

변인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학습활동	1. 비경험	1839	2.89	.55	13892.16***	4<2<1 4<3
	2. 가해경험	169	2.67	.61		
	3. 피해경험	49	2.86	.45		
	4. 중복경험	33	2.35	.72		
학교규칙	1. 비경험	1839	3.04	.52	16771.00***	2, 4<1, 3
	2. 가해경험	169	2.78	.60		
	3. 피해경험	49	3.02	.57		
	4. 중복경험	33	2.67	.66		
교우관계	1. 비경험	1839	3.14	.41	29070.12***	4<2<1 3<1
	2. 가해경험	169	3.04	.47		
	3. 피해경험	49	2.93	.45		
	4. 중복경험	33	2.81	.58		
교사관계	1. 비경험	1839	2.95	.64	10674.06***	
	2. 가해경험	169	2.81	.74		
	3. 피해경험	49	2.92	.65		
	4. 중복경험	33	2.70	.85		
학교생활적응	1. 비경험	1839	3.00	.42	25654.17***	2,4<1 4<3
	2. 가해경험	169	2.82	.46		
	3. 피해경험	49	2.94	.39		
	4. 중복경험	33	2.63	.56		

* $p<.05$, ** $p<.01$, *** $p<.001$

셋째, 교우관계에 있어서 중복경험 학생들이 비경험 및 가해경험 학생들보다 낮은 적응 수준을 나타내었고, 피해경험 학생들도 비경험학생들보다 교우관계에서 낮은 적응 수준을 나타내었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항목 중 교사관계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3.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개인, 가족, 친구요인의 특성

중복경험 집단이 다른 학교폭력 경험 집단과 개인, 가족, 친구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과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였다. 먼저 개인요인으로서는 성별, 건강상태, 성적 만족도,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였다(표 3. 참조).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사후검증 결과 성별, 건강상태, 삶의 만족에서 유의미하게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가해경험 학생들이 비경험과 피해경험에 비해 남학생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는 중복경험 학생들이 비경험 학생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에서는 중복경험과 피해경험 학생들이 가해 및 비경험 학생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적 만족도와 자아탄력성에서는

사후검증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표 3 학교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개인 변인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

변인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성별 ¹⁾	1. 비경험	1839	1.49	.50	4606.56***	2<1,3
	2. 가해경험	169	1.30	.46		
	3. 피해경험	49	1.53	.50		
	4. 중복경험	33	1.55	.51		
건강상태	1. 비경험	1839	3.28	.56	17843.54***	4<1
	2. 가해경험	169	3.24	.57		
	3. 피해경험	49	3.06	.63		
	4. 중복경험	33	2.97	.53		
성적 만족도	1. 비경험	1839	2.57	.77	5786.74***	
	2. 가해경험	169	2.40	.78		
	3. 피해경험	49	2.55	.84		
	4. 중복경험	33	2.48	.76		
자아탄력성	1. 비경험	1839	3.00	.44	23460.70***	
	2. 가해경험	169	3.02	.52		
	3. 피해경험	49	2.92	.44		
	4. 중복경험	33	2.86	.48		
삶의 만족	1. 비경험	1839	3.17	.62	13162.84***	3,4<1=2
	2. 가해경험	169	3.17	.69		
	3. 피해경험	49	2.86	.68		
	4. 중복경험	33	2.78	.83		

1) 남학생: 1, 여학생: 2, * $p<.05$, ** $p<.01$, *** $p<.001$

가족요인으로는 부모의 방임, 학대 변인과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표 4>와 같다. 사후검증 결과, 학대에서 중복 경험의 학생들의 점수가 비경험, 가해, 피해 학생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중복 경험 학생들이 학대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양육태도에서는 중복 경험 학생들이 비경험 학생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중복 경험 학생들이 비경험 학생들에 비해 긍정적 양육태도를 접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방임과 부정적 양육태도에서는 사후검증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표 4 ▶ 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가족 변인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

변인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방임	1. 비경험	1839	1.76	.53	5797.91***	
	2. 가해경험	169	1.77	.56		
	3. 피해경험	49	1.74	.51		
	4. 중복경험	33	1.99	.56		
학대	1. 비경험	1839	1.77	.69	3562.63***	1=2=3<4
	2. 가해경험	169	1.86	.65		
	3. 피해경험	49	1.86	.80		
	4. 중복경험	33	2.33	.69		
긍정적 양육태도	1. 비경험	1839	3.18	.48	22221.52***	4<1
	2. 가해경험	169	3.08	.54		
	3. 피해경험	49	3.07	.42		
	4. 중복경험	33	2.91	.37		
부정적 양육태도	1. 비경험	1839	2.41	.58	9178.06***	
	2. 가해경험	169	2.52	.57		
	3. 피해경험	49	2.52	.62		
	4. 중복경험	33	2.61	.51		

* $p<.05$, ** $p<.01$, *** $p<.001$

표 5 ▶ 학교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친구 변인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

변인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의사소통	1. 비경험	1839	3.15	.54	17227.50***	3<1,2
	2. 가해경험	169	3.18	.58		
	3. 피해경험	49	2.73	.64		
	4. 중복경험	33	2.98	.71		
신뢰	1. 비경험	1839	3.22	.57	16011.99***	3<1,2
	2. 가해경험	169	3.29	.60		
	3. 피해경험	49	2.78	.68		
	4. 중복경험	33	3.00	.69		
소외	1. 비경험	1839	2.96	.71	8876.11***	
	2. 가해경험	169	2.92	.76		
	3. 피해경험	49	2.71	.70		
	4. 중복경험	33	2.66	.78		
또래애착	1. 비경험	1839	3.11	.46	22951.08***	3<1,2
	2. 가해경험	169	3.13	.49		
	3. 피해경험	49	2.74	.53		
	4. 중복경험	33	2.88	.47		

* $p<.05$, ** $p<.01$, *** $p<.001$

친구요인으로서는 또래애착과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신뢰, 소외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또래애착에서는 중복경험 학생들의 특징이 구분되지 않았다. 단지 피해경험 학생들이 비경험과 가해경험 학생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어, 피해경험 학생들이 친구관계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의 하위요인들을 보면, 의사소통 및 신뢰에서도 피해경험 학생들이 비경험과 가해경험 학생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어, 피해경험 학생들이 친구들과의 의사소통과 신뢰에서 어려움이 더 큰 것을 나타내었다.

3.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에서는 개인요인들을 투입하고, 모형 2에서는 개인요인들을 통제한 후 가족요인들을 투입하고, 모형 3에서는 추가적으로 친구요인들을 투입하였다. 각 집단의 투입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위해 분산팽창요인(VIF)과 공차한계(Tolerance)를 확인한 결과, 변인들의 분산팽창요인 값은 모두 3미만, 공차한계는 .50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학식, 임지훈, 2007).

학교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학교폭력 경험 집단별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다르게 나타났다. 비경험 집단은 모형 3의 개인요인, 가족요인, 친구요인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43%로 모형1(30%), 모형 2(42%)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F(12, 1838) = 115.83, p < .001$). 투입한 변인들 중 개인요인에서는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 성적 만족도가, 가족요인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방임하지 않는 것이, 친구요인에서는 친구와의 의사소통, 신뢰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경험 집단의 회귀분석 결과는 모형2의 개인요인과 가족요인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39%로 모형1(27%)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F(9, 168) = 11.34, p < .001$). 투입한 변인들 중 개인변인에서는 성별과 자아탄력성, 가족변인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경험 집단은 모형3의 개인요인, 가족요인, 친구요인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50%로 모형1(19%), 모형2(24%)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F(12, 48) = 2.98, p < .01$). 투입한 변인들 중 개인요인에서는 성별, 친구요인에서는 신뢰와 소외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중복경험 집단의 회귀분석 결과는 모형1의 개인요인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63%로 나타났다($F(5, 32) = 9.37, p < .001$). 모형2에서 가족변인을 투입한 경우(R^2 변화량=.05)와 모형3에서 친구변인을 투입한 경우(R^2 변화량=.02) 모두 유의미한 변화량을 나타내지 않았다($p > .05$). 투입한 변인들 중 개인변인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계	변인	β	t	$R^2(\text{adj } R^2)/F$	비경험			가해경험			피해경험			$R^2(\text{adj } R^2)/F$
		β	t		β	t		β	t		β	t		
모형1 개인요인	성별 ¹⁾	.05	2.82**	.30(.30)		.16	2.28*		.27	1.88	.19(.10)	.02	.19	.63(.57)
	자아탄력성	.38	17.52***	$F=155.59$ ***	.37	4.59***		.25	1.49	$F=2.05$	4.60***	.69	4.60***	$F=9.37$ ***
	삶의 만족	.13	8.11***		.28	3.30**		.22	1.21		.12	.81		
	건강상태	.02	1.30		-.10	1.35		-.10	.65	.08	.64			
	성적만족도	.06	5.55***	-.02	.28		-.03	.19	1.32					
모형2 개인요인	성별	.03	1.72	.42(.41)	.14	1.99*		.33	2.02*	.24(.07)				
	자아탄력성	.29	13.76***		.25	3.12**		.23	1.22	$F=1.40$				
	삶의 만족	.06	2.79**	$F=145.37$ ***	.16	1.95		.23	1.24					
	건강상태	.01	.27		.09	1.23		.12	.78					
	성적만족도	.07	3.89***		.03	0.40		.03	.21					
가족요인	방임	-.14	-6.03***		-.14	-1.62		-.26	-1.50					
	학대	-.04	-1.90		.10	1.23		.09	.53					
	긍정적 양육태도	.28	11.05***		.32	3.40**		-.04	-.18					
	부정적 양육태도	.00	.06		-.04	-.52		-.14	-.83					
	성별	.01	.62	.43(.43)		.35	2.39*		.50(.33)					
모형3 개인요인	자아탄력성	.25	11.05***	$F=115.83$ ***	.24	1.45		.24	1.45	$F=2.98$ **				
	삶의 만족	.05	2.02*		.13	.86		.13	.86					
	건강상태	.00	.01		.01	.04		.01	.04					
	성적만족도	.07	3.83***		.11	.71		.11	.71					
	방임	-.12	-4.89***		-.23	-1.56		-.23	-1.56					
가족요인	학대	-.03	-1.29		-.14	-.84		-.14	-.84					
	긍정적 양육태도	.26	10.08***		.06	.35		.06	.35					
	부정적 양육태도	-.00	-.19		-.09	-.61		-.09	-.61					
	의사소통	.10	3.30**		-.15	-.71		-.15	-.71					
	신뢰	.06	2.15*		.70	3.13**		.70	3.13**					
친구요인	소외	.02	.91		-.44	-3.02**		-.44	-3.02**					

1) 남학생: 1, 여학생: 2,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해피해 중복경험의 학생집단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가해, 피해, 비경험 집단과 비교하여 학교생활적응 양상을 파악하고,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여 중복경험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그들의 학교생활적응과 학교폭력 개입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중복경험 집단과 가해, 피해, 비경험 집단의 차이검증을 통해 학교생활적응 및 관련 변인들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둘째, 중복경험 집단을 비롯한 각 유형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집단 유형간 학교생활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중복경험 학생들이 가장 낮은 수준의 학교생활적응을 나타내었다. 중복경험 학생들은 가해경험 및 비경험 집단보다 낮은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나타내었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학습활동에서는 중복경험 집단이 가해, 피해, 비경험 집단보다 적응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 학습활동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규칙에서는 중복경험과 가해경험 집단이 비경험 및 피해경험 집단보다 낮은 적응 수준을 나타내었다. 교우관계에서는 중복경험 집단이 가해 및 비경험 집단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렇듯 중복경험 집단은 학교생활적응 및 하위요인에서 교사관계를 제외한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에서 다른 집단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복경험 학생들이 가해나 피해집단 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의 어려움이 크다고 나타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신혜섭, 2005; 이은혜, 2014; 정지민, 1998; 조수현, 2004). 중복경험 학생들이 학교생활적응에 실패하게 되면, 학교를 떠나거나 다시 학교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에서 중복경험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심리적, 교육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가해경험 집단은 학교규칙에서 피해경험과 비경험 집단보다 적응 수준이 낮았고, 피해경험 집단은 교우관계에서 가해 및 비경험 집단보다 적응 수준이 낮아, 가해경험 학생들에게는 학교규칙에 적응하는 것을 돕고, 피해경험 학생들에게는 교우관계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둘째,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 가족요인, 친구요인들에서 학교폭력 경험 유형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복경험 학생들은 다른 집단 학생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중복경험 학생들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별적인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별에서는 가해경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남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경험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도 중복경험 집단과 마찬가지로 가해 집단과 비경험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경험 및 피해경험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결과는 중복경험자의 자아 가치가 피해경험자와 비슷하다는 결과(Austin & Joseph, 1996)와 일치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중복경험에 남

학생이 더 많다는 결과가 있었는데(신혜섭, 2005), 본 연구에서는 가해 경험 집단에 남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요인에서는 중복경험 학생들이 다른 유형의 학생들에 비해 학대 경험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양육태도도 비경험 학생들보다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혜섭(2005)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학대가 학교생활적응에 주요 변인으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또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를 받지 못한 경우, 중복경험이 많았다는 오주와 아영아(2006)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 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중복경험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고, 신체적으로 취약하며, 가족에서도 학대에 노출되고 긍정적 양육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각 학교폭력 경험 유형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학교폭력 경험 집단 유형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이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우선 비경험자 집단의 경우, 학교생활적응에는 개인, 가족, 친구 영역의 변인들이 학교생활적응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개인변인에서는 자아탄력성과 성적만족도, 삶의 만족이, 가족 변인에서는 긍정적 양육태도와 방임하지 않는 것이, 친구 변인에서는 의사소통과 신뢰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폭력 비경험 학생들은 다른 집단과 달리 학교생활 적응에 성적만족도가 유일하게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의 긍정적 양육과 방임하지 않는 것, 의사소통이 잘되고 신뢰로운 친구관계도 중요한 변인이었다. 이 결과는 폭력 경험 집단과 달리 비경험 집단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가해경험 집단에서는 개인영역에서는 성별(여학생일수록)과 자아탄력성이, 가족변인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 집단에서는 개인요인에서 성별(여학생일수록)과 친구요인에서는 신뢰와 소외받지 않는 것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중복경험 집단에서는 가족요인 및 친구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개인요인에서 자아탄력성만이 유일하게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복경험 집단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자아탄력성이 유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이나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박미란, 2010; 성지희, 정문자, 2007). 물론 중복경험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학대, 긍정적 양육태도, 건강상태를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즉, 중복경험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건강상태도 좋지않다고 생각하고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부모에게서는 학대를 받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변인은 개인의 자아탄력성이 얼마나 있느냐이다. 자아탄력성은 위기상황에서 개인에게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즉,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영향을 적게 받게 하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적응을 촉진하는 자기복원기제이다(정연제, 윤운성, 2013). 자아탄력성이 역경이나 위기상황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 연구결과들이 있다

(고선, 2009; 유성경, 심혜원, 2002; 장진아, 신희천, 2006). 따라서 중복경험 집단의 학생들은 현재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개인과 가족에서 열악한 상태이므로 자아탄력성이 이 상황에서 회복하며 적응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중복경험의 학생들 중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은 학교생활적응을 좀 더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복경험 학생들이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적 개입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학교안의 학교폭력중복경험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중복경험의 학생들에게 개입시 단순 가해자나 피해자 집단과는 별개의 집단으로 이해하고 개입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중복경험의 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의 가해와 피해 경험의 순환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중복경험 집단의 경우 무엇보다 다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가 되었거나(이귀옥, 2001), 혹은 보복을 하기 위해 가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심리적 특징은 일반 피해자와 가해자와는 다른 심리적 특징을 보일 수 있다(김종선, 2010). 중복경험의 학생들은 가해자로서의 특성과 함께 피해자로서의 상처, 두려움, 고립감 등을 모두 갖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중복경험의 학생들을 단순히 가해자나 피해자의 선에서 놓고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중복경험 학생의 가해와 피해의 순환과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심리와 학교생활적응 상태를 이해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 가해피해 경험의 부정적 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과 예방적 차원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학교폭력은 폭력이 진행될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한 중복 경험을 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개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신혜섭, 2005).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민감하게 대처하고 피해가 다시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학교나 학급문화가 학교폭력을 허용하는 분위기나 방관하는 분위기로 인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안에서 교사 및 관련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중복경험 학생들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개입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중복경험의 학생들의 존재를 생각하지 못하고 피해자나 가해자로 분리된 대상을 중심으로 개입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전환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의 가해와 피해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음을 전제로 개입해야 한다. 학생들 간에 학교폭력의 중복 경험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특성을 간과하고, 특정 시점에서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을 ‘가해자’로 명명하여 학생부 기재, 강제전학, 자퇴의 강요 등 처벌적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고 진정한 문제해결로 나아가기 어렵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이름을 붙이기 이전에 이들 모두가 학교의 학생이며, 보호받고 교육받아야 할 성장 중에 있는 청소년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표본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12%로 비경험자에 비해 적어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경험 학생들의 표집을 확대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중복경험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된 만큼, 중복경험 학생들 대상의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경험 유형중에서 가해와 피해의 중복경험 집단의 특성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학교폭력에 대한 현상파악이나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 중심의 문제나 적응상의 어려움을 보고하는데 머물러 있어 학교폭력 중복경험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중복경험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 학교폭력의 다른 유형 집단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의 특성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학교폭력의 가해와 피해의 역기능적 순환을 끊기 위한 실천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고선. (2009).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곽금주. (2008). 한국의 왕따와 예방프로그램. **한국심리학회지**, 14(1), 225-272.
- 김미영. (2007). 학교체계가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8(2), 287-314.
- 김선아. (2005).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애착이 폭력가해와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가해-피해중첩집단과 일반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 5-36.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청소년발달지표조사 1,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주희. (2005). **학교폭력 가해, 피해, 가피해 유형과 정서 행동문제 및 사회능력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선. (2010).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인관계패턴 및 자아방어기제 비교**.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 (2002). **학교폭력의 현황과 실태**. 학교폭력 토론회 자료집.
- 김희화. (2001).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과 학교생활 특성에 관한 연구: 일반집단, 가해집단, 피해집단 및 가해-피해집단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8(2), 119-141.
- 도기봉, 오주. (2010). 학교폭력 중복경험자의 자아존중감과 문제대처행동 향상을 위한 현실요법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7(1), 37-53.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진. (2009). 청소년 폭력에 있어서 피해-가해 경험의 발전. **형사정책연구**, 20(7), 71-94.
- 성지희, 정문자. (2007).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학교적응과 보호요인. **아동학회지**, 28(5).
- 신혜섭. (2005).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청소년학연구**, 12(4), 123-149.
- 신희경. (2006). 가해 청소년, 피해 청소년, 가해/피해 청소년 집단유형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청소년**

- 년연구, 17(1), 297-323.
- 손원경. (1998).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 지각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영미. (2011). 학교폭력가해청소년과 학교폭력가해피해청소년의 특성연구: 자존감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8(3), 117-136.
- 오승환. (2009).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영향요인: 위험요인에 대한 학교보호요인의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1), 161-181.
- 오주, 아영아. (2006). 중학생 학교폭력 가해-피해 중복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개발연구**, 12(1), 79-100.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유성경, 홍세희, 최보.운 (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18(1), 393-408.
- 이은혜. (2014).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유형이 학교생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2), 399-426.
- 이학식, 임지훈. (2007). **SPSS 12.0 매뉴얼**. 법문사
- 이해경, 김혜원. (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14(1), 45-64.
- 이해경, 김혜원. (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심리적 예측변인들: 학년과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15(1), 117-138.
- 임신일, 이정미. (2013). 남자 고등학생의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의 관계. **학교사회복지**, 26, 27-45.
- 장윤지. (2005). **학교폭력 유형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진아, 신희천. (2006).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상담및심리치료**, 18(3), 569-592.
- 정연제, 윤운성. (2013). 가정·학교폭력 피해 경험 유무에 따른 병사의 군생활 적응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 대 인관계능력 자아탄력성의 영향 구조 분석. **상담학연구**, 14(2), 1487-1501.
- 정지민. (1998). **학교폭력 피해-가해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공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향기, 최태진. (2013). 중학생의 학교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특성. **상담학연구**, 14(1), 573-591.
- 조수현. (2004). **초등학생 또래폭력 가해·피해 집단의 학교적응과 또래폭력에 대한 태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유진. (2005). **집단괴롭힘 목격과 피해 경험의 가해화 경로에 대한 중재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윤정. (1999). **학령기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아동의 인격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인성검사를 이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정, 진혜경, 김종원. (2001). 학령기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아동의 인격성향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2(1), 94-102.
- 최진영. (2012). **청소년기의 부모애착이 폭력 피·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보호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미경.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사회불안과의 관계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Austin, S., & Joseph, S. (1996). Assessment of bully/victim problems in 8 to 11 year 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4), 447-456.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 - 61.
- Bryn, S. (2011). "Stop bullying now!" A federal campaign for bully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Journal of School Violence*, 10(2), 213-219.
- Hodges, E. V. E., Boivin, M., Vitaro, F., & Bukowski, W. M. (1999). The power of friendship: Protecting against an escalating cycle of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 94-101.
- Olweus, D. (1994).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7), 1171-1190.
- Stephenson, P., & Smith, D. (1989). Bullying in the junior school. *Bullying in schools*, 45-57.
- Smith, P. K. (2011). *Bullying in schools: Thirty years of research*. In L. Coyne and C. P. Monks(Eds.), *Bullying in different contexts* (pp. 36-5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enstra, R., Lindenberg, S., Oldehinkel, A. J., De Winter, A. F., Verhulst, F. C., & Ormel, J. (2005).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elementary schools: A comparison of bullies, victims, bully/victims, and uninvolved pre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1(4), 672-682

청소년의 학교폭력 집단 결정 요인 분석 연구: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을 중심으로

이기정*·김영식**

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학교폭력 집단 유형별로 자존감 및 삶의 만족도 수준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보다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4차년도 자료 및 중학교 1학년 패널의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유형 간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 비교를 위한 F 검정 및 학교폭력 유형 결정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다중로지트모형을 통하여 청소년의 학교폭력 집단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나 자존감이 낮은 중학생일수록 학교폭력 피해 혹은 학교폭력 피해·가해를 모두 경험할 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함께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할수록 학교폭력 피해 혹은 학교폭력 피해·가해를 모두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며, 이전의 학교폭력 경험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설계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노력을 초등학교 이하 저학년 수준으로까지 확대함은 물론, 가정 내 아동 학대 및 폭력 또한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학교폭력, 삶의 만족도, 자존감, 다중로지트모형

I. 서론

학교폭력은 학교는 물론이고, 학교 및 교육과 관련된 장소 및 현장에서 부모와 교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학생에게 행사한 폭력으로 정의된다(문용린 외, 2006). 이러한 정의에서 학교폭력의 수준이나 종류를 정확하게 정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더라도

* 대구교육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 sandfom3@snu.ac.kr

피해 학생입장에서 폭력으로 인지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장기적으로 당한다면 이는 학교 폭력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 많이 논의되는 군대폭력등과 비슷하게,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어느 정도 제한된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력과 달리 피해자가 피하거나 미연에 방지하기도 어렵다. 또한 동일한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러한 폭력이 장기화 되거나 가속화되는 성향이 크다.

올해 교육부에서 실시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은 ‘폭행·스토킹·금품갈취’ 같은 전형적인 학교폭력을 주로 겪는 반면 여학생은 ‘왕따·사이버괴롭힘’ 등 언어·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교육부 웹사이트, <http://www.moe.go.kr>). 전국 초등 4학년~고교 3학년 학생 498만명 중, 6만2000명이 학교폭력 경험이 있었으며, 피해 유형을 조사한 결과 남학생은 폭행·스토킹·금품갈취 피해가 각각 15.3%, 12.5%, 9.2%를 차지해 여학생(5.3%, 8.7%, 6.1%)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여학생은 ‘관계적 괴롭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응답률이 22.6%로 남학생(13.6%)에 비해 많았고 모바일 메신저 폭언 등 사이버 괴롭힘(15.4%)도 남학생(5.6%)보다 3배가량 높았다. 또한 저학년일수록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 비율이 높아 고등학생은 0.6%, 중학생은 1.3%, 초등학생은 2.4%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시간은 주로 ‘쉬는 시간’(41.3%)과 ‘학교 이후’(15.8%)였고, 가해자는 대개 ‘같은 학교 같은 학년’(68.9%)이었다.

최근에 실시된 위 설문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은 과거와는 몇 가지 차이를 보인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도 보고되고 있듯이, 현재 학교폭력은 점점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문용린, 2006;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2013). 뿐만 아니라,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이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각각의 집단의 구성원들이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는 특성을 보인다. 즉,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기 위해서 가해 집단으로 이동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나타난다(조영일, 2013). 또한 전통적인 학교폭력의 유형인 폭행, 갈취 등에서 사이버 폭력이나 SNS 등을 통한 새로운 유형으로 그 형태가 변화하면서, 동시에 신체적 폭행에서 정서적 폭력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여학생들에게서 좀 더 높게 나타나며, 언어적·정신적 폭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모멸감과 자괴감을 안겨주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박효정, 2012).

학교폭력 집단 유형은 일반적으로 피해, 가해, 피해·가해, 무경험 집단으로 구분된다. 이들 각각의 집단 구성원은 질적으로 다른 발달경로를 통하여 구성되기 때문에(Lester, Cross, Dooley, & Shaw, 2013),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른 집단의 특성에 맞게 설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집단유형들 간의 개인 및 환경특성을 탐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집단유형과 관련된 변수는 일반적으로 개인수준, 부모(가정)수준, 학교수준으로 구분된다. 학교수준 요인은 일반적으로 학교 위치 혹은 규모, 학생 수 등에 관련된 것

부터 교사/친구의 특성 및 교사와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학교생활 및 학업성취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학교에 대한관심이 낮고 학업성취 정도가 낮은 경우, 학교폭력에 연류될 가능성이 높다(문용린 외, 2006). 폭력 가해 집단은 가해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교사와의 친밀도가 낮고, 성적 역시 낮다(이상균, 2005). 이와 비슷하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일수록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Ahmed, 2001; Slee, 1995), 교사와의 관계가 갈등적이거나, 불만이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Rutter, 1985). 나아가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에 속한 아동일수록 다음해에 무경험 집단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가장 낮아 이들은 상대적으로 반복적인 학교폭력의 굴레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조영일, 2013).

두 번째 요인은 부모(가정) 관련 요인이다. 청소년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가정은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 특성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모(가정) 요인에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의 기능적 형태(양육형태 및 부모 자녀 관계)로 나눌 수 있다(문용린 외, 2006). 가정의 빈곤하거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 혹은 범죄위험이 있는 이웃과 인접해 있는 것을 청소년의 폭력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Herrenkohl, et. al., 2000), 부모의 실업, 가정 내 교육을 위한 교구 및 재료의 부재 등은 학교폭력 발생과 관련이 있다(김준호, 1997). 또한 청소년은 가정에서 부모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수록 학교 갈등상황에서 폭력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다(이상균, 2005). 반면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은 피해 및 가해 집단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가족 지지를 보고하였고(김혜원, 이혜경, 2000), 공격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가해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신희경, 2006).

개인관련 요인으로는 생물학적인 원인과 심리학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전두엽 실행기능에 문제가 있어, 과잉적인 행동과 낮은 주의력을 유발하고 이는 이후 폭력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Grigsby & Stevens, 2000). 이는 폭력행동과 관련된 개인의 특성이 공격성임을 볼 때,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은 심리적 특성과도 연계하여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 외에도, 우울 및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 또한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Hawker & Boulton, 2000; 문용린 외, 2006).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에 속하는 아동 청소년은 가해 집단에 속하는 또래에 비하여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았고(한세영, 2010), 나아가 자살충동을 느끼고(Hyman, et. al. 2006), 이러한 문제 때문에 친구관계에서도 걱정이 많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높다(Craig, 1998). 자존감 혹은 자아존중감은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또 하나의 요인으로 이러한 결과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Olweus(1997)는 높은 자존감은 학교폭력 및 공격적 행동과 관련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나, DuBois et. al. (1999)와 긍정적 학교 적응과의 관련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가해학생의 자아효능감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Natvig et. al., 2001)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와 학교생활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Zimmerman, et. al., 1992) 역시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폭력을 비롯한 반사회적 행동양상을 보인 청

소년은 낮은 자존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종순, 1991). 물론 국내 연구에서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연구 역시 존재한다(이춘재, 박금주, 1990).

이러하듯 청소년의 학교폭력 집단 유형과 다양한 개인 내·외적 특성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학교폭력 집단유형을 미리 확인하고,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난 후, 각각의 집단 아이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각 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는 연구일 뿐, 학교폭력의 집단유형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집단 유형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변수 중 가장 많은 것들이 개인 수준 변수들이라는 선행 연구결과(조영일, 2013)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집단 유형에 따른 자존감 및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고, 이를 기본으로 각 집단을 구분 짓는 각각의 변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교폭력 무경험, 가해, 피해, 가해·피해 학생들 간의 개인수준 변인(자존감 및 삶의 만족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학교폭력 집단 유형(학교폭력 무경험, 가해, 피해, 가해·피해 모두 경험)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 1 패널 3차년도 자료 및 초 4 패널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0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이었던 3개 코호트(cohort)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애 경험, 행동, 환경 등을 매년 추적 조사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횡단면적 자료와 시계열적 자료의 특성을 모두 포함한 패널데이터로서 보다 효율적(effective)이고, 일치성 있는(consistent) 추정치를 도출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이 학교폭력과 맺고 있는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응답 결과를 신뢰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패널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차년도 조사 시점에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경우 중 1이 되었으며, 3차년도 조사 시점에 중학교 1학년 패널의 경우 중 3

이었으므로, 본 연구는 4차년도 조사 시점인 2013년도에 중학교 1학년인 학생들과, 3차년도 조사 시점인 2012년에 중학교 3학년이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이 전년도의 학교폭력 경험 양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려하여 전년도 조사시점의 학교폭력 경험 양상을 통제하기 위하여 중 1패널의 경우 2차년도 자료, 초 4패널의 경우 3차년도 자료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분석에 포함된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개체수는 총 1,863명이며, 중학교 1학년 패널의 개체수는 1,899명이다.

2. 변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이 학교폭력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 양상은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과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가진 집단’,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가진 집단’,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를 모두 경험한 집단’의 4개 범주로 구성된 선택형 범주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교폭력 가해 경험 학생은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사람 집단 따돌림 시키기’,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다른 사람 협박하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채팅/게시판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기’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한 학생들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생은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집단 따돌림 당하기’, ‘심하게 맞기’, ‘협박당하기’, ‘돈이나 물건 뺏기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심한 욕설’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한 학생들로,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이 모두 있는 학생은 이 둘을 모두 경험한 학생들로 규정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학생 개인의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은 해당하는 설문 문항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큰 값을 가질 수 있도록 리코딩(recoding)을 실시한 후, 해당 문항들의 총합으로써 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활용한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표 1 ▶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 관련 설문 문항

		설문 문항 (1-4점 척도)
자존감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 4 매우 그렇다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1 - 4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 4 매우 그렇다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 4 매우 그렇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매우 그렇다 1 - 4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매우 그렇다 1 - 4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 4 매우 그렇다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매우 그렇다 1 - 4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 4 매우 그렇다
삶의 만족도	나는 사는 게 즐겁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 4 매우 그렇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 4 매우 그렇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 4 매우 그렇다

이와 함께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학생의 성별, 학교 소재지, 어머니의 최종 학력, 연간 가구소득의 자연로그값, 수학학업성취 수준, 부모로부터의 방임 및 학대 관련 변수 등을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과 관련된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설명 및 기술통계량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 변수 설명 및 기술통계량

변수	변수 설명	초4 패널 (n=1,863)		중1 패널 (n=1,899)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모두 경험 여부	0.026	-	0.038	-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 경험 여부	0.033	-	0.043	-
학교폭력 가해	학교폭력 가해 경험 여부	0.116	-	0.156	-
학교폭력 미경험	학교폭력 미경험 여부(미경험:1, 경험: 0)	0.826	-	0.764	-
자존감	자존감 관련 9개 변수값 합계(0-36)	28.541	4.547	26.248	4.499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관련 3개 변수값 합계(0-12)	9.478	1.896	8.598	2.049
남학생	남학생 여부(남학생:1, 여학생:0)	0.521	-	0.516	-
학교 소재지	특별시·광역시: 1, 기타: 0	0.431	-	0.451	-
모학력1	중학교 졸업 이하 여부	0.021	-	0.028	-
모학력2	고등학교 졸업 여부	0.479	-	0.528	-
모학력3	전문대 졸업 여부	0.137	-	0.099	-
모학력4	대학교 졸업 여부	0.334	-	0.329	-
모학력5	대학원 졸업 여부	0.028	-	0.016	-
연간 가구 소득	가구 연간 소득(로그 변환 前, 만원)	4717.332	2748.338	5009.819	2963.891
수학 성적1	70점 미만	0.263	-	0.242	-
수학 성적2	70점 이상 80점 미만	0.216	-	0.196	-

변수	변수 설명	초4 패널 (n=1,863)		중1 패널 (n=1,899)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수학 성적3	80점 이상 90점 미만	0.193	-	0.159	-
수학 성적4	90점 이상	0.328	-	0.403	-
방임	방임 관련 4개 변수값 ¹⁾ 합계	6.966	2.080	7.284	2.212
학대	학대 관련 4개 변수값 ²⁾ 합계	7.021	2.679	7.323	2.816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로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활용한 F 검정을 실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이란 하나의 요인에 의해 여러 집단으로 나누어진 관측치들을 대상으로, 아래의 수식을 통하여 전체 관측치의 분산 또는 오차총제곱합을 분석함으로써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값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분석방법이다.

$$F = \frac{\sum_{i=1}^k n_i (\bar{X}_{i.} - \bar{X}_{..})^2 / (k-1)}{\sum_{i=1}^k \sum_{j=1}^{n_i} (X_{ij} - \bar{X}_{i.})^2 / (n-k)} \sim F(k-1, n-k) \quad (1)$$

i 는 각 그룹을 나타내며, j 는 그룹 내의 각 개체는 나타낸다. 그리고 $\bar{X}_{i.}$ 은 각 집단의 평균값을 나타내며, $\bar{X}_{..}$ 은 관측치의 전체 평균, n_j 는 각 집단의 개체수, n 은 전체 관측치 개수, k 는 집단 수를 나타낸다. 일원분산분석은 집단 간 오차 간 변동이 집단 내 변동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크다면 해당 요인을 집단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 유의한 요인으로 간주한다.

한편, 종속변수가 2개 이상의 범주를 갖고 있는 선택형 범주 변수일 경우, 범주들 사이에 서열이 존재할 경우에는 순서형 로짓(Ordered Logit) 모형을 사용하며, 이와 달리 종속변수가 비순서형(unordered) 선택형 범주 변수인 경우에는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모형을 주로 활용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분석을

1) 학생이 경험하는 방임은 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큰 값을 가지도록 리코딩(recoding)한 네 개의 문항(‘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을 활용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2) 학생이 경험하는 학대는 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큰 값을 가지도록 리코딩(recoding)한 네 개의 문항(‘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내가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을 활용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위하여 학교폭력 경험 유형을 ‘학교폭력 미경험’, ‘학교폭력 가해 경험’,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모두 경험’의 나누어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종속변수는 서열이 의미를 지니지 않는 비순서형 선택형 범주변수이므로, 본 연구는 후자의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로짓모형은 개인 i 가 k 개의 선택 범주 중 j 번째를 선택하는 이유가 다른 $(k-1)$ 개의 범주들에 비해 j 번째 범주를 선택함으로써 얻는 효용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가정한다. 다항로짓모형은 이러한 효용을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 간주하고 이러한 효용에 기반하여 선택된 종속변수가 우리에게 관찰된 것으로 이해하며, 이를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민인식, 최필선, 2012).

$$U_{ij} = X_i' \beta_j + \epsilon_{ij} \quad (j = 1, 2, \dots, k) \quad (2)$$

U_{ij} 는 잠재변수로서의 효용이며, $X_i' \beta_j$ 는 관찰된 설명변수 벡터(X_i')에 의해 설명되는 j 번째 범주 선택에 따른 확정적인 효용의 크기를 나타낸다. ϵ_{ij} 는 확률적 효용, 즉 순수한 오차항을 나타낸다. 다항로짓모형은 이러한 오차항의 확률분포를 제1종 극단값 분포(Type I extreme value distribution)로 가정한 후, 각 개인이 j 번째 범주를 선택할 확률을 다중적분을 통하여 추정한다. 이에 따라 각 개인이 특정 범주를 선택할 확률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민인식, 최필선, 2012).

$$\Pr(y = j) = \frac{\exp(X_i' \beta_j)}{\exp(X_i' \beta_1) + \exp(X_i' \beta_2) + \dots + \exp(X_i' \beta_k)} \quad (3)$$

이에 만약 기준이 되는 범주를 1 번 선택 범주로 정하면 j 번째 범주를 선택할 승산(Odds)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4)을 통해 볼 때 다항로짓모형은 만약 종속변수가 k 개의 선택 범주를 가지고 있다면 $(k-1)$ 개의 이항로짓모형을 동시에 추정하는 분석 방법임을 알 수 있다.

$$\frac{\Pr(y_i = j)}{\Pr(y_i = 1)} = \frac{\exp(X_i' \beta_j)}{\exp(X_i' \beta_1)} = \exp(X_i' (\beta_j - \beta_1)) \quad (4)$$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네 가지 학교폭력 경험 유형 중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나 피해 경험이 모두 없는 학생들을 준거 집단으로 설정하되, 이 학생들과 다른 학교폭력 유형을 경험한 학생들 간에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분석모형 (3)에 이전 연도의 학교폭력 경험 관련 양상을 추가로 통제해줌으로써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인과적으로 추정해보고

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이전의 학교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현재의 학교폭력 경험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학교폭력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교폭력 가해 혹은 피해 학생들이 어떠한 특성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보다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Ⅲ. 분석 결과

1. 학교폭력 유형 간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 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과 학교폭력 간의 관계에 대한 다변량 분석에 앞서, 학교폭력 유형별로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학교폭력 유형 간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 평균값의 차이에 대한 기술분석 결과는 이후 수행할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 수행을 위한 예비분석 단계로서, 이를 통해 학교폭력 유형별로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선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3 학교폭력 유형별 자존감 및 삶의 만족도 평균 비교

		미경험	가해	피해	가해·피해	F
초4 패널	삶의 만족도	9.526	9.471	8.559	8.729	9.38**
	자존감	28.571	28.547	27.118	26.329	7.01***
중1 패널	삶의 만족도	8.645	8.589	8.080	7.629	2.92***
	자존감	26.354	25.942	25.224	24.008	8.84***

주) *** $p<0.001$, ** $p<0.01$, * $p<0.05$.

〈표 3〉은 초등학교 4학년 패널과 중학교 1학년 패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로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F 검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3〉에 따르면 초 4 패널 및 중 1 패널 모두에서 4개의 학교폭력 유형 간에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초 4 패널과 중 1 패널 모두 학교폭력 미경험 집단의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대체로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 또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모든 조사 대상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삶

의 만족도' 및 '자존감'이 피해 학생 및 피해·가해를 모두 경험한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을 들 수 있다. 즉,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는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나 피해·가해를 모두 경험한 학생들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후 검증 결과 이러한 집단 간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과 학교폭력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즉, 학교폭력 유형 간에는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에 있어 애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고 단순히 학교폭력 유형 간의 비교를 실시하는 것은 추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편의(bias)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항로지트모형을 활용하여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과 학교폭력 간의 관계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보다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과 학교폭력 간의 관계에 대한 다항로지트모형 분석

본 절에서는 네 가지의 학교폭력 유형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학생들 간에 학교폭력 가해·피해 경험의 차이를 가져 오는 요인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학교폭력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이들과 다른 학교폭력 경험 양상을 보이는 학생들과 관련된 사회·환경적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가. 삶의 만족도와 학교폭력 간의 관계에 대한 다항로지트모형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우선 초 4 패널을 대상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차이가 학교폭력 경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학교폭력 경험 유형 차이에 대한 다항로짓모형 분석 결과 (초4 패널 대상)

변수명	참조 그룹: 학교폭력 미경험 학생					
	학교폭력 가해 경험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폭력 가해·피해 경험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삶의 만족도	-0.057 (0.043)	0.944	-0.219*** (0.071)	0.803	-0.127 (0.087)	0.881
남학생	0.734*** (0.162)	2.084	-0.227 (0.289)	0.797	0.202 (0.320)	1.224
학교 소재지	0.021 (0.151)	1.022	-0.155 (0.279)	0.856	-0.551 (0.326)	0.576
모학력2	0.481 (0.628)	1.618	-1.708*** (0.643)	0.181	0.523 (1.334)	1.688
모학력3	0.499 (0.656)	1.647	-2.257*** (0.799)	0.105	0.898 (1.392)	2.455
모학력4	0.785 (0.643)	2.193	-1.383* (0.682)	0.251	1.157 (1.370)	3.180
모학력5	1.216 (0.763)	3.375	-1.813 (1.198)	0.163	2.559 (1.500)	12.921
연간 가구 소득	-0.233 (0.154)	0.792	0.427 (0.294)	1.532	-0.709* (0.303)	0.492
수학 성적2	-0.692*** (0.224)	0.501	-0.235 (0.363)	0.791	-0.804 (0.559)	0.448
수학 성적3	-0.446* (0.204)	0.640	-0.316 (0.385)	0.729	0.491 (0.388)	1.635
수학 성적4	-0.661*** (0.206)	0.516	-0.563 (0.395)	0.570	0.129 (0.421)	1.138
방임	-0.031 (0.039)	0.969	-0.137 (0.073)	0.872	0.152 (0.082)	1.164
학대	0.006 (0.029)	1.006	0.135*** (0.046)	1.144	0.118* (0.054)	1.126
전년도 가해 경험	0.605 (0.356)	1.830	0.495 (0.760)	1.641	0.511 (0.795)	1.668
전년도 피해 경험	-0.037 (0.264)	0.963	1.777*** (0.306)	5.911	1.395*** (0.366)	4.035
전년도 가해·피해 경험	0.795 (0.524)	2.215	-0.155 (0.898)	0.856	0.102 (0.966)	1.108
상수	-0.059 (1.448)	0.942	-3.377 (2.499)	0.034	0.334 (2.813)	1.396
$LR \chi^2$	190.82*** (df: 39)					
n	1,863					

주) *** $p < 0.001$, ** $p < 0.01$, * $p < 0.05$.

〈표 4〉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학교폭력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의 80%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text{Exp}(\beta) = 0.803$),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1학년 학

생들 간의 학교폭력 유형 차이에 대한 다항로지모형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경우,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낮아질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제변수들의 경우 중 1 남학생이 중 1 여학생에 비해 학교폭력 가해를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 수학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낮아지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전년도에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일수록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할 확률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를 모두 경험할 확률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간 가구소득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 1 패널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차이가 학교폭력 경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학교폭력 경험 유형 차이에 대한 다항로지모형 분석 결과 (중1 패널 대상)

변수명	참조 그룹: 학교폭력 미경험 학생					
	학교폭력 가해 경험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폭력 가해·피해 경험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삶의 만족도	-0.025 (0.035)	0.975	-0.216*** (0.061)	0.806	-0.224*** (0.065)	0.799
남학생	1.127*** (0.148)	3.087	0.705*** (0.245)	2.025	1.595*** (0.308)	4.930
학교 소재지	-0.310* (0.139)	0.734	-0.465 (0.248)	0.628	-0.340 (0.269)	0.712
모학력2	-0.403 (0.365)	0.668	13.211 (568.228)	.	0.826 (1.019)	2.283
모학력3	-0.289 (0.420)	0.749	12.325 (568.228)	.	-0.147 (1.157)	0.864
모학력4	-0.267 (0.385)	0.766	12.867 (568.228)	.	0.409 (1.053)	1.505
모학력5	0.341 (0.606)	1.406	12.538 (568.229)	.	0.836 (1.578)	2.307
연간 가구 소득	-0.175 (0.108)	0.839	0.483 (0.251)	1.620	-0.401*** (0.154)	0.669
수학 성적2	0.006 (0.199)	1.006	-0.281 (0.361)	0.755	-1.053* (0.502)	0.349
수학 성적3	-0.192 (0.195)	0.825	-0.414 (0.350)	0.661	0.127 (0.315)	1.136
수학 성적4	-0.110 (0.186)	0.896	0.001 (0.313)	1.001	-0.681 (0.420)	0.506
방임	0.041 (0.032)	1.042	-0.061 (0.058)	0.941	-0.030 (0.064)	0.971

학대	0.030 (0.024)	1.031	0.047 (0.041)	1.048	0.034 (0.048)	1.035
전년도 가해 경험	1.384*** (0.148)	3.989	0.030 (0.335)	1.030	1.567*** (0.315)	4.794
전년도 피해 경험	0.079 (0.360)	1.082	1.620*** (0.320)	5.051	1.023 (0.558)	2.782
전년도 가해·피해 경험	-0.153 (0.438)	0.858	-0.694 (0.573)	0.500	0.087 (0.656)	1.090
상수	-1.118 (1.006)	0.327	-18.394 (568.232)	0.000	-0.092 (1.745)	0.912
$LR\chi^2$	375.16*** (df: 48)					
n	1,899					

주) *** $p < 0.001$, ** $p < 0.01$, * $p < 0.05$.

〈표 5〉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text{Exp}(\beta)=0.806$)과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를 모두 경험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text{Exp}(\beta)=0.799$)의 삶의 만족도는 학교폭력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의 80%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유형 차이에 대한 다항로짓모형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일수록 학교폭력 피해 혹은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를 모두 경험할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경우, 학교폭력 피해 및 학교폭력 가해·피해 모두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제변수들의 경우 중 3 남학생들이 중 3 여학생들에 비해 학교폭력 가해, 피해, 가해·피해 모두를 경험할 확률이 모두 높으며,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일수록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간 가구소득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년도에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일수록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거나 혹은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를 모두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며, 이와 반대로 전년도에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일수록 또다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자존감과 학교폭력 간의 관계에 대한 다항로짓모형 분석 결과

한편, 본 절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의 자존감 차이가 학교폭력 경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초 4 패널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학교폭력 경험 유형 차이에 대한 다항로짓모형 분석 결과 (초4 패널 대상)

변수명	참조 그룹: 학교폭력 미경험 학생					
	학교폭력 가해 경험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폭력 가해·피해 경험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자존감	-0.005 (0.018)	0.995	-0.049 (0.033)	0.952	-0.074* (0.037)	0.929
남학생	0.690*** (0.159)	1.994	-0.392 (0.282)	0.676	0.173 (0.313)	1.189
학교 소재지	0.007 (0.151)	1.007	-0.174 (0.277)	0.841	-0.556 (0.326)	0.574
모학력2	0.485 (0.628)	1.625	-1.684** (0.644)	0.186	0.413 (1.336)	1.512
모학력3	0.507 (0.657)	1.661	-2.214*** (0.799)	0.109	0.798 (1.396)	2.220
모학력4	0.787 (0.643)	2.197	-1.407* (0.688)	0.245	1.020 (1.373)	2.775
모학력5	1.223 (0.763)	3.399	-1.808 (1.202)	0.164	2.475 (1.504)	11.886
연간 가구 소득	-0.228 (0.154)	0.796	0.410 (0.296)	1.507	-0.686* (0.302)	0.504
수학 성적2	-0.687*** (0.224)	0.503	-0.226 (0.361)	0.797	-0.830 (0.560)	0.436
수학 성적3	-0.440* (0.204)	0.644	-0.268 (0.385)	0.765	0.541 (0.389)	1.718
수학 성적4	-0.653*** (0.207)	0.520	-0.476 (0.397)	0.621	0.211 (0.425)	1.235
방임	-0.020 (0.039)	0.980	-0.102 (0.072)	0.903	0.140 (0.082)	1.150
학대	0.008 (0.030)	1.008	0.133*** (0.047)	1.143	0.107* (0.055)	1.113
전년도 가해 경험	0.621 (0.356)	1.860	0.524 (0.757)	1.689	0.579 (0.793)	1.785
전년도 피해 경험	-0.022 (0.264)	0.978	1.805*** (0.303)	6.080	1.419*** (0.363)	4.134
전년도 가해·피해경험	0.793 (0.523)	2.210	-0.153 (0.894)	0.858	0.003 (0.967)	1.003
상수	-0.567 (1.491)	0.567	-4.038 (2.633)	0.018	1.277 (2.874)	3.587
$LR\chi^2$	184.76*** (df: 48)					
n	1,863					

주) *** $p < 0.001$, ** $p < 0.01$, * $p < 0.05$.

〈표 6〉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를 모두 경험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자존감은 학교 폭력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의 93% 수준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text{Exp}(\beta)=0.929$),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1학년 학

생들 간의 학교폭력 유형 차이에 대한 다항로지모형 분석 결과, 자존감이 낮은 학생일수록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를 모두 경험할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생들의 자존감이 높아질 경우,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를 모두 경험할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제변수들의 경우 중 1 남학생이 중 1 여학생에 비해 학교폭력 가해를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 수학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낮아지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전년도에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일수록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할 확률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를 모두 경험할 확률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간 가구소득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 1 패널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자존감 차이가 학교폭력 경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학교폭력 경험 유형 차이에 대한 다항로지모형 분석 결과 (중1 패널 대상)

변수명	참조 그룹: 학교폭력 미경험 학생					
	학교폭력 가해 경험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폭력 가해·피해 경험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자존감	-0.013 (0.017)	0.987	-0.058* (0.029)	0.943	-0.108*** (0.032)	0.898
남학생	1.127*** (0.148)	3.087	0.668*** (0.244)	1.949	1.584*** (0.307)	4.872
학교 소재지	-0.312* (0.139)	0.732	-0.497* (0.247)	0.608	-0.347 (0.268)	0.707
모학력2	-0.396 (0.365)	0.673	13.698 (697.838)	.	0.880 (1.020)	2.410
모학력3	-0.269 (0.419)	0.764	12.894 (697.838)	.	-0.073 (1.162)	0.930
모학력4	-0.253 (0.384)	0.776	13.426 (697.838)	.	0.515 (1.053)	1.674
모학력5	0.376 (0.604)	1.456	13.185 (697.839)	.	1.079 (1.586)	2.942
연간 가구 소득	-0.184 (0.108)	0.832	0.433 (0.248)	1.541	-0.439*** (0.159)	0.645
수학 성적2	0.008 (0.199)	1.008	-0.299 (0.359)	0.741	-1.104* (0.505)	0.332
수학 성적3	-0.187 (0.195)	0.830	-0.387 (0.349)	0.679	0.173 (0.316)	1.189
수학 성적4	-0.100 (0.186)	0.905	0.006 (0.312)	1.006	-0.677 (0.421)	0.508
방임	0.041 (0.032)	1.042	-0.033 (0.057)	0.967	-0.030 (0.063)	0.970

변수명	참조 그룹: 학교폭력 미경험 학생					
	학교폭력 가해 경험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폭력 가해·피해 경험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학대	0.027 (0.025)	1.028	0.036 (0.042)	1.037	0.008 (0.048)	1.008
전년도 가해 경험	1.383*** (0.148)	3.987	0.040 (0.334)	1.041	1.535*** (0.316)	4.642
전년도 피해 경험	0.069 (0.360)	1.072	1.605*** (0.323)	4.977	0.904 (0.563)	2.470
전년도 가해·피해 경험	-0.141 (0.439)	0.868	-0.596 (0.572)	0.551	0.319 (0.659)	1.376
상수	-0.914 (1.087)	0.401	-18.876 (697.841)	0.000	1.253 (1.952)	3.500
$LR\chi^2$	366.82*** (df: 48)					
n	1,899					

주) *** $p<0.001$, ** $p<0.01$, * $p<0.05$.

〈표 7〉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text{Exp}(\beta)=0.943$)과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를 모두 경험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text{Exp}(\beta)=0.898$)의 자존감은 학교폭력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유형 차이에 대한 다항로지모형 분석 결과,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일수록 학교폭력 피해 혹은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를 모두 경험할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생들의 자존감이 높아질 경우, 학교폭력 피해 및 학교폭력 가해·피해 모두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제변수들의 경우 중 3 남학생들이 중 3 여학생들에 비해 학교폭력 가해, 피해, 가해·피해 모두를 경험할 확률이 모두 높으며,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일수록 학교폭력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간 가구소득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년도에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일수록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거나 혹은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를 모두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며, 이와 반대로 전년도에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일수록 또다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최근 들어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관심이 높아져감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폭력 집단 유형과 관련된 다양한 개인 내·외적 특성을 탐색하기 위한 분석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

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이미 학교폭력 집단유형이 결정된 것으로 가정하고, 각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학교폭력의 집단 유형을 결정짓는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며, 실제로 이들의 영향력이 어떠한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집단 유형별로 자존감 및 삶의 만족도 수준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관련 변수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개인 관련 요인이라는 선행 연구들의 분석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유형별로 개인 수준 변수들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에 있어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폭력 미경험 집단의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이 대체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는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나 피해·가해를 모두 경험한 학생들보다는 높게 나타난 점이다.

둘째,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개인 관련 수준에서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은 학교폭력 집단 유형의 결정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중학교 1, 3학년 모두에서 만족도가 낮을수록 학교폭력 피해 집단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존감이 낮을수록 학교폭력의 가해·피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3의 경우 피해자 집단으로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잠재적인 피해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낮은 자존감,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학생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개인 특성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 혹은 학교폭력 피해 위험학생(at-risk)을 대상으로 개인 차원의, 스스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혹은 타인과의 관계 개선 등을 위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정수준 변인인 모학력 혹은 학대 경험은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1의 경우 가정에서 학대를 받은 학생일 경우, 그리고 모학력이 낮을수록 학교에서도 피해학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중 3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가정 변인들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정 변인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질 수 있을 것이라 해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결론을 확정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분석 결과는 가정에서 폭력을 당한 학생이 가해자 집단이 될 것이라는 이전의 연구 결과(신희경, 2006; 이상균, 2005)와는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볼 때 성장 환경에 따른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며 엄밀한 분석이 요청됨을 알 수 있다.

넷째,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수준 변인 중 성적이 낮을수록 학교폭력의 가해자 집단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전에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일수록 다음해에도 학교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중1의 경우, 작년에 피해 경험이 있다면 다음해에도 피해를 경험하거나 피해 및 가해를 모두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3의 경우 작년에 가해 경험이 있다면, 올해 역시 가해 경험과 함께 피해·가해를 동시에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에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경우, 여전히 올해에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폭력을 한번 경험한 학생은 그 피해자 집단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며, 오히려 가해학생의 경우 그 집단 간 이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특히,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결정짓는 요인과 관련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존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일수록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결정요인 때문에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라는 결정론적 관점이 아니라,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야 한다’는 예방론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는 모든 학생들, 즉 학교폭력의 잠재적 피해자인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설계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할수록 학교폭력 피해 혹은 학교폭력 피해·가해를 모두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며, 이전의 학교폭력 경험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노력을 초등학교 이하 저학년 수준으로까지 확대함은 물론, 가정 내 아동 학대 및 폭력 또한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참고 문헌

- 김준화 (1997). **학교주변폭력의 실태 대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혜원, 이해경 (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문용린, 김준화, 임영식, 박금주, 최지영, 박병식 등(2006).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서울: 학지사.

- 민인식, 최필선(2012).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 지필미디어.
- 박효종(2012). **학교폭력의 원인과 극복방안**. 서울교육 제 206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신중순(1991).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희경 (2006). 가해 청소년, 피해 청소년, 가해·피해 청소년 집단유형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청소년연구**, 17(1), 297-323.
- 이상균 (2005). 청소년의 또래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생태 체계적인 영향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19, 141-170.
- 이춘재, 박금주 (1999).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실태, 특성 및 대책**. 서울: 집문당.
- 조영일(2013).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연구: 학교폭력 집단 유형의 변화에 미치는 원인.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6(2). 67-85.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2011년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 서울: 청재단.
-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2013).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서울: 학지사.
- 한세영(2010).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의 공격성과 관련된 자존감, 수치심,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인간발달연구**, 17(1), 125-143.
- Ahmed, E. (2001). *Shame management: regulating bullying*(pp. 211-314) in *Shame Management through Reintegration*, edited by Eliza Ahmed, Nathan Harris, John Braithwaite, and Valerie Braithwait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aig, W. M. (1998). The relationship among bullying, victimization, depression, anxiety, and aggress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1), 123-130.
- DuBois, L. D., Felner, D. R., Brand, S., & George R. G. (1999). *Profiles of self-esteem in early adolescence: identification and investigation of adaptive correlates*. *Am J Community Psychol*, 27(6), 899-932.
- Grigsby, J. & Stevens, D. (2000). *The neurodynamics of personality*. NY: Guilford.
- Hyman, I., Kay, B., Tabori, A., Weber, M., Mahon, M., & Cohen, I. (2006). *Bullying: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 In C. M. Evertson & C. S. Weinstein (Eds.), *Handbook of classroom management: Research, practice, and contemporary issues* (pp. 855 - 884). Mahwah, NJ: Lawrence Erlbaum.
- Lester, L., Cross, D., Dooley, J., & Shaw, T. (2013).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 victimization: Predictors and outcome. *Social Influence*, 8(2), 107-130.
- Natvig, G. K., Albreksten, G., & Qvarnstrom, U. (2001). Psychosomatic symptoms among victims of school bullying.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6, 365 - 377.
- Olweus, D. (1997). Bullying/victim problems in school: Facts and interventio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12(4), 495 - 510.
- Rutter, M. (1985). Family and school influences on behavioral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6, 349-368.
- Slee, R. T. (1995). Peer victim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depression among Australian primary school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 57-62.
- Zimmerman, B.J., Bandura, A. and Martinez-Pons., M. (1992). Self-motivation for academic attainment: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and personal goal sett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9, 663-676.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과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임재연*·이선숙**·박종효***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조절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중1 패널자료(2차조사, 3차조사)를 활용하였고, 피해지속유형을 무피해, 일회적 피해, 지속적 피해로 구분하였다. 중2학년 피해가 중3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속적 피해유형은 무피해유형에 비해 2학년, 3학년 모두 유의미하게 낮은 학교적응을 보였다. 반면, 일회적 피해유형은 무피해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중2학년의 피해가 중3학년의 학교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쳐 지속적 피해유형은 지속적 피해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았다. 셋째, 대인관계변인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일회적 피해유형의 경우 피해를 당했지만 교우관계가 좋으면 무피해유형 보다도 좋은 학교적응을 보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피해유형에 대해 차별화된 개입과 교우관계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학교폭력 피해, 학교적응,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피해지속유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교육부, 2013)은 학교폭력 피해율이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의하면 폭행·금품갈취와 같은 신체적 폭력은 줄어들었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따돌림·언어폭력과 같은 정신적(혹은 관계적)폭력 및 사이버폭력은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전체 학교폭력 피해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학생은 오히려 증가했고, 피해 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피해학생도 증가했다. 또 학교폭력을 목격했으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방관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의 발생비율이나 유형은 변화할

*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조교수 jonghyop@hanmail.net

수 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피해학생을 돕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들은 심리적인 고통 뿐 아니라, 결석, 학교활동 기피, 학업성취 방해 등 학교부적응을 겪게 된다(Oldenburg et al. 2014; Swearer, Espelage, & Napolitano, 2011; Park, 2006; Wei & Williams, 2004; Hawker & Boulton, 2000; 오인수, 2010; 문용린 외, 2005). 학교폭력이 피해학생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연구는 주로 피해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이나 행동의 원인 요인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중심의 연구는 학교폭력을 경험했지만 학교폭력 후에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피해학생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떤 요인이 학교폭력 피해로부터 학생들, 특히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피해학생의 학교적응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호요인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개인변인이나 1차적 지지체계인 부모 및 가정변인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Goldstein, 2009; 김혜원, 2011; 이은희, 김남숙, 2011; 이은희, 손정민, 2011; 박종효, 2007a; 안정숙, 신승우, 2001),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적다(선우현정, 이희선, 2014; 박경아, 2002).

학교폭력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다(Olweus, 1993;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a; 권재기, 2011). 피해가 지속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학급의 교사와 학생들이 피해학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피해학생에게 피해의 책임을 귀인하는 점이다. 이는 학교폭력을 지속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동을 만들어 낼 수 있다(Olweus, 1993; 이상균, 1999; 방기연, 2011; 신성자, 2012). 따라서 피해학생들의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는 이들의 학교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에 틀림없다. 교사의 지지나 또래의 지지가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성지희, 정문자, 2007; 김예성, 박현선, 2007; 이희영, 이미연, 2006), 피해학생의 교우관계나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적응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박종효, 2007a). 피해학생의 학교적응에 대인관계 변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피해학생의 학교적응 관련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학교폭력 유형과 상관없이 단 한번이라도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폭력 피해자로 분류하였다(이은희, 김남숙, 2011; 이은희, 손정민, 2011; 성지희, 정문자, 2007; 김예성, 박현선, 2007; 이희영, 이미연, 2006; 박경아, 2002). 최근 연구에 의하면 폭력 피해자의 학교적응 수준은 피해 유형뿐 아니라 피해의 지속성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시적 피해자와 지속적 피해자를 구분하여 학교적응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Solberg & Olweus, 2003; 박종효, 2007b; 권재기, 2011; Nansel, Craig, Overpeck, Saluja, & Ruan, 2004; 김혜원 2013 재인용). 예를 들면 1회의 놀림을 당한 학생과 2회 이상의 따돌림을 당한 학생의 피해상황과 이로 인한 학교적응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번

의 피해에 그칠 수도 있지만, 한번 피해를 당할 때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했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또 다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피해학생의 개인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학교적응에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학생의 학교적응을 일회적 피해와 2회 이상의 지속적 피해를 구분하여 그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횡단적 연구이다(이은희, 김남숙, 2011; 이은희, 손정민, 2011; 김혜원, 2011; 성지희, 정문자, 2007; 김예성, 박현선, 2007). 피해를 경험하고 1년 후 또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난 피해학생의 학교적응을 종단적 차원에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가 큰 현상이다(김혜원, 2013; 권재기, 2011; 심희옥, 2005). 피해학생의 학교적응 연구에서 피해와 학교적응을 동시에 조사할 경우, 학교폭력 피해가 부정적인 학교적응에 선행하는지, 낮은 학교적응 수준이 피해를 당하게 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의 방향을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 학교적응의 개념은 위기적 상황을 경험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학교적응의 정도를 조사해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Masten, 2001; 신현숙, 2003; Goldstein, 2009). 따라서 피해학생의 피해 경험과 일정 시점 이후의 학교적응을 종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유무 뿐 아니라, 학교폭력의 일회적 피해와 지속적 피해를 구분하여 이들의 1년 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며, 학교폭력 피해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조절변인으로는 대인관계적 변인(교사관계, 교우관계)을 검토하며, 이 변인들이 학교폭력의 유무와 피해정도의 차이에 따라 피해 후 1년 뒤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호작용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학교폭력 무피해 집단, 일회적 피해집단과 지속적 피해집단 간에 학교적응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 2)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과 대인관계 변인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 3)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대인관계(교사관계, 교우관계)가 조절하는가?

2. 이론적 배경

1) 학교폭력 피해의 정의와 피해지속유형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는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

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법제처, 2013). 학교폭력의 형태가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의 증가, 뺑서틀 등 갈수록 다양해지고 예측할 수 없는 형태가 나타나는 특징으로 인해 학교폭력의 유형도 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개념은 Olweus(1993)가 정의한 불링(Bullying)의 개념보다 더 포괄적으로 폭력의 다양한 유형들을 포함하고 있다(김혜원, 2013).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의 개념을 학교폭력법에 나타나 있는 유형에 준하여 신체적폭력, 금품갈취, 놀림, 따돌림, 협박, 성폭력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정의한다.

Olweus(1993)는 불링을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로 정의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b)의 학교폭력 상담내용 분석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의 29%만 한 번의 피해에 그쳤을 뿐, 71%의 피해자가 2회에서 1년 이상의 지속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한다. 학교폭력 피해는 피해학생의 직접적인 피해 상황 자체보다도 피해 당사자가 처한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 더 영향을 받는다. 즉, 주변에 피해 사실이 노출되었다는 수치심 또는 교사나 또래로부터의 지지받지 못하는 거절감 및 단절감이 피해학생에게 더 큰 위기감을 주게 되며 이는 피해의 지속으로 이어진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8; 오승환, 2007). 교사와 주변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인식과 관계는 학교폭력을 지속하는 중요한 역동을 만들어 낼 수 있다(Olweus, 1993; 이상균, 1999; 방기연, 2011; 신성자, 2012).

따라서 Olweus는 한달에 적어도 2회 이상 불링의 피해를 당했다고 할 때 피해자로서 정의하였다.(Solberg and Olweus, 2003). 반복되지 않고 한 번의 피해에 그치는 행위는 불링이 아니며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에 관한 대표적 국가 간 비교연구인 HBSC(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에서도 재학기간 중에 2번 이상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이를 학교폭력 피해자로 분류하고 있다(Nansel et al, 2004; 김혜원 2013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한번 이상 피해 경험 학생을 피해학생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표본의 40%에서 68%까지 피해자로 분류되어 분석되었다(이은희, 김남숙, 2011; 이은희, 손정민, 2011; 성지희, 정문자, 2007; 이희영, 이미연, 2006; 박경아, 2002). 단 한 번의 피해라도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의 정의에 따라 피해 실태가 다르게 파악되는 연구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김혜원, 2013). 피해자를 일회적 피해부터 볼 것인가, 2회 이상 피해부터 볼 것인가에 대한 학문적 합의가 없는 가운데, 우선 이들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학교폭력 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어떤 학생은 일시적으로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지속유형을 구분한 몇몇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피해 지속의 기준이 학년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 피해 이후 학년이 올라갔을 때 피해가 그치고 정상집단에 속하는 경우 초기피해 또는 일시피해 집단, 반면 학년이 올라갔을 때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 지속피해 집단으로 구분하였다(Kochenderfer-Ladd & Wardrop,

2001; 박종효, 2007b; 권재기, 2011). 그리고 지속적 피해자의 경우 일시적 피해자에 비해 더 부정적인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한다고 보고한다(Kochenderfer-Ladd & Wardrop, 2001; 박종효, 2007b).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피해가 1년 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 때문에, 피해지속유형을 한 학년에서 한번 피해를 당한 일회적 피해(우리나라 연구에서 정의되는 피해자)와, 2회 이상의 지속적 피해(Olweus가 정의한 피해자), 피해 경험이 전혀 없는 무피해 유형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자 한다.

2) 학교폭력 피해와 학교적응의 관계

학교적응이란 학교에서 요구되는 학문적,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요구를 학생이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Birch & Ladd, 1996). 국내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학교적응은 학문적 차원, 사회적 차원, 정의적 차원, 행동적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박종효, 2013). 박현선(1999)은 Hernandez의 학교생활 적응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학교적응 구성요소로 학교생활 흥미,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 학교규범에 대한 준수로 분류하였다. 또 박종효(2013)는 학교 만족도, 학교규칙 이탈, 학교성적 등이 학교적응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종합해보면 학교적응을 나타내는 하위개념으로 학교성적, 학교규칙 준수, 학교생활참여 등을 공통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피해학생의 학교적응 관련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경험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일관되게 낮은 학교적응을 보이고 있다(이희영, 이미연, 2006; 성지희, 정문자, 2007; 김예성, 박현선, 2007; 이은희, 김남숙, 2011; 박경아, 2002). 이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학교적응을 잘하는 피해학생에게는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유능감, 회복탄력성과 같은 내적인 보호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호요인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 위험요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부정적 발달경로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주는 개인적·환경적 특징들이다(Compas, Hinden, Gerhardt, 1995; 신현숙 2003 재인용). 지금까지 학교적응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내적 보호요인인 학생 개인의 심리적 특징과 외적 보호요인 중에서도 일차적 지지체계로서의 부모 및 가정의 배경 변인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Goldstein, 2009; 김혜원, 2011; 이은희, 김남숙, 2011; 이은희, 손정민, 2011; 박종효, 2007a; 안정숙, 2001). 부모양육, 부모와의 유대감이 긍정적일수록 또는 부모의 교육 관여도가 높을수록 피해학생은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희영, 이미연, 2006; 성지희, 정문자, 2007; 김예성, 박현선, 2007).

또한 학교폭력 피해 자체가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도 있지만, 보호요인의 매개과정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더 적합하다고 보고한다(김예성, 박현선, 2007; 강수령, 이경님, 2001; 김혜원, 2011). 즉, 학교폭력 피해 자체가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보호요인이 존재할 경우 보호요인의 완충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학교적응에 보다 강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학교폭력 피해 영향의 조절변인으로서 대인관계

이원이와 김동일(2009)은 메타분석을 통해 학교적응을 촉진하는 학교관련 요인으로 교사요인, 또래요인, 학교에서의 경험(사건, 학업성취 등) 등이 있다고 분류하였다. 피해학생의 학교적응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교사의 지지, 또래의 지지가 중요한 외적 보호요인임을 보고한다(Wang, Iannotti & Luk., 2011; 성지희, 정문자, 2007; 김예성, 박현선, 2007; 이희영, 이미연, 2006; 박경아, 2002). 다수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이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피해학생이 교사의 지지나 또래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봉건 외(2001)의 연구에 의하면 괴롭힘을 당하거나 가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 자아정체감 수준과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보다 유의하게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숙과 조아미(2012)의 연구에서도 피해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친구에 대한 갈망이었다. 친구에 대한 갈망이 많은 경우 피해 이후 자신의 인생에 대해 보다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주체성 회복’이라는 중심현상에 더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우관계는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또 피해학생의 학교적응에도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우관계가 학교폭력의 유무와 피해정도의 차이에 따라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호작용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사와의 관계가 피해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연구결과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피해학생의 피해가 더 지속되는데 기여한다(방기연, 이규미, 2009; 방기연, 2011; 신성자, 2012; Veenstra, Lindenberg, Huitsing, Sainio & Salmivalli, 2014). 또한 교사의 지지 수준은 학교폭력 발생에 부정 상관을 보고한다(신성자, 정숙희, 2010; 김은영, 2008; 오승환, 2007). 따라서 긍정적인 교사와의 관계는 피해학생을 긍정적인 학교적응으로 이끈다(Baker, 2006; 박정주, 2011). 그리고 피해경험이 있지만 교사의 지지가 높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성지희, 정문자, 2007). 선우현정과 이희선(2014)은 따돌림 피해학생의 학교적응에 교사-학생의 관계가 조절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래서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경우 따돌림 피해가 있는 경우에도 양호한 적응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이 교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교폭력을 더 당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김혜원, 이혜경, 2000). 즉, 교사가 특정 학생과 지나치게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오히려 학교폭력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시사한다(한유경 외, 2014).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1패널 자료 중 2차(2011), 3차조사(2012)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발달 및 성장과정을 종단적, 횡단적으로 포착하기 위하여, 3개 연령코호트의 자료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조사하도록 설계된 패널이다. 이중 중1패널의 모집단은 2010년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과 그들의 보호자로서, 전국의 총 3,117개교의 679,350명 학생이 대상이었고, 이중 남학생은 359,490명이었고, 여학생은 319,860명이었으며, 남학생이 15,630명 더 많았다. 이를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으로 표본추출하여 전국의 78개교 중학교 1학년 2,351명이 표본추출되었다(김자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이 연구에서는 중1패널 자료 중 학교폭력 피해 지속유형을 측정할 수 있는 2차년도와 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 중에서도 학교폭력 피해 유무 및 2차와 3차의 적응 변수에서 결측치가 발생한 사례인 164개 사례를 제외한 2,187명의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 중 남학생은 1,100명(50.3%)이었으며, 여학생은 1,087명(49.7%)이었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분석한 변인은 성별, 학교피해경험, 학교적응,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이며, 김자경 외(2010)의 연구에 기초를 두었다.

1)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은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피해횟수를 기준으로 3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신체적폭력, 금품갈취, 놀림, 따돌림, 협박, 성폭력을 당한 경우로 정의하였고, 분석한 문항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가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일탈 및 비행관련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조사한 중1패널 2차년도 ‘비행피해’ 6항목이었다. 이 문항들은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집단따돌림 당하기’, ‘심하게 맞기’, ‘협박당하기’, ‘돈이나 물건 뺏기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항목에 대하여 각각 ‘지난 일년간 다른 청소년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가?’를 ‘유/무’로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만약 ‘유’라고 표시했다면 그에 따른 ‘피해경험의 횟수를 지난 1년 동안 몇 회였는지’ 적도록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을 무피해, 일회적 피해, 지속적 피해로 구분하였는데, 무피해는 전혀 피해경험이 없는 경우, 일회적 피해는 단 1유형을 1회만 경험한 경우, 지속적 피

해는 단 1유형의 피해라도 2회 이상 경험하거나 학교폭력 피해를 2영역 이상에서 경험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2)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성적, 학습활동, 학교규칙으로 구성하였다. 성적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과목의 1학기 성적을 사용했는데, 각 과목 점수는 학생들이 64점 이하부터 96점 이상까지 5점 간격으로 총 8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학습활동은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와 같이 학습에 대한 흥미 정도, 과제의 이행 정도, 학습활동에 대한 이해, 모르는 것에 대한 적극적 대처, 학습태도 총 5개의 문항에 4점 리커트로 반응하게 구성되어 있다.

학교 규칙은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와 같이 당번활동, 실내 활동, 공공물건 이용, 차례 지키기, 쓰레기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급규칙도 총 5문항에 대해 4점 리커트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학교적응 점수는 학습활동, 학교규칙, 성적을 각각 100점으로 환산하여 총합을 구하였다. 학교적응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 및 참여, 학교규칙에 순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2학년 학교적응의 신뢰도는 .84이었으며, 3학년 학교적응의 신뢰도는 .85이었다.

표 1 학교적응의 신뢰도 계수

	2학년 학교적응	3학년 학교적응
전체	.84	.85
성적	.91	.91
학습활동	.70	.74
학교규칙	.79	.79

3) 교우관계와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와 같이 교우들과의 어울림 정도, 사과하기, 친구에 대한 배려, 친구 일에 대한 방해, 교우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우관계는 5문항 4점 리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우관계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는 좋은 것을 의미한다. 교우관계의 신뢰도 계수는 .53이었다.

교사와의 관계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와 같이 교사에 대한 친밀감, 교사에 대한 편안함, 학교 밖에서의 관계, 교사가 표현하는 친절에 대한 지각, 내년 담임교사를 희망하는지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4점 리커트로 반응하게 되어있다. 교사관계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관계는 보다 좋은 것을 의미한다. 교사관계의 신뢰도는 .84이었다.

3. 분석절차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인 무피해, 일회적 피해, 지속적 피해 유형별로 당해 학년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는 종단적으로 다음 학년에서도 여전히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대인관계 변인(교사관계 및 교우관계)이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알아보하고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본격적 분석에 앞서 주요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성별이 본 분석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피해집단과 성별을, 또 2학년의 피해유형이 3학년의 피해유형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과 피해집단 그리고 2학년 피해유형과 3학년 피해유형에 대해 각각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ANOVA를 이용하여 무피해, 일회적 피해, 지속적 피해 유형별로 당해 년도 학교적응이 유의하게 평균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고, 중학교 2학년의 학교적응과 성별을 통제하고도 여전히 피해집단별로 중학교 3학년의 학교적응이 유의하게 평균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NC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정도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대인관계 변인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무피해를 기준집단으로 더미변수 2개를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에도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주는 변인인 성별은 통제하였다.

Ⅲ. 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

2학년때 학교폭력 피해를 몇 유형 당했는지에 대한 평균은 0.19였으며, 폭력 피해의 총횟수는 평균 1.25회로 나타났다. 2학년과 3학년의 학교적응 최소점수는 최대점수는 각각 62.50과 300.00으로 동일했으며, 2학년보다 3학년의 학교적응 평균점수가 0.21점 높았다. 2학년의 교사관계와 3학년의 교사관계도 최소점수가 각각 5.00, 최대점수가 20.00으로 동일했으며, 3학년의 교사관계 점수가 0.42점 상승하였다. 교우관계는 3학년의 최소값이 2학년보다 1점 낮은 7점이었으며, 최대값은 2학년과 3학년이 20.00으로 동일했다. 3학년의 교우관계는 2학년 교우관계보다 0.27점 상승하였다.

성별, 학교폭력 피해유형의 총합,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총 횟수, 2학년의 교우관계 및 3학년 교우관계, 그리고 2학년과 3학년의 학교적응 간의 상관을 알아보하고자, 피어슨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더미변수로 변환하였으며, 여학생을 1로 설정하였다. 결과는 <표2>와 같다.

분석 결과, 여학생일수록 학교폭력 피해유형 총합과 피해 총횟수가 남학생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높으며, 학교적응 수준이 높고 교우관계도 남학생에 비하여 좋을 가능성이 있었다. 학교폭력 피해유형 총합은 폭력 피해 총횟수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 학교폭력 피해유형 총합과 학교적응 및 교우관계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반면 학교폭력 피해유형 총합과 2학년 교사관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폭력피해 총횟수도 학교적응과 교우관계에서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2학년의 학교적응·교우관계·교사관계와 3학년의 학교적응·교우관계·교사관계 간에는 서로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3학년의 학교적응과 2학년 학교적응의 상관은 .772로 여러 변인 중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표 2 분석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인 간 상관

	M(SC)	1	2	3	4	5	6	7	8
1. 성별									
2. 폭력피해유형총합	0.19(0.57)	-.043*							
3. 폭력피해 총횟수	1.25(8.84)	-.066**	.441***						
4. 2학년 학교적응	190.82(40.57)	.046*	-.100***	-.064**					
5. 2학년 교우관계	15.09(2.06)	.118***	-.107***	-.063**	.415***				
6. 2학년 교사관계	14.03(3.31)	-.032	.059**	.031	.383***	.374***			
7. 3학년 학교적응	191.03(41.50)	.078***	-.117***	-.068**	.772***	.320***	.248***		
8. 3학년 교우관계	15.36(1.96)	.097***	-.118***	-.046*	.308***	.04***	.186***	.414***	
9. 3학년 교사관계	14.45(3.14)	-.003	-.024	.012	.278***	.232***	.385***	.376***	.371***

성별(남=0, 여=1) * $p < .05$ ** $p < .01$ *** $p < .001$

2.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의 집단차이 분석

1)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과 성의 관련성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무피해, 일회적 피해, 지속적 피해)과 성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피해지속유형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chi^2(2)=9.09$, $p < .05$). 무피해 유형은 남학생 86.8%, 여학생 88.1%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간 더 많은 반면에 지속적 피해유형에는 여학생(8.6%)보다는 남학생(10.1%)이 더 많이 포함되었다.

표 3 피해지속유형과 성의 관련성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 (N,%)			전체 (N,%)
		무피해	일회적 피해	지속적 피해	
성별	남자	955(86.8)	34(3.1)	111(10.1)	1,100(100.0)
	여자	958(88.1)	51(4.7)	78(7.2)	1,087(100.0)
전체		1913(87.5)	85(3.9)	189(8.6)	2,187(100.0)

$\chi^2(2)=9.09$ $p < .05$

2)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의 시간적 안정성 분석

2학년때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이 3학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¹⁾. 2학년과 3학년의 학교폭력 피해지속 유형간의 교차검증 결과, 2학년의 피해지속 유형과 3학년 피해지속유형 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었다($\chi^2(4)=135.96$, $p<.001$).

전반적으로 2학년에 비하여 3학년의 학교폭력이 줄었으며, 2개년에 걸쳐 동일한 피해 지속유형을 유지하는 집단은 무피해 집단이 94.3%로 가장 컸고, 지속적 피해집단이 두번째로 25.9%, 일회적 피해가 3.5%로 가장 작았다. 즉 2학년 피해지속유형과 3학년 피해지속유형은 서로 유의하게 달랐음에도, 2학년의 지속적 유형은 3학년에도 여전히 25.9%의 높은 비율로 지속적 피해 유형에 남아있었다. 2학년때 일회적 피해였으나 3학년때는 무피해 집단이 된 경우는 87.1%였고, 2학년때 지속적 피해였는데 3학년때 무피해 집단이 된 경우는 71.4%였다.

표 4 2학년과 3학년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간 관련성

		3학년 피해지속 유형 (N, %)			전체 (N, %)
		무피해 (2007, 91.8)	일회적 피해 (30, 1.4)	지속적 피해 (142, 6.5)	
2학년 피해지속 유형	무피해 (1913, 87.5)	1801(94.3)	22(1.2)	86(4.5)	1909(100.0)
	일회적 피해 (85, 3.9)	74(87.1)	3(3.5)	8(9.4)	85(100.0)
	지속적 피해 (189, 8.6)	132(71.4)	5(2.7)	48(25.9)	185(100.0)
전체		2007(92.1)	30(1.4)	142(6.5)	2179(100.0)
$\chi^2(4)=135.96$ $p<.001$					

3. 피해지속유형과 학교적응의 평균차이 분석

1) 피해지속 유형의 2학년 학교적응 평균차이분석

성별을 통제하고도 무피해, 일회적 피해, 지속적 피해 집단에 따라 2학년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평균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5>에 나타나 있다.

1) 3차년도 피해문항은 '심한 욕설'을 측정하는 1항목이 추가되어 2차년도 피해문항보다 많아졌으나 2학년 학교폭력 지속유형을 구분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3학년의 학교폭력 피해지속 유형도 3학년 피해 응답을 기준으로 전혀 피해경험이 없는 경우는 무피해, 단 1회의 유형을 1회만 경험한 경우는 일회적 피해, 단 1회의 피해유형이라도 2회 이상 경험하거나 학교폭력 피해를 2영역 이상에서 경험한 경우는 지속적 피해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3학년 학교폭력 무피해는 2007명으로 91.8%였고, 일회적 피해는 30명으로 1.4%였으며, 지속적 피해는 142명으로 6.5%였다. 3학년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의 결측치는 8명(0.4%)이었다.

표 5 ▶ 피해 지속유형별 2학년 학교적응의 평균차이 분석 결과

		<i>N</i>	<i>M</i>	<i>SD</i>	<i>F</i>	사후검증
2학년 학교 적응	무피해(a)	1913	192.13	40.55	8.47***	a>c
	일회적 피해(b)	85	185.28	40.64		
	지속적 피해(c)	189	180.06	39.15		
	합계	2187	190.82	40.57		

*** $p < .001$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피해지속유형별로 유의한 학교적응 수준의 차이가 발견되었다($F=8.47$, $p < .001$). 피해지속유형별 평균은 $F(2, 2184)=8.47$ 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달랐다. 구체적인 집단의 차이를 보다 알기 위해서 Scheffe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더니, 무피해와 지속적 피해유형은 유의하게 학교적응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일회적 피해와 무피해, 일회적피해와 지속적 피해의 학교적응 평균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학교폭력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을 때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보다 유의미하게 학교적응이 나빠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피해지속유형이 1년 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학교 2학년 때 구분한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이 2학년의 학교적응과 성별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1년 후 3학년 때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ANC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교차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성별도 같이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고, 그 결과는 <표6>과 같다.

표 6 ▶ 2학년적응과 성별 통제 후 피해지속유형별 3학년 학교적응의 차이

		<i>N</i>	<i>M</i>	<i>SD</i>	<i>F</i>	사후검증
3학년 학교 적응	무피해(a)	1913	191.76	0.60	817.44***	a>c
	일회적 피해(b)	85	186.07	2.85		
	지속적 피해(c)	189	185.82	1.92		

*** $p < .001$

전반적으로 2학년때 구분한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은 1년 후 3학년의 학교적응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817.44$, $p < .001$). 구체적인 집단차이를 알기 위하여 참조범주를 무피해유형으로 하여 단순대비를 실시한 결과, 무피해와 지속적 피해는 평균차가 5.95이며 표준오차가 2.01로 $p=.003$ 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반면 일회적 피해와 무피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2학년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2학년 학교적응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2학년 학교적응을 통제하더라도 여전히 3학년의 학교적응이 좋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4. 학교폭력피해유형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단기종단 영향 및 조절효과

1)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단기종단 영향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이 1년 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은 3학년 학교적응은 종속변수로, 2학년 학교적응, 2학년 교사관계, 2학년 교우관계, 성별, 학교폭력 피해유형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입력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무피해유형을 기준변수로 설정하고, 더미변수 2개를 이용하여 일회적 피해유형을 더미1로, 지속적 피해유형을 더미2로 설정하였다. 학생의 성별도 여학생을 1로 남학생을 0으로 설정한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성별, 2학년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 피해지속유형은 3학년 학교적응의 60%정도를 설명하였다. 평균적으로 학교적응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좋았다. 3학년의 학교적응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2학년 학교적응이었고, 2학년 학교 적응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은 3학년의 학교적응을 $\beta=0.38$ 로 $p<.0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설명하였다. 또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2학년 교사관계는 $\beta=-3.28$ 로 $p<.001$ 수준에서 부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지속적 피해도 $\beta=-0.04$ 로 $p<.01$ 수준에서 부적으로 3학년의 학교적응을 설명하였다.

표 7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단기종단 영향 분석 결과

	<i>B</i>	β	<i>t</i>
(상수)	44.3		10.14***
2학년 적응	0.80	0.78	50.59***
성별(여=1)	3.19	0.38	2.81**
2학년 교우관계	0.12	0.06	0.37
2학년 교사관계	-0.63	-0.05	-3.28***
d1(일회적 피해=1)	-5.46	-0.03	-1.88
d2(지속적 피해=1)	-5.25	-0.04	-2.59**
<i>F</i> = 549.074***		<i>R</i> ² = .602	

* $p<.05$ ** $p<.01$ *** $p<.001$

2) 피해지속유형과 학교적응의 조절변인으로서 대인관계 영향 탐색

피해지속유형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교우관계나 교사관계가 조절(moderation)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속유형과 대인관계 간의 상호작용 변수를 생성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일회적 피해유형과 2학년 교우관계가 $\beta=0.36$ 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표 8 ▶ 피해지속유형과 대인관계의 조절영향 분석결과

	B	β	t
(상수)	45.04		9.73***
2학년적응	0.80	0.78	50.64***
성별(여=1)	3.40	0.04	3.00**
2학년 교우관계	0.15	0.01	0.44
2학년 교사관계	-0.72	-0.06	-3.51***
d1(일회적 피해=1)	-81.45	-0.38	-3.33***
d2(지속적 피해=1)	6.58	0.05	0.44
d1 * 2학년 교우관계	5.09	0.36	2.93**
d2 * 2학년 교우관계	-1.58	-0.16	-1.67
d1 * 2학년 교사관계	-0.09	-0.01	-0.09
d2 * 2학년 교사관계	0.75	0.08	1.18
F=332.39*** $R^2 = .604$			

** $p < .01$ *** $p < .001$

상호작용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준 집단인 무피해유형과 일회적 피해유형의 2학년 교우관계의 평균으로부터 각각 1표준편차 높은 집단과 1표준편차 낮은 집단의 3학년 학교적응 점수를 도식화하였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회적 피해유형 중 교우관계가 좋았던 집단은 적응점수가 평균이 205.98로 무피해유형이면서 교우관계 적응점수가 높았던 집단의 3학년 학교적응 점수 평균인 200.77보다 더 높았다. 반면 일회적 피해유형 중 교우관계가 나빴던 집단의 3학년 학교적응 평균점수는 159.44로 무피해집단 중 교우관계가 낮았던 집단의 학교적응 점수인 174.68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지속유형별로 학교폭력피해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교우관계가 조절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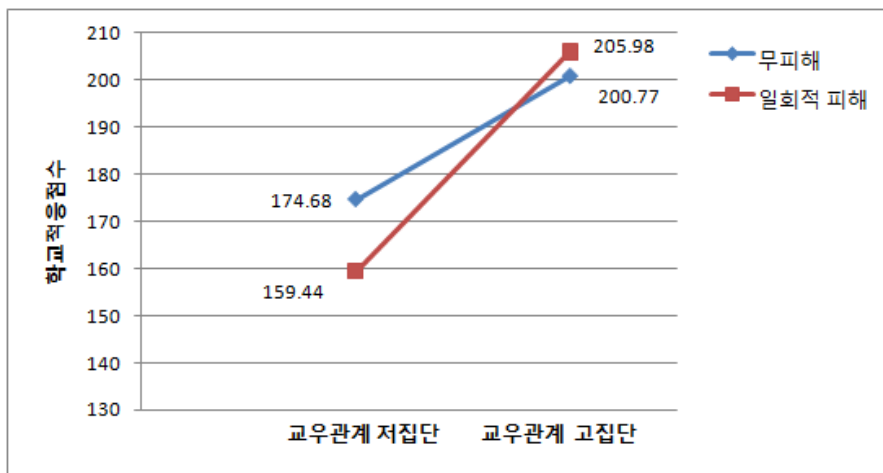


그림 1.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과 교우관계의 상호작용 효과

IV. 논의

이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중1패널 2차 조사(2011년), 3차조사(2012년)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피해지속유형을 무피해, 일회적 피해, 지속적 피해로 구분한 후, 중2학년 피해가 중3학년 학교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무피해 유형의 학교적응 수준이 가장 좋았고, 지속적 피해유형이 가장 좋지 않았다. 이 두 유형의 학교적응은 2학년과 3학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 무피해 유형의 경우 교우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가 2학년에 비해 3학년 때 좋아졌다. 일회적 피해유형은 3학년 때 교우관계가 나빠졌고, 지속적 피해유형은 교사관계가 나빠졌다. 중2학년에서 중3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폭력 피해가 줄어들고, 따라서 무피해 유형의 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하지만, 지속적 피해 유형은 학년이 올라가도 지속적 피해 유형이 될 가능성이 일회적 피해유형이 일회적 피해유형 또는 지속적 피해유형이 될 가능성 보다 더 컸다. 2학년의 교우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가 3학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는 일회적 피해유형의 교우관계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 3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지속적 피해유형의 학생들은 가장 부정적인 학교적응을 나타낸다(Kochenderfer-Ladd & Wardrop, 2001; 박종효, 2007b). 이들은 학년이 올라가도 지속적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크다. 이는 권재기(2011)의 따돌림 피해학생의 발달양상을 5년간 종단분석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일회적 피해유형의 경우는 무피해 유형과 2학년 및 3학년 학교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학년이 올라가면 일회적 피해유형이 무피해 유형으로 변할 가능성이 지속적 피해유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올베우스(Solberg and Olweus, 2003)가 한달에 2회 이상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학생으로 간주한 부분을 지지하고 있다.

이 연구가 학교폭력 피해지속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본 점은 큰 의미를 지닌다. 단 한번의 피해를 당한 학생까지 모두 피해학생으로 분류할 경우, 매우 높은 피해율은 물론이며(이은희, 김남숙, 2011; 이은희, 손정민, 2011; 성지희, 정문자, 2007; 이희영, 이미연, 2006; 박경아, 2002), 이들 모두에게 동일한 개입과 지원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는 일회적 피해유형과 지속적 피해유형을 구분해서 연구하고 개입해야 함을 시사한다. 지속적 피해유형은 우선적으로 상담·치료 등에 집중해서 지원해야 할 집단이다. 일회적 피해유형은 다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돕는 교육이나 교우관계 갈등조정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다. 향후 이들을 구분한 더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중학생들에게 교우관계는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위한 중요한 조절변인이다(박경아,

2002; 김순혜, 2012). 특히, 일회적 피해유형의 학생들은 1년 뒤 학교적응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우관계가 좋을 경우에는 무피해 유형 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나타냈고, 교우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매우 부정적인 학교적응을 보였다.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1년 뒤 학교적응을 부적으로 예측했다. 이 연구결과는 김혜원과 이해경(2000)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그러나 교사와의 관계와 학교적응 간의 상관분석에서는 2학년, 3학년 모두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가 중2학년 때 가장 높았던 지속적 피해유형이 중3학년 때는 무피해 유형보다 더 낮아지고 학교적응도 낮아졌다. 따라서 이를 교사와의 관계가 좋으면 1년 뒤 낮은 학교적응을 보인다고 해석하기보다, 지속적 피해유형의 경우 1년 뒤에 담임교사가 바뀌고 교사와의 관계가 1년전 보다 현저히 나빠졌고, 따라서 중3학년의 전반적인 학교적응도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교우관계를 통제된 상태에서 조사하는 더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의 영향에 대해 피해를 당한 학년의 학교적응만을 보지 않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본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2학년의 피해가 중3학년의 학교적응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지속적 피해유형과 무피해 유형간의 학교적응의 유의미한 차이는 중3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지속적 피해유형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는 피해를 당한 학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년이 올라가도 지속적으로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중3학년의 학교적응 문제가 구체적으로 중2학년의 피해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중3학년의 또 다른 폭력 피해로 인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자료로 분석하였는데, 4차에 걸친 자료의 변수에 의존해야하는 것이 큰 한계점이었다. 학교폭력과 학교적응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피해지속유형을 분류한 점과 종단적으로 분석한 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동일한 차시의 자료로는 서로 비교분석할 수 없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발달적 특징, 학교폭력 피해 상황, 학교적응 면에서 차이가 난다(박종효, 최지영, 2014; 이대용, 2012;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3; 2014). 또 이들의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대인관계적 특징의 차이가 학교적응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Goldstein, 2009; Underwood & Rosen, 2011). 향후 연구에서는 학교급별 차이 분석을 통해 학교급별 예방활동이나 제도적 장치 마련에 기초적 도움을 줄 수 있기 바란다. 둘째, 교우관계에 대해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교우관계에 대한 조사는 자기보고의 경우 왜곡의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고, 또래의 보고가 더 정확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Hawker & Boulton, 2000). 셋째, 이 연구에서는 학교에서의 대인관계 변인인 교우관계와 교사와의 관계만을 분석하였다. 가족과의 관계 또는 지역사회와의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생태체계적 영향을 고려하여 더 폭넓은 변인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우관계 문항에 있어서 신뢰도가 높지 않은 점이다. 더 좋은 교우관계 변

수를 만들 필요가 있다.

마무리하면서, 이 연구에서 보여준 중2학년의 지속피해 유형 189명 중에 학년이 올라갔을 때 무피해 유형으로 변한 132명의 학생들에 대해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의 지속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학년이 올라갔을 때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만든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이 연구가 피해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는 의미 있는 기본 자료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수령,이경남. (2001). 아동의 또래괴롭힘,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적응의 관계. **동아교육논총**, 27, 161-179.
- 교육부. (2013).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정보공시 분석결과 발표**. 보도자료.
- 권재기. (2011).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의 발달양상과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 **한국아동복지학**, 34, 96-127.
- 김순혜. (2012).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 **아동교육**, 21(3), 5-17.
- 김예성, 박현선. (2007). 초등학교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3, 65-97.
- 김은영. (2008). 학교 분위기가 중학생의 또래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6, 88-111.
- 김자경, 박혜정, 임희진, 이계오(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혜원, 이해경. (201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 김혜원. (2011). 집단따돌림과 집단괴롭힘에 따른 남녀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 학교인식 및 학교적응에 대한 구조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3(2), 173-198.
- 김혜원. (2013). **청소년 학교폭력, 이해·예방·개입을 위한 지침서**. 서울: 학지사.
- 문용린 외. (2005).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서울: 학지사.
- 박경아. (2002). **학교폭력 피해자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정주. (2011). 교사애착이 학교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8(3), 333-352.
- 박종효. (2013). 학교 환경과 학교 적응의 구조적 관계 탐색. **열린교육연구**, 21(1): 101-129.
- 박종효. (2007a).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이해,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교육학연구**, 45(1), 1-24.
- 박종효. (2007b). 집단따돌림(왕따)에 대한 이해: 발달경향과 정신건강의 관련성. **한국청소년연구**, 18(1), 247-272.
- 박종효, 최지영. (2014). 초등학생 사회역량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학교 요인 탐색: 학습문화와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2(1), 89-116
- 박현선. (1999). 실직가정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한국아동복지학**, 8, 35-58.
- 방기연, 이규미. (2009). 학급내 집단괴롭힘에 대한 담임교사의 경험과 개입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28(1), 167-188

- 방기연. (2011).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2(5), 1753-1778.
- 법제처. (201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http://www.moleg.go.kr>)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8). **교육상담정보원 상담매뉴얼, 학교폭력상담 매뉴얼**.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3-13.
- 선우현정, 이희선. (2014).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교사-학생 관계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1(1), 149-166.
- 성지희, 정문자. (2007). 학교폭력 피해아동이 학교적응과 보호요인. **아동학회지**, 28(5), 1-18.
- 신성자, 정숙희. (2010). 교사가 지각하는 학교업무환경과 학생의 개인특성이 신체적, 비신체적 또래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19, 141-172.
- 신성자. (2012). 업무부담과 학교지원이 교사의 학교폭력 대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8(2), 273-298
- 신현숙. (2003). 적응유연성 연구의 전망: 개념 및 방법론적 문제와 학교-기반 예방을 위한 시사점. **교육학연구**, 41(2), 431-456.
- 심희옥. (2005). 또래 괴롭힘과 대인간 행동특성에 관한 횡단 및 단기 종단연구. **한국 아동학회지**, 26(5), 263-279.
- 안정숙, 신승우. (2001). 집단따돌림 피해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관련된 위험인자와 보호인자. **신경정신의학**, 40(6), 1166-1173.
- 오승환. (2007).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5, 74-98.
- 오인수. (2010). 괴롭힘을 목격한 주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공감과 공격성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3, 45-63.
- 이봉건, 남재봉, 이종연, 이상익, 황순택, 김수현, 이재신. (2001). 또래아동의 비행행동이 피해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그 개선방안.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0(3), 413-441.
- 이대용. (2012). 초등학교 교사의 교수역량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상균. (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원이, 김동일. 2009.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류. **열린교육연구**, 17(4), 89-118.
- 이은희, 김남숙. (2011). 학교폭력피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탄력모델을 이용하여. **청소년복지연구** 13(4), 71-89.
- 이은희, 손정민. (2011).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정신건강 영향 요인 연구-탄력성 모델을 이용하여. **청소년복지연구**, 13(2), 149-171.
- 이진숙, 조아미(2012). 근거이론으로 접근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교적응과정. **청소년복지연구**, 14(1), 333-358.
- 이희영, 이미연. (2006).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소 탐색. **인문과학논총,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1(2), 83-102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a). 전국 학교폭력실태조사. **학교폭력연구**, 1(2), 63-90.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b). 학교폭력 상담 내용 분석 연구. **학교폭력연구**, 1(2), 91-115.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3). **전국 학교폭력실태조사 연구**.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전국 학교폭력실태조사 연구**.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한유경 외. (2014). **학교폭력과 괴롭힘 예방, 원인진단과 대응**. 서울: 학지사.

- Baker, J. A., (2006). Contribution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to positive school adjustment during elementary school. *J. of school Psychology*, 44, 211-229
- Birch, S. H., & Ladd, G. W. (1996).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school environment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The role of teachers and peers. In J. Jaana & K. R. Wentzel (Eds.), *Social motivation: Understandi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199-22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ldstein, G. & Brooks, R. B. (2009). 아동·청소년 적응유연성 핸드북. 신현숙역, 서울: 학지사.
- Hawker, D. S. J & Boulton, M. J. (2000). Twenty Years' Research on Peer Victimization and Psychosocial Maladjustment: A Meta-analytic Review of Cross-sectional Studies, in *Child Psychol. Psychiat.* 41(4), 441-455
- Kochenderfer-Ladd, B., & Wardrop, J. L. (2001). Chronicity and instability of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experiences as predictors of loneliness and social satisfaction trajectories. *Child Development*, 72, 134-151.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Oldenburg, B., et al. (2014). Teacher Characteristics and Peer Victimization in Elementary Schools: A Classroom-Level Perspective, *J. Abnorm Child Psychol.* 802-813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Blackwell.
- Park, J. H. (2006). Aggressive/Victim subtypes and teacher factors in first grade as risk factors for later mental health symptoms and school functioning. *Asia Pacific Educational Review*, 7, 108-119
- Solberg, M. E. & Olweus, D. (2003). Prevalence estimation of school bullying with the Olweus Bully/Victim Questionnaire. *Aggressive Behavior*, 29, 239-268
- Swearer, S. M., Espelage, D. L., & Napolitano, S. A. (2011). **괴롭힘의 예방과 개입: 학교에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동형, 이승연, 신현숙 공역), 서울: 학지사
- Underwood, M. K. & Rosen, L. H. (2011). *Social development ; relationships in infancy, childhood, and adolescence I*,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Veenstra R., Lindenberg S., Huitsing G., Sainio M., & Salmivalli C. (2014). The Role of Teachers in Bullying: The Relation Between Antibullying Attitudes, Efficacy, and Efforts to Reduce Bullying, *J. of Educational Psychology*.
- Wang J., Iannotti R.J. & Luk J.W. (2011). Peer Victimization and Academic Adjustment Among early Adolescents: Moderation by Gender and Mediation by Perceived Classmate Support. *Journal of School Health*, 82, 386-392.
- Wei, H.S. & Williams, J.H. (2004). Relationship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School Adjustment in Sixth-Grade Students: Investigating Mediation Effects. *Violence and Victims*, 19(5), 557-571

제 3 주제

비행

- 1 청소년비행에 있어 피해-가해 연계의 변화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2 청소년 사이버 욕설의 영향 요인 분석: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여
- 3 인터넷 사용유형이 사회심리문제, 학교적응,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비행에 있어 피해-가해 연계의 변화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성훈*·이유나**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2-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종단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비행의 피해-가해 중첩성 및 변화패턴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귀회귀교차지연모형 및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였고, 청소년비행을 개념적으로 범죄행동과 불링으로 구분하여 변화패턴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불링의 경우는 '피해→가해'로, 범죄행동은 '가해→피해'로 변화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불링과 범죄행동의 개인별 변량의 차이를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개인별로 초기값과 변화율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범죄행동의 경우 가해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피해의 초기값도 높고, 피해의 변화율은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불링의 경우에는 피해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가해의 초기값도 높게 나타났으나, 변화율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비행친구요인과 일탈적 생활양식요인이 피해-가해중첩의 변화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탈적 생활양식은 2차년부터 4차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행친구는 2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는 영향이 있다가 4차년도에는 그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청소년비행, 피해-가해 중첩, 일탈적 생활양식, 비행친구, 종단 분석

I. 서론

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juvenile delinquency)’은 청소년이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음주, 흡연, 가출과 같은 ‘지위비행(status delinquency)’에서부터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집단괴롭힘(bullying)’, 그리고 어른이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신체적 폭행이나 금품갈취, 절도 등과 같은 ‘범죄행동(crime)’까지 다양한 유형의 일탈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비행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비행은 일부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청소년이라는 특정한 사회집단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ngokr@naver.com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청소년비행을 하나의 사회문제로 인식할 때 주로 고려되는 것은 바로 ‘가해행위’ 혹은 ‘가해자’이다. 많은 경우 어떤 ‘나쁜 학생’이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는가, 혹은 그 나쁜 학생이 나쁜 짓을 저지른 ‘이유’ 혹은 ‘동기’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된다. 그러나 비행이나 범죄는 다른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행위자에는 가해자뿐 아니라 반드시 피해자가 존재해야만 성립한다(박성훈, 2011). 자칫 이러한 주장이 비행이나 범죄현상을 피해-가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나, 특히 청소년비행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피해와 가해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집단괴롭힘의 피해로 인한 분노와 공격성은 피해 당사자로 하여금 다른 비행친구와 어울려 더 약한 대상자를 공격하거나 보다 심한 범죄행동에 가담하도록 만들 수 있다.

어떤 청소년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가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중 하나이다.¹⁾ 피해-가해 중첩현상은 청소년비행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청소년비행에 있어 피해-가해 중첩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유하는 특성을 분석하거나, 피해-가해의 경험유무에 따라 집단의 유형을 분류하여 변화의 패턴을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는 유사한 집단에 속하면서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얼마나 중첩되는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유하는 특성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피해 및 가해경험의 연계(casual link)에 주목하면서 가해의 발생이 차후에 일어나는 피해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반대로 피해의 발생이 차후의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외국의 문헌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반면, 피해-가해의 중첩성 및 연계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피해-가해의 중첩현상에 대한 연구가 양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일부에서 청소년비행의 피해-가해 중첩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기는 했으나 외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둘째, 피해-가해의 중첩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상당수는 횡단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한 시점에서의 가해 및 피해를 토대로 중첩성의 유무를 살펴보거나, 집단 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연구함으로써 종단적 측면에서 피해-가해 연계나 변화의 양상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셋째, 일부 종단자료를 활용한 연구들도 있기는 하나, 이러한 연구들은 통계적인 측면에서 가해 및 피해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패널자료의 각 차수별로 집단유형을 구분하여 각 집단의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기술적으로 살펴볼 뿐 보다 정교하게 모수를 추정하거나 변화의 패턴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설사 모수를 추정하더라도 가해의 변화패턴과 피해의 변화패턴을 독립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쳐 가해와 피해의 발전양상이 상호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하였다.

1) 정부 당국도 청소년비행의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다. 일례로 경찰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2013)’에서도 청소년폭력의 문제점 중 하나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불분명하고 피해 및 가해가 반복적으로 악순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비행에 있어 피해-가해의 중첩현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피해-가해의 변화양상 및 개인별 변화패턴의 차이, 나아가 이러한 변화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려는 데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로 종단자료를 이용해 청소년 비행에 있어 피해 및 가해의 중첩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피해-가해 중첩현상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비행을 크게 청소년 불링과 범죄행동으로 구분하고, 두 가지 하위유형의 피해-가해 중첩현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둘째로 종단적인 관점에서 피해-가해의 중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두 개의 하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피해와 가해의 관계 및 중첩성

피해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청소년 시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학교폭력의 피해는 피해 당사자의 사회적 관계를 왜곡시키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안겨준다. 이러한 변화 이외에도 학교폭력 피해는 비행의 발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이질적인 존재이기 보다 유사한 특성을 갖고며, 일부는 동일집단이고(Singer, 1981; Lauritsen, Sampson and Laub, 1991), 피해청소년은 때때로 가해청소년이 되기도 하며, 가해청소년이 피해청소년이 되기도 한다(김준호·박정선·김은경, 1997). 이처럼 가해와 피해가 중첩되는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피학적·가학적 심성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첩으로 이끄는 매개요인이 비행친구의 존재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김준호 외, 1997). 폭력의 피해로 발생하는 분노나 공격성 등의 감정은 피해학생이 비행친구와 상호작용하도록 이끌거나 범죄행동에 가담하도록 이끌기도 한다(Agnew, 1992). 이처럼 피해자가 비행친구와 상호작용을 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행위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피해자가 피해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행친구를 찾을 수도 있고, 비행행위를 함으로써 손상된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Jang and Thornberry, 1998). 또한,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다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고,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이 폭력대상으로 정해지면 자신은 폭력의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해행위에 참여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도 있다(Olweus, 1978).

유사하게 ‘함무라비법(Code of Hammurabi)’과 ‘탈리오법칙(Lex Talionis)’과 같은 초기 법률과 정책에 대해 연구한 Hindelang(1976) 역시 가해와 피해가 순환되는 과정을 “일부에서는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는 폭력적 문화가 존재하며, 이는 오늘의 피해자가 내일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또다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Poisoic, 2013 재인용).

Luckenbill(1977)과 Katz(1988)는 특정한 폭력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즉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초기 가해자가 궁극적인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Poisic, 2013). Luckenbill(1977)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양자는 서로 체면을 세우기 위해 공격적으로 행동함으로써 폭력적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Katz(1988)도 불쾌감을 느낄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폭력에 의지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거리에는 공격적인 사람이 많고, 그 중 한명 이상이 충돌하게 될 때, 승자(우리가 흔히 가해자라 부르는)가 있고 패자(우리가 피해자라 부르는)가 있게 된다. 그리고 이후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역할이 바뀔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Poisic, 2013). 이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질적인 존재가 아닌 폭력의 사이클에 수반된 유사한 사람으로 보는 것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화하는 것 같이 가해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제로 가해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경험적 연구도 있으며(노성호, 2011). 이러한 가해와 피해의 관계 및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을 중첩하여 경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첩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청소년 비행의 가해 및 피해이론

만약, 범죄와 비행에 있어 가해가 피해에 관련이 있고, 피해가 가해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가해와 피해를 유사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만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과 관점을 확장하여 하나의 현상으로서 중첩성을 설명한다(Schreck, Stewart, and Osgood, 2008). 일반적으로 주요 피해자 중심이론인 생활양식이론과 일상활동이론 등으로 가해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보기도 하고(Miethe and Meier, 1994), 가해자 중심이론인 자기통제력(Gottfredson and Hirschi, 1990), 긴장(Agnew, 1992; 2002), 범죄하위문화(Anderson, 1999; Singer, 1981)등으로 피해를 설명한다(Posick, 2013: 108).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가해행동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사회학습이론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학습이론은 Sutherland(1947)의 ‘차별교제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에서 발전되었다(Burgess and Akers, 1966).

Sutherland의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범죄행위는 학습되는 것으로, 주로 일차적이고 친밀한 집단에서 다른 구성원과의 상징적 상호작용과정을 통하여 학습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가정, 사회, 또래집단 등에서 범위반에 우호적인 사람들과 차별적으로 교제함으로써 비행행동과 범죄가 학습되며, 그 차별적인 교제를 오랫동안, 강하게, 자주 하게 된다면 비행과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Siegel, 2012: 142-144). 많은 연구들에서 청소년비행과 범죄와 비행친구와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비행친구를 청소년비행에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보았고(김준호, 1993; 이성식, 1999; 노성호, 2006; 이완희, 2014), Warr(2002)는 비행과 비행친구간의 관계만큼 경험적 규칙성이 오랜 기간 동안 증명된 것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Warr, 2002: 40; Akers

and Sellers, 2009: 165). 즉 비행친구들과의 관계가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피해를 설명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생활양식이론(Hindelang, Gottfredson, and Garofalo, 1978), 일상활동이론(Cohen and Felson, 1979)의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범죄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전환하여 설명하며, 피해자의 역할이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개인의 활동, 범죄의 기회, 범죄장소, 감시자 등이 범죄피해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iegel, 2012: 91).

생활양식이론은 왜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범죄피해자가 될 확률이 큰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성별, 인종, 연령 등에 따라 생활양식에 차이가 있고, 특정한 생활양식은 범죄의 기회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 피해위험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Siegel, 2012: 91). 즉 범죄는 동기화된 범죄자에게 범죄를 범할 기회가 주어질 때 발생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들의 생활양식이 가해자에게 많이 노출될수록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탈적인 생활을 하거나 폭력행위에 관여하는 등 고위험성 생활양식을 가진 사람은 피해확률이 매우 높다는 주장도 맥을 같이 한다. 만약 청소년들이 범죄행동을 저지르거나, 금지된 약물을 남용하거나, 음주, 흡연, 무단결석, 가출 등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금지되어진 부정적 생활습관을 가지면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노성호, 2011).

3. 중첩성 관련 선행연구

가해와 피해의 중첩성은 오랜 기간 범죄학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범죄피해 수준이 높은 사람이 범죄가해행위에 연류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Wolfgang(1957)의 살인자와 피해자의 중첩성에 관한 연구는 가해와 피해의 중첩성의 관한 최초의 경험적 연구이다. 울프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살인자도 이전에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었으며, 살인의 피해자 또한 살해되기 전 범죄경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서 설명했다(Posick, 2013: 108).

가해와 피해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해(피해)가 피해(가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접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해와 피해에 공통적인 변인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는 방식이다. 중첩성에 관한 초기연구들은 가해집단과 피해집단의 동질성 및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Singer, 1981). 이는 가해와 피해의 관계를 규명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개인의 특성이나 범죄경험 등 공유하는 특성들이 존재하며, 가해와 피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 모두 고려한 통합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Lauritsen, Sampson, and Laub, 1991).

국내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중첩성에 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가해행동과 피해행동간의 상호연계성에 주목하고(박영신·김의철, 2001), 가해행동 집단과 피해행동 집단 구

성원들의 역동성에 주목한다(신희경, 2006). 김준호와 김선애(2000)의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주변 폭력의 경험 유무별로 유형을 구분하여(무경험, 가해, 피해, 중첩집단), 피해 및 가해실태, 생활양식, 비행성향, 주위환경, 폭력에 대한 태도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중첩집단이 존재하였고, 피해집단과 무경험집단, 그리고 가해집단과 중첩집단이 비행성향 및 생활양식 등 유사한 특성이 존재하였다. 이밖에도 많은 연구에서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중첩집단의 존재가 확인되었고(기광도, 2004; 김선아, 2005; 오주·아영아, 2006; 조영일, 2013),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해 및 피해경험여부에 따른 집단의 구성원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했다(박순진, 2006).

최근 노성호(201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해 및 피해경험의 중첩정도와 함께, 종단적인 가해와 피해의 전이양태를 살펴보았다. 즉 전년도에 비행을 저지를 청소년이 그 다음 해에도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은지, 반대로 전년도에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이 다음 해에도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카이제곱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한번 가해를 저질렀던 학생의 재가해 가능성이 더 높고, 범죄피해에 있어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 종단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Lauritsen과 동료들(1991)은 청소년 비행행동은 개인적 피해의 위험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전의 비행과 피해경험을 통제했음에도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Lauritsen과 Quinet(1995)는 random effects panel models을 활용하여 일탈적 생활양식, 비행행동이 폭행, 강도, 절도, 그리고 반달리즘의 피해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했으며, Wittbrood와 Nieuwbeerta(2000)은 개인의 범죄전과를 활용하여, 대인범죄 또는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절도로 재산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4. 연구문제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주로 가해와 피해, 그리고 가해와 피해집단의 특성을 서로 비교하거나 각각의 집단 내에서 가해 또는 피해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가해와 피해를 중첩적으로 경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주요 연구문제였다. 반면, 종단적인 측면에서 가해와 피해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드문 편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2-4차년도에 걸친 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청소년비행에 있어 피해-가해의 상호관계를 분석해 보고자하며, 특히 기존의 연구와 달리 청소년비행의 유형을 청소년 불링(왕따·괴롭힘 등 정신적 폭력)과 범죄행동(폭력·금품갈취·절도 등 신체적 폭력 및 경제적 이익목적) 등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여 두 가지 유형에서 피해-가해 중첩현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제기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비행의 가해와 피해의 종단적 상호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불링과 범죄행동에 있어 피해-가해의 중첩현상을 자기 상호연

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링과 범죄행동의 개인별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개인별로 초기값과 변화율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가해와 피해의 중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 불링과 범죄행동의 피해-가해 중첩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행친구와 일탈적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이러한 시변변인(time-varying variables)이 각 차수별로 피해 및 가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자료(KCYPS) 중에서 중1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총 4차년도까지 진행되어 있으며, 비행관련 문항을 측정하지 않은 1차년도 데이터를 제외한 2차-4차(2011년-2013년)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 패널조사의 대상은 전국의 중학교 1학년 재학생 2,200명이며, 데이터 표집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으로서 16개 시도를 27개의 집락으로 나누고, 집락별로 할당된 표본학교를 추출, 학급 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이 무작위 추출되었다. 조사방법은 1차조사시 학교방문을 통한 집단면접조사가 이루어졌고, 2차-4차시에는 개인별 추적을 통한 개별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2. 변인의 측정

이 연구에 사용된 변인은 먼저 청소년비행의 가해와 피해이다. 그리고 선행연구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가해와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설정하였다. 청소년비행은 일반 학생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불링(bullying)과 좀 더 극단적인 폭력행위인 범죄행동으로 분리하였다. 불링은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 집단 따돌림, 심한 욕설의 가해 및 피해경험으로, 범죄행동은 협박, 뺑뺑기, 성희롱이나 성폭행, 패싸움, 신체적 폭력, 훔치기 등으로 측정하였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의 일탈적 생활양식과 비행친구로, 일탈적 생활양식은 응답자의 생활양식으로서 담배, 술, 무단결석, 가출을 했는지 여부로서 측정하였고, 비행친구는 친한 친구의 비행 및 문제행동으로 담배, 술, 무단결석, 가출, 불링, 범죄행동을 경험한 친구유무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표 1 ▢ 변인의 측정

변인	문항 및 척도	문항내용
불링	가해행동문항 (14-5,6) 피해행동문항 (15-1,2,7) 명목척도 (0=없다, 1=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한 경험여부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집단따돌림(왕따)당하기/ 심한 욕설 당하기
범죄행동	가해행동문항 (14-7,8,9,10,11) 피해행동문항 (15-3,4,5) 명목척도 (0=없다, 1=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한 경험여부 -패싸움/ 다른사람 심하게 때리기/ 다른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뺏기기)/ 다른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심하게 맞기(폭행)/ 협박당하기/ 돈이나 물건 뺏기기(뺏기기)
일탈적 생활양식	가해행동문항 (14-1,2,3,4,12) 명목척도 (0=없다, 1=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한 경험여부 -담배피우기/ 술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성관계
비행친구	친구문항 (16-1~13) 명목척도 (0=없다, 1=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한 행동을 한 친구여부 -담배피우기/술마시기/무단결석/가출/놀리거나조롱하기/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패싸움/심하게때리기/협박하기/뺏기기/훔치기/성관계/성폭행이나 성희롱

청소년비행을 불링과 범죄행동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 피해와 가해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하였다(표 2. 참조).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피해 및 가해의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 청소년비행의 가해 및 피해실태

구분	측정변인	차수	있음		없음	
			빈도	(%)	빈도	(%)
불링가해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2차	142	(6.2)	2,138	(93.8)
		3차	89	(3.9)	2,169	(96.1)
		4차	77	(3.7)	2,031	(96.3)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2차	71	(3.1)	2,209	(96.9)
		3차	15	(0.7)	2,243	(99.3)
		4차	14	(0.7)	2,094	(99.3)
불링피해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2차	147	(6.4)	2,133	(93.6)
		3차	88	(3.9)	2,170	(96.1)
		4차	30	(1.4)	2,078	(98.6)
	집단따돌림(왕따)당하기	2차	64	(2.8)	2,216	(97.2)
		3차	38	(1.7)	2,219	(98.3)
		4차	8	(0.4)	2,100	(99.6)
	심한욕설 당하기	2차	10	(0.4)	2,270	(99.6)
		3차	12	(0.5)	2,243	(99.5)
		4차	4	(0.2)	2,104	(99.8)

구분	측정변인	차수	있음		없음	
			빈도	(%)	빈도	(%)
범죄행동가해	패싸움	2차	17	(0.7)	2,263	(99.3)
		3차	9	(0.4)	2,249	(99.6)
		4차	6	(0.3)	2,102	(99.7)
	다른사람 심하게 때리기	2차	70	(3.1)	2,210	(96.9)
		3차	14	(0.6)	2,244	(99.4)
		4차	15	(0.7)	2,093	(99.3)
	다른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뺑뺑기)	2차	35	(1.5)	2,245	(98.5)
		3차	15	(0.7)	2,243	(99.3)
		4차	4	(0.2)	2,104	(99.8)
	다른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2차	15	(0.7)	2,265	(99.8)
		3차	11	(0.5)	2,246	(99.5)
		4차	7	(0.3)	2,101	(99.7)
범죄행동피해	심하게 맞기(폭행)	2차	117	(5.0)	2,163	(94.9)
		3차	37	(1.6)	2,255	(98.4)
		4차	8	(0.3)	2,108	(99.9)
	협박당하기	2차	44	(1.9)	2,236	(98.1)
		3차	30	(1.3)	2,227	(98.7)
		4차	8	(0.4)	2,100	(99.6)
	돈이나 물건 뺏기(뺑뺑기)	2차	37	(1.6)	2,243	(98.4)
		3차	18	(0.8)	2,238	(99.2)
		4차	2	(0.1)	2,106	(99.9)

3. 분석방법

청소년비행은 가해가 피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피해가 가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가해와 피해간의 인과적 관계가 일방향적(unidirectional)보다는 서로를 강화하는 상호작용적 혹은 순환적 관계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으로 가해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살펴본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종단자료를 이용해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분석방법으로, 측정오차를 통제된 상태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한다(김주환 · 김민규 · 홍세희, 2009: 310).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두 변인간의 상호지연효과(cross-lagged effect)를 추정한 모형으로, 한 시점의 값(t)이 이전시점의 값(t-1)에 의해 설명한다. 즉,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같은 변수들과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김주환 외, 2009: 311).

둘째, 잠재성장 모형을 이용하여 가해와 피해의 시간에 따른 개인별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잠재성장모형으로 각 요인(절편, 기울기)의 평균과 각 요인간의 경로계수를 추정한다. 즉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변화에서 개인차의 유의미한 정도, 개인차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

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한 변수의 변화와 다른 변수의 변화에 있어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김주환 외, 2009: 365). 연구모형의 분석을 위해서는 SPSS 프로그램과 구조방정식모형에 적합한 AMOS 및 Mplu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측정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범죄행동의 경우 1번 이상 범죄가해를 경험한 비율이 2차 0.5%, 3차 0.1%, 4차 0.1%, 범죄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2차 0.7%, 3차 0.3%, 4차 0.3%로 나타났다.

불링의 경우 1번 이상 불링가해를 경험한 비율이 2차 0.8%, 3차 0.4%, 4차 0.4%, 불링피해의 비율은 2차 0.7%, 3차 0.5%, 4차 0.2%로 나타났다.

일탈생활양식의 평균값은 2차 0.16, 3차 0.18, 4차 0.27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비행친구의 평균값은 2차 1.14, 3차 0.70, 4차 1.16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측정변인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범죄가해 및 범죄피해의 상관계수는 2차 0.171, 3차 0.149, 4차 0.066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링의 경우 피해와 가해의 상관계수는 2차 0.109, 3차 0.191, 4차 0.216으로 범죄행동과 달리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상관계수만으로 비교를 하면, 범죄행동의 피해-가해보다는 불링의 피해-가해의 계수값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가해와 불링가해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는 2차 0.306, 3차 0.239, 4차 0.261로 2차에서 3차까지는 감소하다가 4차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범죄피해와 불링피해 간의 상관관계는 2차 0.283, 3차 0.357, 4차 0.116으로 2차에서 3차까지는 증가하다가 4차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범죄가해와 불링피해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는 2차 0.150, 3차 0.091, 4차 0.166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범죄피해와 불링가해 간의 관계 역시 2차 0.155, 3차 0.169, 4차 0.069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일한 하위유형의 상관관계가 서로 다른 하위유형 간의 상관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뚜렷한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범죄가해1차	1.000																	
2. 범죄가해2차	.183**	1.000																
3. 범죄가해3차	.125**	.062**	1.000															
4. 범죄피해1차	.171**	.077**	.111**	1.000														
5. 범죄피해2차	.112**	.149**	.062**	.203**	1.000													
6. 범죄피해3차	.060**	-.008	.066**	.105**	.223**	1.000												
7. 불링가해1차	.306**	.086**	.155**	.155**	.070**	.099**	1.000											
8. 불링가해2차	.149**	.239**	.068**	.076**	.169**	.065**	.233**	1.000										
9. 불링가해3차	.122**	.081**	.261**	.063**	.056**	.069**	.189**	.187**	1.000									
10. 불링피해1차	.150**	.091**	.092**	.283**	.166**	.073**	.109**	.064**	.042	1.000								
11. 불링피해2차	.073**	.091**	.086**	.179**	.357**	.100**	.052*	.191**	.079**	.221**	1.000							
12. 불링피해3차	.008	.017	.166**	.085**	.163**	.116**	.050*	.090**	.216**	.084**	.141**	1.000						
13. 일탈생활1차	.353**	.214**	.119**	.154**	.100**	.039	.189**	.106**	.071**	.056*	.057*	.012	1.000					
14. 일탈생활2차	.238**	.316**	.108**	.081**	.154**	.021	.137**	.164**	.051*	.032	.095**	.006	.500**	1.000				
15. 일탈생활3차	.206**	.157**	.172**	.057**	.087**	.035	.133**	.088**	.192**	.022	.104**	.013	.332**	.453**	1.000			
16. 비행친구1차	.209**	.131**	.081**	.126**	.077**	.052*	.241**	.148**	.086**	.114**	.048*	.060**	.239**	.183**	.116**	1.000		
17. 비행친구2차	.158**	.282**	.062**	.054*	.108**	.032	.129**	.240**	.126**	.069**	.111**	-.006	.230**	.370**	.260**	.312**	1.000	
18. 비행친구3차	.124**	.140**	.081**	.083**	.072**	.031	.170**	.172**	.178**	.092**	.091**	.137**	.194**	.227**	.350**	.240**	.323**	1.000
Mean	0.05	0.01	0.01	0.07	0.03	0.01	0.08	0.04	0.04	0.07	0.05	0.02	0.16	0.18	0.27	1.14	0.70	1.16
SD	0.21	0.12	0.11	0.26	0.17	0.06	0.27	0.20	0.19	0.26	0.21	0.13	0.54	0.57	0.65	2.25	1.56	1.69

* $p < 0.05$, ** $p < 0.01$

2. 피해-가해 중첩현상의 시간적 상호관계 분석

1) 청소년 범죄행동

청소년비행을 두 개의 하위유형, 즉 불링과 범죄행동으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가해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적용하였다.

〈표 4〉는 범죄행동에 대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동일성 검증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분석을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과 경로동일성, 그리고 오차공분산동일성이 성립해야 한다(김주환 외, 2009: 311). 모형1은 기본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보여주며, 모형2와 모형3은 측정동일성 검증에 관한 모형, 모형4와 모형5는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검증에 관한 모형, 모형6과 모형7은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검증에 관한 모형, 모형8은 오차공분산동일성 검증에 관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각 모형은 서로 내재된 관계이므로 모형의 비교를 위해서는 카이제곱차이 검증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TLI 및 RMSEA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표 4 청소년 범죄행동의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자유도	TLI	RMSEA
모형1	1515.062	178	0.746	0.057
모형2	1574.065	184	0.745	0.057
모형3	1576.211	188	0.750	0.056
모형4	1581.569	189	0.751	0.056
모형5	1647.549	190	0.741	0.057
모형6	1694.314	191	0.734	0.058
모형7	1718.079	192	0.731	0.058
모형8	1822.659	193	0.715	0.060

모형1과 모형2를 비교했을 때 χ^2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Δ TLI(-0.001)와 Δ RMSEA(0.000)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각 모형을 이전의 모형과 비교한 결과, 대체로 이전 모형과 비교해 다음 모형의 적합도가 크게 나빠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로동일성 및 오차공분산동일성을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 모형8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¹⁾

1) 모형의 적합도와 관련하여 적합도 지수의 기준이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TLI의 경우 0.90이상, RMSEA의 경우 0.05이하)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연구자들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고민이 매우 컸으나, 통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해 및 피해가 이분적으로 측정되었다는 점, 가해 및 피해의 변량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록 적합도 지수만을 고려했을 때 정교한 모형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 피해-가해의 선후관계의 개략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 청소년 범죄행동의 경우 각 차수별로 ‘피해-가해’의 중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중첩현상은 2차년도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범죄행동에 있어 피해-가해의 상호관계는 ‘피해→가해’의 경로보다는 ‘가해→피해’의 경로가 보다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해서, 신체적 폭력이나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행동의 중첩현상은 시간을 고려할 때 가해를 저지른 이후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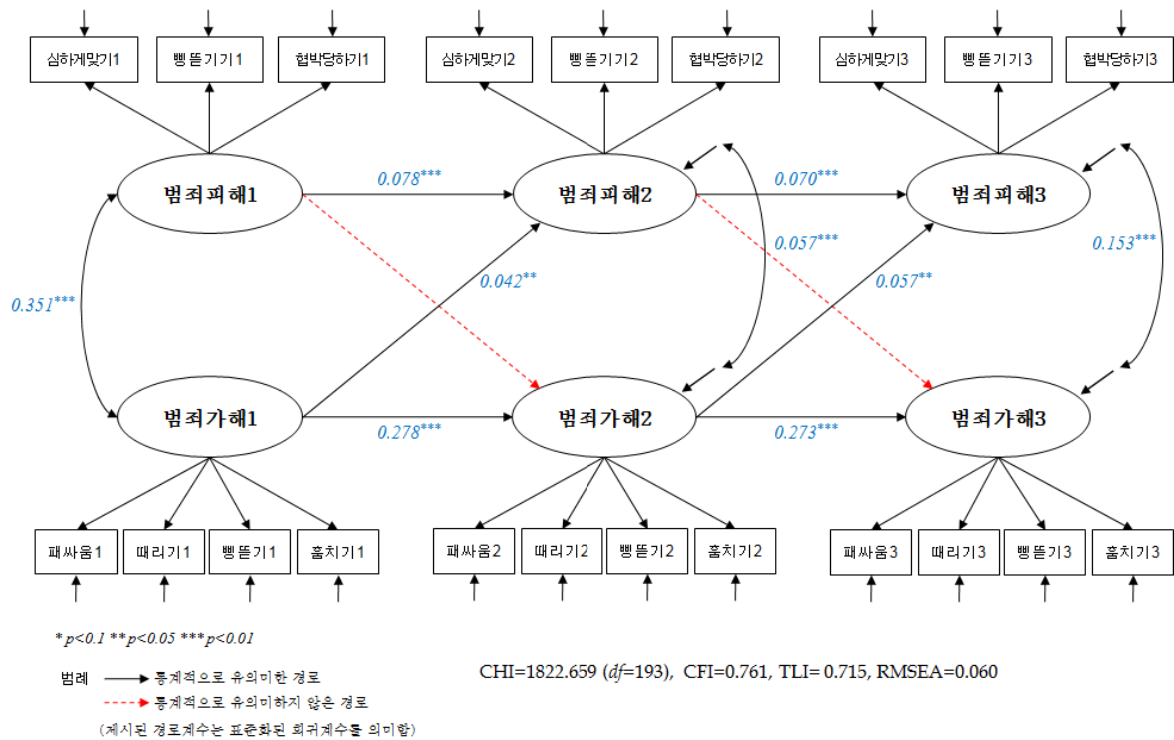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 범죄행동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 결과

흥미로운 사실은 2차년도에서 3차년도로 가는 경로계수보다 3차년도에서 4차년도로 가는 경로계수의 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범죄행동의 경우 ‘가해→피해’의 경로가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전의 가해경험이 이후의 피해경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 불링

다음으로는 범죄행동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불링에 대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1과 모형2를 비교했을 때 χ^2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Delta TLI(-0.010)$ 와 $\Delta RMSEA(0.002)$ 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측정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모형2부터 모형8까지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 이전 모형과 비교해

다음 모형의 적합도가 크게 나빠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각 모형마다 동일성 제약을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 모형8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5 ▶ 청소년 불링의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자유도	TLI	RMSEA
모형1	462.739	79	0.812	0.045
모형2	493.776	81	0.802	0.047
모형3	551.374	85	0.787	0.048
모형4	560.056	86	0.786	0.048
모형5	608.398	87	0.768	0.050
모형6	613.696	88	0.768	0.050
모형7	613.730	89	0.771	0.050
모형8	616.565	90	0.773	0.050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 청소년 불링 역시 각 차수별로 ‘피해-가해’의 중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중첩현상은 범죄행동의 경우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상관 계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불링의 경우 2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의 중첩정도가 더 높고, 3차년도에 비해 4차년도의 중첩정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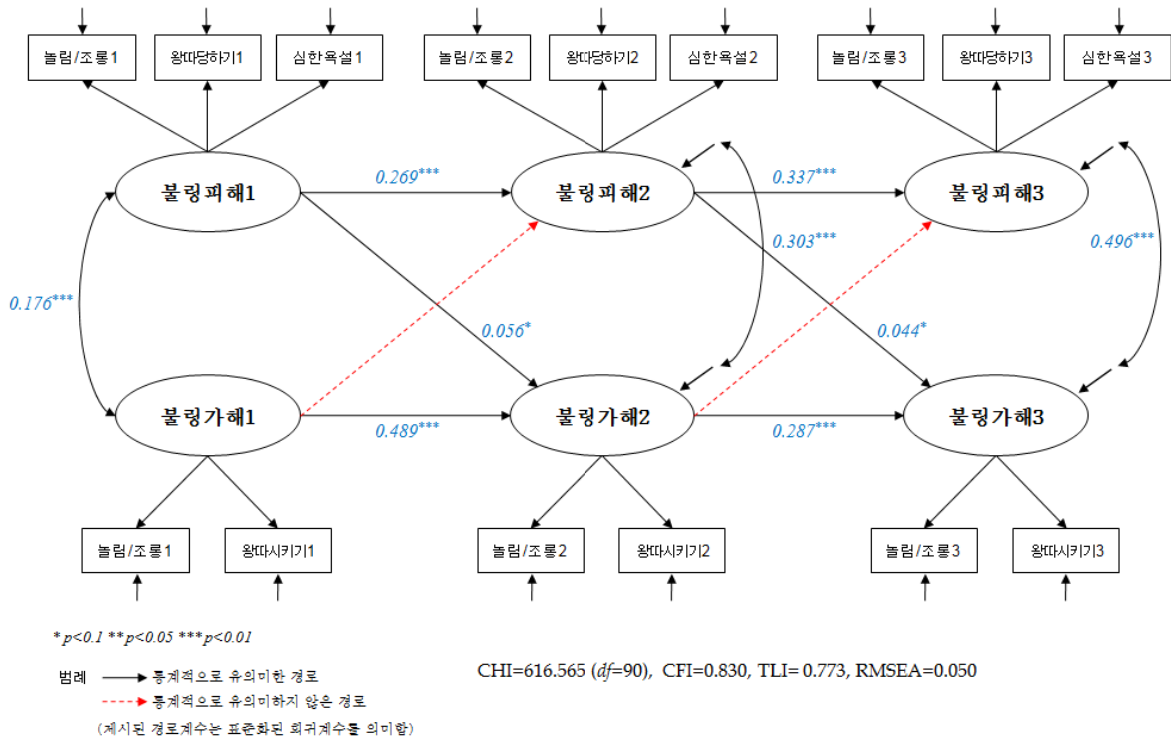


그림 2. 청소년 불링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 결과

그리고 불링의 경우 피해-가해의 연계가 범죄행동과 다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해→피해’의 경로보다는 ‘피해→가해’의 경로가 보다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해서, 언어폭력이나 집단따돌림 같은 청소년 불링의 중첩현상은 시간을 고려할 때 피해를 당한 이후 가해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가해’의 경로는 2차년도에서 4차년도로 갈수록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범죄행동과 달리 불링의 경우에는 이전의 피해경험이 이후의 가해경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피해-가해의 중첩 양상이 청소년비행의 하위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범죄행동의 경우 가해경험이 이후 피해경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불링의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경험이 가해경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행동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전의 가해경험이 이후의 피해경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불링의 경우에는 이전의 피해경험이 이후의 가해경험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범죄행동과 불링의 피해-가해 양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토대로 범죄행동과 불링의 피해-가해의 발전양상이 개인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3. 피해-가해 중첩현상의 개인별 변화양상 및 영향요인 분석

1) 청소년 범죄행동

앞서 살펴본 대로 청소년의 범죄행동은 피해 및 가해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피해 및 가해의 이러한 감소추세는 물론 피해 및 가해의 시작이 개인마다 다르다면 어떨까? 이러한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행동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피해 및 가해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확인하였다(표 6. 참조). 먼저 가해의 경우 초기값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해의 시작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변화율의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가해의 감소추세가 개인별로 다르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²⁾

피해의 경우에는 가해와 달리 초기값의 분산과 변화율의 분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초기 피해의 정도가 개인마다 다를 뿐 아니라 피해의 감소추세 역시 개인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의 선형모형은 적합도 지수 역시 매우 양호하여 통계적으로도 신뢰할만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비록 범죄행동의 가해에 대한 적합도 지수가 매우 낮아 통계적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러한 수치가 범죄행동에 있어 가해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대한 대략적인 경향은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표 6 청소년 범죄행동의 잠재성장모형의 분석 결과

		χ^2	자유도	유의확률	TLI	RMSEA	초기값		변화율	
							평균	분산	평균	분산
가해	선형변화	83.682	3	0.000	0.664	0.063	0.050**	0.013**	-0.019**	0.001
피해	선형변화	146.147	3	0.000	0.967	0.026	0.082**	0.031**	-0.038**	0.007**

* $p < 0.05$, ** $p < 0.01$

다음으로는 범죄행동의 피해 및 가해에 대한 각각의 잠재성장모형을 앞서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통해 확인된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가해→피해’로 설정하고, 각 차수별 독립변인(비행 친구 및 일탈생활양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해 및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잠재성장 경로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가해의 초기값이 피해의 초기값 및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차별적 교제이론이나 일상활동이론이 피해 및 가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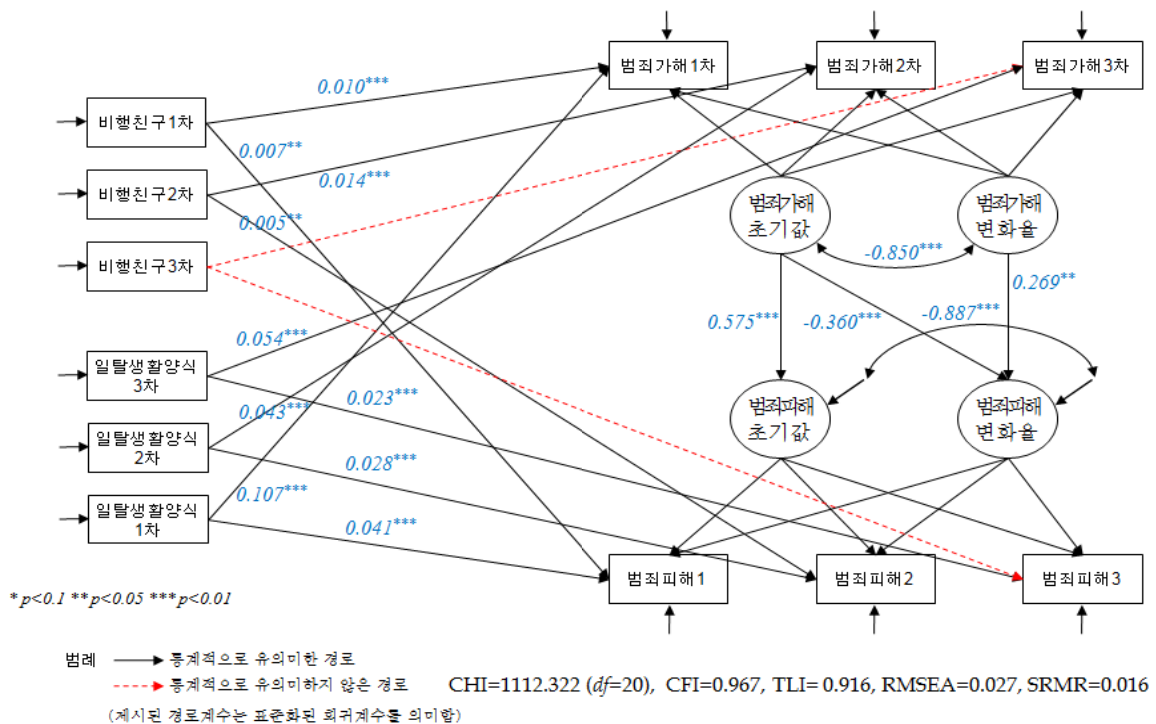


그림 3. 청소년 범죄행동의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분석 결과, 가해의 초기값은 피해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범죄행동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피해의 초기값도 높은 반면, 피해의 변화율은 급격히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해의 변화율이 피해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해의 변화율이 급격히 감소할수록 피해의 변화율도 급격히 감

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해의 초기값과 변화율, 피해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 역시 부적인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해나 피해 모두 초기값이 높을수록 변화율은 급격히 감소하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탈적 생활양식이 가해 및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한 결과, 피해 및 가해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주, 흡연, 가출과 같은 일탈적 생활습관의 정도가 높을수록 범죄행동의 가해 및 피해 역시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탈적 생활양식이 범죄행동의 가해 및 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해 볼 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약해진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비행친구의 영향력은 2차년도와 3차년도에서는 가해와 피해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4차년도에서는 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을 저지르는 친구의 영향력이 모든 청소년 시기에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약화되거나 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2) 청소년 불링

청소년 불링도 범죄행동과 마찬가지로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피해 및 가해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확인하였다(표 7. 참조). 불링가해의 경우 초기값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가해의 시작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변화율의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가해의 감소추세가 개인별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링피해의 경우에는 가해와 달리 초기값의 분산과 변화율의 분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불링으로 인한 피해의 시작이 개인마다 다를 뿐 아니라 피해의 감소추세 역시 개인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불링으로 인한 피해정도는 2차년도부터 개인별 차이가 있는 동시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의 폭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7 청소년 불링의 잠재성장모형의 분석 결과

		χ^2	자유도	유의확률	TLI	RMSEA	초기값		변화율	
							평균	분산	평균	분산
가해	선형변화	83.682	3	0.000	0.803	0.077	0.080**	0.024**	-0.022**	0.001
피해	선형변화	146.147	3	0.000	1.011 ³⁾	0.001	0.098**	0.058**	-0.039**	0.014**

* $p < 0.05$, ** $p < 0.01$

청소년 불링도 범죄행동과 마찬가지로 앞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토대로 ‘피해→가해’ 경로를 설정하고, 비행친구 및 일탈생활양식이 피해 및 가해에 미치는 경로모형을 구성하여 분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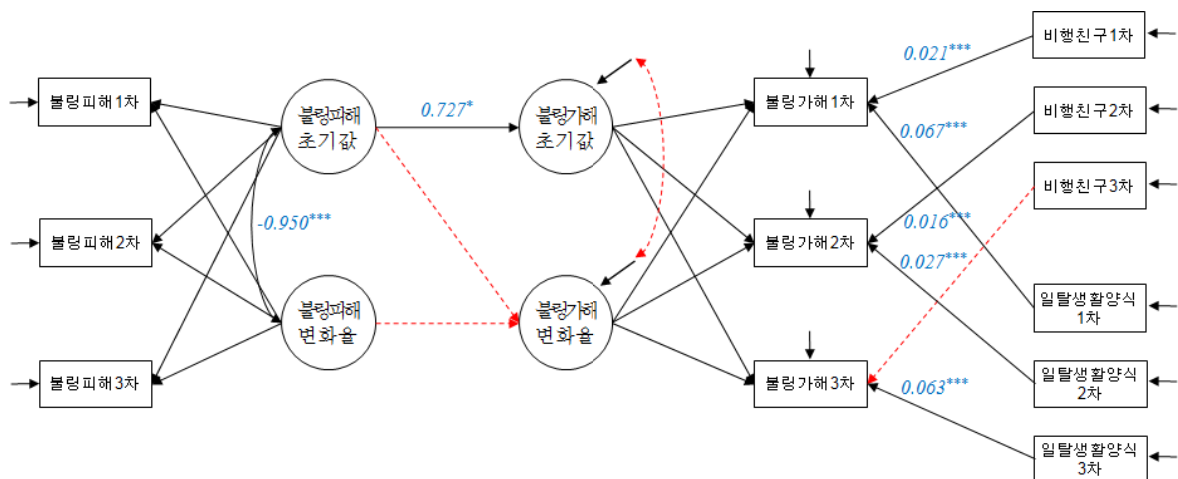
3) 모형적합도 지수인 TLI(Tucker Lewi Index)의 값이 1을 넘을 경우 잘못된 적합도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TLI는 종종 1을 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김주환 외, 2009: 105).

시도하였으나, 아쉽게도 모형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른 여러 경쟁모형을 만들어 재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가장 높은 경쟁모형을 찾을 수 있었다(그림 5. 참조).

경쟁모형은 불링피해의 초기값이 불링가해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고, 비행친구 및 일탈생활양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가 아닌 가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 경로모형이다. 분석 결과, 모형이 적합도는 범죄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았으나 결과의 해석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피해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피해의 감소율 역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가해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의 초기값은 가해의 초기값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링피해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불링가해의 초기값 역시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관계가 이후 변화율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 $p < 0.1$ ** $p < 0.05$ *** $p < 0.01$

범례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

(제시된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의미함)

CHI=1147.913 ($df=51$), CFI=0.911, TLI=0.819, RMSEA=0.041, SRMR=0.021

그림 4. 청소년 불링의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일탈적 생활양식이 불링가해에 미치는 영향은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모두 정적인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일탈적 생활습관이 높을수록 불링가해 역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비행친구의 경우에는 2차년도, 3차년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차년도에는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불링의 경우에는 비행친구라든지 일탈적 생활양식이 범죄행동에 비해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해석을 보다 확장하면, 차별적 교제이론이나 일상활동이론의 경우 불링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비행을 설

명한다기보다는 주로 범죄행동과 관련한 청소년비행을 보다 잘 설명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V. 결론

이 연구는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에서 널리 알려진 피해-가해의 중첩현상을 종단적 관점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어떠한지, 그러한 변화의 양상이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경험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로 범죄행동과 불링으로 구분하여 피해-가해의 연계를 종단적으로 확인한 결과 모형적합도가 매우 좋은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 불링의 경우는 '피해→가해'로, 범죄행동은 '가해→피해'로 변화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집단따돌림으로 대변되는 불링일수록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이 다시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 다른 학생에게 동일한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Olweus(1978)의 주장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보다 심각한 범죄행동은 불링과 달리 오히려 가해경험이 이후 피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는 일상활동이론에서 주장하는 노출(exposure) 개념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로 불링과 범죄행동의 개인별 변량의 차이를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개인별로 초기값과 변화율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범죄행동의 경우 가해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피해의 초기값도 높고, 피해의 변화율은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행동의 초기에는 피해-가해의 중첩정도가 높은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해의 중첩정도가 낮아지면서 피해-가해집단이 점차 분리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불링의 경우에는 피해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가해의 초기값도 높게 나타났으나, 변화율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링현상 역시 초기에는 피해-가해의 중첩정도가 높지만, 시간이 지나더라도 피해-가해집단이 잘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로 기존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왔던 비행친구요인과 일탈적 생활양식요인이 이러한 피해-가해중첩의 변화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범죄행위의 경우 피해나 가해 모두 2차년부터 4차년까지 일탈적 생활양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향력은 조금씩 감소), 비행친구는 3차년도까지 영향이 있다가 4차년도(고1)에는 피해나 가해 모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행동의 경우 피해-가해의 연계에 있어 일탈생활양식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즉 음주, 흡연, 가출과 같은 생활습관은 범죄가해를 유발할 가능성은 물론 범죄피해를 유발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비행친구는 중학교 시기에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고등학교에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비행친구의 영향이 중학교 시기에 매

우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불링의 경우 범죄행위와 동일한 모형을 적용한 결과 모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형을 수정하여 비행친구와 일탈적 생활양식이 불링가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결과, 일탈적 생활양식은 불링가해에 2차년부터 4차년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점차 영향력이 높아지는 경향), 비행친구는 3차년도까지 영향을 미치다가 4차년도(고 1)에는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불링의 경우에도 일탈적 생활양식이나 비행친구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피해보다는 가해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전반적으로 일탈적 생활양식이나 비행친구의 영향은 불링보다는 범죄행동과 더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비행을 범죄행동과 불링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두 가지 하위유형에서 피해-가해의 중첩현상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비행(혹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학교폭력)이 포괄적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좀 더 심각한 수준의 범죄행동과 정신적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불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⁴⁾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요즘 청소년비행이 점차 심각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와 비교해 사소한 장난을 가장한 집단따돌림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학교폭력종합근절대책, 2012). 이러한 불링 현상은 부모나 교사가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물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발생시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큰 장애로 인식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청소년비행을 ‘비행형’과 ‘인성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비행형은 ‘일진형 폭력’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방치할 경우 범죄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하며, 인성형 폭력은 왕따, 집단 따돌림같이 일반청소년들의 우발적, 충동적으로 발생하기에 범죄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말한다(천종호, 2013). 이러한 논의는 이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한 것처럼 청소년비행이 보다 심각한 범죄행동과 불링으로 구분되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도 일치하는 견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비행을 일시적 문제행동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문제행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소년비행은 가해-피해 중첩의 특징은 물론 이러한 중첩현상이 한 번 정해진 이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고, 그러한 변화 역시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비행에 대한 대처방법이나 예방이 보다 장기적인 관찰을 통해 유형별로,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해-가해의 중첩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행친구나 일탈적 생활양식이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종단적 관점이 부재한 획일적인 예방이나 대처방안이 자칫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가해 및 피해의 변화 양상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4) 아울러 선행연구들에서 지위비행으로 정의했던 것을 이 연구에서는 일탈적 생활양식으로 바꾸었다는 점도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이라고 하겠으나, 이러한 시각은 향후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피해나 가해를 경험유무로 측정을 하였고, 가해 및 피해의 변량이 너무 적어 모델적합도가 낮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처럼 적합도 지수만을 고려했을 때 정교한 모형은 아니어도 이론적인 측면에서 피해-가해의 연계에 대한 개략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방법론 측면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이론적 측면에서는 피해-가해의 변화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경찰청. (2012). **학교폭력종합근절대책**.
- 기광도. (2004). 범죄 및 피해의 중첩성에 관한 분석. **피해자학연구**, 12(2): 269-305.
- 김선아. (2005).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애착이 폭력가해와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가해-피해 중첩집단과 일반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 5-36.
- 김주환 · 김민규 ·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김준호. (1993). 친구와 비행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5: 5-44.
- 김준호 · 박정선 · 김은경. (1997).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성호. (2006). 비행친구와 비행행동의 인과성에 대한 검증. **형사정책연구**, 68: 297-332.
- 노성호. (2011).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가해와 피해의 유사성에 대한 검토. **사회과학논총**, 26(2): 93-115.
- 박성훈. (2011). 범죄기회요인과 지역특성이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2(3): 327-357.
- 박순진. (2006). 청소년 폭력 비행에 있어서 피해-가해 연계의 변화. **형사정책연구** 17(1): 47-88.
- 박영신 · 김의철. (2001).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무경험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7(1): 63-89.
- 신희경. 2006. 가해 청소년, 피해 청소년, 가해피해 청소년 집단유형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청소년연구**, 17(1): 297-323.
- 오주 · 아영아. (2006). 중학생 학교폭력 가해-피해 중복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개발연구**, 12(1): 79-100.
- 이성식. (1999). 비행친구와 비행의 관계: 통합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0(2): 193-221.
- 이완희. (2014). 한국 청소년들의 중비행에 관한 범죄이론적 비교연구. **한국경찰학회보**, 44: 139-160.
- 장안식. (2013). 학교 폭력 피해 경험에 따른 발달적 변화. **한국범죄학**, 7(1): 61-82.
- 조영일. (2013).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연구-학교폭력 집단유형의 변화에 미치는 변인.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6(2): 67-85.
- 천중호. (2013). **아니야, 우리가미안하다**. 우리학교.
- Akers, R. L., and Sellers. C. S. (2009).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Evaluation, and Application*. OxfordUnivPr. 민수홍 (역). (2011) 「범죄학이론」. 서울: 나남.
- Siegel, L. J. (2010). *Criminology: Theories, Patterns, and Typologies*. Cengage Learning. 이민식, 김상원, 박미랑, 박정선, 신동준, 윤옥경, 이성식, 황성현 (역). (2012). 「범죄학 이론과 유형」, Cengage Learning Korea.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7.
- Burgess, R. L., and Akers, R. L. (1966). A differential association reinforcement theory of criminal behavior. *Social Problems*, 14:128-147.
- Burgess, R. L., and Akers, R. L. (1966). A differential association-reinforcement theory of criminal behavior. *Social Problems*, 14(2): 128-147.
- Chad Posick. (2013). The Overlap Between Offending and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Results From the Second International Self-Report Delinquency Study.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9(1): 106-124.
- Gottfredson, M. R., and Hirschi, (1990).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 Hindelang, M. J., Gottfredson, M. R and Garofalo, J. (1978). *Victims of Personal Crime: An Empirical Foundation for a theory of Personal Victimization*. Cambridge: Ballinger.
- Jang, S. J., and Thornberry, T. P. (1998). Self-esteem, Delinquent peers, and Delinquency: A Test of the Self-Enhancement 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586-598.
- Lauritsen, J. L., and Quinet, F.D.(1995). Repeat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1(2): 143-166.
- Lauritsen, J. L., Robert J. Sampson, and John H. Laub. (1991). The link between offending and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Criminology*, 29(2): 265-291.
- Miethe, T. D., and Meier, R. F. (1994). *Crime and Its Social Context: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Offenders, Victims, and Situations*. Albany : SUNY Press.
- Mustaine, E. E., and Tewksbury, R.. (2000). Comparing the Lifestyles of Victims, Offenders, and Victim-Offenders: A Routine Activity Theory Assessment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for Criminal Incident Participants. *Sociological Focus*, 33(3): 339-362.
- Olweus. D. (1994). *Bullying at School*. *Aggressive Behavior*, Springer US.
- Schreck, C. J., Stewart, E. A., and Osgood, D. W. (2008). A reappraisal of the overlap of violent offenders and victims. *Criminology*, 46(4): 871-906.
- Singer, S. I. (1981). Homogeneous Victim-Offender Populations: A Review and Some Research Implication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2(2): 779-788.
- Warr, Mark. (2002). *Companions in Crime: The Social Aspects of Criminal Conduct*.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ttebrood, K. and Nieuwbeerta, P. (2000). Criminal victimization during one's life course: The effects of previous victimization and patterns of routine activiti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7(1): 91-122.
- Wolfgang, M. (1957). *Patterns of criminal homicid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청소년 사이버 욕설의 영향 요인 분석: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여

서봉언*·김경식**

국문초록

최근 들어 청소년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이버 욕설의 문제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버 욕설 참여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초4 패널과 중1 패널을 구분하여 각각 패널별 사이버 욕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먼저 초4 패널을 분석한 결과, 사이버 욕설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규칙과 컴퓨터 이용빈도로 확인되었다. 학교규칙은 사이버 욕설에 부적인 영향을, 컴퓨터 이용빈도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학교규칙을 잘 지킬수록 사이버 욕설을 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막 진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요인의 영향이 여전히 유의미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중1 패널의 경우, 초4 패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성별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5.789배 사이버 욕설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어 남자 고등학생들의 사이버 욕설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위비행의 영향이 정적으로 나타나 실제로 음주, 흡연, 무단결석, 가출에 참여할수록 사이버 욕설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히 사이버 욕설이 사이버 상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 상의 문제와 동반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청소년 문제 및 일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비등교일에 컴퓨터 및 게임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이버 욕설에 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디어 요인이 사이버 욕설의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사이버 욕설, 가정요인, 학교요인, 미디어 요인, 이항 로지스틱 분석

I. 연구의 필요성

최근 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의 무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순위는 6위를 차지하였다(OECD, 2014). 이렇듯 한국의 통신환경은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수준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고, 스마트폰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노년층에게도 배워서 쓸 줄 알아야 하는 생활기기가 되었다(동아일보, 2014). 이렇다 보니,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량언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강의교수

**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ksikim@knu.ac.kr

그러나 통신언어라 명명되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어는 실제 발화되는 언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는 새로운 은어와 속어 등이 확산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오히려 사이버 공간에서 통용되는 은어와 속어들이 실제 발화에 영향을 주기도 하여, 일상적인 언어문화에 악영향을 초래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욕설에 관한 연구는 언어학, 언론학, 교육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언어생활에 욕설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문제의식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교육적 접근의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박인기, 2012). 이와 같은 견지는 욕설을 하나의 사회·문화적 작용이라고 보고 발달심리학, 상담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의 융합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기도 한다. 게다가 욕설의 역기능 외 순기능, 저항 문화로서의 방식 등에 대한 이해와 안목은 욕설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말은 인격의 표현이며 의사전달의 수단이다. 따라서 저속한 욕설, 불량 언어 등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욕설 사용자의 마음과 생각 또한 거칠어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무분별한 욕설사용은 그릇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거나 자아개념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깊다(Aitchison, 2006). 특히,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미명아래 사이버 상의 그릇된 언어 사용은 날로 심각한 수준이며, 사이버 불링 또한 청소년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 욕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여 이를 통해 건전한 언어 사용 및 나아가 올바른 사이버 언어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1. 사이버 욕설의 정의 및 연구동향

오늘날 청소년들의 욕설사용현상은 일종의 문화현상이며, 이 현상은 그 정체가 쉽게 파악되지 않고, 무섭게 확산되며 은근히 즐기고 편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적 괴물이라 말하기도 한다(박인기, 2012).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도 만연해 있는 욕설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저주하고 욕되게 하는 말’이며, 특히 사이버 욕설은 통신기술 및 환경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되는 욕설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 문화적으로 ‘저주나 욕됨’의 양태가 다양하고, 실제 욕설은 ‘상대방의 행위에 언짢음, 분노 또는 노여움의 감정을 표출하는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양명희, 강희숙, 2010; Rassin & Muris, 2005; Vingerhoets, Bylsma & Vlam, 2013) 욕설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다. 특히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욕설은 발화자의 표정과 억양 등을 알 수 없어 단순한 텍스트로 그 의미를 파악하기는 더욱 힘들다.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욕설에 대한 국내 연구는 일상생활에서의 ‘청소년 욕설문화, 실태 및 관련 변인’ 등의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이버 욕설은 ‘익명성’, ‘다양한 습득 경로’, ‘광범위한 사용 영역’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맞물려 있어, 언어학, 언론학, 교육학 등에서 다양한 변인과 함께 청소년의 욕설 혹은 사이버 욕설을 다루고 있다. 대체로 언어훼손과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교육적·문화적 진단 및 대책을 주요 골자로 이루어지는 실정이다(박인기, 2012; 백경녀, 2001; 변성은, 2006; 변윤언, 이광호, 2004; 양명희, 강희숙, 2010; 이정복, 1998).

청소년 사이버 욕설 현상과 관련하여 단연 언어학 분야에서 그 연구가 활발하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어 훼손(김영명, 2001), 댓글에 나타난 욕설(전병철, 2000), 휴대전화 언어 분석(김기석, 2001)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정복(1998, 2000, 2005, 2010, 2014)은 통신언어를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데, 그는 인터넷 통신 속 언어는 국어 화자들이 생산하는 언어 자료의 큰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초기의 통신언어 연구는 규범적 관점에서 일상어와의 차이점을 단편적으로 연구를 하였다면, 최근에는 통신언어의 쓰임을 기술하고 그 특징을 기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언어라는 것은 본디 사회적 활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태 중심의 기술적 연구로는 언어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과 그 사용동기를 밝혀내는 것은 어렵다는 데 이견은 없다(이정복, 2005).

사회언어학적인 접근으로 통신언어를 다루는 연구 외에 언론학에서는 인터넷을 대안매체 혹은 보조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통신언어의 문제점보다 그 기능적 측면을 주로 다룬다(이시훈, 2004). 다만 이시훈(2004)은 젊은 층들이 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보고, 그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나타난 통신언어의 현황을 분석하고 순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관련 연구물들을 살펴보면,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통신언어의 특성 상, 규범적 차원에서 통신언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최근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과 무분별한 욕설사용은 청소년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 욕설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탐색하고자 시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도가 필요한 이유는 청소년 욕설이 단지 ‘개인 차원의 문제’라기 보다 사회, 현상, 문화, 제도, 풍토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청소년 욕설과 관련된 변인

청소년 욕설과 관련한 변인들은 크게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미디어요인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먼저, 개인요인으로 성별, 자아개념, 충동성, 감각추구, 또래동조성, 규범적 문제행동, 욕설습관 등이 있다. 소재희(2011)는 중,고등학생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욕설사용과 자아개념 및 충동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남학생이 욕설 사용빈도가 잦고 자아개념은 욕설사용 빈도와 무

관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즉 욕설사용은 청소년들만의 친근감을 표시하는 의사소통 방식의 하나라는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희화(2014)는 중학교 2학년의 욕설정도가 초등학교 6학년의 욕설정도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청소년들 간의 하위문화 내 욕설사용이 습관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규범적 문제행동과 욕설 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밝혀 실제 탈규범적 문제행동을 보일수록 욕설을 많이 할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가정요인으로는 민주적인 가족관계, 부모욕설 등 청소년들의 의미 있는 타자로서 부모변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박인기(2012)는 범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욕설사용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그 실태를 합동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여 민주적인 가족관계 등이 청소년의 언어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애착, 의사소통, 학대 등의 요인이 청소년 언어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 욕설사용에 있어 또래의 욕설과 함께 주변 성인의 욕설사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교사나 부모의 욕설사용은 모델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희화, 2014).

그리고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학교도 욕설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꼽을 수 있다. 입시 및 학력경쟁 등이 욕설사용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생활과 무관하지 않다(박인기, 2012). 더욱이 개인요인으로 지목된 규범적 문제행동이 발현되는 장소로 학교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학교규칙 적응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욕설의 습득 경로 중 하나이자 사이버 욕설을 행하는 매개체인 미디어 요인을 들 수 있다. 양명희와 강희숙(2010)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 사용하는 욕설의 습득 경로로 친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을 인터넷으로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의 욕설 습득 경로도 인터넷이 그 근원일 수 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무선 인터넷 보급률도 높은 수준인데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 미디어 요인은 청소년 욕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에 틀림이 없다.

이상으로 청소년 욕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크게 4개의 영역에서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욕설과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신환경의 발달로 일상생활에서의 욕설이 사이버 상으로 확산되고, 혹은 사이버 상에서의 욕설이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이정복, 2005). 즉 일상어로서의 욕설과 사이버 상의 욕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욕설현상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미디어 요인이 사이버 욕설에도 그 영향이 유의한지 살펴보려고 한다. 아울러 초기 청소년기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바(김희화, 2014), 각 단계별 청소년기의 사이버 욕설에 영향요인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패널조사 중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4패널과 중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1패널을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청소년 사이버 욕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이하, KCYPS)』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KCYPS는 2010년 기준 전국의 초1, 초4, 중1 학년생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각 코호트 2,200여명)을 대상으로 향후 7년간 매해 1회 개인의 성장 및 발달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 등에 관하여 반복,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조사이다. 본 연구는 KCYPS의 ‘초4 패널’과 ‘중1 패널’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2. 변수 및 분석모형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사이버 욕설 행동 경험여부로 ‘지난 1년 동안 채팅/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변수이다. 즉 경험이 있는 경우를 ‘1’, 경험이 없는 경우를 ‘0’으로 측정하는 이분형 변수이다.

나. 독립변수

주요 독립변수는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미디어 요인들이다. 개인요인으로 가구소득, 성별, 지위비행으로 구성하였다. 가구소득은 연간 소득의 자연로그를 취하였으며, 성별은 남성의 경우 1, 여성의 경우 0값을 부여하였다. 지위비행은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의 각각 경험을 한 경우를 1, 경험이 없는 경우를 0값을 부여해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가정요인은 부모애착과 부모학대로 구성하였다. 부모애착 문항으로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로, 매우 그렇다는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두어 합산하였다. 부모학대 문항으로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이며, 매우 그렇다는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부여하여 합산하였다.

다음으로 학교요인은 학습활동과 학교규칙으로 구성하였다. 학습활동 문항은 총 5문항으로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물어본다’의 4문항은 매우 그렇다를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두었고,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4점으로 부여해 학습활동의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

록 학습활동을 적극적인 것으로 측정하였다. 학교규칙은 총 5문항으로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이며, 매우 그렇다를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두어 합산해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요인은 컴퓨터 이용빈도, 등교하는 평일에 컴퓨터 게임을 하며 보내는 시간, 등교하지 않는 비등교일에 컴퓨터 게임을 하며 보내는 시간, 등교일에 TV나 비디오 등을 시청하는 시간, 비등교일에 TV나 비디오 등을 시청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컴퓨터 이용빈도는 사이버 욕설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추측되는 게임 및 오락, 채팅이나 메신저, 동호회·카페·커뮤니티 활동, 개인 홈페이지 활동, 온라인에서 사고팔기, 댓글 달기를 중심으로 자주 사용한다는 4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1점을 부여해 합산하여 처리하였다.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1>로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변인

변인		문항	설명
종속변수	사이버 욕설	지난 1년 동안 채팅/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기	있다 = 1 없다 = 0
독립변수			
개인요인	가구소득	가구연간소득(만원)	자연로그값
	성별	성별	남 = 1 여 = 0
	지위비행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있다 = 1/ 없다 = 0 각 문항들을 합산
가정요인	부모애착	존중, 좋아함, 용기, 칭찬	매우 그렇다 = 4 그런 편이다 =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 2 전혀 그렇지 않다 = 1 합산
	부모학대	심하게 혼냄, 폭력, 상처, 욕	매우 그렇다 = 4 그런 편이다 =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 2 전혀 그렇지 않다 = 1 합산
학교요인	학습활동	수업시간, 숙제, 배운 내용, 질문, 판짓1)	매우 그렇다 = 4 그런 편이다 =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 2 전혀 그렇지 않다 = 1 합산
	학교규칙	당번, 조용히 다니기, 물건 사용, 차례, 쓰레기	매우 그렇다 = 4 그런 편이다 =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 2 전혀 그렇지 않다 = 1 합산
미디어 요인	컴퓨터 이용빈도	게임 및 오락, 채팅이나 메신저, 동호회 외 커뮤니티 활동, 개인 홈페이지 활동, 온라인 매매, 댓글 달기	자주 사용한다 = 4 가끔 사용한다 = 3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2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1 합산

	컴퓨터게임 시간	컴퓨터나 게임기를 가지고 노는 시간(등교/ 비등교)	시간
	TV시청시 시간	휴식이나 오락을 목적으로 TV 프로그램이나 비디오, DVD를 시청하는 시간(하루 평균)	시간

주 1) 역문항 처리

초4 패널과 중1 패널의 기술통계를 제시하면 <표 2>와 <표 3>과 같다. 가구소득의 경우, 자연 로그를 취하여 측정한 값으로 표에 제시되어 있으며, 원자료에 대한 평균은 초4 패널은 연간 약 4226만원, 중1 패널은 연간 약 4705만원이었다.

표 2 초4 패널 기술통계

	전 체 (N=2092)		남 (N=1098)		여 (N=99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이버욕설	0.073	0.260	0.085	0.279	0.060	0.238
ln(가구소득)	8.310	0.551	8.302	0.533	8.323	0.555
지위비행	0.030	0.107	0.040	0.123	0.019	0.086
부모애착	3.166	0.576	3.210	0.565	3.118	0.584
부모학대	1.791	0.690	1.860	0.716	1.715	0.652
학습활동	2.867	0.563	2.884	0.577	2.848	0.547
학교규칙	3.011	0.538	3.007	0.569	3.016	0.501
컴퓨터이용빈도	2.161	0.667	2.183	0.655	2.134	0.681
컴퓨터게임시간등교	0.997	1.150	1.164	1.155	0.814	1.116
컴퓨터게임시간비등교	2.083	1.790	2.520	1.753	1.601	1.706
TV시청시간등교	1.213	1.154	1.202	1.145	1.225	1.164
TV시청시간비등교	2.426	1.718	2.328	1.656	2.535	1.780

표 3 중1 패널 기술통계

	전 체 (N=2108)		남 (N=1075)		여 (N=103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이버욕설	0.065	0.247	0.112	0.315	0.017	0.127
ln(가구소득)	8.301	0.588	8.280	0.590	8.314	0.576
지위비행	0.272	0.665	0.397	0.770	0.141	0.501
부모애착	2.983	0.552	2.986	0.549	2.981	0.556
부모학대	1.672	0.615	1.767	0.650	1.572	0.560
학습활동	2.775	0.493	2.751	0.525	2.800	0.456
학교규칙	2.939	0.491	2.892	0.527	2.987	0.446
컴퓨터이용빈도	2.049	0.612	2.138	0.564	1.944	0.649
컴퓨터게임시간등교	1.426	7.820	1.921	9.559	0.912	5.417
컴퓨터게임시간비등교	2.688	7.549	3.277	7.458	2.077	7.597
TV시청시간등교	1.773	9.872	1.779	10.016	1.767	9.726
TV시청시간비등교	2.599	7.206	2.130	5.373	3.085	8.685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다. 분석모형

본 연구는 사이버 욕설을 한 적이 있는 경우를 1, 없는 경우 0인 사이버 욕설 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 로지스틱 모형(binary logistic model)을 사용하여 초4 패널과 중1 패널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각 패널을 구분하여 분석한 이유는 초4 패널은 대부분의 학생이 중1 학생이고, 중1 패널은 대부분 고1 학생들로 패널의 개체특성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이들을 종합하지 않고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초4 패널 결과

〈표 4〉는 초4 패널을 활용하여 사이버 욕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결과이다. Hosmer와 Lemeshow검정 결과, 카이제곱 5.990($p=.648$)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Nagelkerke R²는 7.4%로 확인되었으나, Nagelkerke R²는 실제로 설명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통상 대단히 작은 값을 보고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Nagelkerke R²는 모형설정단계에서 보충적인 통계량으로 사용되고 있다(양명희, 2005).

표 4 ▶ 사이버 욕설 경험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초4 패널)

	<i>B</i>	S.E	exp(<i>B</i>)
가구소득	-.017	.179	.983
성별	.193	.206	1.212
지위비행	1.078	.719	2.939
부모애착	.221	.196	1.247
부모학대	-.122	.156	.885
학습활동	-.317	.217	.728
학교규칙	-.503*	.214	.605
컴퓨터이용빈도	.622***	.148	1.862
컴퓨터게임시간등교	.103	.104	1.109
컴퓨터게임시간비등교	.030	.070	1.030
TV시청시간등교	-.053	.106	.949
TV시청시간비등교	-.085	.072	.918
상수항	-2.079	1.764	.125
-2LL=813.685			
$R^2 = .074$			
$\chi^2=5.990(p=.648)$			

* : $p < .05$ *** : $p < .001$

초4 패널을 대상으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사이버 욕설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학교규칙($B=-.503$, $p<.05$)과 컴퓨터 이용빈도($B=.622$, $p<.001$)로 밝혀졌다. 학교규칙은 부적인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컴퓨터 이용빈도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학교규칙을 잘 따르면 따를수록 사이버 욕설을 하지 않고, 컴퓨터 이용빈도가 잦을수록 사이버 욕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규칙을 잘 지킬수록 사이버 욕설을 할 가능성이 .605배($\exp(B)=.605$) 감소하고, 게임 및 오락, 댓글 달기 등과 같은 컴퓨터 이용빈도가 늘어나면 사이버 욕설을 할 가능성이 1.862배($\exp(B)$)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중1 패널 결과

〈표 5〉는 중1 패널을 활용하여 사이버 욕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결과이다. Hosmer와 Lemeshow의 검정결과, 카이제곱 6.627($p=.577$)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NagelKerte R²는 18.7%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 사이버 욕설 경험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중1 패널)

	<i>B</i>	<i>S.E</i>	<i>exp(B)</i>
가구소득	.150	.178	1.162
성별	1.753***	.319	5.769
지위비행	.254*	.129	1.290
부모애착	-.304	.198	.738
부모학대	-.129	.171	.879
학습활동	-.147	.238	.863
학교규칙	-.220	.221	.803
컴퓨터이용빈도	.341	.181	1.406
컴퓨터게임시간등교	-.104	.096	.901
컴퓨터게임시간비등교	.291***	.059	1.338
TV시청시간등교	-.071	.124	.931
TV시청시간비등교	-.010	.076	.991
상수항	-4.464	1.848	.012

-2LL=739.728

$R^2 = .187$

$\chi^2=6.627(p=.577)$

* : $p < .05$ *** : $p < .001$

자세한 결과를 살펴보면, 중1 패널을 대상으로 했을 때 사이버 욕설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B=1.753$, $p<.001$), 지위비행(.254, $p<.05$), 컴퓨터게임시간 등교(.291, $p<.001$)로 나타나 초4 패널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남학생일수록 사이버 욕설에 더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에 비해 5.769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위비행을 더 저지를수록 사이버

욕설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았으며, 지위비행이 한 단계 증가할 때 마다 1.290배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비등교일에 컴퓨터게임시간이 늘어날수록 사이버 욕설을 더 할 가능성이 1.338배로 나타나 사이버 욕설 기회가 많은 비등교일의 컴퓨터 게임 시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최근 들어 청소년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이버 욕설의 문제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버 욕설 참여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초4 패널과 중1 패널을 구분하여 각각 패널별 사이버 욕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먼저 초4 패널을 분석한 결과, 사이버 욕설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교규칙과 컴퓨터 이용빈도로 확인되었다. 학교규칙은 사이버 욕설에 부적인 영향을, 컴퓨터 이용빈도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학교규칙을 잘 지킬수록 사이버 욕설을 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막 진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요인의 영향이 여전히 유의미한 것으로 추측된다(김희화, 2014).

다음으로 중1 패널의 경우, 초4 패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성별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5.789배 사이버 욕설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어 남자 고등학생들의 사이버 욕설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위비행의 영향이 정적으로 나타나 실제로 음주, 흡연, 무단결석, 가출에 참여할수록 사이버 욕설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히 사이버 욕설이 사이버 상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 상의 문제와 동반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청소년 문제 및 일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비등교일에 컴퓨터 및 게임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이버 욕설에 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디어 요인이 사이버 욕설의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기의 단계별 사이버 욕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기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중기 청소년들은 지위비행과 컴퓨터 및 게임시간이 사이버 욕설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욕설 교정을 위해 시기별 다른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가 청소년 시기별 사이버 욕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데에 의의가 있으나, 2차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라는 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또래 간 욕설, 부모 욕설 등과 같은 의미 있는 타자의 욕설이 사이버 욕설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준거집단 및 의미 있는 타자가 영향력이 큰 청소년기에 이들의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격성, 분노 등과 같은 다양한 개인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추후 연구를 기대해 본다.

부록 1 ▶ 상관관계표 - 초4 패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사이버옥설	1.000												
가구소득	-.038	1.000											
성별	.047*	-.020	1.000										
지위비행	.106**	-.100**	.095**	1.000									
부모애착	-0.020	.078*	.080**	-.092**	1.000								
부모학대	.020	-.046*	.106**	.114**	-.327**	1.000							
학습활동	-.106**	.149**	0.033	-.196**	.426**	-.227**	1.000						
학교규칙	-.102**	.082**	-0.008	-.183**	.335**	-.112**	.543**	1.000					
컴퓨터이용빈도	.119**	-.087**	0.037	.069**	-.061**	.102**	-.137**	-.061**	1.000				
컴퓨터게임시간등교	.085**	-.162**	.152**	.133**	-.110**	.061**	-.222**	-.137**	.156**	1.000			
컴퓨터게임시간비등교	.069**	-.112**	.256**	.080**	-.062**	.056*	-.173**	-.112**	.230**	.646**	1.000		
TV시청시간등교	0.014	-.110**	-0.010	.073**	-.054*	0.033	-.159**	-.095**	.091**	.188**	.077**	1.000	
TV시청시간비등교	-0.018	-.057*	-.060**	0.021	-0.017	-0.019	-.096**	-.085**	.064**	0.033	.064**	.587**	1.000

* : $p < .05$ ** : $p < .01$

1=사이버옥설, 2=가구소득, 3=성별, 4=지위비행, 5=부모애착, 6=부모학대, 7=학습활동, 8=학교규칙, 9=컴퓨터이용빈도, 10=컴퓨터게임시간등교, 11=컴퓨터게임시간비등교, 12=TV시청시간등교, 13=TV시청시간비등교

부록 2 ▶ 상관관계표 - 중1 패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사이버옥설	1												
가구소득	-.004	1											
성별	.193**	-0.029	1										
지위비행	.127**	-.055	.192**	1									
부모애착	-.051*	.112**	0.005	-.093**	1								
부모학대	.045*	-.081**	.158**	.150**	-.323**	1							
학습활동	-.098**	.127**	-.050*	-.251**	.334**	-.201**	1						
학교규칙	-.089**	.076**	-.097**	-.204**	.235**	-.153**	.469**	1					
컴퓨터이용빈도	.088**	-.176**	.167**	.131**	-.077**	.110**	-.194**	-.098**	1				
컴퓨터게임시간등교	.209**	-.130**	.346**	.115**	-0.04	.081**	-.180**	-.105**	.580**	1			
컴퓨터게임시간비등교	-0.014	-.175**	-0.023	.059**	-.087**	.088**	-.194**	-.132**	.219**	.051*	1		
TV시청시간등교	-0.029	-.110**	-.149**	-0.01	-0.028	-0.015	-.138**	-.074**	0.014	0.006	.508**	1	
TV시청시간비등교	-0.018	-.057*	-.060**	0.021	-0.017	-0.019	-.096**	-.085**	.064**	0.033	.064**	.587**	1.000

* : $p < .05$ ** : $p < .01$

1=사이버옥설, 2=가구소득, 3=성별, 4=지위비행, 5=부모애착, 6=부모학대, 7=학습활동, 8=학교규칙, 9=컴퓨터이용빈도, 10=컴퓨터게임시간등교, 11=컴퓨터게임시간비등교, 12=TV시청시간등교, 13=TV시청시간비등교

참 고 문 헌

- 김기석(2001). 휴대전화 문자언어의 실태 분석과 국어 교육적인 방안. **교육 한글**, 14, 67-97.
- 김영명(2001). 인터넷 언어훼손의 실태와 문제점. **정보통신윤리**, 26, 14-18.
- 김희화(2014). 초기 청소년의 욕설에 대한 감각추구, 또래동조성, 규범적 문제행동, 친구 및 성인 욕설의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2(1), 33-41.
- 동아일보(2014). **스마트폰 열공 중인 어르신들**, 2014년 9월 23일자, <http://news.donga.com/3/all/20140923/66635162/1>에서 9월 25일 인출.
- 박인기(2012). ‘욕설언어현상’에 대한 교육적·문화적 진단과 대안 모색. **화법연구**, 20, 101-139.
- 백경녀(2001). **청소년의 언어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성은(2006). **청소년 통신언어 순화를 위한 지도 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윤언, 이광호(2004). 청소년의 인터넷상 언어사용에 나타난 문화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2), 25-37.
- 소재희(2011). 청소년의 욕설사용과 자아개념 및 충동성 분석. **청소년 문화포럼**, 26, 91-122.
- 양명희(2005). 기초학력 도달 관련 심리적 특성 분석을 위한 로지스틱 모형 적용 연구. **교육평가연구**, 18(3), 97-116.
- 양명희, 강희숙(2010). **학교생활에서의 욕설 사용 실태 및 순화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이시훈(2004). 인터넷 통신언어의 사용 현황과 인식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4(1), 177-211.
- 이정복(1998). 컴퓨터 통신 분야의 외래어 사용. **새국어생활**, 8(2), 61-79.
- 이정복(2000). 통신 언어로서의 호칭어 ‘님’에 대한 분석. **사회언어학**, 8(2), 193-221.
- 이정복(2005). 사회언어학으로 인터넷 통신 언어 분석하기 - 최근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어학**, 27, 37-79.
- 이정복(2010). 인터넷 통신 공간의 여성 비하적 지시 표현. **사회언어학**, 18(2), 215-247.
- 전병철(2000). 댓글에 나타난 욕설의 형태 연구. **언어학연구**, 11, 189-205.
- Aitchison, J.(2006). Whassup? slang and swearing among school children, *Education Review*, 19(2), 18-24.
- OECD(2014). *OECD Broadband Portal*, <http://www.oecd.org/sti/broadband/oecd-broadbandportal.htm>에서 9월 25일 인출.
- Rassin, Eric and Peter Muris(2005). Why do women swear? An exploration of reasons for and perceived efficacy of swearing in Dutch female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 1669 - 1674
- Vingerhoets, A. J. M., Lauren M. Bylsma, and Cornelis de Vlam(2013). Swearing: A biopsychosocial perspective, *Psychological Topics*, 22(2), 287-304.

인터넷 사용유형이 사회심리문제, 학교적응, 비행에 미치는 영향

임선아*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심리문제, 학교부적응, 그리고 비행의 두 가지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자료 중학교 1학년 패널의 2차년도부터 4차년도 자료 수집과정에 모두 참여한 2,07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류형은 사회심리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락형은 사회심리문제와 학교부적응, 비행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추구형은 사회심리문제와 학교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류형은 사회심리문제와 학교부적응을 매개하여 현실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이버비행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형은 사회심리문제와 학교부적응을 매개하여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추구형은 사회심리문제와 학교부적응을 매개하여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인터넷 사용유형, 사회심리문제, 학교적응, 비행

I. 서론

인터넷시대의 도래로 청소년들의 인터넷사용은 급증하였고 이제는 주요 일상생활이 되었다. 인터넷 시대에 살며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다양한 정보의 세계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며 여러 가지 이점과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 즉 익명성, 탈개인화, 접촉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자들은 과다한 인터넷 사용, 음란표현물 접촉이나 사이버 폭력, 강간, 사이버 범죄, 자살이나 음란 동호회 가입을 통한 불법행위 등 인터넷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 행위에 몰입하게 되는 등의 인터넷의 혜택을 넘은 부정적인 측면도 불거지고 있다(김혜원, 2001).

청소년들 또한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긍정적 효과를 얻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sunahlim@sm.ac.kr

향을 받기도 한다. 정보검색 및 학습활동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지식 및 학습능력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킬 뿐 아니라 능동적인 정보처리 과정을 향상시킨다. 또한 인터넷 활용능력이 향상되어 청소년들에게 학습동기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자신감이 배양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에 반해, 인터넷의 무분별한 노출로 인해 청소년들은 공격성, 폭력성 및 성적 충동성이 자극되며 지나친 몰입(인터넷 중독)으로 사회적 활동의 제한을 겪기도 하고 가족 및 친구관계가 악화되고 이로 인해 고립감, 우울감이 유발되는 등 사회심리적 발달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기선, 2000).

인터넷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사회심리적 발달의 문제와 더불어 인터넷 과다 사용은 가족문제, 학교문제, 사회문제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안석(200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 집단은 가족 특히 부모와의 갈등이 증가하며, 학업성적이 떨어지며, 수업을 빠지게 되고, 과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또한 친구들과의 갈등이 증가하고, 약속을 잇는 경우가 더 빈번하며, 타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갈 수 있는 터전이 되는 학교에서의 부적응 문제를 낳게 된다. 이에 대해, 김광수 외(2002)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정도와 학교생활적응-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인터넷 중독경향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의 학교생활적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즉,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을수록 교사와 조화롭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정도가 떨어지고, 친구에 대한 관심과 학교생활에 대한 적극성이 낮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수업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며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학교생활의 여러 장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행동하는 능력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에서의 부적응은 학교의 교육적 가치, 규범, 질서 등과 일치되지 못하는 일종의 불균형 상태를 경험하게 되거나(이경화, 손원경, 2005), 단순한 심리적 차원을 넘어 규범적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허은경, 이경남, 2006). 또한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불안, 절망, 소외감, 자신감 결여 등을 경험하거나, 정서적 문제나 적대감, 실패감 등이 누적되어 또 다른 부적응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김동배, 권중돈, 2006)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야기된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는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Young(1999)은 인터넷사용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지장과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고, 국내연구에서도 인터넷사용이 학업부적응 문제를 낳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변성희, 김정민, 2007; 조윤경, 김영석, 2009). 특히 학교부적응이 비행에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사용의 문제는 밝혀질 필요성이 있다.

인터넷사용과 비행과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는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기존 대부분의 연구들을 보면 인터넷사용 시간이 비행을 더 저지르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양돈규, 2000; 조남근, 양돈규, 2001; 이성식, 2005). 비행기회이론에 의하면 비행기회에 노출될수록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연히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 때문에 가해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고 한다(Sampson & Lauritsen, 1990; Osgood et al., 1996). 이수진(2008)은 인터넷중독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비행 또는 문제행동을 저지르는 결과를 제시하며 인터넷사용이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이성식(2004)은 사이버비행의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인터넷사용시간이 사이버비행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제시했다.

이성식(2005)은 인터넷중독의 과다사용자들은 사이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게 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비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했고, 그 이유가 비행기회의 노출 때문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로 비행기회노출론을 지지했다. 즉 인터넷과다사용자는 그만큼 인터넷에서의 비행기회의 노출증가로 사이버비행을 더 저지르지만 현실비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원상과 이서원(2006)은 인터넷사용시간이 많은 인터넷 중독자가 더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조사결과를 제시해 그들이 현실비행의 가능성도 높음을 제시했고, 실제로 인터넷사용은 현실비행과도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나순희, 2003).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횡단적 조사자료에 의존함으로써 설명 요인들간에 그 전후 인과관계를 명확히 다루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그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자료를 통해 파악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사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받게되는 부정적 영향 과정을 명확히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터넷 사용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심리문제, 학교부적응, 그리고 비행의 두 가지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 연구들에서는 가장 중요하게는 인터넷사용의 영향력을 파악함에 있어 그것을 사용유형별로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폭력게임이나 음란물 등에 노출될 시에는 그것이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지만, 사람들과 교류나 친목 목적의 이메일, 메신저, 동호회 활동 등은 청소년에게 오히려 이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사용을 크게 유형별로 교류, 오락, 정보추구형으로 나누어 그 영향이 다른지를 보았다. 아울러 이 연구는 인터넷사용의 비행에의 영향을 다룸에 있어 비행도 사이버비행과 현실비행으로 나누어 그 영향이 다른지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사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개입 대상과 접근전력을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 인터넷 사용유형이 청소년의 사회심리문제, 학교부적응,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1.1. 교류형은 청소년의 사회심리문제, 학교부적응,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 1.2. 오락형은 청소년의 사회심리문제, 학교부적응,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 1.3. 정보추구형은 청소년의 사회심리문제, 학교부적응,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인터넷 사용유형은 청소년의 사회심리문제와 학교적응을 매개하여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 2.1. 교류형은 청소년의 사회심리문제와 학교적응을 매개하여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 2.2. 오락형은 청소년의 사회심리문제와 학교적응을 매개하여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 2.3. 정보추구형은 청소년의 사회심리문제와 학교적응을 매개하여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에서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자료의 중학교 1학년 패널의 2차년도부터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11년, 2012년, 2013년 2차부터 4차 자료수집 과정에 모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패널자료 2,07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남학생이 1,062명(51.2%), 여학생이 1,013명(48.8%)이다.

2. 측정도구

1) 인터넷 사용유형

인터넷 사용유형의 인터넷 사용빈도를 묻는 10문항에 대해 ‘자주 사용한다(1)’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4)’의 Likert식 4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한 문항들을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이성식과 전신현(2012)에서와 같이 세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 세 요인은 교류형과 오락형, 정보추구형으로 구분된다. 교류형은 ‘채팅 및 메신저’, ‘이메일’, ‘동호회/카페/커뮤니티활동’, ‘게시판활동(댓글달기)’의 네 문항이, 오락형은 ‘게임’과 ‘19세 이상 사이트’에 사용에 대해 묻는 두 문항, 정보추구형은, ‘공부 및 학습관련 정보검색’, ‘기타 정보검색 및 열람’ 등의 사용에 대해 묻는 두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교류형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64이고 오락형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19이며, 정보추구형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43이었다.

2) 사회심리문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문제 척도는 우울감과 공격성이다. 우울감을 측정한 척도는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한, 원호택, 1984) 중 우울척도 문항을 한국청소년연구소에서 수정해서 사용한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매우 그렇다(1)’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문항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등이다. 점수가 낮을수록 우울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역채점하였다. 우울감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60이다.

청소년의 공격성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하여 총 5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Likert식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1)’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 문항은 ‘하루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이다. 점수가 낮을수록 공격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으로 역채점하였다. 공격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32이다.

3) 학교생활부적응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 측정은 문선보(1989)의 학교생활적응 척도와 이상필(1990)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정화실, 2009 재인용) 중 학교행사 관련 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측정도구는 학습활동 5문항, 학교규칙 5문항, 교우관계 5문항, 교사관계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학교부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역채점하지 않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보았다. 학습활동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22이며, 학교규칙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89, 교우관계를 측정하는 문항들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01, 교사관계를 측정하는 문항들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55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비행행동

(1) 현실비행

연간 비행행동 경험 유무를 묻는 문항(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사람 집단 따돌림 시키기,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다른 사람 협박하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성폭행 및 성희롱, 도박 게임)에 대해 “예”(1) 혹은 “아니오”(2)로 답하도록 하였다. “예”라고 답한 경우는 1점,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는 0점으로 리코딩하여 점수가 계산되었다.

(2) 사이버비행

사이버비행 연간 경험여부를 묻는 문항(거짓정보유포, 저작물침해, 아이디도용, 해킹, 언어폭력) 등의 질문 문항에 대해 “예”(1) 혹은 “아니오”(2)로 답하도록 하였다. 현실비행과 같이, “예”라고 답한 경우는 1점,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는 0점으로 리코딩하여 점수가 계산되었다.

3.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터넷 사용유형이 청소년의 사회심리문제, 학교부적응, 그리고 비행의 두 가지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 2학년 때 어떤 유형의 인터넷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 중학교 3학년 때 사회심리문제와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4차년도에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기술통계치 및 상관값을 구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변인들이 구조방정식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였다. 먼저는 모형 내 측정오차를 설명하도록 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성은 CFI, TLI, RMSEA의 값을 사용하였다. CFI와 TLI는 일반적으로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고, RMSEA 지수는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5에서 .08 사이이면 적합한 적합도이며, .10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라고 할 수 있다 (김주한, 김민규, 홍세희,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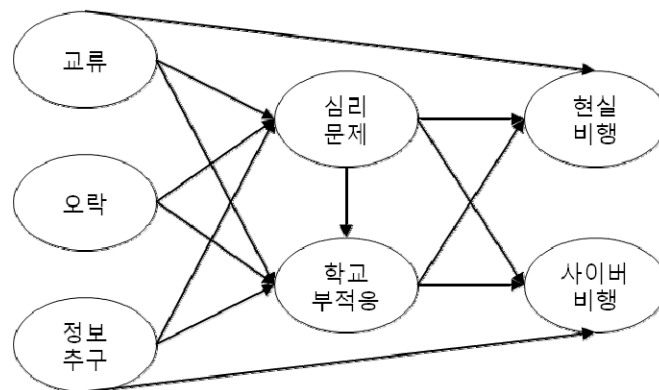


그림 1. 검증할 연구모형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기술통계값과 상관관계값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1) 교류형	-						
(2) 오락형	.062**	-					
(3) 정보추구형	.219***	-.096***	-				
(4) 사회정서문제	.104***	.029	-.048*	-			
(5) 학교부적응	.005	.178***	-.167***	.290***	-		
(6) 현실비행	.064**	.191***	-.054*	.094***	.193***	-	
(7) 사이버비행	.002	.140***	-.003	.022	.053*	.108***	-
평균	12.089	4.492	5.973	31.113	42.209	.291	.230
표준편차	3.713	1.304	1.288	8.211	7.770	.712	.553
왜도	-.136	.036	-.608	.091	-.042	2.968	3.161
첨도	-.635	-.064	.396	-.257	.665	10.290	13.626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1의 주요 변인들의 상관값을 보면, 컴퓨터 사용유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교류형은 오락형과 정보추구형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반해($r = .062$; $r = .219$), 오락형은 정보추구형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096$). 교류형은 사회정서문제와 $p < .001$ 수준에서($r = .104$), 현실비행과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r = .064$), 학교부적응과 사이버비행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오락형은 학교부적응과 현실비행, 사이버비행과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r = .178$; $r = .191$; $r = .140$) 정보추구형은 사회정서문제와 학교부적응, 현실비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048$; $r = -.167$; $r = -.054$). 사회정서문제는 학교적응 및 현실비행과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 = .290$; $r = .094$), 학교부적응은 현실비행과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 = .193$), 현실비행은 사이버비행과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08$).

사용한 측정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의 값은 살펴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왜도 < 2 , 첨도 < 4)을 충족시키고 있었다(Hong, Malik, & Lee, 2003).

2. 측정모형 분석

예비분석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측정모형의 $\chi^2 = 1300.683$, $df = 209$, RMSEA는 .050이었고 TLI와 CFI는 각각 .907과 .940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측정모형

의 요인부하량은 적절하였다. 인터넷 사용유형 중 교류형의 요인부하량은 .546에서 .703의 범위의 값을 나타냈고, 오락형은 .417에서 .449의 범위를, 정보추구형은 .406에서 .536의 범위의 값을 나타냈다. 사회심리문제의 요인부하량은 .655에서 .754의 범위의 값을 나타냈으며, 학교부적응의 요인부하량은 .546에서 .724의 범위의 값을 나타냈다. 현실비행의 요인부하량은 .330에서 .551의 요인부하량을, 사이버비행은 .356에서 .596의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3.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후, 연구모형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chi^2 = 1300.761$, $df = 210$, RMSEA는 .050이었고, CFI와 TLI는 각각 .923과 .9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indices)는 좋은 적합도였다. 회귀계수가 유의미한지 유의미하지 않은지 결정하기 위해 t -ratio를 사용하였으며 경로의 계수(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1) 모형의 모수추정치

표 2 ▶ 모형의 모수추정치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화 계수
교류형	→	사회심리문제	.686 ***	.161	.200
교류형	→	학교부적응	.079	.126	.028
교류형	→	현실비행	.002	.034	.004
교류형	→	사이버비행	-.002	.002	-.043
오락형	→	사회심리문제	.903 *	.432	.119
오락형	→	학교부적응	1.661 ***	.374	.267
오락형	→	현실비행	.572 ***	.115	.481
오락형	→	사이버비행	.031 ***	.007	.319
정보추구형	→	사회심리문제	-.947 *	.367	-.166
정보추구형	→	학교부적응	-.964 **	.296	-.206
정보추구형	→	현실비행	.047	.077	.053
정보추구형	→	사이버비행	.006	.005	.082
사회심리문제	→	학교부적응	.313 ***	.032	.381
사회심리문제	→	현실비행	.013	.009	.082
사회심리문제	→	사이버비행	.000	.001	-.009
학교부적응	→	현실비행	.030 *	.012	.157
학교부적응	→	사이버비행	.000	.001	-.009

주.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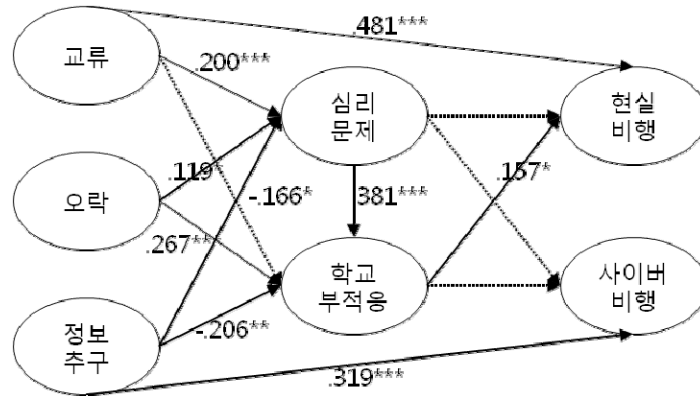


그림 2. 모형의 경로계수

주1. * $p < .05$; ** $p < .01$; *** $p < .001$

주2.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계수만 표시함(유미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 표시).

주3.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표 2와 그림 2에 제시된 각 모수추정치들을 통해 볼 때, 교류형은 사회심리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 = .200, p < .001$) 오락형은 사회심리문제와 학교부적응, 현실비행 및 사이버비행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19, p < .05$; $\beta = .267, p < .001$; $\beta = .481, p < .001$; $\beta = .319, p < .001$). 정보추구형은 사회심리문제와 학교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66, p < .05$; $\beta = -.206, p < .01$). 사회심리문제는 학교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381, p < .001$), 학교부적응은 현실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57, p < .05$).

2) 매개효과

직·간접 효과 및 총효과를 보기 위해 본 연구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간접효과 결과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화 계수	95% C.I. (bootstrap with bias correction)
교류형	→ 현실비행	.004 *	.006	.018	(.006, .043)
	→ 사이버비행	.000	.000	.001	(-.010, .012)
오락형	→ 현실비행	.036 *	.110	.059	(.015, .185)
	→ 사이버비행	.004 *	.003	.014	(.011, .062)
정보추구형	→ 현실비행	-.031 *	.100	-.042	(-.127, -.008)
	→ 사이버비행	-.003 **	.002	-.025	(-.045, -.012)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3에 제시된 각 간접효과 결과를 보면, 교류형은 심리정서문제와 학교부적응을 매개하여 현실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018, $p < .05$), 사이버비행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형은 심리정서문제와 학교부적응을 매개하여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059, $p < .05$; .014, $p < .05$). 정보추구형은 심리정서문제와 학교부적응을 매개하여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042, $p < .05$; -.025, $p < .01$).

IV. 논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받게되는 부정적 영향 과정을 명확히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심리문제, 학교부적응, 그리고 비행의 두 가지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사용을 크게 유형별로 교류, 오락, 정보추구형으로 나누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보았으며, 사회심리문제와 학교부적응 문제를 매개하여 두 가지 비행행동인 사이버비행과 현실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류형은 사회심리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락형은 사회심리문제와 학교부적응에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추구형은 사회심리문제와 학교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는 인터넷의 무분별한 노출은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정기선, 2000), 또한 인터넷의 과다사용은 학교 부적응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광수 외, 2002; 변성희, 김정민, 2007; 안석, 2000; 조운경, 김영석, 2009). 본 연구결과는 인터넷의 사용유형에 따라 사회심리적문제와 학교부적응에 다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는데, 즉 교류형과 오락형은 사회심리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정보추구형은 오히려 사회심리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교류형은 학교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보추구형은 오히려 학교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오락형은 학교부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사용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의 과다사용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청소년이 어떠한 이유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확인하여 오히려 인터넷 시대에 살아야 하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는 또한 인터넷 사용유형 중 오락형이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모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즉, 청소년이 인터넷 상에서 오락을 자주 할수록 현실에서건 사이버 상에서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기회이론(Sampson & Lauritsen, 1990; Osgood et al., 1996)을 지지하는 것으로, 인터넷 상에서 오락을 통해 비행기회에 노출되며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컴퓨터 게임 사용시간과 비행 관련 연구는 일치하는 않은 결과로 아직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일부 학자들은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들의 공격성과 공격행위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며(Anderson, 2004; Ballard & Lineberger, 1999), 반면 일부학자들은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들의 공격성에 단지 약한 효과만 있거나 이미 폭력적인 청소년들에게만 영향이 있다고 반박한다(Giumetti & Markey, 2007; Markey & Scherer, 2009). Olson(200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 사이에 컴퓨터 게임의 인기는 청소년들의 폭력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청소년 폭력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기까지 하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일치하지 않는 결론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컴퓨터 게임과 비행 관련 연구에 대해 게임에 많이 노출된 청소년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행행동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들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오락을 위한 인터넷사용에 주의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현실비행 뿐 아니라 사이버 비행 또한 저지를 수 있다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사이버 비행을 막기 위해서 오락을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둘째, 교류형은 심리정서문제와 학교부적응을 매개하여 현실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사이버비행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형은 심리정서문제와 학교부적응을 매개하여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추구형은 심리정서문제와 학교부적응을 매개하여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인터넷 사용유형에 따라 심리정서문제와 학교부적응을 매개하여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교류형이 심리정서문제와 학교부적응으로 이어지면 현실비행으로까지 이를 수 있으며, 오락형은 직접적으로든, 심리정서문제와 학교부적응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든 현실과 사이버비행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정보추구형은 심리정서문제와 학교부적응을 매개하여서도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에 연결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오락형의 경우는, 컴퓨터 게임의 이용 시간이 청소년들의 공격성과 관련이 있고 이 공격성은 이후 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결과(정영호, 2011)를 지지함으로써 오락형이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특성들을 통해서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터넷 사용이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매개하여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본 연구가 부재하므로 추후 이에 연구가 이루어져 청소년의 어떠한 개인적 특성이 비행으로 연결되도록 하는지 밝혀질 필요가 있겠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횡단적 조사자료에 의존함으로써 설명 요인들간에 그 전후 인과관계를

명확히 다루지 못한 한계를 지닌데 반해 본 연구는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인터넷의 사용이 비행에 연결되는 관계를 밝혔을 뿐 아니라, 인터넷 사용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심리문제, 학교 부적응, 그리고 현실비행과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 정보추구형은 인터넷 사용시간이 무조건 부정적이지만은 아니며, 교류형은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심리정서문제와 학교부적응을 통해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오락형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사용의 영향력을 파악함에 있어 그것을 사용유형별로 고려해야 하며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인터넷 사용 문제에 개입하는데 있어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참고문헌

- 김광수, 장승현, 조병만, 임을미 (2002).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문제연구소 제4회 공동학술연구논문집, 301-333.
- 김광일, 김재한, 원호택 (1984). **간이정신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 적성 출판부.
- 김동배, 권중돈 (2006). **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학지사.
- 김주한,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혜원 (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 인터넷 중독의 현황파악과 관련변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8(2), 91-117.
- 나순희 (2003). **인터넷중독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성희, 김정민 (2007).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사용수준에 따른 인터넷게임 이용 동기와 학교생활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47-58.
- 안석 (2000).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7-59.
- 양돈규 (2000).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인터넷중독 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간의 상관성. **청소년학연구**, 7(2), 117-136.
- 이경화, 손원경 (2005). 아동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구조분석. **아동학회지**, 26(4), 157-171.
- 이성식 (2005). 인터넷중독과 청소년비행의 관계. **정보화정책**, 12(3), 35-47.
- 이성식, 전신현 (2012). 인터넷사용, 일상긴장, 비행의 관계: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23(3), 293-318.
- 이수진 (2008).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문제행동성향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715(3), 237-257.
- 정기선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의 사회심리적 영향. **한국정보사회학회: 정보와 사회**, 2, 183-207.
- 정화실 (2009). **초등학생의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남근, 양돈규 (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91-111.
- 조보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상담및심리치료**, 15(4), 729-746.

- 조윤경, 김영석 (2009). 청소년의 TV와 인터넷이용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3(5), 380-417.
- 조원상, 이서원 (2006).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인터넷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4), 117-131.
- 허은경, 이경남 (2006). 청소년의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이 규범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4), 111-122.
- Anderson, C. (2004). An update on the effects of playing violent video games. *Journal of Adolescence*, 27, 113-122.
- Ballard, M. E., & Lineberger, R. (1999). Video game violence and confederate gender: Effects on reward and punishment among college males. *Sex Roles*, 41, 541-558.
- Giumetti, G. W., & Markey, P. M. (2007). Violent video games and anger as predictors of aggress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 1234-1243.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 636-654.
- Markey, P. M., & Scherer, K. (2009). An examination of psychoticism and motion capture controls as moderators of the effects of violent video gam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5, 407-411.
- Olson, C. (2004). Media violence research and youth violence data: Why do they conflict? *Academic Psychiatry*, 28, 144-150.
- Osgood, D. W., Wilson, J. K., O'Malley, P. M., Bachman, J. G., & Johnston, L. D. (1996). Routine activities and individual deviant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 635-655.
- Sampson, R. J., & Laurisen, J. L. (1990). Deviant lifestyle, proximity to crime and the offender-victim link in personal viol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7, 110-139.

제 4 주제

청소년 활동

- 1 체육운동시간이 청소년의 외현화 ·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과의 상호작용
- 2 청소년의 체험활동과 자아탄력성, 교우관계, 다문화 수용성 간의 구조적 관계
- 3 또래 집단과 관련된 긍정적 감정에 대한 체험활동의 효과성 분석
- 4 청소년 체험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체육운동시간이 청소년의 외현화·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과의 상호작용

이석영*, 이택호**, 한윤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체육 중 운동시간이 청소년의 외현화(주의집중, 공격성) 및 내재화(사회적 위축 및 우울)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에서 실시하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의 중학교 1학년 패널의 4차년도(2013) 데이터($N = 1,975$)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를 주의집중,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를 성별, 체육운동시간, 통제변수를 가구연간소득, 보호자 최종학력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 성별차이가 나타난다. 둘째, 체육운동시간은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 대해 모두 부적인 영향을 준다. 셋째, 사회적 위축에서 체육운동시간에 대한 성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학교의 체육운동시간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과 더불어 실제적인 체육운동시간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는 연구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체육운동시간, 성별, 주의집중,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현대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문화와 치열한 교육열로 인하여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 머물러 있거나 책상에 앉아있는 실정이다. 그러하다보니 청소년들의 체격은 과거보다 커지고 있지만 체력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비만율도 증가하고 있다(교육부, 2013). 이러한 문제점은 운동시간의 부족과 연관된다. 신체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과 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하루 1시간정도의 지속적 운동을 권장하지만(문화체육관광부, 2010), 우리나라 중학생의 27%와 인문계고등학생의 37%가 학교체육시간 외에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과정수료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과정수료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조교수 yoonsunhan@skku.edu

소년정책연구원, 2011). 아울러 일주일동안 30분이상 운동을 한 날을 물어 본 설문에서 주 2일 이하가 57.3%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 운동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기피하는 현상과 학교시간 외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의 수가 많아질수록 학교에서 체육운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체육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한 선진 국가에서는 체육시간의 강화를 국가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호주에서는 ‘신체활동 참가 권고문’을 통하여 5~18세의 아동·청소년들은 매일 60분 이상 신체활동에 참가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스포츠데이’를 통하여 체육활동을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방과후 운동부가 개설되어 있어 전체 중학생 65%와 고등학생 41%(2009년 기준)가 참여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의 초등학교생들 역시 학교에서 ‘매일 체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소 20분씩 꾸준히 운동에 참여하여야 한다(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05).

학교 체육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체육시간을 늘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에 의하면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통하여 중학교 체육시간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1시간 이상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체육시간 역시 모든 학교에서 6학기 동안 10단위 이상의 체육시간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교육부, 2013).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과 현실적인 시행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하여 입시에 영향을 주는 교육에만 총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집중이수제 도입이후 체육시간을 6학기 미만으로 몰아서 듣는 학교가 424개(13.2%)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교체육정책의 적합성, 실효성, 지속성 평가에서 교사는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책적인 방향과 시행이 괴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권민정, 유정애, 2013).

청소년기의 체육활동은 체력과 비만 등 신체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의 경우 신체적 발달이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이자 신체적 활동욕구가 왕성해지는 시기이다. 이때 청소년들은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체력을 키우며 체력이나 체격이 좋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신체상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또래와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Davison & McCabe, 2006). 학교 체육수업은 또한 학생들의 체력증진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스포츠맨십, 공동체의식 등 인성 함양에도 크게 기여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선행연구에서도 체육활동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다. 김동현(2000)의 연구에 의하면 체육활동의 빈도수가 높을수록 지배성과 사교성이 높아지며 체육활동의 기간이 오래될수록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현정혁(2010)은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가 신체적 자기개념을 높이며 자기만족, 대인관계, 능력·잠재력, 가족관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행복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또한 방과 후 체육활동은 학업 스트레스도 줄여주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장보원, 2012),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찬, 2010). 그리고 체육활동은 학생들의 에너지 발산 및 심리적 안정감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공헌한다. 이렇듯 아동·청소년기의 신체활동은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체육활동은 긍정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행동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시기의 부정적인 행동문제는 내재화·외현화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Achenbach & Edelbrock, 1989). 외현화 문제는 아동청소년들이 부정적인 행동들을 외적인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Liu, 2004). 이러한 외현화 문제로 주로 공격성과 과잉행동, 비행 등이 있으며 이는 후기 청소년 비행이나 성인 범죄, 폭력에도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Liu, 2004). 내재화 문제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내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문제로서 우울이나 위축, 신체적 증상 등을 야기한다(Achenbach, 1991). 이러한 내재화 문제는 이후에 약물중독 등 사회적 부적응으로 발달(O'Neil, Conner & Kendall, 2011)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기의 외현화·내재화 문제는 이 시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성인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White & Renk, 2012).

체육활동은 이러한 부정적인 내재화·외현화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Kirkcaldy, Shephard and Seifen(2002)는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낮은 우울과 불안을 느낀다고 보고 하였다. North, McCullagh and Tran(1990)은 체육활동과 우울과 관련된 연구의 메타 분석을 통하여 운동의 종류와 무관하게 운동은 우울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종욱(2013)에 의하면 청소년이 운동참여를 많이 할수록 우울의 하위요소들은 낮게 나타났으며 강지훈(2011) 역시 운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수록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청소년들은 스스로 고립된 행동을 보이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두려워한다. 이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게 하며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함으로서 사회화 과정도 실패하여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하는 일이 많게 된다(홍준표, 1996). 따라서 체육활동은 또래와의 유대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하며 이타심, 배려심 등을 표출하여 사회성 발달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이승희, 2010).

체육활동은 외현화 문제인 공격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 건전한 체육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선의의 경쟁, 예의범절과 같은 긍정적 요소들을 내면화 시켜주며 이를 통해 도덕성을 발달시키고 공격적인 행동들을 정화시켜준다(정우영, 김장우, 2004). 또한 나성준(2013)의 방과후 체육활동이 공격성, 자아통제력,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의 하위요소 중 적대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최상한(1996)의 연구에서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그리고 스포츠 참가 경험이 있을수록 낮은 비행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활동을 통해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를 지닌 아동들의 주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 정혜연(2013)에 의하면 ADHD 아동을 대상으로 8주간 유산소운동을 실시한 결과 주의집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약물을 복용하는 집단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김정민, 배내운(2007)의 연구에서도 45분의 수업 중 과제 시작 전 15분의 유산소 운동이 30분 동안의 수업에서의 주의집중 시간을 증가시키고 과잉행동을 감소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유산소 운동 뿐만 아니라 아동이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지는 신체활동 놀이를 제공하였을 때에도 아동의 주의집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정수경, 이숙정, 2011). 따라서 체육활동은 ADHD 아동들의 주의집중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ADHD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들의 주의집중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체육운동시간이 청소년들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체육시간이 모든 청소년에게 같은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재화 문제는 여학생에게, 외현화 문제는 남학생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정자, 2003; Zahn-Waxler, Shirtcliff & Marceau, 2008). 특히 내재화 문제 중 하나인 우울은 여학생들 사이에서 더 빈번하며(고정자, 2003; 오영경, 이형실, 2010; 최인재, 2011), 외현화 문제인 비행에 있어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관련 행동을 더 표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정자, 2003). 이렇게 남녀 간 성별 차이가 뚜렷한 문제행동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성별과 체육시간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탐색은 체육시간의 보호적 기능을 정밀하게 검증함으로써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신체활동을 기피함으로써 체육활동에 있어서 남녀차이가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한태룡 외, 2010) 성별에 따른 체육활동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청소년들의 정서적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가장 활발한 청소년 시기에 학교 체육시간의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육시간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미비하다. 특히 학교 체육시간과 성별에 따른 내재화·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학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를 통하여 학교 체육시간 중 운동시간과 성별이 내재화 문제인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며 외현화 문제인 주의집중, 공격성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체육시간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리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학교 체육운동시간의 양이 청소년의 내재화(사회적 위축, 우울) 및 외현화(주의집중, 공격성)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체육운동시간은 청소년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체육운동시간의 청소년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 대한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다른가?

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조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에서 실시하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아동청소년 발달의 연구 및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종단면조사로써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에 층화다단계집락표집법에 의해 중학교 1학년 패널 2,351명을 선정한 이후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동일한 패널을 조사한 중1패널 4차년도(2013)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중 최종 모델에 쓰인 모든 변수들에 대해 각각 결측값이 없는 케이스만을 추려내어 총 1,975명의 패널(남: 1,003명, 여: 97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정서문제에 초점을 두었으며 그 중에서도 외현화 문제로 볼 수 있는 공격성과 주의집중, 내재화 문제로 볼 수 있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최종 모델의 변수로 확립하였다.

(1) 외현화 문제

① 주의집중

주의집중의 측정에는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 문제를 평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형 척도를 일부 수정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써 주의집중의 정도를 1점 ‘매우 그렇다’에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평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중 문항에 대해 역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집중이 낮게끔 변환하였다.

② 공격성

공격성의 측정에도 역시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 문제를 평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형 척도를 일부 수정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써 공격성의 정도를 1점 ‘매우 그렇다’에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평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 문항에 대해 역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게끔 변환하였다.

(2) 내재화 문제

①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의 측정을 위해 김선희와 김정연(1998)이 개발한 아동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에서 중복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일부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써 사회적 위축의 정도를 1점 ‘매우 그렇다’에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평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 문항에 대해 역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높게끔 변환하였다.

② 우울

우울의 측정에는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에서 우울관련 척도 13문항 중 3문항을 제외한 10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써 사회적 위축의 정도를 1점 ‘매우 그렇다’에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평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문항에 대해 역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끔 변환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 대하여 체육시간 중 운동시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체육운동시간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체육운동시간은 학생 신체활동량측정검사지(KYPAQ), 국제신체활동질문지(IPAQ) 등에 이용된 문항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 남녀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고정자, 2003)를 감안하여 체육운동시간에 관계없이 성별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체육운동시간에 대해 성별이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성별 또한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시 성별과 체육운동시간의 상호작용을 모델에 투입하였다. 더미변수인 성별변수의 경우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고, 체육운동시간은 0시간은 0, 1시간은 1, 2시간은 2, 3시간은 3, 4시간 이상은 4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3)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보호자의 최종학력과 가구 연간 소득을 통제변수로 두었다. 보호자의 최종학력은 부모 혹은 부모 외의 보호자 중에서 가장 높은 학력에 해당하는 경우를 사용하였고, 가구 연간 소득은 만원 단위에서 천만 원 단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8.0을 활용하여 최종 모델에 포함되는 모든 변수들의 기술 통계와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체육운동시간이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성별도 상호작용을 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Excel 2007을 활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최종 모델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해 결측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총 1,975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를 분석하여 표 1에 정리하였다. 외현화 문제인 주의집중과 공격성은 평균이 각각 2.23(표준편차=0.49), 1.97(표준편차=0.52)로 나타났고, 내재화 문제인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평균은 각각 2.24(표준편차=0.69), 1.88(표준편차=0.56)로 나타났다. 체육운동시간의 경우는 평균이 1.63(표준편차=1.13), 가구연간소득(표준편차=2.62)은 4.69, 보호자 최종학력은 3.02(표준편차=1.06)로 나타났다.

표 1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N=1,975)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주의집중	2.23	.49	1.00	4.00
	공격성	1.97	.52	1.00	3.83
	사회적 위축	2.24	.69	1.00	4.00
	우울	1.88	.56	1.00	3.90
독립변수	성별	.51	.50	.00	1.00
	체육운동시간	1.63	1.13	.00	4.00
통제변수	가구연간소득	4.69	2.62	.18	40.00
	보호자최종학력	3.02	1.06	1.00	5.00

2.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에 제시된 표 2와 같다. 우울에 대하여 주의집중($r=0.391$), 공격성($r=0.555$), 사회적 위축($r=0.506$)은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하게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주의집중에 대하여 공격성($r=0.511$), 사회적 위축($r=0.319$)은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하게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공격성에 대하여 사회적 위축($r=0.300$)은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하게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성별에 대하여 우울($r=-0.174$)과 공격성($r=-0.058$)이 각각 유의수준 .01에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주의집중($r=0.064$)의 경우 성별에 대해 유의수준 .01에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체육운동시간에 대한 우울($r=-0.155$), 주의집중($r=-0.026$), 공격성($r=-0.051$), 사회적 위축($r=0.307$)의 상관은 모두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그중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유의수준 .01에서, 공격성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하였다.

표 2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우울	주의집중	공격성	사회적위축	성별	체육운동시간
우울	1					
주의집중	.391**	1				
공격성	.555**	.511**	1			
사회적 위축	.506**	.319**	.300**	1		
성별	-.174**	.064**	-.058**	-.005	1	
체육운동시간	-.155**	-.026	-.051*	-.142**	.307**	1

주. $p < .05$; ** $p < .01$; *** $p < .001$

3. 회귀분석 결과

체육운동시간이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체육운동시간에 상관없이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체육운동시간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모델은 M1~M8로 설정하였으며 M1, M3, M5, M7은 독립변수를 성별, 체육운동시간으로 하고, 통제변수를 가구연간소득, 보호자최종학력으로 한 모델이고, M2, M4, M6, M8은 독립변수를 성별, 체육운동시간, 성별과 체육운동시간의 상호작용으로 하고, 통제변수를 가구연간소득, 보호자최종학력으로 한 모델이다.

아래의 표 3은 주의집중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M1의 경우에는 주의집중에 대한 성별의 차이($B=0.076$)가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남자가 여자보다 주의집중이 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체육운동시간($B=-0.021$)이 주의집중에 대하여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M2의 경우 주의집중에 대한 성별의 차이($B=0.046$)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성별과 체육운동시

간의 상호작용($B=0.019$) 또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의집중에 대하여 체육운동시간($B=-0.032$)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M2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림 1.에 나타냈으며 비록 남녀에 따라 주의집중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그래프가 그려지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 체육운동시간이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 및 성별의 상호작용

모델		주의집중					
		M1			M2		
		B	β	t	B	β	t
독립 변수	성별	.076**	.078	3.299	.046	.047	1.143
	체육운동시간	-.021*	-.048	-2.028	-.032*	-.073	-2.048
	성별*체육운동시간				.019	.050	.938
통제 변수	가구연간소득	-.005	-.028	-1.160	-.005	-.028	-1.144
	보호자최종학력	-.021	-.046	-1.892	-.022	-.047	-1.901

주.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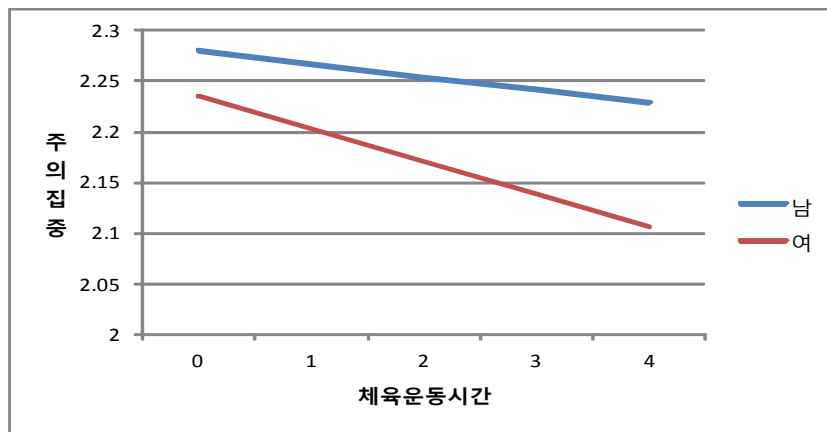


그림 1. 성별에 따른 체육운동시간과 주의집중의 관계

아래의 표 4는 공격성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M3의 경우에는 공격성에 대한 성별의 차이($B=-0.051$)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남자가 여자보다 공격성이 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체육운동시간($B=-0.016$)이 공격성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M4의 경우 공격성에 대한 성별의 차이($B=-0.099$)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성별과 체육운동시간의 상호작용($B=0.031$)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공격성에 대하여 체육운동시간($B=-0.033$)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M4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림 2.에 나타냈으며 체육운동시간을 x축으로 하고 공격성을 y축으로 했을 때 y절편에 해당하는 남녀의 공격성 차이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울기의 차이인 성별

과 체육운동시간과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 체육운동시간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및 성별의 상호작용

모델		공격성					
		M3			M4		
		<i>B</i>	β	<i>t</i>	<i>B</i>	β	<i>t</i>
독립 변수	성별	-.051*	-.048	-2.044	-.099*	-.095	-2.321
	체육운동시간	-.016	-.035	-1.474	-.033*	.016	-2.022
	성별*체육운동시간				.031	.075	1.395
통제 변수	가구연간소득	-.007	-.034	-1.369	-.007	.005	-.033
	보호자최종학력	-.004	.012	-.363	-.005	.012	-.009

주.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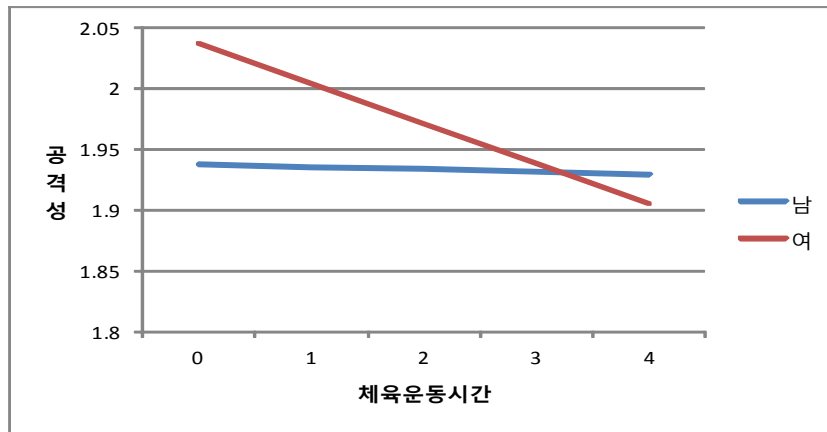


그림 2. 성별에 따른 체육운동시간과 공격성의 관계

아래의 표 5는 사회적 위축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M5의 경우에는 사회적 위축에 대한 성별의 차이($B=0.054$)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체육운동시간($B=-0.091$)이 사회적 위축에 대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M6의 경우에는 사회적 위축에 대한 성별의 차이($B=0.168$)가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과 체육운동시간의 상호작용($B=-0.072$)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했다. 또한 사회적 위축에 대하여 체육운동시간($B=-0.051$)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M6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림 3.에 나타냈으며 그래프로 보이는 남녀의 차이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 ▶ 체육운동시간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및 성별의 상호작용

모델		사회적 위축					
		M5			M6		
		<i>B</i>	β	<i>t</i>	<i>B</i>	β	<i>t</i>
독립 변수	성별	.054	.039	1.682	.168**	.122	3.030
	체육운동시간	-.091***	-.150	-6.432	-.051*	.021	-2.392
	성별*체육운동시간				-.072*	-.133	-2.521
통제 변수	가구연간소득	-.014*	-.053	-2.172	-.014*	-.054	-2.217
	보호자최종학력	-.045**	-.070	-2.871	-.045**	-.069	-2.848

주.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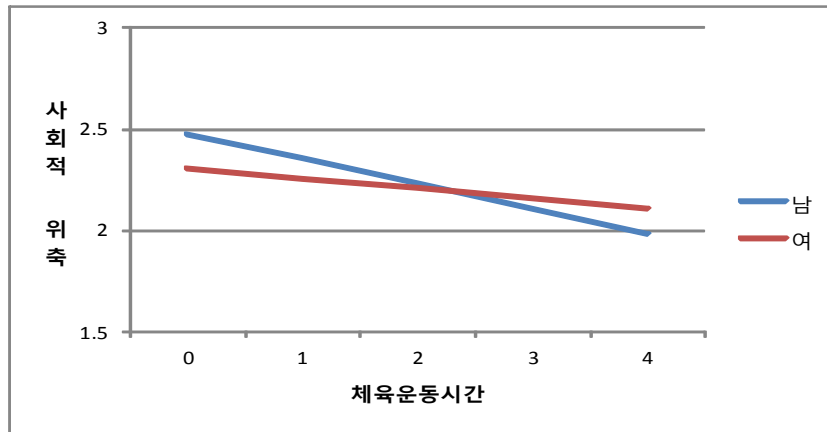


그림 3. 성별에 따른 체육운동시간과 사회적 위축의 관계

아래의 표 6은 우울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M7의 경우에는 우울에 대한 성별의 차이($B=-0.158$)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남자가 여자보다 우울이 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체육운동시간($B=-0.055$)이 우울에 대하여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M8의 경우 우울에 대한 성별의 차이($B=-0.099$)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성별과 체육운동시간의 상호작용($B=-0.037$)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울에 대해 체육운동시간($B=-0.034$)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M8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림 4.에 나타냈으며 체육운동시간을 x축으로 하고 우울을 y축으로 했을 때 y절편에 해당하는 남녀의 우울 차이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울기의 차이인 성별과 체육운동시간과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 체육운동시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및 성별의 상호작용

모델		우울					
		M7			M8		
		<i>B</i>	β	<i>t</i>	<i>B</i>	β	<i>t</i>
독립 변수	성별	-.158***	-.141	-6.107	-.099*	-.089	-2.218
	체육운동시간	-.055***	-.111	-4.801	-.034*	-.069	-1.983
	성별*체육운동시간				-.037	-.085	-1.613
통제 변수	가구연간소득	-.017**	-.081	-3.355	-.017**	-.081	-3.382
	보호자최종학력	.005	.009	.365	.005	.009	.382

주.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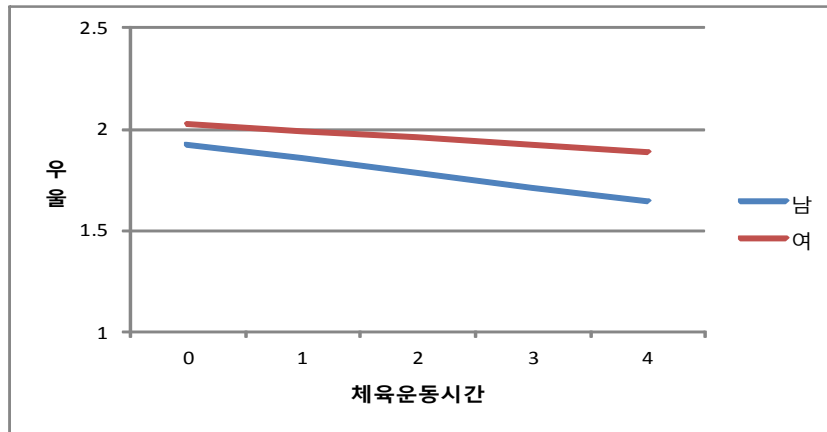


그림 4. 성별에 따른 체육운동시간과 우울의 관계

IV. 논의 및 결론

첫째, 회귀모델 M1부터 M8까지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 대한 남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언급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주의집중을 종속변수로 넣은 M2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성별과 체육운동시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투입한 성별과 체육운동시간 간 상호작용 변수가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별변수는 더미변수로써 0과 1로만 존재하고 체육운동시간도 0~4까지의 범위만을 가지므로 성별*체육운동시간변수는 성별변수 그리고 체육운동시간변수와 높은 상관을 이룰 수 있다. 즉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유의미한 통계적 관계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이유재, 1994). 이러한 이유로 성별*체육운동시간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M1은 성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지만, M2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중의 경우 남자가 더 낮았고, 사회적 위축은 남자가 더 높았으며, 우울은

여자가 더 높았다. 이는 주의집중, 사회적 위축, 우울의 경우 각각 남녀의 차이가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고정자(2003)는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K-YSR)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비교 연구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 문제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보고하였으며,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같은 척도를 사용한 박진자와 이승희(2001)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위축 문제가 더 높게 나타났다. 오영경과 이형실(2010)과 최인재(2011)의 연구에서도 역시 우울과 불안 등의 내재화문제가 여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2013)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32.6%였으며 그 중 남학생은 27.4%, 여학생은 38.4%로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그러나 공격성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이지현, 2011)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여자가 더 유의하게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성의 하위요소인 신체적이고 외현적인 공격성과 관계적인 공격성(Crick, 1995)을 고려하지 않은 본 연구의 공격성 척도와 관련된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남아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체적이고 외현적인 공격성과 여아들에게서 볼 수 있는 관계적인 공격성의 특징을 6가지 문항 안에 골고루 배치하지 않아 선행 연구와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체육운동시간이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 모두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M1~M8 중 유일하게 공격성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M3에서 체육운동시간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지만 수치상으로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M3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회귀모델에서 체육운동시간이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신체운동을 활발히 하는 청소년일수록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적다(Kirkcaldy et al., 2002; Babiss & Gangwisch, 2009; Johnson & Taliaferro, 2011)는 선행연구와도 일맥상통할 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은 또래와의 유대적인 상호작용을 도와 사회성 발달을 가능하게 할 것(이승희, 2010)이라는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방과 후 체육활동이 중학교 남학생들의 공격성을 감소시킨다는 김은숙, 김경원과 이학권(2014)의 최근 연구 및 체육활동에 참여한 남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남학생보다 공격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정우영과 김장우(2004)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체육활동이 ADHD 아동들의 주의집중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정혜연, 2013)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의 주의집중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의 체육운동시간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방향과 더불어 실제적인 체육운동시간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는 연구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체육운동시간에 대한 성별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위축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M6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체육운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위축의 감소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활동에 적극적이며 여학생의 경우 신체활동의 표현이 제한적이므로 사회

성 발달이 낮다(이승희, 2010)는 선행연구가 이를 지지해준다. 또한 학교 체육 운동시간은 비교적 남학생이 선호하는 운동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여학생의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하여 남학생의 참여도가 더 높아 사회적 위축이 더 감소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성 발달이 낮은 청소년 남자들에게 체육운동시간은 더욱 필요하고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한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사용된 공격성, 주의집중, 사회적 위축, 우울과 같은 개념들은 조봉환과 임경희(2003)의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와 김선희와 김경연(1998)의 아동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같은 개념을 다른 도구로 측정한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인지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공격성 관련 척도의 경우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을 하위요소로 두지 않았지만 추후연구에서는 공격성 척도에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혹은 그 외 다른 하위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체육시간과 공격성 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체육운동시간의 시간적 양만을 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운동의 종류 및 강도, 그리고 남자가 더 선호하는 운동을 하였는지, 여자가 더 선호하는 운동을 하였는지 등에 대한 질적인 부분을 간과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변수를 활용한 연구나 질적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비록 위와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체육시간을 늘리자는 정책적 방향과는 다르게 실제적 시행이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체육운동시간이 청소년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를 감소시켜준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시에 필요한 과목만을 중시하고 체육시간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는 우리 사회의 입시위주 문화를 바로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체육시간의 실제적 증가와 이런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연구적 기반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훈. (2011). 운동참여수준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0(3), 645-652.
- 고정자. (2003).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121-143.
- 교육과학기술부. (2011.05.12).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 현황 분석, 발표 보도 자료. <http://www.mest.go.kr>에서 2014년 8월 27일 인출.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2010).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 교육부. (2013). **13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권민정, 유정애. (2013). 우리나라 정부주도의 학교체육정책 성과 평가. **체육과학연구**, 24(2), 256-275.
- 김경민, 배내운. (2007). 유산소 운동이 ADHD 학생의 주의집중과 과잉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 구, 23(1), 127-142.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동현. (2000). **청소년의 체육 활동과 사회성 발달의 관계**.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은숙, 김경원, 이학권. (2014). 방과 후 스포츠활동 참여가 남자 중학생들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운동학 학술지**, 16(1), 53-61.
- 나성준. (2013). **방과 후 스포츠활동 참여가 공격성, 자아통제력,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진자, 이승희. (2002). 정서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청소년자신과 부모간의 평가결과 비교: 제주도 내 청소년을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18(1), 209-227.
- 오영경, 이형실. (2010).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2(4), 51-66.
- 이승찬. (2010). **중학생의 방과후학교 체육프로그램 참여동기와 자기효능감 및 자아 존중감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승희. (2010). 방과 후 체육활동참가 중학생의 참가동기와 스포츠태도가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49(6), 103-113.
- 이유재. (1994). 상호작용효과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주효과의 검증에 대한 연구. **經營學研究**, 23(4), 183-210.
- 이지현. (2011). 유아의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능력, 사회정보처리과정 및 공격성 간의 관계. **아동교육**, 20(3), 225-241.
- 장보원. (2012). **방과후학교 체육활동 참여가 초등학교생의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수경, 이숙정. (2011). 심리운동과 감각통합치료가 ADHD성향 아동의 감각조절력 및 주의력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13(4), 331-356.
- 정우영, 김장우. (2004). 체육활동에 따른 남자고등학교생의 공격성과 도덕성 차이 분석. **한국스포츠리서치**, 15(5), 331-356.
- 정혜연. (2013). **유산소운동이 ADHD 아동의 건강체력과 주의집중력, 실행기능 및 뇌파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종욱. (2013). **청소년의 운동참여에 따른 신체적자기개념,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상한. (1996). **스포츠參與와 靑少年非行에 關한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인재. (2011).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 김현신, 강현철.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연구보고 12-R1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태룡, 송명규, 서희진, 정영린, 남상우, 고광현 외. (2010).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연구보고서 10-03). 서울: 체육과학연구원.
- 현정혁. (2010).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및 행복요인 탐색**.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준표. (1996). 정서장애아의 사회적 위축 및 공포반응에 대한 집단치료 방안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2), 176-192.
-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89).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profile. *Department of Psychiatry*.
- Babiss, L. A., & Gangwisch, J. E. (2009). Sports participation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as mediated by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Developmental & Behavioral Pediatrics*, 30(5), 376-384.
- Crick, N. R. (1995). Relational aggression: The role of intent attributions, feelings of distress, and provocation typ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313-322.
- Davison, T. E., & McCabe, M. P. (2006). Adolescent body image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6(1), 15-30.
- Johnson, K. E., & Taliaferro, L. A. (2011).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iddle and older adolescents: A review of the research literature. *Journal for Specialists in Pediatric Nursing*, 16(4), 235-251.
- Kirkcaldy B. D., Shephard R. J., Siefen, R. G.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self-image and problem behaviour among adolescent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7(11), 544-550.
- Liu, J. (2004). Childhood externalizing behavior: Theory and implication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17(3), 93-103.
- North, T. C., McCullagh, P., Tran, Z. V. (1990). Effect of exercise on depression. *Exercise and Sport Science Reviews*, 18, 379-415.
- O'Neil, K. A., Conner, B. T., Kendall, P. C. (2011). Internalizing disorders and substance use disorders in youth: Comorbidity, risk, temporal order, and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1), 104-112.
-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05). *Daily physical activity in schools*.
- White, R., & Renk, K. (2012).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during adolescence: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1), 158-171.
- Zahn-Waxler, C., Shirtcliff, E. A., Marceau, K. (2008). Disorders of childhood and adolescence: Gender and psychopathology.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4, 275-303.

청소년의 체험활동과, 자아탄력성, 교우관계, 다문화 수용성 간의 구조적 관계

이경아*·성경주**·김재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체험활동, 자아탄력성, 교우관계와 다문화수용성 간의 구조적 관계 및 이에 대한 성별 간 차이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은 중학교 1학년의 4차년도 패넬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1학년 2351명중 결측값 243명을 제외한 2108명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 1075명(45.7%), 여학생 1033명(43.9%)이었다. 분석과정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 일수록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체험활동은 자아탄력성과 교우관계를 매개로 하여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체험활동, 자아탄력성, 교우관계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체험활동, 자아탄력성, 교우관계, 다문화 수용성

I. 서론

전지구적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가 간 정보, 기술, 자원 및 노동력의 이동이 활발해 지면서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장미혜, 2010).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4 지방자체단계 외국인주민 현황 (2014년 1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 주민 자녀는 모두 156만 9,74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 인구 대비 3.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전행정부, 2014).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의 증가 추세가 현재와 같이 지속되면, 2020년에는 외국인·이민자와 그 자녀 수가 총인구의 5.5% 수준인 27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설동훈, 서문희, 이삼식, 김명아, 2009). 이는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공존하면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류 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다가오는 다문화 사회에 적절하게 대응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한남대학교 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jckim@hnu.kr

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의 발달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다 (이지영, 2013).

Barrett & Barrow(2005)는 다문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집단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집단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하며, 다문화 사회의 적응과정에서 고정관념에 빠지기 보다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Sercu, 2004), 타문화와 타인종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된다(Davids & Finney, 2006).

이러한 맥락에서,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일컫는 다문화 수용성이 향후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김경근, 황여정, 2012). 다문화 수용성이란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민족·인종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이다(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2007).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김미진(2010)은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응 능력으로, 윤인진, 송영호(2011)는 서로 다른 인종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도, 윤소연(2010)은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 문화차이를 이해하고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으며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이건남, 김영은, 이기용, 2013 재인용)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태도는 한중일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3개국 중 개방성이 가장 낮다는 연구결과(한국청소년연구원, 2009)를 보고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태도가 국제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김경근, 황여정, 2012; 박혜숙, 원미순, 2010; 이진남, 김영은, 이기용, 2013; 이수정, 2014; 이자형, 김경근, 2013; 장성민, 정민수, 2013)들 중 개인내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김경근, 황여정, 2012; 박혜숙, 원미순, 2010), 자아존중감(장성민, 정민수, 2013), 타인에 대한 배려와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평등주의 성향(김경근, 황여정, 2012)에 대한 연구, 대인관계측면에서 부모·교우·이웃과의 관계(이건남 외, 2013)에 관한 연구, 외적인 요인으로서는 운동·독서·문화예술 관련 활동과 자원봉사 등에 참여한 체험활동 경험(김경근, 황여정, 2012; 박혜숙, 원미순, 2010; 이자형, 김경근, 2013)등이 있었다.

특히, 청소년의 전인격적 발달을 위해서는 외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데 이 중 체험활동은 청소년의 사회·정서적인 요인과 정적 관계가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안정된 정서와 공동체적 인식을 발달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기존 학교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체험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의 체험활동 분야는 문화·예술·과학, 정보·모험, 개척, 자원봉사, 직업·진로, 정책참여·국제교류,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문재우, 박재산, 2013). 여성가족부(2012)는 최근 연구를 통해 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도에서 더 좋은 발달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10명 중 9명꼴로 1년 동안 2-3개 유형의 체험활동에 약 20시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험활동 참여는 사회·정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주·채유정, 2014).

체험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체험활동이 청소년 발달에 대체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김영순, 오영훈, 김미라, 2012; 안변환, 김창현, 2006; 여성가족부, 2012)에서도 이론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사회성과 공동체의식함양(강가영, 장유미, 2013, 강지영, 2013; 박가나, 2009; 박재숙, 2010; 이현주, 채유정, 2014)에 긍정적 영향을 보이고 있고,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및 정서적 안정(김윤나, 박옥식, 2009; 김태완, 2012; 도종수, 성준모, 2013; 류시영, 강병훈, 2012; 박재숙, 2010; 허철수, 강옥련, 2010; Usher et al. 2007), 학교적응(고관우, 남진열, 2011; 이현주, 채유정, 2014; 장덕희, 이명옥, 양점도, 2011; 조아미, 신태수, 2012; 최영임, 이재성, 문영경, 2012)과도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체험활동이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정서적 안정의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목할 수 있다(이현주, 채유정, 2014). 여기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구성원 간 유대감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발전과 화합에 도덕적으로 헌신하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 이질적인 구성원들에 대한 포용 등이 포함된다(김원태, 2001). 이와 같이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타인과 이질적 집단에 대한 포괄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태도 및 정서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연구(김정화, 박선희, 조상미, 2010; 이정아, 2011; Westrick, 2004)를 통해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체험활동을 통해 형성된 자아탄력성은 외적 상황에 대한 내적 변인으로 개인적 자원의 기능을 한다(박은성, 현은민, 2007). 자아탄력성은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며,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감정을 조절하며, 생산적이고 자율적인 자기행동을 하여 자신이 처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과 발달로 변화할 수 있는 성격적 특성으로(김미향, 2006; 김미향, 김성희, 2010), 자아탄력성은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 성인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적응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정서적 힘을 가지고 있다(왕연주, 2012). 문재우, 박재산, (2013)은 자아탄력성이 체험활동과 공동체의식, 학교 생활적응에 있어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왕연주(2012)는 창의·인성 체험활동이 자아탄력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체험활동은 주어진 현상에 대한 의미를 재고하거나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충동을 억제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변유경, 2005; 문재우, 박재산, 2013; 이진호, 2008). 이처럼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가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등 자신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성숙한 자세가 형성된다(여성가족부, 2012).

자아탄력성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고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지만, 자아탄력성의 경우 내적 심리 기제로서 개인의 역동적인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 대한 보호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소덕순, 문영희, 2011; 정지영, 임정하, 2011; Werner, 1989)은 다문화 수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심우엽, 2010; 양계민, 2010; 김경근, 황여정, 2012). 이러한 연구들은 체험활동을 통해 형성된 자아탄력성이 외적상황에 대한 내적 변인으로 개인전 자원의 기능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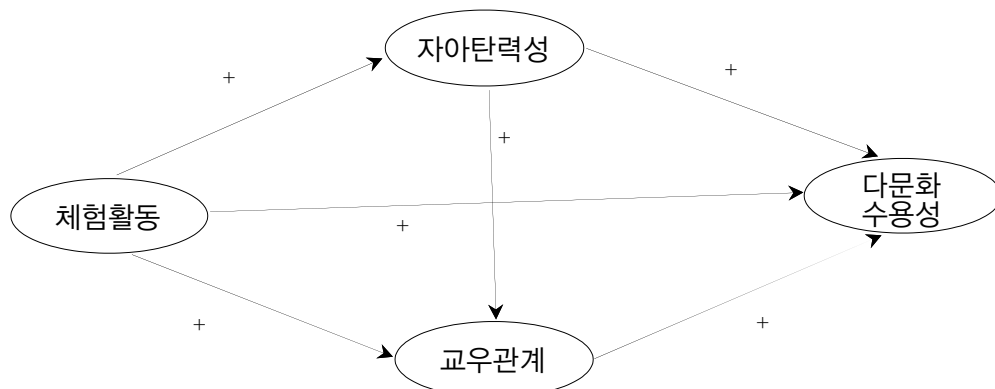
또한 자아탄력성은 긴장, 인내의 수준을 상황에 따라 강화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조절능력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수준의 어려운 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부적응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우관계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석주영, 박인전, 2009; 이미숙, 민하영, 2010). 그리고 부모관계와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김경근, 황여정, 2012; 김선아, 2013; 이진남 외, 2013; Hunter, & Elias, 1999),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중학생은 또래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경근, 황여정, 2012). 교우관계는 청소년의 체험활동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의 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활동을 잘하고 학교규칙을 잘 지키며 교우관계와 교사관계가 좋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전명순, 김태균, 2014; 최형임, 이재성, 문영경, 2012),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높아지고, 교우관계를 포함한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형외 2012).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의 체험활동과 자아탄력성, 교우관계는 각각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체험활동은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개인의 심리내적 기제인 자아탄력성과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인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 문화간 개방성과 수용성을 형성하여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 수용성을 촉진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간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구조적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신체, 정서 및 사회적인 발달에 있어서 성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각 연구변인에서의 수준과 관계에서 성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은 공감(empathy)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남학생에 비해 높은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이 타문화에 대해 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Holm, Nokelainen, & Tirrim 2009).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비교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체험활동, 자아탄력성 및 교우관계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구조적 관계 및 이에 대한 성별 간 차이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체험활동이 자

아탄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김정화 외 2010; 이경아, 2011; Westrick, 2004), 체험활동이 다문화 수용성과의 관계가 자아탄력성과 교우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는 연구(소덕순, 문영희, 2011; 정지영, 임정하, 2011; Werner, 1989),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경아, 2011; 성순옥, 박미단, 김영희, 2013)을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단, '+'는 정적인 영향을 의미)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체험활동의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체험활동과 다문화 수용성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교우관계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가?

셋째, 부모학대 피해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 인터넷 중독, 공격성 간의 구조적 관계는 성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의 일부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은 중학교 1학년의 4학년도 패널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1학년 2351명중 결측값 243명을 제외한 2108명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 1075명(45.7%), 여학생 1033명(43.9%)이었다.

2. 측정도구

1) 체험활동

체험활동은 체험활동 참여경험 유무에 관한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유 활동’을 한 경험 유무를 묻는 8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체험활동 참여 경험여부에 대해 ‘있다=1점’, ‘없다=2점’으로 척도화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체험활동척도는 단일차원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묶음(item parcel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추출 요인 수를 1개로 지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다음, 공통성(communality)의 크기를 기준으로 체험활동1, 체험활동2에 차례대로 문항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2개의 측정변인을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8개 문항의 α 계수는 .662이었다.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 것을 잘 이겨낸다.’와 같이 자아탄력성에 대한 전박적인 지각을 측정하는 문항으로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 리커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고점 4점, 최하점 1점으로 척도화 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단일차원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일차원 문항의 경우 문항 묶음(item parcel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추출 요인 수를 1개로 지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다음, 공통성(communality)의 크기를 기준으로 자아탄력성1, 자아탄력성2, 자아탄력성3에 차례대로 문항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3개의 측정변인을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14개 문항의 α 계수는 .829이었다.

3) 교우관계

교우관계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등과 같이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점 4점, 최하점 1점으로 척도화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그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긍정적인 상태를 나타냈다. 교우관계 4개 문항은 단일차원 문항으로서 그대로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4개 문항의 α 계수는 .698이었다.

4)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은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등과 같이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점 4점과 최하점 1점으로 척도화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그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의 점수가 높은 것을 나타냈다. 다문화수용성은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토대로 측정의 표준오차 제곱[$S_e^2 = S_x^2(1 - r_{xx'})$], 단, $r_{xx'}$: 신뢰도]을 구한 다음, 이를 고정모수로 투입하는 방법을 취

하였다. 5개 문항의 α 계수는 .853이었다.

3. 분석방법

체험활동, 자아탄력성, 교우관계, 다문화 수용성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기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다문화 수용성은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토대로 측정의 표준오차 제곱 $[S_e^2 = S_x^2(1 - r_{xx'})]$, 단, $r_{xx'}$: 신뢰도]을 구한 다음, 이를 고정모수로 투입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1>과 같다. 이에 따르면 10개의 측정변인들 간에는 모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의 유의성은 일반적으로 왜도나 첨도의 값 자체로 판단하게 되는데, 왜도가 2미만, 첨도가 이하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다.

표 1 ▶ 측정변인 간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체험활동1 (1)	1									
체험활동2 (2)	.420**	1								
자아탄력1 (3)	.141**	.124**	1							
자아탄력2 (4)	.113**	.106**	.640**	1						
자아탄력3 (5)	.077**	.059**	.649**	.609**	1					
fri1 (6)	.106**	.084**	.390**	.312**	.297**	1				
fri2 (7)	.041*	.058**	.306**	.249**	.296**	.345**	1			
fri3 (8)	.179**	.125**	.313**	.272**	.254**	.493**	.346**	1		
fri4 (9)	.107**	.082**	.309**	.286**	.266**	.404**	.273**	.359**	1	
다문화수용 (10)	.109**	.139**	.266**	.253**	.211**	.189**	.196**	.291**	.168**	1
평균	71.490	89.741	37.106	40.667	41.896	1.697	2.047	1.664	2.052	32.008
표준편차	25.963	17.625	14.566	14.351	13.985	.542	.597	.533	.520	17.835
왜도	-.690	-1.270	.059	-.047	-.158	.331	.267	.322	.459	-.164
첨도	-.157	6.055	1.208	1.102	1.194	.839	.744	.759	2.171	.004

체험활동, 자아탄력성, 교우관계, 다문화 수용성 간의 구조적 관계가 성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계수의 학교급 간 차이 검증이 가능한 자료인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과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을 검증하였다(홍세희, 2001; Steenkamp & Baumgartner, 1998). 그리고 다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의 원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성별이 체험활동의 효과에 대해 조절변수(moderate variable)로 작용하고 있는지도 분석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상관분석 등의 기초적인 통계 처리를 위해 SPSS 21.0을,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Amos 20.0을 활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측정모형 분석결과

표 2 ▶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df/p$	TLI	CFI	RMSEA
163.314/30/.000	.966	.978	.043

체험활동, 자아탄력성, 교우관계, 다문화 수용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 자료가 구조모형 검증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2>와<표3>은 이에 대한 결과이다.

표 3 ▶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결과

잠재변인	측정변인	b	β	$s.e.$
체험활동	체험활동1	1.588**	.667	.202
	체험활동2	1.000	.630	-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1	1.000	.842	-
	자아탄력성2	.902**	.770	.024
	자아탄력성3	.882**	.773	.023
교우관계	교우관계1	1.063**	.706	.043
	교우관계2	.851**	.513	.043
	교우관계3	1.000	.676	-
	교우관계4	.803**	.556	.038
다문화 수용성		1.000	.924	-

단, 체험활동과 자아탄력성 간 상관: .179**

체험활동과 교우관계 간 상관: .104**

체험활동과 다문화수용성 간 상관: .147**

자아탄력성과 교우관계 간 상관: .517**

자아탄력성과 다문화수용성 간 상관: .334**

교우관계과 다문화수용성 간 상관: .254**

** $p < .01$

일반적으로 모형 적합도는 χ^2 의 유의확률 <.05, TLI>.90, CFI>.90, RMSEA<.05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판정한다(홍세희, 2000).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χ^2 검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측정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없었지만($\chi^2=163.314$, $p<.05$) χ^2 검정은 사례 수에 민감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례 수와 모형의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TLI, CFI, RMSEA를 종합하여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TLI=.966, CFI=.978, RMSEA=.043으로 측정모형은 적합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는 본 분석 자료가 구조모형의 긍정적 평가를 위한 선수 조

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에서와 같이 요인 부하량도 모두 .5을 초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구조모형 분석결과

체험활동, 자아탄력성, 교우관계, 다문화 수용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구한 결과, <표 4>와 같았다. χ^2 검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구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없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χ^2 검정이 사례 수에 민감하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TLI, CFI, RMSEA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TLI와 CFI는 모두 .96보다 컸고 RMSEA는 .04보다도 작았기 때문에 두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었다.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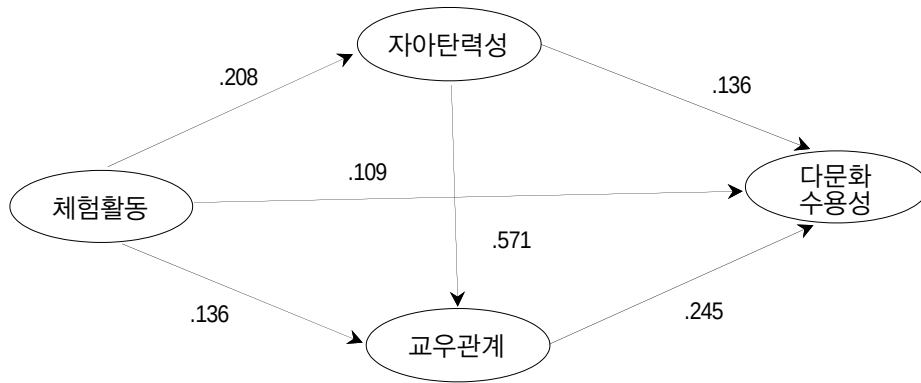
모형	$\chi^2/df/p$	TLI	CFI	RMSEA
연구모형	163.314/30/.000	.966	.978	.043

표 5 최종모형의 직접효과 및 중다상관제곱 결과

기준변수	예측변수	<i>b</i>	<i>s.e.</i>	β	R^2
다문화 수용성	체험활동	.161	.044	.109	.170
	자아탄력성	.222	.044	.136	
	교우관계	11.112	1.633	.245	
교우관계	체험활동	.004	.001	.136	.377
	자아탄력성	.017	.001	.571	
자아탄력성	체험활동	.229	.035	.208	.043

** $p < .01$

연구모형에서의 직접효과의 크기 및 중다상관제곱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5>와 [그림 2]와 같았다. 이로부터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체험활동, 자아탄력성, 교우관계는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09$, $p<.01$; $\beta=.136$, $p<.01$; $\beta=.245$, $p<.01$). 둘째, 교우관계에 대한 체험활동과 자아탄력성은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beta=.571$, $p<.01$)의 효과가 체험활동($\beta=.136$, $p<.01$)의 직접효과보다 더 컸다. 셋째, 체험활동은 자아탄력성에 대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08$, $p<.01$). 이러한 결과는 체험활동을 많이 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며, 다문화수용성도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결과

** $p < .01$, () : 여학생

표 6 연구모형의 매개효과와 전체효과 결과

기준변수	매개변인	독립변인	매개효과				전체효과 (직접+매개)	
			개별		전체			
			β	z	β	z	β	z
다문화 수용성	자아탄력성	체험활동	.028	3.995**				
	교우관계	체험활동	.033	3.448**	.097	7.426**	.206	5.886**
	교우관계←자 아탄력성	체험활동	.029	4.329**				
교우관계	자아탄력성	체험활동	.119	6.106**	.119	6.611**	.255	7.969**
다문화 수용성	교우관계	자아탄력성	.140	6.317**	.140	5.000**	.307	10.964**

** $p < .01$

자아탄력성과 교우관계가 체험활동, 다문화수용성을 매개하는지 분석한 결과 <표 6>을 얻을 수 있었다. 이로부터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체험활동은 자아탄력성과 교우관계 각각을 매개로 하여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28$, $p < .01$; $\beta = .033$, $p < .01$). 그리고 체험활동은 자아탄력성과 교우관계를 순서대로 매개하여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었다($\beta = .097$, $p < .01$). 둘째, 체험활동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19$, $p < .01$). 셋째, 자아탄력성은 교우관계를 매개로 하여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었다($\beta = .140$, $p < .01$).

3. 성별 간 구조모형의 차이

체험활동, 자아탄력성, 교우관계, 다문화 수용성 간의 구조적 관계가 성별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로계수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연구모형의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 가정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형태동일성 검증을 위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구하였다.

표 7 연구모형 I 과 연구모형 II 의 적합도 지수 결과

모형	$\chi^2/df/p$	TLI	CFI	RMSEA
남학생 모형	99.489/30/.000	.964	.976	.046
여학생 모형	61.893/30/.000	.980	.987	.032

표 8 동일성 검증을 위한 적합도 지수 결과

모형	$\chi^2/df/p$	TLI	CFI	RMSEA
형태동일성	161.381/60/.000	.972	.981	.028
형태·측정동일성	187.911/66/.000	.969	.977	.030

표 9 동일성 검증 결과

검증대상:비교모형	$\Delta\chi^2/p$	Δdf	ΔTLI	ΔCFI	$\Delta RMSEA$
측정동일성: 모형1 vs 모형2	26.529/.000	7	.003	.004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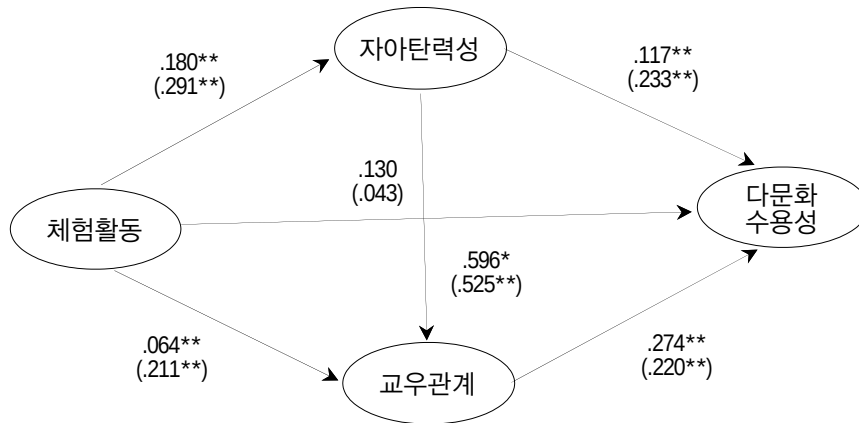
그 결과 <표 7>에서와 같이 성별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매우 양호하였다. 이는 형태동일성 가정이 충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 성별 요인부하량의 패턴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모형1과, 요인부하량의 패턴뿐만 아니라 요인부하량 값이 모두 동일하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2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8>과 <표 9>에서와 같이, 두 모형 간의 $\Delta\chi^2$ 는 26.529($df=6$, $p<.01$)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1과 모형2의 적합도는 모두 TLI=.972/.969, CFI=.981/.977, RMSEA, .028/.030으로써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측정동일성 가정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 가정이 만족되고 있음을 근거로 성별에 따른 직접효과와 매개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10>, <그림 3>, <표11>은 성별 직접효과, 중다상관제곱, 매개효과의 결과이고, <표 12>는 이에 대한 성별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표 10 최종모형의 직접효과 및 중다상관제곱 결과

기준변수	예측변수	b	$s.e.$	β	R^2
다문화 수용성	체험활동	.197(.082)	.064(.072)	.130(.043)	.162(.182)
	자아탄력성	.152* (.328**)	.063(.068)	.117(.233)	
	교우관계	11.824*(10.626**)	2.231(2.613)	.274(.220)	
교우관계	체험활동	.008(.007**)	.002(.002)	.064(.211)	.373(.385)
	자아탄력성	.018**(.015**)	.001(.001)	.596(.525)	
자아탄력성	체험활동	.210**(.314**)	.051(.054)	.180(.291)	.032(.085)

** $p<.01$, (): 여학생



[그림 3] 남녀별 최종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결과

** $p < .01$, (): 여학생

표 11 연구모형의 매개효과와 전체효과 결과

기준변수	매개변인	독립변인	매개효과				전체효과 (직접+매개)	
			개별		전체			
			β	z	β	z	β	z
다문화 수용성	자아탄력성	체험활동	.021 (.068)	2.08* (3.712*)				
	교우관계	체험활동	.018 (.047)	1.871 (2.663*)	.068 (.148)	3.778** (6.617**)	.198 (.202)	4.400** (4.208**)
	교우관계←자 아탄력성	체험활동	.029 (.034)	3.200** (3.253*)				
교우관계	자아탄력성	체험활동	.107 (.152)	4.014** (5.422*)	.107 (.153)	3.963** (6.120*)	.172 (.364)	3.822** (3.440**)
다문화 수용성	교우관계	자아탄력성	.163 (.116)	5.084* (3.925*)	.163 (.166)	4.528** (4.743**)	.280 (.348)	7.568** (8.286**)

** $p < .01$, (): 여학생

이로부터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교우관계의 직접효과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컸다($\Delta x^2=4.457$, $p < .05$). 둘째, 체험활동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컸다($\Delta x^2=5.973$, $p < .01$).

표 12 ▶ 직접효과와 매개효과의 성별 간 차이 비교 검증 결과

모 형		χ^2	df	$\Delta \chi^2$	Δdf
기저모형		187.911**	66	-	-
성별 차이 검정 결과 가 한 경우	자아탄력성←체험활동1	190.085**	67	2.175	1
	교우관계←체험활동3	192.368**	67	4.457*	1
	다문화←교우관계4	188.033**	67	.122	1
	교우관계←자아탄력성6	190.893**	67	2.982	1
	다문화수용성←자아탄력성2	191.497**	67	3.586	1
	다문화수용성←자아탄력성← 체험활동7	193.884**	68	5.973*	2
	다문화수용성←교우관계← 체험활동8	192.445**	68	4.534	2
	다문화수용성←교우관계←자아탄력 성←체험활동	192.895**	69	4.985	3
	전 체	201.064**	72	13.154*	6

$\Delta \chi^2$: 경로차이 * $p < .05$ ** $p < .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체험활동, 자아탄력성, 교우관계와 다문화수용성 간의 구조적 관계 및 이에 대한 성별 간 차이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의 일부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은 중학교 1학년의 4차년도 패널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1학년 2351명중 결측값 243명을 제외한 2108명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 1075명(45.7%), 여학생 1033명(43.9%)이었다.

분석과정에서 밝혀진 연구결과 및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 일 수록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이 체험활동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태도와 정서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김정화, 박선희, 조상미, 2010; 이경아, 2011; Westrick, 2004)와 공동체의식, 즉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 이질적인 구성원들에 대한 포용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이현주, 채유정, 201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다문화 수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소덕순, 문영희, 2011; 정지영, 임정하, 2011; Werner, 1989)를 지지한다. 특히, 체험활동은 자아탄력성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체험활동이 자아탄력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한 연구결과(변유경, 2005; 문재우, 박재산, 2013; 왕연주, 2012; 이진호, 2008)와 그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체험활동의 축진은 청소년기의 신체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내적 자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체험 활동참여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체험활동이 필요한 시기, 장소, 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체험활동은 자아탄력성과 교우관계를 매개로 하여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고, 교우관계가 긍정적인 학생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자아탄력성의 경우 교우관계를 매개로 하여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교우관계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김경근, 황여정, 2012; 김선아, 2013; 이견남 외, 2013; Hunter, & Elias, 1999)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체험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과 교우관계가 높다는(최형임, 이재성, 문영경, 2012) 연구와도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탄력성과 교우관계가 또래들과의 친밀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체활동위주의 체험활동이라는 일차원적인 목표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교우관계에서 안정적인 정서체험을 통해 친밀감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체험활동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체험활동, 자아탄력성, 교우관계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의 성별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박영애, 2010; 성순옥, 박미단, 김영희, 2013), 다문화 수용성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김정화, 박선혜, 조상미, 2010; 이정아, 2011)을 토대로 성별에 따른 차이의 가능성을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교우관계의 직접효과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컸다. 그러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체험활동이 미치는 영향력은 여학생이 더 컸다. 체험활동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남학생이 더 컸지만,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학생이 더 컸다. 이 같은 결과는 남학생의 경우 체험활동을 외재적 가치에 비중을 두며, 친구들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경향성이 높은(김재철, 황매향, 김아영, 2011) 반면,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정서적 욕구가 높아 관계 중심적이며 감정통제 측면에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박영애, 2010)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에서 발견된 성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의 선택함에 있어서 체험활동 지도자의 적극적인 참여지도가 필요하다. 특히,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다문화 수용성에 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면,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인 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한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체험활동을 하위유형별로 구별하지 않고 전반적인 체험활동의 참여 경험유무만 활용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체험활동을 하위유형별로 구별하여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패널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중1학년의 4차년 자료

에 제한되어 있다. 체험활동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히 자아탄력성의 경우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 구축을 통한 분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가영, 장우미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97-123.
- 강지영 (2013). **창의적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관우, 남진열 (2011).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31-250.
- 김경근, 황여정 (2012). 초중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교육**, 39(1), 87-117.
- 김미향 (2006). 중학생을 위한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상담학연구**, 44(1), 343-356.
- 김미향, 김성희 (2010). 아동·청소년상담 : 중학생 자아탄력성 척도개발. **상담학연구**, 11(1), 189-206.
- 김선아 (2013). 초기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 다문화 수용성이 내외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문화포럼**, 35, 59-89.
- 김영순, 오영훈, 김미라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20(2), 285-304.
- 김원태 (2001). 고등학교에서의 사회참여 체험교육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3(1), 49-88.
- 김윤나, 박옥식 (2009).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자아존중감, 직업성숙도, 학업성취, 생활만족도, 스트레스, 비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1), 79-99.
- 김정화, 박선훈, 조상미 (2010). 한국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과 문화다양성 태도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17(4), 183-210.
- 김태완 (2012). **고등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중수, 성준모 (2013). 청소년활동 경험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145-173.
- 류시영, 강병훈 (2012).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과 자아존중감, 행복감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3(4), 27-50.
- 문재우, 박재산 (2013). 중학생의 체험활동과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간의 관련성.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14(2), 29-45.
- 박가나 (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73-306.
- 박영애 (2010). **스트레스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보호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성, 현은민 (2007).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83-94.
- 박재숙 (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157-182.
- 박혜숙, 원미순 (2010).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변인 탐색. **교육심리학회지**, 24(2), 303-325.
- 박혜숙, 원미순 (2010).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과 관련변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24(2), 303-325.
- 변유경 (2005).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가와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1(4), 5-18.

- 석주영, 박인전 (2009). 빈곤가정 아동의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양부모가족과 여성한부모가족 아동의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14(2), 1-9.
- 설동훈, 서문희, 이삼식, 김명아 (2009). **다문화 가족의 증장기 전망 및 대책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 성순옥, 박미단, 김영희 (2013). 청소년의 학교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8), 49-70.
- 소덕순, 문영희 (2011).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교육**, 16, 48-69.
- 심우엽 (2010). 초등학교생의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 **초등교육연구**, 23(4), 43-63.
- 안병환, 김창현 (2006). 청소년 수련활동의 효과에관한 연구. **한국교육논단**, 5(2), 41-60.
- 안전행정부 (2014). 『201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14년 1월 1일 기준)』
- 양계민 (2010). 초·중·고 고등학교 교사들이 지닌 가치가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7(1), 85-106.
- 양정남, 최은정, 문란영, 박건영, 박순희 (2011). 자기효능감, 사회복지용호태도가 사회복지전공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교육**, 12(1), 24-47.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경제적 가치연구**. 서울:여성가족부, 2012.
- 왕연주 (2012). **창의·인성 미술교육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이건남, 김영은, 이기용 (2013). 초등학교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실과교육학회지**, 26(3), 1-14.
- 이경아 (2011). **제3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민족정체성이 문화간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주재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숙, 민하영 (2010). 초기 청소년기의 또래 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6), 1-9.
- 이수정 (2013).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태도분석 연구. **2014 KAME International Conference**, 231-239.
- 이자형, 김경근 (2013).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23(1), 53-77.
- 이지영 (2013).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학위논문.
- 이진호 (2008).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가에 따른 자아탄력성이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주, 채유정 (2014).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사회·정서, 생애목표의 수준 및 구조적 관계에서의 성차. **한국청소년연구**, 25(2), 173-207.
- 장덕희, 이명옥, 양점도 (2011). 청소년의 자원봉사 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포항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9), 121-146.
- 장미혜 (2011). 다문화사회의 출현과 지속가능발전 동력의 창출. **조화와 소통의 다문화 사회 국제세미나** 발표 요약문.
- 장성민, 정민수 (2013). 초등학교생의 다문화 이해와 다문화 태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다문화교육연구**, 6(4), 151-168.

- 전명순, 김태균 (2014). 청소년활동이 학교생활적응, 학습습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문화포럼**, 38, 71-90.
- 정지영, 임정하 (2011). 청소년의 기질, 가족 건강성,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23(1), 37-51.
- 조아미, 신태수 (2012).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청소년활동 참여 수준의 유형과 특성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3(2), 185-217.
- 최영임, 이재성, 문영경 (2012).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9(1), 23-45.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2008년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허철수, 강옥련 (2010). 동아리활동 참여 청소년과 미참여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비교. **청소년복지 연구**, 12(3), 25-46.
-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현동연구총서** 07-19-02.
- Barrett, M. D., & Buchanan-Barrow, E. (2005). *Children's understanding of society studi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London. UK: Routledge.
- Davis, S. L., & Finney, S. J.(2006). A factor analytic study of the cross-cultural adaptability inventor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6(2), 318-330.
- Holm,K.,Nokelainen,P.,& Tirri,K.(2009). Relationship of gender and academic achievement to Finnish students' intercultural sensitivity. *High Ability Studies*,20(2),187-200.
- Hunter, L., & Elias, M. J. (1999). International Friendships,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social competence; How are they relate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 551-573.
- Sercu, L.,(2004). Assessing intercultural competence: A framework for systematic test development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beyond. *Intercultural Education*, 15(1), 73-90.
- Usher, M. H., Owen, C. G., Gook, D. G., & Whincup, P. H.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sedentary behaviou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adolescent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stemology*, 42, 851-856.
- Werner, E. E. (1989). High-risk children in young adulthood: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32 year.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72-81.
- Westrick, J. (2004). The influence of service-learning on intercultural sensitivity.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3, 277-299.

또래 집단과 관련된 긍정적 감정에 대한 체험활동의 효과성 분석

라종민*·김재철**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KCYPS)의 6차 자료만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에 대한 체험활동(체력함양,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정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의 효과성 증명을 위해 경험적 베이지안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전통적인 통계기법을 이용한 분산분석 결과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에 대하여 체험활동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수가 큰 차이를 보여 전통적 통계기법을 활용한 분석에 한계를 나타났다. 하지만 경험적 베이지안을 이용한 분석결과 자연체험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이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확률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경험적 베이지안, 체험활동, 청소년, 긍정적 감정

I. 서론

인지적·정서적·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청소년기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불안정한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기에는 급격한 심리적·정서적 변화를 통한 가치관의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이다(김인숙, 2014). 이러한 발달적 단계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은 학업성취에 대한 압박과 입시경쟁까지 더해져 다양한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더욱이 집단 문화가 중요시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또래 관계의 비중도 중요해지는 청소년기에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불안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은 부정적 자기도식으로 인해 청소년기 대인관계에 또 다른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Alfano, Beidel, & Turner, 2001).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는 대인관계(최태산·안재용, 2010)의 문제는 불안뿐만 아니라 우울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우울은 왜곡된 인지적 해석에서도 영향을 받지만 스트레스 상황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가까운 사람들이 적절한 반응이나 지지를 해주지 않는 등의 대인관계적 요인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Brown & Harris, 1978). 이러한 우울은 다시 대인관계 의존성을 증가시켜 제한된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jckim@hnu.kr

하기도 하는데(Hecht, Inderbitzen, & Bukowski, 1998), 이처럼 우울과 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 대인관계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청소년기의 발달을 저해하고 부적응으로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친구들과의 긍정적 관계맺음은 청소년들의 인생전반에 걸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울과 불안,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두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발전되는 것은 아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이를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개인적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자신과 타인의 삶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정서 및 대인관계 경험을 승화시켜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방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이나 자원으로 조기에 개입할 수 있다면 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도울 뿐만 아니라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대인관계의 향상은 사회적유능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정자, 유영숙과 정현주(2012)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유능성은 대인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Howes, 1987), 사회적 적응과 사회적 수행, 사회적 기술(Cavell, 1990)로 구성되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정자 외(2012)에 의하면 사회적 기술은 청소년들이 주변에서 받게 되는 환경을 강화 유지하기 위해 대인관계에 사용되는 학습된 행동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기술은 기본적인 상호작용기술과 대화 기술, 친구 사귀는 기술,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Walker & McConnell, 1993, 이정자 외, 2012 재인용). 사회적 수행은 대인적 관계를 의미하며 자신과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관계형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 기술을 의미한다 (이정자 외, 2012).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킬 프로그램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효과성 검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아래 제시된 연구문제에 대해 본 연구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할 예정이다.

연구문제 1. 체험활동에 따라 대인관계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체험활동의 정보(평균과 표준편차)가 변할 때 대인관계능력은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현재 체험활동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이 미래에도 나타날 수 있는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중 1학년 3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체험활동에 따른 대인관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전통적 통계기법이 아닌 경험점 베이지안 기법(empirical bayesian approach)을 활용하고자 한다. 기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

해은 전통적 통계적 접근방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무시하고 각 애플리케이션의 분산을 합하는 (통합분산: pooled variance) 방법과 분산을 분리하는 (개별분산: no pooled variance) 방법을 사용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차이점을 분석하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반면에, 경험적 베이지안 추정방법은 각 애플리케이션의 효과성을 무선효과(random effect)로 취급하여 애플리케이션의 효과성을 보다 정교하게 나타낼 수 있다 (Gelman, Carlin, Stern, & Rubin, 2004).

1. 표본자료 및 분석프로그램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KCYPS)의 6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6차년도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3,449명이었으나 자료 중 결측값(missing value)이 있으면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listwise)을 사용하여 최종 2,833명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각 수련활동에 대한 효과를 보다 정확히 알아보하고자 2가지 이상의 수련활동에 참여한 학생과 수련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학생(2,689명)을 제외한 414명만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414명의 학생들은 사회봉사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전통문화활동에 가장 적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수련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보다 구체적인 인원은 다음과 같다. 체력증진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65명(15.70%), 정서함양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64명(15.45%), 자연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13명(3.14%), 예정수양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15명(3.62%),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250명(60.38%), 전통문화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7명(1.69%)으로 나타났다.

2. 분석변수 및 분석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친구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측정하기 위해 KCYPS에서 사용한 4가지 질문은 <표 1>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이들 문항은 5점 리커드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0이며 “매우 그렇다”가 5로 되어 있다. 이들 문항의 전체 평균은 17.58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2.13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α 로 측정된 문항간의 신뢰도는 .78로 나타나 Nunnally(1978, p.245)년 제시한 기준을 넘어 기초연구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 개별변수 기술통계량

문항	평균	표준편차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4.62	0.53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4.57	0.56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4.08	0.86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편이다	4.32	0.70

III.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표 2〉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통계를 통해 정규성을 검사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개별 변수의 정규성은 왜도와 첨도를 사용하여 검사하였는데 검사기준은 Kline (2005)이 제시한 기준(왜도의 절댓값 3보다 작아야 하며 첨도는 절댓값 8~10보다 작아야함)과 (Lei & Lomax, 2005)이 제시한 보수적인 접근방법(왜도와 첨도의 절대값 기준을 2 또는 3으로 보는 관점)을 사용하였다. 이들 기준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가 정규성을 따른다고 가정을 할 수 있다. 〈표 2〉은 자연체험활동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다른 수련활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 수련활동별 친구에 대한 감정 기술통계량($N = 414$)

활동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체력증진(집단 1)	12	20	17.58	2.06	-0.31	-0.82
정서함양(집단 2)	12	20	17.28	2.38	-0.36	-1.06
자연체험(집단 3)	15	20	18.46	1.85	-0.81	-0.94
예절수양(집단 4)	12	20	17.33	2.49	-0.81	0.15
사회봉사(집단 5)	12	20	17.62	2.06	-0.44	-0.70
전통문화(집단 6)	14	20	18.00	2.58	-0.65	-1.70

〈표 2〉에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친구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수련활동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으로 전통적 분산분석방법을 사용한다(표 3). 하지만 친구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수련활동에 따라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수련활동 간에는 그 차이가 미세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F(5, 408) = 0.80, p = .54$.

표 3 ▶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 간	18.42	5	3.68	0.80
집단 내	1859.94	408	4.55	

* $p < .05$, ** $p < .01$

이러한 결과는 6가지 수련체험활동이 친구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비슷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친구에 대한 감정에 관해 6가지 수련체험활동의 95% 신용구간(credible interval)을 보면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표 4). 〈표 4〉를 보면 6가지 수련체험활동의 중간값(50%)이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 95% 신용구간(Credible interval)

활동	2.5%	25%	50%	75%	97.5%
체력증진(집단 1)	13	16	17	19	21
정서함양(집단 2)	13	16	18	19	21
자연체험(집단 3)	15	17	18	20	22
예절수양(집단 4)	12	16	17	19	23
사회봉사(집단 5)	14	16	18	19	22
전통문화(집단 6)	12	16	18	20	24

이러한 해석은 6가지 수련체험활동 각각의 분산이 실제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무정보사전분포(non-informative prior)를 사용하였다. 무정보사전분포를 사용한 6가지 수련체험활동의 공동효과($\bar{y}_{..}$)는 17.71로 나타났으며 공통분산

$\left(\sum_{j=1}^6 \frac{1}{\sigma_j^2}\right)$ 는 0.79로 나타났다.

하이퍼 모수의 표준편차(τ)는 균등사전밀도에서 추정되는데 [그림 1]은 친구에 대한 감정에 대한 6가지 체험활동의 모수(θ_j)에 대한 주변사후밀도함수, $p(\tau|y)$, 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에 의하면 하이퍼 모수의 표준편차(τ)의 평균은 15이며 0은 확률적으로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은 하이퍼 모수 표준편차(τ)에 대한 조건적 사후평균의 변화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하이퍼 모수 표준편차(τ)의 값이 0일때의 결과를 보면 각 수련체험활동 간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하이퍼 모수 표준편차(τ)의 값이 증가할수록 수련체험활동 간 존재하는 차이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이퍼 모수 표준편차(τ)의 평균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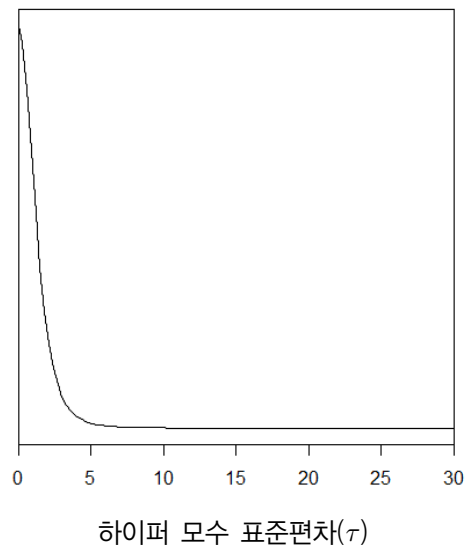


그림 1. 주변사후밀도함수

[그림 2]은 하이퍼 모수 표준편차(τ)에 대한 조건적 사후평균의 변화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하이퍼 모수 표준편차(τ)의 값이 0일때의 결과를 보면 각 집단 간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하이퍼 모수 표준편차(τ)의 값이 증가할수록 집단 간 존재하는 차이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이퍼 모수 표준편차(τ)의 평균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자연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은(집단 3)은 친구들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가장 높으며 전통문화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은(집단 6)이 그 뒤를 잇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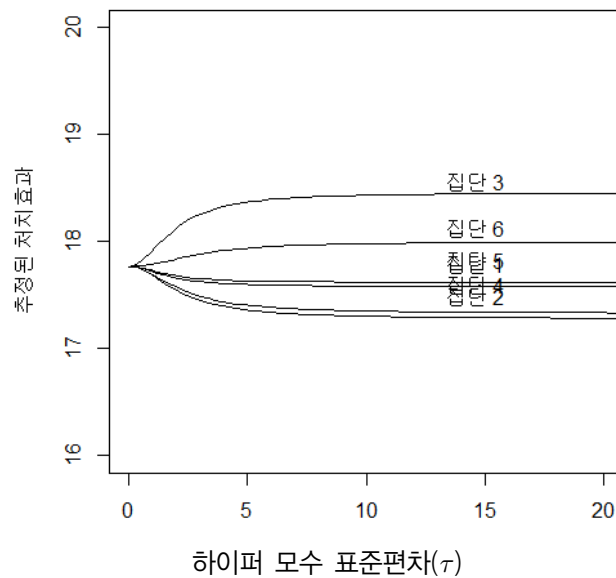


그림 2. 집단별 추정된 처치효과

[그림 3]는 하이퍼 모수 표준편차(τ)의 변화에 따른 네 집단의 추정된 표준편차(estimated posterior standard deviation)을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은 하이퍼 모수 표준편차(τ)의 평균(15)지점에서 6가지 수련체험활동은 크게 체력증진활동(집단 1), 자연체험활동(집단 3), 그리고 다른 체험활동(정서함양, 예정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또한 [그림 3]은 하이퍼 모수 표준편차(τ)의 값이 증가해도 이러한 차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연체험활동에 참여한 집단의 친구들과의 긍정적 감정교류가 다른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들보다 높다고 추측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나온 평균(18.46)이 이상점(outlier)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평균점수가 확률적으로 나타난 확률이 적으면 전체적인 분석에서 이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4]는 자연체험활동에 참여한 집단의 평균점수(18.46)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일 수 있는 확률은 45.5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연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평균점수가 이상점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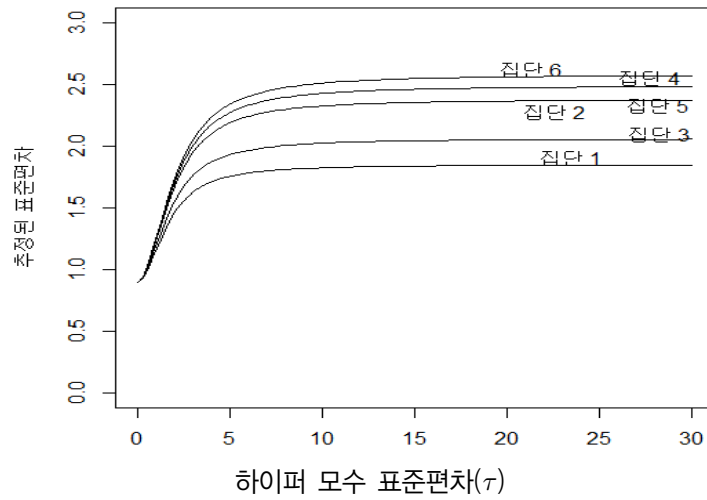


그림 3. 추정된 사후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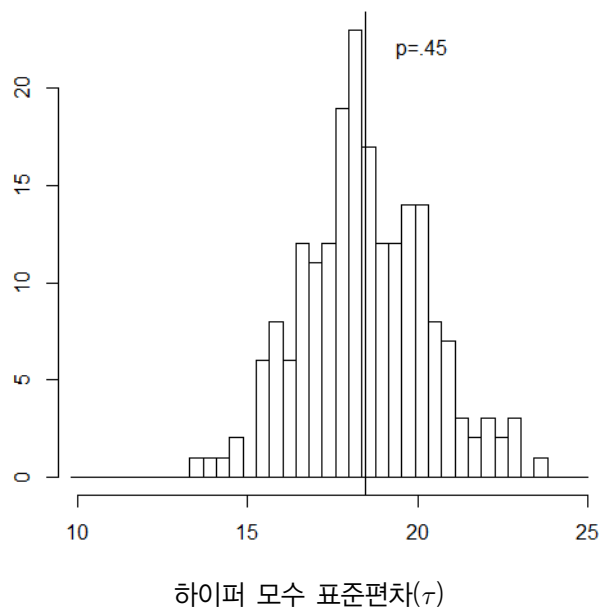


그림 4. 집단3(자연체험활동)에 대한 확률분포

2. 제시된 모형의 적절성 확인(Modeling Checking)

경험적 베이지안 기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의 적합성은 발표 전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

IV. 결론 및 논의

급격히 변화는 현대사회는 청소년들에게 과거 어느 때보다 다양한 역량을 요구하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학교 또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체험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나 자신을 벗어나 주변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체험활동이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형성에 아주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체험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어 지고 있는 전통적인 통계방법(분산분석)은 다양한 통계적 조건(사례수, 정규성, 등분산 등)에 제약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태만을 설명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각 수련체험활동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사회봉사체험에 가장 많은 학생($n=250$)이 참여했으며 전통문화체험($n=7$)에는 가장 적은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수련체험활동에 대하여 이러한 극단적 사례수의 차이는 전통적 통계방법의 한계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험적 베이지안 방법은 현재의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 보다 체험활동의 효과성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에 대하여 6가지 수련체험활동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전통적인 분산분석 결과 6가지 체험활동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적 베이지안 분석결과에 의하면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에 대한 효과는 자연체험이 가장 크며 전통문화가 그 뒤를 있고 나머지 체험활동들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효과크기의 표준편차를 따로 떼어놓고 해석을 할 수 없는데 경험적 베이지안 방법은 하이퍼모수 표준편차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추정된 표준편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 체험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체력함양활동의 추정된 표준편차 값이 가장 적고 그 다음에는 자연체험 그리고 나머지 체험활동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전통적 통계방법이 아닌 경험적 베이지안 통계방법을 사용하여 하이퍼 모수(hyper-parameter)의 잠재적 변화를 통계모델에서 구현할 수 있어 체험활동의 효과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장점을 지닌 통계적 접근방법을 실제 상황에서 적용해 봄으로써, 대인관계에 대한 체험활동의 효과성을 비교하여 보다 효과적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성숙시킬 수 있는 체험활동의 효과성을 보다 신뢰롭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베이지안 방법이 적합하며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결과를 증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인숙. (2014).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대상관계적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U시>의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5, 199-210.
- 이정자 · 유영숙 · 정현주. (2012). 사회적 유능성 프로그램이 Wee센터에 의뢰된 위기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재활심리연구**, 19, 1, 43-60.
- 최대산 · 안재영. (2010).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대인관계기술이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23, 2, 131-139.
- Alfano, C. A., Beidel, D. C & Turner, S. M. (2001). Cognition in childhood anxiety: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developmental issu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8), 1209-1238.
- Brown, G. W., & Harris, T. (1978). *Social origins of depression : A study of psychiatric disorder in women*. New York : Basic Books.
- Hecht, D. B., Inderbitzen, H. M., & Bukowski, A. L.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status and depressive sympto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 153-160.
- Gelman, A., Carlin, J. B., Stern, H. S., & Rubin, D. B. (2004). *Bayesian data analysis* (2nd eds.). New York: Champman & Hall/CRC.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청소년 체험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신인순*, 강현주**, 정평화***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의 자료를 활용하여,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서 지역사회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성별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체험활동은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체험활동과 전체 청소년 공동체 의식의 영향관계에서 지역사회인식은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남자 청소년에게는 매개변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인식이 여자 청소년에게는 효과를 나타나지 않아 성차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체험활동을 확대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학교 밖 체험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내의 학교’를 운영하며, 학교 내로 지역사회인사가 유입되어 풍부한 연계활동을 통해 ‘학교 내의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발달정체감에 맞고 청소년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참여적이고 성인지적인 청소년 체험활동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체험활동, 지역사회인식, 공동체 의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에 공감하면서 세계시민교육에 목소리를 높이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여전히 지역사회와 동떨어져 입시위주의 학교문화와 경쟁주의적 양육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ICCS(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국제비교 자료를 기초로 파악한 연구에 의하면, 지적 역량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청소년이 상호작용 역량수준은 최저이며 주변사람들과 관계의 질과 양 또한 매우 낮다고 한다(김기현, 2010).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

**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hyunju09223@hanmail.net

*** 경기복지재단 위촉연구원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청소년 체험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2006년 시행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영역별 분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의 9가지로 분류된다(여성가족부, 2010). 또한 교육부는 2009년 개정된 7차 교육과정에서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일원화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만들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나친 지식 위주의 학교 교육활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 활동이 단순한 놀이와 구분되는 것은,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카우트 연맹의 경우,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각 교급별 발달영역별로 교육목표를 기술한다(WOSM, 2002). 계획에 의거하여,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개발해야할 태도를 설정하여 개발되기에 청소년의 성장과 잠재력 개발에 더욱 도움이 된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신청서 양식도 추진배경과 필요성의 다음 항목으로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소하게는 지역사회 인식의 향상부터, 공동체 의식 함양, 나아가 시민의식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청소년 활동이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활동 구성뿐만 아니라, 이미 실행된 다양한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지역사회인식, 공동체 의식, 시민의식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연구, 또 이러한 영향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찾아 개입을 제안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체험활동은 청소년 스스로 가정과 학교 등의 근거리 환경을 넘어 시야와 관계의 확장을 경험하고 지역사회를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은영·김미강(2013)은 사회참여활동과 공동체 의식의 관계에서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이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어 본 연구의 경우 독립변수를 체험활동으로 정한 점이 다소 상이하지만, 유사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체험활동의 결과로 ‘McMillan & Chavis이 설명하듯 지리적 지역적 의미를 넘어서 관계적 의미까지 포함’하는 공동체 의식(박가나 2009 재인용)이 향상될 수 있다는 김원태(2001), 김나영(2004), 곽한영(2004), 김미숙(2005), 장인희(2006), 박가나(2009)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 경로를 세밀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학사 수준과 달리 석사 박사학위자의 경우 여성이 큰 차이로 남자에 비해 적고, 사교육 시간도 짧으며, 낮은 성취기대치를 받는다고 지적한 손승영(2006)의 연구내용에 주목하여, 각 변수의 성별 차이, 영향관계에서의 성별 차이, 경로상의 성별 차이까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체험활동은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 체험활동과 청소년 공동체 의식의 영향관계에서 지역사회인식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3 : 체험활동과 청소년 공동체 의식의 영향관계에서 지역사회인식이 나타내는 매개효과는 성별로 차이가 있는가?

II. 선행연구 검토

1.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지리적, 집합적 측면보다는 정서적, 정신적 측면에서의 공감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왔다. 공동체의 주요 개념이었던 지리적 특성이 교통통신의 발달로 약해짐에 따라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 유대 등이 더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도 공동체 개념의 변화에 근거하여 지역을 초월한 관계중심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으며(고관우·남진열, 2011: 강가영·장유미, 2013: Dalton, Elias, & Wandersman, 2007). 지리적, 지역적 특성을 포함하여 개인적 경험에서부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감정이나 정서, 가치관, 윤리의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박재숙, 2010: 강가영·장유미, 2013)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과거보다는 현대사회로 갈수록 약화되어 왔는데 이유는 "나만 잘되면 그만이다"라는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에 대한 협력 및 조화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한은영·김미강, 2013). 이러한 공동체 의식의 약화나 상실은 지속적인 아노미, 소외, 외로움, 지역사회 내의 자율성 및 개별적 참여기회의 상실, 상호의존관계의 상실 등 수많은 결핍과 관련되어 있다(Glynn, 1981). 특히 상호협력, 연대성과 같은 집단적 가치의 결핍과 관계되기 때문에 각종 범죄, 무질서, 부도덕이 많아지고 나아가 사회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최근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 공동체 의식이 강조되는 이유는 공동체 의식이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며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청소년기에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사회적 정체성 역시 형성, 발전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에게 공동체 의식은 발달적 관점에서도 중요하고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학교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공동체 의식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서서히 형성되는 것으로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것이고 학습되는 것이므로 자신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사회와의 많은 접촉 기회를 가지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경험하며 다양한 관점과 가능성을 접해볼 수 있다면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의식을 높이게 될 것이다(강가영·장유미, 2013).

청소년 공동체 의식의 영향요인을 보면 크게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내적

요인으로는 성별(김상미·남진열, 2011: 고관우·남진열, 2011: 박가나, 2009: 서혜숙, 2007: Lin, 2000: Alvanesi, Cicognani, & Zani, 2007), 종교(강가영·장유미, 2013: Obsr, Smith & Zinkiewicz, 2002). 자아존중감(김지혜, 2012), 건강인식(강가영·장유미, 2013)등이 공동체 의식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으며, 외적요인으로는 또래관계(김선숙·안재진, 2012: 김위정, 2012: 김원태, 2001: 유희철, 2009), 교사관계(김상미·남진열, 2011), 부모관계(한은영·김미강, 2013), 체험활동(고관우·남진열, 2011) 등 다양한 원인이 공동체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2. 청소년 체험활동과 공동체 의식의 관계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의 실태나 수준을 조사한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고 공동체 의식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가 오히려 많다. 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의 지역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이 과거보다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추세를 보고하고 있으며(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청소년의 민주 시민의식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이 대체로 농촌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유청녕, 1987), 또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정치정향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설정에 있어 사회전체의 발전을 위해 개인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어서 공동체 의식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을 시사하기도 한다(조현걸·김영하, 2001). 청소년 공동체 의식의 영향요인에서 외부활동에 대한 연구는 자원봉사활동, 수련활동, 체험활동 등으로 집중된다. 그런데 이들 활동은 연구자들마다 정의하는 바가 달라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중첩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사회적 이슈나 공공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의 의미를 내포하는 청소년 참여 활동은 자원봉사활동, 학교내 참여활동, 학교밖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김미윤, 2004: 박가나, 2009).

이와 같은 용어의 혼란 속에서도 청소년 활동은 공통적으로 청소년의 심리정서 발달은 물론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데 합의된 결과를 내놓고 있다(김원태, 2001: 김나영, 2004: 박한영, 2004: 김미숙, 2005: 장인희, 2006: 박가나, 2009)는 점에서는 합의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집단을 비교해 본 결과 참여한 집단의 공동체 의식이 이타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책임감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문성호·문호영, 2009: 서주영, 2001: 은지용, 2002: Hamilton & Fenzel, 1998: Brunelle, 2001). 그렇지만 봉사활동 경험 유무 자체 보다는 봉사활동 시간과 활동내용의 만족도, 봉사활동에 대한 사전사후 활동 유무가 더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된다(이재학, 2001). 즉 얼마나 오랜 시간, 어떤 동기에서 활동을 하고 얼마나 만족감을 느꼈는지 그 느낌과 주관적 만족도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 수련활동은 대체로 단체활동, 집단활동, 특별활동, 봉사활동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천정웅, 1998) 보통 두 사람 이상의 상호작용을 통한 집단활동으로서 청소년

년이 주체가 되어 창의적, 탐구적 활동을 이어가는 지속적 활동을 말한다(청소년 개발원, 1993: 홍봉선·남미애, 2004).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근거할 때 수련활동은 문화예술활동, 취미특기활동, 과학정보관련활동, 체력단련활동, 모험개척활동, 환경보호활동, 직업능력활동, 정책참여활동, 국내외 교류활동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청소년 수련활동은 다양한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습득함으로써 민주적 역량을 키우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나 수련활동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허정철, 2005). 특히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허정철(2005)의 연구에서는 수련활동의 필요성, 만족도, 참여태도, 주변의 지원 등이 긍정적이었을 때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체험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2006년 시행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영역별 분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의 9가지로 분류된다(여성가족부, 2010). 이러한 청소년 체험활동은 주로 학교 밖 활동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활동의 형태, 종류, 과정 등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활동의 효과에 대해서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행해진 것인지와 같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청소년 참여활동은 시민의식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김원태, 2001: 김나영, 2004: 김신아, 2004: 신정아, 2005), 특히 참여활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활동에 대한 숙고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질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밝혀진다(박가나, 2009: 한은영). 또한 참여활동의 형태는 오프라인 참여가 증가할수록 공동체 의식 함양이 높아지고, 참여활동의 기간은 부분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난다(곽한영, 2004: 박가영, 2009).

3. 지역사회인식의 매개효과

청소년이 거주지역에 대해 인식한다는 것은 자신과 가정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보다 확대된 관계를 경험하고 주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체험활동은 가정과 학교를 벗어난 관계의 확대를 가져오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서울시민의 마을 문화 형성활동에 참여한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연구결과, 문화활동에 참여한 시민이 참여하지 않은 시민보다 이웃과의 거주지역에 대한 친밀도가 높고 동네에 대한 인지와 관심이 높았으며 계속 거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도삼, 2012).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주로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관, 동아리, 단체, 조직 등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체험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 등을 간접적으로 인식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모습, 지역사회 문화재, 각종 시설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지역사회를 자신이 살아갈 공동체와 삶의 장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김진미·김태균, 2012). 박서호(1993)는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대해 동일지역에서 공통의 삶의 양식을 나누는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 공동의 유대와 가치를 지향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김남선·우룡(1995)은 지역주민간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것이 다시 공동체 의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한은영·김미강(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참여활동과 공동체 의식의 관계에서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이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교 내 체험활동은 종류나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고 학습위주의 활동이어서 학교 밖의 다양한 체험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가정과 학교를 벗어나 보다 폭넓은 관계의 형성과 시야의 확대를 가져오고 나아가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체험활동과 공동체 의식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는 많으나 지역사회 인식과의 관계까지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체험활동과 공동체 의식 사이에서 지역사회인식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 검토함으로써 체험활동과 공동체 의식 사이의 적절한 개입지점을 밝혀내는 실증적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4. 공동체 의식의 성별 차이

‘공동체(Community)’라는 용어가 모호하고, 지리적, 관계적, 기능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만큼이나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는 일 또한 용이하지는 않다. 단지 지리적 의미를 넘어 관계적, 기능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추세이며, 단순한 인식의 차원보다는 태도를, 태도보다는 행동을 질문하여 참여적, 실천적 의지를 중요시 하는 분위임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도 공동체 의식의 파악을 위해, 친구를 돕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기부금을 내며,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의 지구보호를 하려는 실천의지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의 성별 차이는, 문항의 구성과 질문 수준에 좌우될 수 있고 다소 지엽적일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공동체 의식의 성별차이에 대한 연구는 일관되지 않는다. 우선 공동체 의식에 있어서 성차가 없다고 확인한 연구들이 있다. 박재숙(2010)은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직간접효과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자아존중감에서 공동체 의식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로에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각 변수의 인과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탐색한 결과, 자

존감이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만 성별의 조절효과를 찾았을 뿐 나머지 경로에서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박재숙(2010)은 이러한 연구결과가 자원봉사의 내용이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지 않게 성적에 쉽게 반영되는 의무적, 단순적, 형식적(문성호 문호영 2009 재인용)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박재숙(2011)의 다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공동체 의식이 정적으로 부분매개하지만, 성별 조절효과 검증 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변인들 간에 경로구조상 차이는 없음도 확인했다. 박재연(2010)과 이현웅과 곽윤정(2011)도, 인구학적 변인들이 청소년들의 삶 만족과 대체로 낮은 상관을 보이고 청소년의 성차가 다양한 차원에서 줄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박재숙, 2011 재인용). 김옥순·신인순(2013)은 세계시민의식을 주제로 한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교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은 세계시민의식 5영역 -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존중,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세계지향성 - 중 다양성에 대한 가치존중이 남자청소년보다 높지만,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그리고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는 남학생보다 낮음을 확인하였다. 신인순·김옥순(2012)은 다른 연구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국제캠프에 참여한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비교하였고, 이를 통해 세계시민의식 5영역 중 다양성에 대한 가치존중만 여학생이 높은 점수를 보였고, 나머지 4개 영역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두 연구 모두 영역별 성차는 있으나 세계시민의식 전체 점수상의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신혜영(2006)도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영역과 세계지향성에서 남자청소년이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세계시민의식 전반에는 성차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여학생이 더 높은 공동체 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는 초등학생의 국제이해교육효과를 살펴본 구정화(2008)의 연구이다. 연구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세계이해면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활동의 사전 사후 검사 평균차이도 컸다고 보고한다.

남자청소년이 더 높은 공동체 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로는 이태리 볼로냐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Albanesi, Cicognani & Zani(2007)의 실험연구를 들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는 공동체 의식의 '향상'도 남학생에게서 더 두드러졌다고 보고하였다(박재숙, 2010 재인용). 이성은(2009)은 공동체 의식을 직접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자원봉사 참여율 연구를 통해,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원봉사에 덜 참여하지만 3학년이 되어서는 더 많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종단연구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를 가져 올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지만, 대입을 앞둔 고3 시점에 남학생의 자원봉사참여율이 높아지는 양상이어서 이에 대한 해석은 좀더 다각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orea Children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학교 1학년 패널 4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2,378명(남: 1,098명, 여:994명) 중에서 체험활동 경험여부 문항, 지역사회인식 문항 및 공동체 의식 문항에 모두 응답한 1,978명(남: 1037명, 여: 941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연구조사 2010자료의 4차(중1)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및 문항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동체 의식은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 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의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으로 재코딩 하였다. 공동체 의식 척도의 신뢰도는 .802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체험학습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체험학습 경험이다. 체험학습은 영역별 체험활동 연간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으로 보고 각 영역 체험활동을 더하여 총합으로 계산하였다. 체험학습 영역은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개발로 이루어져있다.

3) 매개변수 : 지역사회 인식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인식은 “(나는) 우리 동네 사람 대부분을 알고 있다.”,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우리 동네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어한다.”의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응답의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재코딩하여 분석, 활용하였으며 신뢰도는 .741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방법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지역사회인식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SEM)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절차는 주요변수에 대해 기술통계를 구한 후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후 변수사이의 예측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이르는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직·간접 효과로 분해하여 총 효과를 살펴보고 구조경로별 관계와 유효성 검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는 체험활동, 지역사회 인식 및 공동체 의식이다. 연구 분석을 실시하기 전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에 대한 기술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의 체험활동 평균은 1.63남자는 1.51, 여자는 1.75로 각각 나타났다. 지역사회인식의 평균은 전체는 2.91, 남자는 2.98, 여자가 2.84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체 인식의 평균은 전체는 3.01 남자는 3.02, 여자는 3.00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 분석결과 변수의 분포가 정규성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변수특성

변수	전 체 (N=1978)				남 자 (N=1037)				여 자 (N=941)			
	평균	SD	왜도(SE)	첨도(SE)	평균	SD	왜도(SE)	첨도(SE)	평균	SD	왜도(SE)	첨도(SE)
체험 활동	1.63	1.85	1.58(0.55)	2.75(.11)	1.51	1.85	1.70(.076)	3.23(.15)	1.75	1.85	1.47(.08)	2.36(.16)
지역사회 인식	2.91	0.52	-.046(.055)	.424(.11)	2.98	0.51	-.036(.076)	.104(.15)	2.84	0.51	-.057(.08)	.808(.16)
공동체 인식	3.01	0.58	-.121(.055)	.303(.11)	3.02	0.60	-.207(.076)	.256(.15)	3.00	0.54	-.012(.08)	.322(.16)

주) 성별에 따른 체험활동, 지역사회인식, 공동체 인식의 t 검증 결과, 체험활동($t=-2.799$ $p<.01$), 지역사회인식 ($t=6.353$, $p<.001$)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상관관계 분석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 청소년의 경우 공동체 의식과 체험활동 간의 상관계수는 .202($p<.001$)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인식과는 .369($p<.001$)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인식과 체험활동간의 상관계수는 .055($p<.05$)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공동체 의식과 체험활동 간의 상관계수는 .192($p<.001$)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인식과는 .358($p<.001$)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인식과 체험활동간의 상관계수는 .099($p<.01$)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공동체 의식과 체험활동 간의 상관계수는 .220($p<.001$)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인식과는 .386($p<.001$)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인식과 체험활동간의 상관계수는 .028($p>.05$)으로 나타났다.

표 2 ▶ 상관관계분석

	공동체 의식			체험활동			지역사회인식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공동체인식	1	1	1						
체험활동	.202***	.192***	.220***	1	1	1			
지역사회인식	.369***	.358***	.386***	.055*	.099**	.028	1	1	1

† $p<.10$ * $p<.05$ ** $p<.01$ *** $p<.001$

3. 구조모형분석

본 연구의 모형 적합도 지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구모형 적합도 분석결과, 모든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모형이 남자, 여자에 각각 적용될 수 있는지의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고 각 성별 집단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의 측정동일성과 구조동일성 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측정모형에서 요인적 제약을 남자와 여자 각 집단별로 동일성 제약 후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았으며, 구조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 간 회귀계수를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후 경로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적합도 검증 결과 모든 모형에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표 3 ▶ 연구모형의 적합도

구분	χ^2/df	RMSEA	GFI	NFI	TLI	CFI
전체 연구모형	6.34	.052	.989	.978	.967	.981
남자 모형	6.04	.070	.980	.962	.944	.968
여자 모형	2.74	.043	.990	.978	.975	.986
측정 동일성모형	4.02	.039	.984	.967	.963	.975
구조 동일성모형	3.73	.037	.984	.966	.966	.975
기준	>3	<.080	>.900	>.900	>.900	>.900

모형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결과는 각각 <표 4>, <그림 1>,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전체 청소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체험활동은 공동체 의식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체험활동은 지역사회인식에도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체험활동은 공동체 의식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체험활동은 지역사회인식에도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 청소년의 체험활동은 공동체 의식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험활동은 지역사회인식에도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모형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치

경로	전체				남자				여자			
	Est.	S.E.	β	C.R.	Est.	S.E.	β	C.R.	Est.	S.E.	β	C.R.
체험활동 → 공동체 인식	.041	.005	.183***	7.661	.035	.008	.152***	4.599	.046	.008	.214***	6.127
체험활동 → 지역사회 인식	.052	.017	.085**	3.049	.083	.023	.135***	3.542	.033	.025	.055	1.331
지역사회 인식→ 공동체 인식	.178	.013	.492***	13.365	.171	.018	.456***	9.480	.195	.020	.541***	9.556

* $p < .05$ ** $p < .01$ *** $p < .001$

<표 5>는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sobel 검증¹⁾방식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검증결과, 전체 모형에서는 체험활동과 공동체 의식과의 관계에서 지역사회인식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남자의 경우 체험활동과 공동체 의식 간에 지역사회인식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체험활동과 지역사회인식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매개관계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지 않기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즉, 본 연구의 질문인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주는 영향에 있어 지역사회인식이 매개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지역사회인식은 청소년 전체에게는 매개변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라 매개효과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frac{ab}{\sqrt{b^2 SE_a^2 + a^2 SE_b^2}}$

표 5 ▢ Sobel 검증 결과

매개 경로			성별	a	Sa	b	Sb	Z
체험 활동 →	지역사회 인식 →	공동체 인식	전체	.052	.017	.178	.013	2.985**
			남	.083	.023	.171	.018	3.374***
			여	.033	.025	.195	.020	1.308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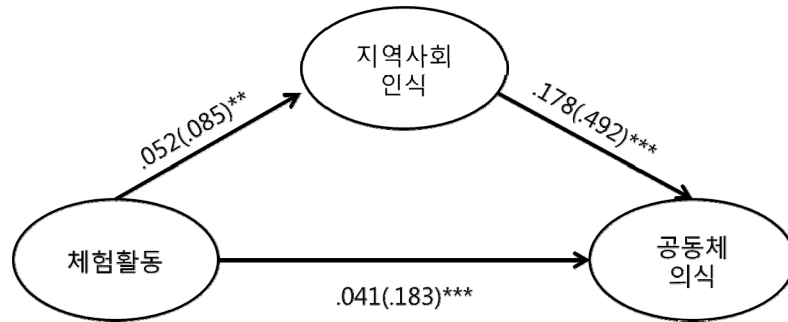


그림 1 전체모형

()안의 숫자는 표준화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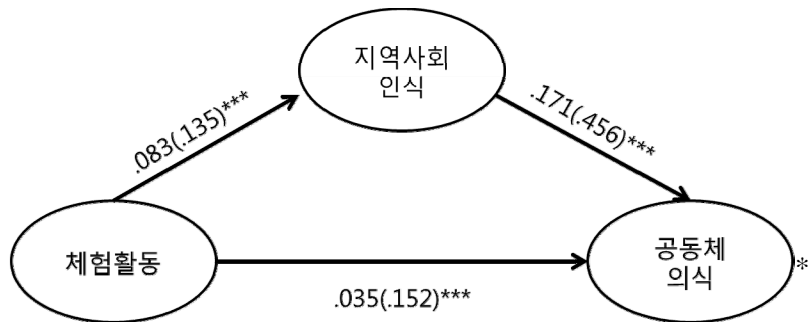


그림 2 남자모형

()안의 숫자는 표준화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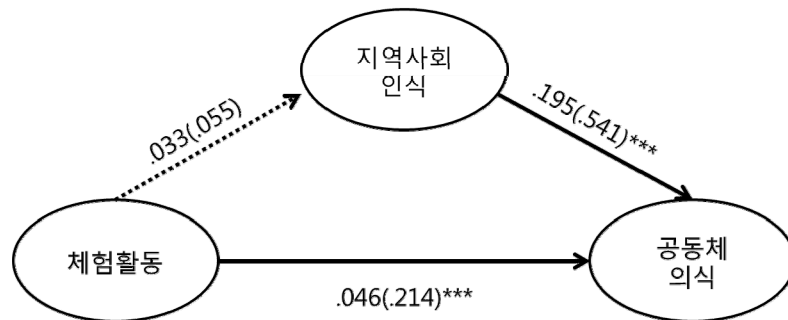


그림 3 여자모형

()안의 숫자는 표준화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6〉은 〈표 3〉에서 제시된 변수들의 직·간접 및 총 효과를 분해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한 결과이다. 전체 청소년의 경우 모든 경로에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모두 유의하였다. 성별을 나누어서 보면, 남자의 경우 모든 경로에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의 경우 체험활동과 공동체 의식의 경우 직접효과, 총효과는 유의미하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체험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총효과 .213는 직접효과 .152와 간접효과 .061로 구성되며, 여자의 경우 체험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총효과 .243는 직접효과 .214와 간접효과 .029로 구성된다.

표 6 주요 변인들의 직접·간접 및 총 효과

경로	전체			남			여		
	직접	간접	총효과	직접	간접	총효과	직접	간접	총효과
체험활동 → 공동체 인식	.183*	.042**	.225**	.152*	.061**	.213**	.214**	.029	.243**
체험활동 → 지역사회 인식	.085*	-	.085*	.135**		.135**	.055		.055
지역사회 인식 → 공동체 인식	.492*	-	.492*	.456*		.456*	.541**		.541**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orea Children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중학교 1학년 패널 4차년도 조사를 이용하여,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서 지역사회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성별차이를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험활동은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체험활동과 청소년 공동체 의식의 영향관계에서 지역사회인식은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셋째, 지역사회인식이 체험활동과 청소년 공동체 의식의 영향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낼 때,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자 청소년에게서는 매개효과가 발견되었고, 여자 청소년에게서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체험활동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임시위주의 학교와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과 가치를 배워갈 수 있도록 체험활동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에 힘써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학교 밖 체험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내의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을 학교 안에서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 내 활동들은 청소년에게 매력을 주기 어렵고 그들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효과 또한 기대하기가 어렵다. 근거리의 생활권 수련활동시설과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이 사고와 체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교 내로 지역사회인사가 유입되어 풍부한 연계활동을 통해 ‘학교 내의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월드비전의 위탁기관인 D시의 H복지관에서 실시한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 프로그램은 성인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청소년 기관과 학교교육기관이 연계한 지역사회연계형 창의적 체험활동의 예이다. ‘공감력’, ‘배려’, ‘협력’에 관한 불과 4회기의 창의적 체험활동만으로도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은 일반 청소년과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른바, ‘트라이앵글’모형의 방식도 같은 맥락이다. 학급단위 운영보다는 학교가 부족한 동아리활동에 대한 노하우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학습자의 요구에 맞춘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고 동아리의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이 이어지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진로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김현철 외, 2010).

넷째, 청소년들의 발달정체감에 맞고 청소년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이 시대의 청소년은 참여세대에서 문화의 소비자로써 생활하고 있다. 스스로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욕구와 기대에 예민하게 맞춰진 활동으로 만족도와 교육적 효과를 배가시켜야 한다.

다섯째, 성인지(gender perspective)적인 청소년 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체험활동이 청소년 공동체 의식에 주는 영향에 있어 지역사회인식의 매개효과가 남자청소년에게서만 나타나고 여자 청소년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다. 체험활동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성인지적 관점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지닌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체험활동이 성차에 예민하게 개발되고 실행됨으로써 특정성을 가진 청소년의 성취가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체험활동을 구성하고 실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를 사용하였으나 종단연구가 아니므로 패널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패널의 문항구성상 많은 변수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각 변수에서 충분한 질문을 포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통계적으로는 신뢰도 .700이상을 확보하였으나, 특별히 공동체 의식의 질문이 4문항으로 구성되고 체험활동이 영역별 참여 유무의 합산으로 측정된 것은 활동의 질을 확인하고 공동체 의식을 폭넓게 파악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보인다. 이는 향후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양적연구와 참여적인 질적연구를 통해 거듭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가영·장유미. (2013).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97-123.
- 고관우·남진열. (2011).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 의식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31-250.
- 곽한영. (2004). **촛불시위 참여가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과정개정총론**. <http://cutis.mest.go.kr> (2013. 2.20)
-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I: 총괄보고서**,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나영. (2004).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정치교육 효과 지각에 관한 연구: 대학생들의 정치지식, 기능 및 태도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 (2005). **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 함양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미윤. (2004). 비판적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참여의 과제. **청소년문화포럼**, 10. 124-137.
- 김상미·남진열. (2011).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 8(4): 225-242.
- 김신아. (2004). **세계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 김왕근(1999). **세계화와 다중 시민성 교육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28(1), 45-68
- 김옥순, 신인순. (2013).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연계형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문화포럼**, 36, 8-28.
- 김원태. (2001). 고등학교에서의 사회참여 체험교육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3(1), 49-88.
- 김위정. (2012).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6), 201-222.
- 김지혜. (2012).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봉사활동 시간과 주관적 만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1), 41-62.
- 김진미·김태균. (2012). 청소년체험활동이 지역사회 인식,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준 외(2011), 세계청소년의 시민의식과 우리나라 시민교육의 시사점. **한국HRD연구**, 6(2), 25-41
- 김현철, 최창욱, 민경석(2010),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 활동 정책의 연계방안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10-R08
- 라도삼. (2012). **마을문화만들기 사례와 전략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 문성호·문호영. (200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실태 및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1(1), 101-120
- . (2010). 청소년활동의 참여실태, 만족도 및 영역별 효과성. **청소년복지연구** 12(2), 95-122.
- 박가나. (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73-306.
- 박서호. (1993).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공동체 의식 함양 방안**. 서울: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
- 박재숙. (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 의식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17(4), 157-182.

- _____. (2011). 초기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참여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4), 47-69.
- 서주영. (2001).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혜숙. (2007).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만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손승영. (2006). **한국 청소년의 젠더 차이와 성차별 : 현황과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Issue Paper 06-IP03
- 신인순, 김옥순(2012),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세계시민의식 형성 효과**.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37, 5-36
- 신정아. (2005). **학교에서의 일상생활참여가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영. (2006).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세계시민의식 실태분석-가치와 태도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 유청녕. (1987). **중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연구-서울과 지방의 비교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은지용. (2002). **청소년 봉사활동 반성 경험이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재학. (200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인성발달에 관한 연구 : 안양시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인희. (2006). **사회참여학습이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정치적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정치 참여 기능, 정치 참여 의무감, 정치 효능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현걸 · 김영하. (2001).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의 정치정황에 관한 연구 : 대구, 경북 지역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대학정치학회보. 10(2). 213-243.
- 한은영 · 김미강.(2013),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43, 95-124.
- 허정철. (2005). **수련활동,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7(1), 19-40.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청소년개발지표 개발연구**. 서울: 계문사.
- 홍봉선 · 남미애. (2004). **청소년복지론**. 서울: 양서원.
- Albanesi, C., Cicognani, E. & Zani, B. (2007). Sense of community, civic engagement and social well-being in italian Adolescent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7, 387-406.
- Dalton, J. D, Elias, M.J. & Wandersman. A. (2005). *Community psychology*. 468-488. Hand book of psychology. (eds) Freedheim, D.K & Weiner. I. B. Wiley and sons: New Jersey.
- Glynn, T. J. (1981).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Measurement and application. *Human Relations*, 34, 789-818.
- Hamilton, S. F., & Fenzel, L. M. (1988). The impact of volunteer experience on adolescent social development: Evidence of program effec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1), 65-80
- Obsr, Patricia; Smith, Sandy G; Zinkiewicz, Lucy, (2002), An exploration of sense of community, part 3: Dimensions and predictors of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n geographical communities., *Journal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1), 119-133.
- Oxfam(2006),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Guide for School.*, London, Oxfam
- WOSM(2002), *Renewed Approach to programme*, Geneva, World Organization of the Scout Movement

제 5 주제

부모가족관계

- 1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청소년의 적응과 환경 특성 탐색
- 2 청소년의 휴대폰 의존도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부모관심의 시간의존적 효과 연구
- 3 청소년기 일상생활시간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 및 부모양육방식의 영향
- 4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성차비교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청소년의 적응과 환경 특성 탐색

이미리*·박주희**·정현숙***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적응과 이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를 탐색하였다. KCYPS 중3패널 4차(고1대상) 자료의 사례수 2,351명 중에서 양친가족 청소년 1,715명, 한부가족 청소년 79명, 한모가족 청소년 113명의 적응 수준과 가족 및 가족외 환경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학교적응, 건강, 삶의 만족도 수준은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신체증상, 학습참여, 비행 수준은 가족구조간 차이를 보였다. 환경적 특성으로는 부모의 신체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 가족의 경제적 특성, 부모양육방식 중 합리적 설명과 애정, 감독, 방임 수준, 방과후 보호자 부재정도, 재학중인 고등학교 유형, 방과후 교육경험에서 가족구조간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 적응 수준의 차이는 적었으나 한모가족 청소년이 양친가족 청소년에 비해서 신체증상이 많았고, 한부가족 청소년이 양친가족이나 한모가족 청소년에 비해서 학습참여도가 낮고 비행경험이 많았다. 환경특성은 가족구조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양친가족과 한모가족 부모의 개인적 특성이나 양육방식이 한부가족에 비해 더 긍정적이었다. 연구결과에 대해 이론적, 방법론적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주제어: 청소년, 가족구조,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적응, 가족환경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족구조는 가족관계의 역동성과 가족구성원인 청소년들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들을 가족구성원의 일부로 간주하여 연구를 수행할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이들이 구조적으로 서로 다른 가족환경 내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있어서의 차이가 가족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도 가족구조를 청소년의 적응 혹은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원인 요인으로 간주해야하는지 혹은 청소년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족 기능, 가족 관계의 질, 학습 환경 등에서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기

*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hschung@smu.ac.kr

때문에 단순히 통제변인으로서 연구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개별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이에 대한 입장은 다를 수 있으나, 가족구조 그 자체보다는 특정한 가족 유형이 공유하는 환경적 특성이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Barret & Turner, 2006; Hoffmann, 2006).

따라서 청소년의 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중재를 개발하는 과정에 선행되어야 할 주요 연구과제 중 하나는 가족구조에 따라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 청소년의 주요 발달적 맥락에 포함된 환경적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자들은 주로 가족을 비롯한 기타 환경적 특성이 청소년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가족구조에 따라 다른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강부자·김은혜·노충래, 2012; 남영옥, 2010; Hoffmann, 2006; Jablonska & Lindberg, 2007 등) 가족구조에 따른 환경적 특성의 차이 그 자체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가족구조에 따른 환경의 차이는 가족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수용도와 사회적 지지 등 시대나 문화 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우리사회 내의 각 가족유형이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 특성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1960년대의 국외 연구들은 구조기능적 관점에서 가족구조가 청소년의 발달에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가 지배적이었으나(Walters & Stinnett, 1971), 최근의 연구들은 가족구조보다는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의사소통 등 가족관계적 변인들이 가족구조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들을 중재 혹은 조절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지배적이다(Demo & Cox, 2000; Kelly, 2000). 국내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른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가족구조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정보들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가족의 빠른 변화 속도 때문이다. 즉, 미국과 유럽에서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일어난 1차 인구혁명인 저출산, 고령화 및 그로 인한 인구감소현상과, 이혼, 동거, 혼외출산 및 한부모가족의 증가가 특징인 1960년부터 현재까지의 2차 인구학적 혁명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변화에 적응하거나 준비할 기회도 없이 1980년 이후 한꺼번에 혁명적으로 다가와서(정현숙, 2011) 가족구조와 청소년 발달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적응과 가족구조에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는 한부모, 양친, 이혼가족 등 각각의 가족구조에 따라 관련 변수들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김현숙, 2011; 이정은·이주리, 2008; 이경희·유영달, 2006), 둘째는 가족구조별 회귀분석이나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임연옥·추상엽·임성문, 2007), 셋째는 적응상의 어려움이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낙관성(박지혜·김근향·고형진, 2014), 자아존중감(이정은), 자아탄력성(강부자·김은혜·노충래, 2012),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임연옥·추상엽·임성문, 2007) 등 청소년 개인의 특성이나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김재엽·양세정, 2013), 형제관계(손병덕, 2012) 등 가족 특성에 의해 매개되거나 조절되는 지를 탐색한 연구들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의 기저에는 생물학적인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구성된 양친가족이 역할분담과 균형의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에 비해 자녀 양육에 가장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고 그 결과 청소년들이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일반적인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 차이에 대한 일부 연구결과 양친가족에 비해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적응상의 어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오승환, 2001; Jablonska & Lindberg, 2007; Patten et al., 1997), 조순, 한부, 한모 가족 등 구조적인 결핍을 경험하는 가족의 청소년기 자녀들이 양친부모가족의 자녀들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거나(조아미·임영식, 2009; Mokrue, Chen, & Elias, 2012)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성숙하다는 등(김민강·이희영·최태진, 2012; 김원경·전제아, 2010; 남영옥, 2010) 비일관적인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 적응 수준의 차이에 대한 불일치 혹은 상반된 연구결과에 대해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족구조 별로 청소년의 다양한 적응수준과 환경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수집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중학교 1학년 패널의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 차이와 이들이 경험하는 환경적 특성을 분석하는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패널자료에 포함된 가족의 유형은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계부가족, 계모가족, 조순가족 등이었으나,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을 제외한 기타 가족 유형의 수는 제한적이어서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청소년들이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학교적응, 신체적·심리적 안녕 등 적응의 다양한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 가족의 경제적 자원, 부모의 신체적·심리적 안녕 등 가족환경의 특성과 학교 및 학습 환경 등 가족 외 환경 특성에 있어서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선행연구결과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청소년의 성별, 형제자매 유무(손병덕, 2012; 이경은, 2005; Hernandez & Myers, 2003), 전학경험 유무(주현주·유난영, 2014; Kelly, 2000; Kelly & Emery, 2003)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켜 연구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청소년의 적응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청소년의 가족 환경 특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청소년의 가족 외 환경 특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족구조의 변화와 청소년의 삶

가족학자들은 21세기 가족 변화 특징 중 하나가 지속적인 다양한 가족의 출현이라고 전망한다. 실제로 2012년 우리나라의 가구유형별 가구분포(통계청, 2013)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가구가 3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1인가구(25.3%), 부부가족(16%), 모자녀(7.3%), 3세대가구(5.8%), 부자녀(2.1%) 등으로 다양한 가구와 가족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이혼의 증가로 인한 65세 이상인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현재 평균혼인지속기간은 14년으로 59%의 경우 미성년자녀가 포함되어 있다(통계청, 2014). 따라서 이혼과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를 경험하는 자녀들의 적응과 이들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 연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 이유는 가족구조가 다양화되어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두부모가 함께 하는 가족구조가 자녀들의 발달에 최적의 환경이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우세하여 양친가족 이외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병리적인 관점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 내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들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비록 가족구조자체가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경제적 어려움, 양육자의 적응, 건강상의 어려움, 역할과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김예성, 2014; 현은민, 2008; 황은숙, 2007) 때문에 돌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망의 부족으로 이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김민강·이희영·최태진, 2012; 김원경·전제아, 2010; 남영옥, 2010; 윤우석, 2011). 그 결과 가족구조의 변화를 경험한 가족 구성원들은 적응상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김예성, 2014; 남현주 등, 2013; 윤우석, 2011).

특히 발달단계상 급격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기 쉽다. 그 이유는 이 시기가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결핍된 가족환경에 처하게 될 경우 개인적 발달과업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가족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심리사회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남현주 등, 2013). 한부모가족의 경우 양육 부담으로 인해, 한모가족은 빈곤과 양육 부담으로 인해 청소년 자녀들의 부적응 문제를 경험하기 쉬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황은숙, 2007). 그러나 한부모가족과 한모가족의 청소년 자녀들이 양친가족 자녀들과 발달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거나 때로는 심리적으로 더 성숙하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김민강·이희영·최태진, 2012; 김원경·전제아, 2010; 남영옥, 2010).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보호요인으로서의 긍정적 양육, 또래, 교사, 지역사회 등의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는 점차 다변화되는 가족구조에 따른 환경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족구조와 청소년의 적응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적응을 “문제행동이 적고, 학교생활에 잘 참여하며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신체적 건강과 삶에 대한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개념화 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기초로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고찰하였다.

1)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한부모가족은 양친가족과 달리 어느 한 양육자의 부재로 인해 남은 부모와 자녀들이 역할가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기 쉽기 때문에 그 결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청소년들은 양친가족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된 문제 뿐 아니라 공격성, 비행 등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가정이었다(Averdijk, Malti, Eisner, & Ribeaud, 2012; Hemovich, Lac, & Crano, 2011). 이와 관련하여 Langton과 Berger(2011)는 가족구조가 아동과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주요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첫째, 가족구조에 따라 자원에 대한 가족의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자녀의 적응에도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일반적으로 양친가족은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물품을 공급하기에 용이하다. 둘째, 가족구조는 양육행동과 가정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의 적응수준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한부모가족 부모의 경우, 양친가족에 비해 이용가능한 시간과 노력에 제약이 더 많기 때문에 부모-자녀 관계나 가정환경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가족구조는 가족 스트레스와 부모의 심리적 안녕에서의 차이를 통해 자녀의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은 양친가족과는 달리 가족구조의 불안정성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지원이나 자원은 부족한 반면 부모역할에 더 많은 요구와 책임이 부가되기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자녀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양친가족과 한부모가족을 비교한 다수의 국내외 연구결과(오승환, 2001; Amato, 2005; Brown, 2004; Hoffmann, 2006; Jablonska & Lindberg, 2007; Patten et al., 1997), 대체로 한부모가족의 청소년들이 양친가족의 청소년들보다 더 부정적인 발달적 결과나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 청소년들은 우울·불안(오승환, 2001), 위축(조경미·주혜주, 2003), 신체화 증상(Sieh, Visser-Meily, & Meijer, 2013) 등의 내재화 문제와 공격적 행동과 비행(Brown & Ninelli, 2010; Hemovich et al., 2011; Jablonska & Lindberg, 2007; Vanassche, Sodermans, Matthijs, & Swicegood, 2014),品行장애(Zeiders,

Roosa, & Tein, 2011) 등의 외현화 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공격성(조아미·임영식, 2009), 과잉행동(Mokrue, Chen, & Elias, 2012) 등의 문제행동을 비롯한 청소년의 적응은 가족구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몇몇 연구자들(오승환, 2001; Bjarnason et al., 2003; Hemovich et al., 2011; Jablonska & Lindberg, 2007; Naevdal & Thuen, 2004)이 한부모가족 내에서도 한부가족과 한모가족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한부가족 청소년이 한모가족 청소년에 비해 흡연, 음주, 약물사용 등의 비행행동을 비롯한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Jablonska와 Lindberg의 연구에서는(2007) 통제변인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한부모가족 청소년들이 양친가족 청소년들에 비해 위험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 현 거주지 거주기간, 친한 친구를 수, 친구를 사귀는 능력, 학교 만족도, 무단결석 수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이후에는 공격적 행동과 또래 괴롭힘에 있어서 양친가족과 한모가족 청소년 간의 차이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양친가족과 한부가족 간의 차이는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가족의 청소년이 한모가족의 청소년보다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버지들이 어머니들보다 자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며 여가활동에 대한 통제를 덜 하는 것에 기인할 수 있으며(Demuth & Brown, 2004), 아버지들이 음주와 흡연 등 비행과 관련된 행동의 모델을 더 많이 제공하기 때문일 수 있다(Brown & Rinelli, 2004). 또한, 결과적으로 이상과 같은 두 가족유형 간의 차이는 한부가족과 한모가족을 단순히 한부모가족이라는 동일한 범주로 간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Jablonska & Lindberg, 2007).

한편, 네 유형의 가족구조(양친, 한부, 한모, 양친부재가족)에 속한 청소년들의 우울증상을 비교한 Patten 등(1997)의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청소년들이 양친가족의 청소년들에 비해 약간 더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보다는 부모의 지지적인 태도와 청소년의 성별이 우울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즉, 지지적인 태도가 부족한 한부가족의 여자 청소년들이 심각한 우울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구조 그 자체에 의한 차이보다는 함께 생활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지원으로 기능하는지의 여부와 청소년의 성이 청소년의 우울증상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2) 청소년의 학교적응

선행연구결과들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반영하는 다양한 지표들도 가족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의 청소년들은 학업성취(Formby & Cherlin, 2007; Hatos, & Baltatescu, 2013; Magnuson & Berger, 2009), 성취동기(임연옥·추상엽·임성문, 2007), 고등학교 졸업률(Pong & Ju, 2000), 교육에 대한 열망(Garg, Melanson, &

Levin, 2007) 등 학교적응의 다양한 측면에서 양친가족 청소년보다 적응수준이 낮았다. Sun과 Li(2011)는 Coleman(1988)의 자원결핍모델에 근거하여 학교적응 상에서 나타나는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능성으로 설명한 바 있다. 우선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교육에 투자하는 경제적 자원이 양친가족에 비해 상대적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의 부모들은 양친가족에 비해 다른 부모, 교사, 기타 학교 관계자와의 상호작용에 덜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자녀를 위한 사회적 자원투자를 덜 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일부 연구(Sterrett, Jones, & Kincaid, 2009)에서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투자를 통제할 경우, 한부모가족의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발달적 특성이 유의하게 감소하거나 더 이상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부모가족의 청소년들이 한 부모의 빈자리를 매우기 위해 가사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그 결과로 학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기 때문에 양친부모가족의 청소년에 비해 더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거나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보였을 가능성도 추측해볼 수 있다(오승환, 2001). 그러나 양친가족과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남영옥, 2010; 정묘순, 2011)도 보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부모의 지원을 기대하기보다는 일찍부터 독립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양친가족의 자녀에 비해 학업성취에 대한 갈망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이정은·이주리, 2008)도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교 환경 내에서 또래나 교사 등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오승환(2001)은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양친가족의 자녀들보다 또래로부터 지지를 덜 받지만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에는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Jablonska와 Lindberg(2007)의 연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친구관계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불어 한부가족 청소년과 한모가족 청소년의 문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한모가족의 청소년들이 한부가족이나 다른 가족구조 내의 청소년들에 비해 친구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았고, 친구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한부가족의 청소년들은 양친가족 청소년들에 비해 또래괴롭힘이나 신체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3) 청소년의 신체적·심리적 안녕 및 기타 적응적 특성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이나 학교적응 특성을 비교한 선행연구에 비해 신체적 건강상태를 비교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예외적으로 Bramlett과 Blumberg(2007), Langton과 Berger(2011)는 청소년의 건강상태가 신체적 활동과 능력뿐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발달적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체적 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측정치들과 가족구조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부모가족의 청소년들이 양

친가족의 청소년보다 신체적 건강상태가 덜 양호하여 한부모가족의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가족 수입과 부모의 감독 부족 때문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 쉽고, 질병이나 사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Troxel, Lee, Hall과 Matthews(2014)는 신체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면문제에 있어서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한부모가족의 청소년들이 양친가족의 청소년들에 비해 수면 효율성이 낮고, 취침시간이 불규칙하였으며, 주말의 수면 지속시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건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Troxel 등은(2014) 이러한 차이가 한부모가족의 비일관적인 가족 일과나 부모 감독 부족 등에 기인하였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가족구조가 청소년의 수면문제를 야기하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심리적 안녕의 중요 지표라 할 수 있는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청소년들이 느끼는 양친가족 청소년들에 비해 행복감을 덜 느끼고 자신의 삶에 덜 만족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Gray, Chamrathirong, Pattaravanich, & Prasartkul, 2013; Kwan, 2008). 특히, Kwan의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부재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은 양친가족의 청소년과 유사한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한부모가족과 양친부재가족의 청소년들은 양친가족 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삶에 대해 불만을 느낄 위험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적, 심리적 안녕에 관련된 특성 이외에 한부모 혹은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타 다양한 적응 지표들을 기술한 연구결과들은 부모 중 어느 한 양육자가 부재한다는 것이 곧 청소년의 심각한 적응상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김오남(2004)의 연구결과, 자존감과 문제해결 대처 능력 등에서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이 중간 수준 이상의 적응을 보여 자신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개념을 형성하고 있으며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경은과 이주리(2008)의 연구에서도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양친가족의 자녀와 유사한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 청소년들이 적응에 필요한 개인적인 자원과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족구조와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적응이 가족구조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곧 가족구조 그 자체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연구자들은 가족구조가 부모의 양육행동, 가족의 경제적 자원, 부모의 신체적·심리적 안녕 등 가족 환경, 가족의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학교환경을 비롯한 가족 외 환경의 차이를 가져오며, 그 결과 청소년의 적응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구조와 청소년이 적응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구조에 따라 청소년의 주요 발달적 맥락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특성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가족구조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남자 혹은 여자 청소년만을 대상

으로 하였을 때는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는 몇몇 선행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양친가족의 자녀보다 낮았고(조아미·임영식, 2009) 자살생각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Ang & Ooi, 2004),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Mokruue, Chen과 Elias(2012)의 연구에서는 한모가족의 여자 청소년이 양친가족의 여자 청소년보다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과잉 행동을 보였으나 남자 청소년의 경우 가족구조에 따라 행동문제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구조와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의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형제관계와 전학경험 역시 가족구조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손병덕(201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놀리기나 때리기와 같은 부정적인 형제관계는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해 부모로부터 충분한 감독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 대신 형제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발달시키고 안정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적응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소희와 이경은(2005)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이혼한 후 한쪽 부모와 살더라도 형제가 있는 경우 심리적응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구조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형제유무나 관계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용택, 주현주와 유난영(2014)의 연구에서는 전학경험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초래하고 학교적응을 방해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학과 청소년의 적응 간의 밀접한 관계는 낮은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의한 것일 수 있는데,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경우 이미 부모의 이혼이나 죽음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배가되어 적응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 차이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의 성, 형제유무, 전학 경험 여부를 통제변인으로 포함시켰다.

3. 가족구조와 청소년의 환경적 특성

가족구조는 청소년의 적응뿐 아니라 가족, 학교, 지역사회를 비롯한 청소년의 주요 생활환경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조에 따른 환경특성을 체계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는 많은 연구자들(강부자·김은혜·노충래, 2012; 김현주·이성애, 2011; 남영옥, 2010; Hoffmann, 2006; Jablonska & Lindberg, 2007)이 가족구조별로 부모와 가족의 특성 또는 학교환경 특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차에 대한 이해 없이 가족구조와 청소년의 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가족구조에 따라 청소년의 환경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가족구조 그 자체보다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같은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의 질이나 기능적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몇몇 연구자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포함한 가족환경이 가족구조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김재엽·양세정, 2013; 오승환, 2001; Zeiders et al., 2011). Zeiders 등은(2011) 멕시코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양친가족과 한모가족의 가족기능(경제적 어려움, 어머니의 우울, 가족스트레스)과 부모-자녀관계(감독, 부모-자녀 간 갈등, 부모-자녀관계의 질)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는데, 연구결과 한모가족의 어머니는 양친가족에 비해 우울증상, 가족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며, 부모-자녀간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자녀관계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감독과 부모-자녀관계의 질에서 두 가족구조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한모가족이 더 많은 역경에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관계는 가족구조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Zeiders 등이(2011) 지적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결과는 라틴문화의 강한 가족주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한모가족의 어머니들이 남편이 부재한 가족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을 돌본 결과일 수 있으며, 라틴문화에서 강조되는 집단주의와 확대가족과의 강력한 유대는 한모가족으로 하여금 주위로부터 자녀양육, 정서적지지, 자녀감독 등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자원을 얻을 수 있게 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라틴문화처럼 확대가족의 영향과 집단주의가 강조되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이경희와 유영달(2006)의 연구에서도 Zeiders 등(2011)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네 영역에서 한모가족의 가족기능(건강/유능성, 응집성, 갈등, 의사/표현성)은 양친가족과 비슷한 수준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한모가족이라는 환경이 역기능적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또 다른 국내연구(오승환, 2001)에서는 양친가족 부모들이 한부가족이나 한모가족에 비해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높은 수준의 지원과 통제를 제공하며, 가족기능 면에서 더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문화적 차이와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성별을 고려한 추후 연구를 통해 가족구조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국내외 선행연구자들은 청소년의 적응과 마찬가지로 한부가족과 한모가족은 부모-자녀관계나 가족기능 면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재엽과 양세정(2013)은 한부가족과 한모가족의 자녀양육을 비교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서 감독, 규칙설정, 관여, 친밀감, 의사소통, 친구관계 및 소재 파악, 학부모 역할 수행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모가 한부에 비해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자료분석 결과 한모가족이 한부가족에 비해 부모-자녀 간에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가족기능, 양육행동 이외에 가족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한 가족환경 특성 중의 하나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이다(Barrett & Turner, 2005). 국내외 연구자들(김오남, 2004; 오승환, 2001; Barrett & Turner, 2005; Hemovich et al., 2011 등)은 한부모가

족, 특히 한모가족의 경우 양친가족에 비해 가족수입이 적고,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낮은 사회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관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김오남은(2004) 한모가족을 대상으로 개인,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에 관련된 환경 특성을 연구하였는데, 월평균 가족수입이 평균 117만원으로 연구시점을 감안하더라도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볼 때 한모가족은 가족의 총 수입이 적어 양친가족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가족구조에 따른 경제적 수준의 차이는 청소년의 학습환경이나 지역사회 특성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황선경·서현아·김정주(2010)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자녀들은 방과 후에 주로 집에서 TV나 비디오 시청, 게임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양친가족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방과 후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의 부모들은 학원이나 학습지 등 과외활동을 통해 자녀의 학습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제한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모가족의 경우 어머니 혼자 가족부양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기 쉽고, 그 결과 열악한 환경의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Hoffmann, 2006).

한모가족의 자녀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부모로부터 충분한 감독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거주자들이 사회적 지원과 감독을 제공하는 대안적인 성인의 역할을 제시해줄 수도 있으나, 열악한 조건의 지역사회 내에서는 이와 같이 부모의 역할을 보충해줄 성인을 찾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에서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성인 모델을 관찰할 기회가 없고, 거주자들간의 신뢰도가 결여되어 있으며, 거주자들의 잦은 이주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의 결속력도 약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상과 같은 가족환경과 가족 외 환경에서의 차이는 가족구조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은 추후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의 대상은 2010년부터 시작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3개 패널 중 중1 패널의 4차년도 자료이다. 본 연구의 목적이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청소년의 적응 수준과 그들의 가족 환경과 가족 외 환경 특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패널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인 1차년도 당시의 가족구조와 4차년도 현재의 가족구조가 동일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중1패널 4차년도 연구대상 2,351명 중에서 본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청소년은 총 1,907명이며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이다.

본 연구대상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각각, 49%, 48%로 거의 같다. 이들의 가족 구성은 양친가족 90%, 한부가족 4%, 한모가족 6%로 양친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92%이다. 연구대상 청소년의 절반이상인 62%가 일반고, 18%가 특성화고, 17%가 자율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 1학년에 재학중이며 이들 중 1%에 해당하는 27명이 지난 1년간 전학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47%가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이며, 39%가 고졸이다. 어머니의 학력은 51%가 고졸이며 40%가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이다.

2. 측정도구

1) 가족구조

친부모만을 포함하는 양친, 한부, 한모가족으로 분류되는 가족구조 변인을 구성하기 위해 KCYPS 고1 보호자 대상 질문지의 세 문항을 사용하였다. 첫 문항은 “이 학생과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의 지시문에 ‘1.부모+자녀’, ‘2.한부모+자녀’, ‘3.(한)조부모+자녀’, ‘4.(한)조부모+부모+자녀’, ‘5.(한)조부모+한부모+자녀’, ‘6.기타’ 중 택일로 답하였다. 둘째, “이 학생과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의 지시문에 ‘1.친아버지+친어머니’, ‘2.친아버지만’, ‘3.친어머니만’, ‘4.친아버지+새어머니’, ‘5.친어머니+새아버지’, ‘6.새아버지+새어머니’, ‘7.새아버지만’, ‘8.새어머니만’, ‘부모님 모두 안계심’ 중 택일로 답하였다. 셋째, “이 학생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입니까?”의 지시문에 ‘다문화가정이다’, ‘다문화 가정 아니다’로 응답 하였다. 첫째 문항에서 1과 2로 응답하고 둘째 문항에서 1, 2, 3으로 응답한 경우만을 선정하고 셋째 문항에서 다문화 가정이라고 응답한 사례를 제외하고 가족구조 변수를 구성하였다.

2) 청소년 적응 변인들

(1)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연구대상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은 주의집중의 어려움,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비행경험으로 측정되었다. KCYPS 중3패널 4차(고1 대상) 질문지에서 정서문제를 측정하는 36개 문항과 비행연간행동경험유무를 측정하는 14개 문항, 그리고 비행연간피해경험유무를 측정하는 7개 문항을 각각 합산하여 측정하였으며 이 중 정서문제를 측정하는 36개 문항에 대해서는 구인타당도 분석을 실행하여 문항들이 소속된 요인에 부하되지 않고 두 문항씩 별도의 요인을 구성하며 요인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4문항을 삭제하였다.

4개 문항 삭제 후 총 32개 문항에 대한 구인타당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의 다섯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주의집중 요인 .75, 공격성 요인 .78, 신체증상 요인 .84, 사회적 위축 요인 .88, 우울 요인 .88로 산출되었다.

(2)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학습참여, 학교규칙준수, 교우에 대한 친밀감, 교사에 대한 친밀감, 그리고 성적으로 측정되었다. 구인타당도 분석 결과 학교생활적응 척도 총 20개 문항 중 1개 문항은 모든 요인에 대한 부하량이 낮아서 삭제하였다. 총 19개 문항에 대한 구인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주성분분석과 직교회전을 통해 요인분석한 결과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을 학습참여, 학교규칙준수, 교우에 대한 친밀감, 교사에 대한 친밀감으로 명명하였다.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학습참여 요인 .75, 학교규칙준수 요인 .76이다. 교우에 대한 친밀감 요인 .70, 교사에 대한 친밀감 요인 .81로 산출되었다. 성적은 총 9개 과목에 대해 과목별로 주관적 평가를 5점 평정척도로 답하는 9개 문항의 평균치로 산출되었다.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음악, 미술, 체육, 제2외국어이다.

(3) 비행

비행은 연간비행경험빈도, 연간사이버비행경험빈도, 연간비행피해경험빈도로 측정되었다. 연간비행경험빈도는 14개의 비행경험(흡연, 술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타인을 놀리기, 왕따시키기, 패싸움, 때리기, 협박하기, 돈이나 물건 뺏기, 훔치기, 성관계, 성폭행 혹은 성희롱, 도박)의 합산으로 산출되었다. 연간사이버비행경험빈도는 7개의 사이버 비행경험(채팅/게시판에 거짓정보 올리기, 불법다운, 타인의 아이디나 주민번호사용, 채팅시 성별이나 나이 속이기, 해킹, 채팅/게시판에서 폭력적 언어 사용) 여부의 합산 점수를 사용하였다. 연간비행피해경험빈도는 7개의 비행피해경험(놀림이나 조롱당하기, 왕따당하기, 심하게 맞기, 협박당하기, 돈이나 물건 뺏기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당하기, 심한 욕설 듣기)의 합산으로 산출되었다.

(4) 개인특성

개인특성은 신체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로 측정되었다. 신체적 건강은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의 1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삶의 만족도 3개 문항으로 구성된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의 Cronbach's α 는 .81로 산출되었다.

3) 환경 특성 변인들

(1) 가족환경 특성 변인

가족환경 특성 변인은 부모의 개인 특성, 가족의 경제적 특성, 부모양육방식, 방과후 보호자 부재일수로 측정되었다. 부모의 개인 특성은 부모의 신체적 건강을 묻는 1개 문항, 부모의 삶의 만족도도를 묻는 1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가족의 경제적 특성은 가구 연소득, 월평균 자녀 용돈, 월평균 자녀 방과후 교육비로 측정되었으며 단위는 만원이다. 부모양육방식은 부모양육방식 측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인타당도 분석을 위해서 총 29개 문항을 주성분분석과 직교

회전을 통해 요인분석한 결과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 애정 및 합리적 설명, 과보호 및 비밀관성, 방임, 학대로 명명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는 감독 요인 .77, 애정 및 합리적 설명 요인 .85, 과보호 및 비밀관성 요인 .85, 방임 요인 .72, 학대 요인 .85로 산출되었다. 4점 평정척도이며 평정치는 '1. 매우 그렇다~4. 전혀 그렇지 않다'이다. 방과후 보호자 부재일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모대상질문지에서 "방과후 부모님이 나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집에 혼자 있거나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는 일주일에 며칠입니까?"의 질문에 '1. 거의없다', '2. 1~2일 정도', '3. 3~4일 정도', '4. 거의 매일' 중에서 택일하게 되어 있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2) 가족의 환경 특성 변인

가족의 환경 특성 변인은 학교유형, 방과후 교육경험 유무, 이성친구 유무, 친한 비행친구 수, 연간 문화활동경험 빈도, 연간 체험활동경험 빈도이다. 학교유형은 연구대상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유형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일반고', '자율고와 특목고', '특성화고와 기타'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방과후 교육경험 유무는 부모에게 "이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의 1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성친구 유무는 "학생은 현재 메시지, 이메일, 선물을 주고 받거나 함께 어울려 다니는 등 친하게 지내며 서로 좋아하며 사귀는 이성친구(나와 성별이 다른 친구)가 있습니까?"의 1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친한 비행친구 수는 '지난 1년간 다음의 행동을 한 친한 친구가 몇 명인지 써주십시오'의 지시문에 14개의 비행경험(흡연, 술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타인을 놀리기, 왕따시키기, 패싸움, 때리기, 협박하기, 돈이나 물건 뺏기, 훔치기, 성관계, 성폭행 혹은 성희롱, 도박)을 제시한 문항들에 대한 응답의 합산으로 측정되었다. 연간 문화활동경험 빈도는 "지난 1년간 음악회, 전시회, 연극, 뮤지컬 관람 등의 문화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다면 몇 회인지 써주십시오(한번도 없으면 0으로 응답)"의 지시문에 횟수로 응답하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연간 체험활동경험 빈도는 지난 1년간 9가지 체험활동에 대한 참여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들의 합산으로 측정되었다.

4) 통제변인

가족유형별 청소년의 적응과 환경 특성 비교 분석에 있어서 청소년의 성별, 형제유무, 전학경험을 통제하였다. 형제유무는 "이 학생은 형제자매가 있습니까?"의 지시문에 '있다' 혹은 '없다'로 답하게 되어있으며, 전학경험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전학한 적이 있습니까?"의 지시문에 '있다' 혹은 '없다'로 답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상의 변인들을 변수값과 함께 표1에 정리하였다.

표 1 독립, 통제, 종속변인의 내용, 변인명, 변수값

변인(variable)의 내용		변인명	변수(value)값
독립 변인	1. 가족구조	1.가족구조	1.양친가족 2.한부가족 3.한모가족
	1. 성별	1. 성별	1.남 2.여
통제 변인	2. 형제자매 유무	2. 형제자매 유무	1.유 2.무
	3. 전학경험	3. 지난1년간 전학경험 유무	1.유 2.무
청소년 적응			
종속 변인	1. 정서행동문제	1. 주의집중 어려움 2. 공격성 3. 신체증상 4. 사회적 위축 5. 우울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
	2. 학교생활적응	6. 학습참여 7. 학교규칙준수 8. 교우에 대한 친밀감 9. 교사에 대한 친밀감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
	3. 비행	10. 성적 11. 연간비행경험빈도 12. 연간사이버비행경험빈도 13. 연간비행피해경험빈도	1.매우 잘했다 ~ 5.매우 못했다
	4. 개인 특성	14. 신체적 건강 15. 삶의 만족도	1.매우 건강하다 ~ 4.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
	환경		
	가족환경 특성		
	1. 부모의 개인 특성	16. 부모의 신체적 건강 17. 부모의 삶의 만족도	1.매우 건강하다 ~ 4.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1.매우 만족한다 ~ 4.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2. 가족의 경제적 특성	18. 가구 연소득 19. 월평균 자녀 용돈 20. 월평균 자녀 방과후 교육비	단위 (만원)
	3. 부모양육방식	21. 감독 22. 애정 및 합리적 설명 23. 과보호 및 비밀관성 24. 방임(역문항) 25. 학대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
	4. 보호자 부재	26. 방과후 보호자 부재 일수	1.거의 없다 2.일주일에 1~2일 3.일주일에 3~4일 4.거의 매일
	가족외 환경 특성		
	1. 학교유형	27. 학교유형	1.일반고 2.자율고와 특목고 3.특성화고
	2. 방과후 교육경험	28. 방과후 교육경험 유무	1.유 2.무
	3. 이성친구	29. 이성친구 유무	1.유 2.무
	4. 비행친구	30. 친한 비행친구 수	
	5. 문화활동경험	31. 연간 문화활동경험 빈도	
	6. 체험활동경험	32. 연간 체험활동경험 빈도	

3. 분석방법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빈도분석, 측정도구의 구인타당도는 주성분분석과 직교회전(varimax)을 통해 요인구조를 파악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종속변수가 연속변인일 경우에는 성별, 형제유무, 지난 1년간 전학경험 유무를 통제변인으로 가족구조를 독립변수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명목변인은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청소년의 적응 차이

청소년의 적응을 측정한 15개 변인에 대해 가족구조를 독립변인으로, 성별, 형제자매 유무, 전학경험 유무의 세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를 기술통계치, η^2 , Leven의 동질성 검증 결과와 함께 표2에 제시하였다. ANCOVA 결과 정서행동문제 변인들 중에서 주의집중 어려움과 신체증상 수준에 있어서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주의집중 어려움 수준은 Bonferroni 사후검증 결과 어느 두 집단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신체증상은 양친가족과 한모가족 청소년들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양친가족의 청소년들이 한모가족 청소년들에 비해서 신체증상 수준의 평균값이 높았고 이는 평정치를 고려할 때 신체증상 경험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표 2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 적응 점수 기술통계치와 ANCOVA 결과(공변수: 성별, 형제유무, 전학여부)

적응변인	가족구조	양친가족 (<i>n</i> =1715)	한부가족 (<i>n</i> =79)	한모가족 (<i>n</i> =113)	<i>F</i>	η^2	Leven 검증 ¹⁾
		<i>M</i> (SD)	<i>M</i> (SD)	<i>M</i> (SD)			
정서 행동 문제	1. 주의집중 어려움	16.90(3.05)	16.25(2.91)	16.40(3.17)	3.30*	.00	sig.
	2. 공격성	14.95(2.74)	15.00(3.11)	14.45(3.07)	1.90	.00	
	3. 신체증상	21.43(3.99) ^a	21.39(4.18) ^{ab}	20.31(4.30) ^b	4.06*	.00	
	4. 사회적위축	13.88(3.43)	13.72(3.30)	13.30(3.84)	1.64	.00	
	5. 우울	28.14(5.06)	28.56(4.81)	27.51(5.18)	1.05	.00	
학교 생활 적응	6. 학습참여	11.05(2.42) ^a	11.91(2.63) ^b	11.24(2.78) ^{ab}	5.14**	.01	sig
	7. 학교규칙 준수	10.30(2.39)	10.81(2.82)	10.15(2.70)	1.66	.00	
	8. 교우에 대한 친밀감	7.46(1.69)	7.45(1.70)	7.50(1.67)	.03	.00	
	9. 교사 에 대한 친밀감	10.64(2.90)	11.13(2.76)	10.29(2.88)	1.92	.00	
	10. 성적	3.07(.68)	3.40(.87)	3.22(.85)	1.69	.01	

적응변인	가족구조	양친가족 (<i>n</i> =1715)	한부가족 (<i>n</i> =79)	한모가족 (<i>n</i> =113)	<i>F</i>	η^2	Leven 검증 ¹⁾
		<i>M</i> (SD)	<i>M</i> (SD)	<i>M</i> (SD)			
비행	11. 연간비행 경험빈도	.33(2.79) ^a	.72(1.19) ^b	.35(.81) ^a	8.29***	.01	sig.
	12. 연간사이버 비행경험빈도	.24(.61)	.32(.67)	.33(.69)	1.11	.00	sig.
	13. 연간비행 피해경험빈도	.04(.29)	.04(.25)	.01(.10)	.77	.00	sig.
개인 특성	14. 신체적 건강	3.25(.57)	3.28(.55)	3.12(.66)	2.73	.00	
	15. 삶의 만족도	6.47(1.85)	6.65(1.83)	6.64(1.73)	.92	.00	

* $p < .05$, ** $p < .01$, *** $p < .001$

알파벳 a, b, c는 Bonferroni검증에 의해 $p < .05$ 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1) Leven의 동질성 검증 결과 sig.라고 표시된 변인은 $p < .05$ 에서 집단간 등분산성이 보장되지 않음

학교생활적응 변인들 중에서는 학습참여 수준은 가족구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Bonferroni 사후검증 결과 양친가족과 한부가족 청소년의 학습참여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양친가족 청소년의 학습참여 수준 평균이 한부가족 청소년에 비해 낮았으며 평정치를 고려할 때 양친가족 청소년들의 학습참여 수준이 한부가족 청소년들에 비해 높음을 의미한다. 연간비행경험 빈도에 있어서도 가족구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한부가족 청소년의 비행빈도가 양친가족이나 한모가족 청소년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이들 두 결과에 대해서는 ANCOVA의 기본가정 중 비교집단들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는 Leven의 동질성 검증 결과 집단간 동질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표2 참조) 결과 해석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청소년의 가족환경 특성의 차이

가족환경 특성을 측정한 11개 변인에 대해 가족구조를 독립변인, 성별, 형제자매 유무, 전학 경험 유무의 세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를 실시한 결과를 기술통계치, η^2 , Leven의 동질성 검증 결과와 함께 표3에 제시하였다.

표 3 가족구조에 따른 가족환경특성 점수 기술통계치와 ANCOVA 결과(공변수: 성별, 형제유무, 전학여부)

적응변인	가족구조	양친가족 (<i>n</i> =1715)		한부가족 (<i>n</i> =79)		한모가족 (<i>n</i> =113)		<i>F</i>	η^2	Leven 검증 ¹⁾
		<i>M</i>	(SD)	<i>M</i>	(SD)	<i>M</i>	(SD)			
부모 개인 특성	1. 신체적 건강	1.80	(.51) ^a	1.92	(.62) ^b	2.05	(.63) ^b	12.88***	.01	
	2. 삶의 만족도	1.95	(.50) ^a	2.25	(.78) ^b	2.39	(.68) ^b	46.51***	.05	sig.
가족 경제 특성	3. 가구 연소득	5024.80 (2576.93) ^a		2653.25 (1486.75) ^b		1951.05 (1138.15) ^b		103.78***	.10	sig.
	4. 월평균 자녀용돈	5.23	(3.71) ^a	5.96	(4.39) ^a	4.34	(4.04) ^b	4.06*	.00	sig.
	5. 월평균 자녀방과후 교육비	42.02	(24.60) ^a	25.00	(16.05) ^b	27.20	(14.23) ^b	15.55***	.03	sig.
부모 양육 방식	6. 과보호 및 비일관성	29.87	(5.55)	29.27	(5.37)	30.10	(5.49)	.30	.00	
	7. 합리적 설명및 애정	14.65	(3.54) ^a	16.01	(3.14) ^b	14.46	(3.70) ^a	6.15**	.01	
	8. 감독	5.68	(1.71) ^a	6.20	(2.31) ^b	5.70	(1.56) ^{ab}	3.77*	.00	sig.
	9. 학대	13.34	(2.45)	12.81	(2.50)	13.22	(2.66)	1.50	.00	
	10. 방임	7.65	(2.00) ^a	8.52	(2.01) ^b	7.77	(2.12) ^a	7.56	.01	
	11. 방과후 보호자 부재정도	1.54	(.93) ^a	2.20	(1.31) ^b	1.83	(1.11) ^c	21.41***	.02	sig.

* $p < .05$, ** $p < .01$, *** $p < .001$

알파벳 a,b,c는 Bonferroni검증에 의해 $p < .05$ 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1) Leven의 동질성 검증 결과 sig.라고 표시된 변인은 $p < .05$ 에서 집단간 등분산성이 가정되지 않음

11개의 가족환경 특성 변인들 중에서 부모양육방식의 일부 변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가족환경 특성에 있어서 가족구조간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신체적 건강은 양친가족의 부모가 한부 혹은 한모 가족의 부모들 보다 건강했다. 부모의 삶의 만족도도 양친가족의 부모가 한부 혹은 한모 가족의 부모들 보다 높았다. 가족의 경제적 환경도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양친가족의 가구 연소득과 월평균 자녀 방과후 교육비가 한부, 한모 가족에 비해서 많았다. 월평균 자녀 용돈은 양친가족과 한부가족의 경우 한 달에 평균 5만원 이상으로 5만원이 되지 않는 한모가족에 비해 많았다.

부모양육방식은 5개 하위차원 중에서 합리적 설명 및 애정, 감독, 관심 수준에 있어서 가족구조간 차이를 보였다. 합리적 설명 및 애정은 양친가족과 한모가족이 한부가족에 비해서 더 많이 보였다. 감독은 양친가족이 한부가족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한모가족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관심은 양친가족이 한부가족에 비해 더 많이 보였으며 한모가족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녀 방과후 보호자 부재 정도는 한부가족이 가장 많았고 한모가족, 양친가족 순이었다.

3.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청소년의 가족외 환경 특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가족외 환경특성은 총 6개 변인으로 측정하였는데 학교유형, 방과후 교육경험 유무, 이성친구 유무, 친한 비행친구 수, 연간 문화활동경험 빈도, 연간 체험활동경험 빈도이다. 이들 6개 변인 중에서 학교유형, 방과후 교육경험 유무의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χ^2 검증을 하였으며 친한 비행친구 수, 연간 문화활동경험 빈도, 연간 체험활동경험 빈도의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성별, 형제자매 유무, 전학경험 유무의 세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χ^2 검증 결과는 표4, ANCOVA 결과는 표5에 제시하였다.

표4에 의하면 청소년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유형별 비율에 있어서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양친가족 청소년들은 자율고/특목고(17.6%)나 특성화고(16.6%)에 비해서 일반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비율이 높았고(65.7%) 한부가족은 상대적으로 양친가족에 비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았다(37.7%). 한모가족의 경우도 양친가족에 비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았다(30.6%). 방과후 교육 경험 유무에 있어서도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양친가족의 청소년들은 64.4%가 방과후 교육 경험이 있으나 한부가족은 20.3%, 한모가족은 20.0%가 있어서 한부모가족 청소년들이 양친가족 청소년들에 비해서 방과후 교육 경험이 적었다. 이성친구 유무는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5에 의하면 친한 비행친구수, 연간 문화활동경험 빈도, 연간 체험활동경험 빈도에 있어서 가족구조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 ▶ 가족구조에 따른 가족외 환경 특성 비교를 위한 χ^2 검증 결과

환경변인	가족구조	양친가족 (<i>n</i> =1715) %	한부가족 (<i>n</i> =79) %	한모가족 (<i>n</i> =113) %	χ^2	<i>df</i>
학교유형	일반고	65.7	48.1	53.7	33.28***	4
	자율고/ 특목고	17.6	14.3	15.7		
	특성화고	16.6	37.7	30.6		
방과후교육 경험 유무	있다	64.4	32.9	40.7	54.20***	2
	없다	35.6	67.1	59.3		
이성친구 유무	있다	19.1	20.3	20.0	.10	2
	없다	80.9	79.7	80.0		

*** $p < .001$

표 5 ▶ 가족구조에 따른 가족환경 특성 점수 기술통계치와 ANCOVA 결과(공변수: 성별, 형제유무, 전학여부)

적응변인	가족구조	양친가족 (<i>n</i> =1715) <i>M</i> (SD)	한부가족 (<i>n</i> =79) <i>M</i> (SD)	한모가족 (<i>n</i> =113) <i>M</i> (SD)	<i>F</i>	η^2	Leven 검증 ¹⁾
친한 비행친구수		6.14 (13.20)	6.48 (10.69)	6.45 (11.55)	.13	.00	
연간 문화활동경험 빈도		4.68 (5.70)	4.77 (7.30)	4.05 (4.50)	.76	.00	sig.
연간 체형활동경험 빈도		1.73 (1.72)	1.52 (1.91)	1.45 (1.66)	.61	.00	

1) Leven의 동질성 검증 결과 sig.라고 표시된 변인은 $p < .05$ 에서 집단간 등분산성이 보장되지 않음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변화되어가는 가족구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청소년의 가족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 전반적인 현상에 대한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를 탐색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적응을 “문제행동이 적고, 학교생활에 잘 참여하며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신체적 건강과 삶에 대한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개념화 하였으며, 성별, 형제자매유무, 전학경험여부 등을 통제하고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적응수준은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등 가족구조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청소년의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규칙 준수, 교우와 교사에 대한 친밀감, 성적, 사이버비행, 비행피해, 신체적 건강, 삶의 만족도 수준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신체증상, 학습참여, 비행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한모가족 청소년이 양친가족 청소년에 비해서 신체증상이 많았고, 한부가족 청소년이 양친가족 청소년에 비해서 학습참여도가 낮았다. 또한 한부가족 청소년이 양친가족이나 한모가족 청소년에 비해서 비행경험이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친가족과 한부모가족을 비교한 다수의 국내외 연구결과(오승환, 2001; Amato, 2005; Brown, 2004; Hoffmann, 2006; Jablonska & Lindberg, 2007; Patten et al., 1997)에서 한부모가족 청소년들이 양친가족의 청소년들보다 더 부정적인 발달적 결과나 부적응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결과들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격성(조아미·임영식, 2009)이 가족구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와는 일관성을 보인다.

또한 한부가족 청소년이 한모가족 청소년에 비해 흡연, 음주, 약물사용 등의 비행행동을 비롯한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 연구(오승환, 2001; Bjarnason et al., 2003; Hemovich et al., 2011; Jablonska & Lindberg, 2007; Naevdal & Thuen, 2004)들과도 일치한다. 이는 한부모가족에서 한부와 한모가족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는 Jablonska과 Lindberg(2007)이 지적한 바과 같이 한부와 한모가족을 단순히 한부모가족이라는 동일한 범주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가족환경에 있어서 한부와 한모

의 환경특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가족의 청소년이 한모가족의 청소년에 비해 감독이나 통제를 덜 경험하고 비행에 관련된 모델을 더 많이 관찰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Brown & Rinelli, 2004; Demuth & Brown, 2004)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통계청(2012)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35년에는 2010년에 비해 부부와 자녀는 37%에서 20.3%로 감소하며, 모+자녀의 비율은 차이가 없으나 부+자녀의 비율은 2%에서 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결과 한부가족 청소년이 양친가족과 한모가족 청소년에 비해서 학습참여도가 낮고, 비행경험이 많은 점을 볼 때 점차 증가하는 한부가족의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둘째,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청소년의 가족환경 특성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신체적 건강,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가족의 경제적 특성, 부모양육방식 중에서 합리적 설명과 애정, 감독, 방임 수준, 자녀 방과후 보호자 부재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한부와 한모가족의 부모가 양친가족의 부모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덜 건강했으며 삶의 만족도도 낮았다. 또한 한부가족과 한모가족의 가구 연소득은 양친가족에 비해 적었고 자녀의 방과 후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도 적었다. 그러나 자녀의 용돈은 한부가족이 양친가족과 다르지 않았다. 한모가족은 한부가족과 양친가족에 비해 자녀의 용돈을 더 적게 주고 있었다. 양육방식이 달랐는데 양친가족과 한모가족 부모가 한부가족에 비해 비교적 더 긍정적이었다.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애정을 주는 정도가 양친가족 부모가 한부가족 부모보다 더 높았다. 반면, 한모가족은 양친가족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정도도 양친가족과 한모가족이 한부가족 보다 높았다. 또한 양친가족과 한모가족의 부모가 한부가족의 부모에 비해서 자녀에게 관심을 더 표현했다. 방과 후 보호자 부재정도는 한부가족, 한모가족, 양친가족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오남, 2004; 오승환, 2001; Barrett & Turner, 2005; Hemovich et al., 2011). 또한 본 연구결과는 한모가족의 가족기능이 양친가족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청소년들에게 한모가족이라는 환경이 그리 역기능적이지 않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한다(김재엽과 양세정, 2013; 이경희와 유영달, 2006; Zeiders 등, 2011). 그러나 한부가족의 경우 청소년의 적응수준에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가구 연소득이 양친가족에 비해 적고, 자녀의 방과 후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도 적었으나 용돈은 한부가족이 양친가족과 다르지 않음 점을 볼 때 한부에 대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이혼을 통한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의 성의 조합(sex combination)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부모역할과 청소년의 적응 수준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한모가족에서는 아버지를 대신한 친척 남성의 존재는 아버지의 부재는 가족환경과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정현숙, 1993; Price & McKenry, 1988). 따라서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적응이나 환경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성의 조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사용하는 한계로 인해 이를 통제하지 못하

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한 추후 연구를 통해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과 환경 특성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청소년의 가족외 환경 특성은 재학중인 학교유형과 방과후 교육경험에 있어서 달랐다. 양친가족 청소년들은 한부모가족 청소년들에 비해 일반고에 더 많이 재학했고 한부모가족 청소년들은 특성화고에 더 많이 재학했다. 또한 방과후 교육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양친가족이 가장 많았고 한모가족, 한부가족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이성친구유무, 비행친구수, 문화활동경험, 체험활동경험 빈도는 다르지 않았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학교적응 지표로 이론적 배경에서 지적하였듯이 학업성취(Formby & Cherlin, 2007; Hatos, & Baltatescu, 2013; Magnuson & Berger, 2009), 성취동기(임연옥·추상엽·임성문, 2007), 고등학교 졸업률(Pong & Ju, 2000), 교육에 대한 열망(Garg, Melanson, & Levin, 2007) 등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가족구조에 따라 재학중 학교유형과 방과 후 교육 경험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유형은 학업성취나 교육에 대한 열망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선행연구에서 학교적응 지표로 선정된 변인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할 때 학교유형도 통제되어야 할 변수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결과는 방법론적인 면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통제변수의 중요성이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연구결과의 차이가 가족구조와 관련된 특성에 대한 통제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탐색적 연구로 지칭한 것은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해 많은 중요한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연구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1차에서 4차에 이르기까지 가족구조의 변화유무, 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적(패널 자료의 경우 주관적 성적), 한부모가족에서 부모와 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자녀의 성의 구성, 현재의 가족구조의 지속기간, 한부모가족에서 부재한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동성의 친척 유무 등 선행연구들에서 중요하게 지적된 중요변인들을 높은 무응답율과 혹은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인해 통제하지 못하였다.

특히 양친가족이나 한부모가족의 경우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가족 환경 특성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들 유형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었으나 한부와 한모가족이면서 조부모와 동거하는 사례가 매우 적어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또한 부모의 이혼 증가로 인한 65세 이상인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도 증가하고 있어서 가족구조의 주요 유형으로 포함시켜야 했으나 조손가족의 사례수가 적어 제외하였다. 향후 청소년패널 자료를 구성할 때 이러한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지적인 중요한 통제변인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질문지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가족구조를 표집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선정한 세 가지 가족구조는 양친가족 1,715명, 한부가족 79명, 한모가족 113명으로 사례수의 차이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평균차 분석에서 요구되는 비교집단들의 등분산성 가정

검토를 위해 Leven의 동질성 검증을 하였으며, 일부 변수들의 동질성이 보장되지 않아 결과 해석시 유의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가 전국 규모의 표집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족유형별 사례의 차이가 실제 차이를 반영했을 가능성 없지 않다.

둘째, 중요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의 중요성이다. 사회과학분야 연구에서 다루는 변수들은 가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방법론적인 정교함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는 많은 연구들에서도 변수의 개념에 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을 문제 행동이 적고, 학교생활에 잘 참여하며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신체적 건강과 삶에 대한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개념화하였다. 연구자들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 적응을 개념화 하고 연구를 수행하지만, 같은 개념이 항상 동일하게 조작화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류민영과 정현숙(2014)의 연구에서 부모양육방식,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자료를 사용한 권세원 등(2012), 김영민과 임영식(2013), 손보영 등(2012)의 연구와 부모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측정문항 구성의 상이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류민영과 정현숙의 연구(2014)에서는 패널자료에서 사용한 부모양육방식 척도를 요인분석하여 ‘애정적’, ‘합리적 설명’, ‘일관적 태도’ 라는 세 요인으로 한 잠재변수를 사용하였다. 반면 권세원 등(2012)은 기존척도에서 애정적 양육행동 3개 문항만을 활용하여 측정변수로, 김영민과 임영식(2013)은 기존척도에서 과잉기대와 과잉간섭 두 요인으로 한 잠재변수를, 손보영 등(2012)은 전체 척도 중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 3개의 요인을 각각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양육방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의 측정도구 문항구성이 달라 연구결과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의 측정도구에서 설명하였듯이 중3패널 4차(고1 대상) 질문지에서 제시된 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이 한 요인, 애정과 합리적 설명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도 한 요인에 부하되어, 부모양육방식을 감독, 애정 및 합리적 설명, 과보호 및 비밀관성, 관심, 학대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이상의 연구들은 동일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부모양육방식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측정문항들의 차이로 인해 연구결과를 비교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처럼 개념정의와 측정도구의 구성내용에 따라 연구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연구마다 2차자료 활용 시 기본구조를 따르지 않거나, 기준 없이 측정도구의 일부 하위요인만 뽑아서 쓰는 것은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척도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론적 관점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을 정의하고, 성별, 형제자매 유무, 전학유무 등을 통제하여 연구하였으며, 양친, 한부, 한모가족 등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수준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 전반적인 현상에 대한 다른 차이에 대한 탐색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각 가족구조 안에서 청소년의 적응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들과 이들의 관계를 조절 혹은 매개하는 변인들의 효과

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청소년 발달에 있어서 기본적인이고 주요한 환경인 가족의 구조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부자 · 김은혜 · 노충래(2012). 한부모가정의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부자-모자가정의 비교. **학교사회복지**, 23, 29-50.
- 구인회(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5-32.
- 권세원 · 이해현 · 송인한(2012). 청소년 행복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탄력성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3(2), 39-72.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민강, 이희영, 최태진(2012).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 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아동교육**, 21(2), 75-90.
- 김선희, 김경연(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적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세원(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열, 최지영, 이가영(2006).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1,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예성(2014). 조손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상태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문화포럼**, 37, 8-30.
- 김오남(2004).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 변인 연구. **인간발달연구**, 11(3), 43-62.
- 김원경, 전제아(2010). 국내 학술지에 나타난 조손 관련 연구 동향: 1991년도부터 2010년까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53-671.
- 김재엽 · 양세정(2013).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성별과 한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1), 1-22.
- 김현숙(2011). 생태체계적 관점에 따른 아동, 청소년의 신체적, 사회정서적, 인지적 발달 영향요인: 여성한부모와 양부모 자녀의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4), 175-201.
- 김현주 · 이성애(2011).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한부모 가족과 양부모 가족의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3(3), 215-241.
- 남영옥(2010).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비교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3), 219-243.
- 남현주, 윤형석, 이태영, 신채영, 이동훈(2013).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129-168.
- 류민영 · 정현숙(2014).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감 모형에 대한 다집단 분석. 미간행논문.
- 박미자, 이창식(2008). 조손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0(1), 93-114.
- 박지혜 · 김근향 · 고영건(2014). 한부모가정 및 일반가정 청소년의 불안, 사회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5(2), 115-144.

- 손병덕(2012). 한부모 가족 아동의 문제행동: 형제관계와 인터넷 게임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9(9), 215-229.
- 오승환(2001).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가족기능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연구: 양친가족, 편부가족, 편모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2, 77-107.
- 윤우석(2011).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양육과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검증. **형사정책연구**, 22, 1, 137-172.
- 이경은 · 이주리(2008).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관한 연구: 양부모 가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5(2), 1-16.
- 이정희 · 유영달(2006). 동거부모형태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성과 심리적 안녕. **가족과 문화**, 18(2), 115-138.
- 이윤화(2010). 조손가족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낙인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137-158.
- 이용택 · 주현주 · 유난영(2014). 청소년의 전학경험과 학교생활부적응의 관계에서 우울 · 불안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39, 92-113.
- 이주리(2008).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내면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조절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29(3), 115-125.
- 임연옥 · 추상엽 · 임성문(2007). 가족구조가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비관성의 조절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5(2), 67-79.
- 정모순(2011).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가정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 **청소년 문화포럼**, 26, 191-228.
- 정현숙(1993).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적응. **아동학회지**, 14(1), 59-75.
- 정현숙(2011). 가족의 혁명적 변화와 대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1), 55-70.
- 조경미 · 주혜주(2003). 이혼가정 청소년과 양부모가정 청소년의 정신 건강, 행동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2(4), 543-551.
- 조보환, 임경희(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아미 · 임영식(2009). 가족구조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지위비행의 차이. **미래청소년학회지**, 6(1), 137-154.
- 조재구(1996). **마지못해 한 이혼 뜻밖의 행복**. 석필.
- 주소희 · 이경은(2005). 이혼 후 양육형태에 따른 아동의 심리행동 적응문제에 관한 연구: 부모보호와 시설보호아동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7(3), 123-153.
- 통계청(2013). **장래가구추계 2010-2035** 보도자료.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선경 · 서현아 · 김정주(2010). 한부모가정 아동의 방과 후 일상생활 실태 연구. **아동교육**, 19(3), 91-104.
- 황은숙(2007).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고충 비교연구. **한부모가정연구**, 2, 1, 1-20.
- 현은민(2008).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여성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4), 59-84.

- Amato, P. R. (2005). The impact of family formation change on the cognitive, social, and emotional well-being of the next generation. *Future of Children*, 15(2), 75 - 96.
- Ang, R. P., & Ooi, Y. P. (2004). Impact of gender and parents' marital status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50(4), 351-360.
- Averdiijk, M., Malti, T., Eisner, M., & Ribeaud, D. (2012). Parental separation and child aggressive and internalizing behavior: An event history calendar analysi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43, 184-200.
- Bjarnason, T., Andersson, B., Choquet, M., Elekes, Z., Morgan, M., & Rapinett, G. (2003). Alcohol culture, family structure and adolescent alcohol use: Multilevel modeling of frequency of heavy drinking among 15 - 16 year old students in 11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64, 200 - 208.
- Barrett, A. E., & Turner, R. J. (2005). Family structure and mental health: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family process, and social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8(2), 156-169.
- Bramlett, M. D., & Blumberg, S. J. (2007). Family structure and children's physical and mental health. *Health Affairs*, 26(2), 549 - 558.
- Brown, S. L. (2004). Family structure and child well-being: The significance of parental cohabi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2), 351 - 367.
- Brown, S. L., & Rinelli, L. N. (2010).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es, and adolescent smoking and drinking.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2), 259-273.
- Cherlin, A. J., Chase-Lansdale, P. L., & McRae, C. (1998). Effect of parental divorce on mental health throughout the life course. *American Psychological Review*, 63, 239-249.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 - 120.
- Demo, D. H., & Cox, M. J. (2000).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A review of research in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876 - 895.
- Demuth, S., & Brown, S. L. (2004).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es, and adolescent delinquency: The significance of parental absence versus parental gende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1, 58 - 81.
- Fomby, P., & Cherlin, A. J. (2007). Family instability and child well-be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2, 181 - 204.
- Garg, R., Melanson, S., & Levin, E. (2007). Educational aspirations of male and female adolescents from single-parent and two biological parent families: A comparison of influential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8), 1010-1023.
- Gray, R. S., Chamrathirong, A., Pattaravanich, U., & Prasartkul, P. (2013). Happiness among adolescent students in thailand: Family and non-family fac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0(2), 703-719.
- Hatos, A., & Baltatescu, S. (2013). Family structure and school results: Multivariate analysis of answers of teenage students in a Romanian city. *Child Indicators Research*, 6(2), 281-295.

- Hemovich, V., Lac, A., & Crano, W. D. (2011). Understanding early-onset drug and alcohol outcomes among youth: The role of family structure, social factors, and interpersonal perceptions of use. *Psychology Health & Medicine, 16*(3), 249-267.
- Hernandez, D., & Myers(2003). Revolutions in children's lives. In A. Skolnick & J.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12th ed.)(pp. 263-283). Boston: Allyn & Bacon Pub.
- Hoffmann, J. P. (2006). Family structure, community context,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6), 867-880.
- Jablonska, B., & Lindberg, L. (2007). Risk behaviours, victimisation and mental distress among adolescents in different family structures. *Social Psychiatry & Psychiatric Epidemiology, 42*(8), 656-663.
- Kelly, J. B.(2000). Children's Adjustment in Conflicted Marriage and Divorce: A Decade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9*(8), 963 - 973.
- Kelly, J. B., & Emery, R. E.(2003). Children's adjustment following divorce: Risk and resilience perspectives. *Family Relations, 52*(4), 352 - 362.
- Kwan, Y. K. (2008). Life satisfaction and family structure among adolescents in Hong Ko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84*(1), 59-67.
- Langton, C. E., & Berger, L. M. (2011). Family structure and adolescent physical health, behavior, and emotional well-being. *Social Service Review, 85*(3), 323-357.
- Magnuson, K., & Berger, L. M. (2009). Family structure states and transitions: Associations with children's well-being during middle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 575 - 591.
- Mokrue, K., Chen, Y. Y., & Elias, M. (2012). The interaction between family structure and child gender on behavior problems in urban ethnic minority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6*(2), 130-136.
- Naevdal, F., & Thuen, F. (2004). Residence arrangements and wellbeing: A study of Norwegian adolescent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5*, 363 - 371.
- Patten, C. A., Gillin, J. C., Farkas, A. J., Gilpin, E. A., Berry, C. C., & Pierce, J. P. (1997). Depressive symptoms in California adolescents: Family structure and parental support.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0*(4), 271-278.
- Pong, S. L., & Ju, D. B. (2000). The effects of change in family structure and income on dropping out of middle and high school. *Journal of Family Issues, 21*, 147 - 169.
- Price, S. J., & McKenry, P. C.(1988). *Divorce*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Sieh, D. S., Visser-Meily, J. M. A., & Meijer, A. M.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depressive symptoms, family type, and adolescent functioning. *Plos One, 8*(11), 1-9.
- Sterrett, E. M., Jones, D. J., & Kincaid, C. (2009). Psychosocial adjustment of low-income african american youth from single mother homes: The role of the youth-coparent relationship.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8*(3), 427-438.
- Sun, Y. M., & Li, Y. Z. (2011). Effects of family structure type and stability on children's academic performance trajector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3), 541-556.

- Troxel, W. M., Lee, L., Hall, M., & Matthews, K. A. (2014). Single-parent family structure and sleep problems in black and white adolescents. *Sleep Medicine, 15*(2), 255-261.
- Vanassche, S., Sodermans, A. K., Matthijs, K., & Swicegood, G. (2014). The effects of family type, family relationships and parental role models on delinquency and alcohol use among flemish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3*(1), 128-143.
- Walters, J., & Stinnett, N.(1971). Parent-child relationships: A decade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3*(1), 70-111.
- Zeiders, K. H., Roosa, M. W., & Tein, J. Y. (2011). Family structure and family processes in Mexican-American families. *Family Process, 50*(1), 77-91.

청소년의 휴대폰 의존도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부모관심의 시간의존적 효과 연구

허균*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KCYPS 중1패널의 4년간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청소년의 휴대폰 의존도 변화궤적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부모관심 변인의 효과가 시간에 관계없이 독립적인지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이르기까지 휴대폰 의존도는 점점 증가하다가 방향이 바뀌는 이차곡선 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휴대폰 의존도 변화 궤적의 개인차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간의존변수인 부모관심 변인은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휴대폰 의존도 변화, 부모관심, 시간의존모형

I.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정보기기들의 확산으로 인해 교육 환경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 중 하나로 학생들의 휴대폰 보유와 사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휴대전화 이용과 관련된 ‘200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26.3%, 중학생은 81.8%, 고등학생은 93.3%가 휴대전화를 이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데이터뉴스, 2010.3.8.; 허균, 2013 재인용). 청소년의 휴대전화보유율은 2007년 약 68%에서 2011년 90%로 상승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통계 결과들은 많은 청소년들이 이미 휴대폰을 휴대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휴대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최근에 진화된 스마트폰의 경우 전화 통화 뿐만 아니라 음악, 사진, 동영상, 소셜기능(카톡, 페이스북 등) 등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휴대폰 보유 및 사용률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휴대폰 의존도 증가, 휴대폰 중독, 시력저하, 자세변형, 뇌기능 장애, 집중력 저하, 부모와의 대화 단절, 수업 방해 등의 다양한 형태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휴대폰 의존도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그 위험성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설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18%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보고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의

* 부경대학교 수해양산업교육학과 부교수 gyunheo@pknu.ac.kr

휴대전화 중독비율은 25.2%로 성인의 9.4%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청소년들의 휴대폰 의존이나 중독은 부모의 관심을 통해 적절히 지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휴대폰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지만(허균, 2013), 부모관심이 높거나 긍정적 양육태도 성향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은 것을 보고(김지혜, 2014; 이어리, 이강이, 2012;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2012)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매년 성장해 나가는 동안 부모는 항상 동일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청소년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성장하는 기간 동안 부모로부터 독립과 자율을 추구하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줄어든다(이시은, 이재창, 2005). 휴대폰 사용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통제되거나 제한되어진 초등학교 시절과는 다른 형태의 자율적 사용을 원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청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스스로의 판단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반면 부모 관점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기(Berk, 2009) 때문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들의 성장에 따른 환경과 자율성 추구 성향의 변화는 부모관심이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성장 시기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치 초등학생일 때 휴대폰을 주고 이를 부모가 갖는 관심과 중고등학교 때 관심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모관심은 학생의 성장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의존적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종단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함께 부모관심이 통제된 상황에서 휴대폰 의존도의 변화가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이르는 동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성별, 학교적응, 부모양육태도 및 애착과의 관계, 자기조절학습능력이나 학업성취의 관계를 탐색해 왔으나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Augner & Hacker, 2012; 성은모, 진성희, 2012;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2012)은 동일시점의 횡단적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최근 연구들(허균, 2013)에서는 3년간의 변화를 고차잠재모형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지만 분석이 세 시점 뿐이라 선형적 변화만 추정이 가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네시점을 바탕으로 휴대폰 의존도 변화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부모관심 변인이 시간 의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한 후 이를 포함한 모형으로 확장하여 그 관계를 탐색하고, 아울러 부모관심 변인이 통제되었을 때 휴대폰의존도 변화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시간에 따른 휴대폰 의존도 변화를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함수는 무엇인가?

둘째, 청소년들의 시간에 따른 휴대폰 의존도 변화에 있어 개인차는 있는가?

셋째, 휴대폰 의존도 변화에 있어 부모관심은 청소년의 발달 시점에 따라 시간의존적 효과를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중1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패널 데이터는 2009년 4월 기준 전국 중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방식(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으로 표집 후 2010년에 제1차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 패널의 원표본수는 2,351명으로써 현재까지 매년 반복 추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1패널의 1차, 2차, 3차, 4차 자료를 활용하였고, 최초 대상자는 1차년도 자료 기준 중1 학생인 2,351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휴대폰 의존도

휴대폰 의존도는 의미 그대로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 정도가 높을 경우 인터넷 중독과 같은 휴대폰에 의존하는 중독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휴대폰 의존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는 이시형, 김학수, 나은영(2002)가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고 있다. 설문문항에는 휴대폰 사용에 대한 의존, 심리적 의존, 사용중단시 불안감 등과 같은 7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이뤄져 있다. 해석편의를 위하여 코딩변환을 통해 그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폰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문항의 신뢰도 Cronbach alpha는 1차년도 .854, 2차년도 .898, 3차년도 .895, 4차년도 .884로 나타났다.

2) 부모관심

부모관심은 부모가 학생에게 관심을 갖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를 그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가 갖는 자식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허묘연(2000), 김세원(2003) 등이 구성한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부모의 양육방식을 묻는 다양한 문항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문항 중 부모관심과 관련이 있는 4문항을 선정하였다. 문항은 부모님이 다른 일보다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고 묻는지, 또 학생의 몸, 옷, 이불 등을 신경쓰는지, 그리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지 등의 네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척도로 이뤄져 있다. 해석편의를 위하여 코딩변환을 통해 그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관심이 높은 것을 의미할 수 있게 재구성하였다. 해당문항들의 수집은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에 수집되었다. 문항의 신뢰도 Cronbach alpha는 2차년도 .770, 3차년도 .758, 4차년도 .718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Kline, 2005)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 휴대폰 의존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부모관심 변인의 시간의존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통계적 검정 방법이 활용되었다.

첫째, 4차 년도에 이르는 휴대폰 의존도 변화를 분석하기 잠재성장모형 중 무변화모형, 선형 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고차잠재성장모형(홍세희, 유숙경, 2004)등을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모형을 탐색하였다. 최적 모형 선정 후 분석을 통하여 휴대폰 의존도 변화의 초기치, 변화량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둘째, 부모관심 변인을 시간효과모형(이주리, 2010)을 가진 조건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부모관심 변인을 시간의존적 영향을 포함하는 모형과 시간독립적 모형을 설정하여 최적의 모형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최초 가졌던 연구문제에 대해 확인하였다.

셋째, 모형 평가를 위해 모형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카이스퀘어는 표본크기에 민감함으로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TLI, RMSEA, CFI 지수를 활용하였다. 무조건 모형을 통하여 최적의 성장모형을 찾고, 조건 모형을 통해 관심변인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한 후 모형이 적합한지를 적합도 지수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결측치로 인해 발생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방법(Arbuckle, 1996)을 적용하였으며, 분석 소프트웨어는 SPSS, AMOS, Mplus를 활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하기 전 변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휴대폰 의존도와 부모관심의 각 연도별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확인해 보았다. <표 1>은 휴대폰 의존도와 부모관심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다. <표 1>에서 휴대폰 의존도와 부모관심의 최소-최대값은 1에서 4이다.

표 1 ▶ 휴대폰 의존도와 부모관심의 평균과 표준편차

	휴대폰 의존도 1차(2010)	휴대폰 의존도 2차(2011)	휴대폰 의존도 3차(2012)	휴대폰 의존도 4차(2013)	부모관심 2차(2011)	부모관심 3차(2012)	부모관심 4차(2013)
평균	2.055	2.308	2.408	2.376	3.130	3.155	3.065
표준편차	.665	.750	.727	.677	.591	.557	.500

〈표 2〉는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부모관심은 휴대폰의존도와 모든 시기에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 휴대폰의존도와 부모관심의 상관관계

	1. 휴대폰 의존도 1차 (2010)	2. 휴대폰 의존도 2차 (2011)	3. 휴대폰 의존도 3차 (2012)	4. 휴대폰 의존도 4차 (2013)	5. 부모 관심 2차 (2011)	6. 부모 관심 3차 (2012)	7. 부모 관심 4차 (2013)
1	1						
2	.522**	1					
3	.462**	.539**	1				
4	.382**	.420**	.499**	1			
5	-.049*	-.020	-.047*	-.037	1		
6	-.079**	-.049*	-.080**	-.097**	.375**	1	
7	-.047*	-.024	-.071**	-.126**	.324**	.395**	1

** $p < .01$, * $p < .05$

1. 무조건모형

휴대폰 의존도 변화 궤적을 탐색하기 위해 무조건모형을 설정한 후 가장 적합한 모형을 탐색해 보았다. 휴대폰 의존도는 매년 7개의 문항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측정변인 설정 방식에 따라 적합도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의 세 시점 연구에서는 변인을 합쳐서 평균값을 사용하는 일명 꾸러미 변수를 활용하였을 경우 적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고차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선형모형의 적합도를 높여 결과를 보고한 연구사례(허균, 2013)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 1에서 고1까지의 네 시점 자료를 바탕으로 휴대폰 의존도 변화 궤적을 탐색하였다. 무조건 모형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모형을 비교하였다. 모형들에는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고차잠재선형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고차잠재이차변화모형으로 구성되었다. 일반변화모형은 꾸러미 변수를 활용하였다.

〈표 3〉은 이러한 잠재성장모형들의 적합도 정도를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휴대폰 의존도의 변화 궤적을 가장 설명하는 모형은 이차변화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차변화모형을 중심으로 휴대폰의존도 변화 궤적의 특성들을 탐색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3 ▶ 휴대폰 의존도 변화의 무조건 모형 탐색

모형유형	χ^2	df	TLI	CFI	RMSEA	비고
무변화모형	733.248	11	.698	.668	.167(.157, .178)	모형 1-1
일차변화모형	270.927	8	.849	.879	.118(.106, .131)	모형 1-2
이차변화모형	13.958	4	.989	.995	.033 (.015, .052)	모형 1-3
고차잠재성장 일차변화모형	2565.509	307	.908	.930	.056(.054, .058)	모형 1-4
고차잠재성장 이차변화모형	2419.207	303	.913	.935	.055(.053, .057)	모형 1-5

표 4 ▶ 휴대폰 의존도 변화의 잠재성장모형(이차변화모형) 분석 결과

	평균추정값	표준오차	평균유의도	분산추정값	표준오차	분산유의도
초기치	2.048	.014	$p < .001$	.215	.015	$p < .001$
변화율	.320	.017	$p < .001$	.054	.027	$p = .043$
이차변화율	-.070	.006	$p < .001$	.007	.003	$p = .011$
초기치-변화율	.060	.014	$p < .001$			
변화율-이차변화율	-.018	.008	$p = .036$			
초기치-이차변화율	-.026	.004	$p < .001$			

〈표 4〉와 같이 설정되어진 휴대폰 의존도 변화의 잠재성장모형(이차변화모형)으로부터 4차년도(중1-고1)에 걸친 휴대폰 의존도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휴대폰 의존도는 1차년도(중1)에서 3차년도(중3)까지는 증가하다가 4차년도(고1)에 방향이 꺾이는 이차함수 형태의 변화 궤적을 나타낸다. 〈표 4〉와 같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휴대폰의 의존도 변화의 초기치는 2.048이며, 변화율은 .320, 이차변화율은 -.07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휴대폰 의존도 변화궤적은 중학교 때 증가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소 감소하는 이차그래프 형태로 나타났다. [그림 1]은 매년 휴대폰 의존도를 추정하여 그 점수를 선으로 연결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의 (A)는 10개의 임의 표본 추출 그래프를 나타내며, (B)는 전체 추정 그래프와 평균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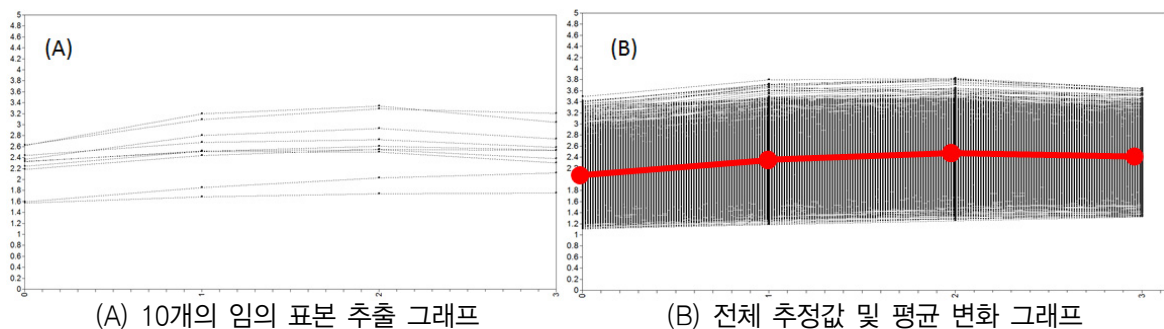


그림 1. 휴대폰 의존도 변화 궤적 추정 변화 그래프

둘째, 휴대폰 의존도 변화 궤적의 개인차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4>의 분산추정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과를 통해 초기치의 분산은 .215 ($p<.001$), 변화율의 분산은 .054 ($p=.043$), 이차변화율의 분산은 .007($p=.011$)로 유의하였다. 이로부터 휴대폰 의존도 변화궤적은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모형을 통해 이러한 개인차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존변수로 부모관심 변수를 도입하여 조건모형으로 설정하였다.

2. 조건모형: 부모변인 시간의존모형

휴대폰 의존도 변화의 무조건 모형으로부터 시간의존변수로 부모관심 변수를 도입하여 조건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시간의존변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측변인의 영향을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부모관심 변수는 학생이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성장할 때 매 시점마다 그 효과가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간의존변수의 시간독립적 효과와 시간의존적 효과 모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t 시점의 부모관심효과가 t 시점의 휴대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효과와 $t+1$ 시점의 휴대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연효과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적의 휴대폰의존도 변화 조건 모형 탐색을 위해 시간의존적 변수의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부모관심이 휴대폰 의존도에 동시효과를 가진 시간의존적 변수 모형(모형 2-1), 시간의존적 변수의 독립효과 모형(모형2-2), 지연효과를 가진 시간의존적 변수 모형(모형 2-3), 동시효과와 지연효과를 동시에 가진 모형(모형2-4)의 네 가지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조건모형으로 가능한 가장 적절한 모형을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부모관심 시간의존변수에 따른 휴대폰의존도 변화의 조건 모형 탐색

모형 유형	χ^2	df	TLI	CFI	RMSEA	비고
시간의존적 변수 모형(동시효과)	35.367	13	984	993	027(017, 038)	모형2-1
시간의존변수의 시간독립효과모형	61.942	15	971	984	036(027, 046)	모형2-2 동일화제약
시간의존적 변수 모형 (지연효과)	34.797	10	979	990	032(021, 045)	모형2-3
시간의존적 변수 모형 (동시지연효과)	34.475	11	980	992	030(019, 042)	모형2-4

조건모형 선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결정되었다.

첫째, 부모관심 변수의 시간의존적 변수와 시간의존적 변수의 시간독립적 효과모형 비교(모형 2-1 vs 모형 2-2)를 통해 모형2-1이 선택되었다. 이는 부모관심의 시간의존적 변수가 가지는 시간독립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되었다. 모형2-1과 모형2-2는 서로 내재된 관계로 카이

스퀘어 차이검정을 통해 모형2-1이 선정되었다. 또한 적합도 지수 비교를 통해서도 모형2-1의 시간의존적변수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선택되었다. 이를 통해 부모관심 변인은 매시간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의존적 모형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부모관심 변인의 시간의존적 변수의 동시효과와 지연효과 모형비교(모형2-1 vs 모형2-3)를 통해 모형2-1이 선택되었다. 이때 지연효과란 해당년도의 부모관심이 다음연도의 휴대폰 의존도에 영향을 주는 모형을 말한다. 두 모형은 내재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카이스퀘어 차이검정은 불가능하고 모형적합도 비교를 통해 최적의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표 5>의 결과를 통해 모형2-1이 적절한 것으로 선택되었다.

셋째, 부모관심 변인의 시간의존적 변수의 동시효과 모형과 동시지연효과 모형의 비교(모형2-1 vs 모형2-4)를 통해 모형2-1이 선택되었다. 모형2-1과 모형2-4는 서로 내재된 관계로 카이스퀘어 차이검정을 통해 모형2-1이 선정되었다. 또한 적합도 지수 비교를 통해서도 모형2-1이 적절한 것으로 선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부모관심 변인의 시간의존적 변수를 고려한 휴대폰의존도 변화 탐색을 위한 모형으로 모형2-1을 최종 조건모형으로 설정하였다.

휴대폰 의존도 변화에 있어 부모관심은 청소년의 발달 시점에 따라 시간의존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2-1을 최종 조건모형으로 잠재성장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의존변수인 부모관심 변인은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2에서는 휴대폰 의존도에 부모관심이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3, 고1 시기에서는 모두 부모관심이 휴대폰의존도를 낮추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값 비교를 통해 중3때는 -.032인 반면 고1 때는 -.102로 그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 시간의존변수를 포함한 휴대폰의존도 변화 잠재성장 모형

	평균추정값 (표준화값)	표준오차	평균유의도	분산추정값	표준오차	분산유의도
초기치	2.046	.014	$p < .001$	.216	.015	$p < .001$
변화율	.229	.081	$p < .005$	.054	.027	$p = .043$
이차변화율	.008	.030	$p = .802$	.007	.003	$p = .012$
초기치-변화율	.060	.014	$p < .001$			
변화율-이차변화율	-.017	.008	$p = .038$			
초기치-이차변화율	-.026	.004	$p < .001$			
부모관심2차→ 휴대폰의존2차(중2)	.006 (.005)	.016	$p = .725$			
부모관심3차→ 휴대폰의존3차(중3)	-.042 (-.032)	.017	$p = .017$			
부모관심4차→ 휴대폰의존4차(고1)	-.138 (-.102)	.025	$p < .001$			

둘째, 시간의존변수인 부모관심 변인을 통제한 후 휴대폰의존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치는 2.046 ($p<.001$)와 변화율은 .229 ($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이차변화율은 .008 ($p=.80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부모관심 변인을 통제한 후의 휴대폰의존도 변화는 선형증가는 변화궤적을 나타내었다. 초기치는 2.048에서 2.046으로 낮아졌고, 선형 기울기도 .320에서 .229로 비교적 완만하게 변하였다. 하지만 이차 변화율은 유의하지 않게 되어 부모관심을 통제할 경우 휴대폰의존도 변화는 줄지 않고 여전히 증가하는 변화궤적을 나타내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KCYPS 중1패널의 4년간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청소년의 휴대폰 의존도 변화궤적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부모관심 변인의 효과가 시간에 관계없이 독립적인지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이르기까지 휴대폰 의존도는 점점 증가하다가 방향이 바뀌는 이차곡선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차잠재성장모형을 통해 3년간의 종단자료를 분석한 선형증가모델 결과(허균, 2013)에 고등학교 1학년 자료를 추가하여 보다 정확한 이차변화함수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휴대폰 의존도 변화 궤적의 개인차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형모델의 개인차가 유의한 결과(허균, 2013)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이차기울기에서도 유의한 개인차가 나타난 점이 다른 점이다. 개인차가 유의하였기 때문에 조건모형을 통해 이러한 개인차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관심 변인의 시간효과에 관심을 두어 이를 확인하였다.

셋째, 시간의존변수인 부모관심 변인은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적 구조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양육태도나 부모요인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이여리, 이강이, 2012;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2012)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의 특이한 점은 종단적 연구에서 시간의존적 변수로서 영향관계를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중2 때는 부모관심 변인이 휴대폰 의존도를 줄이는데 유의하지 않은 반면 중3과 고1로 가면서 그 영향력은 커졌다. 또, 부모관심 변인을 통제한 후의 휴대폰의존도 변화는 선형증가는 변화궤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종단 연구들에서 부모관심 관련 변인들 사용에 있어 시간독립적 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는 부분에 대한 주의와 분석에 있어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관심 변인을 넘어 그 범위를 교우관계로 확대하여 서로 간의 종단적 구조적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요인과 친구요인을 동시에 고려하거나 매개적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제한된 문항으로 변인 설정

을 하게 되어 1차년도 부모관심 변인을 설정하지 못했다. 이는 조사 단계에서 빠져있기 때문이었다. 조사자료 수집 단계에서 연차적으로 모든 변인들을 수집할 수 있게 설계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혜. (2014). 부모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이 휴대전화의존을 매개로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39, 42-61.
- 데이터뉴스. (2010.3.08). 휴대폰 없이는 못살아. <http://www.datanews.co.kr>에서 2010.03.08.인출.
- 서울시교육청. (2013). **2013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조사**. 서울: 서울시교육청.
- 성은모, 진성희. (2012). 청소년의 휴대폰 의존도와 휴대폰 사용목적이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과 휴대폰 의존도 수준 차이를 중심으로. **제2회 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 여성가족부. (2013). 2013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진단 결과 및 사후조치계획 발표. 여성가족부 2013.7.3.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 이시은, 이재창. (2005). 대학생의 애착유형, 부모, 또래 애착, 그리고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947-963.
- 이어리, 이강이. (2012). 부모요인, 친구요인, 심리적 요인이 초등학교생의 중독적인 휴대전화 사용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 21(2), 27-39.
- 이주리. (2010). 아동의 학업성취 발달궤적에 대한 사교육의 시간 의존적 효과. **아동학회지**, 31(6), 1-13.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431-451.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9(5), 161-187.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청소년의 휴대전화사용실태조사연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2011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허균. (2013). 고차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휴대폰 의존도 변화와 자기조절능력 및 주의집중의 구조관계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9(4), 861-879.
- 허묘연. (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홍세희, 유숙경. (2004). 다변량 고차 잠재 성장모형을 이용한 내외통제성과 학업성취의 종단관계 분석. **교육평가연구**, 17(2), 131-146.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 A. Marcoulides and R. E. Schumacker(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Augner, C. & Hacker, G. W. (2012). Associations between problematic mobile phone use and psychological parameters in young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57, 437-441.
- Berk, L. E. (2009). *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5th ed.)*. MA: Pearson.
- Kline, R. B.(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청소년기 일상생활시간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 및 부모양육방식의 영향

이귀옥*·이미리**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의 일상생활시간은 어떠하며, 일상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일상생활시간은 생활유지활동, 학업활동, 여가활동 시간으로 구분하였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양육방식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인구학적 특성변인은 청소년의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 연간소득, 방과후 보호자 부재일수와 월용돈이며, 부모양육방식 변인은 부모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보호,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 학대와 방임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학교 1학년 4차년 패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 일상생활시간에 성별, 부모교육, 가구 연간소득, 방과후 보호자 부재일수와 부모 감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 방임과 학대의 양육방식이 영향을 미쳤다. 연구결과에 대해 이론적, 방법론적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주제어: 청소년, 일상생활시간, 생활유지, 학업, 여가, 인구학적 특성, 부모양육방식

I. 서론

청소년기 일상생활경험은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이미리, 2002, 2009a, b, 2012a, b). 일상생활경험은 객관적, 주관적 특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객관적 특성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가로 평가되며 주관적 특성은 그 시간 중 어떤 심리상태를 경험하는가로 평가될 수 있다(이미리, 1995). 일상생활경험의 객관적 평가 지표가 되는 일상생활시간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량, 혹은 그러한 활동이 일어나는 시간대를 포함한다. 일상생활시간의 특성을 통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일상생활을 구조화하여 생활세계를 구성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손애리, 2000).

경제학자들은 시간을 인간자본의 단위로 보고 사회구성원이 직업, 가사일, 혹은 생산적인 활동에 보내는 시간을 경제발달을 위한 투입물(input)로 본다(Becker, 1965).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다양한 일상활동을 얼마나 경험하는지는 청소년 발달을 위한 투입물(input)이 된다. Bronfenbrenner

* 송의여자대학교 아동미술디자인학과 조교수 gracegirl@hanmail.net

**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1979)에 의하면 다양한 맥락에서 긍정적이고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일상활동을 많이 경험할수록 긍정적인 발달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일상생활은 학업활동, 생활유지활동, 여가활동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이미리, 2002, 2009a, b, 2012a, b) 이들 세 범주의 활동에 하루 24시간을 균형 있는 비율로 보낼 때 건강한 발달을 이루게 된다(이미리, 2000; Csikszentmihalyi & Larson, 1984; Larson & Suman, 1999).

선행연구에 의하면 일상생활시간은 청소년기 적응 수준과 관계가 있다. 학업활동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보내면 학업성취 수준은 높으나 우울증 불안감 등 정서적 부적응 수준이 높아진다(이미리, 1996, Frazier & Morrison, 1998). 여가활동시간도 적응 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방과후 집 밖에서 성인의 지도나 감독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때우는 식의 수동적 여가활동 시간을 많이 할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았다(김미해, 옥경희, 천희영, 2001; 이흥구, 박성준, 1999). 반면에 여가활동 중에서도 스포츠, 음악, 미술 활동 등 창의적 여가활동시간은 청소년들의 우울증 수준과 부적의 관계를 보였으며 학교생활적응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다(이미리, 1995; 이흥구, 박성준, 1999). 또한 청소년들이 집안일을 하는데 보내는 시간의 양은 그들의 책임감, 성취감, 자신감의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Call, Mortimer, & Shanahan, 1995) 방과후 아르바이트 활동에 무리하게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학업성적 저하와 반사회적 행동이 증가하였다(Bachman & Schulenberg, 1993)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청소년기 학업, 여가, 생활유지활동에 보내는 일상생활시간이 청소년기 발달과 의미 있게 관련된 변인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청소년 발달을 위해 중요한 투입물인 일상생활시간은 환경적 특성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동의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문화권의 아동들은 선진국에 비해서 원하지 않지만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이고 입시지옥을 치루고 있는 문화권의 청소년들은 여가와 생활유지활동에 비해 학업활동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Larson & Suman, 1999). 이러한 점은 일상생활시간과 적응의 관련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일상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청소년기 발달에 대한 일상생활시간의 영향은 환경적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일상생활시간에 대한 환경적 특성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시기인 청소년기의 일상생활시간은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양육방식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송유진, 2013) 어머니 교육수준이 이들의 여가활동 시간과 관련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독서시간이 길고, TV 보는 시간과 컴퓨터 게임 시간이 짧았다.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소득이 자녀들의 학업활동 시간과 관련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학업활동 시간이 길었다(박민자, 손문금, 2007).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은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양육방식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시간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청소년기 일상생활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양육방식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시간을 등교일과 비등교일에 학교 밖에서 생활유지활동, 학업활동, 여가활동에 보내는 시간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생활유지활동 시간은 취침과 기상시각, 그리고 수면시간을 포함하고, 학업활동 시간은 학원/과외 공부 시간, 학교숙제 및 기타 공부 시간을 포함하며, 여가활동 시간은 컴퓨터/게임기 오락시간, TV/비디오 시청시간, 독서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포함한다. 인구학적 특성변인은 청소년의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 연간소득, 방과후 보호자 부재일수와 월용돈을 포함하고 부모양육방식은 부모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보호,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 학대와 방임을 포함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생활유지활동, 학업활동, 여가활동 시간은 어떠한가?
2. 청소년의 생활유지활동 시간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양육방식의 영향은 어떠한가?
3. 청소년의 학업활동 시간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양육방식의 영향은 어떠한가?
4. 청소년의 여가활동 시간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양육방식의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의 중학교 1학년 패널 4차년도 자료(현재 고1)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은 입시가 임박하여 중학교에 비해서 시간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남애경, 2008). 연구대상은 남자 1075(51.0%)명, 여자 1033(49.0%)명으로 총 2108명이다.

2. 측정도구

1) 일상생활시간

일상생활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간을 년, 월, 주, 일 단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시간 단위를 사용하였다(김기현, 이경상, 2006). 일상생활시간을 생활유지활동 시간, 학업활동 시간, 여가활동 시간으로 구분하였다. 생활유지활동 시간은 취침과 기상시각, 수면 시간을 포함하였다. 수면시간은 기상시각에서 취침시각을 빼서 산출하였다. 학업활동 시간은 학원/과외 공부시간과 학교 숙제 및 기타 공부시간을 포함하였다. 여가활동 시간은 독서시

간, 컴퓨터/게임기/오락시간, TV/비디오 시청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포함하였다.

2)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변인은 성별, 부모교육수준, 가구 연간소득, 방과후 보호자 부재일수, 월 용돈을 포함하였다. 부모교육수준은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로 구분하였다. 방과후 보호자 부재일수는 ‘거의 없다’, ‘일주일에 1~2일’, ‘일주일에 3~4일’, ‘거의 매일’로 측정하였다. 또한 가구 연간소득과 월용돈의 단위는 ‘만원’이다.

3) 부모양육방식

부모양육방식은 허묘연(2000)의 부모양육태도검사도구와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이 구성한 아동학대 문항을 수정보완한 척도로 부모감독 3문항, 애정 4문항, 비밀관 3문항, 과잉기대 4문항, 과잉간섭 4문항, 합리적 설명 3문항, 방임 4문항, 학대 4문항을 포함한다. 평정치는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로 되어있어 분석을 위해서는 방임을 제외한 문항을 역채점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부모감독 .77, 애정 .81, 비밀관성 .68, 과잉기대 .68, 과잉간섭 .70, 합리적 설명 .78, 방임 .72, 학대 .85로 산출되었다.

3. 자료 분석

연구대상과 변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등교일과 비등교일의 일상생활시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Paired- t test)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생활유지활동, 학업활동, 여가활동 시간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양육방식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양육 방식의 기술적 결과

본 연구에 활용된 인구학적 변인(성별, 부모교육수준, 방과후 보호자 부재일수, 가구 연간소득과 월용돈)과 부모양육방식 변인(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 방임과 학대)에 대한 기술적 결과를 표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의하면 남자는 51.0%, 여자는 49.0%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고졸’ 부 41.1%, 모

53.8%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 부 33.7%, 모 30.9%, ‘전문대졸’ 부 8.3%, 모 10.6% 순이었다. 방과후 보호자 부재일수는 ‘거의 매일 부재’인 경우가 68.8%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3~4회’ 14.1%, ‘일주일에 1~2회’ 8.8%, ‘거의 없다’ 8.3% 순이었다. 가구 연소득은 최소 180만원에서부터 최고 4억이며 평균 4,705만원이었다. 청소년의 월용돈은 최소 0원에서 최대 8만원이며 평균 5천200원이었다.

표 1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양육방식의 기술적 결과

변인	범주	f(%)	M(SD)
성별	1. 남자	1075(51.0)	
	2. 여자	1033(49.0)	
아버지 교육수준	1. 중졸	75(3.8)	
	2. 고졸	805(41.1)	
	3. 전문대졸	195(8.3)	
	4. 대졸	792(33.7)	
	5. 대학원졸	92(4.7)	
어머니 교육수준	1. 중졸	62(3.1)	
	2. 고졸	1064(53.8)	
	3. 전문대졸	209(10.6)	
	4. 대졸	611(30.9)	
	5. 대학원졸	31(1.6)	
방과후 보호자 부재 일수	1. 거의 없다	176(8.3)	
	2. 일주일에 1~2회	186(8.8)	
	3. 일주일에 3~4회	297(14.1)	
	4. 거의 매일	1450(68.8)	
가구 연소득			4,705(2687)
월용돈			5.2(3.84)
부모양육방식	감독		3.09(0.58)
	애정		2.98(0.55)
	비일관성		2.18(0.62)
	과잉기대		2.45(0.57)
	과잉간섭		2.20(0.61)
	합리적 설명		2.76(0.59)
	학대		3.07(0.50)
	방임		1.67(0.62)

부모양육방식의 평균은 감독 3.09, 방임 3.07, 애정 2.98, 합리적 설명 2.76, 과잉기대 2.45, 과잉간섭 2.20, 비일관성 2.18, 학대 1.67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평균은 감독이고 가장 낮은 평균은 학대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일상생활 시간

일상생활시간은 등교일과 비등교일로 구분하여 생활유지활동, 학업활동, 여가활동 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대응표본 t -검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일상생활시간의 기술적 결과

구분		등교일	비등교일	t
		M(SD)	M(SD)	
생활 유지활동	취침시각	24.11(1.05)	24.76(1.30)	-25.35***
	기상시각	6.28(0.57)	9.27(1.68)	-80.30***
	수면시간	6.17(1.14)	8.51(1.66)	-60.09***
학업활동	학원/과외 공부 시간	0.57(0.82)	0.65(1.01)	-4.55***
	학교숙제 및 기타 공부 시간	0.71(0.76)	0.86(1.0)	-8.26***
여가 활동	컴퓨터/게임기/오락시간	0.80(1.11)	2.12(1.77)	-2.86***
	TV/비디오 시청시간	0.77(0.99)	2.07(1.57)	-43.15***
	독서 시간	0.34(0.74)	0.39(0.76)	-41.24**
	친구들과 노는 시간	0.54(1.01)	2.00(2.03)	-35.26***

** $p < .01$, *** $p < .001$

표 2에 의하면 등교일과 비등교일에 해당하는 생활유지활동, 학업활동과 여가활동 시간 모두 대응표본 t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 1학년생들은 등교일 24.11시(0시 7분), 비등교일 24.76시(0시 26분)에 잠자리에 들었고, 이들은 등교일 6.28시(6시 17분), 비등교일 9.27시(9시 16분)에 일어났다. 따라서 등교일보다 비등교일에 늦게 잠을 자고, 늦게 일어났다. 이런 결과로 이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등교일 6.18시간(6시간 11분), 비등교일 8.51시간(8시간 31분)으로 산출되어 비등교일에 고 1학생들은 약 2시간 20분 더 잠을 잤다. 전체적으로 등교일과 비등교일의 취침시각은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기상시각과 수면시간은 차이가 컸다.

학원/과외 공부시간은 등교일 .58시간(35분), 비등교일 .65시간(39분), 학교숙제 및 기타 공부시간에서는 등교일 .72시간(43분), 비등교일 .86시간(52분)으로 비등교일의 학업활동 시간이 등교일보다 길었다.

컴퓨터/게임기/오락시간은 등교일 .81시간(49분), 비등교일 2.13시간(2시간 8분)이며, TV/비디오 시청시간은 등교일 .78시간(47분), 비등교일 2.09시간(2시간 5분)이다. 독서시간은 등교일 .34시간(20분), 비등교일 .39시간(23분)이며,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등교일 .54시간(32분), 비등교일 2.02시간(2시간 1)이었다. 여가활동 시간에서 독서시간은 등교일과 비등교일 차이가 3분 이었고, 나머지 여가활동은 시간에서는 등교일과 비등교일의 시간차가 1시간 20분 이상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비등교일 여가시간이 등교일 여가시간에 비해 모두 길었다.

3. 생활유지활동시간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양육방식의 영향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양육방식이 생활유지활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단계적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위한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Durbin-Watson d 통계치를 산출한 결과 독립변수들의 d 통계치의 값의 범위가 1.85~1.92로 모두 2에 근접하고 있어 독립성 가정이 충족된다(양병화, 2008). 또한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공차(Tolerance)를 산출한 결과 독립변수들의 공차범위가 0.40~0.99로 모두 1 이하로 중다회귀분석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양병화, 2008).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양육방식이 생활유지활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생활유지활동 시간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양육방식의 영향

변인	취침시간	기상시간		수면시간	
	등교일	등교일	비등교일	등교일	비등교일
	β	β	β	β	β
성별	.02	-.16***	.09***	-.10***	.11***
아버지 교육	.06	.04	.08*	-.03	.09**
어머니 교육	.07*	.01	-.14***	-.06	-.15***
가구 연간소득	.14***	.04	-.00	-.11***	-.05
방과후 보호자부재	.04	-.07**	-.00	-.07**	.01
월 용돈	.01	-.03	.03	-.02	-.00
감독	.01	-.02	-.07*	-.02	-.06*
애정	.00	.01	.01	.00	.01
비일관성	-.04	.03	.02	.05	.02
과잉기대	.07*	-.01	-.01	-.07*	-.01
과잉간섭	.01	-.03	.02	-.03	-.04
합리적 설명	-.05	.06*	.00	.08*	.01
방임	-.00	.07*	.06*	.04	.05
학대	-.07*	.06*	-.00	.09**	.04
R ²	.06***	.04***	.03***	.06***	.04***

* $p < .05$, ** $p < .01$, *** $p < .001$

주: 취침시간 비등교일의 독립변수는 회귀계수 값이 유의하지 않아 제시하지 않음

표 3에 의하면, 등교일 취침시간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연간소득이 많을수록, 부모 과잉기대가 클수록 늦었고, 반면 학대가 심할수록 일렀다.

등교일 기상시간은 여학생일수록, 방과후 부모 부재일수가 길수록 일렀고,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합리적 설명이 많고, 방임과 학대가 심할수록 늦었다. 비등교일 기상시간은 남학생일수록,

아버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았다. 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감독이 심할수록 일렀고, 부모의 방임이 심할수록 낮았다.

등교일 수면시간은 여학생일수록, 가구 연간 소득이 많을수록, 방과후 보호자 부재일수가 길수록, 부모의 과잉기대가 클수록 짧았다. 반면 부모의 합리적 설명이 많을수록, 학대가 심할수록 수면시간이 길었다. 비등교일 수면시간은 여자일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길었다. 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감독이 심할수록 수면시간은 짧았다.

4. 학업활동시간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양육방식의 영향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양육방식이 학업활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단계적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위한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Durbin-Watson d 통계치를 산출한 결과 독립변수들의 d 통계치의 값의 범위가 1.79~1.93으로 모두 2에 근접하고 있어 독립성 가정이 충족된다(양병화, 2008). 또한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공차(Tolerance)를 산출한 결과 독립변수들의 공차범위가 0.41~0.98로 모두 1 이하로 중다회귀분석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양병화, 2008).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양육방식이 학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 학업활동 시간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양육방식의 영향

변인	학원/과외 공부 시간		학교숙제 및 기타 공부 시간	
	등교일	비등교일	등교일	비등교일
	β	β	β	β
성별	.04	-.01	.14***	.13***
아버지 교육	.10**	.11**	-.01	-.02
어머니 교육	-.01	.04	.11**	.13***
가구 연간소득	.16***	.18***	.06*	.06*
방과후보호자 부재	.05*	.05*	.02	.02
월 용돈	.01	.01	-.04	-.02
감독	.05	.02	.08**	.08**
애정	-.04	-.00	-.02	-.03
비일 관성	-.04	-.01	-.04	-.05
과잉 기대	.06*	.10**	.05	.06
과잉 간섭	.02	-.02	-.00	-.02
합리적 설명	-.05	-.08*	-.00	-.02
방임	-.01	-.06	-.09**	-.09**
학대	-.03	-.08*	-.07*	-.09**
R ²	.06***	.10***	.08***	.09***

* $p < .05$, ** $p < .01$, *** $p < .001$

표 4에 의하면 학원/과외 공부시간은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 아버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연간소득이 많을수록, 방과후 보호자 부재일수가 길수록, 부모의 과잉기대가 클수록 길었다. 그외 비등교일에서만 부모의 합리적 설명이 많을수록 학대가 심할수록 학원/과외 공부시간이 짧았다.

학교숙제 및 기타공부 시간은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 여학생일수록, 어머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연간소득이 많을수록, 부모의 감독이 심할수록 길었다. 반면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심할수록 학교숙제 및 기타공부 시간은 짧았다.

5. 여가활동시간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양육방식의 영향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양육방식이 여가활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단계적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위한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Durbin-Watson d 통계치를 산출한 결과 독립변수들의 d 통계치의 값의 범위가 1.87~2.00로 모두 2에 근접하고 있어 독립성 가정이 충족된다(양병화, 2008). 또한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공차(Tolerance)를 산출한 결과 독립변수들의 공차범위가 0.40~0.98로 모두 1 이하로 중다회귀분석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양병화, 2008).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양육방식이 여가활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 여가활동시간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양육방식의 영향

변인	컴퓨터/게임/ 오락시간		TV/비디오 시청시간		독서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	
	등교일	비등교일	등교일	비등교일	비등교일	등교일	비등교일
	β	β	β	β	β	β	β
성별	-.13***	-.32***	.05*	.17***	.05*	-.02	-.05*
아버지 교육	-.05	-.03	-.02	.05	-.05	-.00	.02
어머니 교육	-.10**	-.08*	-.08*	-.09**	.11**	-.09*	-.14***
가구연간 소득	-.05*	-.05*	-.08**	-.10***	-.01	.00	-.05
방과후보호 자 부재	-.05*	.00	-.06**	.01	.02	-.04	-.02
월 용돈	.03	.01	-.01	-.03	.01	.03	.03
감독	-.09**	-.05	-.10**	-.04	.04	-.12***	-.06*
애정	.01	.03	.05	.04	.02	.06	.05
비일 관성	-.02	-.01	.03	.06*	-.03	.02	-.06*
과잉 기대	-.04	-.02	-.05	-.10**	-.11**	-.06	-.10**
과잉 간섭	.06	.03	.07	.03	.06	.03	.09*
합·설명	.01	-.01	.01	-.01	.02	.05	.05

변인	컴퓨터/게임/ 오락시간		TV/비디오 시청시간		독서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	
	등교일	비등교일	등교일	비등교일	비등교일	등교일	비등교일
	β	β	β	β	β	β	β
방임	.03	.04	.06*	.02	-.03	.04	.05
학대	.05	.01	.04	-.01	.04	.15***	.07*
R ²	.07***	.14***	.06***	.06***	.02***	.05***	.05***

* $p < .05$, ** $p < .01$, *** $p < .001$

주: 독서시간 비등교일의 독립변수는 회귀계수 값이 유의하지 않아 제시하지 않음

표 5에 의하면 컴퓨터/게임/오락시간은 등교일 비등교일 모두 여자일수록, 어머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연간소득이 많을수록 짧았다. 그외 등교일에는 방과후 보호자의 부재 시간이 길수록, 부모의 감독이 심할수록 컴퓨터/게임/오락시간이 짧았다.

TV/비디오 시청시간은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 여학생일수록 길었으며, 어머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연간소득이 많을수록 짧았다. 그외 등교일에는 방과후 보호자 부재일수가 길수록, 부모의 감독이 심할수록 TV/비디오 시청시간이 짧았고, 방임이 클수록 길었다. 반면 비등교일에는 부모의 비일관성이 클수록 TV/비디오 시청시간이 길었고, 과잉기대가 클수록 짧았다.

독서시간은 비등교일에 여학생일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길었으며, 반면 부모의 과잉기대가 클수록 짧았다.

등교일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감독이 심할수록 짧았고, 반면 부모의 학대가 심할수록 길었다. 비등교일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여자일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감독이 심하고, 비일관성이 클수록, 과잉기대가 클수록 짧았다. 반면 부모의 과잉간섭이 클수록, 학대가 심할수록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길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생의 하루 중 생활유지활동, 학업활동, 여가활동 시간은 어떠하며 이들 생활시간의 양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양육방식의 영향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중1 패널의 4차년도(현 고1)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연구문제 순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일상을 등교일과 비등교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등교일과 비등교일간 일상생활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생활유지활동 시간의 범주는 취침과 기상시간 그리고 수면시간을 포함하는데 등교일의 기상시간이 비등교일에 비해 세 시간 정도 빨라 등교일의 수면시간이 평균 6시간 11분으로 비등교일에 비해 2시간 20분 정도 짧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중보다 주말에 더 늦게 일어나며, 잠을 더 잔다는 이광호, 구정화, 맹영임(1996)과 Bulck(2003)의 연구결과와 일

관성을 보인다. 양광익(2009)은 청소년기에는 9시간 정도의 수면시간이 필요하다(김희진, 진미경, 2010, 재인용)는 결과를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수면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청소년기의 수면 부족은 발달적, 적응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최경일, 2012) 적절한 수면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학업활동 시간은 등교일에 78분, 비등교일에 91분으로 주중보다 주말에 학업과 관련된 시간이 늘어난다는 진미정(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하루 평균 사교육활동 시간이 약 3시간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다르다(박민자, 손민금, 2007). 이는 선행연구의 연구대상이 고등학교 2, 3학년생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방법도 시간일기를 10분 간격으로 작성하도록 한 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 방법의 회고적 시간기록 방법과는 차이를 보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가활동 시간은 등교일에 2시간 28분, 비등교일에 6시간 37분이었으며 여가활동 중 컴퓨터 게임하기, TV보기, 친구들과 놀기 시간이 등교일에 비해 비등교일에는 2~4배까지 길었고, 독서시간은 등교일 20분, 비등교일 23분으로 가장 적은 여가활동이었다. 이는 주중보다 주말로 갈수록 여가시간이 증가한다는 이장현, 우룡(1999)의 연구와 일치하며, 공부 이외 여가활동으로 TV나 비디오 시청과 컴퓨터 게임으로 여가를 주로 보내고, 상대적으로 독서나 운동을 적게 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김희화, 2003). 또한 비등교일에 여가시간의 증가는 늦은 취침시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런 결과는 여가 시간 중 특히 게임과 컴퓨터 활동은 취침시각과 기상시각을 늦추어 부정적인 수면패턴을 유발한다는 Bulck(200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독서시간은 학교적응과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박경아, 2013)이며, 높은 성취력과도 관련이 있었다(Hofferth, & Sandberg, 2001a). 그럼에도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시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둘째, 생활유지활동 시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방과후 보호자 부재일수와 부모의 양육방식 중 감독, 과잉기대, 방임과 학대이다. 청소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등교일에 일찍 기상하여 수면시간이 짧았고, 비등교일에는 늦게 기상하여 수면시간이 더 길었다. 이런 결과는 성별에 따라 하루의 시간 사용이 다르다는 최남숙, 유소이(2002)의 연구와 일치한다. 부모의 교육 수준도 생활유지활동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등교일 청소년들의 기상시각은 일렀고, 수면시간은 적었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청소년의 시간관리 전략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박은정, 2007).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도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아버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비등교일 기상시각이 늦었고, 수면시간은 길었다. 이런 결과는 아버지의 역할이 주중보다는 주말에 나타난다는 결과(Yeung, Sandberg, Davis-Kean, & Hofferth, 2001)를 지지한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부모의 성에 따라 청소년의 생활유지 시간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는 단순히 시간의 양적인 것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며, 질적인 시간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를 요한다. 방과후 보호자 부재일수도 생활유지활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었다. 등교일에 방과후 보호자 부재일수가 길수록 청소년들이 일찍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수면시간이

짧았다. 이는 등교일에 부모가 도움을 주어야 할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일 수 있다. 부모양육방식도 청소년의 취침, 기상시각과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들은 일찍 일어나고 짧게 잤으며, 합리적 설명이 많을수록, 방임과 학대 수준이 높을수록 늦게 일어났고 수면시간은 길었다. 또한 부모의 과잉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수면시간이 짧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생활유지활동 습관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Wight, Price, Bianchi & Hunt, 2009).

셋째, 청소년들의 학업활동 시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 연간소득, 방과후 보호자 부재일수, 부모의 양육방식 중 감독, 과잉기대, 합리적 설명, 방임과 학대이다. 청소년 자녀들이 학원이나 과외공부에 보내는 시간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연간소득이 많을수록, 방과후 보호자 부재일수가 길수록, 부모의 과잉기대가 클수록 길었다. 학원/과외공부 시간은 사교육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이므로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가구 연간소득과 관련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는 자녀의 학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김희화, 2003; 박민자, 손문금, 2007; 송유진, 2013; Bianchi, & Robinson, 1997; Hofferth, & Sandberg, 2001a; Wight, et al., 2009). 등교일에 방과후 보호자 부재일수가 길수록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었다. 이는 방과후 보호자 부재 시 보호 장소로 학원을 다닌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한순옥, 1996)와 연관 지을 수 있으며, 자기보호시간이 적은 청소년이 학원공부 시간이 길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김희화, 2003). 청소년 자녀들이 학교숙제와 기타 공부 시간에 보내는 시간은 여학생일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연간 소득이 많을수록 부모의 감독이 심할수록, 방임과 학대가 적을수록 길었다. 어머니 교육수준과 가구 연간 소득은 자녀의 학교숙제와 기타공부에 영향을 주어 부모의 학력변수와 소득이 청소년기 자녀의 학업교육과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김희화, 2003; 박민자, 손민금, 2007; 송유진, 2013; Bianchi, & Robinson, 1997; Hofferth, & Sandberg, 2001a; Wight, et al., 2009).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시간과 관심의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교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부모양육방식 중 감독, 과잉기대 수준이 높고 방임과 학대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 자녀가 학업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길었다. 학교숙제시간은 부모의 관리감독이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부모의 감독이 학교숙제와 관련된 주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방식 중 애정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 자녀들의 학업활동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방식 차원은 정의적인 차원보다는 관리와 통제 관련 차원임을 시사한다.

넷째,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시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성별, 어머니 교육수준, 가구 연간소득, 방과후 보호자 부재일수, 부모의 감독,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임과 학대이다. 청소년 남학생은 컴퓨터/게임/오락시간과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길었고, 여학생은 TV/비디오 시청시간과 독서시간이 길었다. 이는 남자 청소년은 인터넷 사용이 길며, 여자 청소년은 TV시청

시간이 긴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희화, 2003; 나영주, 황진숙, 이은희, 고선주, 박숙희, 2005; 이장현, 우룡, 1999; 최경일, 2013). 나아가 성별에 따라서 선호하는 여가활동이 다르며 여가활동 전체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이광호 외(1996)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어머니의 교육수준도 여가활동 전체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컴퓨터/게임/오락시간, TV/비디오 시청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적고 독서시간이 길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청소년의 여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였으며(김희화, 2003; 박민자, 손문금, 2007; 송유진, 2013; Aletha, John, Janet, & Samuel, 1999),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자녀의 공부와 독서 시간은 길고 TV시간은 짧았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서우석, 2007; Bianchi & Robinson, 1997).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여가활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버지와 관계되는 여가활동인 스포츠나 적극적인 여가가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Lam, McHale과 Crouter(2012)의 연구에서 청소년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고 자기가치를 높이며, 사회적 경쟁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버지의 다양한 변인과 취미/교양활동, 스포츠/건강활동, 관람/감상활동, 놀이/오락활동 등과 같은 여가 활동(강효민, 2004)의 관계를 살펴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가구 연간소득도 청소년 자녀들의 여가활동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가구 연간소득이 많을수록 이들의 컴퓨터/게임/오락시간과 TV/비디오 시청시간이 적었다. 이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방송매체 이용이나 게임과 같이 소모적이고 오락성이 강한 여가활동과 부적 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서우석, 2007). 또한 가구 연간소득이 많을수록 자녀들이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는 등의 소극적인 여가활동에 보내는 시간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가능성이 있다(송유진, 2013). 이러한 결과들은 부모의 소득이 컴퓨터/게임/오락과 TV/비디오 시청시간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임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한다(박민자, 손문금, 2007; 서우석, 2007; Bianchi, & Robinson, 1997; Hofferth & Sandberg, 2001b; Wight, et al., 2009). 방과후 보호자 부재일수도 등교일에 청소년 자녀의 여가활동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보호자의 부재일수가 길수록 자녀들의 컴퓨터/게임/오락시간과 TV/비디오 시청시간이 적었다. 방과후 보호자 부재일수가 길수록 청소년들의 학원/과의 활동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여가활동과 관련된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도 여가활동 시간에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감독이 심할수록 컴퓨터/게임/오락시간, TV/비디오 시청시간과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짧았고, 부모의 비일관성 수준이 높을수록 TV/비디오 시청시간과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짧았다. 또한 과잉기대가 클수록 TV/비디오 시청시간, 독서시간과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짧았다. 이는 통제적 양육태도(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가 독서시간에 부적영향을 미친다는 박경아(2013)연구와 일치한다. 즉 부모가 통제적일 때 보다는 자율적이고 수용적일 때 독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길러줄 수 있다. 청소년기 건강한 발달을 위한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스포츠나, 사회봉사활동 같이 능동적 여가활동을 하도록 부모의 양

육노력이 요구되며(김예성, 2011), 단순히 청소년의 시간사용에 대한 지도보다는 가정상황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여가활동 지도가 요구된다(최남숙, 유소이, 2002).

본 연구를 통해서 고등학생의 일상생활시간활동 패턴과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국 규모의 표집을 통한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일반적 특성을 기술하여 청소년에게 일반화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의 하루 생활시간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 패널데이터에 제시되어 있는 문항의 제한성으로 인해 생활유지 활동, 학업활동, 여가활동의 일부 활동 시간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생활시간활동 패턴을 전반적으로 제시할 수 없었다. 둘째, 생활시간의 측정방법이 각 활동에 보낸 시간을 기억해서 답하게 하는 회고식 응답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들의 응답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생활시간에 대한 양적 정보만 분석하여 세부적인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추후연구에서는 질적 측정 문항을 추가하여 시간의 양과 함께 그 시간에 어떤 심리상태를 경험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효민(2004). 정보화사회, 한국 청소년의 여가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4(2), 525-535.
- 김기현, 이경상(2006).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실태 및 변화**(연구보고 06-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미혜, 옥경희, 천희영(2001). 초기 청소년기의 방과후 활동과 학업성취 및 사회적 발달. **대한가정학회지**, 39(6), 93-108.
- 김세원(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예성(2011). 청소년의 여가활동유형과 개인 및 가족 관련 특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18(7), 115-138.
- 김희진, 진미정(2010).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시간 연구**(09-R2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화(2003).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유형과 문제 행동과의 관계**(연구보고 03-R2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나영주, 황진숙, 이은희, 고선주, 박숙희(2005). 청소년의 생활시간의 내용과 유형에 따른 인터넷 이용. **대한가정학회지**, 43(12), 15-28.
- 남경애(2008). **청소년의 시간관리행동과 학업성취도,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학교 특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경아(2013).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양육태도, 독서시간 및 자아탄력성의 인과적 관계**.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민자, 손문금(2007).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와 관련된 생활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9(2), 93-120.
- 박은정(2007). **중학생의 시간관리와 학업성취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우석(2007). 청소년의 여가 활동에 사회경제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1),

273-302.

- 손애리(2000). 시간연구의 특성과 ‘생활시간 조사’ 개발 과정. **조사연구**, 1(1), 135-148.
- 송유진(2013).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시간 비교. **가족과 문화**, 25(3), 31-53.
- 양병화(2008). **마케팅, 사회 및 행동과학을 위한 다변량 데이터 분석법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주).
- 이광호, 구정화, 맹영임(1996). **청소년 수련활동 수요조사**(연구보고 96-2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미리(1995). 고3 청소년의 시험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과 우울증 수준과의 관계. 복합적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5), 89-98.
- 이미리(1996). 청소년의 우울증 수준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와 일상생활 활동 경험화의 관계. **아동학회지**, 16(2), 137-152.
- 이미리(2000). **일상생활의 어떤 경험이 초기 청소년의 폭력행동과 관계가 있는가**(연구보고 99-6).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미리(2002). 청소년 초기 일상생활 활동 경험의 특성과 스트레스 수준. **대한가정학회지**, 40(1), 69-84.
- 이미리(2009a). 청소년 초기 혼자 보내는 시간의 맥락적 특성과 발달적 잠재력 탐색. **아동학회지**, 30(4), 173-189.
- 이미리(2009b). 아동의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른 일상생활 경험과 정서경험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2), 41-57.
- 이미리(2012a). 초등학교 학생 학교부적응 증상의 일상생활 경험적 특성. **아동학회지**, 33(4), 19-34.
- 이미리(2012b). 사춘기 진입 시기 일상생활경험의 초경 여부에 따른 차이 및 우울증과의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4(3), 121-139.
- 이장현, 우룡(1999). 청소년의 여가생활에 관한 연구 - 평택시를 중심으로 -. **평택대학교 논문집**, 12, 103-119.
- 이흥구, 박성준(1999). 청소년의 여가활동참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한국레크리에이션교육학회지**, 1(1), 41-50.
- 진미정(2008).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 비교. **가족과 문화**, 20(3), 187-211.
- 최경일(2012).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자기보호능력을 매개로. **청소년 문화포럼**, 30, 126-166.
- 최남숙, 유소이(2002). 청소년의 시간사용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가사노동, 여가, 과외수업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지원경영학회지**, 6(1), 1-16.
- 한순옥(1996).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탁아 서비스 도입에 관한 의식 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1), 1-18.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letha, C. H., John, C. W., Janet, M., & Samuel, B. G.(1999). How young children spend their time: Television and other activit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5(4), 912-925.
- Bachman, J. G., & Schulenberg, J. (1993). How part-time work intensity relates to drug use, problem behavior, time use, and satisfaction among high school seniors: Are these consequences or merely correlates?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220-235.
- Becker, G. W. (1965). *Human Capital*.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Bianchi, S. M., & J. Robinson.(1997). "What Did you Do Today? Use of Time, Family Composition, and the Acquisition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2), 332-344.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ulck, J. V. den. (2003). Television viewing, computer game playing and internet use and self-reported time to bed and time out of bed in secondary-school children. *Sleep*, 27(1), 101-104.
- Call, K. T., Mortimer, J. T., & Shanahan, M. (1995). Helpfulness and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1), 129-138.
- Csikszentmihalyi, M., & Larson, R. W. (1984). *Being adolescent: Conflict and growth in the teenage years*. NY: Basic Books Inc.
- Frazier, J. A., & Morrison, F. J. (1998). The influence of extended year schooling on growth of achievement and perceived competence in early elementary school. *Child Development*, 69(2), 495-517.
- Hofferth, S. L., & Sandberg, J. F. (2001a). How American Children Spend Their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2), 295 - 308.
- Hofferth, S. L., & Sandberg, J. F. (2001b). Changes in American children's time, 1981 - 1997.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6, 193 - 229.
- Lam, C. B., McHale, S., M., & Crouter, A., C. (2012). Parent - Child Shared Time From Middle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Developmental Course and Adjustment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83(6), 2089-2103.
- Larson, R. W., & Suman, V. (1999). How children and adolescents spend time across the world: Work, play, and developmental opportunities. *Psychological Bulletin*, 125(6), 701-736.
- Wight, V. R., Price, J., Bianchi, S. M., & Hunt, B. R. (2009). The Time use of teenagers. *Social Science Research*, 38(4), 792-809.
- Yeung, W. J., Sandberg, J. F., Davis-Kean, P. E., & Hofferth, S. L. (2001). Children's Time With Fathers in Intac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1), 136 - 154.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성차비교

김은혜*·윤현민**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교 1학년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 변인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와 이러한 구조모형 속에서 남녀학생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청소년복지의 임상적·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KCYPS)의 4차년도 자료를 토대로 중학교 1학년생 청소년 총 2,092명(남학생 1098명, 여학생 9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에 있어 또래애착은 여학생에게는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였지만, 남학생에게는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자아탄력성은 남녀모두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의 매개역할을 검증한 결과, ‘양육태도→또래애착→삶의 만족도’의 경우 남학생은 유의미한 반면 남학생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육태도→자아탄력성→삶의 만족도’의 경우 남녀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양육태도→또래애착→자아탄력성→삶의 만족도’의 경로에서 남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청소년연구 및 개입에 대한 함의를 논하였다.

주제어: 양육태도, 또래애착,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매개변인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삶의 만족하는가의 문제는 비단 성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김신경 외, 2014).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조사결과,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74점으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으며, 2009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6년 연속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한겨레, 2014. 06). 우리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으며, 긍정적 발

* 명지 I Will 센터 상담원

**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후 연구원 hmyoon21@gmail.com

달의 적신호인 부적응적 행동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영민·임영식, 2013).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인지적으로 만족스럽다고 평가하는 정도와 정서적인 행복감이 포함된 것으로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황재원·김계현, 2009)을 의미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발달이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이다. 더욱이 아동기를 지나 본격적으로 청소년기에 돌입하게 되는 중학교 1학년의 경우 갑작스런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이다.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은 부모의 영향과 지도가 아동기와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이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양가적인 양상을 보인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되면서 또래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승연(2009)은 청소년기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의 인지·정서·사회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주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로서, 부모나 자녀의 개인적 요인이나,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며, 자녀의 성격적·언어적·정서적·사회적 발달과 함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Becker, 1964; 임정화·전종설, 2012 재인용). 이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는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는 인간관계이므로, 자녀의 성격 및 사회성발달에 영향을 미친다(신성숙·유영달, 2010). 기존의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애착적이고 감독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비행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이 되며,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비행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 되며(이혜진·백진아, 2013),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지만 반면에 부적절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유발한다고 나타냈다(Baumrind, 1993).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중, 중학생의 경우가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교우문제 집단 따돌림 등 또래 문제로 상담실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나타났다(양미진 외, 2006). 이는 중학교 시기는 또래와의 관계를 중시하며, 또래 문제를 가장 중요한 환경으로 여기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의 부정적인 또래관계가 성인기 이후의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장기 종단적 연구(Bagwell, Newdomb & Bukowski, 1998)를 통한 경험적 증거에 의해 지지되고 있어 또래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래란, 연령·성별·학년의 수준에서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발달과 행동이 유사하고 사회적으로는 동일시되어지고, 일상적으로 함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하며(Perry&Bussey, 1984), 애착(attachment)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한다(Bowlby, 1982). 즉, 또래애착은 사회적으로 동일시되어지고 일상적으로 함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대상과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또래관계는 성숙한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며(박연정, 2002), 주위로부터 사회·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자각하므로

1) 한겨레 2014년 6월 1일 신문

안정된 정서를 갖게 도와주고 자아개념의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하며 사회적인 자신감을 높여준다(고윤주·김영신·노주연, 2000)고 나타난다.

자아탄력성이란 Block(1980)은 좁은 의미로 개인의 감정차원을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적 수반성을 변화시키는 적응적 차원이며, 넓은 의미로는 내적·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스트레스나 위기위험요소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성격유형이라고 정의하였다.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불안에 민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적절한 자기-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긴장 인내의 수준을 상황에 따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이라는 점에서 자아탄력성을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저항능력을 의미하는 탄력성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Block and Kremen, 1996). 새로운 환경으로의 적응은 대부분의 초기청소년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야기 시키며, 아동기에서 갓 벗어난 중학교 1학년의 초기청소년에게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및 대처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적응은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아탄력적인 청소년들의 특징으로는, 가족 또는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이 높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상과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신지연, 2004)고 한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매우 다양하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가족의 빈곤, 가족구조,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심리내적특성(자아존중감·자아탄력성·긍정심리학)에 대한 연구(김남희, 2005; 김광혁·차유림, 2007; 손보영 외, 2012;)와 학교생활적응 측면에서의 연구가 다수 진행 되었다(정여주·홍성례, 2012; 박현영, 2010).

부모의 양육태도는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는 인간관계이므로, 자녀의 성격 및 사회성발달에 영향을 미친다(신성숙·유영달, 2010)는 것과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그 대리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으로(양문현, 1983) 청소년의 또래애착,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박영신·김이철(2000)의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부모의 애정은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생활 만족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예은(2013)은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과 같은 긍정적 양육태도는 남녀 중학생의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원정(2009)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신경 외(2014)은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 수준이나 양육의 비밀관성, 과잉간섭의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았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다(이윤주·신지연, 2006)고 연구되었으며, 김경수·김화경(2011)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연구에서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요인이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순주·심혜원(2012)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 긍정적인 보호요인인 매개효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자아탄력성 형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높은 작용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애착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수용적태도인 경우 또래애착과의 관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장영애·엄윤경, 2009), 최홍일(2013)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부적응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또래애착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나유미(1999)의 연구에서는 안정된 애착이 형성된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또래활동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조롱당하는 등 또래와의 관계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된다(홍미란, 2009)고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른 집단과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김은진·이정운, 2009),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지할수록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안수형·이형실, 2009). 뿐만 아니라, 김문선(2013)은 부모가 부정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낮았으며, 낮아진 또래애착은 1년 후의 낮은 학교생활적응력으로 이어지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환경요인인 또래애착은 심리내적인 자아탄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 송미령·김성영(2012)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또래와의 애착관계가 자아탄력성에 긍정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지은(2002)는 또래에 대한 애착이 유의미하게 자아탄력성에 대해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적응이 필요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성격특성인 자아탄력성이 높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오순옥(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며, 더욱이 자아탄력성에 부모애착보다 또래애착이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연구의 경로를 따르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 [그림1]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 부모의 양육태도(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는 초기청소년의 또래애착,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초기청소년의 양육태도는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본연구의 연구모형은 남녀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3(KCYPS)’의 자료 중 4차년도인 2013년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는 2010년부터 2016년의 7년간 실시되는 종단패널조사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의 이행과정을 관찰할 수 있으며, 조사내용은 영역을 크게 개인발달과 발달환경으로 나누고, 각 영역 안에 하위영역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은 KCYPS 2010년 1차년도 시, 초등학교 4학년의 아동들이었으며, 현재 KCYPS 2013년 4차년도 중학교 1학년인 대상을 의미한다. 전국 27개 지역 중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 2,092명 중, 남자 1,098명, 여자 994명이 연구 대상이다.

2. 조사 대상자의 특성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방식과 삶의 만족도의 연구는 4차년도(중1, 2013)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중 설문에 응하지 않은 결측치와 불성실응답을 제외한 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연구대상인 중학생의 성별은 남자가 52.5%(1,098명), 여자가 47.5%(994명)으로 남학생이 더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N=2,092)

구 분		빈 도	비 율
연 령		14세(중학교 1학년)	
성 별	남학생	1,098 명	52.5
	여학생	994 명	47.5

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1) 삶의 만족도

본 연구의 삶의 만족도 척도는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2006)이 개발한 척도로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이고, 제작자가 보고한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7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3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초기청소년이 삶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1) 부모의 양육태도

본 패널의 부모양육태도척도는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의 양육태도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초기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 중에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애정(4문항), 감독(3문항), 합리적 설명(3문항)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의 Likert 4점 척도이며, 개발 당시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애정 .84(82), 감독 .79(77), 합리적 설명 .81(79)이었으며,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각각 애정 .83, 감독 .75, 합리적 설명 .76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하위점수가 높을수록 초기청소년의 해당 양육태도를 잘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3) 매개변수

(1) 또래애착

또래와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Greenberg(1987)가 개발하고, 김지연(1995)이 번안·수정한 애착척도(IPPA)를 황미경(2010)이 사용한 또래애착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하위요인별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하위변인별 3개 문항씩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측정방식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않다’까지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또래애착의 하위요소는 의사소통·신뢰·소외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또래애착인 의사소통·신뢰만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제작자가 보고하는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의사소통 .75, 신뢰 .75이며,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의사소통 .81, 신뢰 .84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의 하위점수가 높을수록 초기청소년의 긍정적인 또래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Block & Kreman(1996)이 제작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심혜원(2002)이 번역한 것으로 수정·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이고, 제작자가 보고하는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76이었으며, 유성경과 심혜원(2002)의 연구에서는 .6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문항을 요인분석하여 3요인으로 추출하며 요인회전을 통해 추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문항 3, 5, 7, 8, 10이 1요인, 6, 9, 11, 12, 13, 14가 2요인, 1, 2, 4번이 3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1요인 .78, 2요인 .77, 3요인 .67이다. 자아탄력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초기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경향이 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의 매개변수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 및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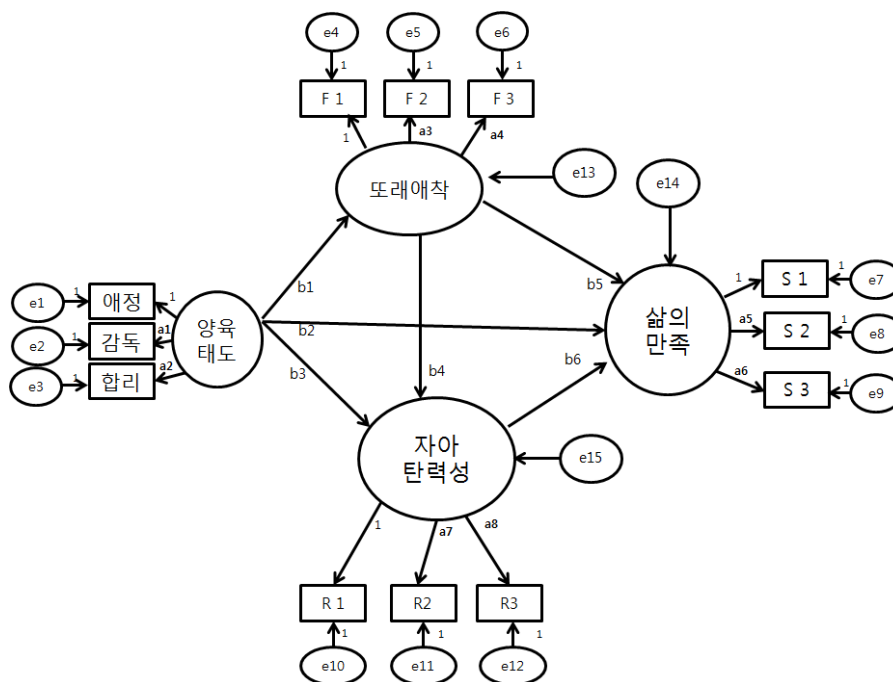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적합도 지수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TLI, RMSEA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CFI (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하였다(홍세희, 2000). TLI와 CFI는 .9 값 이상이면서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며(송지준, 2009; Hu & Bender, 1999), RMSEA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RMSEA < .05면 좋은 적합도, <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 .10이면 보통적합도, RMSEA > .10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통해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산분석과 구조방정식(AMOS)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1982, 1986)의 공식을 이용하였는데, 사용된 Sobel의 Z^2 공식은 다음과 같다.

2) a =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예언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 b =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예언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 S_a = a 의 표준오차, S_b = b 의 표준오차. Sobel의 Z 공식에서는 Z 값이 산출된 Z 값의 임계치인 ± 1.96 에 비교하여 $P < .05$ 수준에서 임계치보다 클 경우에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의미이다. (MacKinnon & Dwyer, 1994; 손보영 외(2012) 재인용)

$$Z = \frac{ab}{\sqrt{b^2Sa^2 + a^2Sb^2}}$$
$$Z = \frac{abc}{\sqrt{Sa^2 + (ac)^2Sb^2 + (ab)^2Sc^2}}$$

Ⅲ. 연구결과

모형 검증을 위한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 자아탄력성 및 삶의 만족도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표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연구변인의 변인 간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편차 (남학생 N=1098, 여학생 N=994)				
변 인	1	2	3	4
1. 부모양육태도	1			
2. 또래애착	.456*** (.435***)	1		
3. 자아탄력성	.417*** (.331***)	.506*** (.401***)	1	
4. 삶의 만족도	.432*** (.465***)	.375*** (.406***)	.419*** (.376***)	1
평 균	1.8149 (1.8828)	1.8427 (1.8050)	1.8832 (1.9326)	1.7104 (1.9940)
표준편차	.49171 (.48649)	.55637 (.50869)	.51190 (.43855)	.59889 (.63395)

()밖의 숫자는 남학생의 값이고, () 안의 숫자는 여학생의 값임.

*** $p < 0.001$, ** $p < 0.01$, * $p < 0.05$

연구 모형이 남학생과 여학생에 각각 적용될 수 있는지를 모형의 적합도를 통하여 검증하고, 각각의 집단에서 모형의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과 구조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이 성립하는지 검증하였다. 측정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측정모형에서의 요인 적재치를 남학생과 여학생의 각 집단별로 동일성 제약(a1~a8)을 가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으며(Mac Callum et al, 1999), 구조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단 간 동일한 회귀계수들의 대해서 제약(b1~b5)을 가한 후 경로에서의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Byrne, 2001; 손보영 외, 2012 재인용). 그 결과 모든 모형은 좋은 적합도³⁾를 보였다.<표 3>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남학생 및 여학생의 구조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해도 전체적인 적합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각각의 경로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b1~b5의 모든 경로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집단에 부분 동일성이 성립하였다.

3) Browne&Cudeck(1993). RMSEA 값은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5 ~ .08이면 적절한 적합도, .1이상이면 나쁜 적합도.

표 3 모형의 적합도 지수

Index	χ^2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전체)	190.653	38	.986	.976	.044
연구모형(남학생)	100.750	38	.990	.982	.039
연구모형(여학생)	117.426	38	.984	.973	.046
측정동일성 모형	285.464	104	.982	.973	.029
구조동일성 모형	256.516	96	.983	.972	.029

모형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 결과는 <표 5>에, 남학생 결과는 <그림 2>, 여학생의 결과는 <그림 3>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또래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의 추정치가 남학생의 경우에는 .03($p > .05$)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135($p < .05$)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또래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의 추정치가 남학생의 경우에는 .509($p < .001$)로 나타났는데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773($p < .001$)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인 양육태도의 세가지 하위형태가 또래관계, 자아탄력성 및 삶의 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모형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치

경로		남학생				여학생			
		추정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검정 통계량	추정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검정 통계량
양육태도	→또래애착	.570***	.515	.039	14.749	.539***	.497	.04	13.42
	→자아탄력성	.232***	.280	.029	7.915	.189***	.272	.028	6.832
	→삶의만족도	.323***	.298	.042	7.639	.428***	.317	.05	8.545
또래애착	→자아탄력성	.370***	.493	.028	13.14	.259***	.406	.028	6.832
	→삶의만족도	.030	.030	.041	.713	.135*	.109	.048	2.808
자아탄력성	→삶의만족도	.509***	.390	.06	8.559	.773***	.397	.08	9.608

* $p < .05$ ** $p < .01$ *** $p < .001$

본 연구 추정치를 살펴 본 결과, 초기청소년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애정·감독·합리적 설명)가 초기청소년의 또래애착,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와는 경로에서 여학생의 경우는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남학생의 경우에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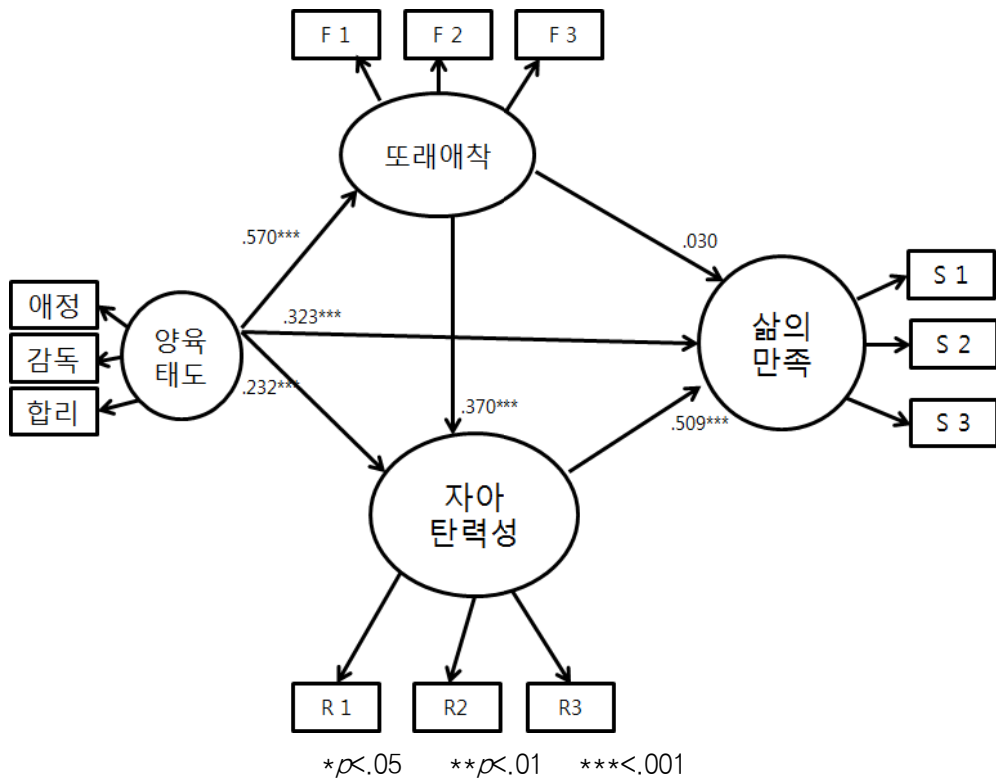


그림 2. 남학생의 구조계수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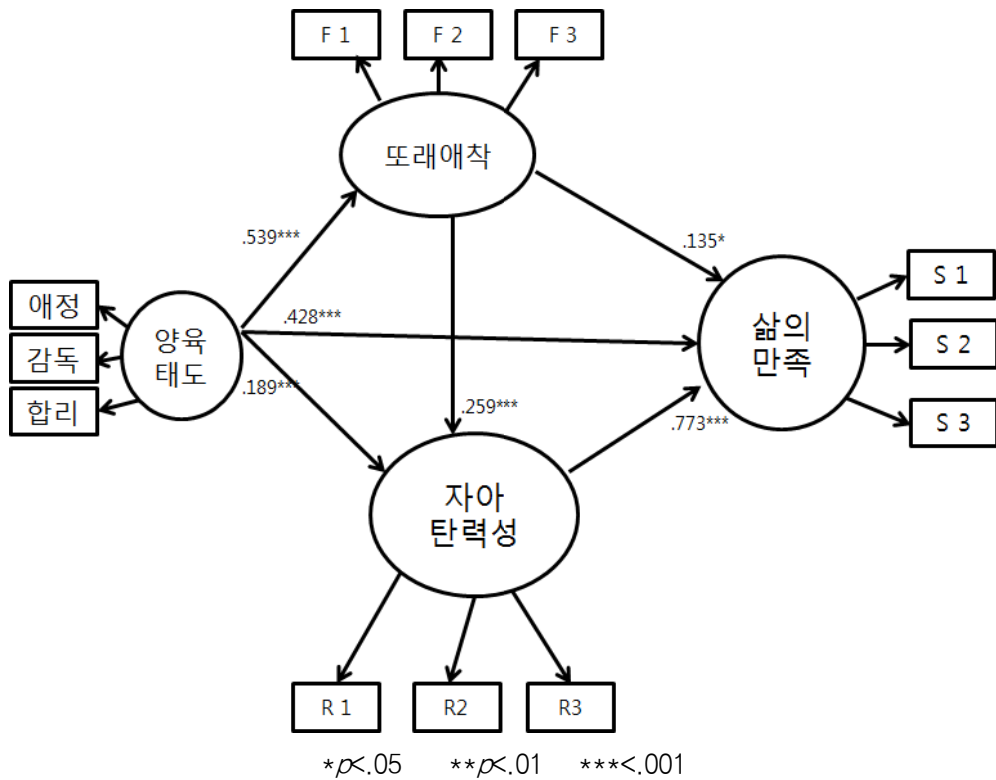


그림 3. 여학생의 구조계수 추정치

마지막으로,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의 각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매개효과 검증인 Sobel 검증 결과, 남학생·여학생 초기청소년 모두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또래애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애정·감독·합리적설명)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애착으로 이어지는데 있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여학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반면, 남학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애정·감독·합리적 설명)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매개경로에서 남학생 여학생의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으로 이어지는데 있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 Sobel 검증(매개효과 검증)

매개 경로		<i>a</i>	<i>Δa</i>	<i>b</i>	<i>Δb</i>	<i>c</i>	<i>Δc</i>	<i>Z</i>
양육태도 → 또래애착 → 삶의 만족도	전체	.541	.028	.035	.032			1.092 (<i>p</i> > 0.05)
	남	.570	.039	.370	.028			0.730 (<i>p</i> > 0.05)
	여	.539	.04	.135	.048			2.753 (<i>p</i> < 0.01)
양육태도 → 자아탄력성 → 삶의 만족도	전체	.222	.020	.658	.049			8.555 (<i>p</i> < 0.001)
	남	.232	.029	.509	.06			5.820 (<i>p</i> < 0.001)
	여	.189	.028	.773	.08			5.533 (<i>p</i> < 0.001)
양육태도 → 또래애착 → 자아탄력성 → 삶의 만족도	전체	.541	.028	.314	.020	.658	.049	3.717 (<i>p</i> < 0.001)
	남	.570	.039	.370	.028	.509	.06	6.312 (<i>p</i> < 0.001)
	여	.539	.04	.259	.028	.773	.08	4.909 (<i>p</i> < 0.001)

다음은 <표 6>에서 제시된 변인들의 직접·간접 및 총 효과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경우 예상했던 것과 달리, 또래애착은 간접적인 효과를 주지않는 반면,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에는 남녀 모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래애착도 자아탄력성에는 간접적인 효과를 주지 않는 반면, 남녀모두 삶의 만족도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남학생(.03)에 비해 여학생(.135)이 월등히 높은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요소인 또래애착과 개인내적요소인 자아탄력성 중, 초기청소년의 경우 환경적요소의 영향인 또래애착보다는 개인내적요소인 자아탄력성이 큰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주요변인들의 직접·간접 및 총 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구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양육태도	또래애착	전체	.541		.541
		남	.570	-	.570
		여	.539		.539
	자아탄력성	전체	.222	.170	.392
		남	.232	.211	.442
		여	.189	.140	.328
	삶의 만족도	전체	.391	.277	.668
		남	.323	.242	.565
		여	.428	.327	.754
또래애착	자아탄력성	전체	.314		.314
		남	.370	-	.370
		여	.259		.259
	삶의 만족도	전체	.035	.207	.242
		남	.03	.188	.218
		여	.135	.200	.335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전체	.658		.658
		남	.509	-	.509
		여	.773		.773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초기청소년인 중학교 1학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애착,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 경로에서 남녀 간에 성차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 부모의 양육태도(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가 초기청소년의 또래애착, 자아탄력성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을 매개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애착,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은 매개경로가 유의미했으나 또래애착은 매개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삶의 만족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신윤자, 2005;정은진, 2008)와 일치하는 것으로 중1 청소년의 삶의 만족, 또래애착, 자아탄력성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가 여전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또래애착이 중1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을 높여줄 수는 없으나, 이러한 또래애착이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키고(강창실, 2008; 한신애·문수백,

2011) 이것이 결국 삶의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매개하고 있었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김지혜, 2012; 강영하, 2012)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환경이 바뀌는 과정에서 청소년에게 미치는 많은 위기들이 개인의 내적요소인 자아탄력성에 의해서 삶의 전반의 만족감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본 모형 내 전체 경로에 있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 다집단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남녀 중학교 1학년 학생 모두 부모양육태도가 또래애착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남녀차가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또래애착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를 매개하지 못하는 반면 여학생은 또래애착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 또래애착이 매개하였다고 보고한(고혜영, 2012; 최인숙, 2012))연구와도 일부 일치한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또래애착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장영애·엄윤경, 2009)와 같이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또래관계가 양육태도를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유용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자아탄력성은 남녀 모두에게 있어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매개효과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자아탄력적이라는 연구결과(김미화, 2003; 손보영 외, 2012; 하현주, 2007) 남학생의 경우 또래애착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가에 매개효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또래애착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효과가 여학생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남학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감독·합리적 설명으로 정의하고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특성이 중학교 1학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해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녀 집단 모두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또래애착,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래애착은 여학생만, 자아탄력성은 남녀 모두에서 매개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손보영 외, 2012; 오영희·김정희, 2012)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동기에서 벗어나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중학교 1학년의 삶의 만족에 있어서도 여전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이 있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 또래애착 또한 중요 매개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후 연구에서는 초기청소년기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애착과 자

아탄력성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각기 다른 발달시기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연구를 필요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발달시기별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긍정적인 양육태도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므로 유기, 학대 등을 포함한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매개하는 요인을 찾아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개입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하. (2012).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행복 간의 관계. **학습전략중재연구**, 3(1), 107-123.
- 강창실 (2008).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윤주,김영신,노주선. (2000).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 또래수용, 친구의 지원과 사회적 자신감간의 구조모델.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3(2), 65-78.
- 고혜영. (2012).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을 매개로 한 부모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지은. (2002).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혁,차유림. (2007). 가구빈곤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8(1), 29-51.
- 김경수,김화경. (2011). 부모의 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19(2), 143-170.
- 김남희. (2005). **희망과 사회적지지 지각, 대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문선. (2013).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또래애착 및 삶의 만족도가 1년 후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화. (200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신경,박민경,안지선. (2014).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 양육행동유형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6(2), 163-182.
- 김영민,임영식. (2013).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잉적 양육,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2), 343-366.
- 김원정. (200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진,이정운. (2009). 부모와의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 우울증상 및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7(2), 55-68.
- 김지혜. (2012).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봉사활동 시간과 주관적 만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1), 41-62.

- 박순주, 심혜원. (201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자기조절학습이 빈곤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2), 113-136.
- 박연정. (2002).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또래 괴롭힘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이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회**, 38(2), 109-147
- 박윤선, 채규만.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대인불안과의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8(2), 133-147.
- 박현영. (2010).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애착, 학교생활적응 행동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석주영, 박인진. (2009). 빈곤가정 아동의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양부모가족과 여성한부모가족 아동의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14(2), 29-50
-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 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3(1), 149-173.
- 송미령, 김성영. (2012). 중학생의 또래애착, 자아탄력성, 휴대폰 의존과의 관계.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32, 65-89.
- 신성숙, 유영달. (2010).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양호도 및 부모 간 양육일치도가 정서적 부적응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4), 93-113.
- 신윤자. (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지연. 200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수형, 이형실. (2009).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21(3), 163-176.
- 양문현. (1983).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에 따른 자녀양육태도에 관한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미진, 지승희, 이자영, 김태성, 홍지연. (2006). 위기(가능)청소년 사회적응력 향상프로그램. **청소년상담연구** 1-127.
- 오순옥. (2007). 중학생 부모 및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영희, 김정희. (2012). 원부모양육태도가 부부간 정서적 상호작용과 인지적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 문학교육연구**, 13(1), 289-314.
- 이승연. (2009).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 나유미. (1999). 유아의 애착 및 어머니-유아 상호작용과 또래 상호작용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19-32.
- 이윤주, 신지연. (2006).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부적응, 부모양육태도의 관계. **사회과학논총**, 5, 111-127.
- 이예은. (2013).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진, 백진아.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자아통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0, 85-107.
- 임정화, 전종설. (2012).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이 남·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 학연구, 19(8), 169-190.
- 장영수, 박영숙. (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자아탄력성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스트레스학회**, 271-280.
- 장영애, 엄윤경. (2009).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7(4), 3-16.
- 정여주, 홍성례. (2012).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삶의 질 관계 연구-학교생활만족도와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239-258.
- 정은진. (2002).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수. (2005).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부모 애착,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학생생활상담** 23, 57-81.
- 최인식. (2012). 중학생의 부모, 또래 및 교사 관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성차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과학연구소**, 43(3), 105-129.
- 최홍일.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 또래애착의 매개효과와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미래청소년학회**, 10(3), 117-139.
- 하현주. (2007).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신애·문수백. (2011).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8권 제3호, pp. 355-376.
- 허모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4.
- 홍미란. (2009). **부모,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청소년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재원, 김계현. (2009). 대학생의 행복추구경향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상담학연구**, 10(1), 57-71.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Block, J. (1980). *Assimilation, accommodation, and the dynamics of personal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3, pp.281 - 295.
- Block, J. and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 - 361.
- Bagwell, C. L., Newcomb, A. F. and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 140 - 153.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NJ: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Collins(Ed). *The Minnesota Symposium Child Psychology*. 13, 39-101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Baumrind, D. (1993). *The average expectable environment is not good enough: A response to Scare*. *Child Development*. 64, 1299-1317.

제 6 주제

정서발달

- 1 아동학대 재발생 유형과 관련요인
- 2 학령기 아동의 사회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공격성 영향요인 및 조절효과 탐색
- 4 다층모형을 통한 청소년기 우울의 예측변인에 대한 단기 종단연구
- 5 우리나라 남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연구

아동학대 재발생 유형과 관련요인

배화옥*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이 생산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 가운데 초4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발생 및 재발생을 유형으로 분류하고 학대 재발생 유형별 비율과 관련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초4패널 자료에서 2차~4차 년도 3년 동안 학대에 관한 조사문항을 모두 응답한 2007명을 선택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아동학대는 KCYPS의 조사문항에 따라 신체학대와 언어학대로 분류하였으며, 3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 발생 및 재발생 유형은 미발생, 일회형, 재발형, 지속형으로 분류하였다. 학대 재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관련요인으로 아동, 부모, 가족, 사회 특성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3년 동안 아동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지속적이던 간헐적이던 학대 재발생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재발생 유형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은 아동의 성과 문제행동 빈도로 밝혀졌다.

주제어: 아동학대, 재발생, 비율과 유형, 관련요인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학대가 가진 생태학적 특성이 반복성과 지속성이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대부분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재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고 또한 재발생한다. 가정에서 학대가 지속적으로 재발생하는 이유는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동일한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기 때문이며,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른 유형의 폭력과 마찬가지로 학대 징후를 외부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시적 방임이나 일회성 학대로 그치지 않고 아동을 지속적으로 반복 학대하는 가정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나타난 아동학대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일회성’은 10%에 불과하며, ‘1년에 한 번’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빈도가 높아지면서, ‘1주일에 한 번’이 12.4%, ‘2~3일에 한 번’이 16.5%, ‘거의 매일’이 40.8%로 전체 아동 10명 가운데 7명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재학대로 신고된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학대 신고 건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826명의 아

*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hobaeg@gnu.ac.kr

동이 재학대에 노출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559명에 비해 200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더 심각한 점은 아동학대의 반복성과 지속성이 학대 현장에서 폭력의 회오리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폭력의 점층적 전이과정을 밝혀낸 임상적 연구를 찾을 수 없어 단언할 수 없으나, 언어학대로 시작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신체학대로 이어지거나, 언어학대와 신체학대를 동시에 가하는 중복학대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또한 가벼운 신체학대로 시작하였더라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강도 높은 신체학대를 야기하는 유인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나타난 학대유형에서도 중복학대가 47.1%로 가장 많고, 단일 유형으로는 방임 26.8%, 정서학대 14.6%, 신체학대 7.2%, 성학대 4.3%순이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이처럼 아동학대의 재발생과 지속성은 폭력의 가중성과 맞물려 아동을 사망에 이르는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학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그리고 학대 유형의 중복과 강도가 커짐에 따라 누적적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학대가 지속되면 학대 시작시기가 빠를수록 그만큼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동시에 중복 학대와 중한 학대를 경험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및 정신·정서적 성장발달에 장·단기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에 반복적 성학대를 경험한 여성은 일회 성학대를 경험한 여성에 비해 성범죄 노출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Gold, Milan, Mayall, & Johnson, 1994). 장기간 여러 유형의 학대를 중첩적으로 경험한 다중 피학대아동은 단일 유형의 피학대아동에 비해 정신적 외상 수준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Turner, Finkelhor, & Ormrod, 2010; Jaffee & Maikovich-Fong, 2011).

아동학대의 재발생과 지속성을 차단하는 것이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는 지름길임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재발생과 지속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성취하여야 할 학문적 과제는 아동학대 재발생과 지속성의 특성과 요인을 규명하는 일이다. 아동학대 재발생과 지속성에 대한 연구는 또 다른 이유에서 매우 중요하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재신고 사례 건수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상담원들의 업무처리 부담을 늘려 이들의 소진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초기 잠재사례의 발견과 개입을 방해하여 효과적인 아동보호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 재발생 비율과 관련요인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질의는 아동학대는 어느 정도 재발생하는가, 학대 재발생을 유형으로 분류하였을 때 유형별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재발생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II. 이론적 논의

1. 학대 재발생

국외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재발생을 지칭하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다. 아동 성학대 사례를 활용한 의료적 임상연구나 아동 성폭력 관련 범죄사건을 바탕으로 한 법조계의 독립연구를 제외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된 아동학대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행한 연구들은 재발생(recurrence), 재신고(re-report), 재진입(re-entry), 재학대(re-abuse), 반복학대(repeat maltreatment), 부가학대(additional maltreatment), 후속학대(subsequent maltreatment) 등 매우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배화옥, 2007). 또한 성학대, 신체학대 등 하나의 학대유형만을 포함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학대유형을 포함할 것인가, 그리고 분석단위를 아동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사례로 할 것인가에 따라 학대 재발생에 대한 조작적 정의도 달라진다.

그러나 거의 모든 연구들이 아동학대 재발생의 명확한 개념과 조작적 정의를 위하여 초기사례와 재발사례의 판정여부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판정을 거쳐 초기사례와 재발사례 모두가 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 재발생 사례로 규정하며, 나머지 신고-판정, 판정-신고, 신고-신고 사례는 재신고 사례로 규정한다(Bae et al., 2007; Jonson-Reid, Drake, Chung, & Way, 2003). 여기서 학대사례는 사례판정을 거쳐 학대의 정황이 뚜렷하고 학대로 판단할 만한 증거 또는 진술이 뒷받침 되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말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되어 개입 중인 사례에 대해 다시 신고 접수된 사례로 중복신고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를 재신고 사례로 하며,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 사례진행 중 재신고 사례, 일반상담 후 재신고 사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로 판정하여 사례 개입을 진행하다가 종결된 이후 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사례를 재학대 사례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학대 재발생 또는 재학대 개념에는 위에서 살펴 본 학대유형, 분석단위, 판정여부 외에 초기사례와 후속사례 사이에 일어난 시간적 격차 즉 시간의 경과가 포함된다.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의 시간적 격차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반복적 아동학대를 학대 재발생 혹은 재학대로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아동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회고적 조사(retrospective research)에서 응답되는 반복학대의 개념과 학대 재발생과의 개념 사이의 차이를 뚜렷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규정하는 학대 재발생 혹은 재학대는 초기사례의 신고 기록과 후속사례 신고 기록 사이에 시간적 격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정내 학대 재발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는 발생과 재발생의 구분보다 아동학대 개념 자체에 재발성과 지속성이라는 생태학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재발생 유형

2012년도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나타난 연도별 재학대 신고사례의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일정한 증가추세나 일정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뚜렷한 학대유형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신체학대는 2009년 23.6%에서 출발하여 2010년 24.1%, 2011년 28.5%로 증가하였다가 2012년 오히려 25.0%로 떨어진 반면, 방임은 2009년 재학대 신고비율 39.1%로 높았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0년 35.6%, 2011년 29.5%로 감소하였다가 2012년 다시 30.8%로 증가하였다. 성학대의 경우는 2009년 4.9%, 2010년 5.0% 수준에서 2011년 4.2%로 감소하였으나 2012년 7.1%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이처럼 학대가 아동 개인에게서 또는 특정 아동 집단에게서 일정 기간 동안 증가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 그리고 증감 추세가 어떠한 유형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국외에서도 발견하기 어렵다.

최근 들어 피학대아동을 동일한 재발생 궤적을 가진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별 특성과 관련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특화된 개입과 서비스 실천을 해야 한다는 다변량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재발생 궤적을 뚜렷하게 달리하는 아동집단이 있을 수 있고 이들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한다(Proctor, Aarons, Dubowitz, English, Lewis, Thompson, Hussey, Litrownik, and Roesch, 2012). 아동학대 재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일부 아동들은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ae et al., 2009; Jonson-Reid, Emery, Drake, & Stahlschmidt, 2010). 그러나 학대 재발생의 시간적 발달궤적을 살펴보면, 기간 동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학대가 재발생하거나, 간헐적으로 재발생하기도 하며, 일부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Proctor et al.(2012)는 4~12세 501명의 아동을 8년간 추적 조사하여 잠재성장모형(Growth mixture modeling)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재발생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사기간 동안 아동의 67%가 한 번 이상 학대를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발생 유형을 2년씩 3회기 동안 지속적으로 재발생하는 지속형(10%), 재발생과 미발생을 오고가는 간헐형(37%), 초기 4년 동안만 재발생한 초기 집중형(20%)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재발생 지속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신체학대, 부모의 연령과 음주, AFDC 수급, 가정내 아동의 수, 그리고 흑인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들은 결론에서 추적 기간 동안 내내 지속적으로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의 비율이 10%인 것과 학대경험 시기가 이룰수록 학대 재발생 경험이 그만큼 길어지는 것을 지적하면서 관련 요인을 감안하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국내에서는 김미경, 염동문과 이경은(2013)이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초4패널 1~3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결정나무 분석기법(Decision Tree Analysis)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중단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바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정폭력 정도, 부의 교육적 수준, 소득수준 또는 가구소득이 아동학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

로 규명하였다.

일반적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대한 메타분석에 의하면, 가족응집력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부모의 성(부)는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제수준, 결손가정, 부모음주도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보호요인 보다 위험요인이 아동학대와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안선경, 양지혜, 정익중, 2012). 국외 관련 연구들은 아동학대 재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대유형(방임, 신체학대),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양육자의 음주행동과 우울증, 사회적 지지의 부족, 빈곤을 지적하고 있다(Bae et al., 2009; Connell, Bergeron, Katz, Saunders, & Tebes, 2007; Fluke, 2008; Jonson-Reid, Chung, 2010; Thompson & Wiley, 2009; Wolock, Sherman, Feldman, & Metzger, 2001).

Ⅲ.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가 생산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4패널 1차~4차 년도(2010~2013)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초4패널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식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 가운데 표본으로 선출된 2,37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얻어진 종단자료이다. 따라서 시작 시점인 2010년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은 2013년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러나 2010년 1차 년도 자료는 학대에 관한 조사 문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2차~4차 년도 자료만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2011~2013년 3년 동안 학대 조사문항에 모두 응답한 2007명의 아동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변인과 측정

본 연구의 핵심적 종속변수인 아동학대는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께서 심하게 대한 적이 많다’라는 문항을 신체학대로 측정하고, ‘부모님께서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라는 문항을 언어학대로 측정하며,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는 1,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0으로 부호화하였다. 또한 3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 발생 및 재발생 유형은 미발생, 일회형(1회 발생), 재발형(1회 누락), 지속형(연속 3회)으로 분류하였다(표 1).

표 1 ▶ 아동학대 발생 및 재발생 유형 분류

발생 및 재발생 유형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미발생			
일회형	x		
		x	
			x
재발형	x	x	
	x		x
		x	x
지속형	x	x	x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바에 따라 아동학대 재발생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으로 아동 특성(성, 문제행동), 부모 특성(학력, 근로여부), 가족 특성(가족구성, 형제자매 수, 가구소득), 사회 특성(거주지)을 선정하였으며, 패널자료에서 구성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아동의 성, 부모의 근로여부, 가족구성, 지역은 범주형 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문제행동, 부모의 학력, 형제자매 수, 가구소득은 연속형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모든 예측변인은 2차 년도 정보를 활용하였으나, 아동의 문제행동은 4차 년도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비행 관련 14개 조사문항(담배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놀리거나 조롱하기, 집단따돌림 시키기, 패싸움, 때리기, 협박하기, 돈이나 물건 뺏기, 훔치기, 성관계, 성폭행이나 성희롱, 도박 게임하기)을 합산하여 투입하였다.

3. 분석방법

먼저 자료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2~4차 년도 3년 동안 아동학대의 발생 및 재발생 비율을 파악하고자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였다. 아동학대 재발생 유형을 분류한 후, 유형별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아동학대 발생 및 재발생이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발생’, ‘일회형’, 재발형’, ‘지속형’의 서열범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선형 회귀분석인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즉 다항로지토델(Multinomial Logit Model)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대 재발생 유형별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미발생을 준거집단으로 활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자료의 특성

자료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남아와 여아가 각각 52.4%와 47.6%로 남아가 과반을 넘었다. 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부의 최종학력은 대졸이 4.34%로 가장 높은 반면, 모의 최종학력은 고졸이 48.6%로 가장 높았다. 양 부모가 일을 하는 여부에 따라 맞벌이와 홀벌이로 분류한 결과 맞벌이 비율이 61.5%로 홀벌이보다 더 많았다. 가족구성을 살펴보면 양부모가정이 84.2%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자매 수는 1명 있는 비율이 65.2%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400만원 사이가 46.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거주지는 동지역이 84.7%로 읍면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표 2).

2. 발생 유형별 비율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신체학대는 2차 년도(2011년)에 13.9%에서 3차 년도(2012년)에 10.7%로 감소하였다가 4차 년도(2013년)에는 14.1%로 증가하였다. 언어학대도 2차 년도(2011년)에 12.0%였으나 3차 년도(2012년)에 10.9%로 감소하였다가 4차 년도(2013년)에는 17.1%로 증가하여, 신체학대에 비해 증가폭이 오히려 높았다. 아동학대 발생 및 재발생을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신체학대는 재발형 5.6%, 지속형 2.6%인 반면, 언어학대는 재발형 6.8%, 지속형 2.3%로 신체학대에 비해 지속형의 비율이 조금 낮았다.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신체학대나 언어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이 2%를 상회하였다. 재발형과 지속형을 합산하였을 때, 신체학대는 8.2%, 언어학대는 9.1%로 아동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3년 동안 지속적이던 간헐적이던 학대 재발생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3).

표 2 자료의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	남	1,051	52.4
	여	956	47.6
부 최종학력	중졸 이하	42	2.3
	고졸	717	38.6
	전문대졸	198	10.7
	대졸	807	43.4
	대학원 졸	94	5.1
	(결측)	(149)	
모 최종학력	중졸 이하	36	1.9
	고졸	915	48.6
	전문대졸	248	13.2
	대졸	639	33.9
	대학원 졸	46	2.4
	(결측)	(123)	
부모 근로형태	맞벌이	1,106	61.5
	부 홀벌이	667	37.1
	모 홀벌이	17	0.9
	무직	9	0.5
	(결측)	(20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666	84.2
	한부모가정	109	5.5
	조부모가정 ¹⁾	183	9.3
	기타	21	1.1
	(결측)	(28)	
형제자매 수	0	256	12.8
	1	1,308	65.2
	2	392	19.5
	3 이상	51	2.5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305	15.8
	201-400만원	891	46.3
	401-600만원	551	28.6
	600만원 이상	179	9.3
	(결측)	(81)	
거주지	동	1,676	84.7
	읍·면	303	15.4
	(결측)	(28)	
전체		2,007	100.0

1) (한)조부모+자녀, (한)조부모+부모+자녀, (한)조부모+한부모+자녀 포함됨.

표 3 아동학대 발생 및 재발생 유형별 비율

발생 및 재발생 유형	신체		언어	
	빈도	%	빈도	퍼센트
미발생	1,448	72.1	1,433	71.4
일회형	395	19.7	391	19.5
재발형	112	5.6	136	6.8
지속형	52	2.6	47	2.3
전체	2007	100.0	2,007	100.0

3. 재발생 유형별 관련요인

아동학대 재발생 유형별 관련요인을 규명하고자 아동, 부모, 가족, 사회 특성을 투입하여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신체학대와 언어학대를 따로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각각 ‘미발생’을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2개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Pseudo R² 는 5~7% 수준에 그쳤다.

먼저 신체학대 재발생 유형별 관련요인을 살펴보면, 아동의 성과 문제행동, 월평균 가구소득이 신체학대 지속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남아가 여아에 비해 지속적 학대 재발생을 경험할 오즈(odds)가 1.73배 높고, 문제행동 빈도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지속적 학대 재발생을 경험할 확률이 23%씩 증가하게 된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가정의 아동은 6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아동에 비해 지속적 학대 재발생을 경험할 오즈가 약 4배 가까이 더 높았다. 신체학대 재발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관련요인으로는 아동의 성과 문제행동 빈도 외에 부의 학력으로 나타났다. 부의 최종학력이 고졸일 경우 전문대졸 이상의 부에 비해 아동에게 신체학대를 재발시킬 오즈가 2배 더 높았다(표 4).

다음으로 언어학대 재발생 유형별 관련요인을 살펴보면, 언어학대 지속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관련요인은 아동의 문제행동 빈도와 월평균 가구소득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은 가정의 아동이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가구의 아동에 비해 언어학대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오즈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학대 재발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관련요인은 신체학대 재발형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성과 문제행동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학대와 달리 부의 학력은 통계적 유의성을 얻지 못하였다(표 5).

표 4 ▶ 신체학대 재발생 유형별 관련요인

	준거집단=미발생					
	지속형		재발형		일회형	
	B	Exp(B)	B	Exp(B)	B	Exp(B)
절편	-4.40		-3.49		-2.19	
아동 특성						
성(남아)	0.55*	1.73	1.11***	3.05	0.61***	1.84
문제행동 빈도	0.21*	1.23	0.18*	1.20	0.08	1.09
부모 특성						
부 학력(중졸 이하)	-0.94	0.39	0.28	1.33	-0.56	0.57
부 학력(고졸)	0.14	1.15	0.73*	2.07	0.17	1.19
모 학력(중졸 이하)	0.54	1.72	0.27	1.31	0.01	1.00
모 학력(고졸)	-0.30	0.74	-0.27	0.77	0.10	1.01
부모근로형태(맞벌이)	-0.45	0.64	-0.11	0.89	-0.03	0.97
가족 특성						
가족구성(양부모)	-0.10	0.90	0.26	1.30	0.08	1.08
형제자매 수	-0.12	0.88	0.11	1.11	0.25*	1.28
가구소득(200 이하)	1.35*	3.88	0.04	1.04	-0.09	0.91
가구소득(201-400)	0.75	2.10	-0.03	0.97	0.10	1.11
가구소득(401-600)	-0.13	0.89	-0.36	0.69	0.12	1.13
사회 특성						
거주지(동)	0.70	2.02	-0.35	0.70	-0.01	0.99
χ^2			97.622***			
Cox & Snell R^2			0.054			
Nagelkerke R^2			0.068			

주: 준거집단은 여아(성), 전문대졸 이상(부모 학력), 홀벌이(부모근로형태), 한부모가정 및 조부모가정(가족구성), 600만원 이상(월평균 가구소득), 읍면(거주지)임.

* $p < .05$, ** $p < .01$, *** $p < .001$

이상에서 신체학대 재발생과 언어학대 재발생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공통적인 관련요인은 아동의 성과 문제행동 빈도이다. 다시 말하면 남아가 여아에 비해 신체학대와 언어학대 재발생을 경험할 확률이 월등히 높으며 문제행동이 늘어날수록 신체학대와 언어학대 재발생을 경험할 가능성이 따라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언어학대 재발생 유형별 관련요인

	준거집단=미발생					
	지속형		재발형		일회형	
	B	Exp(B)	B	Exp(B)	B	Exp(B)
절편	-3.71		-3.47		-1.96	
아동 특성						
성(남아)	0.06	1.06	0.76***	2.14	0.53***	1.69
문제행동 빈도	0.29**	1.34	0.22*	1.25	0.24***	1.27
부모 특성						
부 학력(중졸 이하)	0.15	1.17	-0.52	0.60	-1.91*	0.15
부 학력(고졸)	0.33	1.38	0.12	1.13	0.08	1.08
모 학력(중졸 이하)	-0.15	0.86	0.84	2.32	0.86	2.36
모 학력(고졸)	-0.53	0.59	0.33	1.38	0.15	1.16
부모근로형태(맞벌이)	-0.16	0.85	0.11	1.12	0.17	1.19
가족 특성						
가족구성(양부모)	1.42	4.15	-0.13	0.88	-0.36	0.69
형제자매 수	-0.05	0.95	0.01	1.01	0.04	1.04
가구소득(200 이하)	-1.08	0.34	0.11	1.12	0.19	1.21
가구소득(201-400)	-0.63	0.53	-0.10	0.90	0.44	1.58
가구소득(401-600)	-1.30**	0.27	-0.51	0.60	0.57*	1.76
사회 특성						
거주지(동)	-0.28	0.75	0.60	1.82	-0.11	0.89
χ^2			99.104***			
Cox & Snell R^2			0.055			
Nagelkerke R^2			0.068			

주: 준거집단은 여아(성), 전문대졸 이상(부모 학력), 홀벌이(부모근로형태), 한부모가정 및 조부모가정(가족구성), 600만원 이상(월평균 가구소득), 읍면(거주지)임.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이 생산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 가운데 초4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발생 및 재발생을 유형으로 분류하고 학대 재발생 유형별 비율과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초4패널 자료에서 2차~4차 년도 3년 동안 학대에 관한 조사문항을 모두 응답한 2007명을 선택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아동학대는 KCYPs의 조사문항에 따라 신체학대와 언어학대로 분류하였으며, 3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 발생 및 재발생 유형은 미발생, 일회형, 재발형, 지속형으로 분류하였다. 학대 재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관련요인으로 아동, 부모, 가족, 사회 특성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서 논의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신체학대

나 언어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이 각각 2.6%와 2.3%였다. 해외 관련연구에서 8년간의 추적 기간 동안 파악된 아동학대 지속형 비율인 10%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Proctor et al., 2012). 그러나 이는 두 개의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활용한 자료(특히 아동)의 특성과 학대 재발생의 개념정의 등 방법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아동학대의 지속적 재발생 수준이 관련연구에 비해 낮다고 속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재발형과 지속형을 합산하였을 때, 신체학대는 8.2%, 언어학대는 9.1%로 아동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3년 동안 지속적이던 간헐적이던 학대 재발생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상당한 비율의 아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적 및 실천적 관심을 요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신체학대나 언어학대 둘 다 3차 년도인 2012년에 감소하였다가 4차 년도인 2013년에 다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신체학대의 증가폭이 언어학대에 비해 높았다. 4차 년도는 분석대상 아동이 중학생이 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정서 및 정신건강, 적응 및 행동 등 아동·청소년의 발달특성이 가시적으로 두드러지기 때문에 학대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가 활용한 자료에서도 학대 재발형 가운데 3차 년도인 초등학교 6학년에 학대가 중단되었다가 4차 년도인 중학교 1학년에 학대가 재발생한 비율이 신체학대 53.0%, 언어학대 51.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연속적으로 학대가 발생하였으나 중학교 1학년에 학대가 중단된 비율은 신체학대 26.8%, 언어학대 19.1%였다.

셋째, 아동학대 재발생 유형별 관련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체학대의 경우 아동의 성과 문제행동, 월평균 가구소득이 지속형에, 아동의 성과 문제행동 빈도, 부의 학력이 재발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학대의 경우 아동의 문제행동 빈도와 월평균 가구소득이 지속형에, 아동의 성과 문제행동 빈도는 재발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신체학대 재발생과 언어학대 재발생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공통적인 관련요인은 언어학대 재발생 지속형을 제외하고 아동의 성과 문제행동 빈도였다. 즉 남아가 여아에 비해 신체학대와 언어학대 재발생을 경험할 확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아동이 경험하는 학대유형에서 성별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내외 관련 연구에 의하면 남아는 여아에 비해 신체학대 피해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아는 남자에 비해 성학대 피해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발생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Bae et al., 2009; Thompson & Wiley, 2009). 본 연구에서도 신체학대 재발생 비율은 남아 11.0%, 여아 5.0%였으며($X^2=53.597$, $p<.000$), 언어학대 재발생 비율은 남아 10.9%, 여아 7.2%였다($X^2=33.235$, $p<.000$).

넷째, 아동의 문제행동 빈도는 학대유형과 재발생 유형을 불문하고 모두 유의미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아동의 도벽, 가출 등의 문제행동이나 공격성이나 위축 등 정서적 기질, 학교 부적응은 양육자의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정에서 학대를 유발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

으로 밝혀지고 있다(전대양, 2000). 또한 문제행동의 빈도가 남아에게서 더 높은 것도 학대 재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기도 하다. 본 자료에서도 문제행동 빈도가 남아 0.41회, 여아 0.19회로 남아가 여아에 비해 2배 이상인 것도 학대 재발생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t=5.202$, $p<.000$).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이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으로 밝혀졌지만,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학대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아동은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더 노출시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국내외 관련연구에 의하면 학대는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무단결석, 가출, 비행, 학교폭력, 학업능력 저하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이다(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8; 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Jimenez, Dekovic, & Hidalgo, 2009).

참고문헌

- 김미정, 염동문, 이정은. (2013). CART 분석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21(1): 293-315.
-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8). 청소년들의 가정폭력노출경험이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6: 31-69.
- 배화옥. (2007). 아동학대유형별 재발생 특성과 관련요인에 관한 생존분석. **아동권리연구**, 11(3): 387-411.
- 안선경, 양지혜, 정익중. (2012).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영역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38(0): 331-357.
- 전대양. (2000). 학대아동의 일탈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9호, 195-225.
- 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223-244.
- Bae H. Solomon P. L., & Gelles R. J. 2009. Multiple child maltreatment recurrence relative to single recurrence and no recurrenc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1 (6): 617-624.
- Connell, C. M. et al. 2007. Re-referral to child protective services: The influence of child, family, and case characteristics on risk status. *Child Abuse & Neglect*, 31, 573-588.
- Devaney, J. 2009. Chronic child abuse: The characteristics and careers of children caught in the child protection system.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9, 24-45.
- Gold, S. R., Milan, L. D., Mayall, A., & Johnson, A. E. 1994. A cross-validation study of the Trauma Symptom Checklist: The role of mediating variab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9(1), 12-26.
- Jaffee, S. R., & Maikovich-Fong, A. K. 2011. Effects of chronic maltreatment and maltreatment timing on children's behavior and cognitive abilities. *Journal of Psychology and Psychiatry*, 52, 184-194.
- Jimenez, L. Dekovic, M. & Hidalgo, V. (2009). Adjustment of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growing up in at-risk families: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variables and individual, relational and school adjust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1: 654-661.
- Jonson-Reid, M., Clifton, R. E., Drake, B. & Stahlschmidt, M. J. 2010. Understanding chronically reported

- families. *Child Maltreatment*, 15(4), 271-281.
- Proctor, L.J., Aarons, G.A., Dubowitz, H., English, D.J., Lewis, T., Thompson, R., Hussey, J.M., Litrownik, A.J., and Roesch, S.C. 2012. Trajectories of maltreatment re-reports from ages 4 to 12: Evidence for persistent risk after early exposure. *Child Maltreatment*, 17(3), 207-217.
- Thompson R. & Wiley T. R. 2009. Predictors of re-referral to child protective services: A longitudinal follow-up of a cohort maltreated as infants. *Child Maltreatment*, 14(1), 89-99.
- Turner, H. A., Finkelhor, D., & Ormrod, R. 2010. Poly-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children and youth.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8, 323-330.
- Wolock, I., Sherman, P., Feldman, L. H., & Metzger, B. 2001. Child abuse and neglect referral patterns: A longitudinal stud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Special Issue: Assessing and managing risk in child protective services*, 23, 21-47.

학령기 아동의 사회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연정*·전화은**

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등학교 2학년 아동 2015명을 대상으로 시간적 추이에 따른 사회정서문제 변화를 파악하고, 아동의 사회정서문제에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의 양육방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의 2차 조사년도인 2011년 패널데이터와 4차 조사년도인 2013년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초등학교 2학년아동의 사회정서문제는 2년 후인 4학년이 되었을 때 우울을 제외한 나머지 정서문제(주의집중, 충동성, 신체증상, 사회적위축)에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또한 각 학년별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초등학교 2학년의 경우 주의집중, 공격성, 우울 문제는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의 양육방식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적 위축은 교사관계만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사회정서문제와 양육방식이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달리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사회정서문제 모든 하위영역과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의 양육방식이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특히 교우관계가 사회정서문제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결과를 통해 아동의 사회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동의 발달단계와 관련을 가진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주제어: 사회정서문제, 교우관계, 교사관계, 양육방식

I. 서론

1. 이론적 배경

정서는 개인 안에 다양한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크고 작은 내·외현화 행동을 수반한다. 아울러 개인의 내적 상태를 조절하고 대인관계와 사회성은 물론 한 개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서는 주관적인 감정 뿐 만아니라 적응행동과 관련된 생리적 변화를 동반하고, 도구적이고 표출적이며, 충동적 속성을 가지는 특성(Lazarus, 1976)으로 인해 정서를 조율하고 표현하는 일은 자아(self)발달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정서에 관한 연구들은 인간의 정서가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유발되며, 개인의 경험과 기억에 의해 각성되기도 하고 조절되고 변형되기도 한다고 전한다(Rubin, 1998; Shaffer, 2005). 즉 개인 내의 생리적, 인지적 상황과 개인의 외적인

* 아동발달환경연구소 소장 yjkim98@hotmail.com

** 아동발달환경연구소 연구원

자극환경과의 상호관계 안에서 경험되고 조절되며 발달된다 할 수 있다.

가정은 아동이 태어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첫 환경으로 주 양육자를 비롯한 가족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정서발달도 그 기초를 다지게 된다.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아동의 정서 상태나 표현에 민감하지 않고 부정적 정서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할 때 아동 또한 정서조절과 표현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최은실, 2010; Eisenberg et al, 2001). 서혜린(2006)은 유아와 그 어머니 180쌍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운데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유아는 공격적 전략을 적게 사용하고,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유아는 공격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유아는 감정발산 전략을 적게 사용하였으며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유아는 긍정적 대처전략과 무전략을 적게 사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머니가 우울하거나 감정조절이 어려울 경우 어머니들은 우울의 특성으로 인해 자녀의 반응에 민감하지 않아 반응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거나 자신의 부정적 감정에 과도하게 몰입되어 자녀의 행동을 왜곡되게 지각함으로써 부정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아동의 행동이나 정서문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Cummings & Davies, 1994; 박찬경, 강지현, 2013). 안라리(2007)는 유아의 개인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발달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표현성이 높을수록 유아는 억양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경향이 높았고,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표현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슬픔 표현이 빈번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이 수용적일수록 유아는 긍정적 정서 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적게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아동은 부모의 양육 안에서 정서표현과 수용모습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정서에 대한 인식과 특정한 정서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학습하게 되며 자신이 표현한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경험하면서 그러한 정서표현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며,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지 관찰하며 정서 조절을 하게 되어(Dunn, Brown & Beardsall, 1991; Saarni, 1999) 정서문제에 영향을 받는다.

아동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의 하나는 교사와 또래이다. 교사와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보다 상호적이고 유능하며, 공격성이나 위축 등 부적응 행동이 적었다(Howes, Matheson & Hamilton, 1994). 김숙령과 고윤희(2009)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교사의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보다 교사의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하며, 교사의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정서조절을 매개로 하여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처럼 교사와 아동과의 지지적 관계는 아동의 공격성을 낮추고(심승원, 2000) 교사의 공감적 반응이 아동의 자기를 이해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를 수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선행연구는 보고하고 있다(김미정, 2014).

또한 또래관계에서 아동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며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행동과 태도를 현실에 맞게 변화시키며 나아가 구성원들간 상호의존과 규칙, 협력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중요한 개념들을 배우게 한다(장정원, 1996). 또래간의 공통적인 관심과 문제, 고민을 함께 나누며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을 경험하게 하고, 아동이 보다 넓은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자질에 밑거름이 되며, 가족을 벗어난 가치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성인의 압력이나 간섭에 대항하는 힘을 주는 준거집단의 기능도 하게 된다(정선진, 2000; 홍주영, 2002).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또래에게 인기가 많은 아동은 인기가 적거나 거부되는 아동에 비해 분노감정을 더 잘 조절하고 화내는 횟수가 적었으며, 화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자기주장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한다(Coie & Dodge, 1998). 즉 아동은 또래라는 대인관계 속에서 발달시기에 알맞은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조절되도록 배우게 된다. 특히 학령기는 정서표현 규칙을 배우는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Jones, Abbey, 1998). 이처럼 학령기 아동의 정서발달은 가정과 또래관계, 그리고 교사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발달은 연령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달의 차이를 가지게 된다. 학령초기 초등 1-2학년은 논리적인 사고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기는 하나 아직 불안정하며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우위에 있는 시기이다(Sano, 1996). 반면 초등 4-5학년은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며 가설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발달되는 시기로, 친구들간의 동조성이 증가하고 또래집단의 조직적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인지적 성숙과 병행해서 특수한 공통 관심사나 혹은 계획된 일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서봉연, 이순형, 1998). 아동의 정신건강 유병율에 관한 2005년 서울시의 조사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발달단계에 따라 표출되어지는 문제가 다르다고 지적한다. 즉 저학년일수록 충동성이나 주의산만과 같은 행동장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비해 고학년일수록 우울장애나 물질남용, 의존과 같은 정신적 문제 비율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 표본을 사용하여 동일한 표본을 일정기간에 걸쳐 반복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아동의 사회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즉, 2011년 초등학교 2학년 아동들의 사회정서문제와 2년의 시간이 경과된 후 그들의 사회정서문제의 변화양상의 추이를 파악하고, 그들의 사회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여 대응 및 지원책 간구를 위한 자료제공을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아동의 사회정서문제는 어떠한가?
- 2)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아동의 교우관계, 교사관계와 부모의 양육방식은 어떠한가?
- 3)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아동의 사회정서문제에 그들이 인식하는 교우관계, 교사관계, 양육방식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에 참여한 초등학교 2학년 아동과 부모 2015쌍이다. 2차 조사년도인 2011년 패널데이터와 4차 조사년도인 2013년 패널데이터 전체 2342쌍의 결과 중 아동의 교우관계, 교사관계, 사회정서문제, 부모의 양육방식 변인에서 결측값을 가진 데이터를 제외하고 최종 2015쌍의 데이터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51.3%로 여아 48.7%보다 조금 많았다. 부모특성에 있어 연령은 아버지 76.67%와 어머니 67.49%로 모두 40대가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과 취업여부에서 학력은 아버지 대학졸업이 52.86%와 어머니 대학졸업이 50.12%로 가장 많았지만 어머니의 학력 고졸 이하는 43.92%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취업은 84.99%, 어머니의 취업은 59.40%로 취업한 부모가 많았고, 가구 연소득은 45.50%로 중집단이 많았다.

표 1 참여 아동과 부모 특성

내용	변인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034	51.3
	여	981	48.7
부연령	30-39세	182	9.05
	40-49세	1545	76.67
	50-59세	179	8.88
	60세 이상	2	0.09
	무응답	107	5.31
모연령	30-39세	520	25.80
	40-49세	1360	67.49
	50-59세	52	2.58
	60세 이상	0	0
	무응답	83	4.13
부학력	고졸이하	763	37.87
	대학졸	1045	51.86
	대학원졸 이상	134	6.65
	무응답	73	3.61
모학력	고졸이하	885	43.92
	대학졸	1010	50.12
	대학원졸 이상	61	3.02
	무응답	59	2.94

내용	변인	빈도	백분율
부직업	유	1914	84.99
	무	29	1.44
	무응답	72	3.57
모직업	유	1197	59.40
	무	761	37.77
	무응답	57	2.83
가정의 연간소득	상 (6000만원 이상)	395	19.60
	중 (3600-6000만원)	917	45.50
	하 (3600만원 이하)	657	32.60
	무응답	46	2.30

2. 연구방법

1) 연구도구

① 아동의 사회정서문제

사회정서문제 설문지의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은 조봉환,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위축 질문지는 김선희, 김경연(1998)이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우울에 대한 질문지는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중 우울척도 13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1점(매우 그렇다)부터 4점(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었다. 즉 정서문제는 점수가 낮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역코딩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행동문제가 많은 것이다. 정서문제 각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93이며,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주의집중은 .80 공격성은 .81 신체증상은 .88 사회적 위축은 .89 우울은 .89이다.

② 아동 양육방식

아동 양육 방식의 방임 4문항과 학대 4문항은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의 아동학대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1점(매우 그렇다)부터 4점(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었다. 문항 중 학대관련 4문항은 점수가 낮을수록 학대하는 양육방식이 많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코딩하여 처리하였다. 즉 양육방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많은 것이다. 양육방식의 각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74이며,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방임 .74 학대 .82이다.

③ 아동의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는 문선모(1977), 이상필(1990)의 척도를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제작

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 중 학교행사 관련문항 5문항을 제외하고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1점(매우 그렇다)부터 4점(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었다. 교우관계에서 1문항을 역채점하여 총 5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원만치 못한 것이다. 교사관계 5문항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관계도 원만치 않은 것을 의미한다. 교우관계 신뢰도는 .66이며, 교사관계 신뢰도는 .86이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아동패널 연구자료를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아동의 부모특성과 정서문제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각 변인 사회정서문제, 교우관계, 교사관계 및 양육방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사회정서문제와 교우관계, 교사관계 및 양육방식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초등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사회정서문제에 교우관계, 교사관계, 양육방식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아동의 사회정서문제와 교우관계, 교사관계 및 양육방식

1)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아동의 사회정서문제

아동의 학년에 따른 사회정서문제의 차이를 평균과 표준편차 및 t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응답 가능한 점수는 1~4점으로 우울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주의집중 문제는 2학년($M=2.17$, $SD=.51$)보다 4학년($M=1.87$, $SD=.57$)이 낮았으며($t=21.07$, $p<.001$), 공격성은 2학년($M=1.57$, $SD=.43$)보다 4학년($M=1.67$, $SD=.54$)이 높아졌다(-6.82 , $t=p<.001$). 신체증상은 2학년($M=1.46$, $SD=.42$)보다 4학년($M=1.65$, $SD=.56$)이 높았으며($t=-12.87$, $p<.001$), 사회적 위축은 2학년($M=2.13$, $SD=.66$)보다 4학년($M=1.93$, $SD=.72$)이 낮았다($t=10.39$, $p<.001$).

표 2 ▶ 학년별 아동의 사회정서문제 차이

변인	2학년(2011)		4학년(2013)		t
	M	SD	M	SD	
주의집중	2.17	.51	1.87	.57	21.07***
공격성	1.57	.43	1.67	.54	-6.82***
신체증상	1.46	.42	1.65	.56	-12.87***
사회적 위축	2.13	.66	1.93	.72	10.39***
우울	1.44	.39	1.47	.50	-1.79

* $p < .05$ ** $p < .01$ *** $p < .001$

2)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아동의 교우관계, 교사관계 및 부모의 양육방식

아동의 학년에 따른 교우관계, 교사관계 및 부모의 양육방식의 차이를 평균과 표준편차 및 t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응답 가능한 점수는 1~4점으로 결과는 표 3과 같다.

교우관계 문제는 2학년($M=1.85$, $SD=.47$)보다 4학년($M=1.75$, $SD=.48$)이 낮았으며($t=8.15$, $p<.00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 문제 또한 2학년($M=1.83$, $SD=.35$)보다 4학년($M=1.65$, $SD=.47$)이 낮았다($t=16.78$, $p<.001$). 교사관계문제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3 ▶ 학년별 아동의 교우관계, 교사관계 및 양육방식 차이

변인	2학년(2011)		4학년(2013)		t
	M	SD	M	SD	
교우관계	1.85	.47	1.75	.48	8.15***
교사관계	1.50	.50	1.50	.50	
양육방식	1.83	.35	1.65	.47	16.78***

* $p < .05$ ** $p < .01$ *** $p < .001$

2.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아동의 사회정서문제와 교우관계, 교사관계와 부모의 양육방식 관계

학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정서문제와 교우관계, 교사관계 및 부모의 양육방식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단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사회정서문제와 교우관계, 교사관계와 부모의 양육방식 관계

초등학교 2학년의 변인간 상관관계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주의집중은 교우관계($r=.17$, $p<.01$), 교사관계($r=.16$, $p<.01$), 부모의 양육방식($r=.21$, $p<.01$)과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공격성 또한 교우관계($r=.10$, $p<.01$), 교사관계($r=.10$, $p<.01$), 부모의 양육방식($r=.12$, $p<.01$)과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신체증상은 교우관

계, 교사관계, 부모의 양육방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사회적 위축은 교사관계($r=.06$, $p<.01$)만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교우관계와 부모의 양육방식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우울의 경우 교우관계($r=.06$, $p<.01$), 교사관계($r=.05$, $p<.05$), 부모의 양육방식($r=.08$, $p<.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4 2학년 아동의 사회정서문제와 교우관계, 교사관계와 부모의 양육방식 관계

	1	2	3	4	5	6	7	8
1 주의집중	-							
사회 정서 문제	2 공격성	.48**	-					
	3 신체증상	.23**	.35**	-				
	4 사회적위축	.16**	.24**	.31**	-			
	5 우울	.28**	.44**	.59**	.43**	-		
	6 교우관계	.17**	.10**	-.01	.02	.06**	-	
	7 교사관계	.16**	.10**	-.01	.06**	.05*	.45**	-
	8 양육방식	.21**	.12**	-.02	.02	.08**	.29**	.29**

* $p<.05$ ** $p<.01$ *** $p<.001$

2)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사회정서문제와 교우관계, 교사관계와 부모의 양육방식 관계

초등학교 4학년의 변인간 상관관계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주의집중은 교우관계($r=.46$, $p<.01$), 교사관계($r=.19$, $p<.01$), 부모의 양육방식($r=.33$, $p<.01$)과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공격성 또한 교우관계($r=.43$, $p<.01$), 교사관계($r=.13$, $p<.01$), 부모의 양육방식($r=.32$, $p<.01$)과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신체증상은 교우관계($r=.34$, $p<.01$), 교사관계($r=.09$, $p<.01$), 부모의 양육방식($r=.33$, $p<.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사회적위축은 교우관계($r=.29$, $p<.01$), 교사관계($r=.09$, $p<.01$), 부모의 양육방식($r=.21$, $p<.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우울은 교우관계($r=.42$, $p<.01$), 교사관계($r=.08$, $p<.05$), 부모의 양육방식($r=.41$, $p<.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5 4학년 아동의 사회정서문제와 교우관계, 교사관계와 부모의 양육방식 관계

	1	2	3	4	5	6	7	8
	1 주의집중	-						
사회 정 서 문 제	2 공격성	.68**	-					
	3 신체증상	.48**	.60**	-				
	4 사회적위축	.39**	.39**	.46**	-			
	5 우울	.47**	.58**	.66**	.58**	-		
	6 교우관계	.46**	.43**	.34**	.29**	.42**	-	
	7 교사관계	.19**	.13**	.09**	.09**	.08**	.21**	-
	8 양육방식	.33**	.32**	.33**	.21**	.41**	.44**	.16**

* $p<.05$ ** $p<.01$ *** $p<.001$

3.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아동의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의 양육방식이 사회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학년에 따른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의 양육방식이 아동의 사회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가 나타난 변인들 중심으로 다중회기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 값은 10이하를 보여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의 양육방식이 사회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이 지각한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의 양육방식이 아동의 사회정서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주의집중의 경우 교우관계($\beta=.09, p<.001$), 교사관계($\beta=.08, p<.001$), 부모의 양육방식($\beta=.16, p<.001$)이 유의한 변인이며 설명력은 6%다. 공격성은 교우관계($\beta=.07, p<.01$)와 부모의 양육방식($\beta=.10, p<.001$)이 유의한 변인이며 설명력은 2%이다. 사회적 위축은 교사관계($\beta=.06, p<.01$)에서만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이다. 우울은 부모의 양육방식($\beta=.08, p<.001$)에서만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이다.

표 6 2학년 아동의 교우관계, 교사관계, 양육방식이 사회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R^2	F
주의집중	교우관계	.09***	.06	42.23***
	교사관계	.08***		
	양육방식	.16***		
공격성	교우관계	.07**	.02	19.54***
	교사관계	.05		
	양육방식	.10***		
사회적위축	교우관계	-.01	.01	7.179**
	교사관계	.06**		
	양육방식	.01		
우울	교우관계	.04	.01	13.84***
	교사관계	.03		
	양육방식	.08***		

* $p<.05$ ** $p<.01$ *** $p<.001$

2)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의 양육방식이 사회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지각한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의 양육방식이 아동의 사회정서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주의집중의 경우 교우관계($\beta=.77, p<.001$), 교사관계($\beta=.09, p<.001$), 부모의 양육방식

($\beta=.15$, $p<.001$)이 유의한 변인이며 설명력은 24%다. 공격성은 교우관계($\beta=.36$, $p<.001$)와 부모의 양육방식($\beta=.16$, $p<.001$)이 유의한 변인이며 설명력은 20%이다. 신체증상은 교우관계($\beta=.24$, $p<.001$)와 부모의 양육방식($\beta=.23$, $p<.001$)이 유의한 변인이며 설명력은 16%이다. 사회적 위축은 교우관계($\beta=.25$, $p<.01$)와 부모의 양육방식($\beta=.10$, $p<.001$)이 유의한 변인이며 설명력은 9%이다. 우울은 교우관계($\beta=.30$, $p<.01$)와 부모의 양육방식($\beta=.28$, $p<.001$)이 유의한 변인이며 설명력은 24%이다.

표 7 4학년 아동의 교우관계, 교사관계, 양육방식이 사회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R^2	F
주의집중	교우관계	.77***	.24	209.30***
	교사관계	.09***		
	양육방식	.15***		
공격성	교우관계	.36***	.20	256.07***
	교사관계	.06		
	양육방식	.16***		
신체증상	교우관계	.24***	.16	187.19***
	교사관계	.00		
	양육방식	.23***		
사회적위축	교우관계	.25***	.09	104.78***
	교사관계	.02		
	양육방식	.10***		
우울	교우관계	.30***	.24	320.06***
	교사관계	-.03		
	양육방식	.28***		

* $p<.05$ ** $p<.01$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사회정서문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지 알아보고 교우 및 교사관계와 부모의 양육방식이 아동의 사회정서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회정서문제는 우울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즉 주의집중의 경우 2학년 시기에는 전체평균이 2.17점이었으나 4학년이 되어서는 그 보다 더 낮은 1.87점이었으며, 사회적 위축 또한 2학년시기에는 전체평균 2.13점에서 4학년에는 1.93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낮아졌다. 반면 공격성은 전체평균이 1.57점에서 1.67점으로, 신체적 증상의 경우는 1.46점에서 1.65점으로 2학년 시기보다 4학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아동의 사회정서문제 중 주의집중과 사회적 위축문제는 2학년 무렵보다 4학년이 되어 문제가 조금 더 적어졌으며, 공격성과 신체적 증상은 2학년 무렵보다 4학년이 되어 조금 더 커졌다. 이러한 결과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의 경우 대개 증상이 7세 이전에 시작되지만 7세에서 9세 때인 학령초기에 동등한 발달 수준에 있는 아동들에게 관찰되는 것 보다 더 빈번하고 심하게 관찰되어지다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을 계기로 산만함과 충동적인 모습이 조금 안정적으로 변한다는 조수철(1989)과 정영철(200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더욱이 초등학교 4학년은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발달단계로, 인지적 능력이 향상되고, 계획된 일로 자신의 활동을 조절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시기이다(서봉연, 이순형, 1998). 따라서 4학년의 주의집중과 사회적 위축이 2학년 때 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서문제 평가자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주장하는 조봉환, 임정희(2003)의 주장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봉환과 임정희는 지금까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관한 평가 대부분이 오랜 시간 아동을 관찰한 부모나 교사에게 의해 평가되었으며, 부모나 교사에게 의해 아동의 정서문제가 평가 될 경우 위축이나 불안, 신체증상과 같은 내면화 문제에 관심을 주기 보다는 주의산만이나 과잉행동, 공격성 등과 같은 외면화 문제행동에 주의가 끌리기 쉽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평가자의 차이는 본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정서문제는 부모에 의해 평가된 반면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정서문제는 아동본인에 의해 평가되었다. 즉 본 결과가 시간경과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의 변화로 이해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서문제에 대한 평가자의 차이에 따른 결과인지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해석에 어려움이 따른다.

한편 4학년이 되어 유의하게 높아진 사회정서문제는 공격성과 신체적 증상이다. 공격성은 아동 초기 보다 아동 중 후기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선행연구(Elliott, 1994; 이은아, 천성문, 201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령전기가 지나면 직접적인 상황에 대해 신체적 공격을 수반한 즉각적 반응은 감소하나 아동들의 행동은 점점 더 의도적이고 보복적이며 말다툼이나 싸움, 욕설, 따돌림 등 공격적 행동이 증가한다고 이은아와 천성문(2013)은 보고하고 있다.

또한 시간경과에 따른 교사 및 교우관계와 양육방식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교사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즉 교우관계는 2학년 시기에는 전체평균 1.85에서 4학년에는 1.75로, 양육방식은 1.83에서 1.65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낮아졌다. 이는 2학년 시기에 아동들이 느끼는 교우관계와 양육방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4학년이 되어서 더욱 안정적으로 되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아동의 인지적 향상과 관련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시간경과에 따른 학년별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2학년 시기의 변인들간의 관계와 4학년 시기의 각 변인들간의 관계에 차이를 보였다. 즉 초등학교 2학년의 경우 주의집중과 공격성, 우울 문제가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의 양육방식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신체증상의 경우는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이 없었으며, 사회적 위축은 교사관계만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이와 달리 초등학교 4학년은 사회정서문제의 하위항목 전체(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및 우울)가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의 양육방식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초등학교 2학년 각각의 사회정서문제와 교우관계, 교사관계, 양육방식의 상관계수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만 사회적 위축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양육방식과 가장 상관이 강하고, 다음으로 교우관계와 상관을 보인다. 그러나 4학년의 사회정서문제는 교우관계와의 상관계수가 가장 강하고 다음이 양육방식이며 교사관계가 그 뒤를 잇는다. 임희수(2000)는 아동연령이 어릴수록 아동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태도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자녀의 특정한 정서조절 방식이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어머니의 강압적이고 비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공격적인 표현과 관련을 보이며(McFadyen-Ketchum et. al., 1996),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정서를 기능적으로 또는 상황에 맞게 조절하지 못하여 부적절한 정서조절(emotion dysregulation)을 보이며(Shields & Cicchetti, 1998), 우울감 등의 문제행동과 관련을 가진다(최윤경, 이지연, 2011). 더욱이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은 4학년 아동보다 자기중심적이고 직관적이며 부모의 아동통제력과 아동의 부모의존도가 높은 아동초기의 발달적 특성도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아동의 바람직한 교우관계가 학교생활적응은 물론, 사회성 증진, 소외감 감소, 긍정적 자아개념에 효과적이었다는 여러 보고는 질 좋은 교우관계 경험이 아동의 긍정적인 성격 및 사회성 형성과 정서적 안정에 유익하다는 점을 시사하며(박노영, 2002; 우정애, 2005; 장미자, 2004; 조순이, 2006) 건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촉진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본 결과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사회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인관계가 다르다는 선행연구(김빛나, 2014; 정문자, 김문정, 2004)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아동의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의 양육방식이 사회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았다. 2학년의 경우 주의집중은 교사관계, 교우관계, 부모의 양육방식의 영향력을 받으며 특히 양육방식이 가장 영향력이 높았다. 공격성은 교우관계와 양육방식과 교우관계의 영향을 받으며 주의집중과 같이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컸으며 이러한 모습은 우울에서도 동일하다. 사회적 위축은 교사관계의 영향력이 있었다. 이와 달리 4학년의 경우 주의집중은 교우관계, 교사관계, 양육방식의 영향력을 받으며 교우관계에 가장 영향력이 높았으며 공격성과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서도 교우관계가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었고 교사관계의 영향력은 적었다. 더욱이 초등학교 2학년의 경우 하위변인들 간의 설명력은 1~6%였던 것과 달리 초등학교 4학년의 각 변인 간의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은 16~24%로 증가되었다. 즉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사회정서문제에 교우관계, 교사관계, 양육방식이 미치는 영향력보다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사회정서문제에 교우관계, 교사관계, 양육방식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상관이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사회정서문제는 교우관계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아동의 정서문제가 관련을 가진다는 연구결과는 앞에서 서술한 많은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으며, 또래관계 또한 아동의 정서문제와의 관련성이 선행연구에서 많이 지적되어 왔다. 연문희, 강진령(2002)에 의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대인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또래집단이 강력해지고 이를 통하여 사회화 과정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학교에서의 또래집단은 우리(we-ness)라는 연대의식과 감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소속감을 갖게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동기 초기에는 자기개념이 분명치 않고 비조직적이므로 아동상호간의 응집성이 약하지만 고학년 이상이 되면 또래집단의 구조가 뚜렷해지고 공식화되며 집단 자체 내의 조직화도 가능하게 된다(권이중, 1992). 이 시기에 주된 대인관계인 교우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고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자기존중감을 발달시킬 수 있다(김지영, 2012).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사회정서문제에 대한 문제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변수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양육환경과 교우관계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다시한번 시사되었다.

끝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회정서문제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그러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의 사회정서문제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달라졌다. 즉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사회정서문제 예측변인이 바뀐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확한 예측변인을 추출하고 예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긴 종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귀연, 김경연.(2005). 아동의 위축 및 공격성에 대한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 거부적 양육행동, 또래 괴롭힘, 부정적 부모표상 및 부정적 또래표상의 인과효과. **아동학회지**, 26(6), 247-266.
- 김미정.(2014). **아동이 지각한 교사의 공감적 반응과 아동의 자기수용과의 관계**.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빛나.(2014). **아동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능력의 매개효과**. 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령, 고윤희.(2009).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교사의 정서표현성, 유아의 정서조절력, 문제행동간의 구조모형분석. **유아교육연구**, 29(6), 45-65.
- 김지영.(2012). **학급단위 교우관계향상 프로그램이 아동의 교우관계와 사회정서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이중.(1992). **한국청소년학의 정립과 전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사회학 연구회.
- 박노영.(2002). **교우관계 개선을 위한 집단상담이 초등학교생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한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찬경, 강지현.(2013).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 **교육종합연구**, 11(4). pp. 1-22.
- 서봉연, 이순형.(1998). **발달심리학:발달단계**. 중앙적성출판사.

- 서혜린.(2007).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정서 표현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승원.(2000).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라리, 김희진.(2007). 유아의 성, 연령, 기질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 발달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2) 133-145.
- 우정애.(2005). **초등학생 교우관계의 친밀도와 질적 특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아, 천성문.(2013). 초등학생용 공격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25(3),477-495.
- 임희수.(2000).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연문희, 강진령.(2002). **학교상담 21세기의 학생생활지도**. 서울양서원.
- 장미자.(2004). **교우관계 개선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소외감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정원.(1996). **초등학교 아동의 친구관계와 자기능력 지각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문자, 김문정.(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5), 11-27.
- 정선진.(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의 질**.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철 외.(200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연령에 따른 특성비교. **생물치료정신의학**, 7(1), 137-146.
- 조봉환, 임경희.(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수철.(1989). **예일小兒行動評價尺度의 韓國型開發과 注意力缺乏·過剩運動障礙의 發達學的 特性에 關한 研究**. 精神醫學. 118('89.12) pp.284-298 .
- 조순이.(2006). **교우관계 향상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경, 이지연.(2011).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우울 관계에서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자기통제의 매개효과 연구. **아동교육**, 20(2), 235-251.
- 최은실, 방희정.(2010) 초등학생의 우울과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3(4), 91-110.
-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Ⅲ-조사 개요 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 홍주영.(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oie, J. D.,& Dodge, K. A.(1998). Multiple sources of data on social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the school: A cross-age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59, 815-829.
- Comming, E. M., Davies, P. T.(1994).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59, 368-376.
- Dunn, J., Brown, J., & Beardsall, L.(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48-455.
- Elliott, D, S.(1994). Serious violent offenders: Onset, developmental course, and termination. *The American*

- Society of Criminology*, 32, 1-21.
- Eisenberg, N., Gershoff, E. T., Fabes, R. A., Shepard, S. A., Cumberland, A. J., Losoya, S. H., & Murphy, B. C. (2001).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social competence: Mediation through children's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7(4), 475-490.
- Howes, C., Matheson, C. C., & Hamilton, C. E.(1994). Maternal Teacher, and Childcare History Correlates of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Peers. *Child Development*, 65, 264-273.
- Jones, D. C., Abbey, B. B., & Cumberland, A.(1998). The development of display rule knowledge: Linkages with family expressiveness and social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9(4), 1209-1222.
- Lazarus, R. S.(1976). *Patterns of adjustment and human effectiveness*. NY: Magraw-Hill Inc.
- Mcfadyen-Ketchum, S.A., Bates, J. E., Dodge, K. A., & Pettit, G. S.(1996). Patterns of change in early childhood aggressive-disruptive behavior: Gender differences in predictions from early coercive and affectionate mother-child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67, 2417-2433.
- Rubin, K. H.(1998).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from a cultur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11-615.
- Sano, K.(1996). The period in character with a schoolchild became short. *School Education Counseling*, 3, 14-17.
- Saarn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Y: The Guilford Press.
- Shaffer, D. R.(2005).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5th. ed.). Belmont, CA: Wadsworth.
- Shields, A., & Cicchetti, D.(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contributions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4), 381-395.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공격성 영향요인 및 조절효과 탐색

김진구*·박종효**

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관계적 변인을 탐색하고 이들 간의 조절효과가 발달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자료 중 초4 패널 3차년도와 중1패널 2차년도 자료를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으로는 주의집중, 학습활동, 학교규칙을, 관계적 변인으로는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를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주의집중과 학교규칙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서 공격성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둘째, 초등학생의 경우, 교우관계와 교사관계가 공격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학습활동과 학교규칙에 대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중학생의 경우,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공격성에 영향을 주었고, 학습활동이 교우관계에 의해 조절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발달시기별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관계적 요인에 대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재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공격성, 발달생태학적 접근, 발달차이, 또래관계, 교사-학생관계

I. 서론

학교폭력은 학생의 사회성 발달과 학교적응을 방해하는 위험요인(risk factor)으로써, 학생의 전반적인 발달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또래에게 거부당하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는 불안과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를 겪는다(Junoven & Graham, 2014). 학교폭력은 아동의 학업능력 발달을 제한하며 (Strøm, Thoresen, Wentzel & Dyb, 2013), 긍정적인 또래 및 교사관계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nishi, Hymel, Zumbo & Li, 2010).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공격적 행동으로써, 공격성(aggression)을 조절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개입에 핵심적인 요소이다(Leff, Power, Manz, Costigan & Nabors, 2001). 공격성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정신적, 신체적 행동으로써 (Loeber & Hay, 1997), 아동기의 공격적 행동은 청소년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반사회적 행동 및 일탈과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Tolan, Guerra & Kendall, 1995). 특히 학령기로 접어들면서 아동의 공격성은 학교폭력으로 발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격성의 초기개입(early intervention)은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조교수 jonghyop@hanmail.net

위한 핵심적 요소이다(Furlong & Morrison, 2000).

공격성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다양한 영향요인들이 탐색되었다. 개인적 차원으로는 주의집중 능력(O'Brennan, Bradshaw & Furlong, 2014), 학업성취(Stipek & Miles, 2008), 규칙 준수(정현정, 김정성, 2009)가 제시되었다. 개인 차원의 인지-행동적 중재는 공격성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중재의 지속성이나 긍정적 발달의 촉진에는 제한적인 한계를 보였다(Coie, Watt, West, Hawkins, Asarnow, Markman, Ramey, Shure & Long, 1993). 이에 대한 대안으로 Bronfenbrenner(1977)의 생태학적 이론에 영향을 받아 발달 생태학적 관점(Developmental Ecological Perspective)이 제시되었다. 발달생태학적 관점은 개인-환경간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관점으로써(Tolan et al, 1995), 공격성의 발생에 있어 또래관계(Powers & Bierman, 2013), 교사-학생 관계(이상균, 2005)와 같은 관계적 차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고 보았다.

학교폭력의 대부분은 학급에서 일어나며, 또래관계와 같은 관계적 차원은 공격성에 행사에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한다(Salmivalli, 2010).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학생의 공격적 행동은 집단 내에서 사회적 지위(status)를 성취하고, 애착(affection)을 얻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Veenstra, Lindenberg, Munniksma & Dijkstra, 2010). 유아기의 공격성이 과잉행동과 같은 개인변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았다면, 아동기의 공격성은 또래나 교사관계에 의해 조절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공격성은 발달 수준에 따라 형태와 목적이 달라지며, 사회적 관계에 의해 정도와 영향력이 조절된다(Coie, Dodge, Terry & Wright, 1991). 따라서 아동기와 초기청소년기의 공격성을 접근에 있어서 관계적 차원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관계 차원의 영향요인에 대해 탐색하였고, 발달수준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아동과 초기청소년기 학생의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두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관계적 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성이나 영향이 미치는 맥락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제시하지 못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의 개인과 관계 그리고 두 체계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공격성이 조절된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각 요인의 영향력은 고찰하였지만, 요인간의 조건화된 관련성은 탐색하지 않았다. 둘째, 발달시기별로 나타나는 공격성 영향요인의 차이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격성은 발달시기별로 나타나는 인지적, 사회적 특성에 의해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각 발달시기별로 영향을 주는 공격성을 탐색하고 원인이 되는 사회적 맥락의 차이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관계적 차원의 요인이 공격성의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먼저 각 발달 시기별로 개인과 관계적 차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본 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발달적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영향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초기청소년기에서 청소년기의 공격성 중재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변인과 관계변인은 무엇이며, 상대적 영향력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발달생태학적 변인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어떤 차이를 가지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공격성 발달

공격성은 타인의 감정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며(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의도성과 힘의 불균형이 나타날 경우 또래괴롭힘(bullying)이라는 하위 유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Olweus, 1978).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에서 공격성은 또래거부(peer rejection)와 같은 적응문제를 가져온다(Dodge & Coie, 1987). 사회정보처리 이론에 의하면, 공격성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아동은 적대적 인지편향(negative attribution bias)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회적 신호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며, 해석을 근거로 공격성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적대적 귀인으로 반복되는 공격성은 반복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신념으로 형성되며, 후속 발달에도 지속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발달 및 환경적 영향을 통합하는 발달생태학적 관점이 제시되었다. 발달측면에서 아동전기에는 외현적 공격성(overt aggression)이 주를 이루는 반면, 사회적 기술이 발달하는 아동후기에는 외현적 공격성은 감소하고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Crick & Grotpeter, 1995). 공격성은 개인의 유전 및 성격적 특징에도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또래 및 교사관계에 의해서도 조절된다(Parke & Slaby, 1983). 초기 청소년기에는 타인의 관점을 조망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되어 공격성에 대한 자신과 타인의 평가를 통합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청소년기에는 공격성의 사회적 영향력과 의미에 대해 내면화하며, 또래와 학교체제와 같은 사회적 규준에 영향력을 강하게 받게 된다(Cairns, Cairns, Neckerman, Ferguson & Garepy, 1989).

생태학적 측면에서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친밀한 대인체계-근접한 사회맥락-사회적 거시체계로 구성된다.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은 대인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근접한 사회적 맥락과도 상호작용한다.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는 학령기에는 발달생태학적 체계 요인 중 특히 가까운 대인체계와 근접한 사회적 맥락의 영향력이 중요해진다(그림 1 참고). 각 단계의 요인들은 공격성을 조절하거나 유발시키는 맥락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초등학교에서는 가족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는 반면 청소년기에는 또래나 규범의 영향력이 증가한다(Fraser,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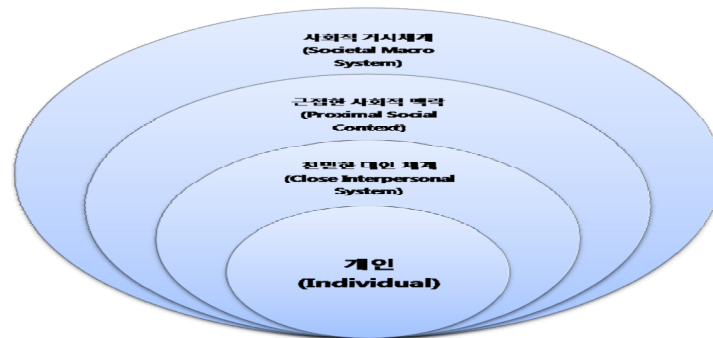


그림 1.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발달생태학적 체계모형(Fraser, 1996)

2.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변인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변인은 주의집중, 자기통제, 학습참여, 학습동기, 규칙준수 등 다양하다. 예를 들어 Herrenkohl et al(2003)은 초등학교 때의 학습에 대한 긍정적 참여가 중학교 시기의 문제행동과 공격성을 유의하게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유사하게, Zalecki와 Hinshaw(2004)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가진 여자 초등학생의 공격성을 연구한 결과 주의집중능력이 떨어지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공격성 비율이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O'Brennan et al(2014)은 초등학생의 학업능력과 집중력이 공격적 행동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정현정 외(2009)는 학교규칙 준수가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개인 변인은 다른 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격성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Resnick, Ireland and Borowsky(2004)는 학업성적을 공격성을 조절하는 보호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Taylor, Davis and Malanchukl(2007)은 학업적 자기개념(academic self concept)을 영향요인으로 보았다. 또한 학교규칙준수도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Wienke, Green, Karver & Gesten, 2009). 주의집중 능력의 부족은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성의 발생요인으로 나타났다(Nagin & Tremblay, 1999).

3.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관계 변인

선행연구에 의하면,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관계 변인은 또래관계, 교사-학생관계 그리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school connectedness)가 있었다. Barth, Dunlap, Dane, Lochman and Wells(2004)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써 또래관계와 학업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시하였다. Schwartz, Gorman, Nakamoto and McKay(2006)의 연구에서는 학업능력이 높고 지각된 인기가 높은 수록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이 높아져서 공격성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Jessor, Van, Vanderrryn, Costa and Turbin(199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문제행동에 대한 위험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또래관계 문제와 낮은 학업

수준 그리고 학교에 대한 인식에 따라 공격성이 달라짐이 나타났다. Herrenkohl, Maguin, Hawkins, Abbott and Catalano(2000)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또래관계, 좋은 학업성과 초등 학교에서 중학교로 성공적인 전환을 공격성 조절의 주요한 조절변인으로 보았다.

Silver, Measelle, Armstrong and Essex(2005)는 아동기 교사-학생관계와 공격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유치원에서의 교사-학생의 부정적 관계는 초등학교 시기의 공격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Stipek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교사-학생간 갈등이 공격성과 정적으로 관련되었고, 학교 참여는 공격성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초등학교시기의 긍정적 교사관계는 또래 관계, 학업충실도와 함께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 (김민정, 2012).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연구의 분석 자료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KCYPS는 초1, 초4, 중1 3개 학년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적 조사하는 패널조사이다. 본 연구는 발달생태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생태학적 영향 요인 탐색과 학교급별(초중등) 발달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생태학적 영향 요인은 개인과 관계차원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개인변인으로는 학습활동, 주의집중, 규칙준수가 관계적 변인으로는 교우관계, 교사관계가 포함되었다. 발달차이를 보기 위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데이터 중에서 영향요인들이 일치하는 연도를 탐색하였고 그 결과 2012년에 공개된 초등학교 4학년 자료와 2011년에 공개된 중학교 1학년 자료를 선정하였다. 최종 분석 표본은 결측치를 제외한 초4 패널의 3차년도(초등학교 6학년) 2,204명(여자 47.4% 1044명)의 자료와 중1 패널의 2차년도(중학교 2학년) 2,277명(여자 49.5% 1126명)의 자료로 이루어졌다.

2. 측정도구

1) 공격성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공격성은 KCYPS 조사문항 중에서 공격성으로 분류된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그렇다’에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4점을 부여한 원자료를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 역코딩하였다. 문항신뢰도는 초등학교 .823, 중학교 .788로 나타났다.

2) 개인차원 변인

공격성에 미치는 학교관련 변인 중 개인차원과 관련된 변인으로 학습활동, 학교규칙준수, 주의집중을 측정하였다. 학습활동과 학교규칙준수는 KCYPS 데이터 중에서 학교생활적응 항목을 사용하였다. 주의집중 문항을 사용하였고, 다른 변수들과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해 역산을 하였다.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그렇다’에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4점을 부여한 원자료를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 역코딩하였다. 문항 신뢰도는 학습활동 초등학교 .757/ 중학교 .744, 학교규칙 초등 .811 / 중등 .790, 주의집중 초등 .834/ 중등 .791로 대부분 양호하게 산출되었다(〈표 1〉 참고).

표 1 개인차원 변인 문항과 신뢰도

영역	문항	문항신뢰도	
		초등학교	중학교
학습활동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757	.744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물어본다.		
학교규칙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811	.790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주의집중 1)(역)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834	.791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 진다.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연필이나 지우개 등, 학용품을 잘 잃어버린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글자를 잘 빠뜨리고 쓰는 편이다.		

3) 사회관계차원 변인

공격성에 미치는 학교관련 변인 중 관계차원의 역량과 관련된 변인으로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를 측정하였다.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는 KCYPS 데이터 중 학교생활적응 항목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그렇다’에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4점을 부여한 원자료를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 역코딩하였다. 교우관계의 신뢰도는 초등학교 .707/ 중학교 .686 그리고 교사관계는 초등학교 .891/ 중학교 .835였다(〈표2〉 참고).

1) 주의집중은 다른 변수들과 해석의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해 역코딩되었다.

표 2 ▶ 관계차원 변인의 문항과 신뢰도

영역	문항	문항신뢰도	
		초등학교	중학교
교우 관계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707	.686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 준다		
교사 관계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891	.835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에 미치는 개인 및 관계차원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 발달적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교급별로 변인들의 특성을 제시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그 후 각 변인들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차원과 관계차원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기 위해서 각 차원 변인을 단계별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개인차원과 관계차원 변인이 함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기 위하여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주의집중과 공격성의 관련성이 높았지만(초중등 각각 $-.643$, $-.560$),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고 다른 변수들의 상관이 높지 않아서 다중공선성을 조절하기 위한 센터링을 실시하지 않았다. SPSS Window 18.0이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V. 연구결과

1. 학교급별 변인들의 특성

학교급별 변인들의 특성은 <표3>에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총 2204명, 중학교 2학년 총 227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격성은 중학생이 평균 8.76으로 초등학생($M=8.31$)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개인 및 관계적 영향변인의 값은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표 3 학교급별 공격성과 생태학적 변수들의 기술 통계치

변수	초등학생 (N=2204)		중학생 (N=2277)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공격성	8.31	2.60	8.76	2.45
학습활동	11.99	2.29	11.28	2.32
학교규칙	14.91	2.77	13.97	2.81
주의집중	18.94	4.20	18.29	3.71
교우관계	12.57	2.07	12.24	1.94
교사관계	15.17	3.53	14.02	3.29

2.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공격성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표 4>에 학교급별로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개인차원과 관계차원 예측변인 모두 공격성과 부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차원 변인의 경우 주의집중($r = -.643, p < .001$)이 관련성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규칙($r = -.300, p < .001$), 학습활동($r = -.261, p < .001$) 순으로 나타났다. 관계차원의 변인인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의 상관계수는 각각 $r = -.215, p < .001$, $r = -.132, p < .001$ 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아이일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r = -.096, p < .001$, 남자=0, 여자=1로 코딩).

중학생의 경우도 개인차원과 관계차원 예측변인들이 공격성과 부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차원의 변인에서 주의집중은 공격성과 높은 관련성이 있었고($r = -.560, p < .001$), 학교규칙($r = -.245, p < .001$) 학습활동($r = -.164, p < .001$)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는 $r = -.149, p < .001$ 와 $r = -.119, p < .001$ 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중학교에서도 남자아이일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r = -.025$)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아니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주의 집중이 공격성과 가장 관련이 높았으며, 관련성의 정도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단 중학교에서는 공격성과 학습활동의 상관($r = -.164, p < .001$)이 초등학교($r = -.261, p < .001$)보다 낮았으며, 교우관계($r = -.149, p < .001$)와 교사관계($r = -.119, p < .001$)가 비슷한 수준으로 공격성과 관련되어 있었다.

개인차원과 관계적 차원의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개인차원의 변인들과 교우관계의 관련성에 있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발달차이가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습, 규칙, 집중과 교우관계의 상관이 각각 $r = .505, p < .001$, $r = .435, p < .001$, $r = .188, p < .001$ 로 중학교(학습, 규칙, 집중 각각 $r = .430, p < .001$, $r = .379, p < .001$, $r = .101, p < .001$)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개인차원의 변인들과 교사관계의 관련성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학교급별 공격성과 생태학적 변인들의 상관관계

	공격성	성별	학습활동	학교규칙	주의집중	교우관계	교사관계
공격성	1.000	-.025	-.164**	-.245**	-.560**	-.149**	-.119**
성별	-.096**	1.000	.041	.071**	.035	.095**	-.032
학습활동	-.261**	.053*	1.000	.503**	.273**	.430**	.447**
학교규칙	-.300**	.025	.561**	1.000	.281*	.379*	.459**
주의집중	-.643**	.122**	.333**	.301**	1.000	.101**	.140**
교우관계	-.215**	.018	.505**	.435**	.188**	1.000	.394**
교사관계	-.132**	-.015	.489**	.454**	.168**	.428**	1.000

2)* $p < 0.05$, ** $p < 0.01$

3.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공격성 영향요인 탐색

1) 초등학생 공격성의 영향 요인

초등학교에서 개인·관계차원의 변인이 공격성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고). 개인차원 변인인 성별, 학습활동, 학교규칙, 주의집중을 투입하였을 때 공격성에 대한 설명량은 42.7%였다. 개인차원 예측 변인 중 학교규칙($\beta = -.123$, $p < .001$)과 주의집중($\beta = -.607$, $p < .001$)가 공격성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차원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교우관계($\beta = -.083$, $p < .001$)와 교사관계($\beta = .044$, $p < .05$)가 각각 부정적 과 정적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주었다. 분석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주의집중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규칙을 잘 지킬수록, 교우 관계가 좋을수록 공격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5 초등학생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영향력 회귀분석

변수	1단계			2단계			
	B	β	t	B	β	t	
개인 차원	성별	-.101	-.019	-1.194	-.096	-.018	-1.133
	학습활동	.013	.011	.572	.031	.028	1.267
	학교규칙	-.116	-.123	-6.249**	-.110	-.117	-5.677**
	주의집중	-.376	-.607	-34.862**	-.375	-.607	-34.960**
관계 차원	교우관계			-.104	-.083	-4.243**	
	교사관계			.032	.044	2.263*	
F		408.956			278.235		
R^2		.426			.430		

* $p < 0.05$, ** $p < 0.01$

2) 중학생 공격성의 영향

중학교에서 개인·관계차원의 변인이 공격성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

2)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위쪽 상단 굵은 글씨는 중학교 패널의 변인간 상관을 의미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6>에 따르면 개인차원 변인인 성별, 학습활동, 학교규칙, 주의집중을 투입하였을 때 공격성에 대한 설명량은 32.3%였다. 개인차원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개인차원 예측 요인 중 학습활동($\beta = .040, p < .05$)과 학교규칙($\beta = -.113, p < .001$) 그리고 주의집중($\beta = -.539, p < .001$)이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차원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을 때 교우관계($\beta = -.090, p < .001$)가 유의하게 공격성을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중학교에서도 주의집중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교우 관계가 좋을수록 공격성이 감소하나 학습활동을 잘할수록 공격성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6 중학생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영향력 회귀분석

변수		1단계			2단계		
		B	β	t	B	β	t
개인차원	성별	.002	.000	.028	.034	.007	.401
	학습활동	.042	.040	1.982*	.072	.068	3.148*
	학교규칙	-.099	-.113	-5.581**	-.083	-.095	-4.425**
	주의집중	-.355	-.539	-29.58*	-.359	-.544	-29.902**
관계차원	교우관계				-.114	-.090	-4.520**
	교사관계				.004	.006	.277
F		270.799			185.513		
R^2		.323			.329		

* $p < 0.05$, ** $p < 0.01$

3) 학교급별 발달차이 비교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주의집중과 학교규칙이 공격성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학습활동은 초등학생에서는 공격성에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지 않았으나 중학생($\beta = .068, p < .05$)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관계적 차원에서 교우관계는 초등학교($\beta = -.083, p < .001$)와 중학교($\beta = -.090, p < .001$)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변인이었지만, 교사관계는 초등학교($\beta = .044, p < .001$)에서만 유의하였다. 생태학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학교규칙(초등 $\beta = -.117$, 중학 $\beta = -.095$), 주의집중(초등 $\beta = -.607$, 중학 $\beta = -.544$), 교사관계(초등 $\beta = .044$, 중학 $\beta = .006$)에서는 초등학교가 학습활동(초등 $\beta = 0.28$, 중학 $\beta = 0.68$)과 교우관계(초등 $\beta = -.083$, 중학 $\beta = -.090$)에서는 중학교가 높았다.

4. 개인 변인과 사회관계 변인의 조절효과

1)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의 조절효과

초등학교에서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표7>과 같이 조절효과(β

= -.440, $p<.001$)가 나타났다. 학습활동은 공격성의 유의한 영향변인은 아니었지만(〈표 5〉참고), 교우관계와 함께 학습활동은 공격성 감소를 촉진하였다. 조절효과의 경향을 보기 위해,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의 고/저 수준별로 공격성의 정도를 [그림 2]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 2]와 같이 학습활동이 높아질수록 공격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교우관계가 높은 집단에서는 뚜렷한 감소가 나타난 반면 낮은 집단에서는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학교의 경우도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의 상호작용항이 공격성을 조절하는 유의한 효과($\beta = -.324$, $p<.05$)를 보여주었다(〈표 7〉참고). 학습활동은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beta = .068$, $p<.005$) 작용하였지만(〈표 6〉참고) 교우관계와 함께 작용할 경우 공격성을 감소시켰다. [그림 2]에 나타난 경향을 보면,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습활동이 향상될수록 공격성이 감소하는 전체적인 경향성이 나타난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교우관계가 높은 집단에서 공격성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난 반면 중학교에서는 교우관계가 낮은 집단에서 높은 수준의 감소가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의 상호작용항이 공격성을 부적으로 조절하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초등학교($\beta = -.440$)가 중학교($\beta = -.324$)보다 영향력의 정도가 컸다.

표 7 ▶ 발달시기에 따라 학습과 교우관계의 상호작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변수		초등학교			중학교		
		B	β	t	B	β	t
개인차원	성별	-.119	-.023	-1.415	.022	.004	.258
	학습활동	.343	.302	4.116*	.301	.285	3.353**
	학교규칙	-.110	-.117	-5.725**	-.080	-.092	-4.305**
	주의집중	-0.369	-0.598	-34.215**	-0.356	-0.541	-29.703**
관계차원	교우관계	.177	.141	2.340*	.085	.068	1.071
	교사관계	.033	.044	2.285*	.005	.007	.358
상호작용	학습활동 × 교우관계	-.025	-.440	-3.916**	-.019	-.324	-2.636**

* $p<0.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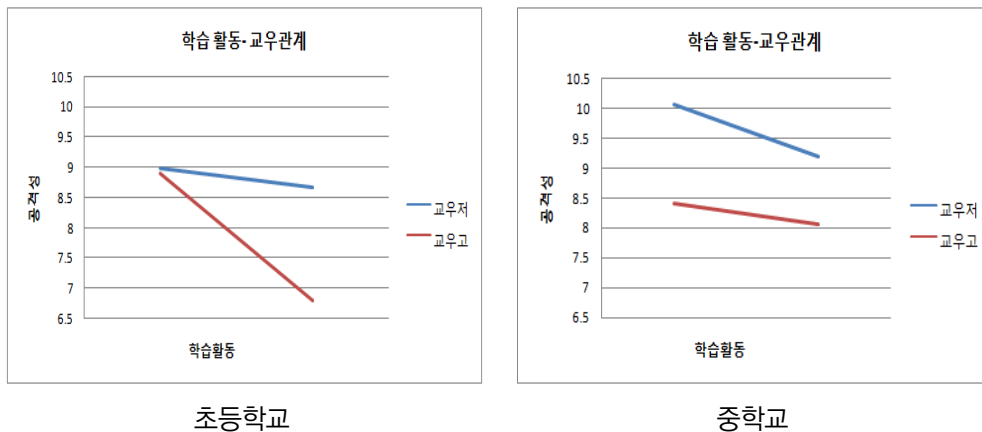


그림 2.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의 조절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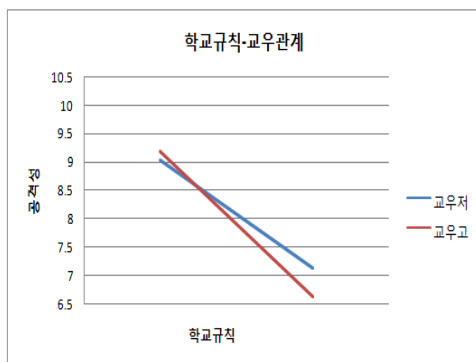
2) 학교규칙과 교우관계

학교규칙과 교우관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에서 <표 8>과 같이 유의한 조절효과($\beta = -.320$, $p < .001$)가 나타났다. [그림3]에 제시된 경향성을 살펴보면, 규칙을 준수할수록 공격성이 감소하며, 교우관계에 따른 감소의 폭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중학교에서는 학교규칙은 유의한 영향 변인이었지만 관계적 차원 변인과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규칙과 교사관계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에서 <표 8>과 같이 유의한 조절효과($\beta = -.222$, $p < .001$)가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교사관계는 학교규칙과 함께 작용하여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림3]에 나타난 영향력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학교규칙은 공격성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교사관계는 학교규칙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였으며,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공격성이 감소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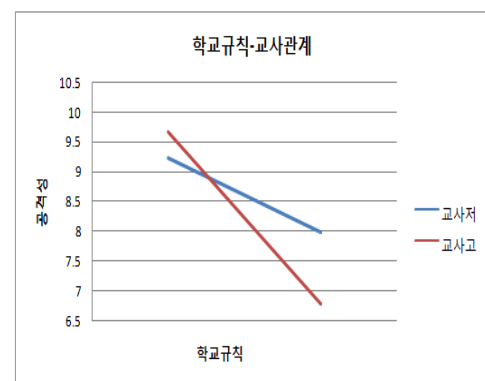
표 8 초등학교에서 규칙과 교우관계, 교사관계와의 상호작용 효과

변수	학교규칙- 교우관계			변수	학교규칙- 교사관계		
	B	β	t		성별	β	t
성별	-.113	-.022	-1.335	성별	-.109	-.021	-1.289
학습활동	.028	.025	1.125	학습활동	.028	.025	1.137
학교규칙	.079	.084	1.150**	학교규칙	-.002	-.002	-.031**
주의집중	-.372	-.602	-34.550	주의집중	-.373	-.604	-34.718
교우관계	.115	.092	1.430	교우관계	-.104	-.083	-4.253**
교사관계	.031	.042	2.161*	교사관계	.137	.187	2.748**
학교규칙 × 교우관계	-.015	-.320	-2.852**	학교규칙 × 교사관계	-.007	-.222	-2.191**



규칙준수 × 교우관계

그림 3. 초등학생의 학교규칙과 교우관계 조절효과



규칙준수 × 교사관계

그림 4. 초등학생의 학교규칙과 교사와의 관계 조절효과

VI.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관계 변인을 탐색하고, 발달시기별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교생활에서 작용하는 개인 및 사회관계 변인들은 공격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발달시기에 따라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개인수준에서 주의집중과 규칙준수가 공격성의 감소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관계적 차원변인의 영향력이 중학교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교우관계는 학습활동 및 규칙과 교사관계는 규칙과 함께 상호작용하여 공격성을 감소시켰다. 중학교에서는 학습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포함되었으며, 교우관계의 상호작용에서도 교우관계가 낮은 집단에서만 제한적으로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첫째,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주의집중과 규칙준수는 핵심적인 영향요인으로 탐색되었다. 주의집중과 규칙준수의 일부문항이 규준(norm)에 대한 차원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주의집중 및 행동관리와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두 변수에 대한 높은 설명량은 주의집중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와 공격성의 관련성을 제시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Holmberg & Hjern, 2008). 따라서 긍정적 행동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과 같은 행동관리 전략을 통해 학생의 주의집중과 행동관리능력을 향상시킨다면, 공격적 성향에 대한 전반적인 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결과 교우와 교사관계가 공격성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교우관계는 학습활동과 함께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관계적 변인들의 영향력이 높았으며, 학습과 규칙준수에 있어서 교우 및 교사관계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다. 또한 개인 수준변인과 교우관계의 관련성도 중학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에서 교우관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초등학교 보다 더 높게 나타났지만, 개인수준 변인과의 상호작용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개인이 근접한 대인관계체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발달생태학적 관점과 일치한다. 관계적 차원 변인은 개입의 효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발달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격성의 발달적 성격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시기에서 학습과 규칙준수는 근접한 관계에 영향을 받았다. 학습과 교우관계가 좋을 때 그리고 규칙준수와 좋은 교사관계가 있을 때 공격성은 가장 급격히 감소하였다. 즉 초등학교시기에는 관계적 차원의 영향력이 개인의 인지·행동적 특성을 조절한 반면 중학교에서는 규칙과 학습같은 개인적 차원들이 주요한 영향 변인이었다. 이러한 발달적 차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회성 발달특징과 사회적 환경의 특성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아동기에는 근면성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 주변의 기대와 관계에 의해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청소년기에는 또래집단 자체의 응집력이 강해지며, 타인의 관점 조망 능력의 향상 그리고 규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해진 규칙이나 제도에 따라 행동한다(Gifford, Dodge, Dishion & McCord, 2005).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한 명의 담임교사가

학습과 규칙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지만, 중학교에서는 여러 명의 교과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회 환경적인 차이도 존재한다. 발달생태학적으로 적합한 중재를 위해서 아동기에는 주변인과의 관계적 특성에, 청소년기에는 내재화된 규범에 대해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공격성과 사회관계변인을 자기보고(self report)를 통해 측정함으로써 이들 변인이 가지는 관계적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초기청소년기의 공격성은 관계적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또래지명(peer nomination)이나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과 같이 사회적 관계의 특징을 나타내는 측정방법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둘째, 발달생태학적 입장에서 개인의 공격성에 미치는 다양한 사회관계적 변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개인과 사회관계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셋째, 발달적 연속선상에서 학교급별 차이를 비교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횡단자료를 통해 일반적 발달경향만을 비교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공격성의 발달 경향과 영향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종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정. (2012). 아동기 공격성과 청소년 폭력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학교영역의 위험 및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복지**, 23, 1-28.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균. (2005). 청소년의 또래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한국아동복지학**, 19, 141-170.
- 정현정, 김경성. (2009). 학교관련 심리변인이 초등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22(4), 351-378.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Barth, J. M., Dunlap, S. T., Dane, H., Lochman, J. E., & Wells, K. C. (2004). Classroom environment influences on aggression, peer relations, and academic focu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2(2), 115-133.
- Bronfenbrenner, U. (1977). Toward an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2(7), 513.
- Cairns, R. B., Cairns, B. D., Neckerman, H. J., Ferguson, L. L., & Garber, J.-L. (1989). Growth and aggression: I.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5(2), 320-330.
- Coie, J. D., Dodge, K. A., Terry, R., & Wright, V. (1991). The role of aggression in peer relations: An analysis of aggression episodes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2(4), 812-826.
- Coie, J. D., Watt, N. F., West, S. G., Hawkins, J. D., Asarnow, J. R., Markman, H. J., & Long, B. (1993). The science of prevention: a conceptual framework and some directions for a national research program. *American Psychologist*, 48(10), 1013.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Crick, N. R., & Dodge, K. A. (1996).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3), 993-1002.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
- Fraser, M. W. (1996). Aggressive behavior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n ecological-developmental perspective on youth violence. *Social Work*, 41(4), 347-361.
- Furlong, M., & Morrison, G. (2000). The school in school violence definitions and fact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8(2), 71-82.
- Gifford-Smith, M., Dodge, K. A., Dishion, T. J., & McCord, J. (2005). Peer influ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Crossing the bridge from developmental to intervention sci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3), 255-265.
- Herrenkohl, T. I., Maguin, E., Hill, K. G., Hawkins, J. D., Abbott, R. D., & Catalano, R. F. (2000). Developmental risk factors for youth viol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
- Herrenkohl, T. I., Hill, K. G., Chung, I. J., Guo, J., Abbott, R. D., & Hawkins, J. D. (2003). Protective factors against serious violent behavior in adolescence: A prospective study of aggressive children. *Social Work Research*, 27(3), 179-191.
- Jessor, R., Van Den Bos, J., Vanderryn, J., Costa, F. M., & Turbin, M. S. (1995).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Moderator effects and developmental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31(6), 923.
- Holmberg, K., & Hjern, A. (2008). Bullying and attention deficit - hyperactivity disorder in 10 year olds in a Swedish community. *Developmental Medicine & Child Neurology*, 50(2), 134-138.
- Juvonen, J., & Graham, S. (2014). Bullying in schools: The power of bullies and the plight of victim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5, 159-185.
- Konishi, C., Hymel, S., Zumbo, B. D., & Li, Z. (2010). Do school bullying and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matter for academic achievement? A multilevel analysis.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5(1), 19-39.
- Leff, S. S., Power, T. J., Manz, P. H., Costigan, T. E., & Nabors, L. A. (2001). School-based aggression prevention programs for young children: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for violence prevention. *School Psychology Review*.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2), 242.
- Nagin, D., & Tremblay, R. E. (1999). Trajectories of boys' physical aggression, opposition, and hyperactivity on the path to physically violent and nonviolent juvenile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70(5), 1181-1196.
- O' Brennan, L. M., Bradshaw, C. P., & Furlong, M. J. (2014). Influence of Classroom and School Climate on Teacher Perceptions of Student Problem Behavior. *School Mental Health*, 6(2), 125-136.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Hemisphere.

- Parke, R. D., & Slaby, R. G. (1983).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547-641.
- Powers, C. J., & Bierman, K. L. (2013). The multifaceted impact of peer relations on aggressive - disruptive behavior in early elementary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49(6), 1174.
- Resnick, M. D., Ireland, M., & Borowsky, I. (2004). Youth violence perpetration: what protects? What predicts? Finding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5(5), 424-451.
- Salmivalli, C. (2010). Bullying and the peer group: A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5(2), 112-120.
- Schwartz, D., Gorman, A. H., Nakamoto, J., & McKay, T. (2006). Popularity, social acceptance, and aggression in adolescent peer groups: links with academic performance and school attend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2(6), 1116.
- Silver, R. B., Measelle, J. R., Armstrong, J. M., & Essex, M. J. (2005). Trajectories of classroom externalizing behavior: Contributions of child characteristics, family characteristics, and the teacher - child relationship during the school transi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3(1), 39-60.
- Stipek, D., & Miles, S. (2008). Effects of aggression on achievement: Does conflict with the teacher make it worse?. *Child Development*, 79(6), 1721-1735.
- Strøm, I. F., Thoresen, S., Wentzel-Larsen, T., & Dyb, G. (2013). Violence, bullying and academic achievement: A study of 15-year-old adolescents and their school environment. *Child abuse & neglect*, 37(4), 243-251.
- Taylor, L. D., Davis Kean, P., & Malanchuk, O. (2007). Self esteem, academic self concept, and aggression at school. *Aggressive Behavior*, 33(2), 130-136.
- Tolan, P. H., Guerra, N. G., & Kendall, P. C. (1995). A developmental ecologic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oward a unified risk and intervention framework.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4), 579 - 584.
- Wienke Tatura, C. M., Green, A. E., Karver, M. S., & Gesten, E. L. (2009). Multiple informants in the assessment of psychological, behavioral, and academic correlates of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middle school. *Journal of Adolescence*, 32(2), 193-211.
- Veenstra, R., Lindenberg, S., Munniksmma, A., & Dijkstra, J. K. (2010). The complex relation between bullying, victimization, acceptance, and rejection: Giving special attention to status, affection, and sex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81(2), 480-486.
- Zalecki, C. A., & Hinshaw, S. P. (2004).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girls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3(1), 125-137.

다층모형을 통한 청소년기 우울의 예측변인에 대한 단기 종단연구

임향*.오다영**.오진경***.정수진****.최승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중학교 시기 청소년의 우울 양상의 변화를 개인 수준과 학교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청소년을 둘러싼 개인적, 환경적, 사회적 변인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층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도부터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중1 패널 제1~4차 자료를 활용하여 총 2,04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개인 수준에서는 교우관계, 교사관계, 양육방식 I(과잉기대 및 과잉간섭), 양육방식 II(방임 및 학대), 그리고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나타났다. 개인 수준 변수들과 시간 변수의 상호작용효과의 결과로는 또래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3수준으로 설정한 학교수준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 우울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으며, 종단연구를 통해 우울과 독립변수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함으로써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수준의 개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다층모형, 우울증, 청소년, 학교유형, 반복측정

I. 서론

우울증은 질환을 앓고 있는 기간과 증상의 심각도 등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중 증상이 가장 심각한 주요우울장애는 침체된 기분 또는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을 동반한다. 또한 이로 인해 체중변화, 수면장애, 피로 또는 에너지의 상실, 죄책감, 타인에 의해 관찰되는 집중력 저하, 자살 사고 등 사회, 직업 등의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을 야기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 뿐만 아니라 주요우울장애는 자살과 공병이환하는 정신과적 질환 중 가장 흔한 것으

*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karatt92@duksung.ac.kr

로 알려져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Henriksson et al., 1993).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0~19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증이 청소년 질병과 장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 사망에 자살이 세 번째 주요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3~19세에 해당되는 청소년의 12.1%가 자살충동을 경험하였으며, 이 중 39.2%가 학교성적 및 진학문제, 16.9%가 가정불화, 16.7%가 경제적 어려움, 12.5%가 외로움과 고독, 7.1%가 친구나 동료들과의 문제로 인해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답했다(통계청, 2013). 또한 초기 청소년 시기의 우울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 연구(서한나, 2011) 결과는 초기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소년기의 우울 수준은 전체적으로 역 U자 모양의 발달 궤적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Wickrama, Conger & Abraham, 2008).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우울이 고교 시기의 우울 수준보다 더 높다는 연구결과(조정아, 2009)를 확인하였으며, 최근 송예리아와 김진영(2013)의 연구에서도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우울 수준이 감소하였다는 결과가 입증되어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중학생 시기는 특히 교우, 이성 등의 대인관계가 확장되어 혼란을 겪는 시기(이해경, 연은경 & 김혜원, 2014)이다. 또한 우울증의 발현이 사춘기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고 이후 성인기까지 지속될 위험이 2~4배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Bhatia & Bhatia, 2007), 중학생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의 우울증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의 우울 양상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청소년의 우울은 개인적 요인 뿐 만 아니라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로 발생한다. 먼저 가정은 사회생활의 최소 단위이며 최초로 인간관계를 맺는 환경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우울에 근본적이면서 밀접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정서 및 행동발달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Bronfenbrenner & Mahoney, 1975).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나 거부, 방임 등의 느낌에 의해 분노감정이나 우울이 유발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Cicchetti, Carlson, Braunwald & Aber, 1987)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우울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소년이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 또한 중요하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우울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하은혜, 오경자 & 송동호, 2003; Costello, Swendsen, Rose & Dierker, 2008) 등은 경제적 상태와 이로 인한 청소년 우울의 관계를 나타낸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교는 가정 이외에 하루 활동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화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강경희, 2008).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대인관계 역시 주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환경 내의 또래와 교사관계가 이들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 적

응 정도는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 중에서도 학교 친구에게 적응을 잘 못 할수록 우울했으며(소선숙, 2008), 청소년이 교사의 공정성, 정서적 지지, 존경심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적대감 수준을 높게 평가할수록 심리적 증상 점수가 높았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구자경, 2004). 따라서 청소년 시기 우울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서 청소년이 맺는 관계의 영향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다양한 목적과 특성이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후 교육개혁방안으로써 다양화한 교육을 선보이기 위한 특성화 학교들이 설립되었는데, 이때 설립된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다(김영철, 2003). 각 학교 유형별로 교과과정, 진학과정, 환경 등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과학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각종 예체능 계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입시를 거쳐야만 진학할 수 있다. 진학을 위해 끊임없는 자기 관리, 성적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과 비교할 때 진학 이전 더 어린 시기의 학교생활이나 적응에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학교 특성 상 가정에서의 기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열 등 가정환경의 여러 측면에서 역시 일반계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각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고등학교 유형의 학생들보다 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지만, 치열한 경쟁, 학습에 대한 부담, 교육 과정 등 여러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강경희, 2008). 반면 기영락과 임성택(2010)에 따르면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적성이나 포부와는 관계없이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성적으로 인해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조은정 & 이해경, 2007).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각 학교 유형별로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상이할 것이며 청소년들이 느끼는 정신건강 수준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렇듯 청소년의 우울은 개인 수준을 넘어 복잡한 사회적 변수들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다.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적 요인들이 이들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고려해야만 청소년기의 우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청소년의 우울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의 미시적 측면, 즉 단일수준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실제 청소년의 우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은 학교 수준과 같은 상위 수준에 의해 개인 수준과 같은 하위 수준의 속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포착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전민정 & 강상진, 2005). 또한 반복측정 ANOVA, MANOVA와 같은 기존의 변량분석의 경우 결측치에 민감하기 때문에 종단연구 시 상당한 정보의 손실을 유발한다. 이때 반복 측정의 시기가 동일해야 하며, 독립적인 표본에서 무선적으로 표집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개인 간과 개인 내의 변화를 수반하는 연구 상황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층모형은 결측치 있는 데이터나 다양한 측정 시점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 상황을 처리할 수 있어 성장 궤적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개인 수준을 포함하여 상위 수준인 집단으로 분석을 확장할 수 있어 위계적 구조를 가지는 종단자료의 분석에 적합하다. 또한 개인의 종속변수 총 분산에서 상위 수준의 분산과 하위 수준의 분산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상위 수준의 변수가 개인 수준의 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송태민 & 송주영 2013). 따라서 개인적 수준과 환경적 수준을 동시에 고려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점을 가진 다층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적 수준과 환경적 수준을 동시에 고려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분석에 적합한 다층수준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1. 시간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은 변화하는가?
2. 청소년의 우울 궤적 발달 양상은 차이를 보이는가?
 - 2-1. 개인 수준의 예측변수에 따른 우울 궤적에 개인차가 있는가?
 - 2-2. 학교 유형에 따라 우울 궤적에 차이를 보이는가?
3. 우울 궤적에 있어 시간과 예측변수의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는가?

II. 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다층분석을 위해 전국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패널(중 1 패널)이 중학교 1학년이 된 시점에서 1차 조사가 이루어진 2010년도를 기준으로 독립변수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조사 차수에 없는 변수의 경우 중학교 2학년이 된 시점에서 2차 조사가 이루어진 2011년도 자료에서 선정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의 경우 중학교 2학년이 된 시점에서 2차 조사가 이루어진 2011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시점에서 4차 조사가 이루어진 2013년까지의 3개년도의 패널 자료를 종단 자료로써 이용하였으며, 전체 2,351명의 자료 중 주요변수의 결측치를 제외한 총 2,04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주요변수 조작화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서, 3개년 간 반복측정된 청소년의 우울(1수준)은 KCYPS에서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 원호택, 1984) 중 우울척도 13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되어 우울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총 10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우울척도는 각 문항들에 대해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 1점부터 4점까지 응답할 수 있으며, 합산점은 10점에서 40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우 그렇다’ 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4점까지의 점수를 역으로 4~1점으로 코딩하여 모든 문항들의 합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표 1).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의 조사 차수별 우울 문항들의 신뢰도로써 Cronbach's α 를 측정한 결과, 2011년 2차 조사는 0.90, 2012년 3차 조사는 0.91, 2013년 4차 조사는 0.89로 나타났다.

표 1 종속변수의 문항구성 및 내용

구분	변수명	문항수	총점	내용
종속변수	우울	10	40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모든 일이 힘들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교우관계, 교사관계, 양육방식 I(과잉기대 및 과잉간섭), 양육방식 II(방임 및 학대), 가구 연간 소득, 그리고 또래관계(의사소통, 신뢰, 소외)를 개인 수준 변수(2수준), 고등학교 유형(일반 고등학교, 자율형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을 2수준의 상위 수준(3수준)의 독립변수로서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교유형(일반 고등학교, 자율형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예술,체육, 과학, 외국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기타학교) 중 대입과 관련하여 입시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학교별로 재분류하여 이용하였다. 재분류는 본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입시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특히, 자율형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위주의 학제를 따르고 있으며,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경우 졸업 후 취업과 향후 기술 명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직업교육 선도 모델을 추구한다. (김민정, 2012, 배상훈, 최은옥 & 장창성, 2013) 따라서 자율형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그 설립취지에 맞춰 각각 특성화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분류하였다.

KCYPS는 문선모(1997)의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를 학교생활 범주로 둔 학교생활 척도와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이상필(1990)의 문항을 참고하여 초·중·고·대학 학교생활적응 척도로 제작한 민병수(1991) 척도 문항들(정화실, 2009 재인용) 중 학교행사 관련문항(5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를 독립변수로서

사용하는 두 척도는 ‘매우 그렇다’ 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4점까지의 점수로 응답할 수 있으며, 교우관계 문항 4번(‘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을 제외한 모든 문항들을 역으로 4~1점으로 코딩하였다. 교우관계 5문항의 총합과 교사관계 5문항의 총합을 각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각 독립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있어 해당관계가 원만함을 의미한다.

양육방식에 있어, KCYPS는 설문 응답자가 경험하는 양육방식을 양육방식 I(감독, 애정, 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과 양육방식 II(방임, 학대) 두 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다. 이 척도는 허묘연(1999), 김세원(2003)이 구성한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로 하여 KCYPS 연구진이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육방식 척도는 양육방식 I 8문항(과잉기대 4문항, 과잉간섭 4문항), 그리고 양육방식 II 8문항(방임 4문항, 학대 4문항)이며, 본 연구에서는 양육방식 II에서 방임에 해당하는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4점까지의 점수를 활용하였고, 양육방식 I의 과잉기대 및 과잉간섭과 양육방식 II의 학대에 해당되는 모든 문항은 역으로 4~1점으로 코딩하였다. 독립변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육방식 I은 과잉기대 및 과잉간섭에 해당되는 모든 문항들의 총합을 사용하였으며, 양육방식 II는 방임 및 학대에 해당되는 모든 문항들의 총합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에서 부정적인 양육방식에 노출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 연간 소득은 KCYPS에서 만 원을 기본단위로 하여 코딩되어 있는 원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포래관계는 Armsden & Greenberg(1987)가 제작한 애착척도(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25문항 중 하위영역별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각 하위영역 당 3개 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황미경 & 허균, 2010 재인용)된 포래애착 척도를 활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의사소통, 신뢰, 그리고 소외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소외 3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4점까지의 점수를 활용하였고, 의사소통 3문항과 신뢰 3문항은 역으로 4~1점으로 코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모든 영역 9문항들의 총합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포래와 긴밀한 애착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포래관계가 정서적 지지와 같은 포래와의 유대감을 반영하지만, 교우관계는 학교 내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문항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소년 시기의 대인관계 측면을 교우관계와 포래관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수준 독립변수인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 고등학교’ 1, ‘자율형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2, ‘특성화 고등학교’ 3으로 재코딩 후 활용하였다.

표 2 ▶ 독립변수의 문항 구성 및 내용

구분	변수명	문항수	총점	문항내용
2수준	교우관계	5	20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교사관계	5	20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양육방식 I	8	32	부모님(보호자)의 기대가 항상 내 능력 이상이어야 부담스럽다.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양육방식 II	8	32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가구 연간소득	1		만 원 단위
	또래관계	9	36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3수준	고등학교 유형	1		1 일반 고등학교, 2 자율형 고등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예술·체육계열, 과학·외국어계열), 3 특성화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연속형 독립변수인 교우관계, 교사관계, 양육방식 I, 양육방식 II, 가구 연간 소득, 또래관계의 점수 및 수치를 전체 평균 중심화(grand-mean centering)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각 독립변수의 문항들의 신뢰도로써 Cronbach's α 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는 교우관계 0.54, 교사관계 0.82, 양육방식 I 0.80, 양육방식 II 0.73, 그리고 또래관계가 0.82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특성과 청소년이 다니고 있는 학교 수준의 특성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층분석을 활용하였다. 1수준 변수는 청소년 우울 수준의 반복 측정(repeated measures) 자료, 2수준 변수는 청소년의 개인 특성으로 교우관계, 교사관계, 양육방식 I, 양육방식 II, 가구 연간 소득, 그리고 또래관계이다.

본 연구의 모수 추정방식은 무선효과의 분산추정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고정효과의 자유도 감소를 고려하는 한정최대우도추정법(Restricted Maximum Likelihood; REML)을 활용하였다(Raudenbush & Bryk, 2002). 또한 Raudenbush와 Bryk(2002)가 제시하였던 방정식을 사용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기술분석 및 다층모형 분석은 SPSS Version 19.0을 활용하였다.

3수준 기초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개인 내 우울의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ICC)는 학교 간 우울에서 대략 0.84%($p > .05$)로 3수준의 분석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따라서 학교 수준을 포함하지 않는, 개인 내 수준 및 개인 간 수준으로 구성되는 2수준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3수준 기초모형의 공분산 모수 추정값

모수	추정값	표준오차	Wald Z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개인 내 분산	19.35	0.44	44.00	.000***	18.51	20.23
개인 간 분산	16.35	0.75	21.86	.000***	14.95	17.89
학교 분산	0.30	0.37	0.83	.41	0.03	3.25

주. 모형 적합도: -2 제한 로그 우도 = 36,146.27; 모수 = 4.

*** $p < .001$.

설정된 2수준 모형은 다음과 같다. 공식 1은 1수준 기초모형, 공식 2는 2수준 기초모형이다. 기초모형은 변수와 수준 구분만이 반영되는 모형으로 자료 분석의 기초적 정보를 얻음으로써 다음 단계의 분석이 가능하다(강상진, 1995).

$$Y_{ti} = \pi_{0i} + \epsilon_{ti} \quad \epsilon_{ti} \sim N(0, \sigma_{\epsilon}^2) \quad \cdots (1)$$

t 는 측정시기, i 는 청소년 개인이므로 Y_{ti} 는 i 번째 청소년의 t 번째 측정 시기의 우울 수준을 의미한다. π_{0i} 는 모형의 절편이며 ϵ_{ti} 는 1수준 오차이다.

$$\pi_{0i} = \beta_{00} + u_{0i} \quad \cdots (2)$$

$$Y_{ti} = \pi_{0i} + \pi_{1i}time_{ti} + \pi_{2i}time_{ti}^2 + \epsilon_{tij} \quad \cdots (3)$$

$$\begin{aligned} \pi_{0i} = & \beta_{00} + \beta_{01}교우관계_i + \beta_{02}교사관계_i + \beta_{03}양육방식I_i + \beta_{04}양육방식II_i \quad \cdots (4) \\ & + \beta_{05}또래관계_i + \beta_{06}가구연간소득_i + u_{0i} \end{aligned}$$

2수준 모형에 있어 β_{00} 는 절편(2수준 고정효과)이며 u_{0i} 는 절편과 각 개인 우울 평균값의 차이(2수준 무선효과)다.

$$\pi_{1i} = \beta_{10} \quad \cdots (5)$$

$$\begin{aligned} \pi_{2i} = & \beta_{20} + \beta_{21}교우관계_i + \beta_{22}교사관계_i + \beta_{23}양육방식I_i + \beta_{24}양육방식II_i \quad \cdots (6) \\ & + \beta_{25}또래관계_i + \beta_{26}가구연간소득_i + u_{2i} \end{aligned}$$

π_{ti} 는 시간 관련(time-related) 변수의 계수를 의미한다. π_{1i} 는 1차 성장률(linear growth rates)로 선형적 변화율이다. π_{2i} 는 2차 성장률(quadratic growth rates)로 우울 수준의 측정

시기 단위의 변화율의 변화, 즉 1차 성장률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그림 1.은 KCYPS 자료에서 무선적으로(randomly) 선택한 30명의 학생들의 비선형 우울 성장 궤적을 나타낸다.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우울 궤적은 2차 성장률로 설명할 수 있기에 1차 성장률의 무선효과를 0으로 간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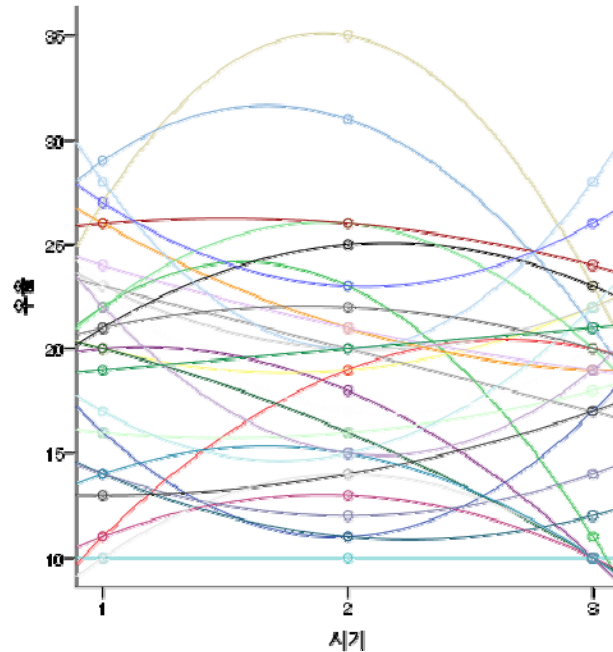


그림 1. 비선형(nonlinear) 우울 성장 궤적

$$\begin{aligned}
 Y_{ti} = & \beta_{00} + \beta_{01}\text{교우관계}_i + \beta_{02}\text{교사관계}_i + \beta_{03}\text{양육방식}I_i + \beta_{04}\text{양육방식}II_i \cdots (7) \\
 & + \beta_{05}\text{또래관계}_i + \beta_{06}\text{가구연간소득}_i + \beta_{10}\text{time}_{ti} + \beta_{20}\text{time}_{ti}^2 \\
 & + \beta_{21}\text{교우관계}_i\text{time}_{ti}^2 + \beta_{22}\text{교사관계}_i\text{time}_{ti}^2 + \beta_{23}\text{양육방식}I_i\text{time}_{ti}^2 \\
 & + \beta_{24}\text{양육방식}II_i\text{time}_{ti}^2 + \beta_{25}\text{또래관계}_i\text{time}_{ti}^2 + \beta_{26}\text{가구연간소득}_i\text{time}_{ti}^2 \\
 & + u_{2i}\text{time}_{ti}^2 + u_{0i} + \epsilon_{ti}
 \end{aligned}$$

공식 7는 공식 4, 공식 5, 그리고 공식 6를 공식 3에 대입한 식으로 즉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최종 연구모형이라 할 수 있다. 모형을 가장 적합하게 설명하기에 앞서 각 수준별로 가능한 공분산 구조 행렬을 검증한 후, 1차 성장률과 2차 성장률 자체의 공분산을 제거한 직교-시간 변수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Ⅲ. 결과

1. 주요변수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총 3가지 유형의 고등학교, 청소년 1,936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예측변수를 포함하는 중1 패널 1~2차(2010~2011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표 4), 진학한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비율은 일반 고등학교 63.6%, 자율형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17.5%, 특성화 고등학교 18.9%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청소년의 교우관계($M = 14.94$, $SD = 2.00$)와 교사관계($M = 13.55$, $SD = 3.28$)의 점수는 최소 5점에서 최대 20점, 양육방식 I($M = 20.17$, $SD = 4.65$)의 점수는 최소 8점에서 최대 32점, 양육방식 II($M = 14.77$, $SD = 3.83$)의 점수는 최소 8점에서 최대 29점, 가구 연간 소득($M = 4323$ 만 4900원, $SD = 2777$ 만 2900원)의 금액은 최소 0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애착($M = 26.77$, $SD = 4.49$)의 점수는 최소 9점에서 최대 36점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변수의 일반적 특성

구분	변수명	명(%)	평균(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2수준	또래관계	2048(100.0)	26.78(4.47)	9	36
	교우관계	2048(100.0)	14.94(1.98)	5	20
	교사관계	2048(100.0)	13.55(3.29)	5	20
	양육방식 I	2048(100.0)	20.15(4.64)	8	32
	양육방식 II	2047(99.0)	14.78(3.80)	8	29
	가구 연간 소득(만원)	1941(94.8)	4329.00(2798.83)	0	30000
구분	학교유형	명(%)			
3수준	일반계	1309(63.9)			
	특성화, 자율형	319(15.5)			
	특수목적, 마이스터	423(20.6)			

조사 시기에 따른 청소년 우울의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표 5). 우울 총점의 평균은 2차(2011년)는 19.18점, 3차(2012년)는 19.82점, 그리고 4차(2013년)는 18.77점으로, 청소년이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학하면서 우울 총점이 0.64점 상승하였지만,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하면서 우울 총점이 1.05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 조사 시기에 따른 우울의 통계량

조사 시기	평균(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솟값	최댓값
2차	19.20(6.08)	0.13	10	40
3차	19.82(6.23)	0.14	10	40
4차	18.79(5.58)	0.12	10	39
전체	19.27(5.99)	0.08	10	40

2. 다층분석 결과

1) 기초모형 분석

2수준 기초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개인 내(1수준) 분산 추정값은 19.33(Wald $Z = 45.26$, $p < .001$), 개인 간(2수준) 분산 추정값은 16.49로 나타났다(Wald $Z = 22.57$, $p < .001$). 개인 간 우울의 분산은 대략 46.04%로 나타났다. 또한 표 6에서 시간 관련 변수(time-related variable)를 고정효과에 투입한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시간 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결과와 비교하여, 개인 내 분산은 19.33에서 19.07로 감소하였으나, 개인 간 분산은 16.49에서 16.58으로 증가하였으며, 개인 간 우울의 분산은 대략 46.04%에서 46.5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2수준 분석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 내 수준 및 개인 간 수준으로 구성되는 2수준 모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표 6 ▶ 2수준 기초모형의 공분산 모수 추정값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모수		추정값	표준오차	Wald <i>Z</i>	유의확률		
2수준 기초모형							
개인 내	분산	19.33	0.43	45.26	.000 ***	18.51	20.18
개인 간	분산	16.49	0.73	22.57	.000 ***	15.12	17.99
시간 변수를 고정효과에 투입한 2수준 기초모형							
개인 내	분산	19.07	0.42	45.24	.000 ***	18.26	19.91
개인 간	분산	16.58	0.73	22.69	.000 ***	15.21	18.07

주. 2수준 기초모형, 모형 적합도: Akaike 정보 기준(AIC) = 38,237.64; 모수 = 3. 시간 변수를 고정효과에 투입한 2수준 기초모형, 모형 적합도: Akaike 정보 기준(AIC) = 38,186.52; 모수 = 5.

*** $p < .001$.

자료를 더 적합하게 분석하기 위해 1수준과 2수준에서의 다양한 공분산 구조를 설정할 수 있다. 1수준에서 가능한 공분산 행렬 구조로 동일 공분산 행렬, 1차 자기회기 오차, 비구조적 행렬을, 2수준에서 동일 공분산 행렬, 비구조적 행렬, 대각 공분산 행렬을 가정하고 각각의 AIC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가장 적합한 공분산 행렬 구조는 1수준에서 비구조적 행렬, 2수준에서 대각 공분산 행렬로 나타났다[표 7].

표 7 ▶ 공분산 행렬에 따른 AIC 적합도 지수

모형	공분산구조	AIC	Parameters
모형 1	1수준 ; 동일 공분산 행렬, 2수준 ; 동일 공분산 행렬	37248.138	5
모형 2	1수준 ; 1차 자기회귀 오차(AR1), 2수준 ; 대각 공분산 행렬	38156.676	7
모형 3	1수준 ; 1차 자기회귀 오차(AR1), 2수준 ; 비구조적 행렬	38158.106	8
모형 4	1수준 ; 비구조적 행렬, 2수준 ; 대각 공분산 행렬	38145.538	11
모형 5	1수준 ; 비구조적 행렬 2수준 ; 비구조적 행렬	38147.538	12

기초모형에서 시간 관련 변수를 무선효과에 투입한 고정효과 추정값은 다음과 같다[표 8]. 시간*시간 변수를 투입한 경우, 초기 상태(initial status)에 대하여, 절편(β_{00j})의 추정값은 19.20이다($t(2047.02) = 142.84, p < .001$). 1차 성장률(linear growth rate) π_{1ij} 의 추정값(β_{10j})은 1.45($t(2047.06) = 5.98, p < .001$), 2차 성장률(quadratic growth rate) π_{2ij} 의 추정값(β_{20j})은 -0.82($t(2047.05) = -7.19, p < .001$)로 나타났다. 직교-시간*직교-시간 변수를 투입한 경우, 초기 상태(initial status)에 대하여, 절편(β_{00j})의 추정값은 19.27이다($t(2047.01) = 182.07, p < .001$). 1차 성장률(linear growth rate) π_{1ij} 의 추정값(β_{10j})은 -0.20($t(2046.94) = -2.89, p < .01$), 2차 성장률(quadratic growth rate) π_{2ij} 의 추정값(β_{20j})은 -0.27($t(2047.36) = -7.19, p < .001$)로 나타났다. 기초모형에 시간 관련 변수를 무선효과에 투입한 모형의 우울 궤적은 그림 2과 같다.

표 8 ▶ 시간 변수를 무선효과에 투입한 기초모형의 고정효과 추정값

모수	추정값	표준오차	자유도	t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시간*시간 변수를 무선효과에 투입한 기초모형							
절편	19.20	0.13	2047.02	142.84	.000***	18.93	19.46
시간	1.45	0.24	2047.06	5.98	.000***	0.97	1.92
시간*시간	-0.82	0.11	2047.05	-7.19	.000***	-1.05	-0.60
직교-시간*직교-시간 변수를 무선효과에 투입한 기초모형							
절편	19.27	0.11	2047.01	182.07	.000***	19.06	19.47
직교-시간	-0.20	0.07	2046.94	-2.89	.004**	-0.34	-0.06
직교-시간*직교-시간	-0.27	0.04	2047.36	-7.19	.000***	-0.35	-0.20

주. 시간*시간 변수를 무선효과에 투입한 기초모형 적합도: Akaike 정보 기준(AIC) = 38,143.34; 모수 = 11, 직교-시간*직교-시간 변수를 무선효과에 투입한 기초모형 적합도: Akaike 정보 기준(AIC) = 38,145.54; 모수 = 11.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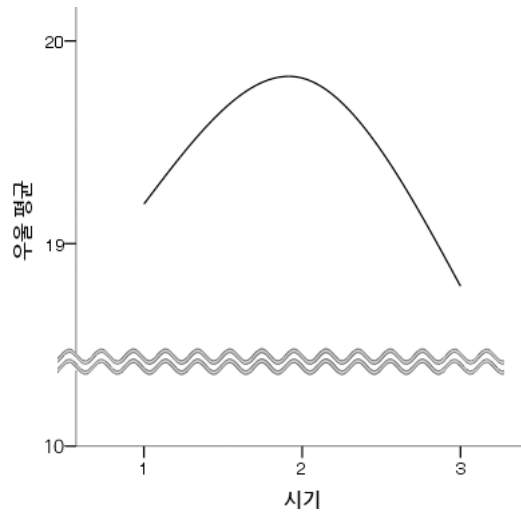


그림 2. 기초모형에 시간 관련 변수를 무선효과에 투입한 모형의 우울 궤적

2) 연구모형 분석

표 9 개인 수준 변수, 시간 변수, 개인 수준과 시간 변수의 상호작용을 고정효과에 투입한 연구모형의 고정효과 추정값

모수	추정값	표준오차	자유도	t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절편	19.26	0.10	1929.92	191.39	.000***	19.06	19.45
직교-시간	-0.21	0.07	1936.00	-2.92	.004**	-0.35	-0.07
직교-시간*직교-시간	-0.28	0.04	1929.84	-7.18	.000***	-0.36	-0.21
교우관계	-0.13	0.06	1930.00	-2.12	.034*	-0.24	-0.01
교사관계	-0.12	0.03	1930.00	-3.79	.000***	-0.18	-0.06
양육방식 I	0.06	0.02	1930.00	2.56	.010*	0.01	0.10
양육방식 II	0.23	0.03	1930.00	8.21	.000***	0.18	0.29
또래관계	-0.22	0.03	1930.00	-8.58	.000***	-0.27	-0.17
가구연간소득	-0.00	0.00	1930.00	-0.88	.380***	-0.00	-0.00
직교-시간*교우관계	0.04	0.02	1930.00	1.71	.087	-0.01	0.09
직교-시간*교사관계	0.01	0.01	1930.00	0.80	.429	-0.01	0.03
직교-시간*양육방식 I	0.00	0.01	1930.00	0.27	.788	-0.02	0.02
직교-시간*양육방식 II	-0.01	0.01	1930.00	-0.78	.438	-0.03	0.01
직교-시간*또래관계	-0.02	0.01	1930.00	-1.94	.053	-0.04	0.00
직교-시간*가구연간소득	0.00	0.00	1930.00	1.27	.203	-0.00	0.00

주. 개인 수준 변수, 시간 변수, 개인 수준과 시간 변수의 상호작용을 고정효과에 투입한 연구모형, 모형의 적합도:
Akaike 정보 기준(AIC) = 35,876.42; 모수 = 23.

* $p < .05$, *** $p < .001$.

표 9는 시간 변수와 개인 수준 변수들과 시간 변수와의 상호작용을 고정효과에 투입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 모형은 모든 개인 수준 변수들과 시간 변수를 고정효과에 투입한 기초모형 보다 모형 적합도 보였다(AIC: 35,876.42 > 35,846.87). 그러므로, 시간 변수와 시간 변수와의 상호작용 변수들이 투입된 연구모형이 개인 수준 변수만 존재하는 모형 보다 더 적합하게 나타났다.

시간 변수와 시간 변수와의 상호작용 변수들이 포함된 모형에서, 교사관계($b = -0.12$, $SE = 0.03$, $t(1930.00) = -3.79$, $p < .01$), 양육방식 I($b = 0.06$, $SE = 0.02$, $t(1930.00) = 2.56$, $p < .05$), 양육방식 II($b = 0.23$, $SE = 0.03$, $t(1930.00) = 8.21$, $p < .001$), 또래관계($b = -0.22$, $SE = 0.03$, $t(1930.00) = -8.58$, $p < .001$), 가구연간소득($b = -0.00$, $SE = 0.00$, $t(-0.88)$, $p < .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들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과 교우관계의 상호작용($b = 0.04$, $SE = 0.02$, $t(1930.00) = 1.71$, $p > .05$), 시간과 교사관계의 상호작용($b = 0.01$, $SE = 0.01$, $t(1930.00) = 0.80$, $p > .05$), 시간과 양육방식 I의 상호작용($b = 0.00$, $SE = 0.01$, $t(1930.00) = 0.27$, $p > .05$), 그리고 시간과 양육방식 II의 상호작용($b = -0.01$, $SE = 0.01$, $t(1930.00) = -0.78$, $p > .05$), 시간과 또래관계의 상호작용($b = -0.02$, $SE = 0.01$, $t(1930.00) = -1.94$, $p > .05$), 시간과 가구연간소득의 상호작용($b = 0.00$, $SE = 0.00$, $t(1930.00) = 1.27$, $p > .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을 개인적 수준과 환경적 수준을 동시에 고려한 3수준 다층분석을 사용하여 그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며, 개인 내(우울), 개인 간(교우관계, 교사관계, 양육방식 I(과잉기대 및 과잉간섭), 양육방식 II(방임 및 학대), 가구 연간 소득, 또래관계(의사소통, 신뢰, 소외)), 그리고 학교 수준으로 구성된 3수준 다층구조분석을 사용하여 각 수준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했던 연구문제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청소년의 우울 점수는 중학교 2학년(2011년) 시기보다 중학교 3학년(2012년) 시기에서 더 높았으나,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2013년)으로 진학하면서 약간 감소하여 역 U자 궤적이 확인되었다. 측정시기에 따른 청소년들의 우울점수는 고등학교 시기보다 중학교 시기에 더 높은 우울감을 호소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송예리아 & 김진영, 2013; 조정아, 2009; Wickrama, Conger, & Abraham, 2008)와 그 맥을 같이 했다. 즉, 청소년기의 우울 수준이 역 U자 모양의 발달 궤적을 보이며,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느냐가 곧 대학 수준을 결정하는 현재의 체제에서, 고등학교 결정 직전에 이미 더 큰 스트레스 및 우울감을 경험함을 의미한다. 중학생 때 교사와 무난한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들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우울의 변화가 없었으며, 학교생활에서 교사와 친밀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입학 앞둔 중학교 3학년 때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입학 후에는 그에 비해 그 영향력이 작아졌다. 따라서 고등학생으로 진급한 청소년에게 있어 학급 내 교사의 역할이 점점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청소년의 우울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교사관계, 양육방식I(과잉기대 및 과잉간섭), 양육

방식II(방임 및 학대), 또래관계가 확인되었다. 즉, 긍정적인 교사관계와 또래와의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일수록 우울 수준이 낮았으며, 부모로부터 방임과 학대를 받거나, 역으로 과도한 기대와 간섭을 받는 청소년일수록 더욱 우울했다. 청소년의 우울에 있어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증 결과, 2수준(개인 간)에서 중학생의 우울의 유의한 독립변수로 교사관계, 양육방식, 또래관계가 확인되었다. 먼저 개인 간 수준에서 중학생의 우울에 대한 유의한 독립변수로 교사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교사의 관심과 지지적인 태도가 우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나타내며, 가정 외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내에서 교사가 청소년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들의 심적 상태를 기민하게 살펴보는 등 청소년의 우울을 미리 예방하고 적절한 시기에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방임, 학대, 과잉기대, 과잉간섭과 같은 양육태도의 경우,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소선숙, 2008), 방임과 학대와 같은 가정폭력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간섭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때문에 양육에 대한 적절한 부모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학대를 예방하고 자녀를 향한 잘못된 생각 대신 긍정적인 양육방법을 가르쳐주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수준에서 청소년의 우울을 예측하는 독립변수로 또래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질을 가진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우울을 더 많이 경험했다는(김정민, 이정희, 2008)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교우관계와 같이 학교 내에서 표면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또래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는 것이 청소년의 우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가정에서 벗어나 심리적 독립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은 또래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얻고 유대감을 공유하며 친밀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학급 내에서 긍정적인 또래친구와 같은 보호요인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유형에 따른 우울 궤적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세원(2009)은 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공격성과 불안, 우울의 궤적을 3수준으로 분석하였는데, 3수준인 지역사회의 계수가 2수준 계수에 비해 작았다는 것을 제한점으로 꼽았다. 고등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을 학교 수준에서 분석한 오현석 외(2010)의 연구에서 학교 수준의 ICC가 2.89%로 개인 수준(97.11%)에 비해 상당히 작았다. 이러한 점들과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우울 양상은 학교의 영향보다는 개인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수 있다.

이는 또래관계의 질과 무관하게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시기가 될 때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또래관계가 원만한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 점수가 유의하게 떨어지거나 소원한 또래관계를 맺는 청소년의 경우 우울 점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발달궤적상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가는 시기에 청소년들이 우울감을 더 많이 호소하나 또래관계 질에 따라 그 발달 궤적이 감소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학교 시기의 종단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우울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더불어 종단연구를 통해 우울과 독립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학교유형별 특성을 3수준 예측변인으로 설정한 본 연구에서, 심리적 급변기를 겪는 중학생 시기의 우울양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하루 절반 이상 생활하며 가족 외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학교 안에서의 집단 영향을 검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청소년의 우울 양상은 학교의 영향보다는 개인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개인 특성 이외에 사회·환경적 특성을 지닌 청소년 우울의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파악에 도움을 주고, 이를 예방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시기의 우울에 있어 고등학교 유형과 같은 환경적 요인보다는 개인수준의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진학 이전의 더 어린 시기부터 개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약요인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조속한 개입을 통해 우울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세 시기에 걸친 자료를 분석하여 장기 종단적인 우울의 변화 양상을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이후에 추가로 수집되는 조사자료를 포함하여 청소년 시기 우울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학교 2학년부턴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발달 궤적에 있어 중학교 이전의 아동기, 초등학교의 자료를 고려하지 못했다. 청소년의 우울 문제가 특히 초등학교 4학년부턴 중학교 1학년까지 점차 증가하였다는 결과(윤명숙, 이재경, 2010)는 중학교 입학 전의 우울 양상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때문에 이후 중·고등학생이 될 초등학생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추후에 이와 같은 점을 포함한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후속 연구사업으로서, 2010년에서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장과 발달을 보기위해 실시된 패널조사이다. 우울에 대한 예측요인을 선정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선정한 예측요인 외에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이 포함되지 않아 우울을 예측하는 데 있어 누락된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본 연구는 예측요인 선정에 있어 이미 선정된 요인들을 이용하여야 하는 한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패널 데이터는 국내에서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패널 조사 6종들과 달리 조사대상에 있어 후기 청소년(15세 이상)보다 더 어린 연령인 초·중·고교생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제에 있어서도 노동·교육 등 특정 영역과 주제에 한정되지 않아 다양한 맥락에서 우울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추후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입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 발달 궤적 역시 역 U형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도한 학습부담과 성적경쟁을 유도하는 우리나라의 입시환경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입시경쟁이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성적이 아닌 개인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

위기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또래로부터 느끼는 애착 수준은 부모와의 애착 형성 유형에 영향을 받으며, 적응 수준에 매우 중요하다(Wilkinson, R. B., 2010). 또한 초기에 형성되는 또래관계가 종단연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도 청소년들의 적응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들이 확인된 바 있다(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Carlivati & Collins, 2007). 이영호(2002)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현 입시 체계가 교우 및 교사관계에 악영향을 끼침을 지적했다. 본 연구에서 역시 또래관계가 청소년들의 우울의 발달 수준을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래애착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정서적 박탈감 및 지지 결핍으로 인해 우울감을 더 극대화하여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대인관계기술의 부족으로 적절한 또래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사회기술훈련과 같은 개입이 필요하다. 이는 학급 내에서 조기에 대인관계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개입하여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하여 또래관계와 같은 정서적 보호요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모두 자기보고식이며 중학교 초기의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는 청소년 스스로가 초기에 지각하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앞으로의 우울 발달 양상을 유의하게 예측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학교 입학 시기부터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확인하여 조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우울이 만성화 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경희. (2008). **특수목적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1381107>
- 강상진. (1995). 다층통계모형의방법론적특성과활용방법. **교육평가연구**, 8(2), 63-94.
- 구자경. (2004).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 학교관련변인을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relate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mental health]. **청소년학연구**, 11(2), 217-239.
- 기영락, & 임성택. (2010). 전문계 고등학생의 부모 관계와 진로성숙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직업교육연구**, 29(1), 63-80.
- 김광일, 김재환, &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민정. (2012). **학교교육과정 자율권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교사의 인식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8876131>
- 김세원. (2009). 지역사회 특성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3 수준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아동복지학**, 28(단일호), 101-135.
- 김영철. (2003).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체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민, & 이정희. (2008).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과 학업성취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eer Relationship and Academic Achievement on Adolescents' Depression]. **여성가족생활연구**, 12(-), 115-128.
- 문선모. (1997). 학생의 배경적 특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학생지도연구**, 4, 19-28.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배상훈, 최은옥, & 장창성. (2013). **마이스터고 진학 학생의 특성: 3 년 (2010-2012) 연구**. 직업교육연구, 32(3), 49-76.
- 서한나. (2011). 초기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에 관한 종단 연구: 스트레스와 우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629-646.
- 소선숙. (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울.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1677350>
- 송예리아, & 김진영. (2013). 연구논문 : 경제적 곤란 및 부모와의 소통과 청소년기 우울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연구. [Economic Hardship,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A Longitudinal Approach]. **청소년학연구**, 20(5), 131-155.
- 송태민, & 송주영. (2013). **빅데이터분석방법론**. 서울: 한나래 :.
- 오현석, 배진현, 이상은, & 장현진. (2010).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 비교 연구. **직업교육연구**, 29(2), 245-265.
- 윤명숙, & 이재경. (2010). 부모애착이 초기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분석. [A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 Attachment on Depression in Early Adolescence]. **社會科學研究**, 26(2), 69-92.
- 이상필. (1990). 학교생활적응수준에 따른 학업성적 및 행동특성의 차이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호. (2002). 입시경쟁 교육체제에서의 청소년 학습문화. **교육사회학연구**, 12(1), 135-171.
- 이혜경, 김수연, & 김혜원. (2013). 남녀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우울/불안이 학교생활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4), 129-156.
- 이혜경, 연은경, & 김혜원. (2014). 낙관성향상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기표현능력, 대인관계능력,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Optimism-Improvement Program on Self-Expression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 Ability, and Stress among the Middle School Students.]. **청소년복지연구**, 16(1), 379-400.
- 전민정, & 강상진. (2005). 다층자료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다층모형의 모수추정 비교 - 2-level HLM, 3-level HLM, CMM 방법의 비교. [A Comparison of Multilevel Models in Their Parameter Estimation - The Comparison of 2-level HLM, 3-level HLM, and CMM -]. **교육평가연구**, 18(2), 123-147.
- 정화실. (2009). **초등학생의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용인.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1721664>
- 조은정, & 이혜경. (2007). 연구논문 : 청소년패널연구의 위험행동요인, 학교요인, 가족요인에 따른 학교생활 부적응. [The effects of school maladjustment on risk behavior, family, and school factor by Korean adolescents' panel data]. **청소년학연구**, 14(4), 59-80.
- 조정아. (2009). 선형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우울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변화경향과 개인차에 대한 성별·부모·또래·교사 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3), 167-192.
- 통계청 (2011). **2011 중학교 개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 통계청 (2013). 2013 **청소년 통계**. 서울: 통계청.
- 하은혜, 오경자, & 송동호. (2003). 청소년기 우울 및 불안증상 공존집단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comorbid adolescents with depression and anxiety].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127-144.
- 허묘연. (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0397901>
- 황미경, & 허균. (2010). 동북아 지역의 다문화가정에서 부모의 애착관계가 아동의 사회불안심리에 미치는 영향-중국, 일본, 러시아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23, 277-287.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Association, A. P. (2013).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 5* bookpointUS.
- Bagwell, C. L., Newcombe,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hatia, S. K., & Bhatia, S. C. (2007).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American Family Physician*, 75(1), 73-80.
- Bronfenbrenner, U., & Mahoney, M. A. (1975). *Influences on human development*. Holt McDougal.
- Carlivati, J., & Collins, A. W. (2007). Adolescent Attachment Representations and Development in a Risk Sample.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117), 91-106.
- Cicchetti, D., Carlson, V., Braunwald, K., & Aber, J. (1987). The sequelae of child maltreatment. *Child abuse and neglect: Biosocial dimensions*, 277-298.
- Costello, D. M., Swendsen, J., Rose, J. S., & Dierker, L. C. (2008).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trajectories of depressed mood from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2), 173-183. doi: <http://dx.doi.org/10.1037/0022-006X.76.2.173>
- Henriksson, M. M., Aro, H. M., Marttunen, M. J., Heikkinen, M. E., Isometsa, E., Kuoppasalmi, K. I., & Lonnqvist, J. (1993). Mental disorders and comorbidity in suicid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0, 935-935.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Vol. 1): Sage.
- Wickrama, K., Conger, R. D., & Todd Abraham, W. (2008). Early family adversity, youth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and young adult socioeconomic attainment: A latent trajectory class analysi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3, 161-192.
- Wilkinson, R. B. (2010). Best friend attachment versus peer attachment in the prediction of adolescent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ce*, 33(5), 709.
- Yu, J., & Meyer, R. (2006). Multivariate stochastic volatility models: Bayesian estimation and model comparison. *Econometric Reviews*, 25(2-3), 361-384.

우리나라 남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연구

오승아*, 유준호**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인과적 모형을 설명하여 그 관계를 검증하고, 휴대전화 의존도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를 통해 조사된 고등학교 1학년생이며, 본 자료는 2011년 중학교 1학년 패널의 4차 패널조사 자료(2014)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이 정서문제와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은 정서문제, 휴대전화 의존도, 학교생활 적응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영향 관계에서 정서문제와 휴대전화 의존도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의 성별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성별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나 사람의 만족도에 대한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남녀청소년(male and female adolescents),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휴대전화 의존도(mobile phone dependency), 학교생활적응(school adjustment), 정서문제(emtional problems),

I. 서론

최근 ‘행복’이 사회 전반에 키워드가 되어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 관심이 모여지고 있으며(채진영, 2013)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삶의 질이란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개인의 반응으로서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용어이지만 그 속성을 규명하거나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삶의 질은 스트레스나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적절히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 또는 안락감이라고 할 수 있다(송미령, 안혜영, 김은경, 2002).

삶의 질은 삶의 만족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삶의 만족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까지의 자신의

* 경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sandmann87@naver.com

** 을지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삶을 잘 수행해 왔으며 스스로 만족함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삶의 만족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까지의 자신의 삶을 잘 수행해 왔으며 스스로 만족함(Diener & Fujita, 2005)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 지식중심의 교육제도, 경쟁적 구도 등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으며,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Yoo, Shin, & Jeon, 2010). 유니세프 행복지수를 모델로 2013년 한국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교육 성취도를 측정하는 ‘교육’ 영역에서 122.99(OECD국가 평균=100)로 최상위점수를 기록하는 등 5개 영역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주관적 행복지수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다(염유식, 2013). 주관적 행복지수도 5년 연속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2009년 64.3에서 2013년 72.5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삶의 만족이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혜원, 홍미애, 2007).

이처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만족스러운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행복감과 삶의 만족감이 낮을 경우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Zimmerman, 1990). 최근 들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 중도탈락, 비행 등의 문제행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이현웅, 박윤정, 2011).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청소년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부적응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만족을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삶의 만족도는 안녕감(well-being)을 이루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로 개인의 인지적 판단 과정으로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청소년의 내적 요인과 환경 요인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Diener, & Fujita, 2005). 그러므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적요인과 환경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Rojas, 2006).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성차비교 연구를 살펴보면 성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간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권석만, 2008)와 성별에 의해 차이가 있다(최인숙, 2012)는 상반된 결과들이 있다. 성별에 의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혜원, 홍미애, 2007; 김은경, 2007)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여아는 불안과 우울 수준에서 남아보다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최인숙, 2012), 남학생의 경우는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고, 여학생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리, 2003). 또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자율성, 개인적 성장, 인생의 목표를 보다 중요한 삶의 영역으로 보는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대인관계를 중요한 삶의 영역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소 외, 2003).

또한, 청소년기 삶의 만족에 대해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부분으로는 학교 장면과

관련된 것들이다.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학교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들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생활 적응은 다양한 학교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상황에 수용되고 이를 통해 만족감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한유선(1996)의 연구에서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할수록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자아탄력성이 있다. 자아탄력성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최인숙, 2012),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2005). 자아탄력성은 탄력성은 내적, 외적 스트레스원에 유연하게 적응해나가는 능력을 의미하는데(Block & Kremen, 1996) 특히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신이 표출하는 자아조절의 방식을 수정해 나가는 능력을 말한다.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 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 적응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에 대한 흥미가 높고 학업성취가 좋으며,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창실, 2008; 홍하나, 2010).

한편, 최근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정보화와 삶의 질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조명한(1994)은 정보화와 삶의 질이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최근 정보화의 대표적인 메가트랜드인 휴대전화와 삶의 질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3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진단결과’에 따르면 전체학생의 약 24만 명 즉, 18%가 스마트폰 중독을 나타내었으며, 이 수치는 인터넷 중독율의 2.5배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휴대폰 사용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 휴대폰 중독의 형태를 나타내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기조절 학습능력이나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휴대폰 중독 등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들(김은경, 2007)로부터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휴대폰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나 정보들 때문에 수업 과정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등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6%였던 청소년의 스마트폰 소지율이 2013년에 13배가량 상승하여 청소년 10명 중 9명은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95% 이상이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스마트폰 소지율은 84.9%인 것으로 나타났다(배상률, 김현주, 성은모, 2013). 특히 휴대전화에 대한 집착 정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학교의 급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에 대한 집착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배상률, 김현주, 성은모, 2013). 휴대폰 의존도는 학교 및 사회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며(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성별에 따른 특성(김선희, 2005)이니 또래애착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이처럼 고등학생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과 휴대전화 집착도가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휴대폰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와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런

데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청소년기의 현재 삶에 대한 만족 정도는 사회문제가 되고 일탈행위 및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기초가 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성인의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성인에 대한 연구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다(김의철, 박영신, 광금주, 1998; 조명r, 199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인과적 모형을 설정하여 그 관계를 검증하고, 휴대전화 의존도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과정이 어떠한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 시기에 삶의 만족에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 간 관계 파악을 통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을 높이고 긍정적 발달을 증진시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만족도 관련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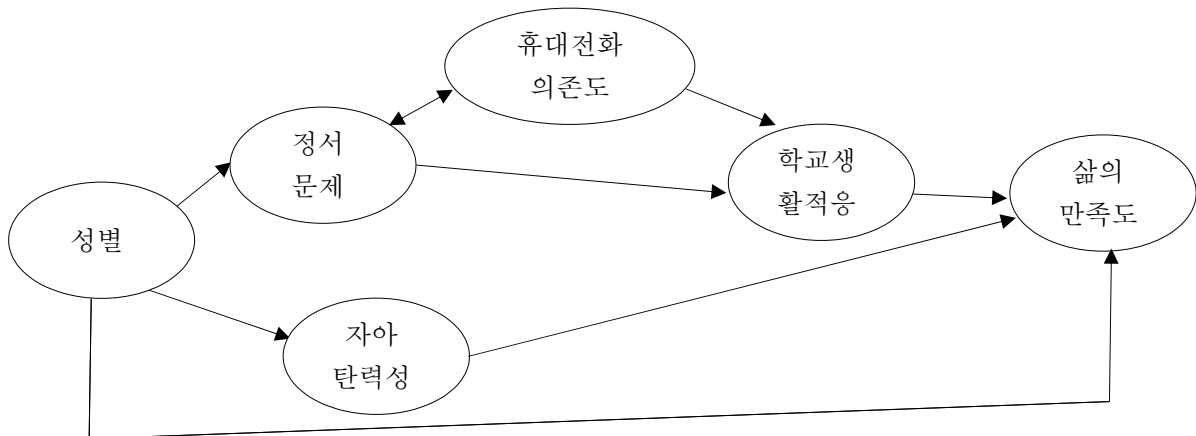
첫째, 청소년의 성별이 정서 문제,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 생활적응, 자아 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생활적응간의 영향 관계에서 정서문제와 휴대전화 의존도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넷째, 청소년의 성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상기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그림 1] 과 같은 연구 모형을 가정하였다.



[그림 1] 삶의 만족도와 관련변인의 구조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였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를 통해 중학교 1학년패널의 2014년도 4차 패널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4차 패널 조사 시 고등학교 1학년생이 된다.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2014년 고1 4차 패널집단 인구통계학적 정보(N=2351)

변인	집단	빈도(%)	평균
성별	남	1075(45.7)	
	여	1033(43.9)	
	합계	2108(89.7)	
	시스템결측값	243(10.3)	
남녀공학구분	남자학교	465(19.8)	
	여자학교	523(22.2)	
	남녀공학이고 남/녀반 분리형	505(21.5)	
	남녀공학이고 남/녀반 합반형	587(25.0)	
	학교안다님	28(1.2)	
	합계	2108(89.7)	
	시스템결측값	243(10.3)	
부학력	중졸이하	75(3.2)	
	고졸	805(34.2)	
	전문대졸	195(8.3)	
	대졸	792(33.7)	
	대학원졸	92(3.9)	
	합계	1959(83.3)	
	시스템결측값	392(16.7)	
모학력	중졸이하	62(2.6)	
	고졸	1064(45.3)	
	전문대졸	209(8.9)	
	대졸	611(26.0)	
	대학원졸	31(1.3)	
	합계	1977(84.1)	
	시스템결측값	374(15.9)	
가구연간소득	2000만원 이하	295(12.5)	28773.77(만원)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331(14.1)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399(17.0)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424(18.0)	
	5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218(9.3)	
	6000만원 초과	442(18.8)	
	합계	2109(89.7)	
	시스템결측값	242(10.3)	

실제 사용된 자료는 2109명(4차 패널)이었다. 연구대상인 4차 패널 아동은 남학생 1075명(45.7%), 여학생이 1033명(43.9%)이었고 남녀공학이면서 남녀합반에 다니는 학생이 587명(25.0%)으로 가장 많았고 남녀공학이면서 남녀반 분리형에 다니는 학생을 포함해서 남녀공학에 다니는 학생이 1092명(46.5%)으로 대부분이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대변하는 연간 소득은 180만원부터 4억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고 평균적으로는 28773만원이었다. 6000만원초과인 가구가 422가구(1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4000만원 이상 5000만원이하인 가구도 424가구(18.0%)로 많았다. 부모의 학력은 부의 경우에는 고졸이 805명(34.2)으로 가장 많았으나 그와 거의 대등하게 대졸도 792명(33.7%)으로 많았다. 모 모두 고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경우에는 고졸이 1064명(45.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 측정도구

1)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

2014년 4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 참여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성별, 남녀공학유무, 부모학력, 가구연간소득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성별이 외생변수로 사용된다.

2) 아동의 정서문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된 도구는 동일하며, 그 중에서 주의집중(7개), 공격성(6개), 신체증상(8개), 사회적 위축(5개), 우울(10개)문항을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평정하는 4점 Likert척도이며, 모름이나 무응답은 9점으로 처리했다. 정서문제의 각 하위 변인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점수가 낮을수록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3)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한국아동청소년패널 4차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활동(5개), 학교규칙(5개), 교우관계(5개), 교사관계(5개)를 측정하는 총2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평정하는 4점 Likert척도이며, 모름이나 무응답은 9점으로 처리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잘되는 것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적응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삶의 만족도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삶의 목표/만족도 문항 중 만족도를 측정하는 3문항을 활용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평정하는 4점 Likert척도이며, 모름이나 무응답은 9점으로 처리했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3점부터 12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자아탄력성

한국아동청소년패널 4차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아 인식 문항중 자아탄력성을 측정하는 1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평정하는 4점 Likert 척도이며, 모름이나 무응답은 9점으로 처리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6) 휴대전화의존도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휴대전화관련 문항 중 의존도를 측정하는 7문항을 활용하였다. 휴대전화 의존도는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평정하는 4점 Likert척도이며, 모름이나 무응답은 9점으로 처리했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7점부터 28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외생변수는 성별을 사용하며 내생 변수로는 정서 문제, 자아 탄력성, 휴대전화 의존도, 학교 생활적응을 사용하여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경로를 살펴 볼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PASW18와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첫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들간의 양상¹⁾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구성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변수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델검증을 먼저하고 경로모형이 결합된 연구모형에 대해 공분산 구조방정식을 실시한다.

III. 연구결과

1.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들의 측정변수간 상관관계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성별, 자아탄력성, 정서문제, 휴대전화의존도, 학교생활적응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들의 측정변수간 상관행렬

변수명(약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성별(1)	1														
자아탄력성(2)	.107**	1													
삶의 만족도(3)	.101**	.384**	1												

변수명(약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학교생활적응(4)	-.017	.339**	.295**	1											
정서문제(5)	.101**	.280**	.408**	.288**	1										
휴대전화의존도(6)	.136**	.115**	.196**	.156**	.288**	1									
학교생활적응-학습활동(7)	-.060*	.233**	.276**	.592**	.222**	.176**	1								
학교생활적응-학교규칙(8)	-.114*	.189**	.107**	.584**	.185**	.152**	.309**	1							
학교생활적응-교우관계(9)	.073**	.354**	.305**	.549**	.229**	.049*	.320**	.246**	1						
학교생활적응-교사관계(10)	.050*	.284**	.246**	.701**	.217**	.127**	.310**	.310**	.349**	1					
정서문제-주의집중(11)	-.044*	.114**	.144**	.257**	.549**	.249**	.200**	.266**	.120**	.166**	1				
정서문제-공격성(12)	.055	.174**	.250**	.205**	.652**	.265**	.131**	.198**	.128**	.146**	.401**	1			
정서문제-신체증상(13)	.109**	.157**	.326**	.177**	.720**	.222**	.137**	.124**	.149**	.149**	.361**	.488**	1		
정서문제-위축(14)	.000	.272**	.223**	.193**	.563**	.117**	.130**	.060**	.238**	.164**	.288**	.260**	.337**	1	
정서문제-우울(15)	.178**	.305**	.517**	.251**	.776**	.285**	.215**	.087**	.237**	.214**	.322**	.486**	.573**	.435**	1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표 2〉에 의하면 성별과 세 개의 측정변수인 성별과 정서문제-위축, 정서문제-공격성, 학교 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를 제외한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모든 변인이 유의수준 .05나 .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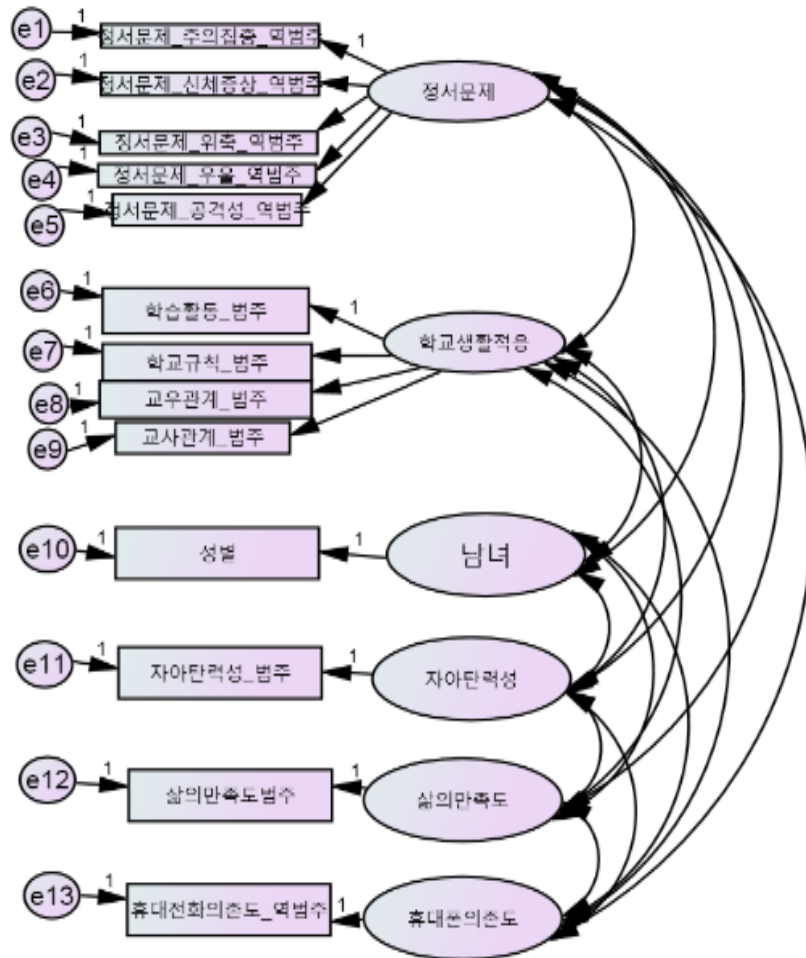
2. 측정모델의 검증

〈표 2〉의 결과로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사용될 측정변수들의 측정 모델을 위해 최대우도법에 의한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추정하였다. 적합도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 ▶ 측정모델 적합도 지수

		CMIN	p	df	NFI	CFI	RMSEA (90%신뢰구간)
측정모델	초기	825.517	.000	54	.861	.868	.078
	최종	242.641	.000	44	.942	.947	.061
기준값					>.90	>.90	<.08

〈표 3〉에서 제시한 바대로 최종측정모델의 RMSEA(.061), CFI(.947)으로 좋은 적합도를 가진 모델로 나타났다. 인과계수(Estimate)의 절대치의 대소나 부호를 보면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구조방정식모델분석에서 표준화계수(SRW)는 모두 동일한 분산을 가지며 최대 1의 값을 가진다. 인과계수의 값의 크기는 중요성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값이 클수록 중요성도 크다는 것을 말한다(송지준, 2014).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량은 .535-.866에 걸쳐있으며 유의 수준 .05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설명력을 보여준다. 채택된 최종 측정모델은 대부분의 변수가 .40 이상의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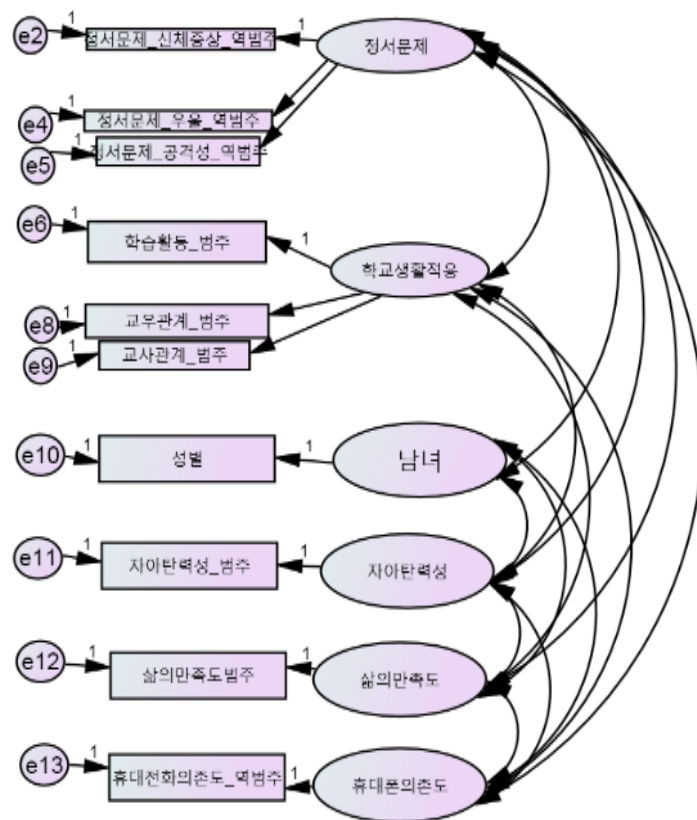


[그림 2] 초기측정모델_연구모델

표 4 ▶ 측정 변수의 SMC(Square Multiple Correlation)

변인(명)		SMC				
정서문제 (정서문제)	변수	주의집중_역범주	신체증상_역범주	공격성_역범주	위축_역범주	우울_역범주
	초기	.217	.489	.383	.249	.686
	최종	-	.452	.342	-	.750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	변수	학습활동_범주	학교규칙_범주	교우관계_범주	교사관계_범주	
	초기	.319	.222	.353	.339	
	최종	.286	-	.387	.311	
삶의 만족도 (삶의만족도)	변수	삶의만족도_범주				
	초기	.500				
	최종	.500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변수	자아탄력성_범주				
	초기	.500				
	최종					

변인(명)		SMC
휴대전화의존도 (휴대폰의존도)	변수	휴대전화의존도_ 역범주
	초기	.500
	최종	.500
성별(남녀)	변수	성별
	초기	.500
	최종	.500



[그림 3] 최종 측정모델

3. 구조모델의 검증

최종 측정모델을 활용하여 연구모델에서 제시된 경로모델이 추가된 구조모델 분석을 위해 최대우도법에 의한 모델의 적합도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구조모델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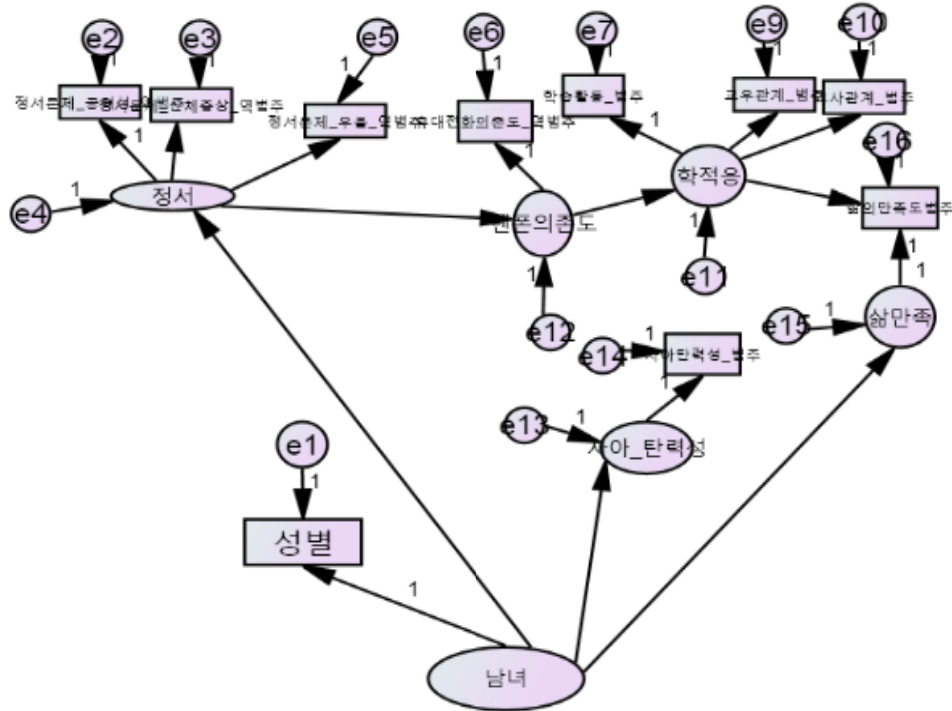
		CMIN	<i>p</i>	<i>df</i>	NFI	CFI	RMSEA (90%신뢰구간)
측정모델	초기	433.466	.000	28	.897	.902	.078
	최종	494.347	.000	31	.882	.888	.080
기준값					>.90	>.90	<.09

〈표 5〉의 결과 최종수정모델은 RMSEA(.80), CFI(.888)으로 수용가능한 적합도를 가진 모델로 나타났다. 〈표 6〉에서 C.R값은 *t*값을 말하는 것이며, ± 1.96 보다 클 때는 그 인과계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송지준, 2014). 초기 구조모델이 모델적합치만으로는 좋으나 C.R값으로 살펴본 유의미한 경로가 〈표 6〉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성별→ 정서, 성별→ 자아탄력성, 정서문제→휴대폰의존도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종 수정모델에서는 모든 경로에서 유의미한 결과(즉 C.R값>1.96)가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의 성별이 정서 문제,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으며, 정서문제, 휴대전화 의존도,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성별과 학교생활적응간의 영향 관계에서 정서문제와 휴대전화 의존도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성별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성별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나 자아탄력성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구조모델 가설 검증결과(Regression Weights)

경로		Estimate	S.E	C.R	<i>P</i>
성별→정서문제	초기	6.014	1.659	3.624	***
	최종	3.457	.492	7.026	***
성별→자아 탄력성	초기	2.967	.350	8.484	***
	최종	3.775	.530	7.122	***
성별→삶의 만족도	초기	2.363			
	최종	4.155	.584	7.113	***
정서문제→휴대전화 의존도	초기	.670	.074	9.002	***
	최종	.602	.045	13.381	***
정서문제→학교생활적응	초기	-.488	.338	-1.444	.149
	최종	-			
휴대전화 의존도→정서문제	초기	-1.635	.732	-2.234	.025
	최종	-			
휴대전화 의존도→학교생활 적응	초기	1.745	.627	2.784	.005
	최종	.678	.067	10.094	***
자아탄력성→삶의 만족도	초기	.389			
	최종	-			
학교생활적응→삶의 만족도	초기	.082	.092	.895	.371
	최종	.368	.051	7.273	***



[그림 4] 최종 구조모델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남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정서문제가 휴대전화 의존도와 학교생활 적응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남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최대우도법에 의한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최종측정모델의 RMSEA, CFI를 살펴본 결과 좋은 적합도를 가진 모델로 나타나 최종 연구모형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최종 연구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이 정서 문제,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이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높은 우울을 보고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Twenge & Nolen-Hoeksema, 2002; 임광훈, 2012; 정익중, 이지언, 2012)과 유사한 결과이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여아는 불안과 우울 수준에서 남아보다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최인숙, 2012) 성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격성 등의 정서문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영향을 잘 받는다는 연구결과(정익중, 이지언, 2012)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처럼 정서문제는 성별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정서문제 해결을 위한 대

처방법 또한 성별에 따라 달리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성별이 자아탄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탄력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박상희(2009), 박현석(2014), 정성근(2008), 윤명희(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여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성영순, 2012; 이수현, 최해림, 2007).

둘째, 청소년의 성별은 정서문제, 휴대전화 의존도, 학교생활 적응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 의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김은경(2007), 김혜원, 홍미애(2007), 이순성(201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김은경(2007), 김혜원, 홍미애(2007)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순성(2010)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단순하고 낙천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가정이나 학교 생활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여학생 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 학교생활 적응이라는 연구결과(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송영경, 김영희, 황성실, 2011; 한유선, 199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런데 정서문제, 휴대전화 의존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정서문제, 휴대전화 의존도가 삶의 만족도에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생활적응간의 영향 관계에서 정서문제와 휴대전화 의존도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문제가 학교생활 적응에 매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학생들의 주의집중 문제와 우울 등이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성 있다고 보고한 김정민, 송수지(2014), 김홍석, 송연주, 이동훈(2013), 신현숙(2009), 이동훈(200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휴대전화 의존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매개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휴대전화 사용정도가 높아질수록 학교생활 적응이 낮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이하늘, 2010; 정석필, 2009, 황광민, 2004, 김선희, 2005, 이정화, 2010)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휴대전화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넷째, 청소년의 성별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성별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나, 자아탄력성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별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보다 단순하고 낙천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가정이나 학교생활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여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는 이순성(201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반면,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대한 매개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는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김영민, 임영식(2013)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며, 자아탄력성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최인숙, 2012),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유안진, 이점숙, 김정민(2005)의 연구와도 다른 결과이다. 송정화(2010)의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이 적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여 청소년의 행복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김경민(2010)의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고 나타났다.

그런데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치되지 않는 면이 있다.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여학생이 전반적으로 남학생보다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상희, 2013; 차은주, 2010). 반면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선행연구(고영남, 2011; 김은경, 2007; 김혜원, 홍미애, 2007; 이순정, 2010)에서 밝히고 있다.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최인숙, 2012),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김경민, 2010; 송정화, 2010; 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2005)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삶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야 하는데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일치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또한 그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패널연구로서 우리나라의 많은 고등학생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는 일반화할 수 있는 신뢰로운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남녀 성별 차이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정서문제나 자아탄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아냈으나 성별 각각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남녀 성별의 구체적인 차이비교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본 연구에서는 성별 이외에는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편에 속하므로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창실(2008).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영남(2011).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 동료애착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17(1), 246-269.
- 김명소·김혜원·차경호·임지영·한영석(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0), 415-442.
- 김선희(2005). **휴대폰 중독적 사용 고등학생의 심리특성과 학교생활 적응관계**. 성균관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민, 임영식(2013).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잉양육, 자아탄력성, 학교 적응의 구조적 관계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2), 343-366.
- 김은경 (2007).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수준에 따른 자기통제력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의철, 박영신, 광금주(1998). 한국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요인: 도시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79-101.
- 김정민, 송수지(2014). 중학생의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5(1), 5-27.
- 김혜원, 홍미애 (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정도와 설명요인 분석. **청소년학 연구**, 14(2), 269-297.
- 김홍석, 송연주, 이동훈 (2013). 초등학생의 자기보고 된 ADHD 성향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331-350
- 박상희(2009).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실패내성, 학교적응 관계 연구. **초등교육학 연구**, 6(2), 59-81
- 박현석(2014).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영순(2012). **고등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자아탄력성 및 성별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2012). 바람직한 부모양육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비교. **한국청소년 연구**, 23(1), 149-173.
- 송미령, 안혜영, 김은경(2002). 청소년의 스트레스,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삶의 질 간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8(2), 141-151.
- 송영경 · 김영희 · 황성실(2011).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0(1), 1-19.
- 신현숙 (2009). 아동의 주의집중 문제와 우울의 관계: 사회적 유능성의 매개 효과. **청소년학연구**, 16(8), 27-47.
- 여성가족부 (2012). **2012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염유식(2013). **2013 한국 어린이 ·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유안진, 이점숙, 김정민(2005).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 가정관리학회지, 23(5), 123-132.
- 윤명희 (2007). **아동이 지각한 교사의 기대감과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학교생활 만족과의 관계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훈 (2009). 초등학생의 ADHD 증상 유형을 및 우울, 불안, 스트레스, 학교부적응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10(4), 2397-2419
- 이미리(2003). 청소년기 행복감 수준의 일상맥락 변화에 따른 다양성.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6(4), 193-209
- 이수현, 최해림(200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형태, 자아탄력성,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상담및심리치료**, 19(2), 321-337
- 이순성(2010).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의 종단적 추이분석. 강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화(2010).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휴대폰 사용현황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동북아문화연구**, 25, 337-351.
- 이하늘(2010).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 관련변인과 자기통제력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웅, 곽윤정 (2011).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8(7), 59-83.
- 임광훈(2012). **청소년의 학교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9(5), 161-187.
- 정석필(2009). **고등학생 휴대전화 중독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익중, 이지연(2012). 학대와 따돌림이 청소년기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2), 217-242.
- 정성근(2008). **초등학생의 가정폭력 경험과 자아탄력성이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한(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51-94.
- 차은주(2010). **인문계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실패내성,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진영(2013).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의사소통, 중학생의 자아관이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1), 39-48.
- 최인숙(2012). 중학생의 부모, 또래 및 교사관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성차검증. **교육과학연구**, 43(3), 105-129.
- 한유선(1996). **청소년의 주변 환경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정 환경 및 학교 환경변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하나(2010).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광민(2004).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 불안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lock, J., & Kremen, A.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Dien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ner, E. & Fujita, F.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164.
- Zimmerman, B. J. (1990).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An overview Educational Psychologist*, 25(1), 3-17.
- Yoo, M., Shin, M., & Jeon, S.(2010).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nd wellbeing in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9), 131-150.
- Rojas, M. (2006). Life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in domains of life : Is it a simple relationship?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4), 467-497.
- Twenge, J. M., & Nolen-Hoeksema, S.(2002). Age, gender,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birth cohort differences on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A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1(4), 578-588.

제 7 주제

휴대폰/인터넷이용

- 1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종단적 변화의 잠재집단유형과 심리정서적 특성의 관계
- 2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변인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 3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구조관계
- 4 남자 청소년의 컴퓨터사용시간, 휴대전화의존도, 음란물 중독, 학습활동, 교우관계의 관계규명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중단적 변화의 잠재집단유형과 심리정서적 특성의 관계

하문선*,김영숙**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중단적 변화의 잠재집단유형을 파악하고 각 잠재집단과 주의집중부족,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의 심리정서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잠재집단성장모형분석(LCGA) 결과,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중단적 변화는 각각 이질적인 변화양상을 가지는 세 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치가 중간 수준이며 변화율에 있어서도 소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중간수준집단(43.4%), 초기치는 낮으나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저수준증가 집단(45.4%), 초기치는 높으나 3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고수준감소 집단(11.2%)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분류에는 심리사회적 특성 중 사회적 위축과 우울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을수록 오히려 중간수준 집단이나 저수준증가 집단보다 고수준감소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저수준증가 집단보다 중간수준집단에, 저수준집단이나 중간수준집단보다 고수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상담과 교육에 대한 연구를 풍부하게 할 것이며 상담 전략과 개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심리정서, 주의집중,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휴대전화의존

I. 서론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휴대전화중독의 심각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휴대전화는 2013년 기준 53,639,633대가 보급되어 추계인구기준 약 107%, 단순 인구 대비 1인 1대 이상 보급되어 있는 실정이다(방송통신위원회, 2013). 이중 청소년들은 10명 가운데 9명이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6학년을 전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3명 중 1명꼴로 휴대전화의존 위험군에 속하며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은 7.6%로 조사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또래와의 정서적 유대관계와 자아표현을 중요시하는

*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sunny7601@hanmail.net

**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발달 단계적 특성이 휴대전화를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원인이 되며(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휴대전화의 특징과 청소년의 발달단계적 특성이 서로 맞물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동기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하문선, 2013). 특히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청소년의 취향에 맞춰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인터페이스 특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휴대전화사용 및 이에 대한 의존은 점점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휴대전화의존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불안해지거나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심리적 의존과 초조, 불안 등의 정서적 반응 등에 의해 휴대전화사용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충동성, 공격성, 주의집중문제, 자기통제 및 조절능력, 우울, 불안 등을 제시하였다(김현숙, 2013; 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손신영, 2013; 송은주, 2006; Bianchi & Phillips, 2005; Young & Rogers, 1998). 특히 연구자들은 주의집중부족 문제가 휴대전화의존과 관련성이 높으며 가장 영향력 있는 주요 변인으로 보고하였다(김현숙, 2013; 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손신영, 2013; 박순천, 백경임, 2004, 2005; 한선희, 이승희, 2010). 주의집중부족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학업이나 학교활동에서의 소외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에 의존하게 되는데 특히 이러한 청소년에게 휴대전화는 매력적인 의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자들은 미디어 중독을 설명하는 중요한 특성으로 공격성을 제시하며(김종범, 한종철, 2001), 발달단계적으로 변화와 갈등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적 환경이 공격성을 유발하는데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따돌림, 열등의식 등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하여 휴대전화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진숙, 문현주, 황승일, 2014; 정경택, 2003; Mullins & Irvin, 2000). 실제 청소년의 공격성은 휴대전화에 영향을 미치며,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휴대전화의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손신영, 2013).

휴대전화는 청소년의 또래와의 의사소통 수단의 중요한 매체로 작용하므로 대인관계 특성과 관련성이 높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사회적 위축 등 대인관계 특성이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고 소극적이며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의존하게 되고 중독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양심영, 2002; 장문선 등, 2011; 박지영, 김귀애, 홍창희, 2012; Peter & Valkenburg, 2006; Sadava & Thompson, 1986). 반면,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관계가 좋으며 외향적인 개인이 휴대전화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휴대전화중독 수준이 높다는 상반된 결과도 보고되었다(김지혜, 2012; Bianchi & phillips, 2005; Hong, Chiu, & Huang, 2012; Wyatt & Phillips, 2005).

우울은 매체 사용 및 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Yen et al., 2009; Young & Rogers,

1998)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을 설명하는 주요 심리적 특성으로, 실제 우울한 청소년들은 휴대전화의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지영, 김귀애, 홍창희, 2012; 송은주, 2006; 양심영, 박영선, 2005; Yen et al., 2009; Ha, Chin, Park, Ryu, & Yu, 2008).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Whiteside & Lynam, 2001) 우울이 휴대전화의존을 의미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으로도 보고되었다. 한편, 일부 연구들은 오히려 휴대전화에 과잉 몰입이나 의존이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심리사회적인 문제 및 정신건강문제 파생시키며 부정행위나 일탈과 같은 문제행동을 야기시키거나 주의집중부족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상반되게 보고하였다(고충숙, 2012; Bianchi & Phillips, 2005; Kim & Lim, 201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들과 휴대전화사용과 관련된 의존적 특성들이 일부 일치하지 않거나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된 것은 주로 동일한 시기에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성들과 휴대전화사용 관련 특성들을 동시에 측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리정서적 특성들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들로 개인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보호요인이나 그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청소년의 휴대전화와 관련된 특성들은 대인간 소통을 위한 통신 기능 외에 급속하게 다기능화되어 가는 휴대전화의 발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고충숙, 2012; 이해경, 2009) 청소년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변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휴대전화의존의 중단적 변화와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또한 일부 중단연구(장상필, 김지일, 2013; 전상민, 2014; 허균, 2013)에서조차도 전체 집단 차원에서의 변화 경향성을 파악했기 때문에 휴대전화의존 변화의 전체 집단내서로 다른 변화 양상을 가진 집단의 존재 가능성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휴대전화의존 변화에 대한 전체 집단 경향성과 집단내 서로 다른 변화 양상을 가진 집단유형을 동시에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휴대전화의존의 변화양상과 집단유형을 중단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잠재집단성장모형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잠재집단성장모형분석은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하위집단유형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 집단 내에서 다양한 변화 궤적을 보여주는데 효율적이다(Nagin, 1999).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차별적인 변화과정이 존재한다고 할 때 변화에 따른 각 집단유형별 특성과 특정 휴대전화의존 집단에 영향을 주는 심리정서적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휴대전화이용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진단에 의한 차별적 개입에 대한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

Rogers(1983)는 한 사회에 새로운 미디어가 유입되었을 때 이를 채택하는 집단별 유형이 있으며 각 집단은 사회심리적인 특성이 다르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변화양상과 잠재집단유형을 파악하고 각 잠재집단의 특성이 어떠한지, 각 잠재집단에 영향을 주는 심리정서적 변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청소년들이 휴대전화에 의존하게 되는 그 심리적 기제를 체계적으로 탐색하여 문제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종단적 변화에 있어서 잠재집단은 각각 어떻게 분류되는가?

둘째,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잠재집단에 영향을 주는 심리정서적 요인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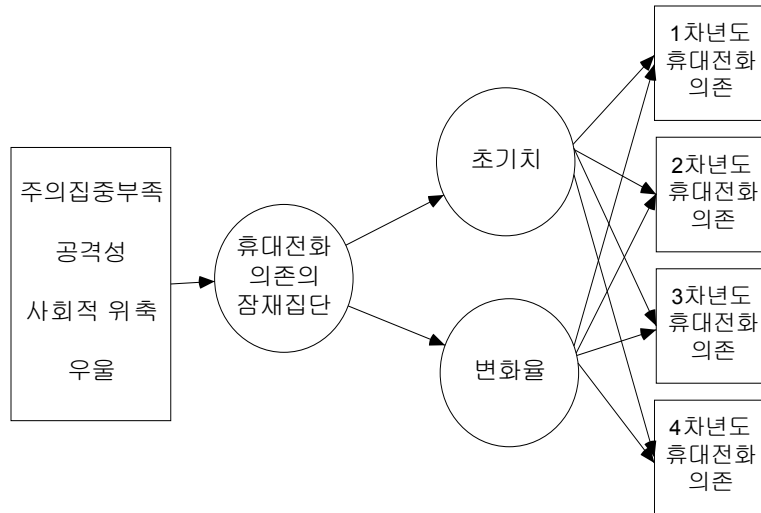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1. 휴대전화의존의 개념 및 변화

최근 휴대전화사용의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는 휴대전화 관련 다양한 학문적 연구들이 시도되어왔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휴대전화의 사용 급증 현상에 대해 휴대전화중독(양심영, 박영선, 2005), 휴대전화 과다사용(김정숙, 2003),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장혜진, 2002)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하고 있다. 연구자들마다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정의한 용어는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휴대전화에 대한 집착과 의존성향, 통제에 대한 어려움, 내성 또는 금단 현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문선, 2013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패널 데이터의 휴대전화의존에 관한 문항을 활용하였으므로 휴대전화의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를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불안해지거나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심리적 의존과 초조, 불안 등의 정서적 반응 등에 의해 휴대전화사용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휴대전화의존에 대한 체계적인 종단적 변화와 그 양상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단지 일부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

타나며(전상민, 2014), 그 중독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김병년, 2013; 장상필, 김지일, 2013; 장성화, 박영진, 2013). 특히 허균(2013)은 중학생의 휴대전화의존의 변화에 대해 학년 변화에 따라 휴대전화 의존도가 계속 증가하며, 초기치와 변화율이 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 전체 집단 내에서 어떠한 체계적인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구체적인 집단 유형에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수의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주의집중부족,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등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그들의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요인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의집중부족과 휴대전화의존

주의집중은 학습과정에서 교사의 자극과 학습내용에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정도이다. 정보처리이론에서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감각등록기로부터 들어온 정보에 대해 선택적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선택적 지각을 통해 작동기억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된다(Eggen & Kauchak, 1992). 특히 청소년 시기의 주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인 학업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주의집중은 중요한 학습전략으로 작용하며 학업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즉, 학업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산만하며 공부를 차분하게 앉아서 하기 힘든 주의집중부족 청소년들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학업활동에서 소외되게 된다. 주의집중부족 청소년들은 학업이나 학교활동에서의 소외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흥미있는 새로운 매체를 찾고 이에 의존하게 되는데 특히 이러한 청소년에게 휴대전화는 매력적인 의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은 주의집중문제가 휴대전화중독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을 유의미하게 판별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제시하였으며(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주의집중이 떨어질수록 휴대전화의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김현숙, 2013; 손신영, 2013). 또한 중학생 대상 휴대전화중독과 정서·행동문제 및 관련변인과의 관계 연구(한선희, 이승희, 2010)에서는 휴대전화 중독집단이 정상집단보다 문제행동척도 중 주의집중문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의집중력 저하와 자아정체감이 불안정한 청소년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의 문제나 스트레스를 일부 해소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박순천, 백경임, 2004, 2005). 따라서 주의집중으로 인한 휴대전화의존의 문제는 특히 학업에의 적응과 학력을 증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에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이러한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에 대한 조기 진단 및 개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공격성과 휴대전화의존

공격성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목표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Aronson, 1980; Berkowitz, 1993) 분노와 적대감의 정서적 상태도 포함되어져 있다(Buss & Perry, 1992).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행동적 기능의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는데, 이러한 변화 자체가 그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Elias, Ubriaco, Reese, Gara, Rothbaum, & Haviland, 1992; Mullins & Irvin, 2000). 특히 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은 공격적 성향이 유의하게 높으며(오경자, 이해련, 1990; 정경택, 2003), 공격성이 높을수록 주변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때문에(Cairns, Cairns, Neckerman & Gest, 1988) 소외감을 이겨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박웅기, 2003). 또한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열등의식을 갖고 고립된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더 집착하게 될 수도 있다(김진숙, 문현주, 황승일, 2014).

연구자들은 미디어 중독을 설명하는 중요한 특성으로 공격성을 제시하며(김종범, 한종철, 2001), 휴대전화의존 경향을 예측하는 변수로 공격성(강미영, 2012)을 언급하였다. 또한 휴대전화의존 청소년들은 다른 집단군에 비해 높은 공격성과 분노, 좌절감과 같은 정신건강에 취약하며(김보연, 2012; 손경문, 2013), 휴대전화중독 고위험군 청소년들은 저위험군 청소년에 비해 높은 공격성을 보이고(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휴대전화중독 수준이 높으며, 공격성이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진숙, 문현주, 황승일, 2014; 손신영, 2013).

3) 사회적 위축과 휴대전화의존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홀로 있으려 하는 모든 종류의 행동 및 태도를 의미하며, 수줍어하거나 억눌려 있는 듯하고 에너지 수준이 저하되어 있고 사회적 관계를 잘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말한다(Rubin, Burgess, Kennedy, & Stewart, 2003). 사회적 위축 등의 지나친 통제로 발생하는 내재화 문제(Mash & Barkley, 2003)는 청소년의 인지, 대인관계, 학업 등의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오경자, 하은혜, 송동호, 2004) 이에 대한 이해와 개입은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휴대전화는 청소년의 또래와의 의사소통 수단의 중요한 매체이므로 사회적 위축과 같은 대인관계 특성과 관련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다수의 연구자들은 사회적 위축 등 대인관계 특성이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였는데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보고되었다.

우선, 첫 번째 입장은 대인관계에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위축되고 소극적인 개인이 그 대안적인 수단으로 휴대전화 등의 의사소통 매체를 더 이용하게 된다는 견해이다(Peter & Valkenburg, 2006). 사회적 위축은 대인불안과 외로움으로 설명되는데(Kurdek & Krile, 1982) 특히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지지적인 사회관계가 부족하고 내향적인 경향을 갖기 때문에 중독과 관련된 문제에 취약하다(Sadava & Thompson, 1986). 연구자들은 외로움이 휴대전화중독

에 영향을 미치며(박지영, 김귀애, 홍창희, 2012), 외로움이나 스트레스의 해소 동기가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박웅기, 2003).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수줍음을 많이 타며 상대와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의존적 성격 또는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회적 관계를 피하고자하는 회피적 성격 등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성격 특성이 휴대전화중독을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양심영, 2002; 우리님, 2009; 장문선 등, 2011; 장혜진, 2002).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이 휴대전화에 의존하게 할 가능성이 높음을 함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또 다른 입장은 실제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휴대전화와 같은 매체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보는 견해로(Rettie, 2008; Rule, 2002), 연구자들은 또래애착이 높을수록(김지혜, 2012;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휴대전화의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외연구에서 Hong과 Chiu, Huang(2012)은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고 넓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과 의사소통을 잘하는 등 외향적인 사람들의 휴대전화중독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외향성이 휴대전화중독을 의미있게 예측하며 외향적인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되었다(Bianchi & phillips, 2005; Wyatt & Phillips, 2005). 휴대전화사용과 5요인 성격요인과의 관계 연구(Butt & Phillips, 2008)에서 신경증적이며, 친화적이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며, 외향적인 사람들이 문자보내기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렇게 사회적 위축 등과 같은 대인관계 특성들은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의미있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우울과 휴대전화의존

일반적으로 우울은 첫째, 지속적인 슬픈 감정과 외로움, 공허감, 흥미와 기쁨 상실 등의 정서적 증상을 동반하며 둘째, 자기비난과 자기 비하, 죄의식, 무가치감, 사고력 및 주의력 저하 등의 인지적 증상을 동반하고 셋째, 불면증과 식욕감퇴, 체중감소, 피로감 등의 생리적 증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Hamilton, 1982). 특히 청소년기는 발달적·사회환경적·심리적 특성의 변화로 인하여 우울 증상이 증가하는 시기이며(Rutter, 1986),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우울은 신체적, 사회적, 교육적 및 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Wittchen, Nelson, & Lachner, 1998) 특히 우울 증상이 다른 형태의 행동적 적응 문제로 표출될 수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하문선, 2013).

우울은 청소년의 고급정보기술 및 기기사용의 문제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며(Yen et al., 2009),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을 설명하는 주요 심리적 특성이다(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박지영, 김귀애, 홍창희, 2012; 양심영, 박영선, 2005; 이해경, 2008; Yen et al., 2009). 연구자들은 우울한 청소년들이 휴대전화중독에 취약하며(송은주, 2006), 우울이 휴대전화중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박지영, 김귀애, 홍창희, 2012; 손신영, 2013). Park 등(2012)은 청소년이 휴대전화에 중독되는 주요 이유를 또래관계와 우울로 설명하

였다. 즉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한 청소년은 휴대전화중독이 심해진다고 하였다. 실제 휴대전화 사용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는 청소년들에 비해 걱정과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종범, 한종철, 2001; Ha, Chin, Park, Ryu, & Yu, 2008).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Whiteside & Lynam, 2001) 우울이 휴대전화의존을 의미있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의집중,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과 휴대전화의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일부분 일관되지 않은 다양한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보다 개선된 연구방법을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성장모형분석(LCGA)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휴대전화의존의 변화양상 및 집단유형을 종단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3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매년 추적 조사를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에 의하여 표본으로 추출된 1, 2, 3, 4차년도 데이터($N=2351$)를 모두 이용하였으며, 이 중 4차년도에 걸쳐 휴대전화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학생 총 1781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남학생은 865명(48.6%), 여학생은 916명(51.4%)이었다.

2. 연구 도구

1) 휴대전화의존

본 연구에서는 이시형, 김학수, 나은영(2002)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한 패널조사 설문지의 7개 문항을 통하여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수준을 측정하였다. 휴대전화의존 문항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등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의존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심리정서적 변인

(1) 주의집중부족

주의집중을 측정하기 위해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검사를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된 7문항을 사용하였다. 주의집중부족 문항은 ‘문제를 풀 때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등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집중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2) 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검사를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된 6문항을 사용하였다. 공격성 문항은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등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3)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기 위해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개발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를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된 5문항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위축 문항은 ‘수줍어한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등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4)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김광일과 김재환 및 원호택(1983)의 간이정신진단검사 중 우울척도 13 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 및 보완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우울 문항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등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휴대전화의존에 대한 다양한 하위집단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Mplus 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잠재집단성장모형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 Nagin, 2005)을 실시한다. 특히 잠재집단성장모형분석에서는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준거가 사용되는데(Muthén & Muthén, 2000)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정보적합도 지수(information index)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74),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tz, 1978), SSA-BIC(Sample-sized-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Aclove, 1987)를 사용한다. 둘째, 통계적 유의도 검증을 위해서는 LMR_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잠재집단의 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적합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셋째, 각 하위집단을 분명하게 분류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Entropy 지수를 사용한다. 이 지수는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값으로, 0.0에서 1.0의 범위를 가지며 1.0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Kreuter, Yan, & Tourangeau, 2008).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시한 기준들만으로는 집단 구분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이들 기준과 함께 집단별 사례수의 비율과 해석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가장 설명력 있는 집단의 수를 최종모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McCrae, Chapman, & Christ, 2006). Jung과 Wickrama(2008)는 전체 표본수의 최소 5% 이상을 그 기준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밝혀진 휴대전화의존의 잠재집단을 구분하는 예측변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Mplus 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항로지스틱 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주의집중부족,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변수는 시간독립적 변수 즉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 정도가 낮은 시불변 변수로서 패널 자료에서 제시하는 2, 3, 4차 점수의 평균을 활용하였으며, 휴대전화의존 변수는 시간의존적 변수 즉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시변 변수로서 1차에서 4차까지 각 시점의 점수를 사용하였다.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1과 같다. 특히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을 살펴보면, 모두 자료의 분포가 정규성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개별 변수의 정상성은 왜도와 첨도를 통해 확인하는데 왜도<2, 첨도<4이면 정규분포 기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Hong, Malik, & Lee, 2003). 또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모든 변수들은 모두 유의한 상관 관계($p < .01$)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변수 기술통계 결과

	1차 휴대전화의존	2차 휴대전화의존	3차 휴대전화의존	4차 휴대전화의존	주의집 중부족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평균	14.44	16.21	16.90	16.76	16.48	12.59	11.22	19.32
표준편차	4.65	5.23	5.05	4.75	2.96	2.88	2.88	4.79
왜도	0.48	0.24	0.08	0.16	0.11	0.00	0.07	0.18
첨도	0.22	0.45	0.28	0.13	0.40	0.22	0.34	0.29

표 2 변수간 상관관계

	1차 휴대전화의존	2차 휴대전화의존	3차 휴대전화의존	4차 휴대전화의존	주의집 중부족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1	1							
2	.530**	1						
3	.466**	.549**	1					
4	.379**	.414**	.503**	1				
5	.235**	.244**	.300**	.294**	1			
6	.275**	.307**	.345**	.326**	.594**	1		
7	.085**	.073**	.120**	.131**	.292**	.313**	1	
8	.255**	.260**	.296**	.294**	.393**	.575**	.566**	1

주. ** $p < .01$, * $p < .05$, 1. 1차 휴대전화의존 2. 2차 휴대전화의존 3. 3차 휴대전화의존 4. 4차 휴대전화의존 5. 주의집중부족 6. 공격성 7. 사회적 위축 8. 우울

2. 휴대전화의존의 발달양상에 따른 잠재집단 확인

1) 휴대전화의존 잠재집단 수 결정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해 AIC, BIC, SSA_BIC, Entropy 지수, LMR_LRT의 p -value값 및 전체 사례의 5% 미만 집단수를 그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먼저, 휴대전화의존의 잠재집단 수 결정을 위한 모형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AIC, BIC, SSA_BIC 값의 변화 그래프(그림 2)를 살펴보면, AIC와 BIC는 3집단이, SSA_BIC는 5집단의 값이 가장 낮아 3집단과 5집단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Entropy 지수는 다른 집단에 비해 5집단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적 유의도 검증을 위해 LMR_LRT의 p -value값을 살펴보면 2집단과 3집단이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전체 사례의 5% 미만 집단수 역시 2집단과 3집단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IC, BIC, SSA_BIC, Entropy지수, 전체 사례의 5% 미만 집단수의 모든 기준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잠재집단은 최종 3개 집단이 적합한 것으로 최종 선택하였다.

표 3 ▶ 휴대전화의존의 잠재집단 수 결정

	2	3	4	5
AIC	40466.603	40441.295	40434.652	40425.243
BIC	40532.239	40523.340	40533.106	40540.106
SSA_BIC	40494.116	40475.686	40475.921	40473.391
Entropy	0.615	0.650	0.704	0.735
LMR_LRT	71.003	29.971	12.103	14.750
LMR_LRT <i>p</i> -value	0.000	0.002	0.484	0.145
전체사례의 5%미만 집단수	0	0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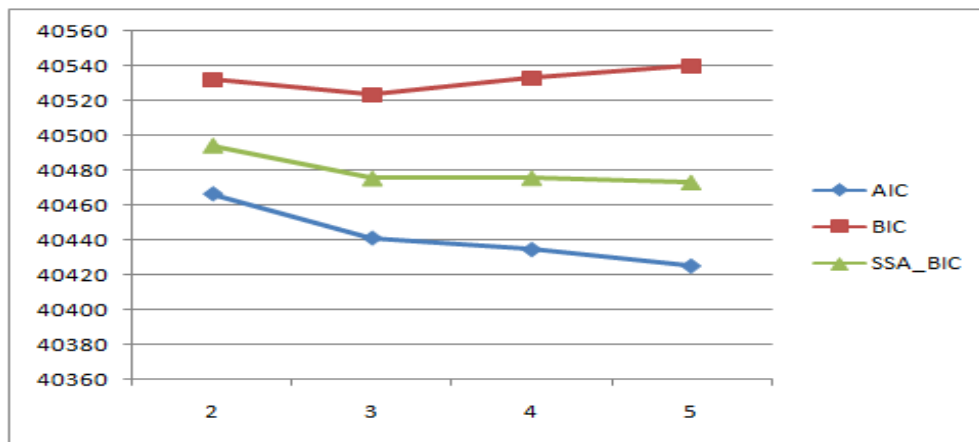


그림 2. 휴대전화의존 잠재집단 수에 따른 AIC, BIC, SSA_BIC 변화

2) 분류된 잠재집단의 집단별 특성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각 잠재집단 변화함수는 표 4와 같으며, 그 변화양상은 그림 3과 같다. 휴대전화의존의 변화양상에 따른 각 잠재집단은 초기치와 그 변화율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집단 1은 초기치가 중간 수준이며 변화율에 있어서도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중간수준 집단(43.4%)로 명명하였다. 집단 2는 초기치는 낮으나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저수준증가 집단(45.4%)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3은 초기치는 높으나 3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므로 고수준감소 집단(11.2%)으로 명명하였다. 전체집단 중에서 저수준증가 집단과 중간수준 집단은 40%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고수준감소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장 적었다.

표 4 ▶ 휴대전화의존의 잠재집단 명칭, 초기치, 변화율 및 전체집단에서의 비율

	잠재집단	초기치(s.e)	변화율(s.e)	비율(%)
집단 1	중간수준 집단	16.450(.317)***	.430(.111)***	761(43.4)
집단 2	저수준증가 집단	11.110(.256)***	1.630(.082)***	796(45.4)
집단 3	고수준감소 집단	22.853(.373)***	-1.044(.199)***	197(11.2)

주: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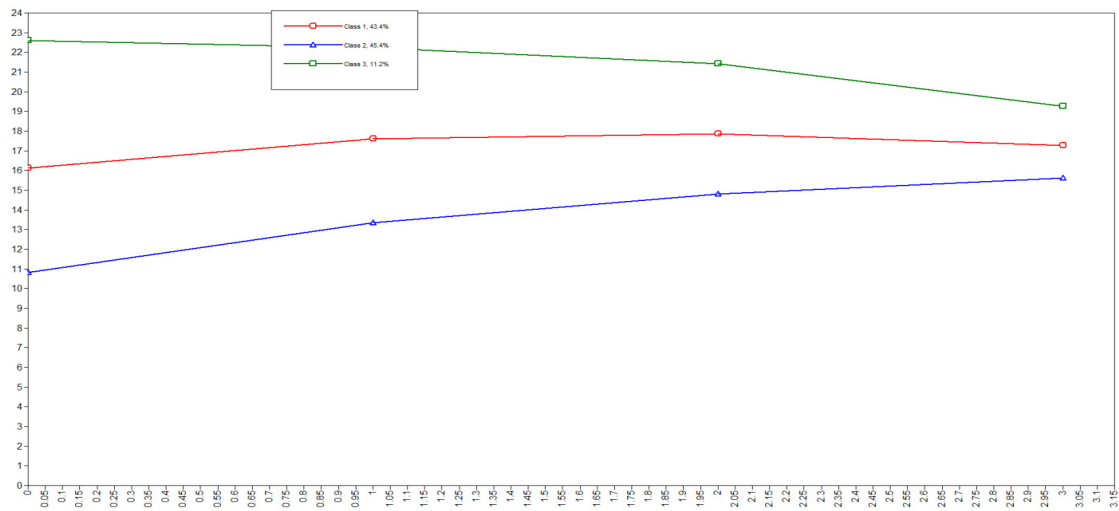


그림 3. 휴대전화의존 잠재집단별 변화양상

3. 휴대전화의존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영향 요인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에 따른 잠재집단의 분류에 있어서 주의집중부족,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의 정서적 변인이 각각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분석 결과,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분류에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만이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은 우울이 낮을수록 중간수준 집단보다 저수준증가 집단에, 고수준 감소 집단보다 중간수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을수록 즉 사회적으로 덜 위축될수록 중간수준 집단보다 고수준감소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우울이 높을수록 저수준증가 집단보다 중간수준집단이나 고수준감소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을수록 즉 사회적으로 덜 위축될수록 저수준증가 집단보다 고수준감소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종합하면,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저수준집단보다 중간수준집단에, 저수준집단이나 중간수준집단보다 고수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을수록 중간수준 집단이나 저수준증가 집단보다 오히려 고수준감소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 5 ▶ 휴대전화의존 잠재집단 영향변인

비교집단	기준집단	변인	계수	표준오차	t
저수준증가 집단	중간수준 집단	주의집중부족	-0.010	0.031	-0.313
		공격성	0.003	0.044	0.072
		사회적 위축	0.025	0.042	0.594
		우울	-0.089	0.031	-2.887**
고수준감소 집단	중간수준 집단	주의집중부족	0.041	0.057	0.728
		공격성	0.134	0.070	1.921
		사회적 위축	-0.210	0.066	-3.198***
		우울	0.093	0.036	2.618**
중간수준 집단	저수준증가 집단	주의집중부족	0.010	0.031	0.313
		공격성	-0.003	0.044	-0.072
		사회적 위축	-0.025	0.042	-0.594
		우울	0.089	0.031	2.887**
고수준감소 집단	저수준증가 집단	주의집중부족	0.051	0.062	0.822
		공격성	0.130	0.081	1.602
		사회적 위축	-0.235	0.077	-3.059**
		우울	0.182	0.042	4.357***

주: *** $p < .001$, ** $p < .01$, * $p < .05$

IV. 논 의

다수의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발달단계적 특성과 휴대전화의 이동성, 개별성, 융합성 등의 특성이 맞물려 그들의 심리적·사회적·학습적 측면에서 심각한 부적응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에 대한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와 차별적 개입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휴대전화의존의 변화양상 특히 전체 집단내의 서로 다른 변화 양상을 가진 잠재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집단성장모형분석(LCGA)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종단적 변화내 다른 변화양상을 가진 집단유형을 파악하고 각 집단유형에 영향을 주는 심리정서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휴대전화의존의 변화에 있어서 각각 단일한 변화양상을 가지는 하나의 집단이라기보다는 차별적이고 이질적인 변화양상을 가지는 세 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초기치가 중간 수준이며 변화율에 있어서도 소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중간수준 집단(43.4%), 초기치는 낮으나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저수준증가 집단(45.4%), 초기치는 높으나 3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고수준감소 집단(11.2%)으로 분류되어,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변화에 있

어서는 저수준증가 집단과 중간수준 집단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수준 감소 집단의 경우는 초기에 휴대전화의존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천장효과(ceiling effect)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휴대전화의존의 중단 변화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으나,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독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김병년, 2013; 장상필, 김지일, 2013; 장성화, 박영진, 2013; 전상민, 2014) 일부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경향이 전반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결과는 최근 휴대전화로 매개되는 청소년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단순히 통화와 문자가 목적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의 기능의 확장성과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하나의 종합적 문화 소통 수단으로 활용되어 청소년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노석준, 2013; 하문선, 2013) 청소년들이 점점 휴대전화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휴대전화의존 수준의 구분에 있어서 청소년의 어떠한 심리정서적 특성들이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아야 이에 대한 구체적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변화에 있어서 주의집중부족,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의 심리정서적 요인이 각각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집단분류에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 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을수록 오히려 중간수준 집단이나 저수준증가 집단보다 고수준감소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저수준집단보다 중간수준집단에, 저수준집단이나 중간수준집단보다 고수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정서적 변인보다 사회적 위축과 우울 수준이 휴대전화의존의 변화 양상과 집단 분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울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위축되기보다 보다 적극적인 특성을 보유한 청소년들이 오히려 휴대전화에 의존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이 명백히 휴대전화의존 수준이 높다는 대다수의 연구결과와는 일정 부분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우울이 매체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울한 청소년들은 휴대전화의존 수준이 높으며 우울이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송은주, 2006; Ha et al., 2008; Young & Rogers, 1998)와 일관된 결과이다. 그러나 위축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중독과 관련된 문제에 취약하며(Sadava & Thompson, 1986), 소극적인 개인이 휴대전화 등의 의사소통 매체를 더 이용하게 된다는 견해(Peter & Valkenburg, 2006)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 대인관계 상호작용이 활발한 사람이 대인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더 많은 상호작용을 수행하며(Rettie, 2008), 사회적 위축이 휴대전화중독에 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위축 정도가 오히려 낮을수록 휴대전화중독 수준이 더 높으며(손신영, 2013) 적극적 대인관계유형에서도 휴대전화중독이 나타난다는 보고(구현영, 박현숙, 2010)와는 일맥상통하는 결

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휴대전화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보다 또래소속감 등의 이유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정도가 더 높으며(양심영, 박영선, 2005)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또래와의 의사소통과 자아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결과(이시형, 김학수, 나은영, 2002)를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청소년의 경우 더 휴대전화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심리정서적 특성 각각에 따라 휴대전화의존 유형에 각기 다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며, 휴대전화의존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동질한 한 집단이라는 연구결과들 혹은 단순히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하며 부정적 정서를 보이는 청소년들이 휴대전화의존 등의 매체 중독에 취약할 것이라는 결과들에 대해 재고가 필요함을 함의하고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의존집단 전체를 대상으로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들은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자들은 이에 유의하고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휴대전화의존 유형에 대한 철저한 차별적 진단을 통하여 교육적 혹은 상담적인 차별적 개입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의존감소 집단의 경우, 휴대전화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자기 조절 및 통제 능력을 향상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집단의 경우 사회적 관계에서 보다 적극적이지만 우울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는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집착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어 대인관계에서 친밀도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의 청소년들에 위한 교육과 상담에서는 대인관계와 삶의 질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한 프로그램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간수준 집단의 청소년들은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울하며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등 정서적으로도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학생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등 매체를 활용한 소통보다 면대면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소통을 통하여 그들이 심리정서적으로 보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수준증가 집단은 심리정서적으로 다른 집단보다 안정적이며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성이 낮은 청소년들이 속해 있으나 점점 휴대전화의존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집단이므로 휴대전화를 보다 유용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특성이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성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특히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특성이 휴대전화의존과 강력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첫째,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변화 추이를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데 기존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둘째,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하위집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살펴봄으로써 개인에 따라 휴대전화의존의 초기 수준과 변화 정도에 다양한 편차를 가지고 있음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는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와 관련된 적응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상이한 변화 유형과 심리정서적 특성을 보이는 하위 집단별로 차별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조사에서 선정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3년간의 휴대전화의존의 변화에 대해서만 연구하였으므로 청소년 전체 집단에 적용하기에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표집 범위의 다양화 및 집단 비교 연구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주는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능력, 부모양육태도 등 다른 개인 및 사회환경적 요인 및 이들의 시간변동적(time-variant)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국내에서는 2010년도부터 스마트폰 시장이 확산되기 시작하였고(여성가족부, 2012) 스마트폰에 탑재된 다양한 기능들은 기존의 피쳐폰과는 사용영역과 목적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패널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구분이 없어 연구변인의 사용에 있어서 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매체의 활용이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청소년기의 휴대전화의존의 변화양상에 따라 다양한 잠재집단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정서적 특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청소년의 상담과 교육에 대한 연구를 풍부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적응문제에 대한 개입에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강미영 (2012). **초·중·고등학생의 인터넷중독과 휴대전화중독에 따른 공격성 차이**.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충숙 (2012).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30, 8-35.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3). 정신과외래환자의 간이정신진단검사 : SCL-90-R의 진단별 특성. **정신건강연구**, 1, 150-168.
- 김병년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4), 208-217.
- 김보연 (2012). **고등학생의 인터넷 게임 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과 수면부족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정숙 (2003). **휴대폰 과다사용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 충동성**.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범, 한종철 (2004).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특성 연구 : 자존감, 공격성, 외로움, 우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07-219.
- 김지혜 (2012). 부모요인, 친구요인, 개인요인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용도를 매개로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4(3), 97-120.
- 김진숙, 문현주, 황승일 (2014).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 공격성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27, 1-24.

- 김현숙 (2013).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이용 목적에 따른 심리적 특성. **수산해양교육연구**, 25(1), 87-101.
- 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휴대전화 중독 경향성 청소년의 심리, 사회환경적 특성: 공격성, 충동성, 우울, 부모-자녀관계, 주의집중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2), 383-393.
- 노석준 (2013). 고등학생의 환경 및 개인심리요인, 스마트폰 이용동기, 스마트폰 중독과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9(4), 659-691.
- 박순천, 백경임 (2005). 컴퓨터 중독청소년의 MMPI(다면적 인성검사)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3(7), 1-21.
- 박용기 (2003). 대학생들의 이동전화 중독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7(2), 250-281.
- 박지영, 김귀애, 홍창희 (2012).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이용 동기, 또래관계 및 정서적 요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1), 151-169.
- 방송통신위원회 (2013). **무선통신서비스현황 통계(2013년도)**.
- 손경문 (2013). **중학생의 스마트폰중독 여부에 따른 온/오프라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손신영 (2013).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이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14(1), 1-12.
- 송은주 (2006). 고등학생의 휴대폰 사용실태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5(3), 325-333.
- 양심영 (2002). **고등학교 청소년의 휴대폰중독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양심영, 박영선 (2005).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성향의 예측모형. **대한가정학회지**, 43(4), 1-16.
- 여성가족부 (2012). **2011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3). **2013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오경자, 이해련 (1990). 한국 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증후군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33-55.
- 오경자, 하은혜, 송동호 (2004). **청소년기 정서 장애 조기발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연결체 모형개발**. 건강증진기금 연구사업보고서.
- 우리님 (2009).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탐색**.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시형, 김학수, 나은영 (2002).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해경 (2009). 10대 청소년들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예측변인들: 20대, 30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1), 117-153.
- 장문선, 박기쁨, 정성훈, 이상우 (2011). 의존성, 회피성 성격특성의 심리적 특성과 중독성향 간의 관련성.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4(1), 13-31.
- 장상필, 김지일 (2013). 대학생들의 스마트 리터러시와 스마트폰 중독의 종단관계 연구. **교육종합연구**, 11(4), 67-90.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9(5), 161-187.
- 장성화, 박영진 (2013). 초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7), 463-472.
- 장혜진 (2002).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자기개념, 애착, 자기 통제력, 충동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상민 (2014). 자기회귀교차자연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 및 중독적 사용과 우울의 종단적 관계 검증: 성별 간 다집단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52(3), 301-312.

- 정경택 (2003).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2(2), 51-162.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하문선 (2013).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휴대전화 이용 유형과의 관련성. *청소년학연구*, 21(4), 155-179.
- 하문선 (2013). *자율성, 관계성 및 우울을 매개로 한 초기 청소년의 성역할갈등과 공격성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201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조사*.
- 한선희, 이승희 (2010). 중학생의 휴대폰 중독과 정서·행동문제 및 관련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2(3), 139-157.
- 허 균 (2013). 고차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휴대폰 의존도 변화와 자기조절능력 및 주의집중의 구조관계 연구. *교육미디어정보연구*, 19(4), 861-879.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 716-723.
- Aronson, R. S. (1980). Characteristics of action potentials of hypertrophied myocardium from rats with renal hypertension. *Circulation Research*, 47(3), 443-454.
-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Academic.
- Bianchi, A., & Phillips, J. G. (2005). Psychological predictors of problem mobile phone use. *CyberPsychology & Behavior*, 8(1), 39-51.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Augner, C. & Hacker, G. W. (2012). Associations between problematic mobile phone use and psychological parameters in young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57(2), 437-441.
- Butt, S., & Phillips, J. G. (2008). Personality and self reported mobile phone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4(2), 346-360.
- Cairns, R. B, Cairns, B. E, Neckermans, H. J., & Gest, S. D. 1988. "Social networks and aggressive behavior: Peer support or peer rejects?."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15-823.
- Eggen, P. D. & Kauchak, D. (1992). *Educational psychology: classroom connections*. N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Elias, M. J., Ubriaco, M., Reese, A. M., Gara, M. A., Rothbaum, P. A., & Haviland, M. (1992). A measure of adaptation to problematic academic and interpersonal tasks of middle school.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0(1), 41-57.
- Ha JH, Chin B, Park DH, Ryu SH & Yu J. (2008). Characteristics of Excessive Cellular Phone Use in Korean Adolescents, *Cyberpsychology & Behavior*, 11, 783-784.
- Hamilton, M. E. (1982). Depression and Aging. *Issues in the Study of Ageing, Dying, and Death*, 5(2), 99-152.
- Hong, F. Y., Chiu, S. I., & Huang, D. H. (2012). A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mobile phone addiction and use of mobile phones by Taiwanese university female stu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6), 2152-2159.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Kurdek, L. A., & Krile, D. (1982). A developmental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peer acceptance and both interpersonal understanding and perceived social self-competence. *Child Development*, 1485-1491.
- Mash, E. J. & Barkley, R. A. (2003). *Childhood psychopathology* (2nd ed.). New York: Guildford.
- McCrae, J. S., Champman, M. V., & Christ, S. L. (2006) Profile of children investigated for sexual abuse: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symptoms and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4), 468-481.
- Mullins, E. R., & Irvin, I. J. (2000). Transition into Middle School. What Research Says. *Middle School Journal*, 31(3), 57-60.
- Muth n, B. O. & Muth n, L. K. (2000). "Inter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 882-891.
- Nagin, D. S. (1999). Analyz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A 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4(2), 139-157.
- Nagin, D. S.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eter, J. & Valkenburg, P. M. (2006). Research Note: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internet communication.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21(2), 213-226.
- Rettie, R. (2008). *Mobile phones as network capital: facilitating connection*.
- Rogers, E. M. (1983). *Diffusion of innovations*(3rd ed.), New York: Free Press.
- Rubin, K. H., Burgess, K. B., Kennedy, A. E., & Stewart, S. L. (2003).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Child psychopathology*, 2, 372-406.
- Rule, J. B. (2002). *From mass society to perpetual contact: models of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social context*. In J. E. Katz & M. A. Aakhus (Eds.), *Perpetual contact: Mobile communication, private talk, public performance* (pp. 242-254).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tter, M. (1986).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depression: Issues and perspectives*. In M. Rutter, C. E. Izard, & P. B. Read (Eds.), *Depression in young people*. Developmental and clinical perspectives (pp. 3-32). New York: Guilford Press.
- Sadava, S. W., & Thompson, M. M. (1986). Loneliness, social drinking, and vulnerability to alcohol problem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18(2), 133.
- Schwartz, G. (1978). Estimation Dimensions of a Model. *Annals of Statistics*, 6, 461-464.
- Whiteside, S. P., & Lynam, D. R. (2001). The five factor model and impulsivity: Using a structural model of personality to understand impuls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4), 669-689.
- Wittchen, H. U., Nelson, C. B. & Lachner, G., (1998). Prevalence of mental disorders and psychosocial

- impairments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Psychological Medicine*, 28(1), 109-126.
- Wyatt, K., & Phillips, J. G. (2005). *Personality as a predictor of workplace Internet use*. Proceedings of OZCHI2005, November, Canberra. Available from <http://portal.acm.org/dl.cfm>.
- Yen, C. F., Tang, T. C., Yen, J. Y., Lin, H. C., Huang, C. F., Liu, S. C., & Ko, C. H. (2009). Symptoms of problematic cellular phone use, functional impairment and its association with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in Southern Taiwan. *Journal of Adolescence*, 32(4), 863-873.
- Young, K. S., & Rogers, R. C.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1(1), 25-28.

학교적응의 중단적 변화와 예측변인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이희정*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시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변인은 무엇이고, 이같은 학교적응의 의 변화모형은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휴대전화 의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같은 목적을 위하여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자료 2078명의 2차부터 4차까지 3번의 학교적응 변인, 예측변인으로서 성별, 2차년도 주의집중, 부모의 방임과 학대,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사용하였다. 또한 4차년도에 보고한 휴대전화 의존과 사용빈도 변인을 휴대전화 의존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학교적응은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둘째, 학교적응의 초기값을 예측하는 변인은 주의집중, 부모의 방임과 학대와 학교폭력 가해행동 변인이었고, 변화율을 예측하는 변인은 성별, 주의집중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이었다. 셋째, 학교적응의 변화 모형은 4차년도의 핸드폰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제어: 학교적응, 주의집중, 방임과 학대, 학교폭력 가해행동, 핸드폰 의존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에게 학교는 사회로 확대되는 장이며, 친구들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가는 장이다. 학교는 가정과 함께 청소년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범을 내면화하게 함으로써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므로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은 청소년기 이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순규, 2006). 그러나 과거와 달리 학교 내 부적응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부적응 문제는 학교폭력, 비행, 휴대전화 중독 등과 같은 청소년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이성식, 2011). 특히 청소년의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휴대전화 비행과 관련되며, 공식적 처벌은 휴대전화 비행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을 받는 경우 학업성적에 부정적 영향

*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lkj-222@hanmail.net

을 미치며, 방임은 교사관계와 교우관계에 모두 부적 영향을 미치고, 학대는 교우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권지은, 이은정, 노충래, 2013).

청소년기의 대인관계는 주로 가족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 가족관계에서 방임되거나 학대받은 청소년은 학교적응에 문제가 생기며,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받는 청소년들 역시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웠다(이은혜, 박화옥, 2014).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개인, 가족, 그리고 학교 요인 등의 전체 체계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며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적응을 개인과 환경 간의 균형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학교적응은 청소년이 학교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적응과 관련 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인구학적인 특성으로 청소년의 성별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교적응의 수준이 높았고(김은정, 2009),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이시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성향을 나타내어 학교적응 수준이 높지 않았다(Hirsch & Rapkin, 1987). 또한, 여학생은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욕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반면, 남학생은 학업지원의 부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Diemert, 1992). 이와 같이,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취약한 영역이 다르게 보고되는 만큼(Chung, Elias, & Schneider, 1998), 학교적응에 관해서 성별의 영향은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밖에, 청소년 개인의 내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인들 중 학교적응과 관련되는 중요한 변인으로는 주의집중능력의 문제인 ADHD를 들 수 있다(이동훈, 2009). 이희정과 황선영(2013)은 청소년의 ADHD 성향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ADHD 성향은 학교폭력 피해행동에 대한 간접효과 뿐 아니라 직접 효과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의 질은 학교적응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만일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경우 학교적응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태준, 권정혜, 2007; 조은정, 2012; 배화옥, 2010; 김혜성, 김혜련, 박수경, 2006; 권지은, 이은정, 노충래, 2013). 또한 학교폭력 가해행동은 학교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은혜, 박화옥, 2014; 이서원, 2012).

한편,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휴대전화 의존이나 중독은 밀접한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이혜순, 2013; 장성화, 조경덕, 2010). 휴대전화 의존은 외로움 극복이나 자극욕구 또는 스트레스 해소와 같은 동기로 인해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박웅기, 2003).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경향성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충동성, 우울, 공격성 수준이 높고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보이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휴대전화 의존 경향이 더 높았다(김혜수 외, 2007). 청소년의 휴대전화사용은 편리하고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도 공존하는데, 청소년들이 휴대전화 이용에 지나친 집착을 보인 나머지 휴대전화의존, 특히 문자 보내기에 의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수업 중에도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는 경우가 2명 중 1명 이상이었다고 한다(한국정보문화원, 2005). Ling(2000)에 의하면, 수업시간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게 되면

수업에 대한 집중이 깨지고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수업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전이시기 동안 학교 적응의 변화를 살펴보고, 학교적응의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첫째, 인구학적 변인인 성별, 둘째, 청소년의 개인적 변인 중 주의집중 문제, 셋째, 가족관계적인 변인 중 부모의 방임과 학대, 학교변인으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후, 이같은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모형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교 적응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교 적응의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학교 적응의 변화와 예측변인들은 휴대전화 사용에 영향을 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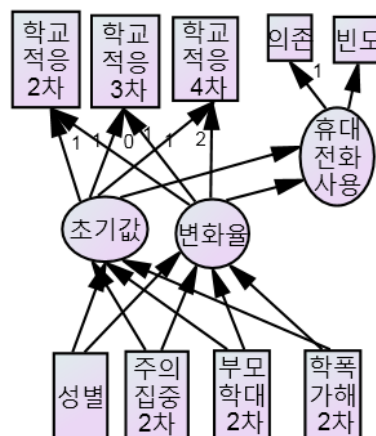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2. 이론적 배경

1)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

학교적응은 아동이 대인관계나 학교의 규범, 질서 등에 있어 적절하고 조화 있는 행동을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로 정의된다(문은식, 2002). Ladd, Kochenderfer와 Coleman(1996)은 아동이 학교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참여하고 편안해하고 성공하게 되는 정도로 학교적응을 설명하여, 학교적응에서 아동의 학교환경에 대한 지각과 감정에 보다 큰 비중을 두었다. 학교적응은 학교적응을 학교환경 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를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다(Danielsen, 2009). 또한, 학교적응은 학

습참여도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어 아동이 지적, 도덕적 성장을 위해 교육적인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김은정, 2009). 이와 같이 학교적응을 어떻게 정의하고 개념화하는가는 학자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우리사회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학업성취도를 학교적응의 중요한 지표로 여겨 왔지만(이경아·정현희, 1999), 최근 들어 학교성적 뿐 아니라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와 같은 심리사회적 변인이 학교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청소년기에 습득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제이며,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은 청소년기 이후 직업적 성취 및 성인기로의 성공적 전환을 예측하는 중요 요인이 된다(강유진, 문재우, 2005).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에 관한 연구 중 중학교 2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시기까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태균, 2008). 또한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의 종단 변화를 살펴본 연구(백혜정, 2007; 이경상, 2011; 황성혜, 2010)도 학교 부적응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일관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별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행동 차이를 분석한 문은식(2003)은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 집단에서 학교적응행동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면서 이같은 결과는 중학생은 고등학생처럼 입시위주교육, 진학관련 스트레스, 누적된 학습결손으로 인한 학습의욕 저하를 덜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같이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에 대한 종단 분석 결과는 일치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rowosafe와 Irvin(1992)은 중학교 1학년을 마치는 학생들에게 스트레스 요인, 학교 안전문제, 학교에 대한 생각, 사람들이 중학교 생활에 대해 무엇이라 말했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친구나 다른 사람들로 부터 얻은 정보가 중학교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Akos(2002)에 의하면, 전이기에 임박한 학생들은 중학교의 규칙과 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컸으며,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학업, 친구, 상급생과 학교폭력에 대한 염려가 높았다.

2)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변인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적 특성(성, 연령, 학업성적, 자아개념 등)과 가족관계적 특성(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 양육태도, 보호자로부터의 학대경험 등)이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이지민, 2009; Allen, Hauser, Bell & O'Connor, 1994; Gottfried & Gottfried, 2006).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으로서는 성별, ADHD 등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행해져왔다. 학교생활의 하위 영역에 따라 성차가 보고되었는데(Danielsen, 2009), 학교생활 일반, 학교수업, 교사에 대한 태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의 물리적 환경, 특별활동에서는 남학생의 적응이 높았다. 학업수행능력 저하나 심리적 문제 등이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학생은 진학 후 학업성취가 떨어졌고, 여학생은 심리

적인 고민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ung, et. al., 1998). 또한 여학생에게 또래관계는 전이기간 동안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에게 또래관계, 권위와의 갈등 및 학업문제는 동일한 비중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Elias, Ubrico, Reese, Gara, Rothbaum, & Haviland, 1992). 개인의 내적특성 중 ADHD로 진단받은 청소년은 학교 부적응이 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동훈, 2009).

학교적응과 관련된 가족관계적 변인 중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이 부모자녀관계의 질적인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정환경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부모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경우에 자녀의 학교적응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성운, 2006). 또한 Bronstein, Duncan, D'Ari, Pieniadz, Fitzgerald, Abrams, Frankowski, Franco, Hunt와 Cha(1996)에 의하면, 부모의 지지적이고 지각 있는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긍정적인 학업수행, 사회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었다. 부모자녀관계로 부터의 긍정적인 영향은 중학교 초기시기에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scoe, Davies, Sturge-Apple, & Cummins, 2009).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역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지민(2009)과 정윤미와 장영애(2009)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할 경우에 자녀의 학교적응이 높다고 하였다. 아버지의 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은 중학생의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수업참여와 교칙 준수와 관련되며, 어머니의 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은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수업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성운, 2006). 이와 같이, 부모와의 관계의 질은 학교적응에 보호적인 역할을 하면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고려되어지고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대경험이 있을 때 학교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태준, 권정혜, 2007).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방임 및 학대는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방임은 교사관계와 교우관계에 모두 부적인 영향을 미치나, 학대는 교우관계에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지은, 이지은, 노충래, 2013). 학대와 학교적응에 관한 김미정과 영동문(2012)의 메타연구와 아동학대와 학교적응의 보호요인을 살펴본 연구(김혜성, 김혜련, 박수경, 2006; 배화옥, 2010; 조은정, 2012) 역시 아동학대와 학교적응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학교관련 변인으로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행동도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야기시키는데, 이은혜와 박화옥(2014)은 학교사회복지 서비스 만족도 자료 중 1162명의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가해와 피해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25%는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중복경험자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를 중복경험한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더욱 낮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피해 모든 선행연구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들도 존재한다. 예컨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험을 하였어도 학교생활 적응에 큰 변화가 없는 청소년도 있다고 한다(성지희, 정문자, 2007).

3) 학교적응 변화와 예측변인이 핸드폰 사용에 미치는 영향

휴대전화는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순기능과 더불어 특히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문제점도 발생시키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학교와 가정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 대인관계보다는 의존적인 대인관계 성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수업시간에 수백 건씩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심각한 수준의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최병목 외, 2005).

장혜진과 채규만(2002)은 휴대전화 중독을 Goldberg(1996)의 인터넷 중독의 진단에 지초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의존’이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울하거나 초조함, 답답한 기분을 느끼며, 습관적으로 이동전화를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심리적 의존상태가 발생됨을 의미한다. 둘째, ‘내성’이다.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서 더 많은 사용을 해야 만족을 느끼게 되는 증상을 의미한다. 셋째, ‘초조 불안’이다.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거나 줄이면 정신적으로 초조, 불안이 야기된다. 넷째, ‘금단’으로 휴대전화에 대한 강박적 사용이나 환상을 갖게 되며,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을 때 어떤 중요한 전화들이 와 있을지를 몹시 궁금해하고 초조해하는 증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휴대전화의 지속적 사용으로 사용자가 통제력을 상실하여 사용자의 일상생활 또는 기능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학교생활적응력이 낮은 경우 휴대전화에 중독되며(황광민, 2005), 학교생활이 산만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교생활 부적응자들이 휴대전화에 중독되고(장성화, 오은정, 2009), 휴대폰 과다사용이 수업시간에 방해를 준다고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연구 중 중학교 1학년 패널 2, 3, 4 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과 컴퓨터 사용여부 및 빈도

변인	항목	빈도(%)
성별 (N=2280)	남학생	1152(50.5)
	여학생	1128(49.5)
남녀공학 여부 (N=2280)	남학교	238(10.4)
	여학교	283(12.4)
	남녀공학	1754(77.0)
	가정형 wee센터	1(0.0)
	학교안다님	3(0.1)
휴대전화 보유여부 (N=2108)	사용한다	2027(86.2)
	사용하지 않는다	81(3.4)

변인	항목	빈도(%)
휴대전화 이용빈도-가족과의 통화 (N=2027)	자주 사용한다	946(46.7)
	가끔 사용한다	924(45.6)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37(6.8)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20(1.0)
휴대전화 이용빈도-가족과의 문자메시지 (N=2027)	자주 사용한다	731(36.1)
	가끔 사용한다	999(49.3)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45(12.1)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52(2.6)
휴대전화 이용빈도-친구와의 통화 (N=2027)	자주 사용한다	1128(55.6)
	가끔 사용한다	736(36.3)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40(6.9)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23(1.1)
휴대전화 이용빈도-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N=2027)	자주 사용한다	1407(69.4)
	가끔 사용한다	533(26.3)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73(3.6)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4(0.7)
휴대전화 이용빈도-게임 및 오락 (N=2027)	자주 사용한다	711(35.1)
	가끔 사용한다	613(30.2)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363(17.9)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340(16.8)
휴대전화 이용빈도-사진촬영 (N=2027)	자주 사용한다	780(38.5)
	가끔 사용한다	755(37.2)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363(17.9)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29(6.4)
휴대전화 이용빈도-동영상 감상 (N=2027)	자주 사용한다	671(33.1)
	가끔 사용한다	784(38.7)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394(19.4)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78(8.8)
휴대전화 이용빈도-음악듣기 (N=2027)	자주 사용한다	1414(69.8)
	가끔 사용한다	454(22.4)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77(3.8)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82(4.0)
휴대전화 이용빈도-시간보기 (N=2027)	자주 사용한다	1457(71.9)
	가끔 사용한다	464(22.9)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76(3.7)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30(1.5)

조사대상자들은 2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본 연구의 대상 학년은 중학교 2학년이고, 남학생은 1152명(50.5%)이고, 여학생은 1128명(49.5%)이었다. 남녀공학을 다니는 학생은 1754명(76.9%)이고, 남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238명(10.4%)이고 여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283명(12.4%)였다. 그 외에 가정형 Wee센터에 다니는 학생이 1명이었고, 기타 4명이었다. 컴퓨터 사용 여부에 대하여 본 연구대상자들 중 2212명(97.0%)은 사용하며, 68명(3.0%)만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컴퓨터 이용빈도에 있어서는 공부 및 학습관련 정보 검색과 사이트 이용은 가끔 사용하는 학생들이 1011명(45.7%)이었고, 학습이외의 정보검색 및 자료이용에 있어서도 996명(45.0.5)의 학생들이 가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과 오락은 자주 하는 학생들이 1028명(46.5%)로 많았고, 채팅이나 메시지의 이용도 769명(34.8%)이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에

전자우편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815명(36.8%)로 가장 많았다.

2. 변인 측정

1) 학교적응 변인

학교 적응 변인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에 관한 2차년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즉,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물어본다’,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한다(역코딩 제외)’,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우리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역코딩 제외)’,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준다’,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항을 역코딩한 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평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을 사용한 후 모형에 투입하였다. 20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지수는 .87, .86, .854로 높게 나타났다.

2) 성별 변인

여성을 0으로 코딩한 후 사용하였다.

3) 주의집중 변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차년도 정서문제 중 주의집중 변인을 사용하였다. 즉 ‘칭찬을 받거나 별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진다’,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연필이나 지우개 등, 학용품을 잘 잃어버린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문항이며, 각각의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평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을 사용한 후 모형에 투입하였다. 7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지수는 .79로 나타났다.

4) 부모와 방임과 학대 변인 2차년도

부모와 방임과 학대 변인 2차년도 변인은 양육방식 II 문항인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쓰신다’,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예: 멍청이, 개만도 못한 것, 나가 죽어라,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8문항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평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을 사용한 후 모형에 투입하였다. 8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지수는 .74로 나타났다.

5) 학교폭력 가해행동 변인

학교폭력 가해 행동 변인은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다른 사람 협박하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뺏뜯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의 유무에 대하여 무는 0으로 처리한 후, 7문항에 대한 유 문항을 합산처리하였다. 모형에 투입할 때에는 로그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6) 휴대전화 의존 변인

휴대전화 의존 변인은 휴대전화 사용 빈도 변인과 휴대전화 의존변인 2가지로 측정변인을 구분하였으며, 2가지 변인을 휴대전화 의존 변인이라는 잠재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이같이 설정한 근거는 이정기와 황상재(2009)의 연구에서 휴대폰 이용 기간이 긴 이용자일수록 휴대폰 중독 정도가 높았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휴대전화 사용 빈도 변인은 ‘가족과의 통화’,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친구와의 통화’,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게임 및 오락’, ‘사진 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 듣기’와 ‘시간보기’ 문항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에 대한 응답이 사용되었다. ‘자주 사용한다’ 1점, ‘가끔 사용한다’, 2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4점으로 채점되었고, 모형에는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9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지수는 .71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의존 변인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한다’, ‘휴대전화로 한참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문항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에 대한 응답이 사용되었다. ‘자주 사용한다’ 1점, ‘가끔 사용한다’, 2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4점으로 채점되었고, 모형에는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7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지수는 .88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의 변화를 추정하고 그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s)을 적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1수준에서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2수준에서는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한다. 분석과정은 독립변수를 추정하지 않은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을 통해 종속변수의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변화의 개인차가 나타날 경우,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가 투입된 조건 모형(conditional model)으로 검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학교적응의 변화율을 살펴보기 위해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으로 학교적응에 대한 개인의 변화와 개인차에 대한 함수를 추정하였다. 둘째, 학교적응의 개별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예측변인들을 조건모형을 통해 탐색해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는 SPSS 20.0과 AMOS 18.0과 M plus 7.11이 사용되었다.

III.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관계

주요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주요변인들 중 학교폭력 가해행동은 로그값으로 변환한 수치를 사용하였고, 각 변인들이 왜도와 첨도에서 적절한 값을 나타내어 정규성가정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학교적응은 2차년도에서 4차년도로 진행함에 따라 평균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 2 주요 변인의 특성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학교적응 2차년도($n=2279$)	26	80	56.74	8.21	-.01	.50
학교적응 3차년도($n=2250$)	26	80	57.81	7.85	0.06	0.66
학교적응 4차년도($n=2080$)	27	80	58.54	7.34	0.21	0.66
성별($n=2280$)	0	1	0.51	0.5	-.02	-2.01
주의집중 2차년도($n=2279$)	7	28	18.29	3.71	0.00	.66
부모방임과 학대2차년도($n=2278$)	8	31	14.85	3.88	0.34	-.24
학교폭력 가해행동 2차년도($n=2351$)	0	7	0.16	0.57	5.22	36.49
휴대전화 사용빈도 4차년도($n=2027$)	11	36	29.78	3.89	-.74	1.09
휴대전화 의존 4차년도($n=2027$)	7	28	16.63	4.74	0.17	-.11

표 3 측정변인의 상관

	학교적응 2차	학교적응 3차	학교적응 4차	성별	주의집중 2차	방임과학 대2차	학교폭력 가해행동 2차	휴대전화 빈도4차
학교적응3차	.55***							
학교적응4차	.41***	.49***						
성별	-.05*	-.08***	-.05					
주의집중2차	.31***	.30***	.23***	-.04				
방임과학대2차	-.25***	-.22***	-.18***	.17***	-.22***			
학교폭력가해행동2차	-.10***	-.15***	-.06**	.12***	-.10***	.05*		
휴대전화빈도4차	.03	-.01	.04	-.13***	-.05*	-.05*	.02	
휴대전화의존4차	-.13***	-.20***	-.24***	-.15***	-.20***	.09***	.09***	.33***

*** $p < .00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01부터 .78까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사이버비행을 빈번하게 할수록 학교폭력 피해를 더 많이 당하고, 더 우울해짐을 알 수 있었다.

2. 학교적응 모형 분석

1) 무조건 모형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 참여한 2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학교적응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비교하였다. 무변화 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모형이고, 선형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선형적인 변화를 가정한 모형이다. 선형모형에서는 동일한 간격의 시점 사이에서의 변화가 일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 참여한 2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학교적응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무변화 모형, 선형변화 모형을 비교하였다. 무변화 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모형이고, 선형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0,1,2으로 코딩하여 선형적인 변화를 가정한 모형이다.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4 양육 스트레스의 무변화모형과 선형 변화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163.6	4	.835	.890	.130
선형변화모형	2.2	1	.995	.999	.023

무변화 모형은 선형변화 모형들과 비교할 때 χ^2 값이 매우 크고 적합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변화모형은 무변화 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좋아지고 χ^2 값도 줄어들었다. TLI가 .16, CFI는 0.109 RMSEA 역시 .107만큼 나빠졌기 때문에, 최종모형은 선형변화모형으로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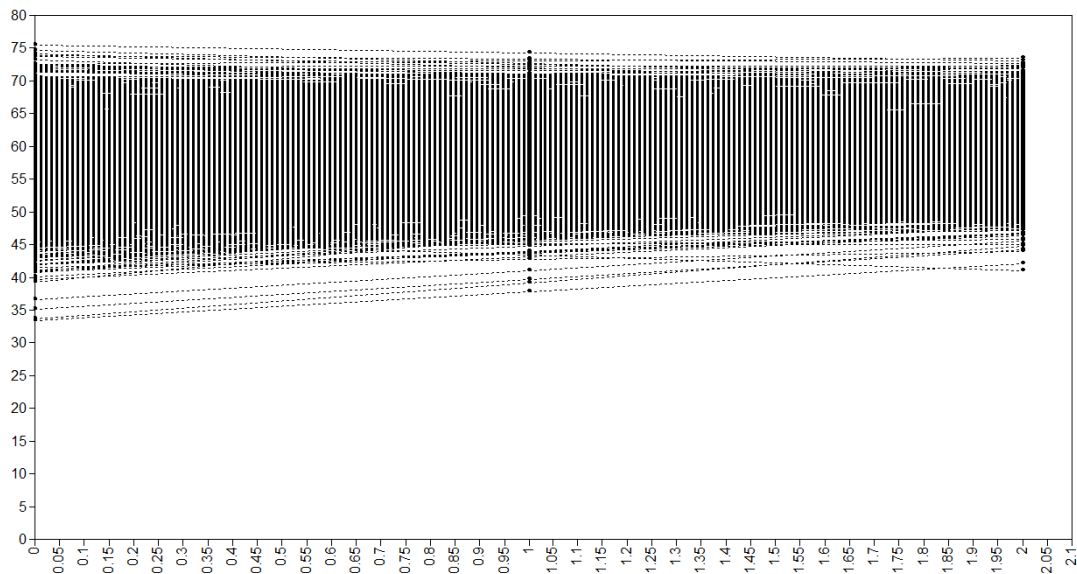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선형변화 모형에 기초하여 학교적응의 초기값 및 변화율을 제시하면 표 <표 4>와 같다. 양육 스트레스는 초기치의 평균과 변량이 모두 유의하였고, 양육 스트레스의 초기값이 개인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변화율의 평균과 변량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2차년도부터 4차년도의 시기동안에 학교적응은 유의하게 증가하며, 변화율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즉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학교적응은 평균 56.79점씩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학교적응의 초기치 변량을 64.4% 변화율의 변량을 20.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의 초기치와 변화율 사이의 공변량이 $-10.16(p<.001)$ 로 나타나 학교적응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시간에 따른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차년도에 학교적응이 높았던 청소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교적응의 증가속도가 더디게 진행된 반면, 2차년도에 학교적응의 수준이 낮았던 청소년들은 학교적응의 증가속도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2차년도에 측정한 값이 높을수록 해마다 증가하는 폭이 더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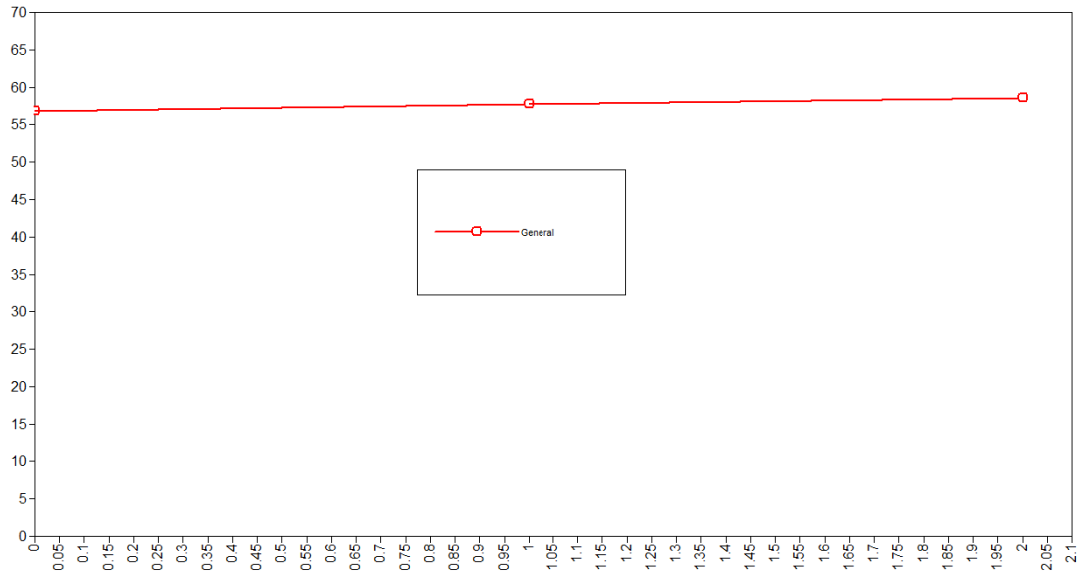
표 5 학교적응의 선형 변화 모형에 대한 결과

변인	평균		변량		공변량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학교적응	56.79***	0.91***	45.85***	6.55***	-10.16***

*** $p < .001$



<그림2> 학교적응 변화의 개인별 변화 추이



<그림3> 학교적응 변화의 평균 변화 추이

2) 학교적응 변화의 예측변인과 핸드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조건모형

학교적응의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관련 변인들, 학교적응과 예측변인이 핸드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6>에서와 같이 학교적응의 초기치에는 청소년의 주의집중, 부모방임과 학대, 학교폭력 가해행동 2차변인이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의 변화율에서는 성별과 청소년의 주의집중, 학교폭력 가해행동 2차변인이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성별과 청소년의 주의집중은 학교적응의 변화율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므로, 중학교 2학년 시기에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은 고등학교 1학년 시기가 되어감에 따라 학교적응의 증가가 빨랐으며, 남자 청소년은 학교적응의 증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향이 나타났다. 주의집중이 높은 집단은 점차 고등학교 1학년 시기가 되어감에 따라 학교적응의 증가가 느리게 진행되며,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주의집중이 낮은 집단은 학교적응의 증가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나타낸다. 반면, 학교폭력 가해행동은 학교적응의 변화율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므로, 중학교 2학년 시기에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많이 했던 집단은 고등학교 1학년 시기가 되면서 학교적응의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며, 중학교 2학년 시기에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적게 했던 집단은 고등학교 1학년 시기가 되어 가면서 학교적응의 증가가 느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표 6 조건모형의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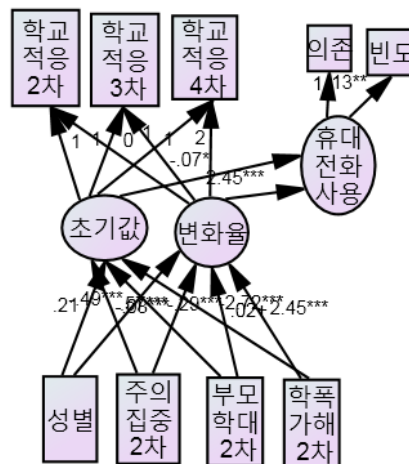
	χ^2	df	TLI	CFI	RMSEA
모형	111.8	17	.901	.963	.049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학교적응의 변화는 4차년도의 핸드폰 의존의 초기값에 부적 효과를 나타냈다. 즉 학교적응의 초기값은 핸드폰 사용에 부적 영향을 미치므로, 중학교 2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이 초기에 낮을수록 4차년도 즉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휴대전화 사용과 의존은 더 많았다. 또한 학교적응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시기까지 더 빠르게 높아질수록, 즉 공변량은 음의 값을 나타내므로, 학교적응이 더 빠르게 높아지는 집단은 초기에 학교적응이 낮은 집단이며, 이같은 집단일수록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휴대전화 의존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연구모형 분석결과

초기값을 예측하는 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변화율을 예측하는 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성별	.213(.312)	성별	-.493(.115)***
주의집중 2차	.567(.044)***	주의집중 2차	-.077(.017)***
부모 방임과 학대 2차	-.291(.044)***	부모방임과 학대 2차	.022(.012)
학교폭력 가해행동 2차	-2.718(.815)***	학교폭력 가해행동 2차	.719(.230)**
휴대전화 의존	-.069(.034)*	휴대전화 의존	2.454(.553)***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		표준화계수	
휴대전화 사용 → 휴대전화 의존 4차	1.000		1.416
휴대전화 사용 → 휴대전화 사용 빈도 4차	.133(.051)**		.23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4> 학교적응 변화모형과 휴대전화 의존에 관한 경로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변인이 휴대전화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학교적응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시기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의 학교적응은 더 나아진다는 선행연구(김태균, 2008; 좌현숙, 2012)와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급별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문은식(2003)은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 집단에서 학교적응이 높다고 하면서, 이는 중학생은 고등학생처럼 입시위주교육, 진학관련 스트레스, 누적된 학습결손으로 인한 학습의욕 저하를 덜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 변인은 학습활동과 학교규칙 뿐 아니라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계적 측면에서의 성숙 요인이 고등학생 시기로 갈수록 학교적응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아닐까 추론하나, 아직 학교적응에 대한 종단적 분석은 충분한 결과가 누적된 것이 아니므로, 대상과 시기 등을 다양화한 후속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으로서는 우선 초기값에 주의집중, 부모 방임과 학대,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그리고 변화율에는 성별, 주의집중,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학교적응 수준의 증가가 완만한 경향은 좌현숙(2012)의 결과와 일치하며, 이동훈(2009)은 ADHD 집단에 대하여 교사들은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으며, 학교폭력 가해행동 역시 학교적응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예측하였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의 주의집중 뿐 아니라 가족관계 측면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보다 집중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행동은 학교적응에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정익중(2014)의 학교적응의 예측변인에 대한 메타분석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점과, 학교폭력 피해행동과 피해경험은 시기를 따라서, 또는 동시에 반복될 수 있으므로, 추후 학교폭력 피해행동과 학교적응에 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김봉섭, 박종선, 감동은과 진상기(2013)에 의하면, 초등학생 시기부터 고등학생 시기까지 인터넷 폭력 행위와 휴대전화 폭력 행위의 관련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학교폭력 안에 이같은 전자매체를 활용한 폭력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셋째,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모형은 휴대전화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적응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경향은 더 낮았으며, 변화율은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학교적응이 좋을수록 휴대전화 사용에 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생활적응과 휴대전화 의존에 관한 선행연구(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모형의 전반적 추세를 살펴본 것이며, 하문선(2014)에 의하면, 가족과 통화나 문자를 많이 하지 않을수록 학교 부적응이 심한 하위 집단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휴대전화 사용 빈도와 의존도를 전체적으로 휴대전화 의존으로 정의한 경우, 해석에 있어서 보다 신중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시기까지의 학교적응의 중단적 변화와 이를 예측하는 변인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것이다. 그런데, 하문선(2014)은 학교생활적응의 휴대전화 이용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게임과 오락을 많이 할수록 부적응 심각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가족과 통화나 문자를 많이 하지 않을수록 부적응 심각집단에, 가족과 통화나 문자를 많이 할수록 적응 우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또한 친구와 통화나 문자를 많이 할수록 다른 세 집단에 속하기 보다 부적응 심각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휴대전화 사용의 빈도가 많다고 하여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휴대전화 사용 집단의 성격을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정기와 황상재(2009)가 서울과 경기지역, 초,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10대의 휴대폰 이용 동기와 중독에 관해서 연구한 결과, 여성이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과시 및 체면동기, 시간보내기와 재미 동기가 높을수록 휴대폰 중독에 기여정도가 높았다고 하였으므로, 사용동기와 휴대폰 이용에 관한 추후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강유진, 문재우(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청소년연구**, 16(1), 283-316.
- 권지은, 이은정, 노충래(2013). 청소년이 지각한 방임과 학대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2, 29-54.
- 김봉섭, 박종선, 감동은, 진상기(2013). 사이버불링 발생과 정보매체 활용 간의 상관분석-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6(5), 17-29.
- 김순규(2006). **빈곤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발달모형: 보호요인의 부가, 매개, 조절효과 모형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영민, 임영식(2012). 민주적 양육방식, 자아탄력성 및 휴대전화의존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2), 273-299.
- 김은정(2009). 초등학생 학습양식 및 성별에 따라 교사가 지각한 학교 적응력 분석. **공주교대논집**, 46(1), 37-52.
- 김태균(2008). 학교적응 변화에 관한 중단연구: 자아통제 및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5(2), 169-188.
- 김혜성, 김혜련, 박수경(2006).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 집단비교를 통하여. **한국아동복지학**, 21, 207-232.
- 김혜수, 배성만, 현명호(2007). 휴대전화 중독 경향성 청소년의 심리, 사회환경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12(2), 389-391.
- 박영준, 성효정(2014). 보호자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

- 지학, 46, 85-114.
- 박용기(2003). 대학생들의 이동전화 중독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2), 250-281.
- 배화옥(2010). 아동의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의 매개. **아동과 권리**, 14(2), 193-217.
- 백혜정(2007). 자아통제, 자기신뢰 및 교사애착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57-373.
- 성지희, 정문자(2007).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학교적응과 보호요인. **아동학회지**, 28(5), 1-18.
- 이경상(2011). 청소년 학교부적응의 종단적 변화의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18(2), 131-155.
- 이동훈(2009). 초등학교의 ADHD 증상 유형을 및 우울, 불안, 스트레스, 학교부적응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10(4), 2397-2419.
- 이성식(2011). 청소년 매체이용상 비행에서의 원인요소와 통제요소의 통합적 검증: 현실, 인터넷, 휴대전화 비행의 비교. **형사정책연구**, 22(1), 111-135.
- 이은혜, 박화옥(2014).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유형이 학교생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2), 399-426.
- 이정기, 황상재(2009). 10대의 휴대폰 이용 동기와 중독에 관한 연구-서울, 경기지역 초,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3(5), 296-338.
- 이태준, 권정혜(2007). 피학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377-389.
- 이혜순(2013).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과 충동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연구**, 21(3), 203-212.
- 이희정, 황선영(2013). 청소년의 ADHD성향이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42, 83-108.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2011).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431-451.
- 장성화(2011). 개인, 가족, 학교변인이 초등학교의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설명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1), 291-310.
- 장성화, 오은정(2009). 학생들의 휴대폰 중독과 우울, 불안, 학교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수산해양교육학회**, 21(2), 259-268.
- 장성화, 조정덕(2010). 청소년의 우울, 대인불안, 학교적응이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11), 285-293.
- 장혜진, 채규만(2006). 기술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휴대폰 사용 중독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1(4), 839-852.
- 정익중(2014). 학교적응의 예측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학회지**, 35(2), 1-23.
- 조은정(2012).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학대경험 아동집단과 비경험 아동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9, 138-164.
- 좌현숙(2012). 청소년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9(6), 1-28.
- 최병목, 조규영, 연화준, 정무환 (2005).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실태 조사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하문선(2014).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휴대전화 이용 유형과의 관련성. **청소년학연구**, 21(4), 155-179.
- 한국정보문화원(2005). **청소년의 휴대전화사용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황용석, 박남수(2011). 청소년 휴대전화 중독요인과 중독 예방에 이어 부모·교사의 역할 연구. **한국방송학보**,

- 25(5), 309-348.
- Akos, P. (2002). Student perceptions of the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5*, 339-345.
- Allen, J. P., Hauser, S. T., Bell, K. L., & O'Connoer, T. G. (1994). Longitudinal assessment of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family interaction as predictors of adolescent ego development and self-esteem. *Child Development, 65*(1), 179-194.
- Arowosafe, D., & Irvin, J. (1992). Transition to a middle level school: What kids say. *Middle School Journal, 24*(2), 15-19.
- Bascoe, S. M., Davies, P. T., Sturge-Apple, M. L., & Cummings, E. M. (2009). Children's representations of family relationships, peer information processing, and schoo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5*(6), 1740-1751.
- Bronstein, P., Duncan, P., D'Ari, A., Pieniadz, J., Fitzgerald, A., Abrams, C. L., Frankowski, B., Franco, O., Hunt, C., & Cha, Y. O. (1996). Family and parenting behaviors predictions middle school adjustment. *Family Relations, 45*(4), 415-426.
- Chung, H., Elias, M., & Schneider, K. (1998). Patterns of individual adjustment changes during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6*, 83-101.
- Danielsen, A. G. (2009). School-related social support and students' perceive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2*(4), 303-318.
- Diemert, A. (1992). *A needs assessment of fifth grade students in a middle school*. Acton, AM: Author. ED 362 332.
- Elias, M., Ubriaco, M., Reese, A., Gara, M., Rothbaum, P., & Haviland, M. (1992). A measure of adaptation to problematic academic and interpersonal tasks of middle school.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0*, 41-57.
- Hirsch, B., & Rapkin, B. (1987).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A longitudinal study of self-esteem, psychological symptomatology, school life, and social support. *Child Development, 58*, 1235-1243.
- Kerr, M., & Stattin, H. (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36*, 366-380.
- Kingery, J. N., & Erdley, C. A. (2007). Peer experiences as predictors of adjustment across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Education and Treatment of Children, 30*(2), 73-88.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eibowitz, A. (1974). Home investments on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111-131.
- Ling, R. (2000). *We will be reached: The use of mobile telephony among Norwegian youth*. Telenor T & D Report.
- Lopoo, L. M. (2004). The effect of maternal employment on teenage childbearing.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7*, 681-702.
- McDougall, P., & Hymel, S. (1998). Moving into middle school: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transition experience.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0*, 108-120.

- Moore, T. W. (1964). Children of full-time and part time mot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2, 1-10.
- Muller, C. (1995). Maternal employment, parent involvement, and mathematics achievement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1), 85-100.
- Mullins, E. R., & Irvin, J. L. (2000). Transition into middle school: What research says. *Middle School Journal*, 31(3), 57-60.
- Murnane R. J., Maynard, R. A., & Ohls, J. (1981). Home resources and children's achievement.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3, 369-377.
- Roeser, R. W., & Eccles, J. S., & Sameroff, A. J. (2000). School as a context of early adolescents' academic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 summary of research findings. *Elementary School Journal*, 100(5), 443-471.
- Sampson & Laub, J. H. (1994). Urban poverty and the family context of delinquency: A new look at structure and process in a classic study. *Child Development*, 65, 523-540.
- Schumacher, D. (1998).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Report No. EDO-PS-98-6). Washington, DC: Clearinghouse on Elementar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22119).
- Simmons, R., & Blyth, D. (1987). *Moving into adolescence: The impact of pubertal change and school context*. Hawthorne, NY: Aldine de Gruyter.
- Spencer, M. B. (1999).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The application of an identity-focused cultural ecological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34, 43-57.
- Woolley, M. E., & Grogan-Kaylor, A. (2006). Perspective family factors in the context of neighborhood: Promoting positive school outcomes. *Family Relations*, 55, 94-104.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의 중단적 구조관계

박은혁*, 이윽택**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단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1학년 때의 휴대전화의존이 중 2의 정신건강(주의집중, 신체화, 우울)과 중 3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휴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이 매개효과를 지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중1 패널 1~3차 자료를 활용하였고 1~3차년도 모두 휴대전화를 지니고 있는 남학생 1,146명(49.7%)과 여학생 1,161명(50.3%)으로 총 2,307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8.0과 amos 18.0을 활용하였으며 인구학적 특성과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각 변인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은 2차년도 정신건강(주의집중, 신체화, 우울)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은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과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2차년도 정신건강 중 주의집중만이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휴대전화의존,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 중단적 구조관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의 기능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넘어 현대사회의 필수품이 되었다(구현영, 2010; 김현주, 황은숙, 2012; 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이해경, 2008; 장성화, 2011; 한희진, 윤미선, 2009; Walsh, White & Young, 2008). 이에 따른 휴대전화 보유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 7월 현재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5,600만 명이며(<http://www.itstat.go.kr/home.it>), 2013년 청소년 초·중·고등학생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시간강사 supplier1101@hanmail.net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박사과정수료

9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생(85.8%), 중학생(93.2%), 고등학생(94.8%)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휴대전화 보유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14). 이처럼 청소년기 휴대전화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도 증가하는 추세이며(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 자기표현의 욕구가 강한 반면 욕구를 자제하거나 자기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의존하게 되면서 더 큰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장은경, 최연실, 2010).

성윤숙(2006)은 청소년기 휴대전화 의존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주의가 산만하거나 부모와의 단절을 낳기도 하고 휴대전화를 통한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을 낳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정화(2010)는 초등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정도와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지나친 휴대전화 사용은 교사관계, 학습, 규칙, 행사 등의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였다. 고충숙(2012)은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은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울/불안, 신체증상, 강박증, 정신증 등에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휴대전화의존은 청소년기 다양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데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휴대전화의존에 관한 연구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급증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집중되어 있고 휴대전화의존과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김지혜, 2012; 송미령, 김성영, 2012; 장석진 외, 2012; 장은경, 최연실, 2010), 휴대전화의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성윤숙, 2006; 이은정, 이정애, 이화조, 정익중, 2012; 장석진 외, 2011). 휴대전화에 의존할수록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고(성윤숙, 2006), 청소년들이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에서 부정적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이은정 외, 2012; 이정화, 2010; 장석진 외,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기 학교생활적응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학교생활은 학습의 기회 뿐 아니라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청소년기 학교생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학교생활부적응의 원인 중 하나로 휴대전화의존, 중독, 과다사용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휴대전화의존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정 외, 2012; 장석진 외, 2011). 이은정, 이정애, 이화조와 정익중(2012)은 휴대폰 활용유형과 학교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휴대폰 의존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학교부적응은 휴대폰 의존도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휴대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학교부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장석진, 송소원과 조민아(2011)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의존도, 이용정도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고 이용이 많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종단적 차

원이 아닌 횡단적 차원에서 연구되었다는데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1시기의 휴대전화의존이 중3 시기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휴대전화의존과 관련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정신건강 문제가 휴대전화의존이나 중독경향의 원인이라고 밝히면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지닌 청소년들은 인터넷, 게임, 휴대전화에 더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Young(1996)은 인터넷 중독과 우울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울하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인터넷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우울해 질 수도 있다고 하면서 어떤 요인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이것은 휴대전화의존이나 중독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최근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의 문제로 휴대전화의존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휴대전화의존으로 인해 정신건강의 문제가 초래된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고충숙, 2012; 허균, 2012). 전상민(2014)은 휴대폰 과다사용 및 중독적 사용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휴대전화의존이나 중독적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것이지 우울하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의존하거나 중독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신건강의 문제로 휴대전화의존이 높아질 수 있으나 휴대전화의존으로 인해 정신건강의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는 가설을 찾을 수 있다. 한상훈(2008)은 중학생의 휴대전화 중독 유형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 비중독군 보다는 의존군이 의존군 보다는 중독군에서 신체화 문제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송은주(2006) 또한 극심한 휴대전화 중독 그룹은 우울이 가장 높았으며 신체화, 강박증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휴대전화의존으로 인해 정신건강의 문제가 나타날 위험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휴대전화의존으로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휴대전화의존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이 2차년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휴대전화의존과 정신건강 및 학교생활적응의 밀접한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정신건강 또한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김명식, 2008; 이혜순, 옥지원, 2012). 우울, 주의집중, 신체증상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지닌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또래관계, 교사관계와 같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될 뿐 아니라 학습 및 규칙이행 등의 문제를 호소할 수 있게 된다. 김정민과 송수지(2014)는 정신건강 중 주의집중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면서 주의력 결핍은 청소년들의 학습 뿐 아니라 학교규칙, 교사관계,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신찬환과 박영호(2005)는 초등학교 학생의 정신건강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핀 결과에서 우울증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우울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은 학교생활적응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의존,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 간 세 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휴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의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 없

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은 동일한 시점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계 변화를 파악하는 데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휴대전화 보유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의존과 정신건강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휴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횡단적 조사설계(cross-sectional survey design)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실시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종단적 조사설계(longitudinal survey design)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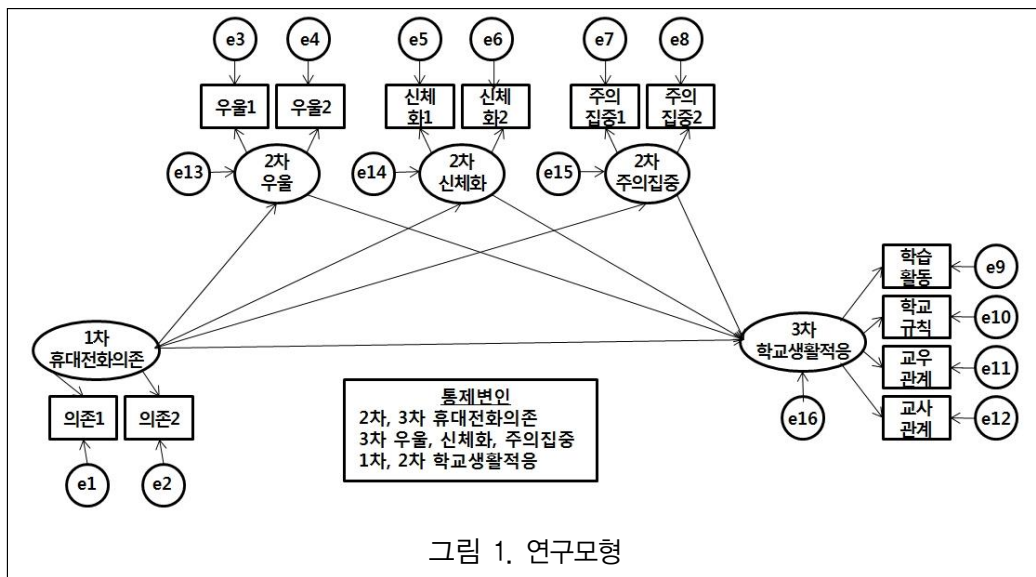
〈연구문제 1〉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이 청소년의 2차년도 정신건강과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과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2차년도 정신건강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휴대전화의존,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인 관계에 대한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orea Chil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중학교 1학년 패널 1차(2010년)부터 3차(2012년)년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2010년 당시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법에 의하여 대표성 있게 표집된 전국의 중학교 1학년으로 1차, 2차, 3차 각 2,3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선택하였고 1차, 2차, 3차년도 모두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44명을 제외한 2,307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KCYPS)’에서 사용한 척도로 휴대전화의존, 정신건강(주의집중, 신체화, 우울), 학교생활적응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변인의 측정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되었으나 역코딩하여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전화의존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7 문항으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4로 나타났다.

2) 정신건강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차년도 설문지의 25개 문항을 통하여 정신건강 정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정신건강은 휴대전화의존과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신체화(8문항), 우울(10문항), 주의집중(7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신체화는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곤한다’, ‘머리가 자주 아프다’, ‘자주 피곤하다’, ‘입맛이 없을 때가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우울은 ‘기운이 별로 없다’, ‘외롭다’, ‘모든 일이 힘들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주의집중은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하위요인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과 신체화는 높은 수준을 의미하지만, 주의집중은 집중력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4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신체증상 .862, 우울 .904, 주의집중 .790으로 나타났다.

3) 학교생활적응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은 학습활동은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등의 5문항, 학교규칙은 ‘학교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등의 5문항, 교우관계는 ‘우리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등의 5문항, 교사관계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등의 5문항으로 총 20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학습활동 5번 문항과 교우관계 4번 문항은 역으로 합산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0, 하위요인별로는 학습활동 .744, 학교규칙 .789, 교우관계 .539, 교사관계 .841로 나타났다.

4)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은 2차와 3차년도의 휴대전화의존, 1차와 2차년도의 학교생활적응, 3차년도의 신체화, 우울, 주의집중 요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에 따르면 1차년도의 신체화, 우울, 주의집중 요인도 통제변인으로 설정해야 하나 1차년도 자료에는 정신건강 요인을 측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차년도 정신건강은 제외되었다.

4. 자료 분석절차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분석은 spss 18.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amos 18.0을 통해 본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가정하에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모델의 적합도와 모수추정치를 확인하였다. 모델의 적합도는 χ^2 , NFI, TLI, CFI, RMSEA를 통해 평가하였고 각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NFI, TLI, CFI의 지수는 .90이상이면 모델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RMSEA는 .1이하 보통, .08이하 양호, .05이하는 좋은 적합도 지수로 판단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각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의 평균은 2.055, 2차 주의집중은 2.391, 2차 신체화는 2.024, 2차 우울은 1.932, 3차 학교생활적응은 2.890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1차 휴대전화의존은 2차년도 주의집중, 신체화, 우울과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2차년도 주의집중, 신체화, 우울은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표 1 각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차 휴대전화의존	2차 주의집중	2차 신체화	2차 우울	3차 학교생활적응
1차 휴대전화의존	1				
2차 주의집중	.236***	1			
2차 신체증상	.237***	.407***	1		
2차 우울	.228***	.347***	.606***	1	
3차 학교생활	-.116***	-.300***	-.168***	-.210***	1
평균	2.055	2.391	2.024	1.932	2.890
표준편차	.665	.530	.628	.616	.393
왜도	.484	.003	.222	.296	.055
첨도	-.186	.656	-.398	-.278	.661
명	2159	2240	2240	2240	222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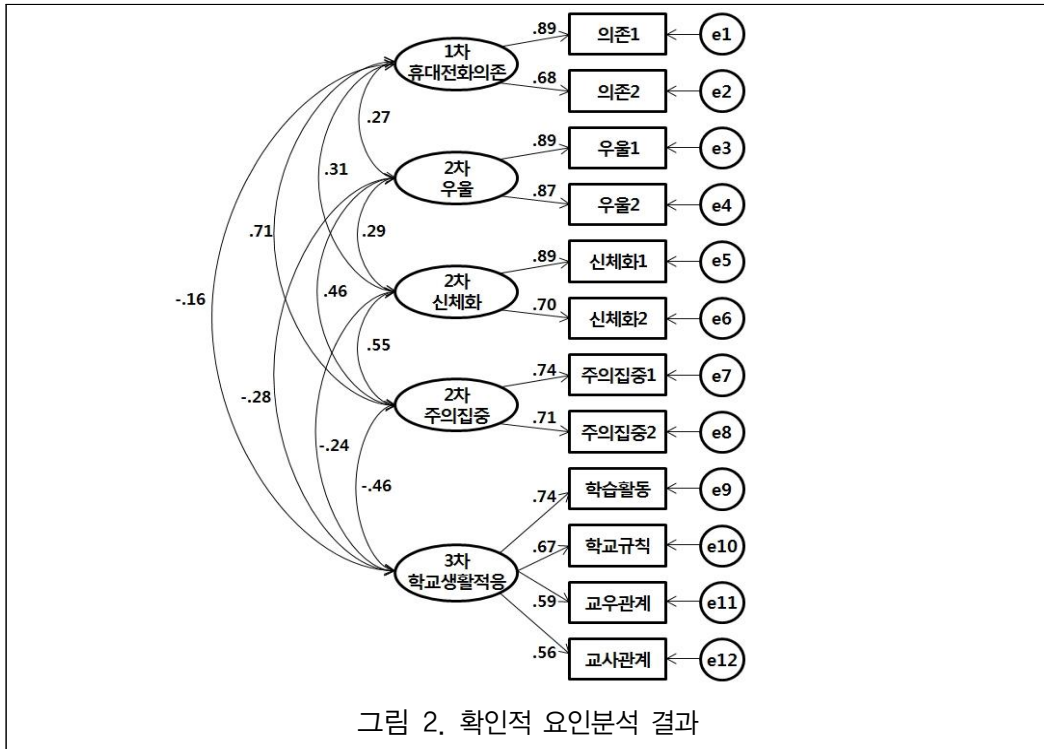
2. 휴대전화의존,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구조관계

1)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모형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포함된 휴대전화의존, 신체화, 우울, 주의집중, 학교생활적응의 측정변인들이 잘 측정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표 2에 제시하였고 NFI, TLI, CFI는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A는 .0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각 요인간 요인부하량과 상관도는 그림 2에 제시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은 .5이상, 상관도는 .15~.72사이로 나타났다.

표 2 ▶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지수

구분	NPAR	CMIN	<i>P</i>	DF	NFI	TLI	CFI	RMSEA
적합 지수	46	234.446	.000	44	.973	.961	.978	.043



2) 연구모형 분석

본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과 같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4에서 나타난 것 같이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은 2차년도 우울, 신체화, 주의집중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차년도 우울, 신체화는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차년도 주의집중은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은 2차년도 우울, 신체화, 주의집중 문제를 유발시키지만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2차년도 주의집중은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은 2차년도 주의집중을 완전매개하여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Sobel 공식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5에서 나타난 것처럼 $Z = -2.369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NPAR	CMIN	P	DF	NFI	TLI	CFI	RMSEA
적합 지수	104	842.169	.000	105	.947	.916	.953	.055

표 4 연구모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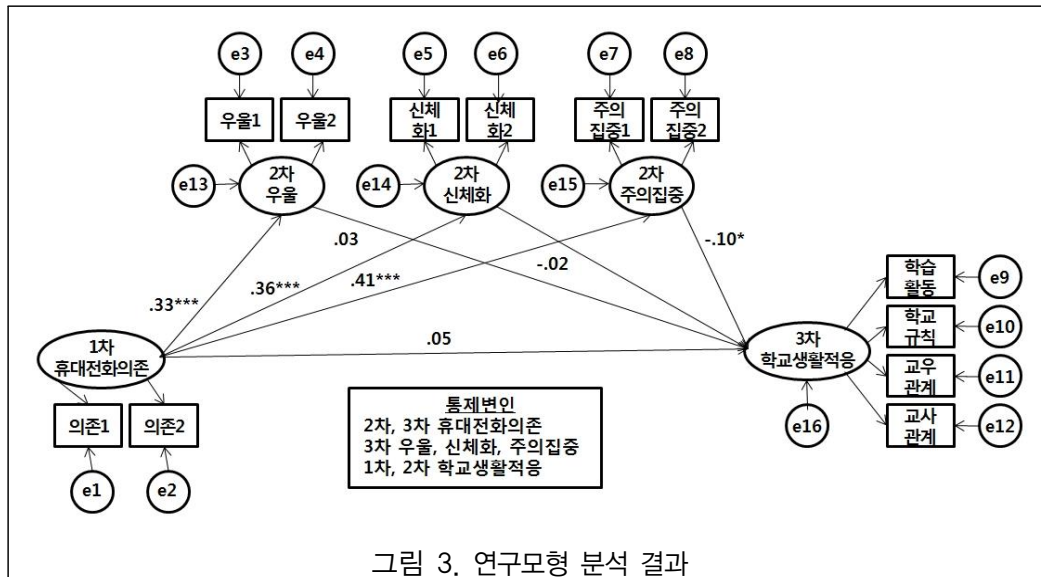
경로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휴대전화의존 → 우울	.310	.332	.024	12.800***
휴대전화의존 → 신체화	.347	.359	.025	13.648***
휴대전화의존 → 주의집중	.300	.405	.022	13.880***
휴대전화의존 → 학교생활적응	.036	.054	.026	1.374
우울 → 학교생활적응	.018	.025	.028	.641
신체화 → 학교생활적응	-.013	-.019	.031	-.430
주의집중 → 학교생활적응	-.089	-.100	.037	-2.399*

* $p < .05$, ** $p < .01$, *** $p < .001$

표 5 Sobel 검정 결과

경로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Z
휴대전화의존 → 주의집중 → 학교생활적응	.015	.054	-.039	-2.369*

* $p < .05$, ** $p < .01$, *** $p < .001$



IV. 결론

본 연구는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이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2차년도 정신건강이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과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지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은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휴대전화의존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이은정, 이정애, 이화조, 정익중, 2012;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였다는데 차이가 있다. 또한 휴대전화의존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고 다른 매개변인에 의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적을 바탕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횡단적 측면에서는 휴대전화의존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은 2차년도 정신건강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휴대전화 중독집단의 정신건강 문제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한상훈, 2008)와 휴대전화의존은 정신건강(우울, 신체화, 주의집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고충숙, 2012; 전상민, 2014; 허균, 2013)를 지지하는 것이다. 청소년기 휴대전화 과다사용이나 중독 및 의존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밤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잠을 못자게 되고 신체적 문제, 주의집중 문제, 우울한 감정을 야기시키게 된다. 즉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신건강에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휴대전화의존과 관련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특히 휴대전화의존은 건강한 청소년기 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는 것처럼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바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휴대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셋째,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과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2차년도 정신건강 중 우울과 신체화는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의집중은 완전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중학교 1학년 시기의 휴대전화의존은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주의집중 결핍을 야기시키면서 3학년의 학교생활적응 문제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 휴대전화의존으로 인해 학교생활적응에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닌 주의집중의 문제로 인해 학교생활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휴대전화에 많이 의존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추후 주의집중의 문제를 동반하고 학교생활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중독이나 의존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의 시급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연령이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이나 의존은 중학생 시기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추의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시행하여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을 통해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연구는 정신건강의 문제로 인해 휴대전화에 의존하거나 과다사용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과잉적 의존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는 소수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휴대전화의존을 많이 하게 되면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밝히는 자료로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휴대전화의존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지속적인 정신건강의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그에 따른 대책과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은 2차년도 주의집중을 매개로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휴대전화의존이 높은 청소년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학교생활적응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고 그 원인으로는 주의집중의 문제를 동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학교생활적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지 또한 주의력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여 전략적 개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으나 휴대전화의존,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의 세 요인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는 데 한계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하여 휴대전화의존, 정신건강 및 학교생활적응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그리고 휴대전화의존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변인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충숙(2012).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30, 8-36.
- 교육학사전편찬위원회(1984). **교육학대사전**. 서울: 교육출판공사.
- 구현영(2010).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과 예측 요인.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6(3), 203-210.
- 구현영, 박현숙(2010).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6(1), 56-65.
- 권이중(1990). **교육사회학**. 서울: 배영사.
- 김신애, 이형실, 임수경(2008). 남녀 청소년의 가족체계유형과 학교생활적응 및 행동문제의 관련성.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0(4), 1-17.
- 김왕식, 임영희(2003).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 및 민주시민의식과의 관계. **교과교육학연구**, 7(3), 123-148.
- 김운주(2002). **신체화에 있어 문화심리학적 변인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혜(2012). 부모요인, 친구요인, 개인요인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용도를 매개로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4(3), 97-120.

- 김현주, 황은숙(2012). 또래애착과 충동성이 청소년의 부적절한 휴대폰 사용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32, 7-38.
- 김혜수, 배성만, 현명호(2007). 휴대전화 중독 경향성 청소년의 심리, 사회환경적 특성: 공격성, 충동성, 우울, 부모-자녀관계, 주의집중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2), 383-393.
- 김혜원(2006). **청소년 우울과 문제해결능력, 자기효능감, 생활사건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나은영(2005). 청소년의 이동전화 애착 이용, 효과 지각 및 커뮤니케이션 효능감: 2002·2004년 서울·수도권 지역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6), 198-232.
- 성윤숙(2006).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및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2), 291-321.
- 성윤숙(2008).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이용동기 및 결과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9(4), 181-197.
- 송미령, 김성영(2012). 중학생의 또래 애착, 자아탄력성, 휴대폰 의존과의 관계. **청소년문화포럼**, 32, 65-89.
- 신찬환, 박영호(2005). 초등학교 학생의 생활양식 유형과 정신건강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교육이론과실천**, 15, 187-212.
- 이경숙, 안황란, 이경희(2011). 초등학교 학생의 휴대폰 과다사용에 대한 관련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0(3), 271-280.
- 이대식, 황매향(2011). **학습부진학생의 이해와 지도**. 서울: 학지사.
- 이영호, 박미현(2011). **관계의 미학, TA**. 서울: 학지사.
- 이은정, 이정애, 이화조, 정익중(2012). 청소년의 휴대폰 활용유형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휴대폰 의존도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4), 189-214.
- 이정화(2010).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휴대폰 사용현황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동북아문화연구**, 25, 337-351.
- 이한주, 서미아(2010). 청소년의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3(1), 79-87.
- 이해경(2008).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133-157.
- 임규혁(2001).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교사의 인식도 분석. **교육문제연구**, 14, 1-23.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2011).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431-451.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201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9(5), 161-187.
- 장성화(2011). 개인, 가족, 학교변인이 초등학교 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설명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1), 291-310.
- 장은경, 최연실(2010). 중·고생 휴대전화 고의존군과 저의존군에서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학교생활 변인, 가족기능의 차이.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8(2), 193-212.
- 최은영, 최인령(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5(1), 63-72.
- 통계청·여성가족부(2014). **2014 청소년 통계**.
- 하영신(2007). **초등학교 학생의 정신건강 수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주리, 허경호(2004). 이동전화 중독 척도 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언론학보**, 48(6), 138-165.
- 한희진, 윤미선(2009).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영향력. **교육문제연구**, 34, 81-100.

허균(2013). 고차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휴대폰 의존도 변화와 자기조절능력 및 주의집중의 구조관계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9(4), 861-879.

Beck, A. T.(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James, W.(1983).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Walsh, S. P., White, K. M., & Young, R. M.(2008). Over-connected?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ustralian youth and their mobile phones. *Journal of Adolescence*, 31(1), 77-92.

<http://www.itstat.go.kr/home.it>에서 2014년 8월 26일 인출.

남자 청소년의 컴퓨터사용시간, 휴대전화의존도, 음란물 중독, 학습활동, 교우관계의 관계규명

금지현*·김동심**

국문초록

본 연구는 남자 청소년의 컴퓨터사용시간, 휴대전화의존도, 음란물 중독, 학습활동, 교우관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아동·청소년들의 성장·발달과정에서의 변화양상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종단자료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아동·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과정에 대해 매년 추적조사를 하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2012년 4차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자 청소년 419명이다. 남자 청소년의 컴퓨터사용시간, 휴대전화의존도, 음란물 중독, 학습활동, 교우관계의 관계를 규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청소년의 컴퓨터사용시간은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남자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는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남자 청소년의 음란물 중독은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제어: 컴퓨터사용시간, 휴대전화의존도, 음란물 중독, 학습활동, 교우관계

I. 서론

컴퓨터와 인터넷 같은 IT 산업의 발달은 교육정보화 정책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왔다. 2000년대 이후 컴퓨터 교과 신설, 재량활동의 정보교육 의무 시수 배정, 정보화 기기의 보급이 이루어졌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부장(보직교사)과 전산보조(실무원)가 학교마다 배치되어 교육정보화와 정보교육을 이끌어 왔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교는 라디오와 같은 통신매체에서 이러닝 체제로 바뀌었고, 사이버대학교의 신설 그리고 수능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온라인강의가 고등학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등 온라인 강의 산업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사회변화와 정책에 따라 2013년 국내 인터넷 이용자는 4천만 명(인터넷 이용률 82.1%)에 이르고, 전체 가구 98.1%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또한, 만 6세 이상 인구 71.6%가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0대 98.8%, 30대 97.3%로 젊은 층은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외, 2014).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도입된 스마트폰, 태블릿PC와 같은 스마트기기들은 과거의 교육정

*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운영센터 팀장

**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운영센터 연구원 schwimmer@kedi.re.kr

보화 변화 속도보다 더 빠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스마트교육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2011). 현재 디지털교과서 도입 및 다양한 스마트기기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연구학교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스마트교육 연구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미개설된 교과와 전학으로 발생한 미이수 교과를 이수하기 위하여 온라인수업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강성국 외, 2014), 국가 정책적으로도 소외계층과 교육 접근성의 확대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을 계속해서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교육부, 2013).

스마트기기는 교육정보화와 온라인수업의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다. 2013년 우리나라 72만 여명(11.7%)의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 증상을 보이며, 2011년 이후 매년 그 비율이 증가했는데, 고위험군은 남성(2.1%)이 여성(1.1%)보다 약 2배 더 많았다(박효수 외, 2014). 휴대전화 중독은 남성보다 여성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그 위험 수준이 높았다(구현영, 2010; 구현영, 박현숙, 2010; 박효수 외, 2014). 여성이 메신저와 같은 관계 목적의 기능을 활용한다면, 남성은 게임과 같은 분야에 더 중독성을 보이는 등 남성과 여성의 휴대전화 중독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인터넷중독의 사회적 손실 비용이 연간 5조4000억원에 이르며, 인터넷중독에 의한 청소년의 학습 기회 손실 비용은 연간 최저 4124억원(성적 하락 10% 및 고용률 59.5% 가정)에서 최대 1조3872억원(성적 하락 20% 및 완전 고용 가정)에 이른다(이해국, 2012).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컴퓨터 게임은 현실에서 벗어나 가상의 세계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어 남자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기 쉽다. 청소년들은 컴퓨터게임을 새벽까지 함으로 다음 날 수업에 지장이 있거나, 게임 캐릭터에 몰입하여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의 50% 이상을 게임을 하면서 보낼 정도로 컴퓨터 게임은 이미 청소년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게임물등급위원회, 2009).

특히 청소년에게 최근들어 컴퓨터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전국 중·고생 3,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위험수준을 조사한 결과 35.2%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돼 있었으며, 이 중 27.6%가 잠재적 위험군에 속했고, 7.6%는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고위험군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스마트폰 기술의 발달은 컴퓨터와 유사한 형태의 기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생활 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등교와 동시에 학교에 제출하였다가 하교할 때 찾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휴대전화 의존 및 중독은 높은 충동성, 집중력 감소, 신경과민, 수면장애, 우울, 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개인·심리적인 요소(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남진열, 2011; 장성화, 조정덕, 2011; Bianchi & Phillips, 2005; Ha et al., 2008; Salama et al., 2004)와 관계가 높은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개인·심리적인 요소 외에도 청소년기의 휴대전화 의존 문제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 또래 관계의 중요성과 그 기능의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청소년

은 또래 집단에 소속되려는 욕구가 높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과 새로운 매체에 대한 흥미가 크기 때문에(Wong, 1999),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래 관계를 유지하고 친구 관계를 확장하는 데 효과적인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사용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장혜진, 2002; Kamibeppu & Sugiura, 2005). 이에 휴대전화 의존과 관련한 또래 및 대인관계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장성화, 조정덕, 2011; 장성화, 오은정, 2009; 이연미 외, 2009; Bianchi & Phillips, 2005; Ha et al., 2008). 그리고 휴대전화 및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조일주, 2009)와, 자기주도학습능력(김영민, 임영식, 2012)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우관계와 학업성취 및 학습활동을 포함한 학교생활적응(장석진 외, 2011)에도 부정적이 영향을 미치는 등 휴대전화 및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은 청소년의 학업과 교우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 남자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로 음란물이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잡지나 비디오테이프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음란물을 10대 청소년이 쉽게 구할 수 없었으나 현재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남자 청소년(중3-고2)들이 접하는 음란물로 인터넷과 동영상이가장 많으며(82.2%), 2002년 과거 연구와 비교하면 그 비율이 더 높아졌다(허승운, 2010). 청소년들이 성인물을 인터넷을 이용한 이유 또한 아무 제재 없이 이용 가능했기 때문이 78%로 가장 높았다(배상률 외, 2013). 음란물을 접하면 성과 가족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흐려지고, 성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성행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이것을 성적으로 실행하려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채규만, 2003). 이는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음란물을 본 후에 본 대로 하고 싶은 충동을 크게 느끼며, 정신집중이 어려워지며, 야한 동영상을 보거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많은 성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였다(허승운, 2010).

특히 고등학교 시기는 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및 실질적인 행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2012년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성관계를 처음 경험한 시기는 평균 15.1세(고교 1학년)였다(이종원 외, 2012). 남자 고등학생이 여자 고등학생보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활용한 성인용 콘텐츠에 접촉한 빈도가 높고(배상률 외, 2013; Tsitsika, et al., 2009), 학교급 중에서는 고등학교(20.4%)가 가장 많으며, 남학생은 학년이 증가하면서 성인물 접촉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배상률 외, 2013). 10년 전 한 연구에서 이미 고등학생의 94.6%가 사이버음란물을 시청한 바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홍은숙, 2001). 청소년 중 여성보다는 남성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란물 중독과 그에 따른 부정적인 성행동의 빈도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김혜자, 심미정, 2014; 남영옥, 이상준, 2002). 이렇듯 남자 고등학생이 음란물과 관련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시기인데, 음란물을 자주 접촉하는 청소년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우관계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운, 이명화, 2003).

IT 산업의 발달과 교육정보화와 스마트교육 정책은 청소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였고, 교육의

성과도 가져왔지만, 그에 못지않게 특히 남자 청소년에게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의존 그리고 음란물중독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학업부적응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인터넷, 컴퓨터, 음란물 등이 과거 연구에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남자 고등학생의 학습활동, 교우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남자 청소년의 컴퓨터사용시간, 휴대전화의존도, 음란물 중독, 학습활동, 교우관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자 청소년의 컴퓨터사용시간은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남자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는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남자 청소년의 음란물중독은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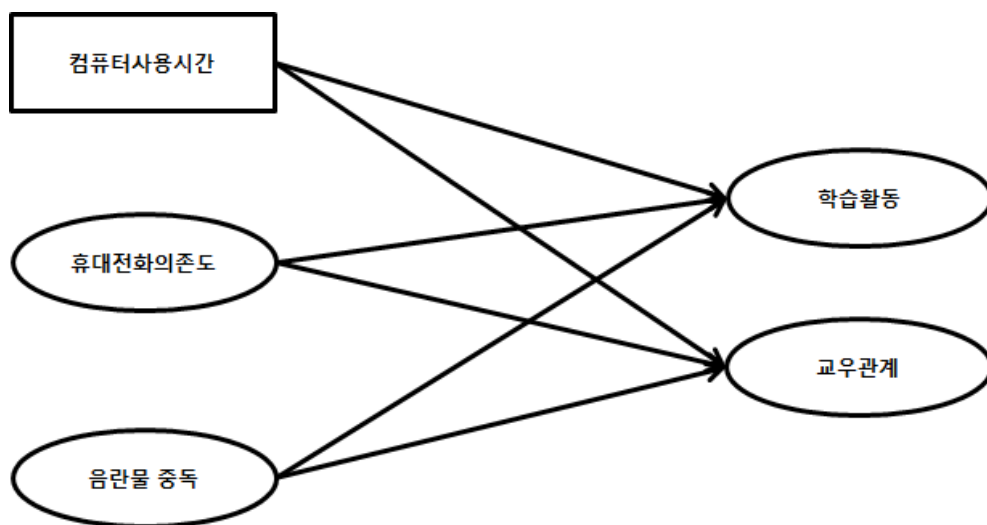


그림 1 .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4차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장·발달과정에서의 변화양상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종단자료로서 2010년부

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아동·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과정에 대해 매년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아동·청소년의 응답 능력 및 발달 속도, 발달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데 적합한 시기 등을 고려해 3개의 패널집단(초1, 초4, 중1)을 선정하고 학생의 가정환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학생의 보호자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조사 대상은 2010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 및 보호자 13,200명이다(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4차 자료는 2013년 조사된 자료로, 이 연구에서는 남자청소년(고등학교 1학년) 4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1). 학생들의 학교유형은 일반고 263명(62.8%), 자율형고 59명(14.4%) 순이었다. 남녀공학 구분에 있어서도 남자학교 학생이 199명(47.5%)이고, 남녀공학 남녀분반 133명(27.0%), 남녀공학 남녀합반 107명(25.5%)이다. 지역분포는 경기 46명(11%), 경북 45명(10.7%), 대전, 경남 32명(7.6%) 순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n=419)

구분	기준	명수(비율)	구분	기준	명수(비율)
학교 유형	일반고	263(62.8)	지역	서울	21(5.0)
	자율형고	59(14.1)		부산	25(6.0)
	특수목적고(예술, 체육)	3(0.7)		대구	23(5.5)
	특수목적고(과학, 외국어)	1(0.2)		인천	17(4.1)
	특수목적고 (산업수요맞춤형, 마이스터)	10(2.4)		광주	11(2.6)
	특성화고	83(19.8)		대전	32(7.6)
	남자학교	199(47.5)		울산	31(7.4)
남녀 공학 구분	남녀공학 남녀분반	113(27.0)		경기	46(11.0)
	남녀공학 남녀합반	107(25.5)		강원	25(6.0)
				충북	27(6.4)
				충남	21(5.0)
				전북	20(4.8)
				전남	11(2.6)
				경북	45(10.7)
				경남	32(7.6)
				제주	31(7.6)

2. 측정도구

휴대전화의존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시형 외(2002)의 청소년 휴대전화 이용에 관한 7문항(예: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값은 .863,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1129.57($p=.00$)로 나타났다.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4였다.

음란물 중독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은정, 이세용, 오승근(2003)의 인터넷중독 척도 문항 중 유

해매체와 관련 문항을 일부 수정한 8문항(예: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값은 .862,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1858.418($p=.00$)로 나타났다.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3였다.

학습활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 중 학습활동에 관한 5문항(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값은 .793,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433.952($p=.00$)로 나타났다. 신뢰도 Cronbach's α 는 .744였다.

교우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병수(1991)의 학교생활적응 척도 중 교우관계에 관한 5문항(예: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저해하는 1문항(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을 제외한 4문항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값은 .716,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246.976($p=.00$)로 나타났다. 신뢰도 Cronbach's α 는 .666였다.

컴퓨터이용시간은 일주일간 이용시간을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여 분 단위로 측정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측정도구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가설적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은 여러 개의 측정변수를 이용해 추출한 공통변량을 변인으로 사용함에, 그 변인의 측정오차를 통제할 수 있어, 측정변인만 고려한 모형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김주환, 홍세희, 김민규, 2009)

IV. 연구결과

1. 측정변수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각 측정변수들이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을 경우 다변량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시킬 수 없고 그 결과 왜곡된 추정치를 얻게 되어 정확한 통계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수집된 자료에 대한 다변량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검토하였다.

변수들의 평균은 최소 1.89에서 최고 241.64, 표준편차의 평균은 최소 .52에서 최고 147.11이었으며, 왜도는 절대값 최소 .09에서 최대 1.22, 첨도는 절대값 최소 .03에서 최고 2.96의 값을 보였다(표 2). 측정변수의 표준왜도가 2보다 작고 표준첨도가 7보다 작으면 구조방정식 모형 하

에서의 정상분포 조건이 충족되므로(Kline, 2005), 이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에서 다변량정규분포성의 기본가정이 만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남자 청소년의 컴퓨터사용시간, 휴대전화의존도, 음란물 중독, 학습활동, 교우관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컴퓨터사용시간과 음란물 중독간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인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2, 3과 같다.

표 2 ▶ 측정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 = 419)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최소값	최대값
컴퓨터사용시간	241.64	147.11	1.22	1.67	20	840
휴대전화의존도 1	2.71	.65	-.13	-.03	1.00	4.00
휴대전화의존도 2	2.84	.78	-.26	-.50	1.00	4.00
음란물 중독 1	3.30	.52	-.49	.03	1.25	4.00
음란물 중독 2	3.35	.53	-.57	.21	1.00	4.00
학습활동 1	2.70	.53	.13	.18	1.33	4.33
학습활동 2	2.17	.58	.19	.30	1.00	4.00
교우관계 1	1.89	.49	.82	2.96	1.00	4.00
교우관계 2	2.55	.48	.09	1.38	1.50	4.50

표 3 ▶ 측정변수의 상호상관행렬

(n = 419)

	컴퓨터 사용시간	휴대전화 의존도1	휴대전화 의존도2	음란물 중독1	음란물 중독2	학습 활동1	학습 활동2	교우 관계1	교우 관계2
컴퓨터사용시간	-								
휴대전화의존도 1	-.148*	-							
휴대전화의존도 2	-.128*	.767*	-						
음란물 중독 1	-.013	.357*	.390*	-					
음란물 중독 2	-.028	.370*	.402*	.864*	-				
학습활동 1	.209*	-.246*	-.194*	-.120*	-.151*	-			
학습활동 2	.155*	-.286*	-.247*	-.242*	-.289*	-.603*	-		
교우관계 1	.190*	-.157*	-.172*	-.182*	-.189*	.352*	.372*	-	
교우관계 2	.102*	-.210*	-.182*	-.199*	-.190*	.233*	.213*	.393*	-

* $p < .05$

2. 측정모형 검증

연구모형인 구조회귀모형의 모형추정가능성과 적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형추정가능성 확인절차에 따라 최대우도추정법에 의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하였다(Kline, 2005). 적합도 추정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

(n = 419)

	CMIN	p	df	TLI	CFI	RMSEA
측정모형	25.50	.030	14	.984	.992	.044*
기준값				>.90	>.90	<.10

*RMSEA 좋은 적합도 <.05, 괜찮은 적합도 <.08, 보통 적합도 <.10, 나쁜 적합도 >.10 (Browne & Cudeck,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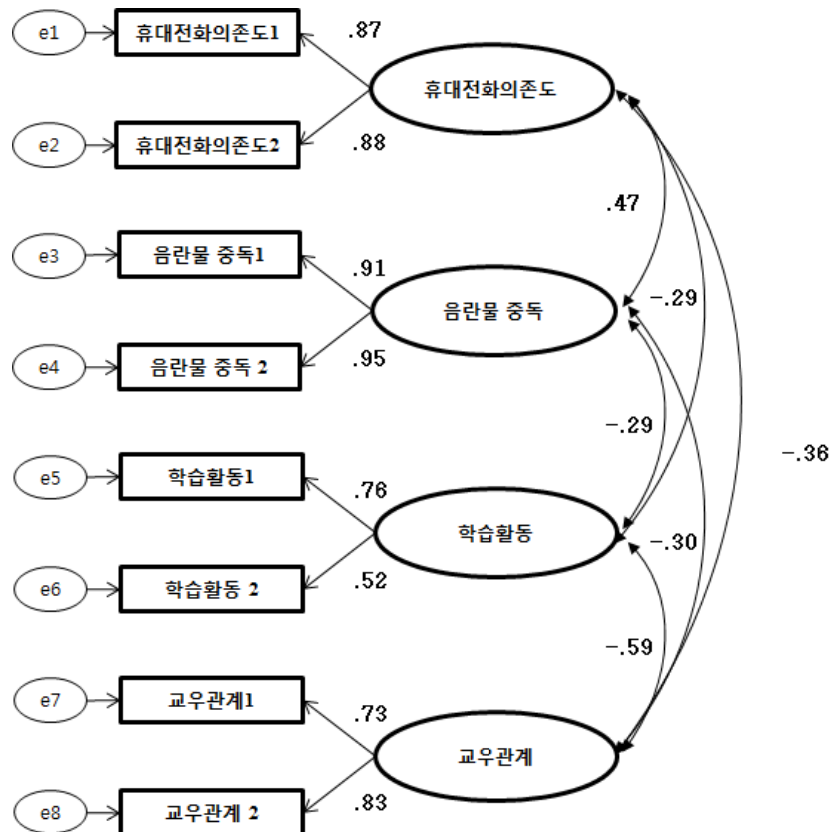


그림 2 .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 결과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모형의 RMSEA .044를 비롯하여 모두가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들의 경로별 표준요인부하량은 .52 - .95에 걸쳐 있으며 유의수준 .05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이어야 함을 고려할 때, 측정변수들은 해당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5). 그리고 측정변수들과의 상호상관정도를 검토한 결과 절대값 .29 - .59범위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상관이 .50이상 일 때 수렴적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잠재변수 간의 상관이 .80이하 일 때 변별적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문수백, 200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을 구조모형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구조모형의 검증

통계적 모형을 구성하는 측정모형의 모든 적합도지수가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모형의 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하였다. 연구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5와 같다. 적합도 지수는 TLI=.92, CFI=.95, RMSEA=.086으로 나타남에 따라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5 ▶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

($n = 419$)

	CMIN	p	df	TLI	CFI	RMSEA
구조모형	86.61	.00	21	.922	.955	.086
기준값				>.90	>.90	<.10

이에 따라 남자 청소년의 컴퓨터사용시간, 휴대전화의존도, 음란물 중독, 학습활동, 교우관계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표 6 ▶ 모형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치

($n = 419$)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p
컴퓨터사용시간 → 학습활동	.000	.170	.000	3.12*	.002
휴대전화의존도 → 학습활동	-.130	-.243	.037	-3.47*	.000
음란물 중독 → 학습활동	-.143	-.196	.048	-2.98*	.003
컴퓨터사용시간 → 교우관계	.000	.209	.000	3.24*	.001
휴대전화의존도 → 교우관계	-.092	-.198	.037	-2.49*	.013
음란물 중독 → 교우관계	-.146	-.229	.049	-2.96*	.003

컴퓨터사용시간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170$ ($t = 3.12$, $p < .05$), 휴대전화의존도가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243$ ($t = -3.47$, $p < .05$), 음란물 중독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196$ ($t = -2.98$, $p < .05$)였다. 컴퓨터사용시간, 휴대전화의존도, 음란물 중독은 학습활동에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컴퓨터사용시간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209$ ($t = 3.24$, $p < .05$), 휴대전화의존도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198$ ($t = -2.49$, $p < .05$), 음란물 중독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229$ ($t = -2.96$, $p < .05$)였다. 컴퓨터사용시간, 휴대전화의존도, 음란물 중독은 교우관계에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연구모형의 구조계수 추정치를 표현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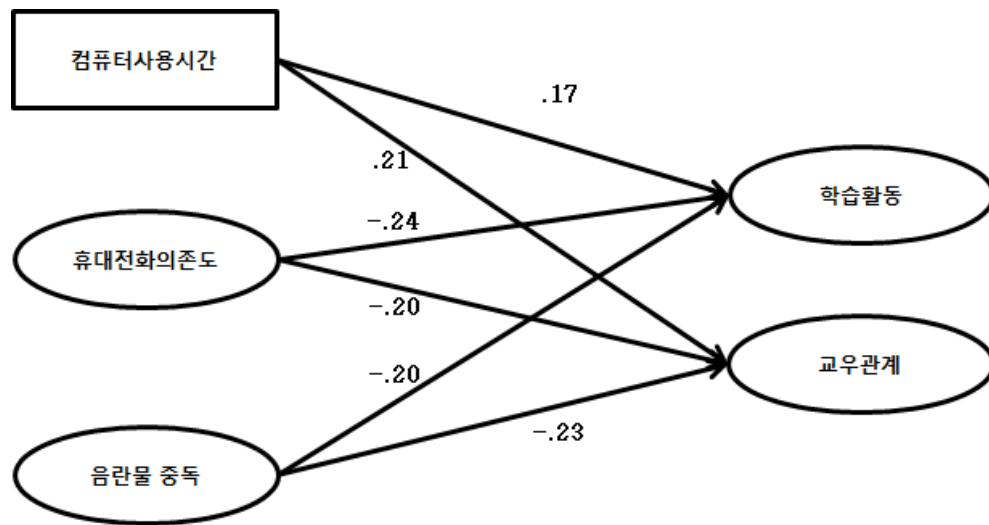


그림 3 .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컴퓨터사용시간, 휴대전화의존도, 음란물 중독, 학습활동, 교우관계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청소년의 컴퓨터사용시간은 연구문제로 설정한 것과는 반대로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앞선 장윤재와 김소희(2007)의 연구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시간이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에 부정적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로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오면서 컴퓨터 활용 내용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교육과 학습을 위한 컴퓨터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컴퓨터사용시간이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는 인터넷 이용 용도가 10대는 56.9%가 교육, 학습에 활용하지만, 20대 30.8%, 30대 8.4%에 그쳤던 결과(한국인터넷진흥원, 2013)와 10대의 인터넷 이용용도가 메신저와 음악 다음으로 학업과 온라인게임이 70% 전후로 비슷하게 나타난 결과(박효수 외, 2014)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목적이 부정적인 요소 외에도 학업을 위한 이용도 많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터넷 이용 비중에서 온라인강의와 같은 교육, 학습이 집중되고 대학교 입학을 앞둔 고등학교 과정에는 더욱 강조될 것이다. 청소년의 유기적 사이버 문화공동체 연계망 구축(최운실, 2002), 학업을 위한 온라인 강의 활성화(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2011), 학업부적응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기반으로 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강성국 외, 2014; 교육부, 2013) 등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의 학업과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컴퓨터 활

용을 단순히 양적으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4년 동안의 패널조사에 꾸준히 참여하는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모범적인 학생일 것으로 판단되며, 컴퓨터 사용시간도 1주일에 4시간 정도로 많지 않은데 이 또한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남자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는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앞서서 논의된 선행연구(김영민, 임영식, 2012; 장석진 외, 2011; 조일주, 200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을 형성하고 나름의 경계를 지어 집단 내에서만 소통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Fine, 1987) 휴대전화는 또래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그러나 휴대전화의존 및 중독, 학업과 교우관계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권재환, 이은희, 2005; 김혜수 외, 2007; 장성화, 오은경, 2009; 장성화, 조경덕, 2010) 서로 간에 높은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어 왔다. 컴퓨터사용시간은 인터넷과 컴퓨터 접속의 긍정적 및 부정적 이용에 대해 포괄적 측정이었다면 휴대전화의존도는 휴대전화의 과다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의미하고 있다. 즉, 휴대전화에 과도한 의존은 청소년의 학업과 교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청소년 또한 휴대폰 중독을 진단하고 이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으며(구현영, 박현숙, 2010), 남자 청소년의 모바일특성과 대면관계를 고려한 교육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이용하기 위해 모바일을 활용하고 있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SNS 애착의 수준, SNS 상호작용의 활성화가 실제 대인관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최세경, 광규태, 이봉규, 2012), 페이스북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대인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지은, 성동규, 2013)을 여러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SNS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자 청소년의 음란물 중독이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는 이정윤과 이명화(2003)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음란물 중독은 부모양육행동이 부정적일수록, 학교만족도가 낮을수록 나타나는 현상이다(남영옥, 2005). 또한, 음란물에 중독된 학생일수록 인터넷 중독현상이 높게 나타나고(한상철, 2003) 이는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기기의 발달에 따라 청소년의 음란물에 대한 노출정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중독 예방을 위해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기에 다량의 음란물접촉은 성 역할 및 성의식 발달뿐만이 아니라 이성교제 및 결혼 생활과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성교육이 보다 다각적인 측면의 접근을 통해 진행된다면 컴퓨터 음란물 접촉빈도가 줄어들 수 있다(우해자, 김정남, 박정민, 2001).

본 연구는 남자 청소년의 컴퓨터사용시간, 휴대전화의존도, 음란물 중독, 학습활동, 교우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통합적인 구조 모형 속에서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

금까지 논의된 컴퓨터사용시간, 휴대전화의존도, 음란물 중독, 학습활동, 교우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남자 청소년의 학습활동과 교우관계를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변인들을 제시하고,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청소년 정책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년차별로 이루어지는 패널인만큼 대상자들의 휴대전화의존, 컴퓨터사용시간과 같은 학년에 따른 변화가 있어 보이는 변인의 연차별 변화에 대해 종단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남자 청소년의 학습활동,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컴퓨터사용시간, 휴대전화의존도, 음란물 중독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영향을 주는 스마트 기기나 정보화 관련 변인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활용 등 좀 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인 모형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좋은 후속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컴퓨터, 휴대전화(스마트기기)를 주매체로 하여 학습할 수 밖에 없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대 학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방송통신고등학교에는 학업부적응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취득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과목의 모든 내용이 인터넷으로 학습함에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시간이 일반 고등학생보다 많다. 인터넷에 늘 접속해 있는 이들이 휴대전화 의존과 음란물 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컴퓨터 기술적 지원이나 음란물 중독 예방 프로그램과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성국, 손찬희, 김영직, 김영천, 김실헬, 하성준 외 (2014). **2013년도 중고등학교 온라인수업 운영·지원사업 결과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강성국, 손찬희, 이은철, 금지현, 이쌍철 (2014). **학업중단 학생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고등학교 개선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게임물등급위원회 (2009). **게임물 등급제 인지도 및 게임이용 실태조사**.
- 교육부 (2013)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
- 구현영 (2010).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과 예측 요인.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6(3), 203-210.
- 구현영, 박현숙 (2010).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 *아동간호학회지*, 16(4), 304-313.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2011).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 권재환, 이은희 (2005). 판별분석을 이용한 게임중독 청소년들의 심리적·사회환경적 특성 예측. *한국심리학회: 건강*, 10(1), 95-112.
- 김문녕 (2012). 청소년의 성범죄 이해와 성인물 중독 실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2(1), 47-71.
- 김성은, 박산하, 김진석 (2014). 청소년 사이버 일탈과 관련변인의 탐색: 다층 포아송모형의 적용. *교육학연구*, 52(1), 147-168.

- 김소영, 홍세희 (2014). 중학생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 추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5(3), 101-123.
- 김영민, 임영식 (2012). 민주적 양육방식, 자아탄력성 및 휴대전화의존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2), 273-299.
- 김은정, 이세용, 오승근 (2003).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2(1), 125-139.
- 김주환, 홍세희, 김민규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휴대전화 중독 경향성 청소년의 심리, 사회 환경적 특성: 공격성, 충동성, 우울, 부모-자녀관계, 주의집중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2), 383-393.
- 김혜자, 심미정 (2014).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에 따른 성의식과 이성교제태도. **디지털정책연구**, 12(5), 367-376.
- 남영옥 (2005).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 음란물중독의 심리사회적 특성비교. **청소년학연구**, 12(3), 363-388.
- 남영옥, 이상준 (2002).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사이버음란물 접촉 및 성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9(3), 185-212.
- 남진열 (2011). 대학생의 개인특성과 인터넷 및 휴대전화 중독과의 관계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2(4), 5-32.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외 (2014). **2014년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경, 송원영 (2014). 남자 청소년용 사이버 음란물 중독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2), 261-278.
- 박효수, 전종수, 남길우, 고영삼, 엄나래 (2014).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 **201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송영명, 이현철 (2011). 한국 청소년의 교우관계 결정요인 분석: 자아개념, 부모관계, 교사관계, 교우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연구**, 28(1), 91-112.
- 오은정, 장성화 (2009).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 및 휴대전화 중독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1(3), 25-44.
- 우해자, 김정남, 박경민 (2001). 성교육이 중학생의 컴퓨터와 비디오 음란물 접촉에 미치는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2(3), 795-814.
- 이시형, 김학수, 나은영, 이세용, 김선남, 배진한 외 (2002).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제 2002-1호)**.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연미, 이선정, 신호식 (2009). 청소년의 휴대폰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환경 변인.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1(3), 29-43.
- 이정숙, 명신영 (2007).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실태 및 휴대폰 중독 정도에 따른 또래관계의 질,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67-86.
- 이정윤, 이명화 (2003). 음란물을 자주 접촉하는 청소년의 성 및 심리사회적 특성. **청소년상담연구**, 11(1), 32-41.

- 이종원, 이유진, 김준홍 (2012). **2012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해국 (2012). **4대 중독 국가종합대책 제안**. 보건복지포럼 발표집.
- 이현철, 최성보 (2012). 한국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 중단 분석: 2003년(중2)에서 2007년(고3)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1(2), 159-187.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431-451.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9(5), 161-187.
- 장성화, 오은경 (2009). 학생들의 휴대폰 중독과 우울, 불안, 학교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21(2), 259-268.
- 장성화, 조정덕 (2011). 청소년의 우울, 대인불안, 학교적응이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11), 285-293.
- 장윤재, 이운재 (2008). 컴퓨터 이용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언론정보연구**, 45(1), 67-96.
- 장혜진(2002).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자기개념, 애착, 자기 통제력, 충동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태인, 유홍준 (2013). 주부의 취업이 청소년자녀의 인성, 학업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3(1), 269-297.
- 정형원, 임창욱, 성백순 (2012).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 과몰입의 탐색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논문지**, 25(3), 129-137.
- 조일주 (2009).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휴대폰 중독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9(1), 1-20.
- 채규만 (2003). 디지털 시대의 인간 심리와 문제점. **인간과학연구**, 21, 183-207.
- 최두진, 오강탁, 서보경 (2011). **2010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최세경, 광규태, 이봉규 (2012). 커뮤니케이션 성향과 모바일 SNS 애착이 SNS 상호작용과 이용후 대인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29(1), 159-200.
- 최운실 (2002). 청소년의 사이버 문화 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사례분석. **청소년학연구**, 9(3), 337-361.
- 한상철 (2003). 청소년의 인터넷 접촉 정도와 중독성향에 대한 조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9-39.
- 허승운 (2010).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성의식 실태 조사 - 대전지역 남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 **청소년문화포럼**, 24, 190-228.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2013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결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 1-3 차 조사 데이터 유저가이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2013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홍은숙 (2001). 인터넷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관련 정서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ianchi, A., & Phillips, J. G. (2005). Psychological predictors of problems mobile phone use. *CyberPsychology & Behavior*, 8(1), 39-51.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 Fine, G. A. (1987). *With the boys: Little league baseball and preadolescent cul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 J., Chin, B., Park, D., Ryu, S., & Yu, J. (2008). Characteristics of excessive cellular phone use in Korean adolescents. *CyberPsychology & Behavior*, 11(6), 783-784.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5). *Multivariate data analyses with readings*. NJ: Englewood.
- Kamibeppu, K., & Sugiura, H. (2005). Impact of the mobile phone on junior high-school students' friendships in the Tokyo metropolitan area. *CyberPsychology & Behavior*, 8(2), 121-130.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Guilford.
- Sadava, S. W., & Thompson, M. M. (1986). Loneliness, social drinking, and vulnerability to alcohol problem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8(2), 133-139.
- Salama, O. E., Abou, E. I., & Naga, R. M. (2004). Cellular phones: Are they detrimental?. *The Journal of the Egyptian Public Health Association*, 79(3-4), 197-223.
- Tsitsika, A., Critselis, E., Kormas, G., Konstantoulaki, E., Constantopoulos, A., & Kafetzis, D. (2009). Adolescent pornographic internet site use: A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of the predictive factors of use and psychosocial implications. *CyberPsychology & Behavior*, 12(5), 545-550.
- Wong, D. L. (1999). *Whaley & Wong's Nursing care of infants and children (6th ed.)*. St. Louis, MO: Mosby.

제 8 주제

건강/사회성발달

- 1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영향요인: 건강상태와 비만여부를 중심으로
- 2 Exploration of variables on the effect of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over three years
- 3 청소년 놀이의 양과 질에 따른 학교폭력과 상관관계
- 4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
- 5 중학생의 사회정서적 특성과 부모양육 방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영향요인 -건강상태와 비만여부를 중심으로-

이자형* · 이기혜**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3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건강상태와 비만여부를 중심으로 중학생의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중학생의 건강상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 2,116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hierarchical linear modeling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비만여부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동일 학년 학생 2,012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 분석(HGLM: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s)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학생 개인수준에서는 건강상태와 비만확률 모두에 대해 게임시간이 적을수록, 또래지지가 강할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며, 비만의 확률도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는 체육활동 동안 땀을 흘리며 운동한 시간이 많을수록,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약할수록, 이웃지지가 강할수록 더 건강하다고 인식했으며 저체중인 경우에는 부적인 효과가 발휘되었다. 반면 비만여부와 관련해서는 남학생인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비만에 해당할 확률이 해당하지 않을 확률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중학생의 건강보건활동 참여경험은 학생의 건강상태나 비만확률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학생의 학교수준에서는 학교평균 또래지지가 높을수록 더욱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명된 반면 비만확률에는 학교수준의 변수들 가운데 어떠한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정 내 구조적 여건의 문제를 상쇄할 수 있는 학교 및 관련 기관 차원의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게임시간을 조절하고, 수면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또래 간의 신뢰를 쌓고 협동적 활동을 권장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체육시간 및 관련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다.

주제어: 건강불평등, 건강상태, 비만여부, 위계적 선형모형,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 또래지지

* 고려대학교 사회통합교육연구소 연구교수 seo2jin@hanmail.net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I. 서론

청소년기의 건강은 이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아울러 건강은 장기간의 학교생활과 함께 인지적, 비인지적 영역의 성취를 이루는 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일 뿐 아니라 향후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로 인하여 이처럼 ‘필수 조건’의 성격을 지니는 청소년의 건강마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 본인이 선택할 수 없고, 이것으로 인한 불평등을 자력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학교와 사회가 주목하고, 책임져야 하는 핵심 과제이다.

청소년의 건강불평등의 실태는 주로 학생의 영양 및 구강 상태,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상태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비만(obesity)을 통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학생의 비만은 학업성취와 대학진학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Crosnoe, 2007; Datar, Sturm & Magnabosco, 2004; Kristjánsson, Sigfúsdóttir & Allegrante, 2010), 비만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겪거나 자존감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를 겪게 할 개연성이 있다(Crosnoe, 2007). 따라서 비만과 같은 건강불평등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성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교육부의 ‘13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의 비만율이 전년도 14.7%에 비해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보도자료, 2014-02-26). 이와 같이 청소년의 비만율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자녀 또는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들의 비만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경향신문, 2010-10-27, 쿠키뉴스, 2011-10-11).

이처럼 가정환경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문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층의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지속적인 관여가 어려운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정의 구조적 환경에 따른 영향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교육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건강증진학교(Health Promoting School)’ 운영과 체육교과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들의 비만 예방과 체력 증진을 위한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1-06-22). 이 같은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은 학생들의 비만과 건강 상태가 가정의 책임을 넘어 교육적·사회적 조치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그동안 건강상태나 비만 등을 중심으로 한 학생의 건강불평등에 관한 연구들은 가족 구조, 가계 소득, 부모의 학력 등과 같은 가정환경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임희진, 2010; Olson, Diekema, Elliott & Renier, 2010; Lucht & Groothoff, 1995; Gable & Lutz, 2000). 또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녀의 식생활습관이나 건강관리 정도 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기도 한다(강영실, 권인수, 2013; Lucht & Groothoff, 1995). 최근 국내에서는 사교육을 통해 자

녀의 건강을 관리해 나가는 부모도 있어(경향신문, 2014-03-12), 청소년의 건강관리가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서구에서는 이처럼 학생의 건강 증진과 건강 불평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학교차원에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학교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 실시(Ploeg, Maximova, McGavock, Davis & Veugelers, 2014)나 체육관 시설 및 체육 활동, 체육 교과수업(Blacksher, 2008; Veugelers & Fitzgerald, 2005)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비만 예방이나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학생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부와 학교 차원의 조치가 아직 미흡한 상태이며 학교차원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도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의 연구들이 주로 학생의 비만 실태를 파악하거나 건강 결정요인을 개인적인 특성과 가정환경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잘 설명하고는 있지만(강영실, 권인수, 2013; 김세원, 김선숙, 2012; 김영호, 2000; 안진상, 김희정, 2013)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학교수준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도 면밀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상태와 비만여부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원의 요인과 학교차원의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학생 개인 차원에서 청소년의 건강상태와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지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학생들의 건강상태나 비만여부가 학교 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학교 간 차이를 유발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불평등에 대한 가정 배경의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는 학교 및 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해 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건강불평등의 개념 및 중요성

건강불평등이란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및 민족 등에 따라 건강 상태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전통적인 불평등 요인이 개인의 정서와 환경적인 위협 요소에 대하여 차별적인 경험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건강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House, 2001). 특히 가장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 개념은 교육수준, 직업계층, 소득수준, 재산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상의 차이를 의미한다(강영호, 2005). 이러한 건강불평등에 관한 개념적 정의를 토대로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개념을 정의하면, 청소년들의 건강 수준이나 건강 상태가 가정의 구조적 환경과 여건의 직, 간접적인 영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불평등은 가장 극단적인 결과인 아동 사망율이나 이환율, 질병

의 발병여부와 관리실태, 의료이용 이용 등을 통해서도 논의되고(김명희, 전경자, 서상희, 2011) 신체적, 정서적 안녕에 대한 자기평가로 드러난 건강상태(김정은, 2008; 석민현, 오원옥, 2002; 안진상, 김희정, 2013)나 BMI지수나 비만여부(양혜경, 김진영, 2014; 이상록, 김진희, 2011; 최필선 외, 2009)를 통해서도 파악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건강불평등은 학생 개인의 가정환경과 개인특성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고 데이터의 접근 가능성이 용이한 건강상태나 비만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다(양혜경, 김진영, 2014; 이상록, 김진희, 2011; 최필선 외, 2009; Blacksher, 2008; Burton & VanHeest, 2007; Kristjánsson et al., 2010; Sigfúsdóttir, Kristjánsson, & Allegrante, 2007; Laitinen, Power, Ek, Sovio, & Jarvelin, 2002; Taras & Potts-Datema, 2005; Gurley-Calvez & Higginbotham, 2010). 이 가운데 비만여부는 학생의 키와 체중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이자 학교생활 및 이후의 교육결과에 미치는 영향력 차원에서 청소년의 건강불평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만의 진단과 측정은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신장과 체중을 이용한 비만도, 표준 체중을 이용한 측정 등이 활용되며 체질량지수(BMI)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체질량지수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Kg/m^2)으로 산출되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 인구에 대하여 체질량지수 25.0Kg/m^2 이상인 경우를 비만, 23.0Kg/m^2 이상을 과체중으로 구분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09). 그러나 이는 성별, 연령별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소아학회에서는 2007년 ‘소아·청소년 신체발육 표준치’를 제정하여 비만의 진단과 평가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체질량지수가 95백분위 이상인 경우는 비만, 85백분위수 이상에서 95백분위수 미만은 과체중, 85백분위수 미만에서 5백분위수 이상은 정상체중, 5백분위수 미만은 저체중으로 구분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비만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청소년 건강불평등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비만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기의 과체중과 비만 여부가 이들의 건강뿐 아니라 인지적 능력과 비인지적 영역의 결과, 나아가서는 성인기의 삶의 질까지 좌우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Blacksher, 2008; Burton & VanHeest, 2007; Kristjánsson et al., 2010; Sigfúsdóttir et al., 2007; Laitinen et al., 2002; Taras & Potts-Datema, 2005; Gurley-Calvez & Higginbotham, 2010).

먼저 아동기의 비만이 인지적 영역인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비만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사이에 부적 관계가 존재함을 보고하고 있다. Gurley-Calvez와 Higginbotham(2010)은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비만율이 30% 가까이에 이르는 버지니아 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만은 다른 질병의 이환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아동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한 Kristjánsson et al.(2010) 역시 BMI가 학업성취에 부적인 직접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비만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부적 효과는 여학생인 경우(Burton & VanHeest, 2007; Crosnoe, 2007)에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Laitinen et al.(2002) 역시 종단연구를 통해 14세 때의 비만이 이후의 낮은 학업성취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적어도 31세에 달성하는 낮은 교육수준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여성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며, 청소년기의 비만이 여성의 성인기 삶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Crosnoe(2007)는 비만학생일수록 대학진학률이 낮다고 하고 비만이 상대적으로 보편적이지 않은 환경일수록 비만과 대학진학률의 부적관계가 강해진다고 제시하였다.

국내의 연구 결과도 전술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양혜경, 김진영, 2014; 이상록, 김진희, 2011; 최필선, 민인식, 김원경, 2009). 비만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양혜경과 김진영(2014), 최필선 외(2009)는 비만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필선 외(2009)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비만율이 높았으며, 비만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부적효과는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 여학생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과체중과 비만은 아동·청소년의 인지적인 영역의 결과뿐 아니라 이들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등과 같은 비인지적 영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록, 김진희, 2011; 김선미, 김춘희, 2006; Gurley-Calvez & Higginbotham, 2010). 전술한 연구들은 주로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개인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하며, 이것이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상록과 김진희(2011)는 비만 정도에 따라 우울 및 불안, 주의집중력, 위축감, 공격성 등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정상 체중 학생에 비하여 비만 학생일수록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존감이 낮고, 주의집중력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전술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할 때, 과체중과 비만 여부는 인지적, 비인지적 영역을 망라하여 전반적인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 지표로 볼 수 있다.

비만이외에 건강불평등의 또 다른 지표인 건강상태를 중심으로 한 연구 가운데 Lucht & Groothoff(1995)는 건강상태가 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들은 특히 이러한 관계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불리한 집단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이들 연구에서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집단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동은 건강한 아이들에 비해 학업 수행의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하여 건강상태가 아동의 생활 및 인지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좌우될 개연성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아동 및 청소년 시기의 건강상태나 비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결정요인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불평등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요인들이 제시된다. 주로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경제 상황, 거주지 등의 변인이 부모의 양육 여건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관리 행태나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건강불평등이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은 건강불평등이 어머니의 임신 환경, 즉 태아기 때부터 존재한다고 주장한다(Ritchie, 2014). 빈곤층 여성은 영양이 좋지 못하고, 심리적인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임신 중에도 흡연 등과 같이 건강 위협 행동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빈곤층의 경우, 양육 스트레스의 결과로 자녀와의 애착을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뇌 발달과 집중력, 심리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이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Olson et al.(2010)은 불평등지수를 통해 소득수준에 따른 아동의 건강불평등 상태를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국에서 빈곤아동의 건강을 위해 마련한 공공 프로그램이 저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고 아동 건강상태의 의미 있는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을 위한 건강보호기회를 확충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중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Yoo, Slack & Holl(2012) 역시 빈곤과 빈곤의 누적이 저소득 가정 출신 아동의 건강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개인 수준에서의 물질적 빈곤과 누적된 빈곤이 아동 건강의 초기치는 물론, 기울기를 더 가파르게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요인 가운데 부모의 교육수준도 자녀의 건강 또는 비만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태호 외(2007)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린이 사망률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영향력보다 크다고 주장하였다. Gnavi et al.(200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족의 경제적 자본이 자녀의 비만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직업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비만율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는 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통해 확보될 수 있는 문화자본과 이용가능한 가족의 수입이 자녀의 비만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 구조와 같은 구조적 환경 역시 아이들의 비만 여부와 건강 정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된다(김정은, 2008; Gable & Lutz, 2000). 김정은(2008)은 특정 시의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조손 가정 아동과 정상 가정 아동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를 비교한 연구에서 가족의 구조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상태와 건강행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한 바 있다.

상술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족구조와 같은 요인 이외에도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양육

환경도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강영실, 권인수, 2013; Blacksher, 2008). Blacksher(2008)는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육 환경과 관련하여, 부모가 집에서 먹는 음식, 다이어트 및 운동과 관련된 행동은 자녀에게 행동 모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아동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 환경과 방식은 경제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강영실과 권인수(2013)는 취약 계층일수록 위생과 식습관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기초적인 건강관리와 성장발달을 위한 환경 조성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더욱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값이 싼 고열량, 저영양의 음식을 섭취하며, 부모가 자녀의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는 방법을 모르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Blacksher, 2008)는 점에서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 환경 역시 사회경제적 수준에 의해 상당 부분 좌우될 개연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과 청소년이 시간을 활용하는 양상과 생활습관에 따라서도 이들의 건강상태 또는 비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Gable & Lutz, 2000; Lucht & Groothoff, 1995). Lucht와 Groothoff(1995)는 생활습관과 생활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7학년 학생들의 수면시간이 이들의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Gable과 Lutz(2000)는 기본적으로 활동시간이 많을수록 비만일 확률이 낮아지며, TV시청 시간이 늘어날수록 과제충과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학생의 정의적 특성이나 의미 있는 타인들도 개인의 비만 여부나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특히 청소년의 자존감과 우울, 스트레스 인지 정도 등은 이들의 건강상태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제시되는데 자존감이 높을수록, 우울이나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학생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석민현, 오원옥, 2002; 안진상, 김희정, 2013). 또한 의미 있는 타인과 학생의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는, 특히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친구 관계가 원만할수록 건강하다고 느끼거나 건강행동을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효정, 2009; 안진상, 김희정, 2013). 서효정(2009)은 남녀 학생 모두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운동을 더욱 많이 하는데, 이는 친구의 지지가 이들로 하여금 운동을 하고, 자신들의 신체를 원활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였다. 안진상과 김희정(2013)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친구의 지지가 강할수록 건강집단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생의 성별이나 거주지가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먼저 성별과 관련하여, 서울과 경기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김영호(2000)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부정적인 건강행동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안진상과 김희정(2013)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건강 취약집단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주지를 포함한 지역 변수 역시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확인된다(김세원, 김선숙, 2012; Yoo et al., 2012). 구체적으로 김세원과 김선숙(201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

가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이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일수록 입원을 경험할 승산이 높거나 고른 영양 섭취를 할 승산이 낮았으며, 더욱이 동일 지역 내에서 빈곤가구에 속할수록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개인 수준의 변인 뿐 아니라 학교 차원의 변인도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활동이나 학교 차원에서 진행되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나 체육활동 및 급식형태 등은 이들의 건강관리 및 비만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서구의 여러 연구들은 학생들의 비만과 건강관리에 대한 학교차원의 노력과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고하고 있다(Blacksher, 2008; Ploeg et al., 2014; Pike & Colquhoun, 2008; Veugelers & Fitzgerald, 2005). 먼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한 Ploeg et al.(2014)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인 CSH(Comprehensive School Health)가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층의 아이들에게 더 큰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이 학생들의 비만을 감소시키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건강하게 잘 먹는 것’이 영양 결핍과 아동의 비만 해소를 가능하게 한다는 영국정부의 믿음 아래 실시된 “Eat Well Do Well”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역시, 학교의 건강한 무료 급식의 제공이 학생들의 건강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무료 급식 제공뿐 아니라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학교의 급식 환경에 따라서도 급식의 효과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육 활동이나 체육 교과 및 학교에서 이용가능한 음식 등도 학생들의 과체중과 비만 및 건강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Veugelers와 Fitzgerald(2005)는 가구소득이 높은 가정보다 가구소득이 낮은 가정의 자녀일수록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과 함께, 학교에서 일주일에 두 시간 이상 체육 교과를 실시하는 경우 과체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 급식(school lunches)이 과체중과 비만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들은 학교에서 체육 교과를 활성화시킬 것과 건강한 식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으며, 공공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들이 저소득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Blacksher(2008)는 주로 학교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학교들을 중심으로 규제되지 않은 음식들이 학교 자판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이용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점과 정규 체육 교과 시간을 늘리는 학교가 드물다는 점, 학교에서 하루에 신체적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30%이하라는 점들을 지적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아동의 비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학교의 규제와 관리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상술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구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실시하는 건강프로그램이나 체육 활동 및 학교급식 등의 문제가 학생들의 건강 증진 혹은 건강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학교차원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건강불평등의 문제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중학생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비만여부를 통해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3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에서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장과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련 학술 연구와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 층화다단계락추출법으로 표집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3개 패널 각 2,300여 명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4). 2014년 현재 4차년도 데이터까지 공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청소년의 건강불평등의 영향 요인을 개인 및 학교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는 2012년 3차년도 중학생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¹⁾. 중학생 패널은 78개 학교에 재학 중인 2,351명을 대상으로 1차년도 조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총 78개교²⁾ 중학교 3학년생 2,116명이 중학생의 건강상태 분석과 2,012명이 비만 여부 분석을 위해서 최종 표본으로 구성되었다.

2. 변수 설명

본 연구에서 분석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중학생의 건강불평등은 중학생이 인식한 건강상태와 비만 여부의 두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건강상태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4점 척도(①매우 건강하다~④매우 건강하지 못하다)로 조사된 것을 역코딩한 뒤, 이것들의 평균값을 산출해 사용하였다. 따라서 변수 값이 클수록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만여부는 ‘소아·청소년 신체발육 표준치(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학회, 2007)’에서 체질량지수(BMI)가 95백분위 이상인 경우는 비만으로, 85백분위수~95백분위수 미만은 과체중으

1) 2013년 초4 패널의 4차년도 데이터 역시 중학교 1학년생으로 중학생의 건강불평등 영향요인을 최신의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중학교 배정 이후 데이터의 위계적 속성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학교 수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어렵기에 중1패널의 최신 자료인 3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 KCYPS 3차년도 중3 데이터의 빈도분석 결과, 중학교 147개와 학생 2,259명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샘플수가 1차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이사 및 전학 등의 이유로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학교 수준의 분석을 고려한 연구모형의 특성에 따라, 학교당 학생 수가 1-2명인 경우에 해당하는 69개 중학교 사례는 최종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로, 85백분위수 미만~5백분위수 이상을 정상체중으로, 5백분위수 미만을 저체중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85백분위수 이상을 비만 경우인 1의 값을 부여했고, 85백분위수 미만~5백분위수 이상을 비만이 아닌 경우인 0의 값을 부여한 더미 변수로 구성하였다. 5백분위 이하인 저체중의 경우는 비만여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체질량지수는 체중(kg)을 키의 제곱(m²)으로 나눈 값이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는 개인수준과 학교수준으로 나누어 투입하였다. 먼저 학생의 기본 배경변인으로 성별, 부학력, 모학력, 가구소득, 가족구조, 지역 등의 변인들이 투입되었다. 성별은 여학생은 0, 남학생은 1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부학력과 모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의 교육연한에 해당하는 9, 12, 14, 16, 18의 값을 부여하였다. 가구소득은 월평균 가구소득을 자연로그 값으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가족구조는 학생이 양친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0의 값을 부여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지역은 현재 학생 거주지에 따라 읍면지역을 준거지역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구성하고 서울시, 광역시, 중소도시인 경우에 각각 1의 값을 부여하여 투입하였다.

이 외에도 학생 개인 수준의 변인으로 학생의 공부시간, 게임시간, TV시청시간, 운동시간, 수면시간, 건강프로그램 참여여부, 흡연 경험, 음주 경험, 저체중 여부, 비만 여부, 학업성취도, 부모지지, 교사지지, 또래지지, 이웃지지, 자존감,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등이 변수로 구성되어 분석모형에 투입되었다. 먼저 학생의 일상생활을 알 수 있는 공부시간, 게임시간, TV시청시간, 운동시간, 수면시간 등은 학교에 가는 날과 학교에 가지 않는 날로 나누어 조사한 것을 중학생 연간 수업일수 205일과 휴일 160일을 적용하여 합산한 후 1일 평균 시간을 구해 투입하였다. 운동시간은 “지난 일주일 동안 학교 체육시간 중 땀을 흘리며 운동한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없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상’으로 응답한 것에 대해 0부터 4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여 투입하였다. 흡연 경험과 음주 경험은 지난 1년 동안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와 음주 경험이 있는 경우에 각각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 0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저체중 여부와 비만 여부 변수는 체질량지수에 따른 기준치를 토대로 정상인 경우에 0의 값을, 저체중인 경우와 비만인 경우에 각각 1의 값을 부여한 더미 변수로 투입하였다. 건강보조 활동 참여 경험은 참여 경험이 있으면 1, 없으면 0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학업성취도는 학생이 지난 학기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8등급으로 나누어 보고한 것을 역코딩하여 합산한 뒤 평균값을 투입하였다.

청소년의 건강불평등에 대한 의미 있는 타인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부모지지, 교사지지, 또래지지, 이웃지지 등의 변수들이 투입되었다. 부모지지는 “부모님께서는 다른 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부모님께서는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쓰신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 등 4문항에 대해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조사된 것을 역코딩한 뒤, 이것들의 평균값

을 투입하였다. 교사지지, 또래지지, 이웃지지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변수를 구성하여 투입하였다. 교사지지는 “나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등 5문항의 평균값을 투입하였다. 또래지지는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속마음을 열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등 6문항으로 측정한 것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웃지지는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 정도를 통해 파악하였는데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등의 4문항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학생의 정의적 특성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자존감,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등의 변인들도 투입되었다. 자존감은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나에게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등의 5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한 것을 역코딩한 뒤,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변수 값이 클수록 자존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는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3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한 것을 역코딩한 뒤, 평균값을 투입하였다. 스트레스는 자신에 대해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곤 한다”, “머리가 자주 아프다”, “속이 자주 메스거린다”, “공부를 하면 배가 아플 때가 있다”, “입맛이 없을 때가 있다”, “자주 피곤하다”, “숨쉬기 어려울 때가 있다”, “자주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등의 8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한 것을 역코딩하여 평균값으로 투입하였다.

학교수준 변수로는 학교유형이 남녀공학 여부, 학교평균 학업성취, 학교평균 SES, 학교평균 공부시간, 학교평균 운동시간, 학교평균 또래지지 등이 투입되었다. 학교유형은 남녀공학인 경우에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 0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학교평균 학업성취는 학생수준에서 측정한 것을 각 학교별로 평균을 구해 투입하였다. 또한 학교평균 SES는 학생수준에서 측정된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합성지수를 학교수준에서 평균을 구해 사용하였다. 학교평균 공부시간, 학교평균 운동시간, 학교평균 또래지지 역시 학생수준에서 측정된 것을 각 학교별로 평균을 내어 투입하였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데이터(KCYPS)는 확률비례추출법에 따라 표본학교와 표본학급을 추출하는 방

법을 취하고 있어 데이터가 위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가 위계적 특성을 지닌 경우에는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고안된 다층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Raudenbush & Bryk,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층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건강상태 변수는 연속변수이므로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방법 (Hierarchical Linear Modeling)을 사용하고, 비만 여부 변수는 이분형 변수로 되었으므로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HGLM: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s)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건강상태와 비만여부 분석을 위해 사용된 연구모형을 각각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수준 모형 :

$$Y_{ij}(\text{건강상태}) = \beta_{0j} + \beta_{1j}X_{1ij} + \beta_{2j}X_{2ij} + \cdots + \beta_{qj}X_{qij} + r_{ij}(\beta_{qj}, q=0, \cdots, N)$$

2수준 모형 :

$$\beta_{0j} = \gamma_{00} + \gamma_{01}W_{1j} + \gamma_{02}W_{2j} + \cdots + \gamma_{0sq}W_{sqj} + u_{0j}$$

$$\beta_{1j} = \gamma_{10}$$

...

$$\beta_{qj} = \gamma_{q0} (w_s, s=1, \cdots, S_q)$$

1수준 모형 :

$$\eta_{ij}(\text{비만여부}) = \log[P/(1-P)] = \beta_{0j} + \beta_{1j}X_{1ij} + \beta_{2j}X_{2ij} + \cdots + \beta_{qj}X_{qij} (\beta_{qj}, q=0, \cdots, N)$$

2수준 모형 :

$$\beta_{0j} = \gamma_{00} + \gamma_{01}W_{1j} + \gamma_{02}W_{2j} + \cdots + \gamma_{0sq}W_{sqj} + u_{0j}$$

$$\beta_{1j} = \gamma_{10}$$

...

$$\beta_{qj} = \gamma_{q0} (w_s, s=1, \cdots, S_q)$$

종속변수가 건강상태인 연구모형의 1수준 모형 수식에서 Y_{ij} 는 각각 j번째 학교에 있는 i번째 학생의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측정한 중학생의 건강상태를 뜻한다. $X_1, \dots, X_q$ 는 학생 수준에 투입된 독립변수를 의미하고, β_{0j} 는 절편 값을, $\beta_{1j}, \dots, \beta_{qj}$ 는 학생 수준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뜻한다. r_{ij} 는 학생수준 오차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선효과(random effect)로 설정 되었으며, 평균 0과 분산 σ^2 의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한다. 2수준 모형에서는 각 학교 학생들

의 평균 건강상태에 대해 학교수준 변인들의 효과를 추정하게 된다. 학교수준 모형에서 β_{oj} 는 학교마다 변하는 무선효과(random effect)로 설정되었고, 여기에서 γ_{00} 는 건강상태에 대한 전체 학생들의 총 평균값을 나타낸다. 또한 $W_1, \dots, W_{sq}$ 는 학교수준에 투입된 변수를 뜻하고, $\gamma_{01}, \dots, \gamma_{0sq}$ 는 학교수준 변수들이 갖는 효과를 뜻한다. 각 학교수준 변수들의 효과는 고정효과(random effect)로 설정되었으며 u_{oj} 는 평균 0과 2수준 분산 τ_{00} 의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한다. 1수준과 2수준에 투입된 변수들은 더미변수들을 제외하고 모두 전체 평균으로 중심점 교정(grand-mean centering)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비만 여부의 연구모형에서 1수준 모형의 η_{ij} 는 각각 j번째 학교에 있는 i번째 학생의 비만 학생 대상에 해당될 로짓 값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 학생이 비만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에 대해 해당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로짓값(log-odds ratio)을 의미하게 된다. β_{oj} 는 절편 값이며, $X_1, \dots, X_q$ 는 1수준에 투입된 독립변수를, $\beta_{1j}, \dots, \beta_{qj}$ 는 1수준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독립변수의 효과 크기가 0보다 크면 이 변수로 인해 비만 학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수준 모형에서는 학교수준의 변수($W_1, \dots, W_{sq}$)를 투입하여 1수준 모형의 절편(β_{oj})과 독립변수($X_1, \dots, X_q$)가 학교 특성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설명하게 된다. 2수준 모형에서 β_{oj} 는 학교마다 변하는 무선효과(random effect)로 설정되었고, 학생수준 변수들은 고정효과(fixed effect)로 설정되었다. γ_{00} 는 특정 학생이 비만에 해당할 로짓값의 총 평균값을 의미하고 $\gamma_{01}, \dots, \gamma_{0sq}$ 는 학교수준 변수들이 갖는 효과를 뜻한다.

4. 결측치의 처리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들에 투입된 변수들의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을 사용하였다. 분석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에 포함된 결측을 모두 제거한 뒤 분석을 하는 경우 분석 사례수가 감소하게 되어 통계적 검증력이 약화되고 모수 추정에 편향(bias)을 발생시킬 수 있다(Little and Rubin, 2002; Ibrahim, Lipsitz and Chen,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 발생이 임의적(MAR: Missing at Random)이며 이러한 결측 양상을 다른 변수들로부터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을 사용하였으며 5회의 반복을 통해 결측치 대체를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 1>은 다중대체 과정을 거쳐 산출된 5개의 데이터 세트를 바탕으로 산출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정리한 것이다.³⁾

3) 대체로 다중대체 실시 횟수는 3회~10회 정도이며(Barnes, Lindborg and Seaman, 2006), 본 연구에서는 5회 반복을 통해 결측치를 대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개 데이터 세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Peugh and Enders(2004)이 제시한 대체 회수에 따른 결합공식에 따라 도출했다.

표 1 ▶ 투입변수 변수의 기술통계치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건강상태		비만여부	
	3.211	0.631	0.160	0.364
개인수준	N=2116		N=2012	
성별(남학생=1)	0.510	0.500	0.510	0.500
부학력	13.873	2.263	0.910	0.287
모학력	13.385	2.061	2.893	0.631
가구소득	5.800	0.648	2.983	0.530
가족구조(양친부모=1)	0.869	0.340	2.855	0.678
거주지(특별시=1)	0.090	0.285	0.510	0.500
거주지(광역시=1)	0.321	0.468	0.090	0.285
거주지(중소도시=1)	0.449	0.497	0.320	0.468
공부시간	3.147	2.253	0.440	0.497
게임시간	1.790	1.271	13.886	2.240
TV시청시간	1.991	1.252	13.392	2.048
운동시간	1.970	1.337	5.829	0.657
수면시간	8.241	1.032	8.237	1.032
학업성취도	4.028	2.176	4.032	2.165
건강보건활동(참여=1)	0.139	0.343	0.140	0.346
흡연경험(경험=1)	0.061	0.244	0.070	0.248
음주경험(경험=1)	0.070	0.256	0.070	0.259
저체중 여부(저체중=1)	0.049	0.216	·	·
비만 여부(비만=1)	0.149	0.357	·	·
부모지지	3.155	0.554	3.155	0.558
교사지지	2.891	0.632	2.893	0.631
또래지지	3.102	0.514	3.102	0.514
이웃지지	2.634	0.620	2.636	0.623
자존감	2.979	0.527	2.983	0.530
삶의 만족도	2.851	0.677	2.855	0.678
스트레스	2.080	0.646	2.082	0.647
학교수준	N=78		N=78	
학교평균 SES	-0.022	0.446	-0.017	0.449
학교평균 학업성취도	4.053	0.588	4.051	0.603
남녀공학 여부(남녀공학=1)	0.782	0.416	0.782	0.416
학교평균 공부시간	3.127	1.027	3.130	1.039
학교평균 운동시간	1.978	0.584	1.984	0.581
학교평균 또래지지	3.101	0.113	3.102	0.115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인식한 건강상태와 비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총 4단계에 걸쳐 다층 분석 방법을 통해 파악하였다. 먼저 모형 I은 무조건부 모형으로 학교수준의 분산이 유의한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 간에 학생들의 건강상태에 의미 있는 차이가 드러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모형 II는 학생 성별, 부학력, 모학력, 가구소득, 가족구조, 거주지 등 학생의 기본 배경특성과 공부시간, 게임시간, TV시청 시간, 운동시간 수면시간, 흡연경험, 음주경험, 저체중 여부, 비만여부, 학업성취도, 건강보건활동 참여경험 등 학생의 시간활용 및 개인특성에 관련된 변인들이 투입되었다. 모형 III은 학생의 정의적 특성과 학생 주변의 의미 있는 타인들의 사회적 지지가 학생의 건강상태나 비만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모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 이웃지지 등의 변수들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모형 IV에서는 학교수준 변수들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었는데, 학생의 건강상태나 비만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남녀공학 학교여부, 학교 평균 SES, 학교평균 학업성취도 등의 학교관련 기본 배경 변수들과 학교평균 또래지지, 학교평균 공부시간, 학교평균 운동시간 등으로 구성되었다.

1. 중학생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먼저 독립변수를 하나도 투입하지 않은 무조건부 모형을 추정한 모형 I에서 학교수준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의 건강상태에 학교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서 학교수준의 변수를 투입하여 학생의 건강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무조건부 모형에서 학교수준 분산이 총분산의 2% 미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의 건강상태는 대부분 학생 개인수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II에서는 학생 수준의 기본 배경변인과 주요 통제변인들을 투입한 결과, 학생의 게임시간, 운동시간, 수면시간, 학업성취도, 저체중인 경우 등이 건강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비만여부도 미약한 수준에서($p < .10$) 학생의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일일 게임시간이 길수록 중학생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더 취약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교 체육시간에 땀을 흘리면서 운동한 시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수면시간이 길수록 더 건강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 밖에 저체중이 본인의 건강상태에 강력한 부정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 표준 체중 학생에 비해 저체중 학생인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취약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표준 체중에 비해 비만인 경우에도 미미한 수준에서($0p < .10$) 학생의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중학생 시기에 체중의 문제가 본인이 인식하는 건강상태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의 건강상태가 더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대체로 부모의 교육적 관여정도가 높다는 선행연구결과(김경근, 2000; 변수용, 김경근, 2008)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학업성취도가 높은 자녀의 경우 본인의 건강이나 비만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학부모의 관심과 관리가 상대적으로 철저할 가능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학생이 교내외에서 건강보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건강상태에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단위나 기관지원 차원의 학생대상 건강프로그램이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학생의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여 본인이 건강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단계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Ⅲ은 학생의 건강상태가 학생 개인의 정의적 특성이나 주변의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서효정, 2009; 석민현, 오원옥, 2002; 안진상, 김희정, 2013), 본인의 자존감,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정도, 부모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 이웃지지 등의 변수들이 추가되었다. 분석결과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또래지지와 이웃지지가 강할수록 학생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더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시기에는 특히 정서적, 심리적 측면에서 부모보다는 친구나 제 3의 지인에게 더 의존하게 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친구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중학생 시기에는 학생이 긍정적인 교우관계를 맺을수록 또래 친구들과 운동 및 스포츠 활동에 함께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서효정, 2009; 안진상, 김희정, 2013), 자신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들을 억제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또래지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웃지지의 긍정적인 효과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웃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지닌 학생일수록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 주변의 관심을 받게 되고 이러한 관심은 스스로를 건전하고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하게 할 개연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모형Ⅳ에서는 학교수준 변수들이 투입되었는데 이 가운데 학교평균 또래지지가 학생의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평균 또래지지는 전반적으로 친구들 사이의 관계가 친밀한 학교일수록 학생 개인의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협동적이고 신뢰적인 학교분위기는 학생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우리의 교육환경이 입시준비로 인하여 지나친 경쟁적 분위기가 만연해있고, 학교폭력의 문제가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짐작 가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차원에서 학생의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단위에서 건강보건활동을 실효성 있게 개발하는 것 뿐 아니라, 학교 본연의 교육 목표 가운데 하나인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 예체능 활동 및 협동 수업 등을 활성화시켜 협동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의 <표 2>에 상술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표 2 ▶ 중학생의 건강상태 영향요인 분석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절편(전체 평균)	3.211***(.017)	3.188***(.061)	3.214***(.055)	3.232***(.063)
학생수준				
성별(남학생=1)		0.013(.032)	-	-
부학력		0.006(.008)	-	-
모학력		-0.013(.010)	-	-
가구소득		0.005(.037)	-	-
가족구조(양친부모=1)		0.061(.046)	-	-
거주지(특별시=1)		-0.083(.070)	-	-
거주지(광역시=1)		0.013(.046)	-	-
거주지(중소도시=1)		-0.014(.043)	-	-
공부시간		0.004(.007)	-	-
게임시간		-0.025*(.011)	-0.021+ (.011)	-0.022*(.011)
TV시청시간		0.012(.010)	-	-
운동시간		0.062***(.014)	0.043**(.012)	0.045**(.013)
수면시간		0.029*(.014)	0.043(.012)	-
학업성취도		0.014*(.008)	-0.003(.008)	-
건강보건활동(참여=1)		-0.022(.040)	-	-
흡연경험(경험=1)		-0.080(.0640)	-	-
음주경험(경험=1)		0.073(.056)	-	-
저체중 여부(저체중=1)		-0.291***(.075)	-0.272***(.067)	-0.275***(.065)
비만 여부(비만=1)		-0.066+ (.040)	-	-
부모지지			-0.016(.028)	-
교사지지			0.001(.025)	-)
또래지지			0.087*(.036)	0.081*(.037)
이웃지지			0.077**(.022)	0.076**(.022)
자존감			0.146***(.034)	0.148***(.034)
삶의 만족도			0.119***(.025)	0.113***(.024)
스트레스			-0.161***(.021)	-0.164***(.021)
학교수준				
학교평균 SES				0.004(.052)
학교평균 학업성취도				0.042(.034)
남녀공학(남녀공학=1)				-0.024(.024)
학교평균 공부시간				-0.019(.020)
학교평균 운동시간				-0.029(.026)
학교평균 또래지지				0.347*(.166)
분산				
학생 간 분산(σ^2)	0.391	0.379	0.331	0.331
학교 간 분산(τ_{00})	0.007	0.006	0.004	0.003
전체	0.398	0.385	0.335	0.334
급내상관계수(ICC)	0.017	0.016	0.011	0.010
누적된 설명분산(R2)				
학생수준		0.031	0.154	0.155
학교수준		0.096	0.469	0.517
전체		0.0324	0.159	0.161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중학생의 비만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기에서는 중학생의 건강불평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만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비만 가능성 여부로 설정하고 비만이 아닌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삼아 비만인 집단에 배치될 확률을 추정하였다.

먼저 아무런 설명변수도 투입하지 않은 무조건부 모형을 추정한 모형 I에서 학교수준 분산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비만이 아닌 경우 대비 비만일 확률에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서 학교수준의 변수를 투입하여 학생의 비만여부 결정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모형 I 분석 결과 절편이 -1.683 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어떠한 변수도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학생이 비만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비만에 해당할 확률보다 약 5.4배($=\exp(1.683)$)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II에서는 학생 수준의 기본 배경변인과 학생의 개인시간 활용 및 개인특성과 관련한 변수들이 투입되었는데 성별, 가구소득, 게임시간, 수면시간, 학업성취도 등이 비만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비만에 해당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김영호, 2000; 안진상, 김희정, 2013)와 유사한 것으로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모나 신체에 관심이 많고 관리를 할 개연성이 높은 여학생의 비만 확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도 학생이 비만이 될 개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환경의 학생일수록 비만이 아닐 확률에 비해 비만에 해당할 확률이 약 1.3배($=\exp(.241)$)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비만과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들(Gable & Lutz, 2000; Gnani et al., 2000)과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학생이 일상생활에서 보내는 시간 가운데 게임시간은 비만 확률에 정적인 효과를, 수면시간은 부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특정 학생이 게임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비만에 해당할 확률은 약 1.2배($=\exp(.176)$)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수면시간이 충분할수록 학생이 비만에 해당할 개연성은 반대로 약 1.2배($=\exp(.222)$) 정도 낮아졌다. 또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비만일 개연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술한 바와 같이,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학생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종속변수가 비만여부인 경우에서도 학생이 교내외에서 건강보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III에서는 학생의 정의적 특성이나 주변의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관계가 특정 학생의 비만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존감,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정도, 부모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 이웃지지 등의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모형 II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변수들의 영향력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유지되는 가운데 추가로 투

입된 또래지지가 비만여부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수면시간의 영향력은 정의적 특성이나 의미 있는 타인들의 변수들이 추가된 이후 더 강력하게 비만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면시간이 이들 변수들을 매개로 비만 가능성을 낮춘다는 의미로, 추후 이러한 매개변수들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더 상세히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모형에서도 또래지지는 학생의 건강상태와 마찬가지로 비만 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지지가 강할수록 학생이 비만에 해당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미약한 수준($p < .10$)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비만에 해당할 확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 중학생의 비만 여부 영향요인 분석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절편 (전체 평균)	-1.683***(.078)	2.827***(.037)	-2.234***(.277)	-2.36***(.295)
학생수준				
성별(남학생=1)		0.817***(.137)	0.744***(.143)	0.697***(.155)
부학력		0.048(.043)	-	-
모학력		-0.056(.044)	-	-
가구소득		-0.241*(.114)	-0.239*(.114)	-0.241*(.117)
가족구조(양친부모=1)		0.097(.165)	-	-
거주지(특별시=1)		0.228(.371)	-	-
거주지(광역시=1)		-0.172(.237)	-	-
거주지(중소도시=1)		-0.179(.216)	-	-
공부시간		0.025(.037)	-	-
게임시간		0.176*(.059)	0.178*(.061)	0.182**(.060)
TV시청시간		0.028(.048)	-	-
운동시간		0.083(.054)	-	-
수면시간		-0.222*(.067)	-0.230**(.065)	-0.226**(.066)
학업성취도		-0.104**(.031)	-0.107**(.033)	-0.096**(.033)
건강프로그램(참여=1)		0.232(.019)	-	-
흡연경험(경험=1)		-0.443(.272)	-	-
음주경험(경험=1)		-0.331(.306)	-	-
부모지지			0.135(.146)	-
교사지지			0.030(.118)	-
또래지지			-0.371*(.174)	-0.370*(.175)
이웃지지			0.159(.124)	-
자존감			0.223(.164)	-
삶의 만족도			-0.269+ (.159)	-
스트레스			-0.083(.123)	-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학교수준				
학교평균 SES				-0.119(.238)
학교평균 학업성취도				-0.194(.169)
남녀공학(남녀공학=1)				0.177(.142)
학교평균 공부시간				0.090(.124)
학교평균 운동시간				0.143(.131)
학교평균 또래지지				0.050(.795)
학교수준분산(τ_{00})	0.202***	0.120*	0.123*	0.134*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모형IV에서는 학교수준의 변수가 비만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건강상태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수들과 동일한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모형의 학교수준의 변수들 가운데 학생의 비만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수들은 파악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략 다음의 2가지 차원에서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특정 학생이 비만에 해당할 확률은 학교차원보다는 가정차원의 구조적 환경과 학생 개인차원의 특성에 의해 대부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차원에서 학생 개인의 비만 가능성을 상쇄시킬 영향 요인을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로, 서구의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미 학교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 체육관 시설, 체육 활동, 체육 교과 등의 효과가 밝혀졌으나(Blacksher, 2008; Ploeg et al., 2014; Veugelers & Fitzgerald, 2005), 본 분석모형에서는 이러한 학교관련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할 만한 충분한 변수들이 투입되지 못한 한계일 수 있다. 더불어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변수들을 충분히 가용할 수 없는 국내 현실은 작게는 학생의 비만의 문제에서 크게는 학생의 건강불평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그동안 학교차원 및 학계차원의 관심과 해결방안이 충분히 모색되지 않았다는 점도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결과가 <표 3>에 제시되었으며, 분석결과에 대한 상세한 논의 및 시사점은 결론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V. 논의 및 결론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사회의 교육계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해서만 경주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한국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과 대학진학률은 전 세계의 이목을 받을 만큼 성장했으나 성장의 이면에는 교육격차, 학교폭력 및 학생자살, 학생의 도덕성 및 사회성 결여, 학생의 건강불균형 등의 문제들 또한 자리 잡게 되었다. 근래에 들어, 정부차원에서 학생의 문화예술 교육, 체육활동, 인성교육 등을 확대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교육계의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집중된 전면무상급식 실시나 등교시간 조정 등을 둘러싼 논쟁은 학생의 건강불평등과 건강권에 관한 문제를 환기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지나친 교육경쟁과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인해 청소년이 처한 건강 문제나 건강불평등이 초래하는 교육결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육계 및 사회의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층의 학생들은 부모의 지속적인 관여가 어려운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기에 학교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중학생의 건강상태와 비만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개인차원의 구조적 문제를 상쇄할 수 있는 학교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그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학생 개인수준의 변인들 중에서는 건강상태와 비만확률 모두의 경우에서 게임시간과 또래지지의 영향력이 강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게임시간이 많을수록 학생들이 건강상태가 더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만일 확률도 더 높았다. 특히 게임시간은 부모의 관리가 소홀하고 방치된 학생들일수록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차원에서 가정의 협조를 통해 학생들의 게임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래간의 긍정적 관계에 따른 또래지지 역시 특정 학생의 비만 확률을 낮추고 건강상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로 청소년 시기에는 건강의 문제역시 친구가 부모나 교사보다 더 의미 있는 타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또래 간의 격려와 신뢰는 자신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행동을 자제하고 건전한 활동을 통해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시기에 또래 관계의 효과가 발휘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의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는 학교 체육시간 중 땀을 흘리며 운동한 시간이 적을수록, 저체중인 경우에,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이웃지지가 약할수록 학생들이 더 건강상태가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건강상태에는 심리적·정서적 특성과 이웃과 같은 주변의 영향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청소년의 건전한 마음자세와 이웃과의 돈독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비만여부와 관련해서는 남학생인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비만확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선행연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이 자녀의 건강에 부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가정의 구조적 여건으로 인해 학생의 건강이 위협 받고 이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이 저해되지 않도록 학교 및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비만확률이 높다는 결과는 학생들이 가능한 한 적당한 수면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학생의 교내외 건강보건활동 참여경험은 학생의 건강상태나 비만확률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건강관련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현재 실시되는 학생대상 건강관련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킨다거나 비만의 확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학생의 가정환경의 영향력을 상쇄시킬만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차원에서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건강보건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수준에서는 학교평균 또래지지가 학생의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또래 간의 관계가 좋은 학교일수록 학생들이 더욱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비만확률과 관련해서는 학교수준의 어떠한 변인들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차원에서 학생의 건강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 개인수준에서도 또래지지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건강한 학생들과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와 같은 지나친 경쟁적 학교풍토를 개선하고 원만하고 협동적인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학교본연의 과업에 충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학교차원의 학교평균 운동시간이 학생의 건강상태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개인수준에서는 운동시간의 효과가 발휘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학교차원에서 단체로 학년별 또는 학기별로 체육활동 시간을 조절한다거나 늘리는 것보다는 개별 학생들이 모두 충분한 체육활동 시간을 갖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중학교의 교과보충 위주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여 신체활동이나 스포츠 대회 참여기회를 늘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대안들은 교과서열화로 인한 중학교 학생의 학습량과 학습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근래의 교육환경 속에서 이상적인 수사로만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건강의 문제가 인지적·비인지적 교육성취뿐만 아니라, 미래의 궁극적인 삶의 질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원인을 개인 및 학교 수준에서 분석하고 주로 학교 차원에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서는 이를 규명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관련 변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학생의 건강과 관련하여, 학교차원에서 학교유형, 교내 건강보건활동 여부, 체육대회 실시여부, 학교의 체육시설 현황, 무상급식 여부, 등하교 시간, 매점보유 여부 등 여러 요인들이 고려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집하지 않은 2차 자료를 사용한 까닭에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학생의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학교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철저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실, 권인수. (2013). 취약계층 학령전기 아동의 건강상태와 어머니의 아동건강관리실태. **Child Health Nurs Res**, 19(3), 159-167.
- 강영호. (2005).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 현황과 기전.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5, 147-155.
- 경향신문(2010-10-27). “다시 불어난 뚱뚱한 학생들. 저소득 자녀 비만을 더 높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601&artid=201010272155485에서 2014년 5월 27일 인출.
- 경향신문(2014-03-12). “학교 입학과 동시에 놀이터 발길 끊고 못 노는 것 당연히 여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122143245&code=210100에서 2014년 5월 27일 인출.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1). “초·중·고 학생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학교 300개교를 만들니 다. - 교과부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2011. 6. 22.
- 교육부 보도자료. (2014). “ ‘13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 2014. 2. 26.
- 김경근. (200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10(1), 21-40.
- 김명희, 전경자, 서상희. (2011). 아동기의 건강불평등: 사회적 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176, 32-44.
- 김선미, 김춘희. (2006). 사회적 구성으로서 아동의 ‘몸’ 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14(2), 139-159.
- 김세원, 김선숙. (2012). 지역사회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아동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9, 127-150.
- 김영호. (2000). 성과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행동과 건강관련 심리적 변인의 차이. **한국학교체육학회지**, 10, 55-67.
- 김정은. (2008). 초등학교 조손가정 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건강상태와 건강행위 비교. **청소년문화포럼**, 19, 10-44.
- 변수용, 김경근. (2008).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정배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8(1), 39-66.
- 서효정. (2009). 한국 청소년의 건강행동과 사회적 지지.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1), 1237-1258.
- 석민현, 오원옥. (2002). 청소년의 건강상태 설명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3), 493-502.
- 안진상, 김희정. (2013). 아동·청소년의 건강불평등 결정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2), 205-231.
- 양혜경, 김진영. (2014). 학생 비만도 결정요인과 비만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응용경제**, 16(1), 35-64.
- 유조안, Slack, K. S., & Holl, J. L. (2012). The Impact of Material Hardship on Children's Physical Health Trajectories. **한국아동복지학**, 37, 103-137.
- 윤태호, 김준연, 유승흠, 김정민, 이용환, 홍영습, 이상아. (2007).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린이 사망의 연관성. **보건과 사회과학**, 20, 29-46.
- 이상록, 김진희. (2011). 비만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91-117.
- 임희진. (2010). **2009 한국 아동·청소년 비만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학회. (2007). 2007년 한국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주간건강과질병, 1(3). 질병관리본부 웹 사이트

- http://www.cdc.go.kr/CDC/info/CdcKrInfo0301.jsp?menuIds=HOME001-MNU1132-MNU1138-MNU0037-MNU1380&q_type=&year=2008&cid=12103&pageNum=에서 2014년 7월 15일 인출.
- 질병관리본부. (2009). **심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비만관리지표**. 주간건강과질병, 2(39). 질병관리본부 웹사이트
- http://www.cdc.go.kr/CDC/info/CdcKrInfo0301.jsp?menuIds=HOME001-MNU1132-MNU1138-MNU0037-MNU1380&q_type=&year=2009&cid=12345&pageNum=에서 2014년 7월 15일 인출.
- 쿠키뉴스(2011-10-11). “키도 작고 저체중, 빈곤 아동 건강 위협”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5442348&code=11132000>에서 2014년 5월 19일 인출.
- 최필선, 민인식, 김원경. (2009). 청소년기 비만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47(3), 73-92.
- Barnes, S., Lindborg, S., and Seaman, J. (2006). Multiple imputation techniques in small sample clinic trials. *Statistics in Medicine*, 25, 233-245.
- Blacksher, E.(2008). Children’s Health Inequality: Ethical and Political Challenges to Seeking Social Justice. Hastings Center Report. 28-35.
- Burton, L., and Van Heest, J. (2007). The Importance of Physical Activity in Closing the Achievement Gap. *National Association for Kinesiology and Physical Education in High Education*, 59, 212-218.
- Crosnoe, R. (2007). Gender, Obesity, and Education. *Sociology of Education*, 80(July), 241-260.
- Datar, A., Sturm, R., and Magnabosco, J. (2004). Childhood Overweight and Academic Performance: National Study of Kindergartners and First-Graders. *Obesity Research*, 12(1), 58-68.
- Gable, S. & Lutz, S.(2000). Household, Parent, and Child Contributions to Childhood Obesity. *Family Relations*, 49(3), 293-300.
- Gnani, R., Spagnoli, T., Galotto, C., Pugliese, E., Carta, A., and Cesari, L. (2000). Socioeconomic Status, Overweight and Obesity in Prepuberal Children: A Study in an Area of Northern Italy. *European Journal of Epidemiology*, 16(9), 797-803.
- Gurley-Calvez, T. & Higginbotham, A. (2010). Childhood Obesity,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Expenditures. *Public Finance Review*, 38(5), 619-646.
- Ibrahim, J., Lipsitz, S., and Chen, M. (1999). Missing Covariates in Generalized Linear Models When the Missing Data Mechanism is Non-ignorable.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61(1), 173-190.
- Kristjánsson, A., Sigfúsdóttir, I., and Allegrante, J. (2010). Health Behavior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Adolescents: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Dietary Habits, Physical Activity, Body. *Health Education & Behavior*, 37(1), 51-64.
- Little, R., and Rubin, D.(2002). *Statistical analysis with missing data*(2nd ed.). NJ.: Wiley.
- Laitinen, J., Power, C., Ek, E., Sovio, U., and Jarvelin, MR. (2002). Unemployment and obesity among young adults in a northern Finland 1966 birth cohort.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and Related Metabolic Disorders*, 26(10), 1329-1338.
- Lucht, F., and Groothoff, J. (1995). Social Inequalities and Health Among Children Aged 10-11 In The Netherlands: Cause and Consequences. *Social Science & Medicine*, 40(9), 1305-1311.
- Olson, M., Diekema, D., Elliott, B., and Renier, C. (2010). Impact of Income and Income Inequality on

- Infant Health Outcomes in the United States. *PEDIATRICS*, 126(6), 1165-1173.
- Peugh, J., and Enders, C. (2004). Missing data in educational research: A review of reporting practice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4(4), 525-556.
- Pike, J., and Colquhoun, D.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and Place: The Role of School Meals in Addressing Health Inequality. *Health Sociology Review*, 18(1), 50-60.
- Ploeg, K., Maximova, K., McGavock, J., Davis, W., and Veugelers, P. (2014). Do School-based physical activity interventions increase or reduce inequalities in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112, 80-87.
- Raudenbush, S., and Bryk, A.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Ritchie, J.(2014). Why should we all focus on health inequalities in the foetus and early childhood? *Royal Society for Public Health*, 134(2), 78-80.
- Sigfúsdóttir, I., Kristjánsson, A., and Allegrante, J.(2007). Health Behavior and Academic Achievement in Icelandic School Children. *Health Education Research*. 22(1), 70-80.
- Taras, H., and Potts-Datema, W. (2005). Obesity and Student Performance at School. *Journal of School Health*. 75(8), 291-295.
- Veugelers, P., and Fitzgerald, A. L. (2005). Prevalence of and Risk Factors for Childhood Overweight and Obesity.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73(6), 607-613.

Exploration of variables on the effect of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over three years

Hye-Sook Park*

국문초록

중학생의 공동체意識이 3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 2010 패널을 사용하였다. 다집단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종속변인인 공동체意識이 3년 동안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확인한 후, 2수준 다층성장모형을 사용하여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기초성장모형의 결과, 공동체意識이 선형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변화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인차는 없었으며, 변화율에 있어서도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수준 변수 중 체험학습만족을 제외하고, 이웃(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체험학습 수, 동아리활동에 대한 만족과 규칙준수, 그리고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 변수는 공동체意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2수준 변수 중 여학생, 여학교(남녀공학 비교그룹), 그리고 독서시간, 연간가구소득은 공동체意識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나, 사교육시간, 거주지(도시), 그리고 남학교(남녀공학 비교그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공동체意識 함양을 위한 제언이 있었다.

주제어: 공동체意識,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다층성장모형, 체험학습, 동아리활동

I. Purpose

Sense of community is a shared feeling or faith that members matter to one another and to the group and that members' needs will be met through their commitment to one another (McMillan & Shavis, 1986). According to Ha (1995), due to urbanization and nuclear families formed via rapid industrialization in Korea, social cohesiveness in Korea was rapidly weakened and a trend of individualism appeared in Korean society.

At the local level, people who have high sense of community have greater feelings of safety and security,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community affairs, and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volunteer activities (Schweizer, 1996). The sense of community is also positively related to the individual's sense of well-being and self-efficacy, and negatively related to worrying (Davidson & Cotter, 1991). The recent Sewol ferry incident demonstrates how a lack or absence of a sense of community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on the part of the captain and the owner

* 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조교수 parkhyes@honam.ac.kr

of the ferry caused disaster to those people in the ship and to Korean society. According to Bachrach and Zutra (1985), people with a stronger sense of community display problem-focused coping behaviors, behaviors that directly attempt to alter or counteract the threat, by displaying commitment to a neighborhood.

With the advent of globaliza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ransportation, Korea became multicultural society with the inflow of many people from diverse countries. Because of this, sense of community is felt more important in Korea than the previous era. In the information era of the 21st century, in defining sense of community, people put more emphasis on social interaction, collegiality, and networking than on sharing of proximity which was emphasized in the previous era (Kim & Ahn, 2012). In this aspect, sense of community has emotional dimensions which take on belongingness, cohesiveness, mutual devotion, and commitment. At the same time, it is a practical concept that predicts the participation of members for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Park, K., 2009; cited in Kim, S., 2012).

Sense of community is also considered a subcategory of citizenship or civic competency. Civic competency is one of the major competencies that many OECD countries advocate along with number, problem solving, and communication competencies, self-regulated learning skills, and the ability to utilize information (Kim A. et al, 2003). Sense of community is even considered one indicator, representing a country's development of civic engagement (Kim, T, et al., 2003). Civic engagement is defined as "Individual and collective actions designed to identify and address issues of public concern". It can be summarized as a means of working together to make a difference in the civil life of one's communities and developing the combination of skills, knowledge, values, and motivation in order to make that difference. It means promoting the quality of life in a community, through both political and non-political processes (APA, 2012).

Although sense of community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etencies for people living in the globalized society, Korean teachers and parents do not pay much attention to the building and fostering of Korean adolescents' citizenship and sense of community compared to their attention to academic achievement.

Adolescence is the period for acquiring/developing competencies for future life. During this period, adolescents also develop social identity via close ties to the society in which they belong (Kim, U., 2012). In the Korean education system, the development of affective domain of Korean adolescents has not been very much emphasized. Not many research studies have investigated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and even fewer have investigated whether or not their level of sense of community changes during adolescence. However, studies show that

adolescents' level of sense of community is also associated with their level of social maturation (Kim & You, 2009) and their participation in society (Lee I., 2013). It also explains adolescents' level of isolation (Pretty, Andrews, & Collette, 1994). It is reported that those who have higher sense of community have higher academic motivation and a low school absence rate. Sense of community is also related to colleg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Choi & Moon, 2013; Pretty, 1990). Studies also show that sense of community is associated with high level of adaptation to school life (Cho, B., 2007; Cho, S., 2007), with high level of school satisfaction (Ekstrom, Goertz, Pollack, & Rock, 1986), and with satisfaction with life (Albanesi, Cicognani, & Zani, 2007).

This study investigates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sense of community over three time points and aim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1. What is the level of middle school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2. Does students' sense of community change over time as they advance?
3. Are time varying variables, such as perception of neighborhood, satisfaction with extra-curricular activities, number of field study experiences, satisfaction with field study experience, observance of school regulation, relationships with teachers and peers,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sense of community?
4. Are adolescents' gender, location of residence (urban vs. rural), type of school (male only, female only, or coed) and family income, hours spent for leisure reading, and hours spent for private education during the 1st year of middle school related to their sense of community?

II. Literature Review

1. Sense of Community and Civic Engagement

A Sense of community is an attitude which contributes to the benefit of the community based on belongingness to and relationships among community membership (McMillan & Chavis, 1986). Specifically it consists of four elements such as membership, influence, 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and shared emotional connection.

Civic engagement is related to responsibilities, duties, and rights accompanying the position of citizenship or civic consciousness, and it comprises qualification, consciousness, and behavior accompanying citizenship (Kim, 2012). According to DESECO project and IEA, civic

engagement includes knowledge, conceptual understanding, communicative skills and problem solving skills, attitude, and behavior (www.oecd.org/edu/statistics/deseco; Kim, 2010). In the aspect of content, citizenship comprises sense of community. A sense of community, along with participation in political activity, and observance of laws and regulation, is a subcomponent of citizenship. Citizenship is associated with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and parental education (Bonnes, Bonaiuto & Ercolani, 1991). Students with higher parental education also demonstrate higher levels of civic engagement (Kim, et al., 2010). However, others indicate that the less educated also show a higher sense of community (Buckner, 1998). Positive relationship with peers is related to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citizenship. Positive interaction with peers promotes trust and sense of community in general social relations (Kim, S., et al., 2012; Kim, 2012). Through relationship with peers, adolescents learn and practice social skills (Wentzel & McNamara, 1999). Democratic citizenship is formed from early childhood. However, an appropriate and adequate establishment of civic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is neither well structured nor heavily practiced in Korean society. As a result, the immaturity of citizenship and confusion of value system via rapid industrialization from traditional society to urbanization occurred.

2. Extra-curricular activity, field study experience, and sense of community

In the 7th revised Korean national curriculum (2009), democratic citizenship, creativity, and character development were emphasized. Participation in real life activities is emphasized for character development and enhancing problem solving skills and understanding the world of works. Extra-curricular or co-curricular activities are institutions organized and run by adolescents themselves. They are basically intended for youths to develop a desirable value system, open-mindedness, and self-actualization based on trust among the group members. As a leisure time activity which puts emphasis on autonomy, action, and creativeness, extra-curricular or co-curricular activities are valued. The revised 7th educational curriculum comprises self-governing activities, service learning activities and various event related-activities (Kim Jungju, 2003). Extra-curricular or co-curricular activity has the characteristics of leisure time activity and connects adolescents to local community. With developed skills and competences via extra-curricular or co-curricular activities, adolescents contribute to local government by suggesting ideas on current local issues, participating in the activity or volunteering to improve community environment. By forming relations with peers of similar age, they develop new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and learn new behaviors related to new positions or roles. Through this type of participation, adolescents share common experiences,

values, and social skills and strategies.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social activitie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enhance citizenship (Hur I., & Lee, 2004; Youniss & Reinders, 2006). Participation in a society enhances citizenship by the mediation of social participation consciousness and self-awareness. However, it was reported that the effect of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on the sense of community is minimal (Cha, 2006).

According to Kim.S. and An. J. (2012), quality of participation reflected in the satisfaction with the activity, rather than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the volunteer activity, is mo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sense of community. This study investigates not only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but also the effect of satisfaction with the participation in field-based learning activitie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level of sense of community along with the satisfaction with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3. Relationship between peers, teachers, and observation of school regulation

Studies have shown that those who are satisfied with the relationship with peers experience high levels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Ma & Hubner, 2008). With high peer support, maladaptive and immature behavior such as level of anxiety and social withdrawal decreased (Yu & Han, 1996). Those who quit school are more likely to have experienced isolation from peers, or associated with or influenced by other adolescents who have also dropped out from schools (Parker & Asher, 1987). Cohesiveness with peers attending the same school enhances attachment to school,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would decrease the possibility of being dropped from schools and involved in juvenile delinquency. In addition,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peers, peer group would exert both positive or negative effect (Berndt, 1992; Park & Kim, 2014).

The peer group of adolescents provides unique satisfaction with life and support for their members, and it also reduces insecure feelings about themselves. In addition, through peer interactions, adolescents learn about behavior regulation and values, which in turn influences adolescents' sense of identity. In addition,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ir teachers enhances emotional attachment and raises satisfaction with and attachment to school (Baker, 1999; Hallinan, 2008). Specifically the relations with teachers are more beneficial to those students who face problems with school adaptation and those from low socio-economic status (Stanton-Salaza, 2001). As a mechanism to enhance attachment toward schools or to enhance sense of community, positive relationship with teachers evidenced by teachers' care, respect for adolescents, and good feedback is more effective than the relationship with peers and other

school- related variables (Stanton-Salaza, 2001)

With regard to high school students' school satisfaction, the effect of students' relationship with teachers is more beneficial than that of either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or with their friends/peers. Kim, D. & Kim, J. (2011) found that when the level of sense of community is high, the relationships with teachers or peers are also good, and students exert more efforts and observe school regulations well. Sense of community directly influences adaption to school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in turn influences their observance of school regulations (Choi, H.I, 2013).

4. The effects of reading and other variables

The amount of reading is also associated positively with world knowledge, academic achievement,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employment status. Through reading, adolescents acquire knowledge about the world and social values. Students learn not only about their own culture but also about other cultures. In addition, via reading, adolescents are able to take different perspectives and develop a capacity to understand other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Yokota (2008) suggests literature as a means to enhance children's capacity to understand others, take different perspectives, and develop sense of community.

According to Obst et al. (2002), sense of community is also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area, i.e., urban vs. rural area. In this study information of school locations is included to investigate whether it is related to middle school students' level of sense of community.

5. Gender difference

There exists gender difference in students' utilization of time (Hilbrecht, Zuzaneck, Mannell, 2008; Nam, K., 2008; Paek, P. & Hwang, Y., 2011) and in the level of sense of community (Buckner, 1988; Davidson, Cotter, & Stovall, 1991). Female college students have higher level of sense of community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Cha, 2006). In this study, gender was investigated not only as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but also as a group characteristic (male only school, female only school, coed schools).

6. Family income

Family economic status is related to educational inequality and reproduction of poverty, and it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related to social problems and issues (Beblo & Laer, 2004). Parents' level of education and economic status were associated with types of leisure activities: It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more consumptive and entertainment-oriented leisure activities (Seo, 2007). Family economic asset affords students' learning opportunities such as learning materials, private education opportunities, and opportunities of moving to a better educational district, which in turn influence their cognitive, affective and academic achievement (Duncan & Brooks-Gunn, 2000). Parents who have higher income provide more supportive academic environment and their expectation for their children is high, while those economically disadvantaged families are burdened with living expenses, and thus are not capable of supporting their children well enough (Chu & Im, 2007).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is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ir children's level of civic knowledge (Kim T.et al., 2010) and level of citizenship (Kim, W., 2012).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not only influences directly their children's sense of community, but also affects their level of citizenship indirectly via their support for the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and other school activities, which help raising their children's social efficacy and competency.

In this study, family average annual income was controlled because it may be associated with both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private education and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nd field study experience, which may also be related to their level of sense of community (Kim, W., 2012).

III. Methods of Analysis

1. Subjects.

A middle school student cohort of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2010 (KCYP2010) was used to investigate middle school students' level of sense of community over three years. Two thousand three hundred fifty one (2,351)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in 2010. Among them, there were 1,176 male(50%) and 1,175 female(50%) students.

2. Analysis

In this study both multiple 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a two level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were used. In KCYP, there are four items related to sense of community, such as “I am able to help friends facing difficulties; I am able to volunteer for community welfare center; I am able to donate some money for people in economically disadvantaged countries.” In order to check whether these four items were considered as one factor representing sense of community and also was interpreted in the same way by the survey participants over three time points, multiple 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used. For multiple 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figuration, and metric invariance was checked. After identifying that all items are interpreted in the same way over the three time points, the mean of the four items wa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A two-level hierarchical linear model was utilized to investigate the pattern of change and how other variables are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sense of community. In addition,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Cronbach’s alpha) was checked when items were aggregated for the construction of new variables.

1) Multiple 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s a fit statistics for multiple group confirmatory analysis, TLI and RMSEA of each model were checked. If TLI is over 0.9 and RMSEA is less than 0.05, the model is considered as a fitted model (Hong, S.H., 2000).

2) Hierarchical (Multilevel) growth modeling

A two level growth modeling was used. At level 1, time varying variables such as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field study, satisfaction with field study experience, satisfaction with extra-curricular activity, relationship with teacher, relationship with peers, and observance of school regulation were used. At level 2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type of school, 1st year family annual income during middle school, hours spent for private education, and hours spent for leisure reading were included as level 2 predictors. With this model, the correlation between intercept (the initial time point) and rate of growth was also investigated. In this study, all variables were grandmean-centered except for gender and linear effect of time. In investigating school effect, coed school was used as a reference group.

To investigate the linear effect of time (rate of growth), 1st year was coded as 0, and the second year as 1, the third year as 2. Missing data was imputed by using NORM V.2.03 (Schafer, 2000) to prevent the loss of cases. Intercept in this group is interpreted as the value of the level of sense of community at the 1st year in the middle school when the value of

each variable is the same as the grandmean of the variable.

Level-1 Model

$$Y_{ti} = \mu_i + P_{1i}(\text{time})_{ti} + P_{2i}(\text{perception of neighborhood})_{ti} \\ + P_{3i}(\text{number of field study})_{ti} + P_{4i}(\text{satisfaction with field study})_{ti} \\ + P_{5i}(\text{satisfaction with extracurricular activity})_{ti} + P_{6i}(\text{school regulation})_{ti} \\ + P_{7i}(\text{relationship with teacher})_{ti} + P_{8i}(\text{relationship with peers})_{ti} + e_{ti} \sim N(0, \sigma^2)$$

Level-2 Model

$$\mu_i = \beta_{00} + \beta_{01}(\text{city})_i + \beta_{02}(\text{gender})_i + \beta_{03}(\text{male only school})_i \\ + \beta_{04}(\text{female only school})_i + \beta_{05}(\text{sq\_family income})_i \\ + \beta_{06}(\text{hrs spent for private education})_i + \gamma_{0i}$$

$$P_{1i} = \beta_{10} + \beta_{11}(\text{gender})_i$$

;

$$P_{7i} = \beta_{70}, \gamma_{0i} \sim N(0, \tau)$$

Figure 1. Two Level Growth Model

IV. Results

Table 1 shows descriptive statistics before multiple imputations was conducted. All variables used in the model satisfied normality assumption. Because of this reason, the result of the robust HLM outcome was the same as that of the regular fixed effect outcomes. Reliability reflected in Cronbach's alpha was within acceptable range, from 0.603 to 0.841 (See Table 1 also).

table 1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Cronbach's alpha) of college experience survey

Variables	n	middle1	middle 2	middle3
sense of community	4	0.732	0.774	0.815
perceptions of neighborhood	5	0.774	0.814	0.815
school regulation	5	0.708	0.790	0.789
teacher relationship	5	0.827	0.835	0.841
peer relationship	4	0.603	0.686	0.689

1. Multiple 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4 items related to sense of community was identified as one factor each year. Cronbach's alpha of the sense of community scale each year was 0.732, 0.774, 0.815 respectively. However, it was also possible to divide the four items into two factors which consist of two items each: The first factor, with item ① If I have a friend who are in need, I will actively help him/her item ② Even if I may sacrifice my holidays, I will volunteer to work at a community center. The other factor with item ③ I am able to willingly donate money for people in poor countries. And item ④ I will willingly participate in saving resource and energy, separating garbage collection, and recycling projects in order to make our planet sustainable. However, in order to tap whether sense of community is interpreted in the same way over the three years by the same students, multiple 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able 3 shows the results. The comparison of the two models, one composed of two factors, each with two items respectively, and the other model, one factor model, composed of four items, showed that one factor model with four items fits better.

After adopting one factor model, a model constraining each factor loading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non-constrained model. The results of the model fit did not deteriorate compared to the unconstrained model. Thus metric invariance assumption was met. Cronbach's alpha coefficient was better with one factor model composed of four variables. Because of this, in this study one factor model was used. The mean of the four items wa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See Table 2.

table 2 Model comparison: multiple 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χ^2	df	TLI	RMSEA
Configuration model (1factor)	131.912	6	0.913	0.055
configuration model (2 factors)	67.3	3	0.911	0.055
metric invariance model 2	142.90	10	0.945	0.043

2. Multilevel growth modeling

Since the item scores and time varying child characteristics are nested within an individual child, time varying variables were used for level 1 and variables that reflect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variables obtained during the first year (y1) were used for the level 2 model.

The result of unconditional model shows that 69.5% of the total variance is at level 1, which indicates that much of the variance ar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ime. The basic growth

model shows positive linear effect. The change over time was consistently increasing ($b=0.018$), even though the year 2 average was lower than that of year 1. Middle school students' level of sense of community were 2.76, 2.72, and 2.83 respectively at 3 time points. (See Table 3). However, in the rate of change, the random effect was not significant, which means that there does not exist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vidual differences in rate of change in the level of sense of community (Table 4).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time point and the rate of change was negative, which means that students whose levels of sense of community are high, the rate of change is low. That is to say, those who had high level of sense of community at the beginning, their change was not much increased compared to those with lower level of sense of community at the 1st year. It may be due to the ceiling effect at the first time point.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N	Min	max	mean	SD	skew	kurtosis
hrs for readingy1	2322	0.00	840.00	86.23	87.52	1.98	6.90
hrs for reading y2	2254	0.00	740.00	79.92	86.83	2.16	8.44
hrs for readingy3	2216	0.00	780.00	65.45	82.88	2.45	10.15
number of field studyy1	2350	0.00	9.00	2.40	1.79	0.87	0.80
number of field studyy2	2278	0.00	9.00	1.60	1.72	1.55	2.88
number of field study y3	2231	0.00	9.00	1.53	1.63	1.66	3.47
satisfaction of field study 1	2028	1.00	4.00	3.12	0.57	-0.71	1.55
satisfaction of field study y2	1578	1.00	4.00	3.16	0.56	-0.58	1.59
satisfaction of field study y3	1554	1.00	4.00	1.82	0.57	0.54	1.08
extracurricular satisfaction y1	776	1.00	4.00	3.23	0.72	-0.81	0.71
extracurricular satisfaction y2	815	1.00	4.00	3.19	0.74	-0.79	0.66
extracurricular satisfaction Y3	824	1.00	4.00	3.19	0.72	-0.79	0.79
relation with teacher y1	2350	1.00	4.00	2.71	0.67	-0.16	-0.12
Relation with teachery2	2280	1.00	4.00	2.87	0.65	-0.15	0.00
relation with teachery3	2259	1.00	4.00	2.89	0.63	-0.13	0.06
peer relationsy1	2350	1.00	4.00	2.99	0.41	-0.17	0.81
peer relationsy2	2280	1.60	4.00	3.02	0.41	-0.11	0.31
peer relationsy3	2259	1.40	4.00	3.07	0.39	-0.03	0.51
school regulation y1	2351	1.00	4.00	2.76	0.49	-0.14	0.61
school regulation y2	2280	1.00	4.00	2.79	0.56	-0.12	0.64
school regulation y3	2259	1.00	4.00	2.86	0.54	-0.13	0.85
perception of neighbors y1	2348	1.00	4.00	2.83	0.57	-0.06	-0.07

perception of neighbors y2	2280	1.00	4.00	2.75	0.54	-0.04	0.05
perception of neighbors y3	2257	1.17	4.00	2.72	0.53	-0.01	0.38
sense of communityY1	2350	1.00	4.00	2.76	0.60	-0.09	0.24
sense of communityy2	2280	1.00	4.00	2.72	0.60	-0.15	0.53
sense of community y3	2257	1.00	4.00	2.83	0.60	-0.16	0.50
private educationy1	2318	0.00	840.00	168.92	150.75	1.03	1.20
private educationy2	2248	0.00	900.00	145.82	132.72	1.10	1.86
private educationy3	2233	0.00	960.00	121.65	128.12	1.41	2.94
sq_family1	2219	0.00	173.21	62.90	20.20	0.52	1.82
cityy1	2351	0.00	1.00	0.86	0.35	-2.04	2.15
gender y1	2351	0.00	1.00	0.50	0.50	0.00	-2.00
male only schooly1	2351	0.00	1.00	0.10	0.31	2.59	4.69
female only school y1	2351	0.00	1.00	0.12	0.33	2.29	3.26

table 4 Linear Effect

Fixed Effect	Variable	<i>b</i>	<i>SE</i>	<i>df</i>	<i>p</i>
	Level-1 intercept(B00)	2.862	0.013	2350	0.000
	TimeIn(B10)	0.018	0.008	2350	0.024
		SD	Variance	<i>df</i>	<i>p</i>
Random Effect	Level intercept (R0)	0.381	0.145	2350	0.000
	TimeIn(R1)	0.007	0.006	2350	0.086
	L-1 random effect	0.533	0.285		

In the final model, except for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participation in field studies, all the level 1 variables, such as perception of neighborhood, frequency of field study participation, satisfaction with field studies, satisfaction with extra-curricular activities, observance of school regulation,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relationship with pee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e effect of gender in predicting rate of growth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the level 2 variables, the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was higher with females, female only school, time spent for leisure reading respectively, than that with male students, those in coed schools, and students from low income household. However, these effects were very small (See Table 5). The level 1 intercept random effec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ch means that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effect of gender, types of schools, hours spent for leisure reading, and private educatio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vidual difference (See Table 6).

table 5 ▶ HLM Final Model

Variable	<i>b</i>	<i>SE</i>	<i>df</i>	<i>p</i>	<i>β</i>
Intercept	2.864	0.027	2212	0.000	
city	0.012	0.024	2212	0.633	0.000
gender	-0.049	0.025	2212	0.046	-0.002
male only school	-0.033	0.030	2212	0.312	-0.001
female only school	0.109	0.025	2212	0.000	0.004
Sq_income	0.001	0.000	2212	0.002	0.000
hours spent for private education	0.000	0.000	2212	0.974	0.000
time linear	0.029	0.013	6641	0.022	0.001
male	-0.011	0.015	6641	0.492	0.000
perception of neighborhood	0.242	0.014	6641	0.000	0.005
frequency of field study	0.019	0.004	6641	0.000	0.000
Satisfaction with field studies	0.018	0.011	6641	0.080	0.000
Satisfaction with extra curricular activities	0.053	0.009	6641	0.000	0.001
Regulation of schools	0.167	0.014	6641	0.000	0.004
Relationship with teachers	0.109	0.012	6641	0.009	0.002
Relationship with peers	0.154	0.018	6641	0.000	0.004

table 6 ▶ Final random effect

Random Effect	Variable	Variance	<i>df</i>	χ^2	<i>p</i>
	Intercept(R0)	0.062	2212	3756.09	0.000
	L-1, E	0.264			

V. Summary and Discussion

Using the KCYPS2010 middle school student cohort,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and how middle school students' level of sense of community changes over three time points. If it changes, what factors are associated with the change. Since the major dependent variable, sense of community was constructed using four items, in order to investigate whether the sense of community was interpreted in the same way over three time points, a multiple 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four items. It turned out to be one factory and also satisfied the configuration and metric invariance assumptions. The items were interpreted in the same way over three different time points.

Sense of community was considered as time vary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along with other time varying variables, which are nested within individuals (Level 1). They were used for level 1. Unchanging or information obtained at one time point and gender was used at level

2 in the hierarchical (multilevel) growth model. The change in the sense of community over three years was small, but the basic growth model showed linear effect (consistent positive change) over three years although the mean of year 2 is lower than that of year 1. This result may be partly caused by the artifact of growth modeling. Because only three time point data are available in this study, in growth modeling no quadratic term is used. There were no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rate of change. The effect of gender in predicting rate of growth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ither. In predicting the mean of the first year of sense of community, except for the satisfaction with field studies, satisfaction with extra-curricular activities, observance of school regulation,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relationship with peers (classmat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the level 2 variables, the level of sense of community was higher with female, female only schools, students with higher leisure reading time, students from higher family income respectively than that of male students, coed schools, students with low leisure reading time, and students from low income family. However, these effects were very small. Location of residence i.e., city versus others and hours spent for private education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is not known clearly why the female only schools and females are higher in the level of sense of community. It is likely that females put more emphasis on human relationship than males. They value relationships more than males do. Because of this, female's level of sense of community might be higher than the male's. Participation in different types of field studies may broaden the students' perspectives and raise their level of sense of community. However, the effect size of each coefficient was small with the KCYP2010 data. The researcher conjectures that the small practical effect size might be also caused by the small variance of four point Likert scale. Future researchers should investigate this phenomenon more in depth. In addition, the fact that a sense of community taps attitude, which may not undergo remarkable change during middle school years, might help explain the small change in the rate of growth. Because of this reason, in spite of using satisfaction with participation with field study experience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a qualitative indicator of measuring both the effect of field study experiences and that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e effect sizes were not so great. However, despite the small effect size of these nonacademic variables, in Korean educational environment where people put so much emphasis on academic achievement, promoting sense of community with teenagers is possible by creating opportunities for them to participate in field study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As was suggested by Kim W et al. (2012), sense of community is promoted by participation in diverse activities and by forming positive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which in turn affects participation in society.

Although the eff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and teacher and that between students and with their peers, were not so big, promoting positive relationship of teenagers with

teachers and peers would enhance a sense of community. The positive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peers contribute to even reducing juvenile delinquency (Park & Kim, 2014). The change in the sense of community was not so great over time, and so the effect of predicting the level of sense of community over three years was not so great.

In order to understand whether this kind of small change is ascribable to the cohort effect or not, comparison using different age groups such as high school student cohort or elementary school cohort would help in understanding change of attitude of teenagers over time. However, in spite of small variance, there still exists level 1 intercept random effect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effect of variables used in the model. This suggests some possibility of utilizing more meaningful variables in the future.

However,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related to construct-related validity: Only 4 items were used for the construct, a sense of community, it might not have covered wide spectrum of sense of community. In addition, low variance in the sense of community over three years may also be ascribable to utilizing the mean of the four point Likert scale. However, since this study utilized national data, the results can be generalizable across middle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Reference

- Albaneisi, C., Cicognani, E., & Zani, B. (2007). Sense of community, civic engagement, and social well-being in Italian Adolescents.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7, 387-406.
- APA (2012). *Civic engagement*.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Retrieved 24 Aug 2012).
- Bachrach, K. M., & Zutra, A. (1985). Coping with a community stressor: The threat of a hazardous waste facil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6, 127-141.
- Baker, J. A. (1999). Teacher-student interaction in urban at-risk classroom: Differential behavior, relationship quality, and student satisfaction with school. *Elementary School Journal*, 100, 57-70.
- Beblo & Laer, (2004). Do family resources matter? Educational attainment during transition in Poland. *Economics of Transition*, 12(3), 537-558.
- Berndt, T. I. (1992). Friendship and friends' influence in adolescen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5), 156-159.
- Bonnes, M., Bonaiuto, M., & Ercolani, A. (1991). Crowding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in the urban environment: A contextual approach. *Environment and Behavior*, 23, 531-552.
- Buckner, J. (1988).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neighborhood cohes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 771-791.
- Cha, D (2006). Collegiates' sense of community in relations to college-related
- Choi, H., & Moon, Y. (2013).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45, 189-209

- Choo, S. Y. & Lim, S. M.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ucture and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income and parental involvemen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tudent's procrastina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1(3), 497-512. .
- Davidson, W., Cotter, P., & Stovall, J. (1991). Social dispos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ense of community. *Psychological Reports*, 68, 817-818.
- Duncan, G. J., & Brooks-Gunn, J. (2000). Family poverty, welfare reform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1(1), 188-196.
- Ekstorom, R. B., Goertz, M. E., Pollack, J. M., & Rock, D. A. (1986). Who drops out of high school and why? Findings from a national study. *Teachers College Record*, 87, 356-373.
- Ha, S., Kim, J.I., & Koo, B.Y. (1995). Citizen participation on community activities and neighborhood planning,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7(1), 73-89.
- Han, M., & Yoo, A. (1996). The relation of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to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7(1), 173-188.
- Heo, I.S., & Lee, J. H. (2004). The study on adolescences'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citizenship formation. *Studies on Korean Youth*, 15(2), 443-472.
- Hilbrecht, M., Zuzanek, J. Mannell, R. C. (2008). Time use, time pressure, and gendered behavior in early and late adolescence. *Sex Roles*, 58, 342-357.
- Hillman, M. T. (2008). Teacher influences on students' attachment to school. *Sociology of Education*, 81, 271-283.
- Hong, S.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 (1), 161-177.
- Jo, S. (2007). *The relationship of community consciousness with school adjustment of Korean Elementary student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Kim, D. H., & Kim, J.H. (2011). Relations and student's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5 (4), 128-168
- Kim, J., Kim Y., & Sung, K (2003). *Research on Current situation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local Community and ways to support the activities* (Research Paper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03-R06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1), 13
- Kim, J-H. & Yoo, H (2009). The Same Age Relationship of the Young People Swim Classroom Participant Affects in Community Spirit and Social Maturity Degree. *Korea Journal of Sports and Leisure Studies*, 35(1), 609-619.
- Kim, S. S. & Ahn, J. (2012). The effects of adolescents' volunteer activities on their sense of community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and peer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5(1), 339-363.
- Kim, T., Kim, A, Kim, N., Lee, B., & Han, J. (2003). *The study of measuring citizenship for developing social capital*. KEDI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PR2003-15-1).
- Kim, T., Kim, Jun, I., Byun, J., Jang, H., Ban, J, & Cho, Y., (2010).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Korean Adolescents' Civic Competencies: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Civic & Citizenship*

- Education Study(ICCIS)*. Seoul Korea: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Kim, W-J. (2012). The effect of family background and school experience on the formation of citizenship during adolescence. *Studies on Korean youth*, 23(1), 201-222.
- Ma, C. Q., & Hubner, E. S.(2008). Attachment relationship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Some relationship matter more to girls than boys. *Psychology in the School*, 45(2), 177-190.
- McMillan D. W., & S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 McMillan, D. W. (1996).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 Obst, P. smith, S. G. Zinkiewicz, L. (2001).. An exploration of sense of community, Part3: Dimensions and predictors of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n geographical communiti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1), 119-133.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Pretty, G. (1990). Rating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to social climate characteristic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16-65.
- Pretty, M. H. Andrew, L., & Collet, C. (1994). Exploring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and its relationship to lonelines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2, 346-358.
- Psychology, 24(4), 315-325.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Rychen, D.S., & Salganik L.H. (eds.)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2001)
(<http://www.oecd.org/edu/statistics/deseco>)
- Schafer, J. L. (2000). NORM(software). <http://sites.stat.psu.edu/~jls/misoftwa.html>
(retrieved June, 2009).
- Seo, U.(2007) *Impacts of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s on the Leisure Activities of the Youth*, Studies on Korean Youth, Vol.18 No.1, 273-302
- Stanton-Salazar, R. D. (2001). *Manufacturing hope and despair: The school and kin support networks of U.S.-Mexican Youth*.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Torney-Purta, J., Lehmann, R., Oswald, H., & Schulz, W(2001). *Citizenship and education in twenty eight countries: Civic knowledge and engagement at age fourteen*. Amsterdam, Netherlands: IEA.
- Torney-Purta, J., Schwille, J., & Amadeo, J.(1999). *Civic education across countries: twenty-four national case achievement*. Amsterdam, The Netherlands: IEA. Verba, S., Schlozman, K. L.,
- Yokota, J. (2008). *International Literature: Inviting students into the global community. Shattering the looking glass: Challenge, risk, and controversy in children's literature*. S.S. Lehr. Norwood, Massachussetts, Christopher Gordan Publishers Inc., 241-251.

청소년 놀이의 양과 질에 따른 학교폭력과 상관관계

정지원*

국문초록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KYPS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에 대해 빈곤이나 기회박탈의 내면화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하위문화 가설은 설명력이 없고 놀이 하위문화 가설을 지지한다. 놀이 하위문화가설에 의하면 많이 노는 애들일수록 학교폭력을 저지르기 쉽다고 보는데 그 원인은 청소년들이 즐기는 놀이문화가 소비적이고 폭력적이기 때문이다(정지원, 2014). 본 연구는 후속연구로서 2010-2013년까지 수집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를 사용하여, 놀이의 유형이나 양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가능성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빼앗기),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협박하기,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 등을 각 유형별로 최대 3점으로 조정하여 합산한 것을 사용하되 독립변수의 다음 해 것을 사용하여 패널통계의 이점을 살리고자 한다. 독립변수는 비등교일에 친구들과 놀기, 컴퓨터/게임기 갖고 놀기, TV/비디오 시청하기, 체육시간에 땀흘리며 운동하기, 독서, 종교활동, 교내외 동아리 활동, 문화활동, 가족/단체여행 등이고 모든 변수를 5점 척도화하여 비교하였다. 결과는 놀이시간뿐 아니라 여러 여가 활동에서 공통적으로 활동성이 많을수록 학교폭력 가해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반 회귀모형과 응답자간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컴퓨터나 게임기를 가지고 노는 시간이 많을수록, 체육시간에 땀 흘리며 운동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교외동아리 활동이 많을수록 학교폭력 가해빈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응답자간 모형에서는 추가적으로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많을수록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여가활동은 발견할 수 없었다.

주제어: 학교폭력, 놀이 문화, 청소년 비행, 여가 활동, 놀이 하위문화

I. 서론

학교폭력은 날이 갈수록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교육 현안 중의 하나이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초 중 고교 재학생 상호간에 발생하는 폭행, 금품갈취, 성폭행,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경찰청 홈페이지)로서, 불링(bullying)이라고 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보편화된 청소년문제로 인식되고 있다(Olweus, 1993; Sullivan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 연구원 kyumji@gmail.com

** 본 연구는 저자의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것임을 밝힌다.

and Cleary, 2004). 놀리기, 폭행 등의 학교폭력은 과거에는 ‘아이들끼리 놀다가 그럴 수 있는 일’ 정도로 무마시켜온 사건들이다. 그러나 피해자 학생들의 잇단 자살과 보복범죄 등을 통해 학교폭력은 피해자 학생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학교폭력을 단순히 교내문제로 덮지 않고 경찰과 공조하여 단속하는 추세다.

그런데 청소년 범죄는 가정환경이 안 좋거나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저지르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양태는 좀 다르다. 정지원(2014)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KYPs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분석했는데 가정경제력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원은 우리나라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빈곤이나 기회박탈의 내면화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하위문화 가설은 설명력이 없다고 보고 놀이 하위문화 가설을 제시한다. 놀이 하위문화 가설에 의하면 많이 노는 애들일수록 학교폭력을 저지르기 쉽다고 본다. 그 원인으로 현대 놀이문화가 소비적이고 폭력적인 것을 든다.

놀이문화가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악영향을 미친다면 청소년들이 몰두하는 놀이의 종류나 양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질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컴퓨터 게임보다는 독서를 즐기거나 종교활동 등을 많이 한다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어 남을 놀리거나 폭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청예단 2013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을 물었을 때, ‘스포츠 활동,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란 답이 26.3%로 가장 많아 청소년 인성교육(21.4%) 예방 및 대처교육(20.4%)보다 건강한 여가활동이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푸른나무청예단, 2014)이라고 학생들도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하는 여가 활동을 분석하여 학교폭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일탈의 유희적 특성

모핏(Moffitt, 1993)은 발달이론 관점에서 비행 청소년 중에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비행을 그만두는 부류(adolescence-limited)가 대부분이고 일부만이 성인이 돼서도 범죄를 계속한다(life-course-persistent)고 구별한다. 성인이 돼서도 범죄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남성의 약 5%로 보는데 이들은 정신병리적 특성을 보이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년기에 비행 내지 일탈을 시작하여 30세 이전에 비행을 그만둔다고 설명한다(Moffitt, 1993). 그렇다면 청소년기에 한해 일탈을 하는, 즉 청소년기에 비행을 시작하는 아이들은 누구이며 왜 일탈을 하는가?

허쉬는 비행 통제에는 사회유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비행에 눈 돌릴 틈 없이 바쁜 생활(involverment)도 사회유대 중 하나라고 한다. 그 근거로 마짜와 사이크스(Matza and Sykes)가

일탈자를 유한계급이라고 한 것을 예로 든다. 마짜와 사이크스는 일탈 청소년의 가치관이 베블렌이 정의한 부유층(leisure class)의 가치관과 같다고 주장함으로써 일탈은 하층 계급 청소년들의 잘못된 사회화나 가치관 때문에 일어나기 쉬운 것이 아니고 모든 계층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일탈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라고 알려진 ‘강렬한 자극, 일확천금, 공격성’ 등은 현대 사회에 내재된 가치로서 많은 청소년 일탈은 하층 계급문화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 문화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고 일탈 청소년은 그러한 가치를 행동으로 과감하게 옮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Matza and Sykes, 1961).

더 나아가 마짜(1964)는 청소년기의 일탈은 자유의지와 사회통제 간의 역학관계에 의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표류(drift)와 같다고 하면서 청소년 일탈자를 표류자(drifter)로 규정한다. 사회 통제가 느슨해진 가운데 자유재량권이 많아졌지만 지위나 능력 자율성이 부족한 사람은 성실하게 법규범을 따르기보다는 위태롭게 규범과 일탈 사이를 표류하는 표류자라는 것이다(Matza, 1964). 그러한 점에서 청소년기의 비행은 청소년기 특유의 일탈적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한시적인 사건이라는 시각이 설명력을 갖는다.

2. 놀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발간한 『2013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학교폭력 가해 경험률은 2011년 16.7%에서 2013년 5.7%로 감소하였고 피해 경험률도 2011년 18.3%에서 2013년 6.1%로 떨어져 여러 교육기관과 경찰의 유기적 대처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여전히 한 반(35명 기준)에 2명 정도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며, 많은 학생이 가해를 하고 피해를 당할 때보다 소수의 학생이 피해를 당할 때 오히려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학교 내 폭력조직 형태로 패거리를 이루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다(경향신문, 2014)는 점은 피해 학생이나 방관하는 학생들이 패거리의 보복이 두려워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그 동안 학교폭력을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흔히 일어나는 일로 치부하던 관행은 잘못되었고 일반 형사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일반 범죄와는 달리 가해와 피해가 광범위하고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오히려 인기가 높은 편이고 리더 역할을 맡기도 한다(이순래 외, 2011:p217)는 점에 학교폭력의 특수성이 있다. 또한 정지원(2014)의 놀이 하위문화 가설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많이 놀다 보면 학교폭력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이 놀이의 과정이 되어버렸다는 우려를 낳는다.

3. 청소년 놀이문화의 특징

청소년 놀이문화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관되게 소비적, 폭력적이라고 규정한다.

김영철(1998)은 청소년의 전형적 놀이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학교생활적 놀이(학교 수업시간의 맥락에서 노는 일), 대중문화적 놀이(학교 밖 여가시간의 맥락에서 노는 일), 환각적 놀이(비행의 맥락에서 노는 일)로¹⁾ 나누었다. 학교생활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놀이문화 중 특징적인 것으로 끼리의례를 들 수 있다. 황경숙(2011)은 청소년집단의 민속문화를 살펴보면서 생일빵, 졸업빵, 신발빵, 머리빵, 백일빵, 칼빵, 담배빵, 돌림빵 등 일명 00빵 문화가 현재 청소년들 사회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끼리의례 문화라고 소개한다. 00빵의 빵은 넓게는 폭력적 행위를 수반한 축하의례를 지칭하기도 하고 좁게는 특정 폭력적 행위나 행위방식을 지칭하기도 하는 청소년 집단의 속어다. 특히 생일빵은 중고생들 사이에서 널리 행해지는 것으로서 생일을 맞은 이를 다른 친구들이 함께 혹은 돌아가며 집단적으로 때리며 축하하는 대표적인 끼리의례다(황경숙, 2011). 친구들과 사이에서 장난으로 행하는 폭력은 자칫 그 도가 지나쳐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거나(오마이뉴스, 2004.12.2) 한 중학교 졸업식에서 벌어진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연합뉴스, 2010.2.13)과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학교 밖 여가시간에는 대중문화적 놀이가 대세를 이루는데, 청소년들이 즐겨 하는 놀이를 조사한 한 연구에서(김병석·조은경·이명우, 1998) 복수응답 결과 텔레비전 보기(69.4%), 게임/전자오락 (50.4%), 음악감상(49.8%), 만화(49.2%), 영화(45.1%), 노래방(42.2%), 스티커사진 찍기(34.3%), 친구와 이야기하기(57.6%),²⁾ 등 김영철의 분류에서처럼 여가시간에는 대체로 대중문화적 놀이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종원·유승호 (2003)는 특히 온라인 게임이 단순한 여가·놀이의 수단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의 불가결한 일부분으로서 한국사회 청소년문화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청소년의 7할 이상이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청소년의 6할 정도가 하루에 1시간 이상 게임을 즐기고 있고, 4할 이상이 게임비용으로 한달 평균 5천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2만원 이상 지출하는 청소년도 12.6%에 달한다(이종원·유승호, 2003).

이 같은 소비적 놀이문화는 청소년들의 씬씀이를 키워 한정된 용돈 범위를 넘게 되고 뽕뜰기, 상납, 헐박, 절도 등의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한정된 용돈 범위를 넘는 소비생활로 인해 소위 ‘노는 애’들 사이에서는 상납이나 뽕뜰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 폭력예방 재단(청예단)은 요즘은 포래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어느 시대보다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궁극적인 타깃이 이런 것들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문화일보, 2012).

위크스트렘과 트레이버(Wikström and Treiber)는 폭력의 원인을 상황 메커니즘으로 설명한다.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개인이 도덕적 판단을 해서 행동하기 보단 그 상황에서 자동화된(automated) 행동을 습관적으로 행하게 된다. 폭력도 도덕적 규범에 따라

1) 1) 학교생활적 놀이: 말뚝박기, 제기차기, 축구, 농구, 배구, 땅 따먹기, 빙고, 오목, 팔팔이, 트럼프, 화투, 지우개 먹기, 동전축구, 수다떨기, 친구를 골탕먹이는 장난, 몸싸움 2) 대중문화적 놀이: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수다떨기, ‘물 좋은’대학가에서 쇼핑하기, 오락실, 당구장, 노래방, 비디오방,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듣기 3) 환각적 놀이: 본드흡입

2) 낮잠(34.1%), 축구(26.6%), 쇼핑(25.8%), 농구(23.3%), 음식점가기(20.7%), 독서(20.4%)

선택하는 행위의 일종이라고 볼 때, 폭력을 선택 가능한 행위 중 하나로 인식하는 상황이나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Wikström and Treiber, 2009). 같은 논리로, 놀이문화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된 청소년은 놀이문화에 배태되어 습관적으로 자동화된 행동을 하기 쉽고 그 행동이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4. 노는 애들이 학교폭력을 할 가능성

정지원(2014)은 놀이문화에 배태된 청소년을 일명 ‘노는 애’로 불리는 일군의 아이들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는 애’들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사회적 사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첫째, 노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 둘째, 성적이 낮은 아이들. 셋째, 가정경제력에 비해 용돈 씀씀이가 큰 아이들. 넷째,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들.

우선 청소년기 특성상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일수록 비행을 하기 쉽다(Hirschi, 1969). 허쉬는 사회에 유대를 가질수록 범죄 동기는 통제되며 범죄를 안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사회유대 요소는 주위의 중요한 사람들과 갖는 애착*attachment*, 인습적인*conventional* 활동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commitment*, 비행에 눈 돌릴 시간이 없을 정도의 참여*involvement*, 그리고 사회규칙 준수에 대한 믿음의 정도 등 네 가지다. 청소년은 표류자로서 청소년기의 여가는 모종의 가치를 생산하고 결국은 비행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Hirschi, 1969:p22).

둘째, 노는 애들은 일반 애들과 마찬가지로 놀기·먹기·물건사기·싸움을 하지만(이혜정, 1989)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에 관여할 시간과 힘이 부족하고 성적이 나쁠 것이다. 긴장이론에 의하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의 괴리가 클 때 좌절하게 되고 그 결과 비행을 하게 된다(Merton, 1938; Cloward and Cohen, 1960). 청소년기의 목표와 수단 의 괴리는 성적이 나쁠 때 가장 클 것이다. 또한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 의하면 공부나 직업, 명예를 위한 인습적 활동에 몰두할수록 비행을 저지름으로써 잃게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비행을 안 할 것이다. 공부는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하고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인습적인 활동으로서, 많이 놀수록 공부라는 인습적 활동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가 줄고 비행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 놀이문화의 특징은 소비적(김병석 외, 1998; 김영철, 1998; 이종원 외, 2003)이기 때문에 많이 노는 애들은 가정경제력에 비해 용돈 씀씀이가 클 수밖에 없다. 모핏에 의하면, 근대화 이후 청소년들의 생물학적 성숙도와 역할적 성숙도 간의 괴리(*maturity gap*)가 5년 내지 10년으로 벌어진 것에 반해 비행소년들은 성숙도 괴리에 구속 받지 않고 어른세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일반 청소년들이 부러워할만한 많은 자산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른 청소년들의 경외의 대상이 된다. 근대화 이후 청소년은 일을 할 수 없고 부모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지만 비행소년들은 비교적 부모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하고 지하경제에서 일을 하거나 절도 등

에 의해 여유로운 소비를 한다(Moffitt, 1993:p687). 따라서 일탈하는 아이들은 무엇보다 자유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일을 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많은 용돈을 쓸 것이다.

넷째, 자신의 용돈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독립적인 청소년들도 있지만 미성년자들에게 노동권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청소년 일자리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단지 용돈벌이 방편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 결과 공부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용돈벌이에 힘을 쏟는 청소년이 노는 아이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 네 가지 지표와 학교폭력 가해 간의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났고 특히 KYPS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종속변수인 학교폭력 경험을 다음 해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인과관계를 밝혀냈다(정지원, 2014).

그러나 소비적이고 폭력적인 놀이문화 특성상 많이 노는 아이들일수록 학교폭력을 하기 쉽다는 정지원의 가설에 대해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하는 놀이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종교생활을 한다거나 독서를 하거나 학교 교내 동아리 활동 등을 하면서 여가를 보낸다면 오히려 학교폭력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 여가 활동의 종류와 양에 따라 학교폭력 가능성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연구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빈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놀이문화에 배태되어 많이 놀다 보면 학교폭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놀이 하위문화 가설을 바탕으로 하여, 놀이의 유형이나 양에 따라 오히려 학교폭력 가능성이 낮아지는 순기능이 있는지를 분석하겠다. 학교폭력 가해빈도는 따돌림, 폭행 등 경찰청에서 정의한 항목들을 기준으로 합산하였고 여가활동이라는 독립변수보다 그 다음 해 자료를 사용하였다. 같은 해의 자료를 사용하여 비교하면 독립변수의 실제 영향력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연구 방법

통계적 검정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를 사용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2003-2008년 기간 동안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를 수행한 바 있다. 정지원(2014)은 이 자료를 사용하여 놀이 하위문화 가설을 논증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는 후속 연구사업으로서, 2010년에서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아동 청소년 성장과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련 학술 연구와 정책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중1패널의 2010-2012년에 걸친 3개년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2010년 층화다단계집락추출법(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으로 표집된 중학교 1학년 2300여 명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2013년도 자료까지 나왔으나 본 연구는 2010-2012년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panel data)의 특성을 활용하여 다른 추정방법을 사용하는 응답자간 효과모형과 응답자내 효과모형을 비교분석 하였다. 패널데이터란 시계열데이터(time-series data)와 횡단면데이터(cross-sectional data)를 하나로 합쳐 놓은 것으로 여러 개체(예: 개인, 가구, 기업, 국가)에 대해 그 현상이나 특성을 일련의 관측시점별로 기록해 놓은 것으로 종단면 데이터(longitudinal data)라고도 불린다(민인식·최필선, 2009:p1). 응답자간 모형(between-effect model)의 기울기 계수는 변수의 변화에 대한 패널 개체간 한계효과로 해석하고(p115) 응답자내 모형(fixed-effect)의 기울기 계수는 각 개체의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추정된 순수한 한계효과라고 볼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09:p125).

우선 앞에서 밝혔듯이 독립변수들을 측정한 다음 연도의 학교폭력 가해 정도를 종속변수로 놓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다음으로는 같은 변수들을 이용해 일련의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응답자간 효과모형과 응답자내 효과 혹은 고정효과모형을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회귀분석에서 보인 독립변수의 유의한 효과가 주로 응답자간 변수 값의 차이가 가져온 효과인지 아니면 응답자내 변수 값의 변화가 가져온 효과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다. 통계프로그램은 STATA를 사용하였다.

3. 변수의 구성

1) 종속변수: 학교폭력 가해 정도

종속변수로서 청소년 응답자가 저지른 ‘지난 1년 동안 한’ 학교폭력 가해 정도를 보았다. 학교폭력은 ‘학교내외에서 초·중·고교 재학생 상호간에 발생하는 폭행·금품갈취·성폭행·집단따돌림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경찰청 홈페이지)로 정의되며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에서는 다음 9개 항목들이 해당한다.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뺏뜯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협박하기, 성관계,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 등이다. 이 중 정지원(2014)의 연구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훔치기와 성관계를 제외한 7개 항목만을 합산하였다.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등은 청소년이라는 사회적인

로 부여된 지위로 인해 문제가 되는 행동, 즉 지위비행(박현수, 김준호, 2008)으로서 비교적 심각성이 경미하고 비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는 행위로 구별하여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상의 이론적, 정책적 관심사에 따라 결정된 비행의 빈도수는 비행유형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다. 특히 예외적으로 큰 값(outliers)들이 유형에 따라 다르고 3회 이상 가해를 한 학생의 비율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각 비행에 대해 3회 이상의 비행횟수는 3으로 통일하여 0에서 3까지의 비행횟수를 합산하여 학생들의 학교폭력 가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삼았다. 값은 최소0에서 최대21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한 학생이 모든 비행을 한 경우가 없는지 합산한 총 가해 빈도는 최대 15로 나타난다.

2) 독립변수: 여가 활동

청소년들이 공부 이외에 하는 활동을 여가활동 내지 놀이로 보고 다양한 놀이의 유형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종교생활은 무엇보다 청소년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종류에 상관없이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빈도를 구분하였다.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게임기나 TV시청이 소비적이고 폭력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독서는 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내 동아리 활동과 교외 동아리 활동, 가족여행,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상관관계를 보았다.

여가활동 변수는 5점척도로 통일하였다. 척도 기준은 <표>와 같다.

표 1 여가활동 척도

	1	2	3	4	5
친구들과 놀기 (비등교일)	없다	약1시간	약2시간	약3~4시간	5시간이상
컴퓨터나 게임기 (비등교일)	없다	약1시간	약2시간	약3~4시간	5시간이상
TV비디오 (비등교일)	없다	약1시간	약2시간	약3~4시간	5시간이상
독서(비등교일)	없다	약1시간	약2시간	약3시간	4시간이상
체육시간 중 땀 흘리며 운동 (일주일중)	없다	약1시간	약2시간	약3시간	4시간이상
종교활동(1년중)	없다	활동 안함	1년에 한번	1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문화활동(1년중)	없다	1~2회	3~4회	5~9회	10회이상
가족/단체여행(1년중)	없다	1회	2회	3~4회	5회이상
교내동아리(1년중)	없다	10회미만	24회미만	50회미만	50회이상
교외동아리(1년중)	없다	5회미만	20회미만	40회미만	40회이상

종교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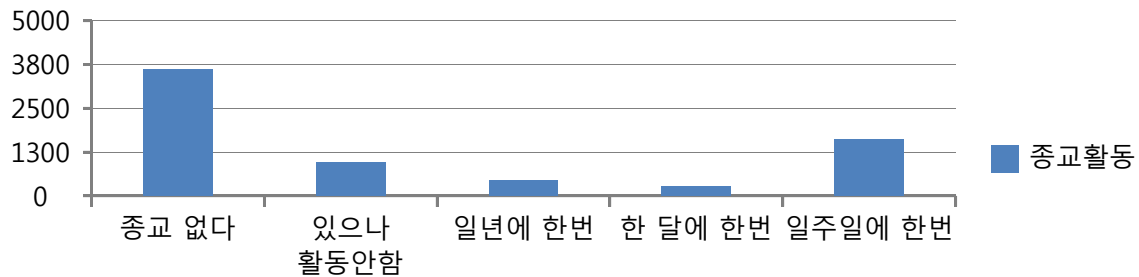


그림1. 종교활동 상태

3) 통제변수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들은 크게 개인요인(성별, 자아 존중감, 자아 통제력), 가족요인(부모의 학력, 경제력, 한 부모 가정, 가정불화, 부모애착, 부모관심, 자녀학 대), 친구요인(비행친구 수), 학교요인(학교유대, 학업성적) 등으로 나눌 수 있다(정소희, 2009). 정지원(2014)의 연구에서는 성별, 자신감, 자아통제력, 부모애착, 가정폭력, 비행친구 수, 공부 스트레스를 통제하였고(가정경제력은 독립변수로 사용) 이 중에서 성별, 자아통제력, 비행친구 수, 공부 스트레스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사용한 KCYPS는 또 다른 다양한 항목들을 다루고 있어 성별과 가정 경제력 이외에는 같은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또한 독립 변수가 여러 여가활동을 아우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경제력만을 통제하고자 한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학교폭력 가해비율은 2003-2008년도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 비해 급격하게 줄어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이 7.78%로 나타나 KYPS자료에서 1회 이상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이 12.69%였던 것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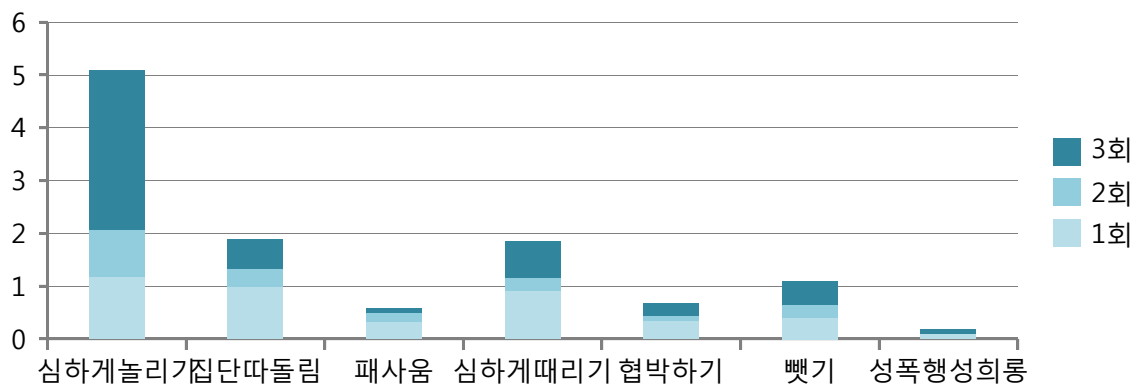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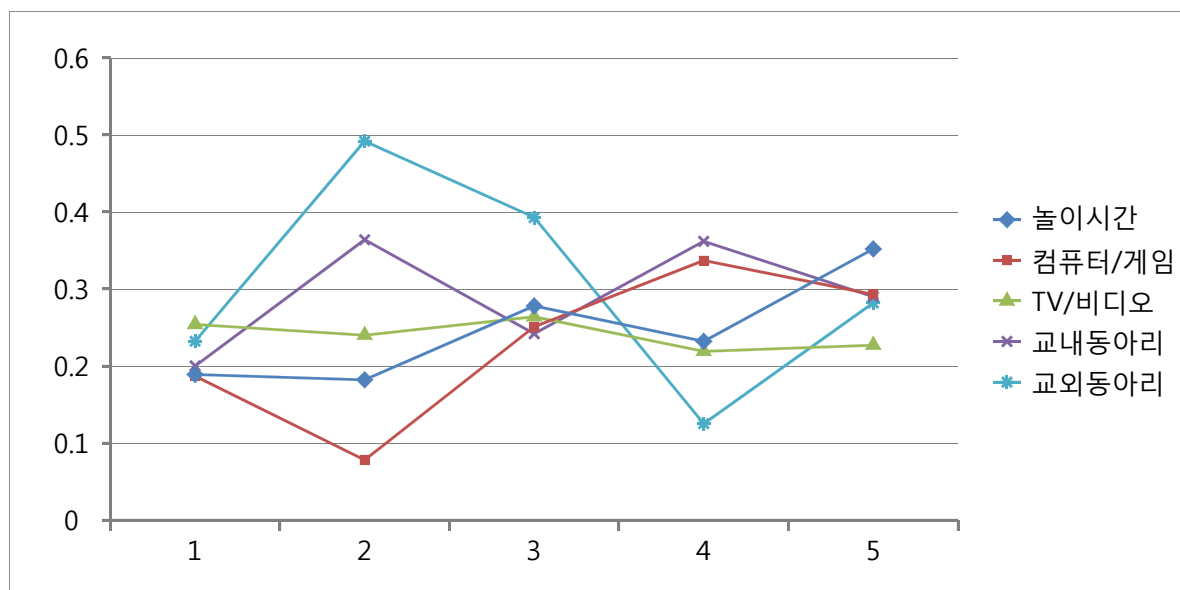


그림2. 학교폭력 가해학생 비율(단위: %)

총 가해빈도



그림3. 학교폭력 총 가해빈도 비율(최대 빈도를 각 유형별 3회로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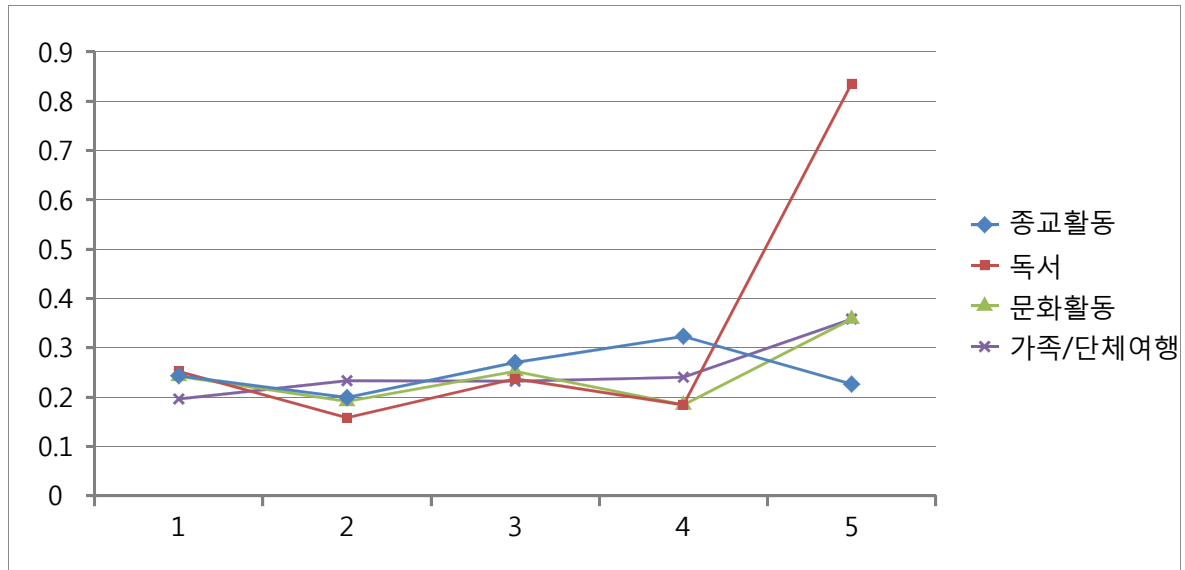


그림 4. 여가활동 별 학교폭력 정도

여가활동 별로 평균 학교폭력 정도를 비교해보면 거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TV/비디오 시청이 전혀 학교폭력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대부분 활동성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정도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한 달에 한번 내지 일년에 한번 절이나 교회에 나가는 경우에 학교폭력 정도가 약간 더 높다. 독서를 많이 하면 정서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척도5에서 높은 비행이 나타난 것은 아무래도 outlier의 존재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인하지는 못했다.

한편 컴퓨터나 게임기를 가지고 놀면 폭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공휴일에 1시간 정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안정된 상태, 즉 가장 학교폭력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가 있다.

2. 패널통계 분석

아래의 <표2>는 중1부터 중3까지 3년간 각 변수들의 기초통계를 보인다. 본 연구는 패널통계 분석을 하기 때문에 독립변수는 중1부터 중2까지 종속변수는 중2부터 중3까지를 사용한다.

표 2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의 기초통계(1차~3차)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폭력가해 (2차-3차년도)			N=4537	.2376	1.0534	0	15
가정 경제력	하위 10%이하	N=4380	.1762	.3810	0	1	
	하위 30-10%		.1908	.3930	0	1	
	중위		.3680	.4823	0	1	
	상위 10-30%		.1502	.3573	0	1	
	상위 10%이상		.1146	.3185	0	1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비등교일)친구들과 노는시간	<i>N</i> =4586	2.6958	1.3865	1	5
(비등교일)컴퓨터나 게임기	<i>N</i> =4597	3.0119	1.1613	1	5
(비등교일)TV나 비디오	<i>N</i> =4573	3.3330	1.1495	1	5
(비등교일)독서	<i>N</i> =4598	1.6093	.8916	1	5
체육시간에 땀 흘리며 운동	<i>N</i> =4631	2.9879	1.2194	1	5
종교활동	<i>N</i> =4625	2.3995	1.6684	1	5
문화활동	<i>N</i> =4628	2.6691	1.2725	1	5
가족/단체여행	<i>N</i> =4626	2.6565	1.4426	1	5
교내 동아리 활동	<i>N</i> =4588	1.6294	1.0868	1	5
교외 동아리 활동	<i>N</i> =4621	1.1415	.5916	1	5

이제 여가 활동에 따라 학교폭력과 상관계 차이가 있는지 통계결과를 살펴보겠다. <표3>은 일반회귀모형, 응답자간 효과모형, 응답자내 효과모형 등 세 가지 모형에 대한 추정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패널자료의 경우 일반회귀모형은 반복되는 값에 의해 표준오차가 과소 추정되고 따라서 통계적 유의도가 높아질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다른 모형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려 한다.

표 3 여가 활동과 학교폭력 가해에 대한 회귀분석 및 패널분석

차기년도 학교폭력가해		일반회귀모형		응답자간 모형		응답자내 모형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가정 경제력 (준거- 중위)	하위 10%이하	.0365	.0493	-.0104	.0609	.1469	.0901
	하위 30-10%	.0189	.0468	.0090	.0629	.0567	.0705
	상위 10-30%	.0510	.0508	.0749	.0693	.0248	.0762
	상위 10%이상	-.0296	.0568	-.0007	.0716	-.1043	.1024
친구들과 노는 시간		.0223	.0123	.0360*	.0160	-.0189	.0198
컴퓨터나 게임기		.0414**	.0148	.0669***	.0186	-.0132	.0253
TV나 비디오		.0002	.0148	-.0065	.0191	.0085	.0238
독서		-.0178	.0188	-.0333	.0239	-.0067	.0310
체육시간에 땀 흘리며 운동		.0328*	.0138	.0491**	.0177	-.0117	.0220
종교활동		.0012	.0101	.0084	.0115	-.0386	.0268
문화활동		-.0062	.0138	.0021	.0177	-.0373	.0221
가족/단체여행		.0238	.0123	.0238	.0162	.0190	.0190
교내 동아리 활동		.0130	.0153	.0267	.0204	-.0251	.0230
교외 동아리 활동		.0720**	.0277	.0991**	.0367	.0327	.0405
R ²	전체	.0089		.0083		.0000	
	응답자간			.0219		.0013	
	응답자내			.0002		.0072	
사례 수= 4073		응답자 수=2236					

* $p<.05$; ** $p<.01$; *** $p<.001$

먼저 통제변수인 가정경제력의 효과를 보면, 상위30-70%를 준거집단으로 했을 때, 어느 모형에서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KYPs자료를 사용한 선행 연구에서 가정경제력이 좋을수록 학교폭력 가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반회귀모형과 응답자간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컴퓨터나 게임기를 가지고 노는 시간이 많을수록, 체육시간에 땀 흘리며 운동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교외동아리 활동이 많을수록 학교폭력 가해빈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응답자간 모형에서는 추가적으로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많을수록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난다.

V. 토의 및 결론

학교폭력은 과거에는 아이들끼리 놀다가 그럴 수 있는 일로 치부되곤 했지만 피해학생들의 고통이 알려지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다각적인 대책이 세워지면서 최근에는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폭력, 특히 집단 따돌림의 위협은 어린 학생들에게 공포일 수 밖에 없고 피해자의 고통은 더 큰 비극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건강한 놀이문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건강한 여가활동이 학교폭력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는 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결과는 놀이시간뿐 아니라 여러 여가 활동에서 공통적으로 활동성이 많을수록 학교폭력 가해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반회귀모형과 응답자간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컴퓨터나 게임기를 가지고 노는 시간이 많을수록, 체육시간에 땀 흘리며 운동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교외동아리 활동이 많을수록 학교폭력 가해빈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응답자간 모형에서는 추가적으로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많을수록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여가활동은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청소년 놀이의 질과 양을 통해 건강한 놀이문화를 유도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으리란 연구의도는 충족할 수 없었다.

통제된 가정경제력 변수도 KYPs조사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KCYPs조사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교폭력과 상관관계가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최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와 청예단 등의 사설기관의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학교폭력이 많이 잦아들었다는 데 있을 것이다. 2011년 16.7%(청예단 추산)에 이르던 가해율이 2013년 6.1%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유의한 관계를 찾기 어려운 것 같다.

한편 종교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 오히려 비행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무엇보다도 여가활동이

정서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활동성이 많을수록 학교폭력 가능성도 늘어난다는 연구결과
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한다. 첫째, 정지원(2014)이 주장한 것처럼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많이
놀다 보면 놀이의 일환으로 발생한다는 놀이 하위문화 가설을 지지한다. 둘째, 친구들과의 놀이
시간, 체육시간에 땀 흘리며 운동하기, 동아리 활동 등은 모두 여럿이 어울려 하는 활동인 만큼
또래집단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학교 내 폭력써클 구
성원인 경우를 포함하여, 또래친구들이 여럿이 어울리다 보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
아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청소년기 학생들의 상호작용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래와 어울리는 것이 오히
려 학교폭력을 낳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함께 어울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
국 청소년들이 놀이를 통해 또래와 친숙해지고 상호 존중하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나
갈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참고문헌

- 김병석, 조은경, 이명우. (1998). **청소년의놀이문화에대한조사연구**. (청소년 상담문제 연구보고서). 문화관광
부 청소년상담전문기관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김영철. (1998). **청소년의놀이문화이해를위한시론**. (청소년 상담문제 연구 보고서) 문화관광부 청소년상담전
문기관 청소년대화의 광장
- 민인식, 최필선. (2009). **STATA패널데이터분석**. 한국STATA학회.
- 박현수, 김준호. (2008). 비행 청소년 집단의 특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비행친구와의 친밀성과 비행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9(1). 327-356.
- 이순래, 곽대경, 기광도, 김상원, 류준혁, 박정선, 박철현, 연성진, 이성식, 최응렬. (2011). **현대사회와 범죄**.
청록출판사.
- 이종원 · 유승호. (2003). **청소년들의온라인게임이용실태연구**. (연구보고 03-R05). 한국 청소년 개발원.
- 이혜정. (1989). **‘노는 애들’의 세계:중학생 또래집단의 학교 밖 생활에 관한 문화기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소희. (2009). 청소년 비행의 발달 궤적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비행의 예측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0(2).
31-64
- 정지원. (2014). **학교폭력을유발하는메커니즘: 놀이 하위문화와 패거리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
위 청구논문.
- 황경숙. (2011). 부산지역 인문계 고교생들의 끼리의례와 속신. **실천민속학연구**제18호.
- 경향신문. (2014.9.22). 중·고생 폭력서클 이름도 ‘식구파’ ‘해적파’ ... 성인 조폭 흉내.
- 문화일보. (2012.12.7). 학교폭력 탓 한 해 100명 죽음 선택...이대로 방관할 것인가.
- 연합뉴스. (2010.2.13). 졸업식 알몸 뒤풀어.
- 오마이 뉴스. (2004.12.01). 학생들이 ‘생일뺑’ 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 푸른나무 청예단. (2014).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연구**

- KYPS. (2009).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2패널 1-6차년도 User's Guide**. 한국청소년개발원.
- Cloward, R.A. and L. Ohlin. (1960). *Delinquency and opportunity*: the Free Press.
- Hirschi, Travis. (1969). *Causes of Delinquency*. Transaction Publishers. 2002.
- Matza, David and Gresham M. Sykes. (1961). Juvenile Delinquency and Subterranean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5), 712~719.
- Matza, David. (1964). *Delinquency and Drift*. John Wiley & Sons, Inc.
- Merton, R. (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 672-682.
- Moffitt, Terrie F.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4), 674-701.
- Olweus, Dan. (1993). *Bullying at School*. Blackwell Publishers.
- Sullivan, Keith, M. Cleary and G. Sullivan. (2004). *BULLYING in Secondary Schools*. Paul Chapman Publishing and Corwin Press.
- Wikström, Per-Olof H. and Kyle H. Treiber. (2009). Violence as Situational 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and Violence*. Vol.3(1), 75-96.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

양영미*·김진석**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존중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A) 자료 중 초등학교 4학년 총 2,264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기술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고 경로분석을 활용하여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다문화수용성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이 공동체의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다문화수용성을 위한 공동체의식 향상 방안에 대해 실천적 함의와 연구의 제한점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 한국아동청소년패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전통적으로 단일민족성과 공동체의식을 갖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다양한 인종과의 공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나 세계화에 진입하면서 외국문화가 유입되고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결혼 이민자가 증가하고, 외국인력 법제화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증가하는 등 우리 사회는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2014년을 기점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56만 9,47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14만 1,463명 대비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20만 4,204명은 외국인 자녀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4). 이 같은 급증으로 인하여 혼혈세대는 일반적 현상이 되었으며 다양한 인종과 문화, 언어, 사회를 공유하고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다른 문화에 대해 편견 없이 이해하고 인정하는 수용성은 부족한 상태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jskim@swu.ac.kr

IMD)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평가’¹⁾에 따르면, 외국문화개방도는 2008년 55개국 대상국 중 최하위였으며, 2009년에는 57개 대상국 중 56위(현대경제연구원, 2009), 2014년에는 60개 대상국 중 53위를 차지하면서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의 밑바탕에는 아직까지도 강한 단일민족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다양한 인종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상당수가 한국어 능력 부족과 소외감, 차별을 느끼며, 한국문화 부적응으로 인한 학습부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미향, 남연희, 이무영, 변미희, 2013). 이처럼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은 비단 다문화 가정 자녀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반 아동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에 따르면 아동기 후기는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탈중심적 사고가 나타나는 시기로, 다른 문화 및 인종을 수용하고 공감능력과 관계형성이 급속하게 발달한다(박열매, 2011). 또한 현재 20만 4,204명의 외국인 자녀들 중 초등학생 수가 4만 5,541명, 향후 초등학교 취학 아동 수가 13만 2,586명으로 전체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안전행정부, 2014) 무엇보다도 초등학생 고학년대에 대한 연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공동체 의식과 자아존중감이 강조되고 있다. 공동체의식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친밀감, 소속감 등을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며(우유라, 노충래, 2014) 이는 학교생활 참여와 학생들의 동기부여,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인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olomon, Watson, Battistich, Schaps & Delucchi, 1996; Battistich, Solomon, Kim, Watson & Schaps, 1995). 또한 자아존중감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박열매, 2011; 김지혜, 2013; 장은화, 어주경, 2013) 이는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유아, 청소년, 대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정체성이나 이주민에 대한 편견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이자형, 김경근, 2013; 서정아, 엄정애, 2011; 임지영, 그레이스정, 2012; 박혜숙, 2013), 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있지만, 대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이건남, 김영은, 이기용, 2013)이나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윤소연, 유형근, 조용선, 2013; 조상미, 전종설, 남성희, 간기현, 선미정, 2012; 설은정, 정옥분, 2012),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김미진, 정옥분, 2010) 등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아동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공동체의식이 이들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

1)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4: 경제운용성과, 정부행정효율, 발전인프라, 기업경영효율을 20개 항목, 333개 세부지표를 적용하여 평가

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은 다문화 수용성과 관계가 있는가?

가설 1-1.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1-2. 공동체의식이 높으면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둘째, 아동의 공동체의식이 자아존중감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가?

가설 2-1. 공동체의식은 자아존중감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1. 자아존중감과 다문화수용성

다문화 수용성이란 다문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인종과 다른 문화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것으로(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2007), 다른 피부색과 가치관,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나와 동등하게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삶의 질과 행동을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백봉렬, 2011),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자신의 능력을 잘 인식하고 사회적 관계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보다 더 안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이광성, 2012), 특히 아동의 경우 발달단계에 따라 성장하면서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장성민, 정민수, 2013).

자아존중감과 다문화수용성간의 관계에 주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심우엽(2010)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민족중심주의, 인종배제주의, 다문화 자녀에 대한 개방성이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피부색과 관계없이 다른 인종과 문화에 대해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Pelham and Swann (1989)와 장성민과 정민수(2013)의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타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정서적으로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에는 무엇보다 또래집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 및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아존중감은 발달하게 되는데, 즉(장성민 외, 2013). 아동기 때의 자아존중감은 타인과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하며 결국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곧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의 경우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긍정적인 다문화수용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2.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

자아존중감은 주로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개인의 성장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요소이며 개인의 성취감과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다루어져 왔다(오정학, 김철원, 하명희, 2012). 특히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의 경우 표현이 풍부하며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적극적인 생활태도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지혜, 2012; 정미라, 장영숙, 김순규, 2011), 이는 자아존중감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동질감 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공동체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Woodward and Frank(1988)의 연구에서 8-20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이 고독과 외로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시키게 된다고 하면서 결국 자아존중감이 공동체의식에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공동체의식 척도개발연구를 한 Peterson, Speer & McMilan(2008)의 연구와 Vieno, Santinello, Pastore and Perkins(2007)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효능감이 공동체의식과 정적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들이 한 사회와 또래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 및 동질감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또래 관계 속에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개입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공동체의식과 다문화 수용성

공동체의식이란 학교나 또래집단 등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소속감 및 동질감, 친밀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며(한대동, 오경희, 2013) 이는 아동들이 긍정적이고 친화적인 태도나 행동 갖고, 친구들과 교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Ryan, 1995; Battistich et al, 1995) 아동이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수용하는데 있어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이 원만하며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또래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태균, 2013; 최형임, 문영경, 2013; 이선영, 2010) 또한 아동들은 소수집단인 다문화가정 친구들의 배경과는 상관없이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양계민, 2009; 류혜숙, 2010; 문정애, 2011). 그러나 이와 다르게 학교에 대한 소속감 및 또래집단에 대한 친밀감과 같은 공동체의식이 결핍되어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또래들로부터 거부당하거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강승희, 2010). 이는 결국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문제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향후 타인종 및 타문화 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우유라 외, 2014). 따라서 아동을 대상

으로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아동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 데이터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secondary data analysis)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각각 2,300여명을 층화다단계집락추출법(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method)으로 표집하였으며, 7년에 걸쳐 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을 반복·추적 조사하는 종단조사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초4 패널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인 초등학교 5학년은 자아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탈중심화와 조합적 사고가 나타나고, 타인과의 관계형성 및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공감능력이 급속하게 발달되는 시기(박열매, 2011)이다. 따라서 다른 문화 및 인종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있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적절하고 이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는데 의미 있는 시기로 보았다.

2. 연구 도구

1)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은 모든 구성원들과 그들의 문화를 편견 없이 동등하게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을 나타낸다(김경은, 윤노아, 2012). 이 척도는 총 5개 문항으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친구로 사귄다”,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 할 수 있다”로 구성된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변수의 Crobach's alpha는 .83이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이면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irns, McWhirter, Duffy & Barry, 1990). 이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척도 중 9개 문항을 추출

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중 5개 문항은 “나는 나에게 만족 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남들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 등 긍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4문항은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등 부정적인 문항으로 역코딩을 하였다. 척도는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변수의 Cronbach's alpha는 .79이다.

3)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으며 동질성을 갖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한다(한대동 외, 2013). 이 척도는 총 4문항으로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로 구성된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변수의 Cronbach's alpha는 .73이다.

4) 통제변인

통제변인으로는 성별, 가족구성을 투입하였다. 성별의 경우 여자는 1으로, 남자는 0로 코딩하였으며, 가족구성은 양부모가정이 1, 비양부모가정을 0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자료의 분석을 위해 Stata SE 12와 Mplus 6.12 를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및 t 검증과 같은 기술통계분석을 하였으며,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변인간의 유의한 상관이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기 전, 모형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들이 적절하게 추정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Chi-Square Test(χ^2 , df , p -value), RMSEA(90% C.I), CFI, TLI, SRMR의 통계치를 사용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가설인 자아존중감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Mplus 6.12를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의 대상자인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 2,264명의 아동 중 남학생이 1,180명(52.1%), 여학생이 1,084명(47.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구성의 경우 전체 2,240명의 아동 중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양부모 가정이 1,899명(84.8%)으로 비양부모가정 341명(1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Variable	Frequency	%	Total
성별			
남	1,180	52.1	2,264(100.0)
여	1,084	47.9	
가족구성			
비양부모가정	341	15.2	2,240(100.0)
양부모가정	1,899	84.8	

다음으로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표 2), 전체 자아존중감의 경우 평균적으로 1.88로 나타났으며, 공동체의식은 2.00, 다문화수용성은 2.09로 중간 수준의 평균을 보였다(range:1-4).

표 2 주요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N=2264)

Variable	Mean	SD	Range
자아존중감	1.88	0.51	1 - 4
공동체의식	2.00	0.63	1 - 4
다문화수용성	2.09	0.64	1 - 4

2.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은 정적 상관관계($r=0.357$, $p<.001$), 자아존중감과 다문화수용성 또한 정적 상관관계($r=0.262$, $p<.001$)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과 가족구성에서는 양부모가정의 자아존중감이 비양부모가정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r=-0.082$, $p<.001$).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은 정적 상관관계($r=0.524$, $p<.001$)가 있었으며, 공동체의식과 성별에서는 여자의 공동체의식이 남

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r=-0.071$, $p=.001$), 공동체의식과 가족구성 또한 양부모가정의 공동체의식이 비양부모가정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r=-0.075$,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3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Variable	1	2	3	4	5
1. 자아존중감	-				
2. 공동체의식	0.357***	-			
3. 다문화수용성	0.262***	0.524***	-		
4. 성별	-0.022	-0.071***	0.003	-	
5. 가족구성	-0.082***	-0.075***	-0.020	-0.032	-
Mean	1.88	2.00	2.09	0.48	0.85
SD	0.51	0.63	0.64	0.50	0.36

*** $p<.001$.

3. 측정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의 모형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들이 적절하게 추정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Mplus 6를 이용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표 4). 이를 위해 Chi-Square Test(χ^2 , df , p -value), RMSEA(90% C.I), CFI, TLI, SRMR의 통계치를 사용하였다. Hu and Bentler(1999)에 따르면 Chi-Square Test는 p -value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RMSEA는 0.06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90% C.I에서는 lower가 0.00에 가깝고 upper는 0.08 보다 작은 값을 가질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CFI와 TLI는 0.95보다 큰 값을 가지고 SRMR은 0.08보다 작은 값을 가질수록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16.316$, $df=2$,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치만 보고는 적합도가 나쁘다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통계치를 좀 더 살펴봐야 한다. RMSEA의 추정치는 .057로 나타났으며, 90% C.I에서는 lower=.033, upper=.084로 .08보다 값이 크게 나오기는 했지만 RMSEA의 전체적인 적합도는 적합하다. 또한 CFI=.986, TLI=.953으로 .95보다 값이 크게 나왔으며, SRMR=.020으로 .08보다 값이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은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 모형적합도

χ^2	df	RMSEA			CFI	TLI	SRMR
		Estimate	90% C.I.				
			lower	upper			
16.316***	2	.057	.033	.084	.986	.953	.020

*** $p<.001$.

4. 가설모형 분석

본 연구의 측정모형을 통한 가설모형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도 높게 나타나는 정적관계를 보였다($B(S.E)=0.446(0.024)$, $p<.001$). 둘째,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의 경우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도 높게 나타나는 정적관계를 보였다($B(S.E)=0.504(0.020)$, $p<.001$). 셋째, 자아존중감과 다문화수용성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도 높게 나타나는 정적관계를 보였다($B(S.E)=0.114(0.024)$, $p<.001$). 넷째, 성별과 다문화수용성의 경우 여자가 남자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이 높게 나타났지만($B(S.E)=0.056(0.023)$, $p=.015$), 가족구성과 다문화수용성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며,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로 설정한 가설 1과 가설 2 모두를 지지해주고 있다.

표 5 가설모형 분석결과

Path	B (Unstandardized)	S.E.	β (Standardized)
자아존중감 → 공동체의식	0.446***	0.024	0.362
공동체의식 → 다문화수용성	0.504***	0.020	0.493
자아존중감 → 다문화수용성	0.114***	0.024	0.091
성별 → 다문화수용성	0.056*	0.023	0.044
가족구성 → 다문화수용성	0.046	0.032	0.026

** $p<.05$, *** $p<.001$.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한 직접효과(Direct), 간접효과(Indirect), 총 효과(Total)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다문화수용성의 직접효과는 $0.114(S.E=0.024)$, $p<.001$ 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도 높게 나타나는 정적관계를 보였으며, 간접효과는 $0.225(S.E=0.015)$, $p<.001$ 로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도 높게 나타나는 정적관계로 나타났고, 이 두 효과의 합인 총 효과는 $0.339(0.114+(0.446 \times 0.504))$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다문화수용성 사이에 공동체의식이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매개효과 분석결과

Parameter	Direct		Indirect		Total
	B	S.E.	B	S.E.	
자아존중감 → 공동체의식	0.446***	0.024	-	-	0.446***
공동체의식 → 다문화수용성	0.504***	0.020	-	-	0.504***
자아존중감 → 다문화수용성	0.114***	0.024	0.225***	0.015	0.339***

*** $p < .001$.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다양한 인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공감능력이 급속하게 발달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이 공동체의식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서 다문화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경로분석모형을 통해 검증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구체적인 결과와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 확신이 높은 아동 일수록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집단 혹은 학교와 같은 사회 구성원에 대한 소속감 및 공동체의식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박재숙, 2010; Woodward & Frank, 1988; Peterson, Speer & McMillan, 2008)을 지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체험활동과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등이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것처럼(하수진 외, 2008; 김해란, 2004; 오익수, 이옥희, 2009; 남순희, 백용매, 2013),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교육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줘야할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타인의 문화와 가치를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Pelham and Swann(1989)과 장성민 외(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타민족과 문화의 수용에 미치는 연구를 한 임소현(2008) 연구의 경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동남아시아인과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에 공동체의식이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다문화수용성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자아존중감이 공동체의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혹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나 공통된 의식이 높은 아동 일수록 다양한 인종과 문화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연구들(류혜숙, 2010; 문정애, 2011)이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봉사활동, 문화활동, 수련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공동체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김지혜, 2012; 박가나, 2009; 강가영, 장유미, 2013)의 보고처럼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공동체의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 및 체험활동과 같은 공동체의식 함양 참여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아동들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타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박가나(2009)의 연구에서 참여활동 수준이 높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사이버공간이 아닌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활동이 증가할수록 공동체의식 함양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것을 보았을 때, 이는 단순히 참여활동프로그램만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참여의 양과 참여 기간까지 고려하여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아동들을 참여활동프로그램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즉 학교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거주 지역 복지관이나 관련 기관 등을 중심으로 참여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조관계를 조성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아도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참여활동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공동체의식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입증한 박재숙(2011)의 연구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낮더라도 내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속적이고 전문적인 집단 상담과 참여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공동체의식을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수용성은 외국인과의 교류, 외국문화의 접촉경험 등 다문화에 대한 노출 정도와 관련(아영아, 2013; 송미영, 2010; 윤인진, 송영호, 2009, 최희선, 2014)이 있으며 이는 지역에 따라 다문화수용성 정도의 차이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백승대, 안태준, 2013; 김경은 외, 2012; 홍봉선, 아영아, 2011).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무선효과다층분석모형(random effect multilevel model)과 같은 분석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수준의 변수들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횡단적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종단자료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특히 공동체의식이란 아동의 발달시기에 따라 서서히 학습되고 획득되어지는 것으로서, 무엇보다 공동체 의식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철학과 윤리 분야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으며(손철성, 2008; 김범춘, 2013; 류혜숙, 2010; 문정애, 2011) 대상 또한 보편적인 사회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따라서 향

후에는 대상별로 공동체의식이 성장에 미치는 경로와 다문화수용성 정도에 대한 풍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승희. (2010). 중학생의 부모애착, 우울, 심리적안녕감,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8(3), 1-29.
- 강가영, 장유미.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97-123.
- 김정은, 윤노아. (2012). 청소년의 국민정체성, 통일,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한국사회과교육**, 51(1), 123-140.
- 김미진, 정옥분. (2010).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17(4), 69-88.
- 김범준. (2013). 다문화사회의 정치철학으로서 공동체주의의 가능성. **시대와철학**, 24(2), 61-89.
- 김주현. (2009). **국내다문화현상의 특징과 시사점**(연구보고 10-38).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 김지혜. (2012).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봉사활동 시간과 주관적 만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1), 41-62.
- 김태균. (2013). 청소년활동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 매개효과검증. **청소년시설환경**, 11(2), 75-82.
- 김해란. (2004). 독서요법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초등상담연구**, 3(1), 83-104.
- 남순희, 백용매. (2013). 인지행동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재활심리연구**, 20(3), 545-564.
- 도미향, 남연희, 이무영, 변미희. (2013). **아동복지론**. 경기: 공동체.
- 류혜숙. (2010). 도덕과 교육에서 탐구공동체 활동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윤리교육연구**, 23, 53-74.
- 문정애. (2011). 배려공동체를 위한 다문화 인격교육 탐색. **인격교육**, 5(2), 37-66.
- 박가나. (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73-306.
- 박열매. (2011). 초등학생의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부모의 학력과 직업포부의 관계. **초등상담연구**, 10(1), 95-108.
- 박재숙. (2010a).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157-182.
- 박재숙. (2011b). 초기청소년의 온오프라인 참여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4), 47-69.
- 박혜숙. (2013). 대학생 대상 다문화 수용성 척도 타당화. **교육과학연구**, 44(2), 219-248.
- 백봉렬. (201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성, 학교적응유연성이 사회적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백승대, 안태준. (2013). 대구와 경북지역 청소년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비교 연구. **지역사회연구**, 21(3), 29-51.
- 서정아, 엄정애. (2011). 유치원교사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생각. **한국교원교육연구**, 28(2), 1-20.
- 설은정, 정옥분. (2012).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2), 91-114.

- 손철성. (2008).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철학연구**, 107, 1-26.
- 송미영. (2010). 다문화수용성의 원인분석. **민족연구**, 41, 74-97.
- 심우엽. (2010). 초등학교의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 **초등교육연구**, 23(4), 43-63.
- 아영아. (2013). 다문화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다문화태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1), 77-100.
- 안전행정부. (2014). **외국인주민현황(시도_시군구)**. 서울: 안전행정부.
- 양계민. (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 23(2), 59-79.
- 오익수, 이옥희. (2009). 집단독서요법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초등상담연구**, 8(1), 1-13.
- 우유라, 노충래. (2014).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2), 203-227.
- 윤소연, 유형근, 조용선. (2013). 일반가정 초등학교 고학년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아동교육학회**, 22(4), 171-185.
- 윤인진, 송영호. (2009).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579-591.
- 이건남, 김영은, 이기용. (2013). 초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 26(3), 1-14.
- 이광성. (2012). 다문화가정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44(1), 91-107.
- 이선영. (2010).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국제이해교육연구**, 5(2), 78-100.
- 이자형, 김정근. (2013).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23(1), 53-77.
- 오정학, 김철원, 하명희. (201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26(2), 23-40.
- 임소현. (2008). **자아존중감이 타민족문화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 동남아시아인 및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지영, 그레이스정. (2012).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 부모의 영향 및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0(6), 1-11.
- 장은화, 어주경. (2013). 아동의 자아개념 및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 **한국가족치료학회**, 21(3), 289-305.
- 장성민, 정민수. (2013). 초등학생의 다문화 이해와 다문화 태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다문화교육연구**, 6(4), 151-168.
- 정미라, 장영숙, 김순규. (2011).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학습동기 간의 관계. **아동교육**, 20(2), 221-234.
- 조상미, 전종철, 남성희, 간기현, 선미정. (2012).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가족과문화**, 24(4), 103-134.
- 최희선. (2014).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5,6학년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형임, 문영경.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5, 189-209.
- 하수진, 정연옥. (2008). 자연체험활동이 초등학생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1(3), 223-240.

- 한대동, 오경희. (2013). 초등학교에서의 공동체적 수업실천과 공동체의식이 학교폭력 자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3(4), 207-235.
- 홍봉선, 아영아. (2011). 청소년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7(3), 165-187.
-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연구보고 07-19-02).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Battistich, V., Solomon, D., Kim, D. I., Watson, M., & Schaps, E. (1995). Schools as Communities, Poverty Levels of Student Populations, and Students' Attitudes, Motives, and Performance: A Multilevel Analysi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2(3), 627-658.
- Cairns, E., McWhirter, L., Duffy U., & Barry, R. (1990). The stability of self-concept in late adolescence: Gender and situational effec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9), 963-944.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Pelham, B. W., & Swann, W. B., (1989). From Self-Conceptions to Self-Worth: On the Sources and Structure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4), 672-680.
- Peterson, N. A., Speer, P. W., & McMillan, D. W. (1986). Validation of A Brief Sense of Community Scale: Confirmation of the Principal Theory of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6(1), 61-73.
- Ryan, R. M. (1995). Psychological Needs and the Facilitation of Integrative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63(3), 397-427.
- Solomon, D., Watson, M., Battistich, V., Schaps, E., & Delucchi, K. (1996). Creating Classrooms that Students Experience as Communit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6), 719-748.
- Vieno, A., Santinello, M., Pastore, M., & Perkins, D. D. (2007). Social support, sense of community in school, and self-efficacy as resources during early adolescence: an integrative model.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9(1-2), 177-190.
- Woodward, J. C., & Frank, B. D. (1988). Rural adolescent loneliness and coping strategies. *Adolescence*, 23(91), 559-565.

중학생의 사회정서적 특성과 부모양육 방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박혜숙*, 이명숙**

국문초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패널2010(KCYPS2010) 중학교 1학년 코호트 집단을 대상으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년 동안 수집된 자료 가운데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사회정서적 성격특성과 부모양육태도의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정서적 특성 및 부모양육 태도의 구조 및 경로계수와와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연구모형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이전 해의 사회정서적 특성 및 부모양육 태도는 다음해에도 유사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비방관(관심) 양육태도에 정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인 학대에 대한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부적으로 매개하였다.

주제어: 삶의 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정서적 특성, 부모양육태도, 다집단 구조방정식

I. 서론

청소년 시기의 인지, 사회정서 및 행동 발달은 그 어느 시기에 비해 개인의 심리적 성숙은 물론 삶의 만족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는 이전의 가족 중심적 관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보다 확장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위한 부모양육 태도와 정서교육은 이후의 심리적 적응과 자기통제 및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서는 개인적으로는 행동을 유발하거나 인지와 동기,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는 타인의 감정을 추론하여 자신의 행동에 변화를 갖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정서는 긍정적인 정서(재미, 활력, 희망, 긍지, 안정, 위안, 배려, 인내, 노력 등)와 부정적인 정서(슬픔, 위축, 열등, 무기력, 우울, 분노, 불안, 공포, 공격 등)로 구분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 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조교수

** 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mslee@dnue.ac.kr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요인에 대한 인과 모형을 구축하는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하여 지각하는 긍정적인 느낌이나 감정 또는 태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학교라는 환경적 공간에서 학생들이 교사, 또래 집단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긍정적 심리적 충족감의 정도인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서도 보듯이 개인의 정서 상태가 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적인 정서는 만족감의 결핍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비행 행동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사회정서적인 요인 가운데 사회적 위축은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스스로 움츠려드는 일종의 부적응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Kerr & Nelson, 1989; Kristyn, 2002). 위축행동을 하는 학생은 평상시 대부분 아이들과 떨어져 혼자 있고, 어떤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느낌을 나타내려 하지 않으며, 친구들로부터 선택되는 예가 거의 없다. 남의 비판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실망하는 경향이 있으며 말을 할 때 풀이 죽고 매우 낮은 목소리로 말하거나 눈을 쳐다보는 것을 회피한다. 반면에 사회적 고립은 자신에 대해 낮은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의심하기까지 한다. 특히 자신을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다른 학생들로부터 관심을 끌거나 인정을 받기위해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거부감만 증가시킬 뿐이다. 사회적 고립은 전형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러한 사회적 위축 정서는 바람직한 행동을 저해하는 분노, 공포, 혹은 불안감 등과 함께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기도 한다(Rubin, LeMareh, & Lollis, 1990).

또한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대표적인 정서 변인으로서 다른 변인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고, 우울한 청소년의 30%가 행동장애를 보이고, 부적응을 가져온다는 결과가 있다(Kovacs & Gatsonis, 1989; 김지혜, 2013 재인용; 진혜민 외, 2009 재인용). 우울은 또한 사회적 위축을 가져와 사회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관계가 내재되어 있다. 청소년기의 우울은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행동을 일으켜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소외감, 좌절, 실패감 등을 경험하고 이것이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더 우울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우울이 학교부적응이 되는 것은 바로 우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를 의미하며, 열등감, 무기력감, 무가치감, 슬픔 및 상실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케 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또래와의 부정적인 관계와 낮은 자기조절 능력은 학교 부적응과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와 낮은 자기조절 능력 그리고 부모, 교사와의 부정적 관계와 우울은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우울은 공격성과 정적 관계가 있다(김지경, 1995).

마지막으로 사회정서 요인 가운데 하나인 공격성은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공격성으로 하위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 변인으로, 공격성은 좌절, 위축, 정서적 부작용, 반사회적 행동, 부적응과 생활 불만족 등을 초래한다. 또한 공격성은 부모의 양육방식에서 영향 받은 학대 경험이나 무관심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곽금주 1992; 배재현, 2006)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은 가정에서의 부모양육방식이 부정적인 경우 적응상에 문제가 나타나고, 자존감이 낮아 만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은 청소년의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뿐 아니라 우울과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방임은 자녀의 학교생활, 신변정리, 건강 등 자녀에게 신경을 안 쓰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정도이다. 부모의 학대 및 방임 유형이 정서문제와 학교적응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는 자아탄력성에 의해 조절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풍부한 적응능력이며, 인지적·사회적·개인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발휘하는 융통성 있는 능력을 말한다(Block & Block, 1980).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한 판단결과인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유안진 · 이점숙 · 김정민, 2005; 임경희, 2010). 개인이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도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이루게 하는 회복 능력이다. Rutter(1985)는 똑같은 위험요소에 노출되었더라도 적응적인 아동들은 긍정적인 기질, 성별, 따뜻한 양육관계 및 가족으로부터 지원과 같은 요인에 의해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사회정서 요인과 부모양육 유형의 긍정 및 부정적 상호작용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종단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정적 정서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 우울, 공격성에 한정하였으며, 이들이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이 어떤 매개효과를 보여주는지를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0(KCYP2010) 중1 패널의 2, 3, 4차년도 자료 가운데 중학교 2학년의 자료를 3년 동안 동일변수를 사용한 해당 변수의 변화와 더불어 양육태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성격특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살펴보았다. 또한 4차년도에 사용된 자아탄력성 변수가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 및 자아탄력성이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의 여부를 더불어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1. 삶의 만족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서적 특성과 부모양육태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학년이 올라가면서 사회정서적 특성은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3. 시간의 변화에 따른 부모양육태도는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4. 자아탄력성, 사회정서적 특성과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0(KCYPS2010)의 중학교 1학년 코호트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자료는 한국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의 효과를 장기적 측면에서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현재 4차년도 자료가 수집되었다.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을 사용한 확률적 표집으로 연구결과를 전국의 동일 발달 단계의 아동·청소년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자료이다. 아동청소년패널 설문지는 매년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의 자료가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 관심변인인 만족도는 4년 동안의 정보가 있었으나, 관심 독립변인인 양육태도(비방임/관심과 학대)와 성격특성(공격성, 사회적위축, 우울)은 1차 년도에 발견되지 않아서 2차에서 4년까지의 동일학생의 정보를 이용하여 성장에 따른 해당 특성의 변화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비방임/관심과 학대)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4차년도에서 사용된 자아탄력성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매개하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4차년도의 자료에서 성별에 대한 정보가 있는 2,108명으로 남자는 1,075명(51%)이고 여자는 1,033명(49%)이었다. 정규성 가정에서 어긋난 변수는 없었다(<표 1> 참고).

표 1 기술통계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성별	2108	0	1	0.51	0.50	-0.04	-2.00
만족y4	2108	1.00	4.00	2.83	0.61	0.04	0.18
공격성y4	2108	1.00	3.83	1.97	0.53	0.05	-0.41
사회적위축y4	2108	1.0	4.0	2.24	0.69	-0.06	-0.49
우울y4	2108	1.0	3.9	1.88	0.56	0.17	-0.47
자아탄력성y4	2108	1.00	4.00	2.81	0.39	0.13	1.20
비방임/관심y4	2108	1.00	4.00	3.06	0.50	0.04	0.37
학대y4	2108	1.00	4.00	1.71	0.58	0.89	0.68
공격성y2	2108	.89	4.00	2.13	0.57	0.09	0.07
사회적위축y2	2108	1.0	4.0	2.24	0.70	0.09	-0.46
우울y2	2108	.76	4.00	1.92	0.61	0.26	-0.38
비방임/관심y3	2108	1.00	4.64	3.15	0.55	-0.24	0.36
학대y3	2108	.04	4.00	1.83	0.72	0.96	0.54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비방임/관심y2	2108	1.00	4.37	3.13	0.58	-0.45	0.68
학대y2	2108	.23	4.00	1.83	0.71	0.97	0.62
공격성y3	2108	.82	4.00	2.21	0.60	0.00	-0.10
사회적위축y3	2108	1.00	4.00	2.27	0.74	-0.04	-0.55
우울y3	2108	1.00	4.00	1.99	0.62	0.20	-0.37

2. 관련변수와 문항 특성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자료에는 모든 문항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도 그 중의 하나였다. 1차년도 자료에서 감독과 애정에 대한 정보가 있었으나 KCYPS2010 패널 2, 3, 4차 년도에서는 자료가 없었으며, 방임과 학대는 1차년도의 자료에는 없었다. 방임과 학대에 대한 변수는 2, 3, 4차년도가 있었고 더불어 개인의 사회정서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공격성, 사회적위축, 우울)가 있어서 2, 3, 4차 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 부모의 양육태도(학대, 방임)의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대체로 양호하였다. 방임은 나의 생활에 대한 관심, 의복 등 위생에 대한 관심, 건강에 대한 관심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대는 잘못하면 무조건 때림, 몸에 상처가 날 정도로 때림, 심한욕설 사용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문항의 선택지의 낮은 번호(①)이 ‘매우 그렇다’ ④가 ‘전혀 그렇지 않다’ 로 되어 있어서 방임에 관련된 문항을 제외하고 역코딩을 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방임도 역코딩하였고, 방임하지 않음(관심)으로 보고 높은 점수는 높은 동의정도로 해석하였다.

나. 사회정서적 특성 요인으로 공격성, 사회적위축, 및 우울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공격성은 6개의 문항으로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음,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함, 내가 원하는 것을 못 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빔, 사소한 일로 싸움, 화가 남, 이유 없는 울음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위축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함, 부끄럼을 탐, 의견표출 힘들, 수줍어함, 나서기 싫어함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우울은 기운 없음, 불행하다고 생각, 걱정 많음, 죽고 싶은 생각, 빈번한 우울, 외로움, 자기비하, 절망, 일에 대한 힘듦의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 자아탄력성은 원래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구인타당도가 낮은 문항 7개를 제거하고, 다양한 상황 극복, 새로운 일을 추구하기 좋아함, 좋은 인상을 주는 편, 에너지가 넘침, 새롭고 다양한 일 추구, 의지가 강한 사람임, 화남을 쉽게 극복함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하였을 때 14개 문항을 사용하였을 때와는 달리 하나의 단일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7개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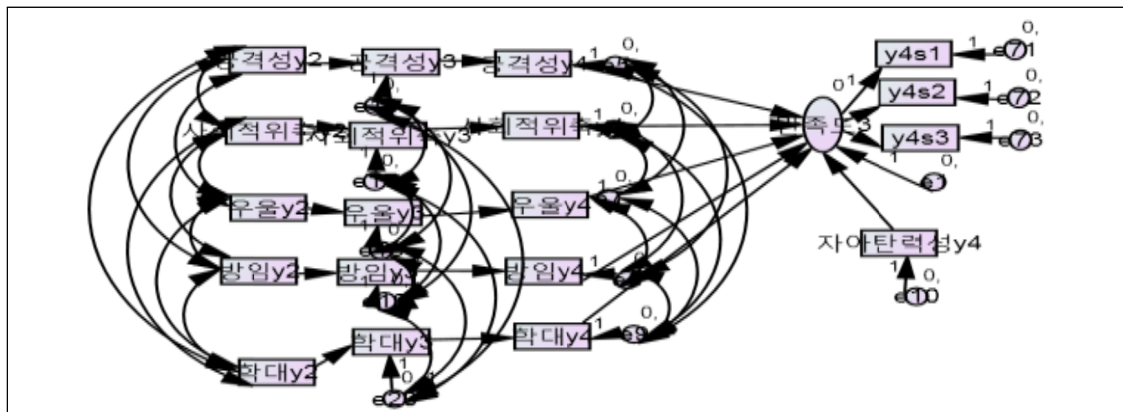
라. 삶의 만족도는 ‘사는 게 즐거움, 걱정거리가 없음, 행복하다고 생각함’의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사용된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s Alpha)는 .718에서 .906으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표 2〉 참고).

표 2 ▶ 척도의 문항구성과 내적일관성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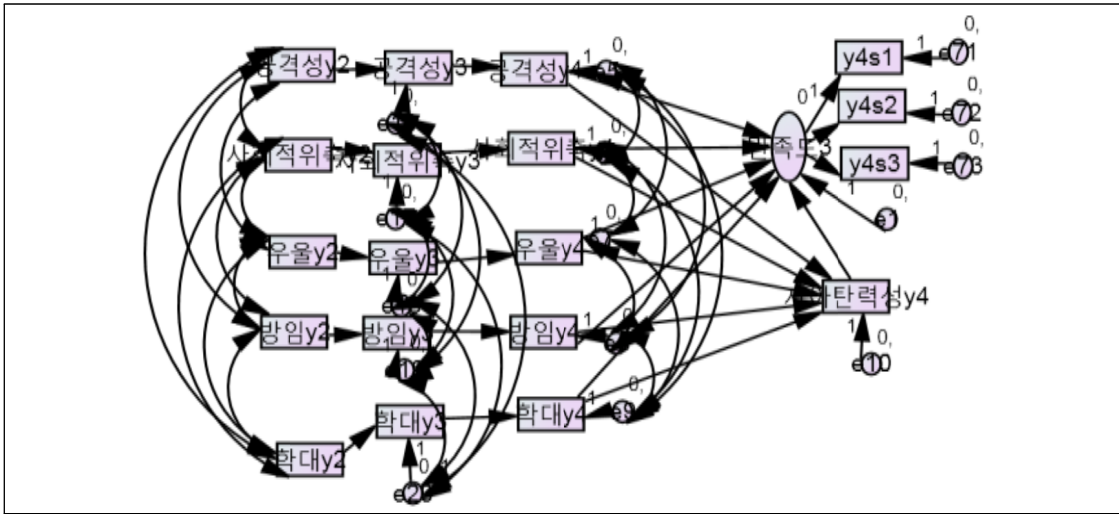
변인	문항수	신뢰도 (α)	문항내용
만족도y4	3	.807	사는 게 즐거움, 걱정거리가 없음, 행복하다고 생각함
자아탄력성y4	7	.747	놀라운 일, 새로운 시도, 넘치는 에너지 강한의지, 화가 나도 빠른 회복, 좋은 인상을 줌, 새롭고 다양한 일.
공격성y2	6	.801	작은 일에도 트집 잡음, 남의일 방해, 내일 방해 시 따지거나 덤빔, 자주싸움, 온종일 화가 날 때가 있음, 이유 없이 움.
공격성y3	6	.811	
공격성y4	6	.785	
사회적위축y2	5	.851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함, 부끄럼을 탐, 의견을 말하기 어려움, 수줍음, 나서기를 싫어함
사회적위축y3	5	.883	
사회적위축y4	5	.885	
우울y2	10	.904	기운 없음, 불행, 슬픔, 우울해함, 걱정이 많음, 죽고 싶음, 울기를 자주함,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내 탓으로 돌림, 외로움, 관심과 흥미가 없음, 희망이 없음, 만사가 힘들.
우울y3	10	.906	
우울y4	10	.889	
비방임/관심y2*	4	.771	부모님은 다른 일 보다 내가 더 중요함, 학교생활 관심, 의복에 신경 씀, 건강에 신경 씀
비방임/관심y3*	4	.758	
비방임/관심y4*	4	.718	
학대y2	4	.847	심하게 혼냄, 때리려 함, 심한 신체적 학대, 언어적 폭력행사
학대y3	4	.855	
학대y4	4	.851	

* 방임은 사실 방임하지 않음(관심)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여 부모의 관심으로 해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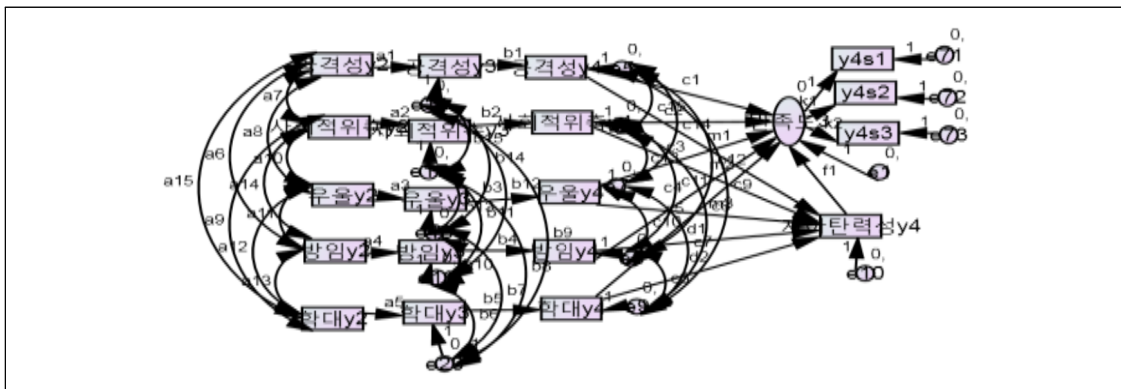
3. 연구 모형



[그림 1] 자아탄력성 비매개모형(모형1)



[그림 2] 자아탄력성 매개모형(모형2)



[그림 3] 요인 및 구조계수 및 공분산 동일성 제약 모형(모형6)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첫째, 삶의 만족도와 여러 변수와의 관계 및 성차에 따른 만족도에 미치는 여러 변수들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비교하였으며, 이를 위해 형태동일성(모형1, 2), 측정동일성, 공분산 동일성(모형5), 그리고 만족도에 대한 절편동일성 가정 검증을 실시하였다([그림1, 2, 3] 참고). 그 다음 학년의 변화에 따른 사회정서적 특성의 변화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의 차이를 보기위해 시간에 따른 그 영향력을 보기 위해 자기회기 경로 계수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관심과 학대)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삶의 만족도, 자아탄력성, 사회정서적 특성 및 부모양육태도 간의 상관분석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결측치는 무선적 결측(MAR)이라고 가정하고 Schafer의 다중대체를 하기 위해 Norm 2.03 (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전

체모형 분석은 Amos 20을 이용하였으며,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자료 분석의 결과를 앞서 기술한 연구문제의 순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정서적 특성, 부모양육 태도, 및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서적 특성과 부모양육태도는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비교하였고,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먼저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과 만족도($r=.44$), 4차년도의 방임($r=.26$), 학대 ($r=-.02$)이며, 관심과 만족 ($r=.28$), 학대와 만족($r=-.12$)으로 나타나 학대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사회정서적 특성 요인과 만족도의 상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만족도와 공격성($r=-.13$), 만족도와 사회적 위축($-.15$), 만족도와 우울($r=-0.28$)이었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공격성($r=-.07$),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위축($-.17$), 자아탄력성과 우울($-.19$)로 나타났다.(〈표3 참고〉)

그리고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 검증을 위해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과 동시에 만족도와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경로계수에 관한 두 집단간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형태동일성(모형1-2), 두 그룹 형태동일성 동시모형(모형3), 측정동일성을 만족도 구인과 계수 및 경로계수포함(모형4), 공분산동일성(모형5)을 살펴보았으며, 남녀 만족도 평균의 비교여부를 보기 위하여 만족도관련 절편동일성(모형6)을 살펴보았다.

〈표 4〉의 모형 1과 모형 2에서 보여 주듯이, 자아탄력성 매개 모형이 남녀그룹 모두에게 있어서 적합도가 더 양호하였다. 모형4의 측정 동일성 가정도 만족시켰다. 통계적 측면에서는 측정 동일성(모형4) 및 공분산 동일성(모형5) 가정을 만족하였으나, 실용적인 측면, 즉 카이자승 검증이 표본크기나 비정규성에 민감하기에, RMSEA, CFI 등의 감소에 초점을 두고보면, 모형 6의 절편동일성 가정도 만족하였다고도 볼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남녀의 만족도에 관한 잠재평균 비교를 하였으나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만족도가 낮았으나(-0.06),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2	.436**	1							
3	-.126**	-.067**	1						
4	-.150**	-.168**	.297**	1					
5	-.276**	-.188**	.474**	.532**	1				
6	-.268**	-.142**	.379**	.148**	.281**	1			
7	-.274**	-.295**	.107**	.464**	.273**	.296**	1		
8	-.571**	-.279**	.220**	.257**	.407**	.546**	.502**	1	
9	.282**	.256**	-.133**	-.093**	-.170**	-.166**	-.131**	-.256**	1
10	-.124**	-.016	.143**	.034	.139**	.273**	.087**	.220**	.123

1 = 만족Y4, 2 = 자아탄력성y4, 3 = 공격성y2, 4 = 사회적위축y2, 5 = 우울y2,
6 = 공격성y4, 7 = 사회적위축y4, 8 = 우울y4, 9 = 방임y4, 10 = 학대y4

이후 분석의 모든 결과는 [그림3]의 모형5를 사용하여 성격특성, 부모의 양육태도의 두 변인 내의 종단적인 관계와 만족도와와의 관계,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매개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모형 6의 만족도라는 구인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세 번째 문항(행복하다고 느낌, $b = 1.079$), 첫 번째 문항(사는 게 즐거움, $b = 1$), 두 번째 문항(걱정 없음, $b = 0.894$) 순으로 영향력이 있었다(<표5> 참고).

2. 사회정서적 특성 요인의 종단적 변화

[그림3]의 모형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회정서적 특성 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차 년도의 측정치는 3차 년도의 측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3차 년도는 4차 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효과의 크기로 공격성은 0.384, 0.385($\beta = 0.352$, 0.462(남); $\beta = 0.373$, 0.4239(여))를 보였으며, 사회적 위축은 0.454, 0.452 ($\beta = 0.425$, 0.476(남); $\beta = 0.445$, 0.494(여))로 나타났고, 그리고 우울은 0.404, 0.372($\beta = 0.401$, 0.431(남); $\beta = 0.388$, 0.423(여))로 나타나, 그 상대적인 효과크기는 시간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다.

표 4 모형의 적합도

모형	TLI	CFI	RMSEA	χ^2	df
모형1_남	0.814	0.866	0.084	1044.862	123
모형2(매개)_남	0.851	0.898	0.075	822.677	118
모형1_여	0.819	0.869	0.091	1148.772	123
모형2(매개)_여	0.845	0.893	0.083	959.651	118
모형3_형태동일성 2그룹 동시	0.848	0.895	0.561	1782.332	236
모형4_전체모형측정동일성	0.858	0.891	0.054	1876.373	263
모형5_전체모형 측정 및 cov 동일성	0.869	0.889	0.052	1923.956	289
모형6_절편동일성(만족도)	0.868	0.887	0.052	1951.400	292

주) 절편 동일성 가정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Cheung & Rensvold(2000) 제안인 CFI가 0.01 이상 감소하지 않음으로 절편동일성 가정도 만족시킨다고 보았다. 그리고 평균을 비교했으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0.06 낮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최종 모형(모형5)

종속변인	독립변인	Estimate	S.E.	C.R.	P	Label	β (남)	β (여)
공격성y3	← 공격성y2	0.384	0.018	21.841	***	a1	0.352	0.373
사회적위축y3	← 사회적위축y2	0.454	0.018	25.619	***	a2	0.425	0.445
방임y3	← 방임y2	0.348	0.019	18.393	***	a4	0.366	0.365
우울y3	← 우울y2	0.404	0.016	25.791	***	a3	0.401	0.388
학대y3	← 학대y2	0.297	0.028	10.495	***	a5	0.213	0.19
공격성y4	← 공격성y3	0.385	0.015	25.888	***	b1	0.462	0.435
사회적위축y4	← 사회적위축y3	0.452	0.016	28.242	***	b2	0.476	0.494
학대y4	← 학대y3	0.509	0.009	57.56	***	b5	0.746	0.795
방임y4	← 방임y3	0.333	0.018	18.792	***	b4	0.367	0.376
우울y4	← 우울y3	0.372	0.014	26.259	***	b3	0.431	0.423
자아탄력성y4	← 학대y4	0.048	0.013	3.652	***	d2	0.077	0.075
자아탄력성y4	← 방임y4	0.171	0.018	9.68	***	d1	0.199	0.194
자아탄력성y4	← 공격성y4	0.011	0.019	0.581	.561	m1	0.013	0.014
자아탄력성y4	← 사회적위축y4	-0.15	0.014	-10.608	***	m2	-0.25	-0.24
자아탄력성y4	← 우울y4	-0.12	0.021	-5.906	***	m3	-0.15	-0.16
만족도y4	← 공격성y4	0.07	0.022	3.167	.002	c1	0.065	0.071
만족도y4	← 사회적위축y4	0.07	0.017	4.1	***	c2	0.088	0.089
만족도y4	← 우울y4	-0.53	0.025	-21.069	***	c3	-0.49	-0.55
만족도y4	← 방임y4	0.144	0.021	6.825	***	c4	0.129	0.132
만족도y4	← 학대y4	-0.05	0.015	-3.208	.001	c5	-0.06	-0.06
만족도y4	← 자아탄력성y4	0.416	0.026	16.078	***	f1	0.322	0.338
y4s1	← 만족도y4	1					0.853	0.828
y4s2	← 만족도y4	0.894	0.031	29.047	***	k1	0.614	0.632
y4s3	← 만족도y4	1.079	0.027	39.99	***	k2	0.853	0.85

3. 부모양육태도의 종단적 변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모양육 태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차 년도의 측정치는 3차 년도의 측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3차 년도는 4차 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비방임적인 태도인 관심의 경우 0.348, 0.333으로, 그리고 부정적 양육태도인 학대는 0.297, 509로 나타났으며, 학대의 경우 효과의 크기가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4. 자아탄력성, 사회정서적 특성, 부모양육태도, 만족도와의 관계

[그림3]에 제시한 요인 및 구조계수 및 공분산 동일성 제약 모형(모형 5)에 대한 검증을 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b = 0.41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서적 특성으로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은 삶의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b = 0.07, 0.07$). 공격성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매개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적 위축과 자아탄력성은 부적인 관계($b = -0.15$)가 있었고,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위축과 만족도를 매개하였다. 그 효과는 -0.0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Sobel의 Z -test = -8.89). 우울은 4차년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친 부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b = -0.53$). 우울과 자아통제력은 부적인 관계가 있었고($b = -0.12$), 자아탄력성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매개 효과는 -0.05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Sobel의 Z -test = -5.37).

부모양육 태도 가운데 비방임/관심은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b = 0.144$)을 보여 주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비방임/관심과 자아탄력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관계($b=0.171$)를 보여주었다. 자아탄력성이 비방임/관심과 만족도의 매개효과($b = 0.07$)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Sobel의 Z -test = 8.15). 학대와 만족도 간의 부적인 관계($b = -0.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자아탄력성과 학대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관계($b = 0.048$)로 나타났으나 매개 효과를 보기 위한 조건인 학대와 자아탄력성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실제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Sobel의 Z -test = -0.047).

IV. 논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패널2010(KCYP2010) 중학교 1학년 코호트 집단을 대상으로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년 동안 수집된 자료 가운데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사회정서적 성격특성과 부모양육태도의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장에서 기술한 자료 분석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정서적 특성 및 부모양육 태도의 구조 및 경로계수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연구모형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사회정서적 특성 요인의 종단적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2차년도에 3차년도에 미치는 효과 및 3차년도에 4차년도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는 이전 해의 행동특성이 그 다음 해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셋째,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모양육 태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도 유사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 가운데 학대는 비록 실제 평균은 2, 3차년도에 비해 4차 년도는 줄어들었으나, 3차년도에 4차년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정서적 요인과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만족도가 높으나, 그 크기는 매우 미미하였으며, 우울이 높은 경우 만족도는 상당히 낮았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하여, 부모의 관심이 높다고 느끼는 청소년은 만족도가 높았으나($b = 0.144$), 부모가 학대한다고 느끼는 청소년의 만족도는 낮았다($b = -0.05$). 다섯째,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비방관(관심) 양육태도에 정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인 학대에 대한 매개 효과는 없었다. 한편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대한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간접 효과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각각 -0.079 , -0.047 로 효과 크기가 크지는 않았으나, 자아탄력성이 만족도와 사회적 위축 및 우울에 대해 부적인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각 변수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반영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부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자아탄력성도 부적인 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상의 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교육적 입장에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요한 발달 선상에 있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사회정서적 특성 요인과 부모양육방식의 중요성을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통해 재차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특히 종단적 자료의 분석 결과에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발달경향을 보인 것은 발달심리학의 연구에서 중요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의 주요 관심인 사회정서적 특성 요인 가운데 부정적 정서 요인에 대한 종단 자료 분석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만족도가 우울 정서나 부모의 양육방식(학대)에 영향을 받고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보인 점은 학교장면에서 인성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이 부정적 정서를 부적으로 매개하기에 이에 적절한 심리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또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을 위한 대인관계 및 사회적 기술 증진 프로그램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와 관련해서 다 밝히지 못한 점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양육태도의

종단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학교환경 및 또래 변인들에 대한 정보를 함께 동시에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급격한 신체적, 생리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서적 불안정감이나 높은 스트레스 등을 호소할 수 있다. 더욱이 현대사회의 아동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일찍부터 지식 위주의 교육을 받게 되므로,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도와 행복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사회적·물리적 환경과 생물학적 요인, 인지적, 정서적, 대인관계, 언어적 요인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서 아쉬운 점은 종단 자료의 수집 설계에서 일관성 있는 계획과 자료의 충분성에 대한 것이다. 지속적인 자료의 추적으로 완성된 종단적 변화를 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고문헌

- 강유진(2008). 초등학교생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요인의 스트레스 증재효과: 보호과정 및 취약과정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9(3), 57-84.
- 김경아, 오경옥 (2005). 초등학교생의 우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 **충남대간호학술지**, 8, 1-11.
- 김금순, 유성모 (2010).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3B), 1321-1338.
- 김지경 (1995). **가족관계와 우울 및 공격성 간의 관련성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혜 (2013).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이 인터넷 활용유형을 매개로 사이버비행과 현실비행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4, 31-59.
- 김용석, 박명숙 (2000). 청소년문제행동의 공통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2, 83-106.
- 김윤정 (1999). **우울성향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유정아, 임지영 (2003). 외톨이 초등학교생의 병울 및 우울, 불안, 스트레스, 학교부적응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10(4), 2397-2419.
- 유안진,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민 (2005).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23-132.
- 임경희(2010). 감사성향과 자아 탄력성이 초등학교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교육논총**, 47(2), 101-118.
- 정은선, 조한익 (2009).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강인성의 매개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심리 및 심리치료**, 21(1), 209-227.
- 정익중, 이은주 (2012). 학대와 따돌림이 청소년기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2), 217-242.
- 진혜민, 배성우(2012). 청소년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 193-221.
-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 behavior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 *Child Development*, 63(4), 1120-1136.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Books (new printing, 1999, with a foreword by Allan N. Schore; originally published in 1969).
- Bowlby, J. (200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Basic Books: U.S.A.
- Cheung, G.W., & Rensvold, R. B. (2000). Evaluating goodness of fit indic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9, 233-255.
- Kerr, M. M., & Nelson, C. M. (1989). *Strategies for managing problem behaviors in the classroom*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Rubin, K. H., LeMare, L. & Lollis, S. (1990).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developmental path-ways to peer reje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217-252).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afer, J. L. (2000). NORM(software). <http://sites.stat.psu.edu/~jls/misoftwa.html>(retrieved June, 2014).

제 9 주제

대학원생 공모 수상작

- 1 최우수상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 또래애착 및 부모의 양육방식과 휴대전화의존도의 구조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
- 2 우수상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 3 우수상 아동·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도, 건강상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간가구소득 차이를 중심으로
- 4 우수상 가정배경, 교우관계, 휴대전화 오락추구적 이용행태와 학업성취의 관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 또래애착 및 부모의 양육방식과 휴대전화의존도의 구조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

박새롬*·노보람**·정정화***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을 종단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 1차년도에 측정한 또래애착과 부모의 양육방식(긍정적, 부정적), 4차년도에 측정한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사이에 어떠한 구조적 관계가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0~2013년에 걸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1~4차년도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과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는 선형함수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또래애착, 부모의 양육방식(긍정적, 부정적)은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적응 궤적은 1차년도 또래애착과 1차년도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4차년도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하였으며, 1차년도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5차년도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였다. 넷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 결과, 잠재성장모형의 다집단분석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의 증가율이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구조모형의 다집단분석에서는 변인 간 영향력을 미치는 경로는 모두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잠재성장모형,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 휴대전화 의존, 다집단분석

I. 서론

중학교 시기에 접어드는 초기 사춘기의 청소년은 이전과는 다른 신체 및 심리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먼저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으로 대표되는 호르몬의 변화를 겪게 되며, 심리·정서적으로는 자아정체감의 형성이라는 발달과업에 직면한다. 전 생애를 거쳐 각 시기마다 인간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수료 dplum@naver.com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이 직면하는 다양한 위기나 적응 문제가 존재하나 그 중에서도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이자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도기로, 그에 따른 역할의 변화와 적응문제 및 확대된 교우 관계, 이성문제, 진로 문제, 가치관 문제 등의 새로운 발달과업을 마주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장휘숙, 2004).

한편 청소년에게 학교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요 생활영역이다. 이들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하며 단체 생활을 통해 사회 질서와 문화를 체득하며 대인관계 능력과 사회성을 기른다. 즉, 학교는 청소년의 인지 및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현재 환경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인기의 발달적 성취 및 직업과 사회적응의 밑거름을 마련하는 중요한 미래지향적 환경이다(서정아, 2013). 따라서 학교 생활적응은 청소년의 향후 적응 및 발달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청소년들은 일차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며 또한 이 시기를 거쳐 다시 한번 고등학교로의 전환기를 맞이한다. 이 때 청소년은 지속적인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 발달을 경험하는 동시에 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에 직면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학업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기대 및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중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시기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양상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을 추구하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빈도는 감소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강화되며 친구들의 지지와 인정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시기이다. 즉, 청소년기는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는 커지지만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양가적 행동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장석진·송소원·조민아, 2011). 따라서 이와 같은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했을 때, 부모요인과 또래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이들 변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양상에 각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부모요인으로서는 부모의 양육방식을 들 수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인 방임 및 학대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박기원, 2014),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인 민주적 양육방식과 온정적인 태도는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되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장영애·박정희, 2008; Baumrind, 1971).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래요인으로서는 또래애착이 있다. 즉,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친밀한 또래관계를 통하여 형성되는 긍정적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심리 및 정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불어 다른 사람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높인다(최지은·신용주, 2003).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청소년의 학

교생활적응을 살펴볼 때 부모와 또래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 및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격한 신체적 변화 및 심리적 불안정과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의 경험은 청소년들을 중독에 취약하게 만든다. 중독이란 술이나 마약, 기타 물질에 대한 심리 및 생리적 의존뿐만 아니라 특정행위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충동조절의 문제를 포함한다(Marks, 1990). 이와 관련하여 이전에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최근 스마트폰이 확대 보급되면서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중독 문제가 청소년의 삶과 관련하여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성가족부(2012)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도에 68%였던 청소년 휴대전화 보유율이 2011년에 이르러 90.1%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0년 5.8%에서 2011년에는 36.2%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안의 PC’로 불리는 스마트폰은 생활에 필요한 날씨나 교통정보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친구들과 쉽고 편하게 연락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로서 휴대전화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일상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김지혜, 2012). 청소년들에게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서 오락 기구이자 패션이고, 친구들과의 소통을 위한 메신저이며, 마음에 드는 배경화면을 장식하고 벨소리를 바꾸는 등 자신을 표현하는 표출 수단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오동균, 2009).

하지만 휴대전화의 과도한 사용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청소년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은 SNS 중독이나 사이버 괴롭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안수빈, 2014) 개인적으로도 불안감과 주의집중 결여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 PC나 TV와 달리 휴대전화는 여러 기능이 통합되고 소형화된 매체로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Berns, 2012), 이러한 특성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중독과 의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우선적으로 학교생활적응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학교생활적응과 휴대전화 중독 사이에는 부적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이연미·이선정·신효식, 2009; 정성화·조경덕, 2010). 즉, 학교생활에 부정적응하는 청소년의 경우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부모요인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요인 중 부모자녀 관계, 양육태도, 의사소통 양식 등이 청소년의 중독적 휴대전화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미숙·권미경, 2011; 이어리·이강이, 2012; 차미숙, 2006). 또한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 부모와 더불어 청소년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또래의 영향력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청소년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며, 휴대전화가 친구들과 즉각적인 연락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휴대전화에 애착을 갖고 의존하게 된다(성윤숙, 2008).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청소년들이 휴대전화 중독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해경, 2008), 휴대전화 중독군은 친구와의 연락을 주된 휴대폰 사용 목적으로 지목하였다는 결과(류미숙·권미경, 2011)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또래동조성 및 또래애착은 휴대전화 사용 및 의존 정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휴대전화 의존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성차를 예측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사회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사회화의 차이에 따라 성차가 나타난다고 볼 때(Eagly, 1987), 남학생과 여학생 간 학교생활적응의 변화 혹은 휴대전화 의존 정도 그리고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학교생활적응 면에서 여학생의 적응수준이 높다는 결과(구자은, 2000; 최지은·신용주, 2003)와 반대로 남학생의 적응수준이 더 높다는 결과(이수경, 2004)가 혼재되어 있다. 한편, 송경아(2008)는 학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성차가 존재하며 중학교에서는 여학생의 적응수준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남학생의 적응수준이 여학생에 비해 높아짐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휴대전화 의존에 있어서도 성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 남성은 새로운 매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기술친화적인 존재로 고려되는 반면에 여성은 새로운 매체에 소극적이고 비친화적인 존재로 평가되어 왔다(김선남·나미수, 2008). 그러나 구현영(2012)은 휴대전화 의존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휴대전화가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매체임을 들었다. 즉, 남성보다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가 높은 여성이 휴대전화 중독 위험이 높기 때문에 휴대전화 의존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였을 때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주변 지지체계인 부모의 양육방식 및 친구 관계에서의 또래애착, 그리고 휴대전화 의존 간에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들 변수 간의 구조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각 변수 간의 경로 및 영향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시도는 적으며 이에 대한 연구 결과도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 또래애착 및 부모의 양육방식과 휴대전화의존도의 구조관계를 살펴보고, 각 변인들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은 어떠하며, 이 발달 궤적에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 또래애착(의사소통, 신뢰), 지각된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및 부정적 양육방식(과잉기대, 과잉간섭, 비밀관성)과 휴대전화의존도의 구조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 또래애착, 지각된 부모의 양육방식과 휴대전화의존도의 구조관계는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3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추적 조사하는 종단 패널 연구로,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0년 첫 번째 조사를 시작하여 2013년에 네 번째 측정이 이루어졌다. 표본은 2009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 틀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에 의해 추출된 중학교 1학년 2,351명을 대상으로 집단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b).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총 2,350명으로, 남학생 1,176명(50%), 여학생 1,175명(50%)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 따른 척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생활적응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종단패널 1차, 2차, 3차, 4차년도 조사에 포함된 문항 중 학교생활의 하위 요인들을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은 문선보(1989)의 학교생활적응척도와 이상필(1900)의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척도 문항(정화실, 2009 재인용)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것이다(한국청소년연구원, 2014a). 학교생활적응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활동 문항에는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학교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등이 있고, 학교규칙 문항에는 “학교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등이 있다. 교우관계 문항에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등이 있고, 교사관계 문항에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등이 있다. 모든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4: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져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어려움을 나타낸다. 따라서 결과 해석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척도를 역코딩하여 사용하였으며, 다른 문항들과 의미가 반대인 두 문항(“공부시간에 딴 짓을 한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은 제외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본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알아본

결과 학교생활적응은 1차년도 .852, 2차년도 .866, 3차년도 .865, 그리고 4차년도 .872로 나타났다.

2) 또래애착

청소년의 친구관계 중 또래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또래애착 척도(IPPA)를 재구성한 것으로(한국청소년연구원, 2014a), 의사소통, 신뢰, 소외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의 하위요인 중 부정적 의미를 가진 소외를 제외하고 긍정적 또래애착을 의미하는 의사소통과 신뢰를 사용하였다. 의사소통의 하위문항은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등이고, 신뢰의 하위문항에는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모두 Likert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4: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또래애착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위해서 응답 문항을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긍정적 또래애착 전체 6문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57이었고,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의사소통 .758, 신뢰 .753으로 나타났다.

3) 양육방식

부모의 양육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양육방식 검사를 활용하되,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한 질문을 부모로 수정한 뒤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한국청소년연구원, 2014a). 이 검사는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양육방식은 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의 6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맞게 문항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을 긍정적 양육방식으로,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을 부정적 양육방식으로 구성개념을 정의하였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독은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애정은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합리적 설명은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주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비밀관성은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시고 어떤 때는 안 치신다”, 과잉기대는 “나에게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과잉간섭은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모두 Likert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4: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는데,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하여 채점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각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긍정적 양육방식 전체(10문항) .854, 각 영역별로는 감독(3문항) .759, 애정(4문항) .819, 합리적 설명(3문항) .742로 나타났다. 부정적 양육방식 전체(11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32, 각 영역별로는 비밀관성(3문항) .608, 과잉기대(4문항) .702, 과잉간섭(4문항) .639이었다.

4) 휴대전화의존도

휴대전화의존도는 이시형 외(2002)의 연구를 참조하여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구성한 7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한국청소년연구원, 2014a). 휴대전화의존도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4: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었으며, 마찬가지로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처리 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차년도에 측정된 휴대전화의존도 7문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84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 및 자료의 분석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1차년도에 측정된 또래애착과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방식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할 가능성도 있는 변수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 및 또래와 맺는 관계의 특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가정하고,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 변화에 장기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또래애착과 부모의 양육방식이 이후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학교생활적응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즉, 중학생의 또래애착과 부모의 양육방식은 휴대전화 의존에 직접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휴대전화 의존에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 모형을 통하여 중학생의 또래애착, 부모 양육방식 및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이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력과 구조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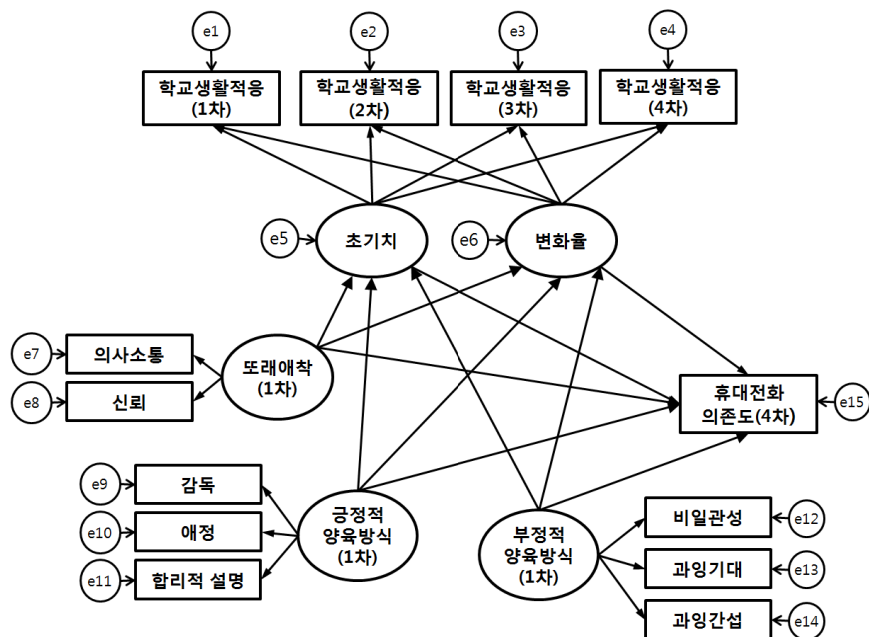


그림1. 연구모형

자료는 SPSS 19.0 및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중학생 시기를 거쳐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4년 동안 학교생활적응의 발달 궤적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 발달 궤적에 개인차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활용하였다. 또한 또래애착과 부모의 양육방식(긍정적, 부정적)이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래애착, 부모의 양육방식 및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이 이후 휴대전화 의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다른지 그리고 그 양상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집단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 결측치는 AMOS에서 제공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으로 처리되었다. 이 방법은 결측치가 있는 케이스를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대신 결측치를 미지수의 추정값들과 표준오차들의 관찰자료로부터 추정하는 방법(홍세희·유숙경, 2004)으로, 결측치가 다수 발생하는 종단자료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값과 함께 홍세희(2000)가 다른 지수들에 비해 바람직한 적합도 기준을 대체로 만족시킨다고 제시한 RMSEA, TLI, CFI 값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χ^2 값의 p -value가 .05이상일 때 검증모형이 실제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χ^2 값은 영가설이 매우 엄격하여 모형이 너무 쉽게 기각되고,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유의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Klein,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지수 RMSEA, TLI, CFI를 사용하여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였는데, 이들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RMSEA와 TLI의 경우 모형의 간명성까지 고려한다(홍세희, 2000). RMSEA는 .05이하, TLI, CFI는 .95이상일 때 모형의 적합성이 좋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RMSEA는 .07이하, TLI, CFI는 .90이상일 때 모형의 적합성이 양호하다고 본다.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의 학교생활적응과 1차년도의 또래애착 및 양육방식, 그리고 4차년도 휴대전화의존도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1과 같다.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의 평균은 1차년도 2.80, 2차년도 2.84, 3차년도 2.89, 4차년도 2.93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1차년도 중학생의 또래애착은 의사소통 2.90, 신뢰 3.03으로 신뢰가 약간 더 높게 측정되었다. 1차년도 부모의 양육방식은 긍정적 양육방식의 경우 감독 3.16, 애정 3.01, 합리적 설명 2.82로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으로 감독이 가장 높게, 합리적 설명이 가장 낮게 인지되었다. 부정적 양육방식은 비일관성 2.34, 과잉기대 2.63, 과잉간섭 2.41로 과잉기대가 가장

높게, 비일관성이 가장 낮게 인지되었다. 4차년도 고등학교 1학년의 휴대전화의존도는 1.6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모수추정을 위해 사용된 최대우도법은 데이터의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Curran, West, & Finch, 1996), 데이터의 치우친 정도와 집중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검토하였다. 왜도 및 첨도 값을 확인한 결과 왜도 ± 2 미만, 첨도 ± 7 미만으로(West, Finch, & Curran, 1995) 정규분포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측정변인		N	M	SD	왜도	첨도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 1차	2349	2.80	.38	-.02	.44
	학교생활적응 2차	2279	2.84	.41	-.01	.50
	학교생활적응 3차	2250	2.89	.39	.060	.66
	학교생활적응 4차	2080	2.93	.37	.21	.66
긍정적 또래애착	의사소통 1차	2348	2.90	.59	-.31	.91
	신뢰 1차	2349	3.03	.63	-.46	.38
긍정적 양육방식	감독 1차	2350	3.16	.65	-.61	.14
	애정 1차	2348	3.01	.65	-.56	.23
	합리적 설명 1차	2349	2.82	.67	-.41	.14
부정적 양육방식	비일관성 1차	2349	2.34	.68	.10	-.20
	과잉기대 1차	2349	2.63	.66	-.03	-.36
	과잉간섭 1차	2348	2.41	.63	.10	-.19
휴대전화의존도	휴대전화의존도 4차	2027	1.60	.53	.19	-.29

성별에 따른 또래애착, 부모의 양육방식, 학교생활적응, 그리고 휴대전화의존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학교생활적응은 1차년도에 2.80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수준이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4차년도에는 남학생 2.91, 여학생 2.94로 여학생의 증가폭이 더 컸다. 1차년도 또래애착의 경우 의사소통, 신뢰 모두에서 여학생이 약간 더 높았다. 1차년도 긍정적 양육방식의 경우 감독 항목은 여학생이 더 높았고, 애정, 합리적 설명 항목은 남학생이 더 높았다. 1차년도 부정적 양육방식은 하위항목 모두에서 남학생이 더 높게 인식하였다. 4차년도 휴대전화의존도는 남학생이 1.55, 여학생이 1.65로 여학생의 의존도가 약간 더 높았다.

표 2 ▸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측정변인	남학생					여학생				
	N	M	SD	왜도	첨도	N	M	SD	왜도	첨도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 1차	1174	2.80	.40	.01	.46	1175	2.80	.37	-.06	.41
학교생활적응 2차	1152	2.82	.43	-.03	.60	1127	2.85	.39	.04	.28
학교생활적응 3차	1136	2.86	.42	.09	.28	1114	2.92	.36	.11	.88
학교생활적응 4차	1059	2.91	.39	.31	.28	1021	2.94	.34	.08	1.25
긍정적 또래애착										
또래 의사소통 1차	1173	2.81	.63	-.31	.71	1175	2.99	.53	-.12	.84
또래 신뢰 1차	1174	2.95	.66	-.45	.39	1175	3.11	.60	-.42	.21
긍정적 양육방식										
감독 1차	1175	3.13	.66	-.63	.23	1175	3.19	.63	-.58	.00
애정 1차	1173	3.04	.64	-.60	.41	1175	2.98	.66	-.53	.07
합리적 설명 1차	1174	2.88	.66	-.47	.26	1175	2.76	.67	-.34	.06
부정적 양육방식										
비일관성 1차	1174	2.40	.67	-.01	-.11	1175	2.27	.68	.22	-.20
과잉기대 1차	1174	2.73	.64	-.15	-.24	1175	2.53	.66	.11	-.34
과잉간섭 1차	1173	2.52	.61	.02	-.06	1175	2.31	.63	.22	-.18
휴대전화의존도	1025	1.55	.51	.21	-.21	1002	1.65	.54	.16	-.35

측정변인들 간 상관관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또래애착의 하위항목인 의사소통과 신뢰의 상관관계수는 .74($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긍정적 양육방식의 하위항목 간 상관은 .21에서 .64로 나타났고 모두 유의하였다($p<.001$). 부정적 양육방식의 하위항목 간 상관은 .49에서 .66으로 비교적 높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p<.001$).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학교생활적응 간 상관은 .38에서 .55였으며 모두 유의하였다($p<.001$). 4차년도 휴대전화의존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부정적 양육방식 중 비일관성($r=.09$, $p<.001$), 과잉기대($r=.06$, $p<.001$), 과잉간섭($r=.09$, $p<.001$)이었다. 휴대전화의존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긍정적 양육방식 중 감독($r=-.12$, $p<.001$) 및 애정($r=-.08$, $p<.001$), 그리고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의 학교생활적응(1차년도 $=-.17$, 2차년도 $=-.14$, 3차년도 $=-.21$, 4차년도 $=-.26$, $p<.001$)이었다.

표 3 측정변인 간의 상관계수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또래 의사소통 1차	1												
2. 또래 신뢰 1차	.74***	1											
3. 감독 1차	.25***	.21***	1										
4. 애정 1차	.31***	.30***	.43***	1									
5. 합리적 설명 1차	.27***	.22***	.33***	.64***	1								
6. 비밀관성 1차	-.06**	-.06***	-.14***	-.34***	-.25**	1							
7. 과잉기대 1차	.01	.00	-.01	-.25**	-.17**	.49***	1						
8. 과잉간섭 1차	-.02	-.03	-.06**	-.30**	-.18**	.56***	.66***	1					
9. 학교생활적응 1차	.37***	.33***	.40***	.37***	.29***	-.13***	-.03	-.09***	1				
10. 학교생활적응 2차	.27***	.25***	.27***	.26***	.19***	-.08***	-.00	-.04	.53***	1			
11. 학교생활적응 3차	.27***	.25***	.27***	.23***	.18***	-.09***	-.02	-.08***	.48***	.55***	1		
12. 학교생활적응 4차	.22***	.20***	.21***	.17***	.15***	-.09***	-.03	-.08***	.38***	.41***	.49***	1	
13. 휴대전화의존도	.03	.03	-.12***	-.08***	-.04	.09***	.06*	.09***	-.17***	-.14**	-.21**	-.26**	1

*** $p < .001$, ** $p < .01$, * $p < .05$

2. 학교생활적응의 잠재성장모형

2010년에서 2013년까지 4개 시점에서 측정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무조건 모형으로 무변화모형, 선형모형, 비선형모형(이차함수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무변화모형은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는 모형이다. 선형모형은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일정하게 높아지거나 낮아질 것으로 가정한다. 이차함수 모형은 학교생활적응이 일정하게 변화하지 않고 변화율이 달라질 것으로 가정한다. 각각의 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학교생활적응 변화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및 성장요인의 예측평균

모형	성장요인의 예측평균	χ^2	df	p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초기치 = 2.861***	396.123	8	.000	.811	.849	.139(.127-.151)
선형모형	초기치 = 2.797*** 변화율 = .044***	55.334	5	.000	.958	.979	.065(.051-.082)
이차함수모형	초기치 = 2.761*** 변화율 = .047*** 이차항 = -.001	2.347	1	.126	.994	.999	.024(.000-.066)

*** $p < .001$

4차년도에 걸친 학교생활적응의 발달 궤적을 보다 잘 설명하는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χ^2 값과 TLI, CFI, RMSEA 값, 그리고 성장요인의 예측평균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적응의 발달 궤적은 선형모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함수모형의 경우 TLI, CFI 값

이 1.0에 더 가깝고 RMSEA값이 .05 이하로 적합도가 우수하지만, 이차항의 추정치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택되지 못했다. 선형모형의 경우 TLI는 .958, CFI는 .979, RMSEA는 .065로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초기치와 변화율의 예측평균이 유의하였다. 여기에서 RMSEA값의 90% 신뢰구간의 상한값이 .08(혹은 .10)보다 작으면 적합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일한 RMSEA 값이라도 신뢰구간이 좁을수록 정밀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합도가 더 우수하다(이학식·임지훈, 2008). 이에 따라 최종 선택된 모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최적 모형인 선형모형의 모수추정치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치 예측평균은 2.797, 변화율의 예측평균은 .044로,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4년 동안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도 유의하게 나타나 학교생활적응의 발달 궤적에 있어서 개인차가 유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초기치와 변화율 간 유의한 부적 상관($r = -.472, p < .001$)은 초기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천천히 증가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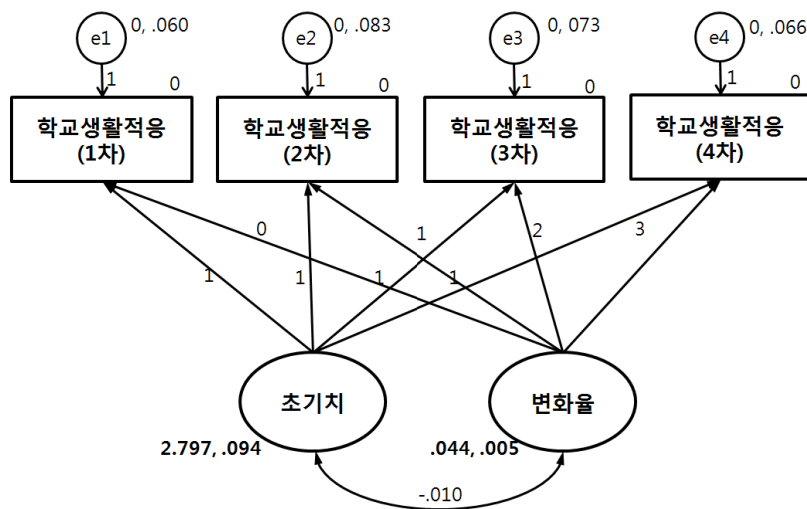


그림 2. 학교생활적응 잠재성장모형

표 5 학교생활적응 변화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선형모형

	초기치	변화율
평균	2.797***	.044***
분산	.094***	.005***
공분산(초기치 ↔ 변화율)	-.010(-.472)***	

주: 괄호 안은 표준화된 상관관계수

*** $p < .001$

3. 또래애착, 부모의 양육방식, 학교생활적응의 발달 궤적이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 모형

학교생활적응의 발달 궤적, 1차년도 또래애착 및 부모의 양육방식(긍정적, 부정적), 그리고 4차년도 휴대전화의존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는 $\chi^2=421.676(df=55, p<.001)$, $TLI=.939$, $CFI=.963$, $RMSEA=.053$ 으로 나타나 이 모형이 비교적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 즉,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과 1차년도 또래애착,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방식, 그리고 4차년도 휴대전화의존도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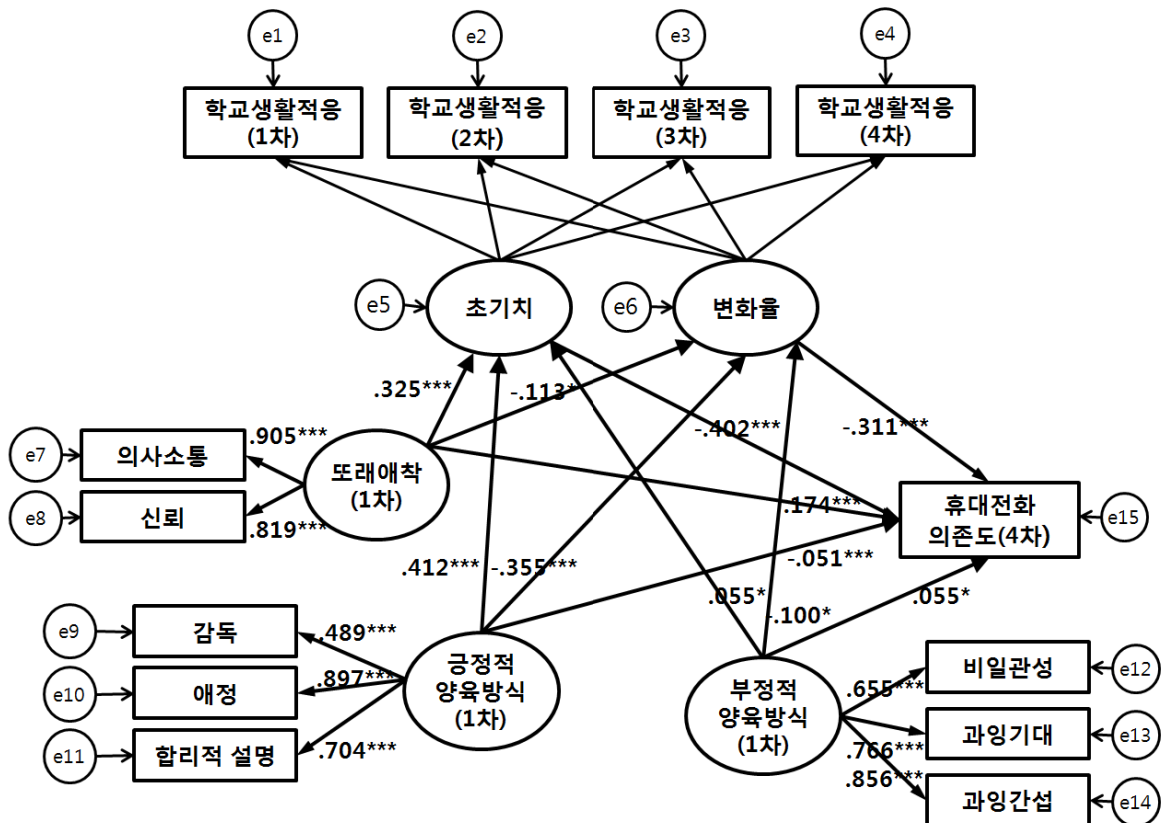


그림 3. 또래애착, 양육방식 및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이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모형

주: 모형에 표기된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 $p < .001$, * $p < .05$

표 6 ▶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구조모형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 또래애착, 양육방식, 휴대전화의존도)	421.676	55	.000	.939	.963	.053(.049-.058)

변인들 간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구조모형에서 1차년도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을 매개로 4차년도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는 모두 유의하였다. 1차년도에 측정된 또래애착과 양육방식(긍정적, 부정적)은 모두 학교생활적응의 발달 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초기값이 더 높았고($\beta=.325, p<.001$),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천천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13, p<.05$). 이와 유사하게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치가 높았고($\beta=.412, p<.001$), 더 천천히 증가($\beta=-.355, p<.0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차년도에 청소년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을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치가 높았고($\beta=.055, p<.05$), 학교생활적응이 천천히 증가하였다($\beta=-.311, p<.001$).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치($\beta=-.402, p<.05$)와 변화율($\beta=-.311, p<.05$)이 4차년도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하였다. 즉,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치가 높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학교생활적응수준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의존도가 더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인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1차년도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4차년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174, p<.001$). 또래애착은 휴대전화의존도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궤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차년도 부정적 양육방식이 높을수록 4차년도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았다($\beta=.055, p<.001$). 부정적 양육방식도 휴대전화의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생활적응의 발달 궤적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1차년도 긍정적 양육방식이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양육방식은 학교생활적응의 발달 궤적을 통해 휴대전화의존도에 간접적 영향만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은 1차년도 또래애착과 부정적 양육방식이 4차년도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부분매개하였고, 1차년도 긍정적 양육방식이 4차년도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전매개하였다.

이 모형에서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의 예측평균은 초기치(2.797)와 변화율(.310)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즉, 또래애착과 부모의 양육방식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학교생활적응의 궤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 휴대전화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구조모형의 추정치

	<i>B</i>	<i>S.E.</i>	<i>β</i>
경로			
또래애착(1차)→학교생활적응 초기치	.195***	.016	.325
또래애착(1차)→학교생활적응 변화율	-.017*	.007	-.113
긍정적 양육방식(1차)→학교생활적응 초기치	.404***	.034	.412
긍정적 양육방식(1차)→학교생활적응 변화율	-.088***	.013	-.355
부정적 양육방식(1차)→학교생활적응 초기치	.032*	.016	.055
부정적 양육방식(1차)→학교생활적응 변화율	-.015*	.006	-.100
학교생활적응 초기치→휴대전화의존도(4차)	-.685***	.059	-.402
학교생활적응 변화율→휴대전화의존도(4차)	-2.094***	.322	-.311
또래애착(1차)→휴대전화의존도(4차)	.178***	.030	.174
긍정적 양육방식(1차)→휴대전화의존도(4차)	-.086	.062	-.051
부정적 양육방식(1차)→휴대전화의존도(4차)	.055*	.027	.055
미지수			
학교생활적응 초기치	2.797***	.008	
학교생활적응 변화율	.044***	.003	

*** $p < .001$, * $p < .05$

4.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

위에서 설정한 잠재성장모형 및 구조모형에 대하여,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집단 간 모형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집단분석은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볼 때 각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분석방법이다. 먼저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시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궤적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 또래애착, 부모 양육방식이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고자 한다.

1)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의 차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잠재성장모형(무조건모형)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저모형의 모형적합도는 $\chi^2=73.342$ ($df=10$, $p<.001$), $TLI=.947$, $CFI=.974$, $RMSEA=.052$ 로 양호한 편이었다. 기저모형을 통해 남학생과 여학생 간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남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초기치(2.792, $p<.001$)와 변화율(.038, $p<.001$)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1학년 때 남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예측평균은 2.792이고, 이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점차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초기치(.103, $p<.001$)와 변화율(.006,

$p<.001$)의 분산 또한 모두 유의하여, 남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초기치와 변화율에는 개인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부적 관계로, 초기치가 높은 남학생일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느리게 증가하였다($-.012, p<.001$).

여학생의 경우에도 남학생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초기치(2.803, $p<.001$)와 변화율(.051, $p<.001$)이 모두 유의하였다. 중학교 1학년 때 여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예측평균은 2.803이고,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점차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치(.085, $p<.001$)와 변화율(.004, $p<.001$)의 분산 또한 유의하여, 여학생 간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에는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부적 관계로, 초기치가 높은 여학생일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느리게 증가하였다($-.009, p<.001$).

표 8 ▣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의 추정치

미지수(parameter)	평균(표준오차)		분산(표준오차)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초기치	2.792(.011)***	2.803(.011)***	.103(.007)***	.085(.006)***
변화율	.038(.004)***	.051(.004)***	.006(.001)***	.004(.001)***
공분산(초기치↔변화율)	-.012(.002)***	-.009(.002)***	-	-

*** $p < .001$

이와 같이 형태동일성 검증을 통해 학교생활적응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 여학생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더 높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치 및 변화율의 평균을 제약한 모형을 통해 두 집단 간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평균동일성 검증). 먼저 기저모형과 학교생활적응 초기치, 변화율의 평균을 모두 제약한 모형 간에 χ^2 차 검증을 실시한 결과(omnibus test), $\chi^2=84.462(df=12, p<.001)$, TLI=.950, CFI=.970, RMSEA=.051로 모형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9). 기저모형과의 χ^2 차이는 11.12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자유도 차이가 2일 때의 임계치인 5.99보다 더 커서 두 모형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이 성별 간 동일하지 않으며, 적어도 하나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 각각을 제약하여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posthoc)을 실시하였다. 기저모형과 초기치 평균만을 제약한 모형 간 χ^2 차 검증 결과, 기저모형과의 χ^2 차이는 .556으로 자유도 차이가 1일 때의 임계치인 3.84보다 작아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 간 학교생활적응 초기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기저모형과 변화율 평균만을 제약한 모형 간 χ^2 차 검증 결과, 기저모형과의 χ^2 차이는 4.955로 임계치보다 커서 두 모형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여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증가율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9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의 차이

모형	χ^2	df	TLI	CFI	RMSEA	$\Delta \chi^2$	Δdf
기저모형(형태동일성)	73.342	10	.947	.974	.031		
Omnibus Test	84.462	12	.950	.970	.051	11.120	2
Posthoc Test 1(초기치)	73.898	11	.952	.974	.049	.556	1
Posthoc Test 2(변화율)	78.297	11	.949	.972	.051	4.955	1

주: $p < .05$ 수준에서 카이제곱차 검증

2)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구조모형의 차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변화, 또래애착, 그리고 부모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휴대 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구조모형에 대하여 성별에 따라 잠재변수 간의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모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10).

첫 번째 단계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의 경우에 적합한 모형인지 확인하는 형태동일성(기저모형)을 검증하였다.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저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chi^2=512.180(df=110, p<.001)$, TLI=.933, CFI=.960, RMSEA=.039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나 형태동일성이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경로(요인부하량)를 동일하게 제약한 후, 기저모형과의 적합도 차이를 비교하는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 제약모형의 $\chi^2=516.331(df=115, p<.001)$, TLI=.936, CFI=.960, RMSEA=.039로 모형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모형과 제약모형(측정동일성)의 χ^2 차이는 4.151로, 유의수준 .05에서 자유도 차이가 5일 때의 임계치인 11.07보다 작으므로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두 모형은 통계적으로 동일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또래애착, 긍정적 양육방식, 부정적 양육방식의 측정도구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었다.

측정동일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이 모형을 기저모형으로 하여 잠재변수 간 경로를 모두 제약한 모형을 비교하는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제약모형의 $\chi^2=530.441(df=126, p<.001)$, TLI=.942, CFI=.960, RMSEA=.037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 단계에서의 기저모형과 제약모형(구조동일성)의 χ^2 차이는 14.11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자유도 차이가 11일 때의 임계치 19.68보다 작으므로 영가설을 채택하게 된다.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잠재변수 간 영향력의 경로는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0 ▶ 성별에 따른 구조모형의 모형동일성 검증

모형	χ^2	df	TLI	CFI	RMSEA	$\Delta \chi^2$	Δdf
기저모형(형태동일성)	512.180	110	.933	.960	.039		
측정동일성 모형	516.331	115	.936	.960	.039	4.151	5
구조동일성 모형	530.441	126	.942	.960	.037	14.110	11

주: $p < .05$ 수준에서 카이제곱차 검증

모형동일성 검증을 통해 최종 채택된 구조동일성 모형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표 11과 같다. 다집단분석에 적용된 모형은 모형동일성 검증 결과 최종 채택된 구조동일성 모형이므로, 표 11과 같이 구조모형에서의 각 변인 간 영향력이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차년도의 또래애착,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 및 부정적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의 발달 궤적을 매개로 하여 5차년도의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는 모두 동일하였다. 성별에 관계없이 1차년도의 또래애착($B=.197$, $p<.001$), 긍정적 양육방식($B=.400$, $p<.001$), 그리고 부정적 양육방식($B=.034$, $p<.05$)은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치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을 높게 지각하며, 부정적 양육방식(과잉기대, 과잉간섭, 비밀관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중학교 1학년 때의 학교생활적응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화계수를 통해 각 집단 내에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긍정적 양육방식(남=.387, 여=.434), 또래애착(남=.334, 여=.309), 부정적 양육방식(남=.054, 여=.060) 순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변인들이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또래애착($B=-.019$, $p<.01$)과 긍정적 양육방식($B=-.084$, $p<.001$)만 유의하였다. 1차년도의 또래애착이 높고, 긍정적 양육방식을 높게 지각할수록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은 더 천천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애착과 긍정적 양육방식의 지각이 더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치가 높기 때문에, 천장효과로 인해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마찬가지로 또래애착과 긍정적 양육방식의 지각이 낮은 경우 초기치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변화율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 학교생활적응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성별과 관계없이 중학교 1학년의 또래애착, 긍정적 양육방식 및 부정적 양육방식을 통제 한 상태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교생활적응의 발달 궤적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휴대전화의존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생활적응 초기치가 높고 ($B=-.689$, $p<.001$), 시간에 따라 더 빨리 증가할수록($B=-2.235$, $p<.001$) 휴대전화의존도는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인 또래애착($B=.146$, $p<.001$)과 부정적 양육방식($B=.090$, $p<.01$)이 높을수록 휴대전화의존도도 더욱 높았으며, 긍정적 양육방식은 휴대전화의존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요약하면, 중학생의 또래애착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긍정적, 부정적)이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은 또래애착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이후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부분매개하였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은 이후 휴대전화의존도에 대한 직접효과는 없으며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궤적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만이 유의하여 학교생활적응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표 11 성별에 따른 구조모형 다집단분석

	남학생			여학생		
	<i>B</i>	<i>S.E.</i>	β	<i>B</i>	<i>S.E.</i>	β
경로						
또래애착(1차)→학교생활적응 초기치	.197***	.017	.334	.197***	.017	.309
또래애착(1차)→학교생활적응 변화율	-.019**	.007	-.128	-.019**	.007	-.117
긍정적 양육방식(1차)→학교생활적응 초기치	.400***	.035	.387	.400***	.035	.434
긍정적 양육방식(1차)→학교생활적응 변화율	-.084***	.013	-.331	-.084***	.013	-.367
부정적 양육방식(1차)→학교생활적응 초기치	.034*	.017	.054	.034*	.017	.060
부정적 양육방식(1차)→학교생활적응 변화율	-.012	.007	-.079	-.012	.007	-.087
학교생활적응 초기치→휴대전화의존도(4차)	-.689***	.059	-.429	-.689***	.059	-.384
학교생활적응 변화율→휴대전화의존도(4차)	-2.235***	.341	-.344	-2.235***	.341	-.311
또래애착(1차)→휴대전화의존도(4차)	.146***	.031	.154	.146***	.031	.128
긍정적 양육방식→휴대전화의존도(4차)	-.039	.063	-.024	-.039	.063	-.024
부정적 양육방식→휴대전화의존도(4차)	.090**	.028	.090	.090**	.028	.090
미지수(Parameter)						
학교생활적응 초기치	2.792***	.011		2.803***	.011	
학교생활적응 변화율	.038***	.004		.050***	.004	

*** $p < .001$, ** $p < .01$, * $p < .05$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을 분석하고, 이러한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이 청소년의 또래애착, 부모의 양육방식(긍정적, 부정적)과 함께 이후의 휴대전화의존도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중학교 1학년은 청소년기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성장에 따른 급격한 신체변화와 함께 초등학교와 질적으로 다른 중학교 진학이라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학교생활적응의 발달 궤적을 탐색하여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

석을 통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변화 양상 및 성별에 따른 변화 양상의 차이, 그리고 관련 변인들의 구조모형에서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 및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선형모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시기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생활적응이 높을수록 시간에 지남에 따라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더 천천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천장효과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학년도에 이미 학교생활적응이 높았던 청소년은 향상될 여지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이 낮았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교급이 변화하는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 학교생활적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적응 수준이 낮은 중학교 시기의 학교적응에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초등학교와는 질적으로 다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입시의 관문으로 여겨지는 중학교에서의 적응은 중학교 1학년에 진입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또래애착,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방식은 모두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또래와 부모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타인(최지은·신용주, 2003)임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청소년이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간 신뢰를 통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맺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치가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변화율은 낮았는데, 이 또한 천장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다. 청소년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을 높게 지각할수록, 즉 부모가 평소 생활에 지도감독을 하고, 애정을 더 자주 표현하고, 훈육할 때 합리적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할수록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초기치가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변화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즉 부모가 학업성취나 능력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기대를 하고, 간섭이 심하여 자율성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성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에도 경로의 패턴은 동일하였다. 이는 긍정적 양육태도는 긍정적인 발달 결과를, 부정적 양육태도는 그와 반대의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밝혀온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먼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 사용된 부모 양육방식 측정도구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 측정한 부모 양육방식은 부모가 직접 응답한 것이 아니라 자녀인 청소년이 응답한 내용이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방식이 유사하더라도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나 훈육을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여기에는 청소년의 다양한 개인적 특성이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우리나라의 부모-자녀관계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

다. 여러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자녀관계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향적인 관계이다(De Mol & Buysse, 2008). 또한 다른 대인관계들과는 달리 부모-자녀 관계는 필연적으로 장기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Kuczynski & Parkin, 2006)를 맺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양육방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부모-자녀관계의 전반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부정적 양육방식이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하다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미루어보면,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방식의 특성은 우리나라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둔 가족주의와 학업성취를 바탕으로 한 성공에 대한 부모의 열망이 자녀에게 투영됨으로써 자녀에 대한 애착과 통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부정적 양육방식의 과잉기대 항목은 학업성취 및 긍정적 학교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또한 학업 및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부모의 통제를 애정에 바탕을 둔 애착과 관심의 또 다른 형태로 인식하기 때문에, 일견 부정적으로 보이는 양육방식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나아가 학교적응 및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은 또래애착과 부모 양육방식이 이후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초기치, 이차항)은 또래애착, 부정적 양육방식이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부분매개하였으며, 긍정적 양육방식이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전매개하였다. 긍정적 양육방식은 휴대전화의존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면 부정적 양육방식은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또한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을 높게 지각할수록 이후 휴대전화의존도 또한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이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치와 휴대전화의존도가 동시에 높다는 것은, 부모의 통제가 높은 양육방식은 학습습관 및 학업능력의 비중이 큰 학교생활적응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만, 동시에 청소년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휴대전화 이용에 몰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의 잠재성장모형(무조건모형)에 대한 다집단분석 결과, 학교생활적응 초기치에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변화율에서 여학생의 증가율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청소년기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이 경험이 성별에 관계없이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Chung, Elias, & Schneider, 1998)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응은 중학교 1학년 때 그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학년에 올라감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궤적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중학교 진학 시 초기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는 성차가 나타나, 여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성차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혼재되어 있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장기적으로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여학생이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구자은, 2000; 최지은·신용주, 2003)을 종단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다.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성차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또래애착과 부모의 양육방식, 학교생활적응, 휴대전화의존도의 구조모형을 통하여 각 변인 간 영향력의 경로가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에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구조모형에 대한 다집단분석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각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모두 동일하였다. 성별에 관계없이 학교생활적응은 또래애착과 부정적 양육방식이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부분매개하였으며, 긍정적 양육방식이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전매개하였다. 이 구조모형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은 또래애착과 부모 양육방식이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조모형의 경로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각 변인들 간 영향력의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했던 또래관계와 양육방식은 청소년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 중 하나인 청소년기 대인관계의 특성을 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기질 및 성격 특성, 영역별 발달특성, 생활시간 등과 같이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학교생활적응 발달 궤적의 양상에 대한 종단 분석을 통해 횡단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선행연구들의 확장·보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의 발달 궤적을 매개로 하여 초기 청소년기의 또래애착 및 부모 양육방식이 시간이 흐른 후의 휴대전화의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 이를 성별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기에서 중기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응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특성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함으로써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응을 이해하는 데 더욱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을 점수화하여 분석하였으나, 청소년 간에 서로 다른 다양한 학교적응의 유형(권재기·정미경, 2012)을 고려한다면 좀 더 풍부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가 휴대전화의존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다양한 발달결과와 어떻게 장기적인 영향력을 주고받는지 살펴봄으로써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중재의 필요성을 더욱 명확히 하며, 이와 관련된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재기·정미경(2012). 학령후기 학교적응 프로파일과 관련된 개인, 가정환경 변인의 단기 종단적 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이용하여. **아동교육**, 21(3), 146-167.
-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현영(2012).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의 영향 요인.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5(2), 60-70.
- 김선남·나미수(2008). 휴대폰 이용에서의 성차 연구. **언론과학연구**, 8(3), 165-200.
- 김지혜(2012). 부모요인, 친구요인, 개인요인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용도를 매개로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4(3), 97-120.
- 류미숙·권미경(2011). 휴대폰 중독군과 비중독군의 어머니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차이비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4(2), 76-83.
- 박기원(2014).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국아동학회**, 35(1), 1-15.
- 서정아(2013).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청소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4(1), 135-164.
- 성윤숙(2008).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이용동기 및 결과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9(4), 181-197.
- 송경아(200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의사소통, 친구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수빈(2014). **부모애착과 또래동조성이 청소년의 SNS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오동균(2009). **청소년 휴대폰 중독적 사용이 사회·심리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 탐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경(2004). **학교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어리·이강이(2012). 부모요인, 친구요인, 심리적 요인이 초등학교생의 중독적인 휴대전화 사용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1(2), 27-39.
- 이연미·이선정·신효식(2009).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환경 변인. **한국가정교육학회**, 23(3), 29-43.
- 이해경(2008).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133-157.
- 장석진·송소원·조민아(2011).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431-451.
- 장영애·박정희(2008).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3(12), 69-82.
- 장휘숙(2004). **청년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전명순·김태균(2014). 청소년활동이 학교생활적응, 학습습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38, 71-90.
- 정성화·조경덕(2010). 청소년의 우울, 대인불안, 학교적응이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0(11), 285-293.

- 차미숙(2006). **외로움이 청소년의 휴대폰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재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은 · 신용주(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a).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KCYPS) 데이터 코드북**. 제4회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학술대회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b).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KCYPS) 사업 개요**. 제4회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학술대회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홍세희 · 유숙경(2004). 다변량 고차 잠재 성장모형을 이용한 내외통제성과 학업성취의 종단관계 분석. **교육평가연구**, 17(2), 131-146.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 1-103.
- Berns, R. M. (2012). Ecology of the mass media, In R. M. Berns (Ed.), *Child, family, school, community: Socialization and support*. 9th Edition (pp. 291-330). Wadsworth Cenage Learning.
- Chung, H., Elias, M., & Schneider, K. (1998). Patterns of individual adjustment changes during middle school transi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6(1), 83-101.
- De Mol, J. & Buysse, A.(2008). The phenomenology of children's influence on parents. *Journal of Family Therapy*, 30, 163-193.
- Eagly, A.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 A social-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Erlbaum.
- Kuczynski, L. & Parkin, M.(2006). Agency and bidirectionality in socialization: Interactions, transactions, and relational dialectics. In Grusec, J. E. & Hastings, P. D.(Eds.). *Handbook of socialization*. N.Y.: Guilford Press.
- Marks, I. (1990). Behavioral(non-chemical) addictions.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5, 1389-1394.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박성준*

국문초록

본 연구는 2차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발달궤적과 이를 설명하는 예측변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의 중1패널 1~4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증가하며 발달궤적에 개인차가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거주 지역에 따라 사회적 관계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청소년의 빈곤여부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관계 초기치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중 자아탄력성은 변화량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넷째, 가족구성에 따라 사회적 관계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부모의 학력수준과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사회적 관계 초기치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애착정도는 변화량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사회적 관계, 2차 잠재성장모형

I. 서론

청소년은 가정, 또래집단,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발달하게 된다. 아동기에는 부모를 비롯한 가족과의 관계가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McGue, Elkins, Walden, Iacono, 2005), 청소년기에 이르러 교우, 교사 등 학교에서의 관계가 청소년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metana, Campione-Barr, Metzger, 2006).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확대되어간다는 점이다(Giordano, 2003). 아동기에 형성하는 관계는 생득적인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부모 또는 주 양육자,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가족 등이 아동기에 형성되는 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Nath, Borkowski, Whitman, Schellenbach, 1991). 하지만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학교라는 구조화된 사회체계 내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습득하게 된다(이희정, 조윤주, 2010). 이 안에서 청소년은 생득적 관계보다 학교 사회에서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두드러지는 관계는 교우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이다(임성택, 김나연, 주동범, 2010). 이에 더불어 청소년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의 봉사활동·동아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beaver21c@naver.com

리 활동을 통한 대외활동,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의 참여 등 보다 넓은 차원에서의 사회참여를 접하게 된다(우정자, 2011). 이처럼 청소년기의 관계는 아동기의 관계보다 ‘사회적’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청소년기에 형성된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의 발달, 학교 및 사회적응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 따돌림이나 괴롭힘, 폭력 등이 사회적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들이다(박지연, 2008; 최미숙, 2014). 교사와의 불화, 교사 폭행 등은 교사와의 관계 문제로 인해 발생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 역시 지역사회에서의 신뢰 및 유대 관계 미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반면 환경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는 청소년은 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습득하게 된다. 실제 청소년 주변 환경에서의 긍정적인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유연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응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urstenberg & Hughes, 1995; Pinkerton & Dolan, 2007; 좌현숙, 2010). 뿐만 아니라 집단 활동참여 등과 같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이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한다(박희봉, 김명환, 2001; 조남익, 이광호, 2009). 이렇듯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는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발달과 올바른 사회화, 사회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Bagwell, Newcomb, Bukowski, 1998; 이세용, 1998).

청소년기는 점차 가족 내 관계에서 가족 외 관계와 사회적 체계에서 형성되는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단계이며 그 관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이란 개념 안에서 각 요인들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횡단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긍정적인 청소년의 환경요인들이 그들의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서혜숙, 2006; 김장민, 2009; 이봉주, 김선숙, 김남희, 2010; 전경하, 2012). 그러나 횡단 연구가 가진 한계로 인해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관계와 변화양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을 종단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환경적 영향들이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 사회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들도 있다(김세원, 2009; 신영원, 2010; 황여정, 김경근, 2014).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기존 횡단 연구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으나 청소년의 발달에 동반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위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의 환경요인과 사회적 관계 형성으로 인한 영향들이 고정적이라는 가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함을 가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가 고정적이지 않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발달궤적과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알아보고자 한국아

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1 패널 1~4차년도 종단자료를 활용하였다. 청소년의 교우관계, 교사관계, 지역사회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궤적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2차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다. 또한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발달궤적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 인구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가족요인을 설정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의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필요한 보호요인과, 관계형성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을 구분하고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개별적, 사회적 접근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형성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발달궤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발달궤적을 설명하는 예측요인은 무엇인가?

2-1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발달궤적과 인구학적 요인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2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발달궤적과 심리적 요인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3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발달궤적과 가족 요인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사회적 관계의 개념 및 특성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관계로서, 각 개체 간의 행동, 감정, 사고 등의 측면에서 상보적인 특성을 가진다(Fiske, 1992). 한 개인은 사회구조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망의 형태로 개인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Coleman, 1988; Putnam, 1995) 이러한 개념은 인간관계이론, 사회적 자본,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이론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인간관계이론을 살펴보면, Cooley는 인간관계를 구성원 간 직접적 대면접촉을 바탕으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1차 집단(primary groups)과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적 만남이 주가 되는 2차 집단(secondary groups)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정하성, 2008). 여기서 1차 집단에서의 대표적인 관계는 부모이며, 아동기에 형성된 1차 집단에서의 관계는 개인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아동기 이후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Nath et al., 1991). 2차 집단은 1차 집단 외의 집단, 다시 말해 학교 내에서 형성되는 교우 및 교사 관계, 지역사회 내 집단 참여 등을 포함한다(차조일, 박선웅, 2012). 인간관계이론에서 설명하는 관계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 등 여러 측면에서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의된다. 특히

1차 집단에서의 관계는 초기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심리적 요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2차 집단에서의 관계는 사회구조 속에서의 역할 수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때문에 2차 집단에서의 관계형성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은 가치생산 과정에서 투입되는 생산요소나 물질의 변화를 일컫는 물질 자본과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된 기술이나 지식 등을 일컫는 인적자본과는 달리 사회구조 내에서의 행위자 간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자본의 형태를 의미하며(이상일, 2007), 이러한 개념의 핵심은 사회적 관계이다(이정선, 2001; 이봉주 외, 2010).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용어를 혼용하는 경우도 있다(서혜숙, 2006). 사회적 자본에 대해 설명한 학자로는 Bourdieu, Coleman, Putnam이 대표적이며(박희봉, 김명환, 2001), 이들 중 Coleman은 특히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관계와 사회구조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에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Coleman, 1988). 또한 가족 내 사회자본과 가족 외 사회자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족 내 사회자본은 가족 외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김연희, 김선숙, 2008).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족 외 사회자본 형성에 배경이 되는 맥락적 요인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들 수 있다(Smetana et al., 2006). 즉,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자본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며 개인, 집단,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개체들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지지가 있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게 되는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얻은 자원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사용된다(정승민, 2005). 사회적지지 역시 다른 개념들과 동일하게 단일 차원이 아닌 다양한 체계로부터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최미숙, 2014).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족, 친구, 소속 집단, 지역사회 등 다양한 체계를 지지원으로 보고 각 체계 간 유대관계의 정도를 파악한다(남현주, 윤형식, 이태영, 신채영, 이동훈, 2013).

그러나 위 이론들이 설명하는 사회적 관계는 각각의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진다. 각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간관계이론에서 Cooley의 집단 분류 중 2차 집단은 1차 집단을 통해 형성된 인격을 바탕으로 사회관계를 맺는 장으로 정의된다. 때문에 2차 집단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1차 집단 내 관계를 통한 긍정적 발달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한편 Coleman이 주장한 사회적 자본은 기본적으로 합리적 선택 이론에 근간을 둔 생산적인 사회적 관계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김상준, 2004). 이는 환경과의 관계로 인해 발생한 효용에 집중하기 때문에 심리·정서적 안정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은 개체와의 상호작용 및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정보적·물질적 도움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들을 의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관계의 정도 외에 물질·인적 자원까지 포함하게 된다(정선희, 1999). 즉, 사회적 관계는 이러한 자원의 습득에 요구되는 조건에 해당하게 된다.

위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개념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다음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각 이론들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으로 사회적 관계를 제시한다. 둘째, 개인이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를 개인, 집단, 사회까지 확대하여 고려한다. 셋째,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고 가정한다. 결국 사회적 관계에 대한 설명은 각 이론들이 공유하고 있는 개념적 공통점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2.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가 점차 확대된다. 청소년기 역시 아동기와 마찬가지로 부모와의 관계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에서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또래와의 관계가 점차 중요시된다(McGue et al., 2005). 특히 청소년은 학교사회에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가 발달한다(임성택 외, 2010).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범위가 지역사회차원까지 넓어지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영향 역시 청소년의 심리적·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rooks-Gunn, Duncan, Klebanov, Sealant, 1993; Smetana et al., 2006).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청소년기는 관계형성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대인관계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이 대표적이다. 먼저 대인관계이론은 인간의 발달적 측면에서 생애 초기 타인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사회적 관계는 타인과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일 뿐만 아니라 각 연령대에 따라 그 형태가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Sullivan은 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의 대인관계를 6단계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3단계에 해당하는 학령기 이후에는 친구와의 관계가 중시되기 시작하여 이를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의 형태를 인지하고 안정된 인간관계속에서 친밀감과 신뢰감을 경험한다고 보았다(정옥분, 2009:53).

다음으로 사회학습이론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 여타 행동주의 이론들과 달리 개인의 인지능력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인간의 발달을 설명하였다. 특히 청소년기는 유아기, 아동기와 달리 활동의 범위가 학교 및 지역사회로 확대되면서 관찰과 모방을 하게 되는 환경요인들이 다양해진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소년은 집단 내 문화와 사회적 기대에 영향을 받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들을 습득하게 된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70).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한 이론 외에, 실증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심리적·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먼저 심리적 발달 측면을 살펴보면, 또래와의 관계는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유병숙, 2003) 위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아탄력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inkerton & Dolan, 2007; 좌현숙, 2010; 김현수, 오인수, 2012; 황여정, 김경근, 2014). 또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역시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Allen, Hauser, Bell, 1994; 이세용, 1998), 자아개념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세희, 박언하, 홍혜영, 2006). 또한 지역사회의 특성 역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세원, 2009). 한편 청소년의 문제행동 측면에서, 부모·또래·교사 등의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와 비행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주, 2012; 강경훈, 최수미, 2013).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족과의 관계는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손운용, 곽수란, 2006; 문은식, 2012). 또한 또래관계가 학교적응유연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현수, 오인수, 2012), 교사의 지지 역시 학교적응에 보호요인으로써 작용한다(손운용, 곽수란, 2006). 뿐만 아니라 학교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활동 참여가 사회성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진구, 허효주, 안현미, 2013).

3.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는 발달론적 관점에서 개인 내적 성숙에 의해 형성되는 심리적 요인으로만 볼 수 없다. 또한 이를 환경에 의한 결정요인이라 판단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 관계는 개인 내적 요인과 가족 요인, 환경 요인 간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을 들 수 있다(최병진, 1994).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학교적응력이 높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준, 2009). 또한 지역사회 유대, 소속감, 신뢰 등의 지역사회배경이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장민, 2009). 청소년의 종교성향 역시 도덕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김정현, 2014). 한편, 청소년의 빈곤은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광혁, 2014).

다음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 역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백봉렬, 2012).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또래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박지연, 2008)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강경훈, 최수미, 2013). 또한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대한 평가나 운동 능력에 대한 평가 등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청소년은 타인과 만족스런 상호작용을 한다(정승민, 2005). 한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또래관계와 정적인 관계에 있으며 사회부적응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최미숙, 2014).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친구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고 교사 및 교우관계,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왕해옥, 김

광웅, 2004; 송영희, 2006; 임성택 외, 2010). 부모와의 관계는 사회적응에 보호요인을 작용하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과 같은 가족의 구조적 문제는 청소년의 사회성, 대인관계, 학교적응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문찬수, 박정하, 이혜나, 2012; 남현주 외, 2013). 특히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서 가족요인은 가족 내 사회적 자본으로 볼 수 있으며 가족 내 사회자본은 가족 외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연희, 김선숙, 2008). 이는 가족과의 관계가 지역사회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점차 확대되어 감을 설명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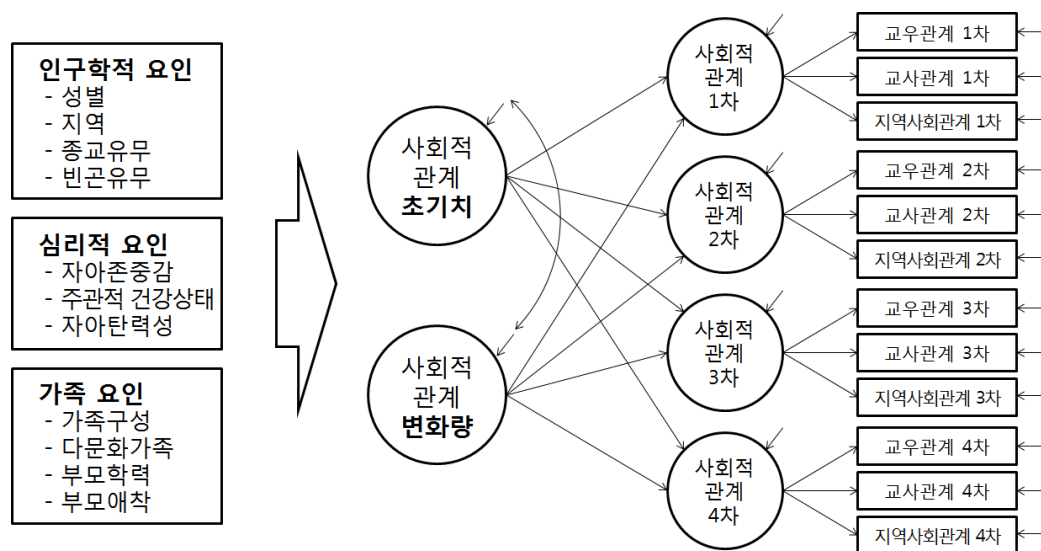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중 중1패널 1~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KCYPS는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 집락표집을 통해 조사되어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이경상 외, 2011). 본 연구의 대상은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조사에 참여한 총 2074명의 청소년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는 매 웨이브마다 측정된 교우관계, 교사관계, 지

역사회 인식 척도를 사용하여 잠재변수를 형성하였다. 여기서 교우관계과 교사관계는 민병수(1991)의 연구에서 측정된 학교적응 척도의 하위변인들이며, 각 문항의 값들을 합하여 사용하였다. 교우관계의 각 조사 시점별 신뢰도는 .534, .548, .553, .619이며 교사관계의 신뢰도는 .825, .836, .83, .813 이다. 또한 지역사회 관계는 ADD Health(Harris et al., 2009)에서 활용된 척도 중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주민들과의 관계 관련 문항들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의 값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변수활용은 선행연구의 연구방법을 근거로 하였으며(황여정, 김경근, 2014) 조사시점별 신뢰도는 .736, .752, .752, .720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크게 인구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가족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인구학적 요인에는 성별, 거주 지역, 종교 유무, 빈곤여부가 포함된다. 거주 지역은 광역시 및 수도권과 그 외의 지역으로 나누었고 빈곤여부는 2010년 기준으로 가구의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빈곤상태로 규정하였다. 심리적 요인에는 자아존중감, 주관적 건강 상태, 자아탄력성이 포함되며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척도들의 문항 값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2000; 권지은, 2003). 가족 요인에는 가족구성, 다문화가정 여부, 부모의 학력, 부모애착정도가 포함된다. 가족구성은 양부모가정인 경우와 그 외의 가족구성을 나누었으며 부모의 학력은 양부모 가족 이외의 가족구성원을 포함하기 위해 양육자 중 가장 높은 학력수준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부모의 애착은 허묘연(2000)의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 중 부모의 애정을 측정한 문항들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발달궤적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중 잠재성장 모형(Latent Growth Model : LGM)을 사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종단자료의 분석에 활용되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한 형태로, 시간에 따른 개인의 변화와 개인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며 다층모형(Multi Level Model : MLM)과 비교했을 때 선형증가 외에 다양한 형태의 변화들을 유연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Hancock & Buehl, 2008). 특히 본 연구에서 설정한 사회적 관계는 패널 내에 측정된 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각 하위변인들의 값을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잠재변수를 이용한 분석을 위해 LGM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우관계, 교사관계, 지역사회관계를 관측변수로, 사회적 관계를 잠재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잠재변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2차 잠재성장모형(Second-Order Latent Growth Model)을 활용하였다(홍세희, 유숙경, 2004; Ferrer, Widaman, Balluerka, 2008). 또한 사회적 관계의 발달궤적을 설명하기 위해 궤적의 초기치 및 변화량과 인구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가족 요인 간의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여 발달궤적에 대한 설명력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위 분석을 위해 Mplus 7.0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추정방법은 Mplus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강건한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Parameter Estimates with robust Standard Errors : MLR)을 사용하였다(Muthén & Muthén, 2012). MLR은 일반적인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에 비해 극단치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Wang, 2012). 본 연구에서의 관측변수들은 문항들의 합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례들의 영향이 분석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MLR추정방식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값의 유의성을 확인하지만 카이제곱 통계량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카이제곱 통계량 이외의 다른 적합도 지수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우종필, 2012).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RMSEA, CFI, TLI, SRMR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CFI, TLI는 .90이상일 때에 좋은 적합도로 평가하고(홍세희, 2000), RMSEA와 SRMR은 각각 .08이하, .10이하일 때에 수용할 수 있는 적합도로 본다(Schermelleh-Engel, Moosbrugger, Müller, 2003). 이 외에 공변량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LGM에서의 관측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은 STATA1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또한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항목	N(%)	변수	항목	N(%)
성별	남자	1,062(51.21)	종교	있음	1,148(55.35)
	여자	1,012(48.79)		없음	926(44.65)
지역	광역시 및 수도권	1,144(55.16)	빈곤	빈곤	250(12.71)
	기타 지역	930(44.84)		비빈곤	1,717(87.29)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1,619(78.14)	부모 학력	중학교 졸업 미만	58(2.81)
	양부모 가정 외	453(21.86)		고등학교 졸업	869(42.06)
다문화 가정 여부	비다문화 가정	2,045(98.84)		전문대 졸업	299(14.47)
	다문화 가정	24(1.16)		4년제 대학 졸업	703(34.03)
				대학원 졸업	137(6.63)

표 2 ▶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변수명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01. 교우관계 1차	1															
02. 교우관계 2차	.435***	1														
03. 교우관계 3차	.372***	.411***	1													
04. 교우관계 4차	.356***	.340***	.402***	1												
05. 교사관계 1차	.280***	.146***	.120***	.138***	1											
06. 교사관계 2차	.228***	.370***	.190***	.184***	.318***	1										
07. 교사관계 3차	.207***	.225***	.362***	.241***	.298***	.383***	1									
08. 교사관계 4차	.170***	.188***	.170***	.433***	.224***	.307***	.307***	1								
09. 지역사회관계 1차	.234***	.138***	.112***	.140***	.312***	.216***	.206***	.162***	1							
10. 지역사회관계 2차	.115***	.218***	.137***	.119***	.188***	.288***	.214***	.166***	.553***	1						
11. 지역사회관계 3차	.122***	.165***	.185***	.131***	.161***	.205***	.249***	.194***	.493***	.532***	1					
12. 지역사회관계 4차	.088***	.115***	.105***	.267***	.141***	.125***	.190***	.301***	.429***	.426***	.529***	1				
13. 자아존중감	.382***	.294***	.217***	.232***	.225***	.171***	.150***	.136***	.242***	.153***	.111***	.141***	1			
14. 주관적 건강평가	.223***	.186***	.131***	.103***	.049***	.102***	.093***	.078***	.117***	.095***	.111***	.110***	.264***	1		
15. 자아탄력성	.503***	.349***	.260***	.279***	.300***	.273***	.218***	.194***	.324***	.183***	.165***	.147***	.467***	.254***	1	
16. 부모애착	.287***	.203***	.179***	.168***	.299***	.193***	.195***	.147***	.315***	.168***	.204***	.149***	.356***	.153***	.290	1
기술통계																
M	10.941	11.100	11.362	11.577	9.553	10.007	10.420	10.412	12.034	11.510	11.346	11.510	17.952	3.156	25.606	9.042
SD	1.979	2.033	1.949	1.895	3.294	3.312	3.130	2.897	3.411	3.250	3.157	2.978	5.019	.603	6.154	2.559
Skew	-.132	-.088	-.012	.198	-.139	-.144	-.134	.017	-.048	-.037	-.042	.130	-.240	-.240	.036	-.554
Kurt	3.590	3.296	3.454	3.138	2.895	2.867	3.066	3.066	2.908	3.055	3.375	3.527	3.094	3.305	3.022	3.242

2. 사회적 관계의 측정모형 및 잠재평균 분석

사회적 관계의 변화 양상 및 각 시점의 측정동일성을 살펴보기 위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2차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시점에서의 하위요인들이 동일하게 측정되었다는 가정이 성립해야 한다(Hancock & Buehl, 2008). 또한 각 시점에서 측정된 관측변수들은 문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시점별 독립성을 가정할 수 없다. 때문에 동일한 관측변수의 오차간 공분산을 허용하였다(Salguero, Smith, Vieira, 2013).

〈표 3〉에서와 같이 측정 모형에 순차적으로 제약을 가하여 2차 잠재성장모형의 가정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비제약모형은 측정모형에 아무런 제약이 가해지지 않은 모형이며, 측정동일성 모형은 동일하게 측정된 관측변수의 요인적재량과 절편값에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다음으로 오차공분산 모형은 동일하게 측정된 관측변수 간 오차의 공분산을 허용한 모형이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했을 때, 점차적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측정 모형 적합도 비교

	χ^2	df	RMSEA	CFI	TLI	SRMR
비제약모형	2467.972***	56	.144	.544	.463	.128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2592.953***	60	.143	.521	.474	.110
오차공분산 허용모형	167.664***	42	.038	.976	.963	.060

* $p < .05$, ** $p < .01$, *** $p < .001$

모형의 경쟁을 통해 채택된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및 잠재평균은 〈표 4〉와 같다. 먼저, 잠재평균을 살펴보았을 때,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관계의 평균치가 증가하였으며 그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요인적재량의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요인적재량이 .5이상인 경우를 수용하지만 지역사회관계는 교우관계, 교사관계에 비해 표준화계수 값이 낮았다(.45~.40). 이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가족과 연고위주의 네트워크가 강한 반면 지역사회 활동 참여 및 신뢰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이영현, 2007).

표 4 ▶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검정통계량	평균(표준화)
사회적 관계 1차년도	← 교우관계	.535***	.022	24.404	9.996***
	← 교사관계	.692***	.028	24.609	
	← 지역사회관계	.451***	.022	20.549	
사회적 관계 2차년도	← 교우관계	.538***	.023	22.972	10.000***
	← 교사관계	.700***	.027	26.173	
	← 지역사회관계	.438***	.021	20.388	
사회적 관계 3차년도	← 교우관계	.555***	.024	21.413	11.255***
	← 교사관계	.661***	.027	24.160	
	← 지역사회관계	.396***	.021	18.757	
사회적 관계 4차년도	← 교우관계	.606***	.030	18.474	11.301***
	← 교사관계	.558***	.023	28.392	
	← 지역사회관계	.452***	.023	17.509	

* $p < .05$, ** $p < .01$, *** $p < .001$

3. 사회적 관계의 발달궤적

앞서 모형경쟁을 통해 채택한 측정모형을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구성하였다. 각 조사 시점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음을 가정한 무변화모형, 시간에 따라 선형 변화한다고 가정한 선형변화모형, 곡선형태의 변화를 가정한 2차함수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각 경쟁 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아래 <표 5>와 같다. 먼저 무변화 모형은 변화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변화하는 모형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선형변화모형과 곡선변화모형 비교하였을 때, 모형 적합도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다 간명한 모형인 선형변화모형을 최종 연구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표 5 ▶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비교

		χ^2	df	RMSEA	GFI	TLI	SRMR
무변화모형		374.518***	50	.056	.939	.919	.077
변화 모형	선형	183.665***	47	.037	.974	.964	.063
	2차 함수	168.957***	43	.038	.976	.963	.060

* $p < .05$, ** $p < .01$, *** $p < .001$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선형 변화 모형의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먼저, 사회적 관계의 초기치와 변화량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보아, 사회적 관계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선형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량의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통하여 시간의 증가함에 따른 개인의 변화 외에 개인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량의 상관관계가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아, 사회적 관계의 초기치가 높은 청소년

은 변화량이 낮고 초기치가 낮은 청소년은 변화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천장효과(ceiling effect)라 일컫는다.

표 6 사회적 관계 변화궤적의 초기치 및 변화량

	평균		변량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초기치	10.915***	.041	.846***	.083
변화량	.220***	.016	.045**	.014
초기치와 변화량의 상관계수	-0.522***	.064		

* $p < .05$, ** $p < .01$, *** $p < .001$

4. 사회적 관계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선형 증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구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가족 요인으로 구성된 변수들 간의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사회적 관계 발달궤적 예측요인의 공변량 분석

분류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초기치	변화량	초기치	변화량	초기치	변화량
인구학적 요인	성별(여자)	-.072(.035)*	.065(.061)	.038(.030)	.014(.051)	.026(.029)	.014(.048)
	지역	-.143(.033)***	.141(.065)*	-.097(.027)***	.085(.053)	-.092(.026)***	.080(.050)
	종교	.053(.033)	-.002(.059)	.011(.027)	.023(.051)	.008(.026)	.024(.048)
	빈곤	-.050(.033)	-.039(.061)	-.034(.026)	-.079(.052)	.014(.027)	.106(.052)*
심리적 요인	자아존중감			.289(.036)***	-.149(.066)*	.184(.036)***	-.064(.063)
	주관적 건강			.072(.031)*	-.022(.058)	.046(.029)	.005(.054)
	자아탄력성			.649(.034)***	-.524(.093)**	.594(.033)***	-.461(.080)***
가족 요인	가족구성					-.060(.026)*	.064(.051)
	다문화					-.018(.030)	.047(.062)
	부모학력					.072(.028)*	-.042(.051)
	부모애착					.332(.033)***	-.251(.060)***
	R^2	.030(.011)**	.024(.021)	.743(.053)***	.393(.123)**	.823(.054)***	.411(.110)***
	오차 상관계수	-.498(.076)***		.121(.338)		.192(.391)	
	$\chi^2(df)$	396.451(87)***		571.669(117)***		649.619(157)***	
모형 적합 도	RMSEA	.043		.044		.040	
	CFI	.945		.929		.925	
	TLI	.928		.909		.905	
	SRMR	.058		.057		.048	

* $p < .05$, ** $p < .01$, *** $p < .001$

표준화계수(표준오차)

먼저 모형 1은 인구학적 요인과의 공변량을 분석한 모형이다. 이 모형은 수용가능한 모형적합도(RMSEA = .043, CFI = .945, TLI = .928, SRMR = .058)를 보였으며 초기치와 변화량 간 오차상관계수가 유의하였다. 한편 사회적 관계의 초기치에 대한 설명력은 .03이었으나 변화량에 대한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각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사회적 관계의 초기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화량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광역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사회적 관계의 초기치가 높았으나 변화량은 낮았다. 그 외에 종교 유무나 빈곤상태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2는 인구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포함한 공변량 분석 모형으로 (RMSEA = .044, CFI = .929, TLI = .909, SRMR = .057), 사회적 관계의 초기치에 대한 설명력은 .743, 변화량에 대한 설명력은 .393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심리적 요인 내 하위요인들을 각각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자아탄력성 모두 사회적 관계의 초기치와 정적상관이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관계의 변화량에 부적 상관이 있으며 그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는 초기치가 높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량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심리적 요인이 투입되면서 초기치와 변화량의 오차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심리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초기치와 변화량의 오차상관이 발생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모형 1에서 살펴보았던 인구학적 요인 중 성별은 심리적 요인이 통제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의해 발생한 사회적 관계의 초기치 차이는 심리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지역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량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인구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가족 요인을 포함한 공변량 분석 모형으로(RMSEA = .040, CFI = .925, TLI = .905, SRMR = .048), 사회적 관계의 초기치 및 변화량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823, .411이었으며 오차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각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가족 구성이 양부모 가정이 아닌 경우가 양부모 가정인 경우에 비해 사회적 관계의 초기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의 초기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다문화가정 여부는 사회적 관계의 초기치 및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부모의 애착이 높은 경우는 사회적 관계의 초기치가 높지만 변화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이 통제되었을 때 인구학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심리적 요인 중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관계의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주관적 건강상태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요인 중 모형 1, 모형 2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청소년의 빈곤 여부가 가족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통제되었을 때 사회적 관계의 변화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발달궤적과 이를 예측할 수 있는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에 이르러 또래와의 관계가 중시되고(Giordano, 2003; 임성택 외, 2010), 학교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기존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Smetana et al., 2006). 그러나 모든 청소년이 동일한 발달궤적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둘째, 청소년의 인구학적 요인 중 거주 지역의 특성은 사회적 관계의 초기치에, 빈곤여부는 변화량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지역 특성을 살펴보면, 광역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사회적 관계의 초기치가 낮았다. 이는 지역에 따라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부터의 접근성 차이 때문이라 볼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취약성이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김장민, 2009). 다음으로, 청소년의 빈곤여부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횡단적 측면에서 빈곤여부가 초기 아동기의 사회성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김광혁, 2014). 빈곤여부는 다른 변수들의 통제여부와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빈곤 자체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학력이나 애착 정도와 같은 가족 요인이 유의하다는 점과 빈곤이 가족 구성원의 물적, 인적 자원에 따라 결정되는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빈곤여부는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 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 중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관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동일하다(박지연, 2008; 백봉렬, 2012; 최미숙, 2014).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관계의 초기치에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변화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관계의 초기치에 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변화량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즉, 청소년기 초기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초기 사회적 관계 정도가 높지만 천장효과로 인해 변화량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자아탄력성과는 달리 천장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 관계의 발달을 위해 청소년기 초기부터 향상시켜야 하는 심리적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청소년의 가족 요인 중 가족구성, 부모의 학력,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사회적 관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청소년의 가족 구성이 양부모 가정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가정의 경우보다 사회적 관계의 초기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구조적 문제가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및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다(문찬수 외, 2012; 남현주 외, 2013). 부모의 학력은 사회적 관계의 초기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 양육자의 인적자원이 자녀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정도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초기치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왕해옥, 김광웅, 2004). 그러나 사회적 관계의 변화량에는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횡단적 연구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의 영향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음을 예상할 수 있다(McGue et al., 2005).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현장에서 문제시 되는 집단 따돌림, 학교 부적응 등은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결과들이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들이 가시화된 이후에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 발생 이전에 학교사회 내에서의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특히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자아인식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여 이를 강화시키는 교육 및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참여가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참여는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외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 현장을 벗어난 청소년의 활동을 독려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교육이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참여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취약계층이라 구분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환경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적·교육적 지원을 해야 한다. 먼저 지역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차이는 지역 내에서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농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 지역사회 자원과 청소년을 연결해줄 수 있는 지자체 및 학교의 역량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시·농촌 지자체 간, 도시·농촌 학교 간 교류나 국내 청소년 교류활동 등을 통하여 이러한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의 구조적 문제, 부모의 물질·인적자본 부족, 부모와의 애착관계 미형성 등 가족측면에서의 취약성이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 개인에 초점 맞춘 접근에 더불어 가족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부모와의 애착이 아동기 발달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초기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하는 부모·자녀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가족의 구조적 문제와 부모의 학력은 고정적인 환경적 요인이기 때문에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가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관계형성의 어려움은 중요한 타자의 부재를 대신할 수 있는 자원과의 연결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한 멘토링 등과 같은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 부모의 자원 한계로 인해 발생한 청소년의 관계형성 제약 역시 이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하는 자원과의 연결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공변량 분석에 활용한 변수들의 시변효과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의 측정 시점 한계로 인해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독립변수 간 구조적 관계를 상정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독립변수 간 관계를 예상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연구 모형이 이를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사회적 관계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개념이지만 자료 내에서 제한된 변수를 활용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개념설명에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발달을 중단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는 점,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발달궤적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또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개별적, 사회적 접근의 필요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 강정훈, 최수미. (2013). 청소년의 심리내적 및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관계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4(4), 55-84.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편 (2000). **심리척도핸드북 I**. 서울: 학지사.
- 권지은 (2003).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광혁. (2014). 가족의 경제적 박탈이 초기 아동기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비판사회정책**, 42(1), 7-43.
- 김상준. (2004).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38(6), 63-95.
- 김세원. (2009). 지역사회 특성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3수준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아동복지학**, 28, 101-135.
- 김연희, 김선숙. (2008). 사회자본이 아동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36, 103-127.
- 김장민. (2009). **지역사회 취약성과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과정**.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현. (2014). **청소년의 종교성향과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 역할의 관계 : 친사회적 행동과 도덕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태준. (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연구보고 09-R19-2).

-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수, 오인수. (2012). 저소득층 중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 보호요인 탐색 : 저소득층 중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 보호요인 탐색. **상담학연구**, 13(2), 917-933.
- 남현주, 윤형식, 이태영, 신채영, 이동훈. (2013).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고찰.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8(1), 129-168.
- 문은식. (2012). 청소년이 지각한 인간관계 및 심리적 변인과 학교생활 적응의 구조적 관계. **교육종합연구**, 10(4), 183-501.
- 문찬수, 박정하, 이해나. (2012). 학생 개인 및 학교 특성이 중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미래교육연구**, 25(2), 1-21.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지연. (2008). **자아 존중감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희봉, 김명환. (2001). 우리 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 **한국정치학회보**, 34(4), 219-237.
- 백봉렬. (201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성, 학교적응유연성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혜숙. (2006).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만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운용, 곽수란.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체계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8(3), 107-129.
- 송영희. (2006).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사회불안과 친구관계의 질**.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영원. (201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 ARCL모형을 적용한 종단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2(1), 7-32.
- 왕해옥, 김광웅. (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애착안정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1(2), 77-88.
- 우정자. (2011).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2(3), 119-147.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한나래출판사.
- 유병숙. (2003). **포래관계 증진 프로그램 적용이 초등학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상 외. (201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I 사업보고서**(연구보고 11-R10).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봉주, 김선숙, 김남희. (2010). 한국 아동 발달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1, 107-141.
- 이상일. (2007).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관계에 대한 소고. **인제논총**, 22(1), 97-111.
- 이세용. (1998). 사회적 관계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연구**, 10(2), 41-72.
- 이영현. (2007). 사회적 자본의 정책적 활용. **The HRD Review**, 10(3).
- 이은주. (2012). 청소년 비행의 발달과정 : 비행여부와 비행수준을 구분한 이원 잠재성장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8(2), 185-215.

- 이정선. (2001). 콜맨과 브루되의 사회자본론의 비교와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초등교육연구**, 16(1), 91-112.
- 이희정, 조윤주. (2010).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 변인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7(2), 253-278.
- 임성택, 김나연, 주동범. (2010).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의 관련성. **한국교육연구**, 27(3), 23-42.
- 전경하. (2012).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선희. (1999). **청소년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승민. (2005).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개념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옥분. (2009). **청년발달의 이해**(2판). 서울: 지학사.
- 정하성. (2008). 청소년사회관계증진 프로그램개발방향. **청소년보호지도연구**, 12, 61-31.
- 조남익, 이광호. (2009). 청소년 집단활동 참여에 따른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구조모형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7(2), 39-51.
- 좌현숙. (2010). **빈곤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영역간 종단적 상호관계: 심리, 사회, 학교 적응 영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차조일, 박선웅. (2012). 사회과 주요 개념에 대한 역사적 고찰: 쿨리의 1차 집단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4(4), 217-239.
- 최미숙. (2014).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희망, 또래관계기술 및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병진. (1994). 사회적 관계망 인식에 있어서 연령과 성차. **통계상담**, 통권, 77-92.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청소년심리학**. 경기: 교육과학사.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9(1), 161-177.
- 홍세희, 박언하, 홍혜영. (2006).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부모효과와 또래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7(2), 241-263.
- 홍세희, 유숙경. (2004). 다변량 고차 잠재 성장모형을 이용한 내외통제성과 학업성취의 종단관계 분석. **교육평가연구**, 17, 131-146.
- 황여정, 김경근. (2014). 중학생의 자아탄력성 영향요인 분석: 사회심리학적 접근. **교육사회학연구**, 24(1), 205-229.
- 황진구, 허효주, 안현미. (201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종단분석**(연구보고 13-R14-3).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llen, J. P., Hauser, S. T., Bell, K. L. (1994). Longitudinal Assessment of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Family Interactions as Predictors of Adolescent Ego Development and Self-Esteem. *Child Development*, 65(1), 179-194.
- Bagwell, C. L., Newcomb, A. F.,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rooks-Gunn, J., Duncan, G. J., Klebanov, P. k., Sealander, N. (1993). Do Neighborhoods Influence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2), 353-395.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Ferrer, E., Widaman, K., Balluerka, N. (2008). Factorial invariance and specification of second-order latent growth models. *Methodology*, 4(1), 22-36.
- Fiske, A. P. (1992). The Four Elementary Forms of Sociality : Framework for a Unified Theory of social Relations. *Psychological review*, 99(4), 689-723.
- Furstenberg, F. F., & Hughes, M. E. (1995). Social Capital and Successful Development among At-Risk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3), 580-592.
- Giordano, P. C. (2003).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9, 257-281.
- Hancock, G. R., & Buehl, M. M. (2008). Second-order latent growth models with shifting indicators. *Journal of Modern Applied Statistical Methods*, 7(1), 39-55.
- Harris, K. M., et al. (2009).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Research Design*. Carolina Population Center.
- McGue, M., Elkins, I., Walden, B., Iacono, W. G. (2005). Perceptions of the parent - Adolescent relationship: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1(6), 971-984.
- Muthén, L. K. & Muthén, B. O. (2012). *Mplus User's Guide Seventh Edition*. CA: Muthén & Muthén, Los Angeles.
- Nath, P. S., Borkowski, J. G., Whitman, T. L., Schellenbach, C. J. (1991). Understanding Adolescent Parenting: The Dimensions an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Family relations*, 40(4), 411-420.
- Pinkerton, J., & Dolan, P. (2007). Family support, social capital, resilience and adolescent coping. *Child & Family Social Work*, 12(3), 219-228.
- Putnam, R. D. (1995).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8(4), 664-683.
- Salgueiro, M. F., Smith, P. W. F., Vieira, M. D.T. (2013). A multi-process second-order latent growth curve model for subjective well-being. *Quality and Quantity*, 47(2), 735-752.
- Schermelleh-Engel, K., Moosbrugger, H., Müller, H. (2003). Evaluating the fi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Tests of significance and descriptive goodness-of-fit measures. *MPR-online*, 8(2), 23-74.
- Smetana, J. G., Campione-Barr, N., Metzger, A. (2006). Adolescent Development in Interpersonal and Societal Contex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7, 255-284.
- Wang, Jichuan.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applications using Mplus*. John Wiley/Higher Education Press.

아동·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도, 건강상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간가구소득 차이를 중심으로

심도현*·강현구**·정수지***

국문초록

오늘날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더 큰 문제는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자녀세대로 대물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개인이 타고난 SES를 극복하여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이동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사회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의 양이 가장 큰 사회적 힘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경제적 자본의 양은 개인의 주거 및 성장환경, 교육의 질, 학업성취 등 성장·발달 과정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왔으며, 이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가 자녀의 건강에서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수집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청소년의 시간배분 및 활용, 학업성취도, 건강인식 및 건강상태,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밝히고 그 영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의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이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잠재되어 있다가 중1 시기에 나타나는 폭발적 신체적 성장과 맞물려서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청소년의 시간사용을 통하여 성적과 건강상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 중 친구들과의 놀이시간이 모든 연령에서 건강상태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인식·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서 학교에서의 체육활동 시간이 큰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보면 학교와 정책당국에서 학교 교과 과정에서의 체육 수업 시간을 보다 확대 실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상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양극화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뿐만이 아니라 건강의 양극화로 전이되는 효과를 상쇄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상태 개선과 자아존중감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성취도, 건강인식/건강상태, 자아존중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ace4a@daum.net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과정

I. 서론

최근 한국사회에서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전통적 척도인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보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아시아권 28개국의 지니계수를 측정한 결과에서 한국은 중국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빠르게 빈부격차 심화가 진행된 나라로 조사됐다(동아닷컴, 2014. 09.03.). 이것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희소가치의 대물림 현상 역시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요인들을 통해 대물림이 가능해질까?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금력(金力)과 경제력’의 상속이다. 그리고 ‘학력’, ‘직업’, ‘문화향유능력’ 등도 함께 거론의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요인들을 사회경제적 지위의 측정지표로 삼고, 그 대물림 현상에 대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Warner와 동료들(1949)은 직업, 교육수준, 수입, 거주 지역, 주택의 종류, 수입원 등을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지표로 보고 계층의 등위를 정하였다. 또한, G. A. Lundberg와 Steele (1938)등은 사회계층의 평가 요인으로 직업, 교육, 종교, 언어, 태도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사회계층의 측정 방법으로 재산, 학력, 직업, 수입, 가문의 5요인을 사회계층지표로 제시하는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김영모, 1999).

그런데 최근에는 신체·건강에 관한 요인도 의미 있는 사회계층지표 내지 대물림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섭식 및 영양상태,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고, 기타 성형이나 몸매 관리처럼 비용이 드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진다. 더욱이 외모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과 비중이 점차 증대되면서, 신체·건강에 대한 요인은 일종의 ‘자본화(capitalization)’되면서 보다 많은 부와 기회를 창출하는 유용한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지위가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 즉 이른바 ‘건강불평등’의 문제는 흥미있는 연구주제로 여겨지게 되었다(강혜원·조영태, 2007; 김혜련 외, 2005; Mulatu & Scholler, 2002).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이들이 정크푸드(junk food)에 많이 노출돼 비만이 많다”는 보도들은 ‘부(富)와 건강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성과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건강불평등이란 엄밀히 말해서는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 즉 교육수준, 직업계층, 소득수준, 재산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상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House, 2001). 건강불평등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계층은 개인의 삶의 조건을 구조화하는 요인으로, 계층이 낮을수록 사망률이나 유병률이 높다는 연구가 많다. 이는 노인집단에 대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입증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연령변화에 따른 계층의 변화가 건강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진영, 2011; Grundy & Slogget, 2003; House et. al., 2005). 건강불평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망률이나 유병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계층적인 요인(주로 소득, 교육수준)을 독립변수로 삼고 있다. 연구 결과,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건강불평등의 정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는 신체발달과 성장이 이뤄지는 아동·청소년에게 더욱 중요한 것일 수 있다. 이 시기의 신체발달 및 건강상태가 이후 평생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아동·청소년기에 있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매우 높다.

한편, 아동·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이자 또래집단에 의한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이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공존하며 서로 경쟁하는 오늘날의 교육구조에서는, 또래와의 동조·비교 현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존중감 형성요인 중 하나로 특히 많은 선행연구들이 관심을 갖고 밝힌 학교성적과 함께, 신체·건강상 요인의 영향력과 또래관계의 연관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또래관계의 의미,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변화의 영향력은 연령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기 내에서도 세부적인 연령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도 요인, 신체·건강상의 요인, 자아존중감 사이의 구체적 연관관계나 변화추이를 살펴볼 필요성도 높다.

이러한 연구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방식과 경로를 규명하고, 특히 ‘학업성취도’와 더불어 ‘신체·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또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발달시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체·건강상 요인의 관계 변화를 규명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구조적 영향력을 극복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와 아동·청소년

인간은 사회적 역할 및 경제적 여건에 따라 그 사회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지위는 해당 사회의 경제구조, 문화, 사회가치 등에 의해 상하의 서열적 관계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유사한 지위를 갖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특성을 중심으로 ‘계급’ 내지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입, 직업, 재산, 교육수준 등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 혹은 집단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라 하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계층을 결정하는 객관적 접근 방법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이형진, 2007).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족구성원의 일상생활 및 다양한 인식적 가치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사회경제적 지위는 일정한 가치관의 형성, 자아개념, 흥미, 성취동기와 가치관 등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정원식, 1983).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는 부모가 대체적으로 온정과 지지의 태도를 자녀에게 보이는 편이며(이경은·이주리, 2008; Belsky et al., 2006), 이러한 가정의 부모는 대체적으로 교육수준도 높는데 이것이 자녀의 일상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관심 등으로 연결되기도 한다(김미숙·문혁준, 2005; 황혜원, 2004; Jackson, 2000). 부모의 교육수준 이외에 가정의 소득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소득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Belsky et al., 2006; Evans et al., 2008), 자녀의 학업성적(이정환, 1998; 주동범, 1998; Bourdieu, 1984, 2001), 인터넷 사용시간(Howard, Rainie and Jones, 2001; Madden, 2003)) 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 학업성적, 인터넷 사용 등은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까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다시 말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다른 요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이운경·도현심, 2005; 최정희, 2010).

이처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청소년의 지적·정서적 발달 및 성격형성, 자아개념 발달, 그리고 전생애발달에 있어 토대가 되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배경적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아동·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평가로서, ‘자기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79). 자아존중감은 ‘자기개념’보다는 한정적인 개념인데, 장기간에 걸쳐 성공과 실패 경험이 축적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관점 및 자기존경의 의식이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희수, 2003). Erikson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이 ‘자아정체감의 달성’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특히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 획득을 위한 갈등이 계속되거나 혹은 불만족스럽게 해결되면 자아정체감 속에 부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자아가 손상을 입고, 그에 따라 스스로에 대한 존경의식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Rice & Dolgin, 2002).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은 이후의 생애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은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아동·청소년 시기의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확신을 갖게 되어, 어떠한 상황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윤명숙·최정민, 2011). 그런데 특히 학령기 이후의 아동·청소년에게 있어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업성취도가 높으며(Wigfield et al, 1999), 그 효과는 졸업 후에도 지속된다. 청소년기에 학업성취와 자아존중감이 높았던 청소년은 대체적으로 직업세

계에서 성공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성인으로 성장하며(Park, Crocker, & Kiefer, 2007),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압력을 잘 극복하고 생애발달에 있어서의 중요 과업들을 긍정적으로 성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immerman et al., 1997). 그 외에도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안녕감(well-being)의 주요 보호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Huntsinger & Luecken, 2004; Robert, Gotlib, & Kassel, 1996). 이러한 자아존중감 형성에는 부모와의 애착관계, 그리고 또래와의 관계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청소년이 부모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 자아존중감이 증진되고, 학교에 더 잘 적응하며,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태희, 2013; Kostecky, 2005; Wilkinson,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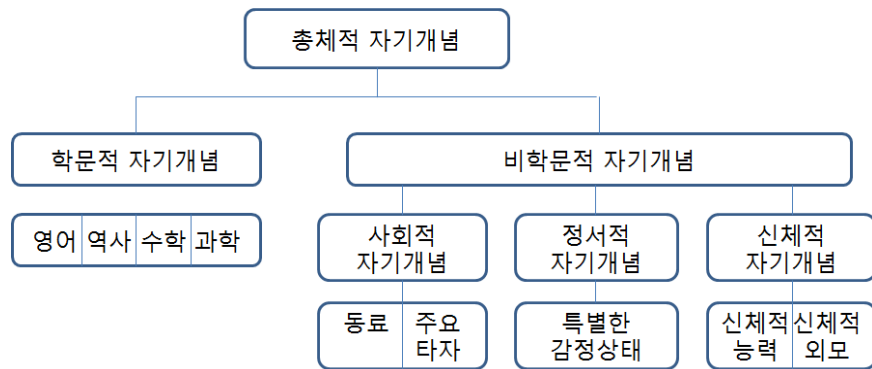
한국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기의 최우선적 발달과업으로 인지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특히 학교에서의 성적, 즉 ‘학업성취’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많은 연구에서 학업성취는 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학업적 성취 외에 신체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 요인으로 ‘신체·건강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 변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자신 뿐 아니라 또래, 이성(異性)의 신체적 상태 및 변화에도 큰 관심을 갖는 시기이다. 예를 들어 비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녀 모두 비만이 자아존중감과 부적 관계를 갖고 있었고(정익중·이지언, 2011), 질병으로 인해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표민·김윤희, 2013; Richardson, Paxton, and Thomson, 2009).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은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또래 사이에서의 인기나 리더십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는 점, 그리고 신체적 발달과 변화는 자신과 또래를 서로 비교하기 쉬운 ‘가시적 특성’이란 점에서 볼 때, 청소년의 신체·건강과 관련된 자아인식은 자아존중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이러한 ‘신체·건강과 연관된 자아인식’을 ‘신체적 자기개념’이라 한다.

3. 신체적 자기개념

Rosenberg(1965)는 ‘자기개념’과 관련해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조직화된 지각(perception) 또는 객체(object)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의 사고와 느낌의 총체성’이라고 정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자기개념은 ‘사회적 정체성’, ‘개인적 성향’, ‘신체적 성격’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한편, Shavelson과 동료들(1976)은 자기개념을 학문적, 비학문적으로 분리된 계층화된 위계 구조로 보았다. <그림 1>과 같은 모형을 이를 ‘위계적 구조 모형’이라 하는데, 이 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조적 타당성이 검증되는 등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었다(강성필, 201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있어 학업성취도와 신체·건강상태 인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때 학업성취도는 <그림 1>에서의 ‘학문적 자기개념’과 관련이 깊고, 신체·건강상태 인식은 ‘비학문적 자기개념’ 중 ‘신체적 자기개념’과 관련이 깊다. 특히 신체적 자기개념은 신체적 ‘능력’과 신체적 ‘외모’로 구성되는데, 전자는 주로 건강이나 운동능력 등과 관련이 있고, 후자는 외모나 키, 몸무게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스스로의 신체·외모·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할수록 신체적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자기개념의 위계적 구조

이러한 위계적 구조모형이 시사하는 중요한 점은 하위구조의 변화에 의해 상위구조도 역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운동 등을 통해 ‘신체적 능력’을 증진시키면 ‘신체적 자기개념’도 증진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최상위의 ‘총체적 자기개념’까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스포츠 기능이나 체력과 같은 여러 신체적 능력이 종합적인 자기개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증진된 신체적 자기개념은 본인의 기분상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며, 심리적 안정감을 유발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김경원, 2003; 김성옥·이서기·황진, 2008; 김정원, 2005; 문한식, 2009, 최범규·노영호, 2004; 하충곤·이강현, 2002; 홍길동·허정식, 2003; Marsh, 1998). 그 외에도 운동선수와 비선수의 신체적 자기개념을 비교할 때 운동선수가 비선수보다 신체적 자기개념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Trujillo, 1983), 운동을 통해 얻어지는 성공적 체중감량이나 스포츠 유능감 등은 궁극적으로 자기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onstroem & Morgan, 1989).

특히 최근 들어 신체적 자기개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회적 자기개념이나 정서적 자기개념에 비해 신체적 자기개념이 단기간에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Lox, Wasley와 Jacksos(1999)가 성인 29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이 운동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2~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실제 체력의 증진 외에 신체적 자기개념도 의미있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신체적 자기개념의 증진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요인 및 구조적 환경

의 영향력을 상쇄시킬 중요한 ‘청소년정책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다.

4. 또래관계 및 또래압력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 발달과 변화는 자기 스스로의 신체·건강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또래와의 비교 내지 또래들 사이에서의 자리매김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게 또래관계가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체·건강과 관련된 또래로부터의 압력 혹은 또래에 대한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영유아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아동·청소년기가 시작되면 인관관계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가 진행되면서, 부모애착이 또래애착으로 전환되고, 또래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통해 자아정체감 및 정서적 안정감이 형성되는데(고영남, 2008), 이 때 청소년 또래 사이에서의 지지적 우정은 부모의 무조건적인 지지와는 다른 종류의 애착관계로서 전 생애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래관계는 서로에게 지지, 격려,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유능하고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또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중요한 준거집단으로서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사회적 비교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며, 또래집단에 소속됨으로써 사회적 지지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송명자, 1995).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심리사회적 적응, 가족요인, 학업성취도 등과 관련해 또래관계의 영향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박은조, 2000; 양수경·문혁준, 2012; 양원경, 1999; 조혜진, 2006; 홍주영·도현심, 2002; Laible, Carlo & Roesch, 2004). 그러나 청소년기의 신체·외모변화 내지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도 또래관계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격한 신체·외모·건강상태의 변화는 아동·청소년에게 있어 이른바 ‘아이에서 어른으로의 성숙’을 나타내는 징표라는 점에서, 생애발달 전반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신체·외모·건강에 대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또래집단과 비교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감을 느끼거나, 혹은 부정적 자기상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다. Weatherley(2014)는 자신이 인지하는 신체성숙이 늦은 남아는 또래친구들과 자신이 다르다고 여기며, 이것은 성격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신체적 성숙’은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 혹은 또래집단 효과, 또래압력 등을 통해 자아개념, 사회적 적응, 성격형성에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또래집단과의 관계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인식을 살펴보고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아동·청소년 또래관계에서의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양육태도나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신체적 자기개념과 같은 신체·외모·건강상태 인

식과도 관련 있다는 점에서 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또래들 사이에서 발생시키는 이른바 ‘건강 불평등(Health Inequality)’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강불평등이란 ‘인구집단 간에 건강상태가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순양, 2010). 여기서 부각되는 것은 개인이 타고난 생물학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계층이나 성별, 인종, 거주지역 등의 사회적 불평등 요인들이 개인 삶의 기회나 질을 차별화하여 일으키는 질병 위험성 내지 건강수준의 격차 심화 등의 ‘구조적 요인’이다(House, 2001). 건강을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능동적인 자기실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활력상태’로 볼 때,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나 환경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은 커지게 된다. 따라서 현대적 맥락에서 건강불평등은, “교육의 불평등, 소득 수준의 불평등, 재산의 불평등 등이 일으키는 개인들 사이의 건강차이”, 즉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을 의미한다.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과 관련해서는 계층이 낮을수록 사망률이나 유병률이 높는데(강혜원·조영태, 2007; 김진영, 2011; 김혜련 외, 2005; 윤태호, 2007; 이미숙, 2005; Grundy & Slogget, 2003; House et. al., 2005; Mulatu & Scholler, 2002), 교육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위험행동을 많이 하며(강희숙, 2002; Ross et al., 1998), 흡연률도 높아지고(Cho et al., 2008), 적절한 운동을 실천하는 빈도도 낮아지기 때문(양윤준 외, 2005)인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아동·청소년기에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특히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만일 또래와의 관계에서 신체·외모·건강과 관련해 우월감을 느끼는 어떤 청소년 집단이 사회경제적 지위도 역시 유사하다고 하면, 이것은 아동·청소년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구조적·환경적 요인이 신체·외모·건강상의 불평등을 매개로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또래관계에서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영향력이 미치는 구조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점차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가 야기한 신체·건강 차이에 주목했다면, 이제는 그 ‘과정’과 ‘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III.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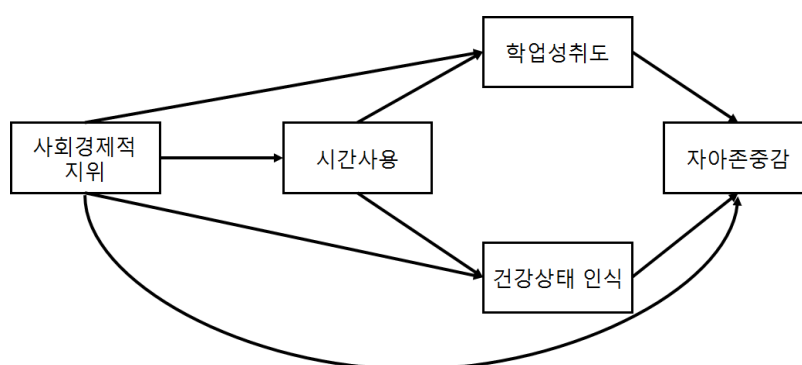
이상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에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1.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청소년의 시간사용, 건강상태 인식, 학업성취도,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추이를 함께 고려한 경우, 연령 및 발달주기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청소년의 시간사용, 건강상태인식, 학업성취도, 그리고 자아존중감 등의 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3.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아동·청소년의 시간사용, 건강상태인식, 학업성취도,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그에 따른 차이와 부정적 영향력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연구문제들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2> 연구 모형

IV.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에 관한 경험적 조사연구를 위하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 1차년도(2010년)부터 4차년도(2013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0년에 시작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장·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학제간 연구와 관련 정책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 층화다단계집락추출법으로 표집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3개 패널 각 2,300여명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한 1차~4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 초등학교 3학년(초1 패널 3차년도, 2012), 초등학교 5학년(초4 패널 2차년도, 2011), 중학교 1학년(초4 패널 4차년도, 2013), 중학교 3학년(중1 패널 3차년도, 2012)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에 투입된 주요 변수들의 결측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으로 처리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초등학교 3학년 (N=2342)		초등학교 5학년 (N=2378)		중학교 1학년 (N=2378)		중학교 3학년 (N=2351)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연간소득 (천원)	4636.89	2097.476	4350.073	2016.118	4569.746	2122.003	4577.18	2274.778
공부시간 (시간)	6.159	2.707	6.971	3.632	7.195	4.390	7.159	4.910
TV/컴퓨터/게임 시간 (시간)	5.261	2.601	6.626	3.626	7.016	3.718	7.644	3.746
친구들과의 놀이시간 (시간)	1.979	1.740	2.865	3.483	2.740	2.388	3.101	2.599
학업성취도	3.916	.581	3.717	2.204	4.254	1.911	4.261	1.929
건강상태 인식	3.260	.516	3.325	.660	3.264	.560	3.213	.632
자아존중감	3.301	.539	3.021	.459	3.055	.463	2.818	.455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2010년도) ~ 4차년도(2013년도) 질문지에서 선별한 도구들은 다음과 같다.

가.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패널에서 제시되는 부모의 가구연간소득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나. 시간사용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시간사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근거로 하여(김태균, 2009; 박민자·손문금, 2007; 장상수, 2014; 정재기, 2007, 2011)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도와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공부시간, TV/컴퓨터/게임시간, 친구들과의 놀이 시간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앞서 Shavelson과 동료들(1976)이 제시한 '자기개념의 위계적 구조 모형'(<그림 1> 참조)에서 각각 '학문적 자기개념', '정서적 자기개념', '사회적 자기개념'과 연관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컴퓨터/게임시간은 어떤 점에서는 학업시간과 제로섬(zero-sum) 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다른 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만족감과 연관된 오락시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서적 자기개념과 관련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학업성취도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요 5개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의 지난 1학기 성적을 묻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질문지에서 각 과목의 성적은 '96점 이상'(1점)부터 '64점 이하'(8점)까지 성적을 5점 단위로 나눈 8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역코딩하였다. 따라서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과목의 성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5개 과목 성적의 Cronbach's α 는 .89였다.

라. 건강상태 인식

아동·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자신이 스스로의 신체·건강 상태 인식에 대해 응답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마.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에 관한 척도 10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치로 계산하여 활용하였다. 총 10개의 문항 중 부정적 자기개념을 묻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응답치를 역코딩하여 계산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므로,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존중감의 Cronbach's α 는 .83으로 나타났다.

바.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1과 2와 3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통계 패키지는 SPSS 20.0 및 Amos 21.0이다.

V. 연구결과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축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초등학교 1학년 패널 제3차년도(초3), 초등학교 4학년 패널 제2차년도(초5) 및 제4차년도(중1),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패널 제3차년도(중3)의 총 4개 패널데이터 각각에 대해 '사회경제적 지위'와 '시간사용', '학업성취도' 및 '건강상태 인식', '자아존중감' 사이의 관계 및 구조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 때, 시간사용에 대해서는 '공부시간', 'TV/컴퓨터/게임시간', '친구들과의 놀이 시간'을 각각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들을 비교하였다.

둘째, 앞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연령별로 나타난 '사회경제적 지위'와 '시간사용', '학업성취도' 및 '건강상태 인식', '자아존중감' 사이의 구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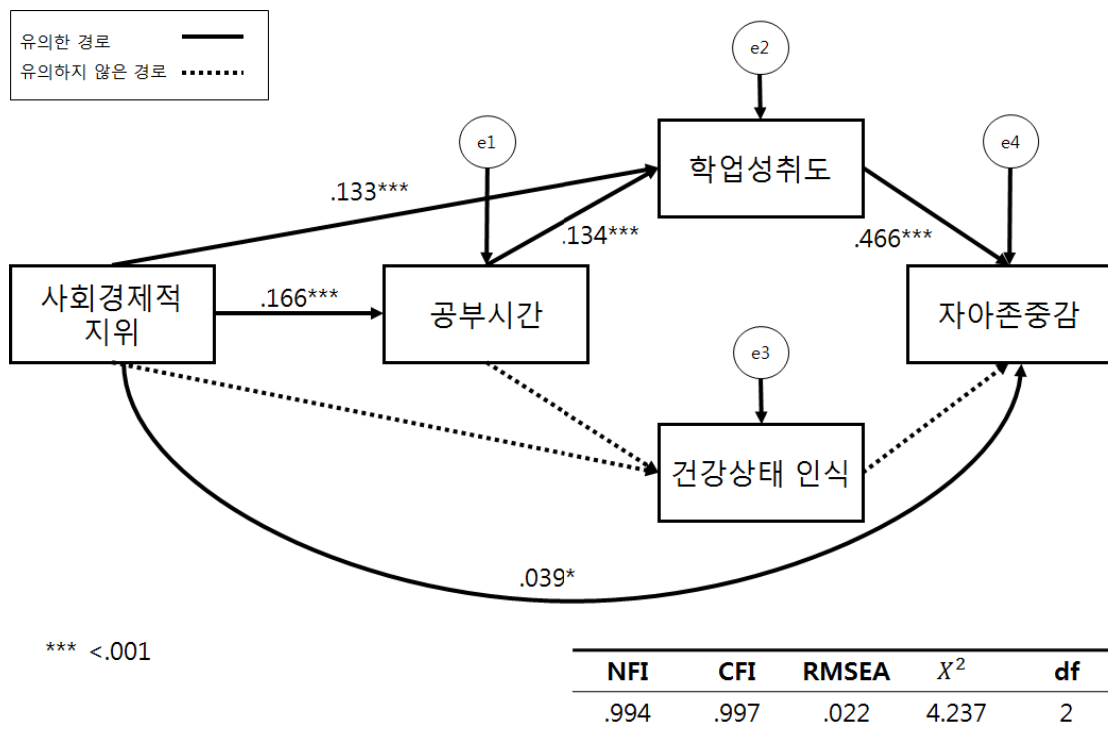
관계의 추이와 변화를 비교하였다.

일단,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델 적합도는 NFI, CFI, RMSEA 값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각 값이 기준치에 부합하여서(NFI, CFI > .9, RMSEA < .08) 각 학년 별 세 가지 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충분히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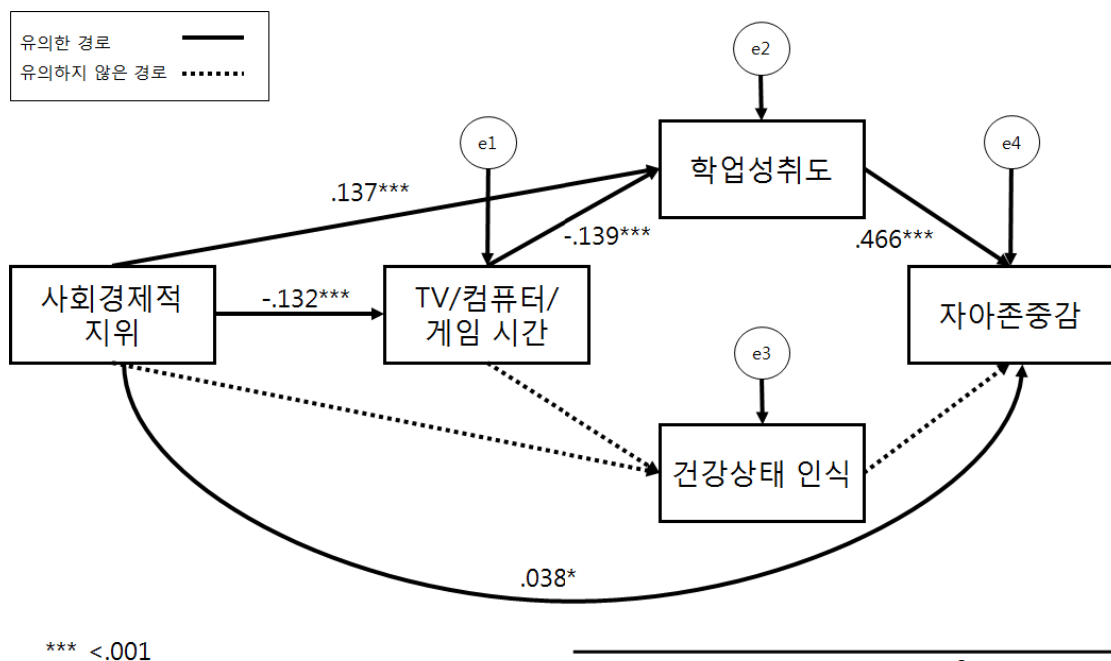
1. 초등학교 3학년 (초1 패널 제3차년도, 2012)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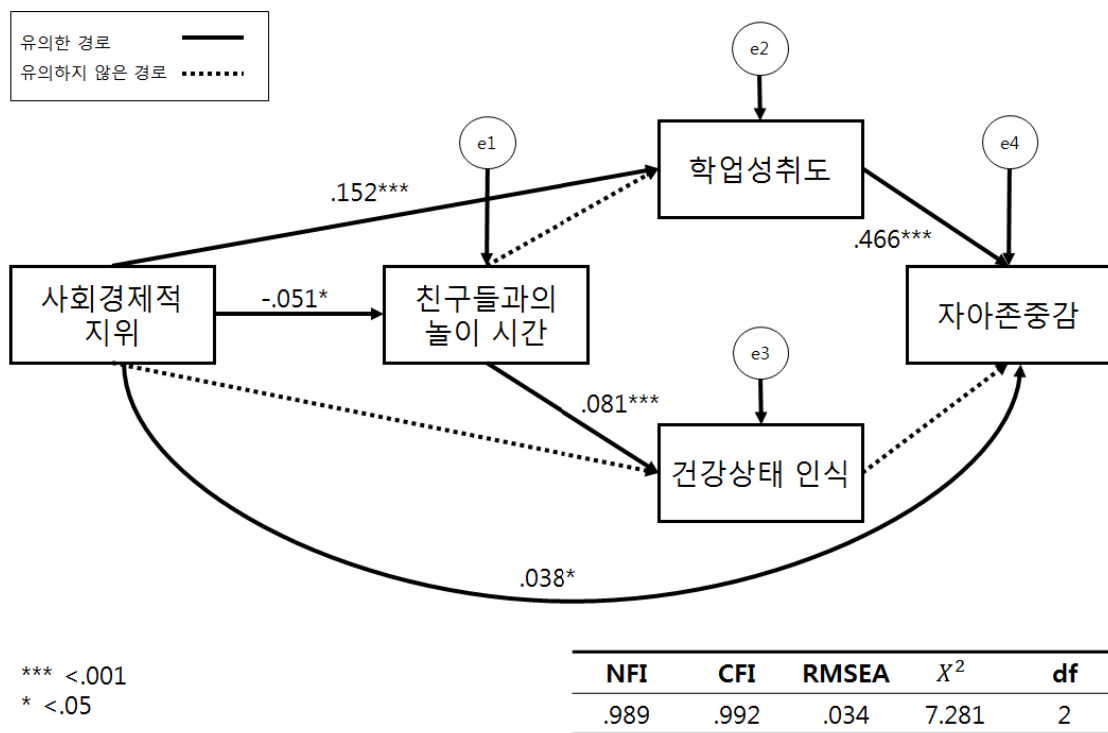
시간사용에 각각 ‘공부시간’, ‘TV/컴퓨터/게임시간’, ‘친구들과의 놀이시간’을 투입한 세 가지 모형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모두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학업성취도는 다시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도 모두 유의한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시간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공부시간에는 정적인 영향을, TV/컴퓨터/게임시간과 친구들과의 놀이시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부시간은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TV/컴퓨터/게임시간은 학업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과의 놀이시간은 학업성취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대신 건강상태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초등학교 3학년(공부시간 투입시)



<그림 3-2> 초등학교 3학년(TV/컴퓨터/게임시간 투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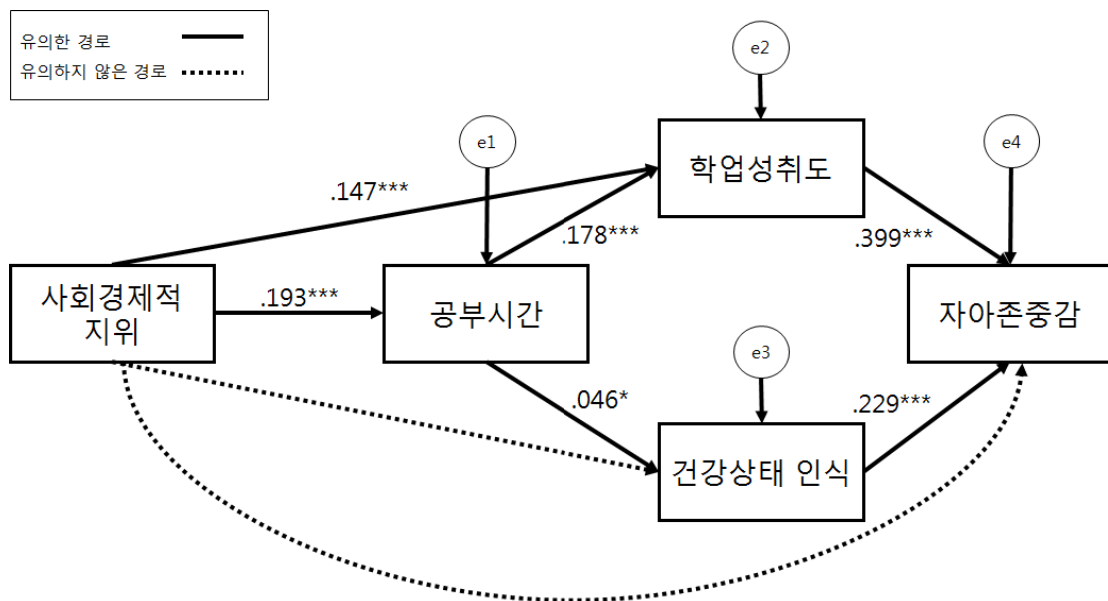


<그림 3-3> 초등학교 3학년(친구들과의 놀이 시간 투입시)

2. 초등학교 5학년 (초4 패널 제2차년도, 2011)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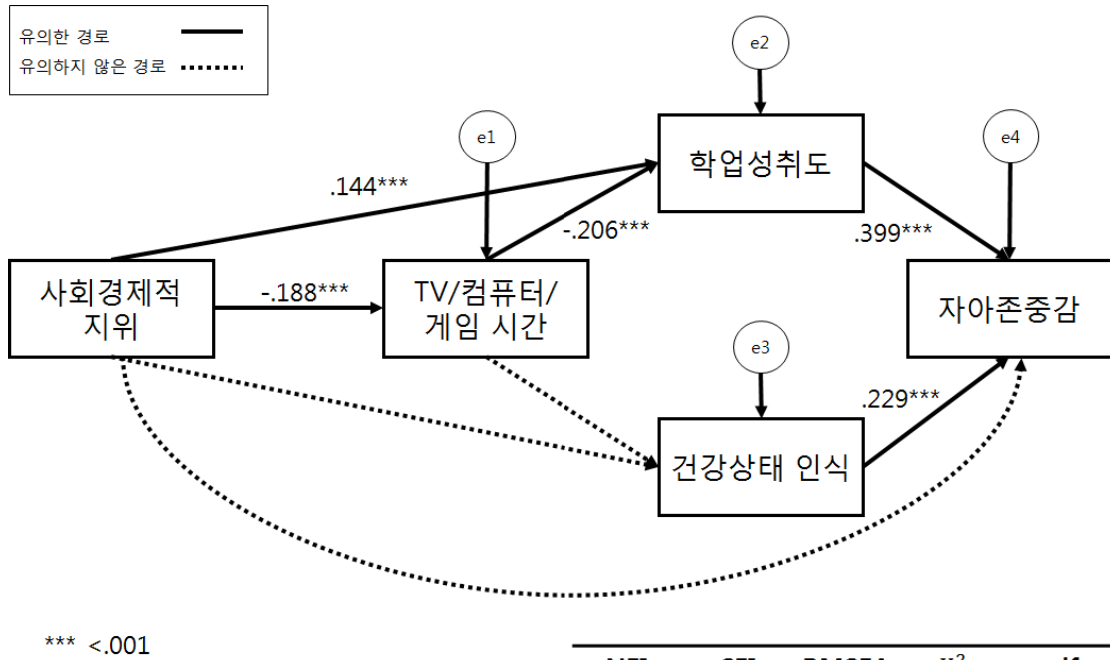
시간사용에 각각 ‘공부시간’, ‘TV/컴퓨터/게임시간’, ‘친구들과의 놀이시간’을 투입한 세 가지 모델에서 초등학교 3학년과 일치하는 결과로 사회경제적 지위는 모두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학업성취도는 다시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3학년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공부시간에는 정적인 영향을, TV/컴퓨터/게임시간과 친구들과의 놀이시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부시간은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TV/컴퓨터/게임시간과 친구들과의 놀이시간은 학업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점은 초등학교 3학년의 결과와 달리, 세 가지 모델 모두에서 건강상태 인식이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시간사용 유형별에 따른 건강상태 인식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공부시간과 친구들과의 놀이시간은 건강상태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TV/컴퓨터/게임 시간은 건강상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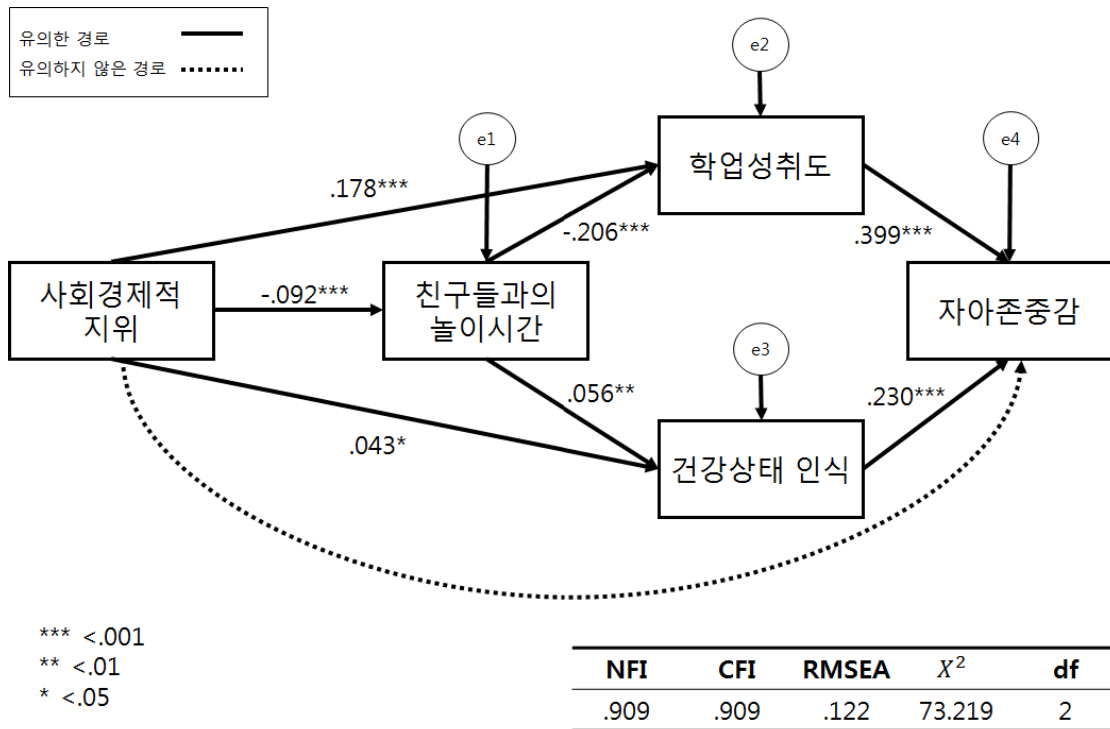
*** <.001
* <.05

NFI	CFI	RMSEA	χ^2	df
.923	.924	.121	71.091	2

<그림 4-1> 초등학교 5학년(공부시간 투입시)



<그림 4-2> 초등학교 5학년(TV/컴퓨터/게임시간 투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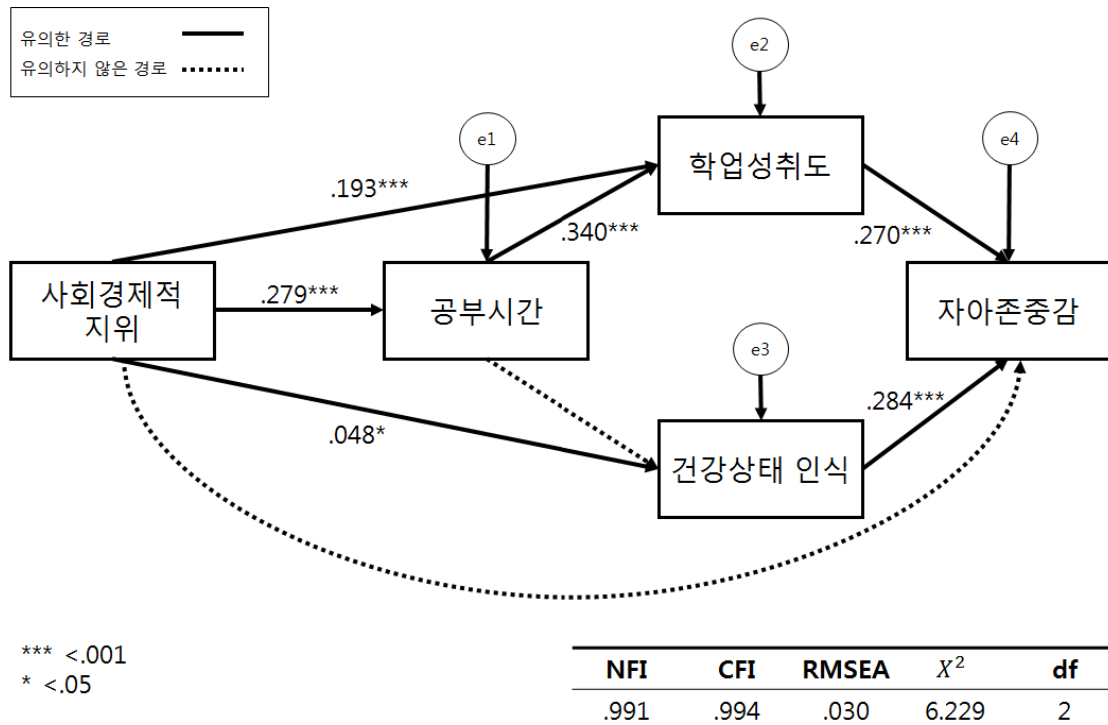


<그림 4-3> 초등학교 5학년(친구들과의 놀이 시간 투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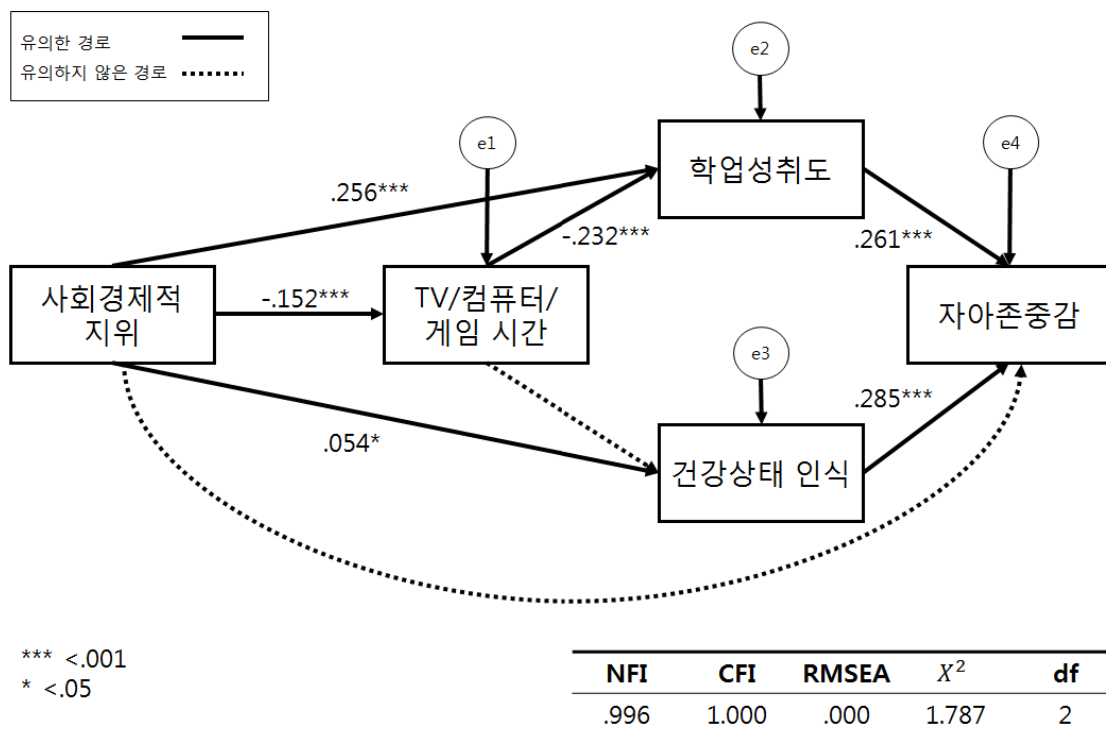
3. 중학교 1학년 (초4 패널 제4차년도, 2012)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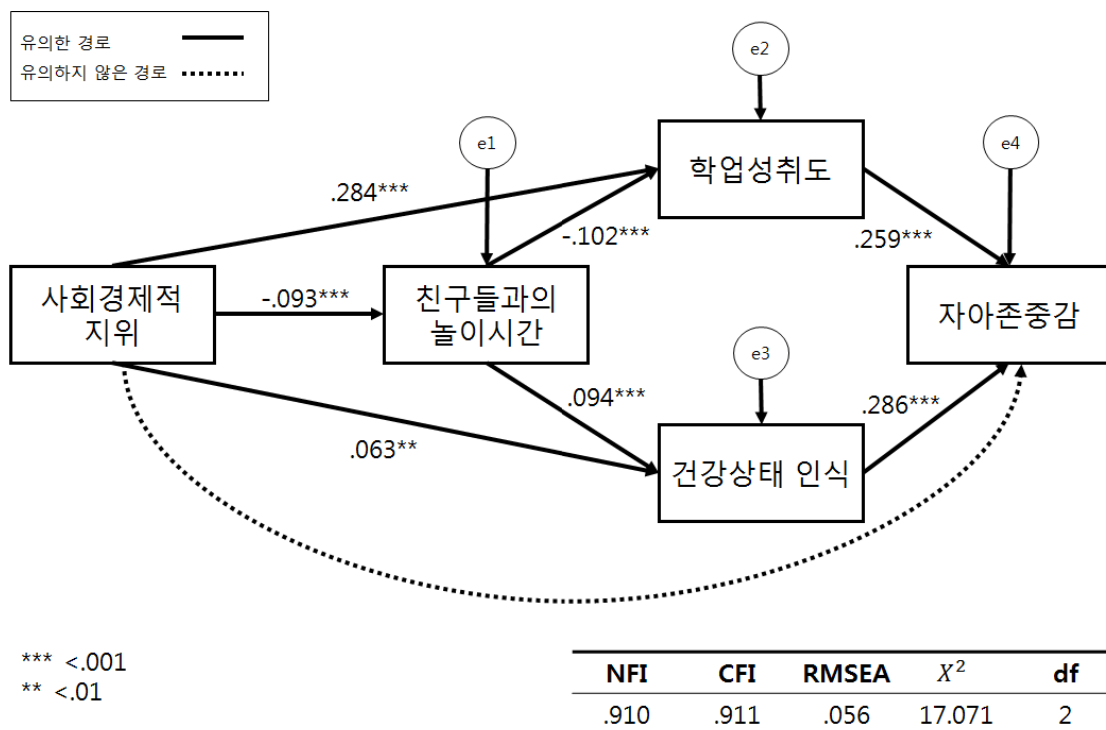
시간사용에 각각 ‘공부시간’, ‘TV/컴퓨터/게임시간’, ‘친구들과의 놀이시간’을 투입한 세 가지 모델에서 초등학교 3학년, 5학년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지위는 모두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학업성취도는 다시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시간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차이도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결과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또한 공부시간은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TV/컴퓨터/게임시간과 친구들과의 놀이시간은 학업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앞선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건강상태 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이 초등학교 5학년 결과에 이어서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전에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상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세 가지 모델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시간사용 유형별에 따른 건강상태 인식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공부시간과 TV/컴퓨터/게임 시간은 건강상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고 친구들과의 놀이 시간만이 건강상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1> 중학교 1학년(공부시간 투입시)



<그림 5-2> 중학교 1학년(TV/컴퓨터/게임시간 투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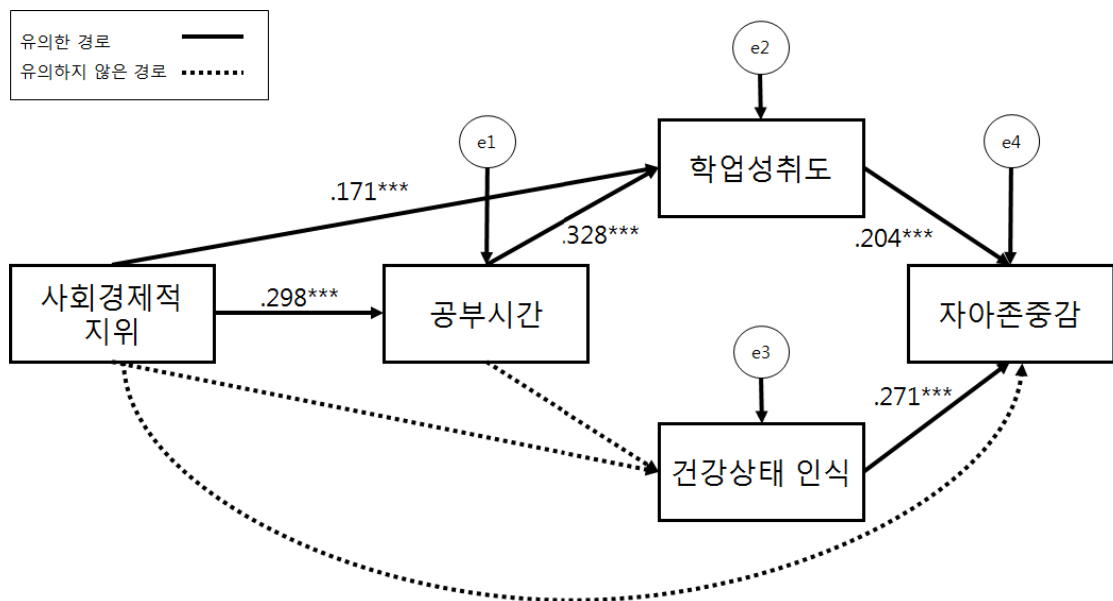


<그림 5-3> 중학교 1학년(친구들과의 놀이 시간 투입시)

4. 중학교 3학년 (중1 패널 제3차년도, 2011)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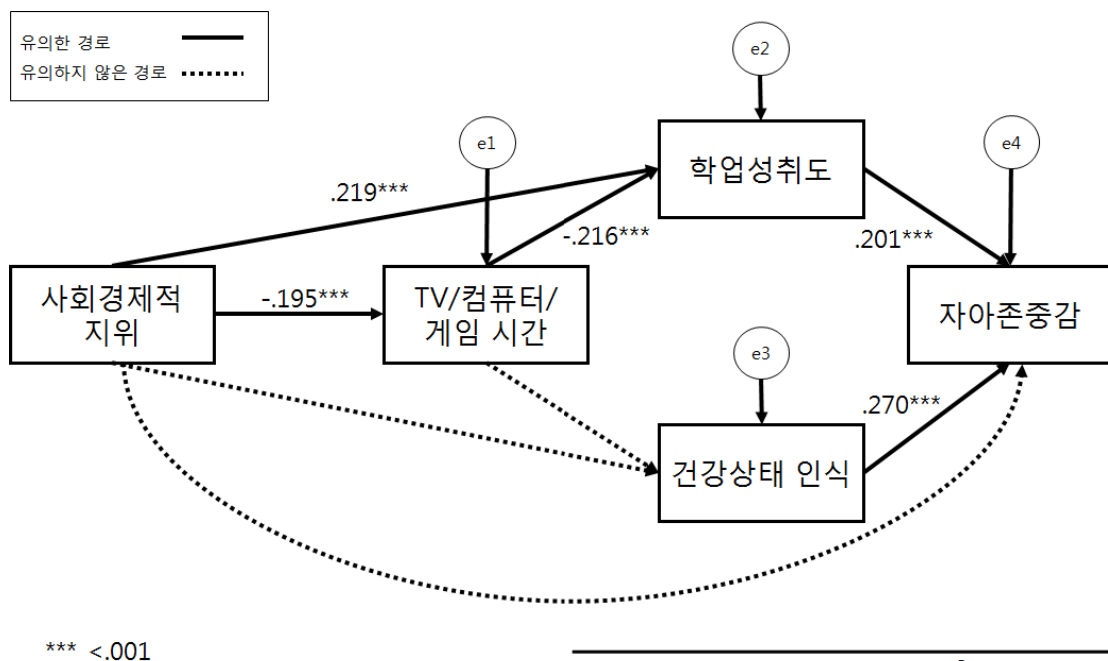
시간사용에 각각 ‘공부시간’, ‘TV/컴퓨터/게임시간’, ‘친구들과의 놀이시간’을 투입한 세 가지 모델에서 이전 모든 학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지위는 모두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학업성취도는 다시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결과도 지속되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시간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차이도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결과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또한 공부시간은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TV/컴퓨터/게임시간과 친구들과의 놀이시간은 학업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앞선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건강상태 인식이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도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일정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결과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중학교 3학년 결과에서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중학교 1학년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간사용 유형 중 친구들과의 놀이 시간만이 건강상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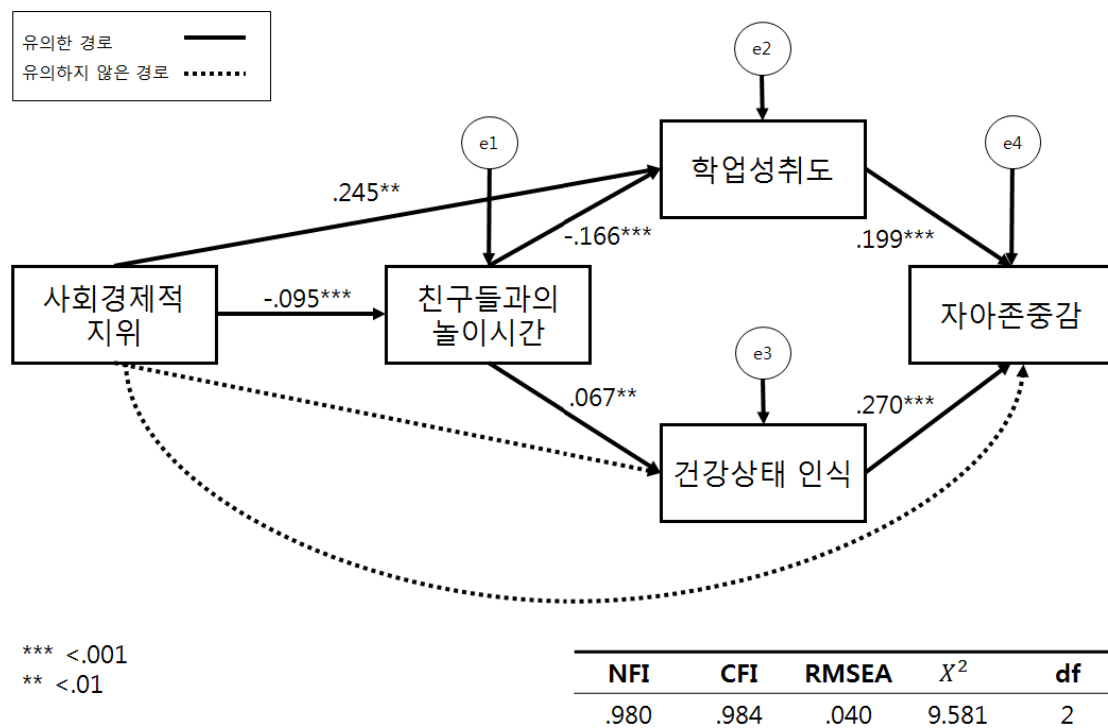
*** <.001

NFI	CFI	RMSEA	χ^2	df
.994	.997	.023	4.552	2

<그림 6-1> 중학교 3학년(공부시간 투입시)



<그림 6-2> 중학교 3학년(TV/컴퓨터/게임시간 투입시)



<그림 6-3> 중학교 3학년(친구들과의 놀이 시간 투입시)

5. 종합분석 : 연령별 추이 및 변화 비교

한편, 앞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령에 따른 각 변수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추이와 변화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나타났다.

첫째, 전반적으로 볼 때 ‘자아존중감’은 ‘성적’과 ‘건강상태 인식’ 모두로부터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별로 볼 때 다소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성적은 모든 연령대에서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건강상태 인식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나타나지 않다가 그 후인 초등학교 5학년 이후부터 자아존중감과 정적 연관성이 나타났다.

둘째,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 인식’의 관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다가 중학교 1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에서는 다시 그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간사용’ 및 ‘건강상태 인식’와 관련해서는, ‘공부시간’, ‘TV/컴퓨터/게임시간’은 ‘건강상태 인식’과 별다른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지만¹⁾ ‘친구들과의 놀이 시간’은 모든 연령에서 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간사용’ 및 ‘성적’과 관련해서는,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성적에 대해 ‘공부시간’은 정적인, ‘TV/컴퓨터/게임시간’은 부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에서는 ‘성적’과 별다른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다가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에서는 모두 부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경제적 지위’는 모든 연령대에 있어서 항상 ‘학업성취도’와 유의미한 정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간사용과 관련해 모든 연령대에 있어 사회경제적 지위는 ‘공부시간’과는 정적 연관성이, ‘TV/컴퓨터/게임시간’과 ‘친구들과의 놀이 시간’에는 부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아존중감’ 양자 사이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변수 사이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유의미한 정적 연관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의 모형에 따른 분석결과, 초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다른 연령에서는 모두 두 변수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사용, 학업성취도, 건강상태 인식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아존중감 사이에는 완전매개관계가 나타났다.

이상의 비교 및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1) 연령에 따른 학업성취도, 건강상태 인식, 자아존중감 사이의 관계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시기, 즉 대략 10세 정도까지는 신체적 변화나 외형 같은 건강 관련 인식·평가보다는 성적이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시

1)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공부시간’을 투입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건강상태 인식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기에는 아직 사춘기 2차성징 등과 관련해, 다른 아이들과의 뚜렷한 신체적·건강적 상태 격차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²⁾,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데에는 신체·외형보다 가시적 차이가 나타나는 성적이 보다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사춘기 신체변화를 보이는 또래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부터는 외모나 신체,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점차 중요해지고 이후에는 이것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연령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 인식 사이의 관계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는 초등학교 5학년 시기까지도 아동·청소년 스스로의 건강상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외형상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둘 사이에 실제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영향력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격적인 신체변화가 급격하게 가시화된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 인식 사이에 의미 있는 정적 연관성이 나타나게 된 것은, 양질의 식사 내지 생활여건 등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영향력이 그 이전까지 꾸준히 잠재적으로 축적되어 있다가 14세 전후에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다가 급격한 신체변화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대부분의 또래들이 2차성징 변화를 이미 경험하고 난 후인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다시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상태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에게 ‘2차 성징이 언제 처음 시작되었는지’를 묻는 문항을 중심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의 경우³⁾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중학교 1학년(30.1%)과 중학교 2학년(15.6%)인 반면, 중학교 3학년은 6.3%로 낮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⁴⁾, 초등학교 6학년(35.3%)과 중학교 1학년(29.0%)이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중학교 3학년은 2.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즉, 대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 시기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시기까지 급격한 신체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고,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오면 어느 정도 이러한 신체변화가 완료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초등학교 5학년 시기까지는 신체·건강상태에 대해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다가, 급격한 신체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중1 시기를 전후해서 폭발적으로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체변화가 일단락된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영향력이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앞서의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상태 인식, 자아존중감 사이의 연관성 및 연령 차이

앞서의 분석에서처럼, 사회경제적 지위는 급격한 신체변화를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2) 후술하겠지만,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성징이 처음 시작된 시기에 대해 묻는 문항 응답의 빈도분석 결과 초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는 뚜렷한 신체변화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비중이 매우 작은 편이다. 즉, 또래들 사이에서 신체적·건강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3) 문항이 처음 시작된 시기에 대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초등학교 1~3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으로 응답.

4) 초경이 처음 시작된 시기에 대해 질문.

중학교 1학년 시기에서 건강상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연령으로 대략 14세 전후이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그 이후 다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건강상태 인식은 초등학교 5학년 시기부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연령으로 보면 대략 12세 전후이다. 그리고 건강상태 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이후에도 계속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빈도분석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급격한 신체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은 중학교 1학년인 14세 전후이지만, 신체 및 건강변화와 관련된 인식·평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은 초등학교 5학년인 12세 전후이다. 2년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또래 중에서 먼저 신체변화를 통해 이른바 ‘어른스러운 몸’으로 변화하는 것이 일종의 선망의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체·건강상 변화를 통한 외형적 성숙을 먼저 경험한다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⁵⁾

둘째,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상태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중1때만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시기에만 ‘사회경제적 지위→건강상태 인식→자아존중감’의 영향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른 연령에서도 꾸준히 자아존중감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①사회경제적 지위가 초3, 초5, 중3 시기에도 신체·건강상태에 잠재적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면, 성적과 함께 꾸준히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체·건강상태를 매개로 자아존중감에까지 잠재적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②‘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아존중감’ 양자 사이의 단순회귀분석에서 나타난 유의미한 관계가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서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와 관련된 단일 경로가 아니라, 학업 및 건강 관련 두 개의 경로 모두를 통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③모든 연령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는 시기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 인식’ 사이에는 정적 관계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모든 연령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건강상태 인식’을 매개하는 ‘친구들과의 놀이 시간’에 대해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접 신체·건강상태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은, ‘친구와의 놀이 시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적 영향력으로 인해 상쇄되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직접연관성이 낮아 보일 뿐, 실제로는 꾸준히 의미 있는 정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

(4) 시간사용과 학업성취도, 건강상태 인식 사이의 관계

시간사용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바와 유사하게, ‘공부시간’은 학업성취도와 정적

5)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이미 2차성징이 시작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눠 두 집단 사이의 자아존중감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아동·청소년패널의 초등학교 5학년 데이터에서는 2차 성징 시작시기에 대한 문항이 없어 비교분석이 불가능하였다.

인 연관성을, ‘TV/컴퓨터/게임시간’은 부적인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친구들과의 놀이 시간’이다. ‘친구들과의 놀이 시간’은 모든 연령에서 ‘건강상태 인식’과 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들과 놀이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스스로의 신체·건강적 상태를 좋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학업성취도와 관련해서 친구들과의 놀이 시간은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에서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다가 중학교 1학년 이후에는 부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중학생이 된 이후에는 친구들과의 놀이시간이 학업성취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변화를 감안하면 “최소한 초등학교 시기까지는 ‘친구들과의 놀이 시간’이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신체·건강상태 인식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중학교 이후부터는 학업성취도에는 저해 요인으로, 건강상태 인식에는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5) 사회경제적 지위와 시간사용, 학업성취도 사이의 관계

모든 연령에 있어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업성취도와 유의미한 정적 연관성을 나타냈다. 이 때, 그 구체적인 경로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공부시간’과는 정적 연관성이, ‘TV/컴퓨터/게임시간’과 ‘친구들과의 놀이 시간’에는 부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아동·청소년일수록 공부시간이 많고, TV/컴퓨터/게임시간 및 친구들과의 놀이 시간이 적으며, 이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김태균, 2009; 박민자·손문금, 2007; 장상수, 2014; 정재기, 2007, 2011). 이것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이 실제로는 ‘학업성취도’를 매개로 한 것이며, 그 학업성취도는 시간사용의 문제를 매개로 한다는 구조적 경로를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VI. 논의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밝혔던 학업성취도 요인 이외에, 신체·건강 상태와 관련한 요인들을 검토하여 구조적 영향력의 경로를 밝히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초등학교 3학년(초1패널 3차년도), 5학년(초4패널 2차년도), 중학교 1학년(초4패널 4차년도), 중학교 3학년(중1패널 2차년도) 데이터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먼저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성취도 외에도 신체 및 건강상태 변화와 관련된 인식 역시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시기는 본격적인 신체변화를 보이는 또래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초등학교

5학년(12세 전후) 부터이다. 이것은 실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급격한 신체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실제 가시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중학교 1학년(14세) 시기보다 2년 정도 빠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실제 자신이 경험하는 신체변화와 관계없이, 또래집단에서 나타나는 신체·건강상의 변화 인식이,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비교 현상과 맞물려, 보다 이르게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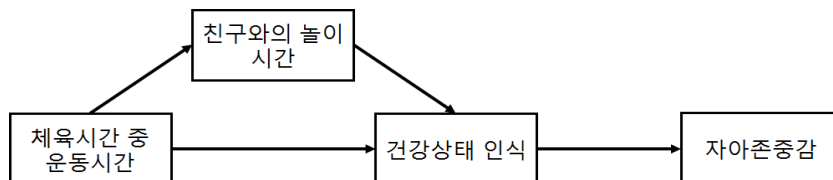
둘째, 사회경제적 지위는 평상시에는 학업성취도와 달리 건강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잠재적 영향력을 미치며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신체변화 시기에 이르러 그 연관관계를 폭발적으로 드러낸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는 시기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장 급격한 신체변화를 경험하는 중1 시기라는 점, 그리고 단순회귀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아존중감 사이의 관련성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는 신체·건강에 관한 매개효과 등으로 인해 사라진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셋째, 시간사용과 관련해서는 특히 친구들과의 놀이시간이 건강상태 인식에는 촉진요인으로, 학업성취도에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학업성취도와 관련해서는 학업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중학교 시기 이후부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사회경제적 지위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부시간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자아존중감에까지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도 이외에 신체·건강 관련 부분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것이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아동·청소년에게 있어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일종의 ‘불가역적 환경 요인’이, 성적 뿐 아니라 외모·신체에 관한 부분에도 구조적 영향을 미친다는 다소 어두운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학교에서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동·청소년패널에는 ‘학교에서의 체육시간 중 운동시간’에 관한 문항이 있다. 그리고 이 문항에 대한 응답과 ‘친구들과의 놀이 시간’, ‘건강상태 인식’,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령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제시하고(〈그림 7〉),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그림 7>

표 2 ▶ ‘체육시간 중 운동시간’ 관련 분석 결과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친구들과의 놀이시간	←	체육시간 중 운동시간	.094***	.049*	.048*
건강상태 인식	←	친구들과의 놀이시간	.039	.080***	.056**
건강상태 인식	←	체육시간 중 운동시간	.131***	.168***	.136***
자아존중감	←	건강상태 인식	.281***	.259***	.267***
자아존중감	←	체육시간 중 운동시간	.120***	.184***	.096***

‘체육시간 중 운동시간’은 ‘친구와의 놀이시간’ 및 ‘건강상태 인식’에 의미 있는 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것은 자아존중감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학교에서의 실제적인 체육활동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요인이다.

위 <그림 7>에 대해서는 첫째, 아동·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체육 시간 중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친구들과 노는 활동’으로 여기고 있고 둘째, 예컨대 학교에서의 체육 활동 시간 동안 친구들 사이에서 출중한 운동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동·청소년 스스로의 신체·건강상태 인식 및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 학교에서의 체육활동은 단순한 교과과목 중 하나가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상태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구조적 환경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보이는 입시 위주의 교과운영 속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에 따른 신체·건강적 빈부격차’라는 부정적 영향력을 극복하고, 청소년의 건강상태 개선과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해, 체육시간을 실질화하고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 연구에서는 주장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학교 교과 운영에서 체육 시간을 어느 정도로 배정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앞서 본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중학교에 들어서서는 친구들과의 놀이 시간이 늘어날수록 건강상태인식은 높아지는 관계가 나타났지만, 반대로 학업성취도는 떨어지는 관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용의 묘에 따라 체육시간과 인지적 교과 학습을 적절히 배분하는 지혜가 이 지점에서는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현재 우리의 현실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과에만 초점을 맞춰서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므로 분명한 것은 체육 시간을 지금보다 확실하게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한 명의 아동·청소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자원을 공부, 운동, 친구들과의 사회활동 등으로 적절히 나누어야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공부시간을 너무 늘리면 건강이 악화되고 건강을 위해 친구들과의 놀이 시간 등의 여가 시간을 늘리면 학업성취도가 나빠지는 반비례 관계가 이 사이에는 성립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친구들과의 놀이 시간이라고 하는 여가 시간에 대한 것이다.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이 자기조절능력, 학업성

취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차동혁과 옥선화(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문화자본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이 체화된 문화자본으로 기능하여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사회 계층에 무관하게 청소년이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비록 친구들과의 놀이시간을 무조건적으로 여가문화활동 시간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친구들과의 놀이시간을 나름대로 의미 있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활동으로 채울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도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건강상태인식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를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시간과 다른 교과 과정간의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 더 밝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건강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도입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 및 체력 상태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변수가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건강상태인식이라는 변수를 사용하였으나, 2009년부터 시작된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과 같은 변수들을 도입하여 연구한다면 SES, 학업성취도,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SES가 아동·청소년의 건강상태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초등학교 시기에는 잠재되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다가 중1 시기에 들어와서 그 영향력을 유의미하게 미치는 것과 그 이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다시 사라지는 것에 대해 좀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을 위한 보완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아동·청소년의 건강상태인식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5학년인 12세 전후이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2차성징을 통하여 급격한 신체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중학교 1학년인 14세 전후이다. 2년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동·청소년들이 먼저 신체변화를 통해 이른바 ‘어른스러운 몸’으로 변화하는 것을 일종의 선행의 대상처럼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로서 여기고 받아들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이미 2차성징이 시작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눠 두 집단 사이의 자아존중감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SES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구조를 밝혀냈다. SES와 자아존중감 사이에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는 두 변수 사이에 모든 연령대에서 유의미한 정적 연관성이 나타났으나, SES, 시간사용, 학업성취도, 건강상태 인식, 자아존중감을 포함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였을 때에는 SES와 자아존중감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사라짐으로써 SES와 자아존중감 사

이에서 시간사용, 학업성취도, 건강상태 인식이 완전매개관계로 기능하고 있는 모델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둘째,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SES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피는 연구 또는 SES와 건강상태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많았다. 전자는 주로 교육학,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후자는 보건학 또는 사회학 분야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처럼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SES와 시간사용, 학업성취도, 건강상태 인식, 자아존중감 등을 종합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SES가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필. (2014). **부모의 학력 및 사회 경제적 지위와 초등학교의 건강체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강영호. (2005).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47-155.
- 강은정. (2008). 교육수준과 주관적 불건강-매개 요인의 탐색. [Educational Attainment and Subjective Unhealthiness-An Exploration of the Mediators].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4(1), 51-74.
- 강혜원, 조영태. (2007). 서울시 남녀노인의 건강불평등. **한국사회학회지**, 41(4), 164-201.
- 강희숙. (2002). 도시노인 노년들의 건강실천 행위와 건강상태와의 관련성. **한국보건사회학회지**, 11, 115-136.
- 고영남(2008). 중학생의 부애착, 모애착, 또래애착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16(2), 111-131.
- 김경원. (2003). 규칙적인 운동이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1), 1-12.
- 김미숙, 문혁준.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 김성옥, 이서기, 황진. (2008). 스포츠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신체적 자기개념과 정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1), 81-95.
- 김순양. (2010).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의 모색. **한국사회정책**, 16(2), 1-56.
- 김영모. (1999). **사회 복지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김정원. (2005). 생활과학으로서의 초등 식생활 교육내용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8(1), 129-144.
- 김진영. (2011). 교육집단별 건강 추세에 대한 분석. **한국인구학**, 34(1), 99-127.
- 김태균. (2009).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 시간, 학업흥미의 중단적 매개효과 검증**. (국내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표민, & 김윤화. (2013). 연구논문: 연구논문: 건강상의 어려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10), 143-167.
- 김혜련, 강영호, 윤강재, 김창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건강수준의 사회계층간 차이와 정책 방향**.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03), 2004. 맹광호, 박용문, 황인영, 임선희, 김영복, 배재익, 조선진, 양수형, 조기암검진사업의 효율화방안,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김혜련. (2009). 건강형평성에서 건강행태의 함의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49, 36-47.

- 동아닷컴. (2014). 재정 풀고 임금 올리고... 선진국도 사회허리 강화 한창. 2014년 9월 3일자 신문.
<http://news.donga.com/3/all/20140903/66182517/1>
- 류민정, & 표내숙. (2005). 대학생의 운동참여수준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6(1), 97-109.
- 류민정, & 표내숙. (2007). 한국판 신체적 유능감 정보 척도 개발: 체육수업의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8(2), 155-174.
- 문한식. (2009). 가정주부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정도와 스트레스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18(3).
- 박민수. (2009). **社會經濟的 地位에 따른 健康 不平等의 趨勢**.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민자, & 손문금. (2007).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와 관련된 생활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Family Background on Life Time Use Related with Educational Achievement of the Korean Youths]. **가족과 문화**, 19(2), 93-120.
- 박태희, & 이정희. (2014).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3), 353-361.
- 박은조(2000). **중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학지사.
- 양수경, 문혁준(2012). 가족기능,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간발달학회**, 19(2), 115-130
- 양윤준, 윤영숙, 오상우, 이연숙.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한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활동도. **가정의학회지**, 26(1), 22-30.
- 엄선희, & 문춘걸. (2010). 소득계층에 따른 보건의료의 형평성: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6(1), 35-61.
- 윤명숙, & 최정민. (2011).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안녕감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2), 55-78.
- 윤태호. (2007).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The proposal of Policy for Tackling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예방의학회지**, 40(6), 447-453.
- 이강아. (2002). 가족의 소득수준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0), 65-76.
- 이정은, 이주리. (200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모양육 행동과 가정폭력의 매개 역할. **놀이치료연구**, 12(30), 1-15.
- 이미숙. (2005). 한국 성인의 건강 불평등: 사회계층과 지역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지**, 39(6), 183-209.
- 이용재. (2010). 소득계층별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이용 형평성 분석. **한국사회정책**, 17(1), 267-290.
- 이운경, 도현심. (2005).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변인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기대 및 정서적 지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아동학회지**, 26(3), 43-59.
- 이정환. (1998). 가족구조가 아이의 지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2(3), 621-644.
- 이형진, & Lee, H. J. (2007).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문화자본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장상수. (2014). 가족배경과 학습시간, 성적. [Family background, study time, and academic achievement - Korea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 **한국청소년연구**, 25(2), 291-318.

- 정원식. (1983). **교육환경론**. 서울: 교육출판사.
- 정익중, & 이지연. (2011). 청소년기 비만과 외모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8(단일호), 60-80.
- 정재기. (2007).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실태.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Adolescents' Computer Use Pattern: Based on Time Diary Data].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24), 51-78.
- 정재기. (201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형태. **韓國社會學**, 45(5), 197-225.
- 조혜진(2006).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동범. (1998). 학생배경과 학업성취: 어머니의 자녀교육에의 관여가 매개하는가?. **교육사회학연구**, 8(1), 41-56.
- 차동혁, & 옥선화. (2014).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이 자기조절능력, 학업성취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on Self-regulation, Academic Achievements, and Self-esteem: Focusing on Fathers' Educational Levels]. **보건사회연구**, 34(1), 353-378.
- 최범규, 노영호. (2004). 아동의 성과 운동참가가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 체육학회지**, 14(2), 1-12.
- 최정희. (2010).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하충근, 이강현. (2002). 중, 고등학생의 신체활동 참여유형별 신체적 자기개념의 차이.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3(3), 185-202.
- 홍길동, 허정식. (2003). 복합 운동 참가가 생리적 요인과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3), 111-125.
- 홍두승. (1988). 직업과 계급: 집락분석을 통한 계급분류. **한국사회학회지** 22(2), 2023-2043.
- 홍주영, 도현심(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25-136.
- 황혜원. (2004). 저소득층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8, 157-180.
- Belsky, J., Bell, B., Bradley, R. H., Stallard, N., & Stewart-Brown, S. L. (2006). Socioeconomic risk, parenting during the preschool years and child health age 6 years.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17(5), 508-513
- Biddle, S. (1999). The motivation of pupils in physical education. *Learning and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105-125.
- Bird, A. M., & Cripe, B. K. (1986). *Psychology and sport behavior*. Times Mirror/Mosby College Pub.
- Bourdieu, P.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Harvard University Press M.A.
- _____. (2001). "The Forms of Capital" pp.96-111 in Granovetter, M and R. Swedberg (ed). *The Sociology of Economic Life*. Boulder. Westview Press.
- Cho, H. J., Khang, Y. H., Jun, H. J., & Kawachi, I. (2008). Marital status and smoking in Korea: the influence of gender and age. *Social science & medicine*, 66(3), 609-619.

- Evans, G. W., Boxhill, L., & Pinkava, M. (2008). Poverty and Maternal Responsiveness: The Role of Maternal Stress and Social Resourc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2(3), 232-237.
- Fox, K. R. (1997). *The physical self: From motivation to well-being*. Human Kinetics.
- Fox, K. R., Corbin, C. B., & Couldry, W. H. (1985). Female physical estimation and attraction to physical activity. *Journal of Sport Psychology*, 7(2), 125-136.
- Grundy, E., & Sloggett, A. (2003). Health inequalities in the older population: the role of personal capital, social resources and socio-economic circumstances. *Social science & medicine*, 56(5), 935-947.
- House, J. S. (2001). Social isolation kills, but how and why? *Psychosomatic Medicine*, 63(2), 273-274.
- House, J. S., Lantz, P. M., & Herd, P. (2005).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aging and health over the life course: evidence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longitudinal study from 1986 to 2001/2002 (Americans' Changing Lives Stud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0(Special Issue 2), S15-S26.
- Howard, P. N., L. Rainie, and S. Jones. (2001). Days and Nights on the Internet: the Impact of Diffusing Technolog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3), 383-404.
- Huntsinger, E. T., & Luecken, L. J. (2004).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health behavior: The mediational role of self-esteem. *Psychology and Health*, 19(4), 515 - 526.
- Jackson, A. P. (2000). Maternal Self-Efficacy and Children's Influence on Stress and Parenting Among Single Black Mothers in Poverty. *Journal of Family Issues*, 21(1), 3-16.
- Kostelecky, K. (2005). Parental attachment, academic achievement, life events and their relationship to alcohol and drug use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8(5), 665-676.
- Laible, D. J., Carlo, G., & Roesch, S. (2004). Pathways to self-esteem in late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empathy, and social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ce*, 27, 703-716.
- Loland, N. W. (1998). Body image and physical activity. A survey among Norwegian men and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9(4), 339-365.
- Lox, C. L., Wasley, D. & Jackson, S. (1999). the effects of exercise on physical self-concept in the elderly.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1. S78.
- Lundberg, G. A., & Steele, M. (1938). Social attraction-patterns in a village. *Sociometry*, 375-419.
- Madden, M. (2003). *America's online Pursuit*. Washington, DC. Pew Internet and American Life Project.
- Marsh, H. W. (1987). The big-fish-little-pond effect on academic self-concep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3), 280.
- Marsh, H. W. (1998). Age and gender effects in physical self-concepts for adolescent elite athletes and nonathletes: A multicohort-multioccasion design.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 Morgan, W. P. (1980). The trait psychology controversy.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51(1), 50-76.
- Mulatu, M. S., & Schooler, C. (2002). Causal connections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reciprocal effects and mediating mechanism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1), 22-41.
- Park, L. E., Crocker, J., & Kiefer, A. K. (2007). Contingencies of self-worth, academic failure, and goal pursui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 Rice, F. P., & Dolgin, K. G. (1992).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s, and culture*. Boston: Allyn and Bacon.
- Richardson, S. M, S. J. Paxton, and J. S. Thomson, 2009, "Is Body Think an Efficacious Body Image and Self-Esteem Program?: A Controlled Evaluation with Adolescents" , *Body Image* 6(2) 75~82.
- Robert, J. E., Gotlib, I. H., & Kassel, J. D.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10-320.
-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61.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Basic, New York.
- Ross, J. A. (1998). Maternal diet and infant leukemia: a role for DNA topoisomerase II inhibi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 78(S11), 26-28.
- Sonstroem, R. J. (1984). Exercise and self-esteem. *Exercise and sport sciences reviews*, 12(1), 123-156.
- Sonstroem, R. J., & Morgan, W. P. (1989). Exercise and self-esteem: rationale and model. *Medicine & Science in Sports & Exercise*.
- Trujillo, N. (1983). Performing. Mintzberg' s Roles: The Nature of Managerial Communication. In Putnam, LL & Pacanowsky, ME (Hrsg.), *Communication and Organizations: An Integrative Approach*, 73-97.
- Warner, W. L., Meeke, M., & Eells, K. (1949) Social class in America; *a manual of procedure for the measurement of social status*.
- Weatherley, D. (1964). Self-perceived rate of physical maturation and personality in late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1197-1210.
- Wigfield, A., Eccles, J. S., Mac Iver, D., Reuman, D. A., & Midgley, C. (1991). Transi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Changes in children's domain-specific self-perceptions and general self-esteem across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552-565.
- Wilkinson, R. B.(2004). The role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in the psychological health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6), 479-460.
- Zimmerman, M. A., Copeland, L. A., Shope, J. T., & Dlelmnn, T. E. (1997). A Longitudinal Study of Self-Esteem: Implications for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2), 117-141.

가정배경, 교우관계, 휴대전화 오락추구적 이용행태와 학업성취의 관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이승진*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자료(KCYPs: Korean Children Youth Panel Survey) 중2 패널을 활용하여 중학생의 가정배경, 교우관계, 휴대전화의 오락추구적 이용행태와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자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정배경은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오락 목적 휴대전화 이용을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가정배경은 교우관계를 매개로 하여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우관계는 그 자체로 학생의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였으나 오락 목적 휴대전화 이용을 매개할 때 학업성취를 감소시켰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오락 목적의 휴대전화 이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학생에게서는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오락 목적의 휴대전화 이용 증가는 학업성취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어 적절한 미디어 교육을 통해 휴대전화 이용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적 구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주제어: 휴대전화 이용행태, 학업성취, 가정배경, 교우관계, 다집단 분석

I. 서론

휴대전화는 과거 전통적 의사소통 매체라는 특징에서 벗어나 근래에는 영상통화, 이메일 등 대인 커뮤니케이션 기능뿐 아니라 텔레비전 방송 및 정보수신, 음악 감상, 사진촬영, 게임, 모바일 결제수단 등 점차 그 기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휴대전화는 단순히 대인 미디어의 기능을 넘어서 멀티미디어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휴대전화의 발전 가속화 흐름 속에서 최근 기기 보급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를 보유하게 되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2007년도 초등학교의 휴대전화 소지율은 40%정도였으나 2011년도에 이르러서는 80%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역시 2007년도에는 73.7%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2011년도에는 94.1%가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여성가족부, 2011). 특히 2011년 초·중·고등학교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36.2%에 불과하였지만 2013년에는 81.5%로 집계되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보급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통계청, 2014).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supermarket35@hotmail.com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전화의 보급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휴대전화 과다이용 및 중독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10.7%인 반면 스마트폰 중독률은 18.4%로 조사되어 스마트폰 의존 현상이 중대한 청소년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이나 컴퓨터와 같이 기존의 매체 중독 현상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심각하게 나타났지만 스마트폰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중독 위험군에 놓일 가능성이 1.6배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스마트폰 중독 현상에서 성별 차이가 목도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2013)이 배포한 스마트폰·인터넷 중독 예방 교사매뉴얼은 스마트폰·인터넷 중독을 관계집착형, 음란물·동영상형, 정보수집형, 게임형, 웹서핑형으로 유형화하였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모바일 메신저와 온라인 게임을 하는 데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집착형(36%) 및 게임형(15%) 중독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기는 성인으로 이행하기 직전단계로 가정을 벗어나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시기이다. 청소년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음으로써 자기표현력을 신장할 뿐 아니라 청소년기에 특히 중요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한다(성은모, 진성희, 2012; Kamiveppu & Sugiura, 2005). 이를 통해 학생들은 소속감을 느끼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되므로 휴대전화 이용은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순기능과 더불어 과다이용 및 의존이 높아지면 금단현상 및 불안감, 자기통제력 상실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더불어 전자파 노출, 터널증후군 등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수면부족, 잦은 문자메시지 교환 및 게임몰두로 야기된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업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강동진, 2005; 권영란, 박명숙, 2012; 김영민, 임영식, 2013; 한정선, 김세영, 2006)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휴대전화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소유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김세현, 2010)와 초기 중상층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과시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에서 휴대전화가 확산되었던 것과 같이 현재 일부 청소년들이 새로운 기능을 갖춘 최신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는 데서 휴대전화 보유는 가정배경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한편 가정배경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 내 대화 패턴 등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유백산, 김경근, 2013),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휴대전화의 오락적 이용행태를 감소시키는 연구결과도 확인된바(김지혜, 2012) 휴대전화 보유 및 이용행태가 가정배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나아가 인터넷 사용이나 텔레비전 시청 용도에 따라 학생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 선행연구들을 참고해보았을 때 휴대전화의 이용행태 역시 학생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윤지와 김경근(2013)은 컴퓨터를 오락 목적으로 이용할 때와 학습 목적으로 이용할 때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고 이는 가정배경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휴대전화 관련 연구 역시 휴대전화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던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를 확장하여 이용행태나 학업성취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

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이 기기 이용행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이용행태의 상이한 영향력을 살펴보는 작업이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적절한 교육적 처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학업성취가 계층 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그 자체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판단하게 해주는 가늠자 역할을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 가정배경 및 교우관계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행태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것이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다면 계층 간 교육격차가 커지게 되어 결국 교육불평등이 더욱 확대될 소지가 있다. 이에 가정배경, 교우관계, 휴대전화 이용행태와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허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휴대전화 이용과 휴대전화 의존, 학교부적응의 관계를 살피고 있어 휴대전화 이용행태와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를 관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여기서는 가정배경과 교우관계가 휴대전화 이용행태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성별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목적 및 의존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보도 및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추가적으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우관계와 학업성취의 관계

한 개인의 교육수준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이며, 개인의 교육수준은 가정배경에 따라 상이한 차이가 존재한다(Jencks, Crouse & Mueser, 1983).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 학력이나 학벌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공을 좌우한다는 신념이 강하며, 자녀의 성공을 가족의 성공으로 환원하는 공리주의적 인식이 지배적이므로 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해 가족 내 인적·사회적·경제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김경근, 1998). 이는 결국 가정 내 보유 자본이 풍부한 가정일수록 자녀 교육에 많은 투자가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선행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김현주, 이병훈, 2007; 김수혜, 김경근, 2010; 신명호, 2011).

아울러 가정배경은 자녀의 학업성취뿐 아니라 그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동은 부모 및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해 기본적인 사회적 행동을 익히기 때문에 가정의 특성이 교우관계와도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이 같은 긍정적인 학교 내 사회적 관계는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중섭, 이용교, 2009). 김수혜, 김경근(2010)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모범생 친구를 사귀는 데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교우관계가 수능성적을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미경(2002)은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또래관계와 관련 있으나 적대적인 양육태도는 부정적인 또래관계와 관련된다고 밝혔다. 박소영(2008)은 가정의 사회자본이 자녀의 교우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2. 가정배경 및 양육태도와 휴대전화 이용행태

가정배경은 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양육태도 등을 포괄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먼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이들의 양육태도와 결합하여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양육태도 간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대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민주적,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기강도, 2001; 신명호, 2004; 홍순옥, 문명순, 2007).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내적 그리고 외적인 태도와 행동이 얼마나 지지적인지, 엄격한지의 수준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이런 양육태도가 부모-자녀 간의 관계의 질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있다(Hofferth & Anderson, 2003;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장석진, 송소원과 조민아(2012)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자율성을 보장해줄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휴대전화 의존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차미숙(2006)은 부모가 비합리적으로 자녀의 행동을 설명하고 지도할수록 청소년이 휴대전화 의존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부모의 합리적인 설명은 자녀의 휴대전화 의존을 낮추는 보호요인이 됨을 밝혔다. 정복자(2010)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휴대전화를 대화나 메시지 등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적대적일수록 주로 혼자 활동하는 게임 및 오락 등에 치중한다고 보고함으로써 휴대전화 사용용도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일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지닌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이러한 양육태도를 자녀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때 휴대전화의 과다 이용도 줄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에는 애정적 태도, 합리적 설명, 적당한 지도·관리, 자율적, 민주적 태도 등이 있는데, 본 연구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맞물려서 청소년 자녀의 휴대전화 이용 행태 및 학업성취와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포착하고자 한다.

3. 교우관계와 휴대전화 이용행태

청소년은 또래 집단에 소속되려는 욕구가 강하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친구들과 공통의 경험

을 공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과다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Kamibeppu & Sugiura, 2005). 이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친구들과 연락하며 이를 통해 또래와의 친밀감, 유대감, 신뢰감 등을 형성하므로(성은모, 진성희, 2012) 휴대전화는 교우관계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교우관계 유지를 위한 휴대전화 이용은 기기 활용에 대한 의존성을 높여 휴대전화 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친구관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이것이 과다사용 및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청소년의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예측 변인들을 탐구한 이해경(2008)의 연구는 친구수가 많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학생들이 휴대전화 중독 성향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휴대전화 이용행태와 기기 의존 관계를 살펴본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사용자일수록 휴대전화를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게임 및 오락을 하기 위해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현숙, 서미정, 2012; 김현숙, 2013). 임양미(2014)는 군집분석을 통해 초등학교의 휴대전화 의존도와 활용유형을 구분한 결과 고의존·또래사고/오락지향형, 중의존·또래사고형, 중의존·다활용형, 저의존·가족소통형을 도출하였다. 특히 오락을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의존도가 가장 높았고 또래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할 경우 의존도가 두 번째로 높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또래동조성이 높은 학생들에게서 휴대전화 과다 사용·의존적인 경향이 나타나며 이들은 주로 친구와의 연락 및 오락을 위해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우관계 등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들이 직면한 문제로부터 회피하고자 컴퓨터에 몰입한다는 보고도 있다(Scherer, 1997). 비슷한 맥락에서 여지영, 강석영과 김동현(2014)의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집단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집단과 게임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애착불안을 경험할수록 두 집단 모두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게임집단의 경우 외로움을 느낄 때 스마트폰에 더욱 중독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휴대전화의 과다 사용 및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관계가 지목되지만 그 영향력은 연구마다 엇갈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우관계를 중심으로 휴대전화 이용행태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4. 휴대전화 이용행태와 학업성취의 관계

휴대전화는 언제 어디서든지 소지 및 이용이 가능하므로 학업부담으로 스트레스가 쌓인 청소년들이 손쉽게 빠져들 수 있는 매체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전화나 문자만 가능하던 과거 휴대전화에서 진화한 스마트폰은 이제 컴퓨터와 동등한 매체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Andrew, Jacob & Aryn, 2014). 실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전화, 문자, 게임, 인터넷, 동영상 및 사진 촬영/감상, 음악 감상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때문에 최근 휴대전화 관련 연구들은 이용 그 자체 보다는 휴대전화의 상이한 이용행태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 학교부적응과 같은 변인의 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하였고(김지혜, 2012; 여지영 외, 2014; 이정숙, 명신영, 2007), 국외에서는 학업성취와 휴대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 이용행태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휴대전화 이용과 학업성취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휴대전화 사용이 학업성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먼저 Jacobsen과 Forste(2011)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매체의 활용이 미국 대학 신입생의 학업성취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대만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Hong, Chiu and Hong(2012)의 연구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이용이 학업부적응과 관련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Junco와 Cotton(2011, 2012)은 학업성취와 멀티태스킹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이들은 대학생들이 수업시간이나 과제를 수행하면서 종종 문자를 전송하고 페이스북을 확인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 이용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항상 부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강동진(2005)은 휴대전화의 과다 이용이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영남(2009)은 휴대전화 사용정도가 학생의 학교 적응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5. 성별에 따른 휴대전화 이용행태 차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활용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는데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에 있어 남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생물학적 특성이 때문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남학생의 경우 컴퓨터 및 휴대전화와 같은 기술에 매료되어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게임이나 오락과 같은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매체에 중독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Augner & Hacker, 2012; Bianchi & Philips, 2005). 반면 여학생의 경우 휴대전화를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손쉽게 타인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구현영, 2010; 성은모, 진성희, 2012; 이정숙, 명신영, 2007). 또한 이동후와 손승혜(2007)는 여성이 휴대전화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의 채택에 있어 남성보다 더 적극적이라고 보고하며 여성은 자기표현 기능이나 카메라, 음악 감상 기능에 더 큰 가치를 두고 남성은 상거래, 오락 및 정보 기능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성별 차이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은모와 진성희(2012), 문영임, 구현영과 박호란(2005), Young(1998)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고 청소년의 휴대전화 활용목적에 있어서도 남학생들은 게임 및 오락의 활용이 여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학생들은 친구들과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사진촬영,

음악듣기 목적으로의 활용이 남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정숙과 명신영(2007), 이해경(2008), 한상훈(2008), Augner와 Hacker(2012)는 휴대전화 사용량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으며 휴대전화 중독 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성별 차이가 항상 일관되게 보고되는 것은 아니다. 강동진(2005), 김선희(2005), Bianchi와 Phillips(2005)의 연구에서는 남녀 간 휴대전화 과다사용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성별 간 휴대전화 의존도와 이용형태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결과는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바 성별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이들의 휴대전화 이용행태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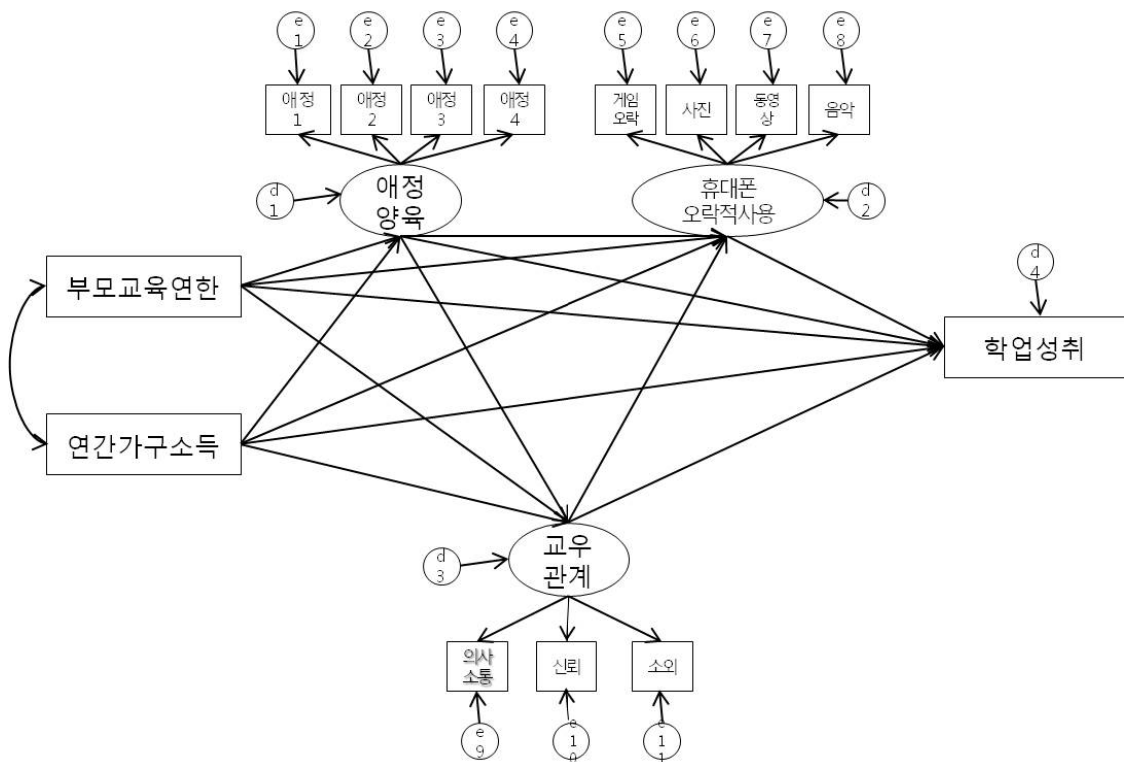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설계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아래의 연구모형을 통하여 부모의 교육수준과 연간가구소득,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및 교우관계가 성별에 따라 중학

생의 휴대전화 이용행태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2. 데이터 및 표본

본 연구는 가정배경이 남녀 중학생의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사용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같은 변인들 사이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ren Youth Panel Survey)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매체, 또래, 교육,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하고 발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시간 경과 속에서 포착하기 위해 설계된 국가 수준의 종단조사이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당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6년까지 7년 동안 이들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 과정에 대해 매년 추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1차년도와 2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1차년도 조사는 2010년 당시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학교로 최종 78개교가 선정되었고 전체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차년도 조사대상은 2,351명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2차년도에도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들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최종적으로 2,280명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년도 자료에서는 부모의 학력, 가구의 연간 소득, 양육 태도, 교우관계와 같은 가정배경 및 학교 내 사회적 지지 관련 변인을 투입하고, 2차년도 자료에서는 휴대전화의 오락추구적 이용행태와 최종 종속변수인 학생의 학업성취도 변인을 활용하였다.

3. 변인 설정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부모의 학력, 가구의 연간 소득,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교우관계이고 매개변수는 휴대전화의 오락추구적 이용이다. 종속변수는 학업성취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각각 획득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세 변인의 평균값을 관측변수로 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 행태가 다르며 이들의 의존도가 상이하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남녀 집단으로 구분하여 효과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변수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수

(1) 부모의 학력

가정배경 변인 중 하나인 부모의 교육수준은 부와 모 각각 중학교 졸업 이하, 고졸, 2년제 대학 졸, 4년제 대학 졸, 대학원 졸업으로 조사되었던 것을 연속변수인 교육연한으로 변환하고 이에 해당하는 9, 12, 14, 16, 19로 코딩하였다. 그 후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 중 가장 높은

값을 산출하여 변수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모 중 한 명만 교육수준이 조사된 경우에는 그 값을 기준으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2) 연간 가구소득

가정배경 변인 중 하나인 가구의 소득은 가계의 연간소득으로 측정하였으며 편포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자연로그값을 취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3) 부모양육태도

본 연구의 부모의 양육태도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연구진이 허묘연(1999)이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의 원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¹⁾ 원척도의 하위요인은 부모의 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 중 하나인 애정적 양육방식 문항을 활용하였다. 부모의 애정적 양육방식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칭찬을 잘 해주신다.’이다. 각 지표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구성된 4점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각 지표들을 역코딩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임을 나타내도록 변환하였다.

(4) 교우관계

교우관계는 김지혜(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며, 애착척도를 3개의 하위요인(의사소통, 신뢰, 소외)으로 구분하여 9개 문항으로 수정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의사소통은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는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로 조사되었고 소외는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로 하위요인별 3문항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이며 의사소통과 신뢰와 같이 긍정적인 문항은 역코딩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5) 성별

남학생을 준거집단으로 여학생에게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코딩하였다.

1) KCYPS(2010) 중1패널 1~2차년도 유저가이드

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학생의 학업성취이며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의 평균값을 투입하여 측정하였다. 각 지표는 '95점 이상', '95점~90점', '89점~85점', '84점~80점', '79점~75점', '69점~65점', '65점 미만'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된 8점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각 지표들을 역점수화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변환하였다.

3) 매개변수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휴대전화의 오락추구적 이용행태이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를 사용한 김지혜(2012)의 연구는 휴대전화 이용행태를 묻는 9개의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과 연락형, 친구와 연락형, 오락추구형(혼자사용형)의 3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본 연구모형에 투입한 오락추구형(혼자사용형) 휴대전화 이용행태는 게임 및 오락, 사진 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듣기로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응답하도록 설계되었고 각 지표를 재점수화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 빈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변환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중학생의 가정배경, 교우관계, 휴대전화의 오락추구적 이용행태와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 특성을 검토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모형 및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을 위해 AMOS 18.0을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의 모수추정을 위해 투입한 자료는 상관행렬이며,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결측치 발생이 임의적(MAR: Missing at Random)이라는 가정 하에 EM(Expectation-Maximization)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결측치(Missing Data)를 대체하였다. 한편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추정을 통해 간접적 매개효과를 추정하였는데, 이 방법은 자료에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변수가 있거나 추정 계수에 대해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을 때 적용할 수 있다. 부트스트랩 추정방법은 반복 추정 횟수가 증가할수록 결과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 추정횟수를 $n=2,000$ 으로 설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모형 적합도 및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본 연구의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결과는 아래 <표 1>에 정리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

하는 지수는 χ^2 이외에도 TLI, CFI, RMSEA가 함께 고려되었다. χ^2 의 경우 표본 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매우 엄격하며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표본 크기에 크게 좌우되지 않으면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TLI와 RMSEA가 연구모형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세희(2000)는 TLI와 CFI는 .90 이상, RMSEA는 .05 이하이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하였고, Hu와 Bentler(1999)는 CFI는 .95 이상, RMSEA는 .06 이하를 양호한 적합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LI .969, CFI .978, RMSEA .034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제시된 모형이 자료와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구조모형 분석 전, 모형의 측정변인들이 이론적인 개념을 얼마만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2>은 본 연구의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estimate)를 제시한 것이다. 잠재변인에 척도를 부여하기 위하여 해당 측정변인 가운데 하나를 1로 고정하여 참조변수로 나타내었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에 투입된 모든 측정변수의 t -value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각각의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1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χ^2	DF	TLI	CFI	RMSEA
239.641	65	.969	.978	.034

표 2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측정변수	매정적 양육	교우관계	휴대전화 오락추구적 이용
매정1	1		
매정2	1.003(.036)***		
매정3	1.106(.037)***		
매정4	1.138(.037)***		
의사소통		1	
신뢰		1.193(.041)***	
소외		.525(.029)***	
게임 및 오락			1
사진촬영			1.143(.075)***
동영상 감상			1.706(.104)***
음악 듣기			1.561(.096)***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 < .001$

2.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1) 전체 연구대상 분석

다음 <표 3>은 가정배경 및 교우관계가 휴대전화의 오락추구적 이용행태를 매개로 학업성취를 결정짓는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 결과,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이는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의 소득은 자녀의 교우관계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가 자녀를 애정적 방식으로 양육할 때 자녀의 교우관계가 원만해지고 학업성취가 상승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청소년들은 교우관계가 돈독하다고 인식할수록 휴대전화를 오락적으로 이용하였고, 교우관계는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발휘하였다. 이는 김지혜(2012)의 연구에서 보고된 것과 같이 또래애착이 강할수록 청소년들은 휴대전화를 친구들과 연락하는 데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오락적으로도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오락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할수록 학업성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친구들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오락적 휴대전화 이용이 잦아지면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를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표 3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경로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임계치
부모교육연한 → 애정적 양육	.014	.058	.006	2.341*
부모교육연한 → 교우관계	.003	.015	.005	.667
부모교육연한 → 오락추구적 이용	-.004	-.020	.005	-.750
부모교육연한 → 학업성취	.203	.221	.019	10.540***
연간가구소득 → 애정적 양육	.033	.047	.017	1.906
연간가구소득 → 교우관계	.037	.061	.014	2.645**
연간가구소득 → 오락추구적 이용	.000	-.001	.014	-.024
연간가구소득 → 학업성취	.490	.181	.057	8.633***
애정적 양육 → 교우관계	.344	.394	.023	14.735***
애정적 양육 → 오락추구적 이용	-.028	-.036	.024	-1.183
애정적 양육 → 학업성취	.272	.071	.093	2.938**
교우관계 → 오락추구적 이용	.127	.143	.027	4.689***
교우관계 → 학업성취	.418	.095	.105	3.988***
오락추구적 이용 → 학업성취	-.535	-.108	.117	-4.567***
SMC(R^2)	애정적 양육: .008, 교우관계: .164, 휴대전화 오락추구적 이용: .018, 학업성취: .151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양한 연구에서 이미 입증된 것과 같이 가정배경은 학생의 학업성취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만한 교우관계 역시 학생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정배경은 휴대전화의 오락추구적 이용행태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부모의 학력과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사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유념할 점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의 학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양육태도는 자녀의 휴대전화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가정배경에 따라 자녀의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행태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학업성취의 차이로 이어져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케 한다.

표 4 효과분해

추정변수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경로
	b	β	b	β	b	β	
부모교육연한	.014*	.058	.014*	.058	-	-	→ 애정적 양육
	.008	.038	.003	.015	.005*	.023	→ 교우관계
	-.003	-.016	-.004	-.020	.001	.003	→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
	.212**	.231	.203**	.221	.009*	.010	→ 학업성취
연간가구소득	.033	.047	.033	.047	-	-	→ 애정적 양육
	.048**	.079	.037**	.061	.011	.019	→ 교우관계
	.005	.009	.000	-.001	.005**	.010	→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
	.516**	.191	.490**	.181	.027*	.010	→ 학업성취
애정적 양육	.344**	.394	.344**	.394	-	-	→ 교우관계
	.016	.020	-.028	-.036	.044**	.056	→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
	.408**	.106	.272**	.071	.135**	.035	→ 학업성취
교우관계	.127**	.143	.127**	.143	-	-	→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
	.350**	.079	.418**	.095	-.068**	-.015	→ 학업성취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	-.535**	-.108	-.535**	-.108	-	-	→ 학업성취

주: 각 효과의 유의수준은 신뢰수준 95% 구간에서 bootstrapping 방식에 의한 추정결과임.

* $p < .05$, ** $p < .01$.

〈표 4〉는 연구모형의 각 경로에 대한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 결과, 부모의 학력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정적인 직·간접 효과를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모 학력은 애정적 양육태도와 교우관계,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연간소득 역시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자세하게 가구소득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애정적인 양육방식 및 교우관

계,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가구소득은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직접효과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는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우관계,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행태를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에 정적인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때 애정적 양육방식은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에 정적인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부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바 간접효과의 정적인 영향력은 교우관계를 매개로 하여 나타난 것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교우관계는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행태를 매개하는 경우에는 학업성취에 부적인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은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직접효과를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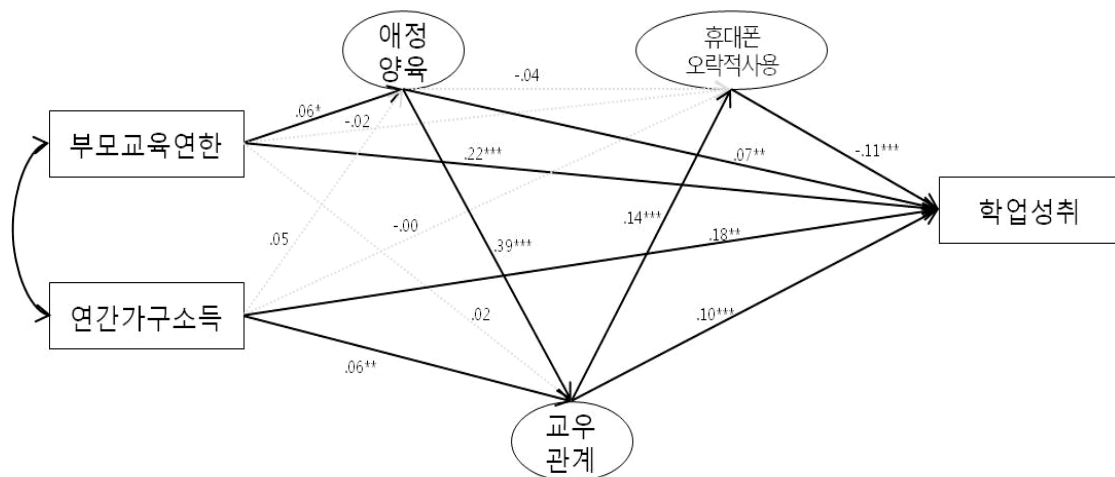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그림 2]는 이상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표현된 실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임을 의미하며,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를 뜻한다.

2) 성별 비교 분석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휴대전화의 오락추구적 이용행태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집단별 잠재변인 사이의 경로계수를 비교해야 하는데, 비교를 위해서 우선 측정동일성 제약(Metric Invariance Constraints)이 만족되어야 한다(김주환, 김민규, 홍

세희, 2009). 측정동일성 제약은 측정도구가 각 집단 내에서 동일하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으로 요인 적재치에 집단별로 동일성 제약을 가한 후 집단 간 회귀계수를 비교한다. 그러나 집단에 걸쳐 대응하는 요인계수가 모두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제약하는 전반적 검증이 기각되는 경우 연구자는 부분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제약모형을 비교한 바 제약모형의 적합도를 저해하는 요인(사진촬영, 소외)을 발견하였다. 때문에 사진촬영과 소외 요인계수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하는 부분 측정동일성 제약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분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는 TLI .966, CFI .975, RMSEA .025로 나타났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부분 측정동일성 제약모형의 적합도와 기저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미미한 수준의 차이만이 존재하여($\Delta CFI = -.001$) 교차타당성이 검증되었다.²⁾ 이는 곧 동일한 수준에서 남녀 간 경로계수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 5 ▶ 남녀 중학생 집단 간 동일성 검증

	χ^2	df	TLI	CFI	RMSEA
기저모형	318.525	130	.966	.976	.025
부분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332.899	136	.966	.975	.025

부분 측정동일성 제약모형을 바탕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 대해 각각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6 ▶ 요인 적재치에 부분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경로	남학생		여학생	
	b	β	b	β
부모교육연한 → 애정적 양육	.014	.062	.014	.057
부모교육연한 → 교우관계	.000	.000	.005	.028
부모교육연한 → 휴대전화 오락추구적 이용	.008	.041	-.015*	-.079
부모교육연한 → 학업성취	.208***	.226	.198***	.216
연간가구소득 → 애정적 양육	.028	.041	.040	.055
연간가구소득 → 교우관계	.048*	.077	.023	.040
연간가구소득 → 휴대전화 오락추구적 이용	-.010	-.018	.011	.019
연간가구소득 → 학업성취	.474***	.177	.510***	.187
애정적 양육 → 교우관계	.411***	.443	.291***	.370

2) Cheung과 Rensvold(2002)는 동일성 검증이 성립되기 위해서 기저모형과 제약모형 사이의 적합도 지수가 같거나 향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CFI의 경우 0.01 수준에서 변화하면 두 모형 사이에 동일성이 성립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분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결과 기저모형에 비해 TLI와 RMSEA는 변하지 않았으며 CFI는 -.001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분 측정동일성 검증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제약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보고되어 모형이 자료와 잘 부합함을 알 수 있다.

경로	남학생		여학생	
	b	β	b	β
애정적 양육 → 휴대전화 오락추구적 이용	-.026	-.031	-.010	-.013
애정적 양육 → 학업성취	.249	.063	.341**	.091
교우관계 → 휴대전화 오락추구적 이용	.108**	.119	.119**	.116
교우관계 → 학업성취	.378*	.089	.398*	.083
휴대전화 오락추구적 이용 → 학업성취	-.516***	-.110	-.513**	-.110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남학생 집단의 경우 부모교육수준과 연간 가구소득, 교우관계는 학업성취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은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고 교우관계가 원만한 남학생일수록 학업성취가 좋은 반면 휴대전화를 오락을 위해 사용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가구소득이 높고 부모가 자녀를 애정적으로 양육할수록 남학생의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교우관계가 원만할수록 남학생은 휴대전화를 오락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집단의 경우 부모의 학력, 가구소득,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교우관계 모두 학업성취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휴대전화의 오락추구적 이용은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업성취에 부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여학생의 학업성취는 남학생과 달리 부모의 애정적 양육방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여학생은 남학생과 달리 부모의 학력이 오락추구형 휴대전화 이용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가구소득은 교우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발휘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경우 부모 학력이 높으면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락추구형 휴대전화 이용이 증가하게 되면 학업성취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학력이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에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가정배경이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 다집단 분석을 통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고 결과의 함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조동일성 검증은 양 집단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서 <표 7>은 각각의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14개의 모형을 기저모형과 비교한 결과이다. 비교 결과, 2개의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는 <표 8>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7 ▶ 경로별 동일화 제약 결과

경로	df 변화량	χ^2 변화량	TLI 변화량
부모교육연한 → 애정적 양육	1	.002	.000
부모교육연한 → 휴대전화 오락추구적 이용	1	5.060*	.000
부모교육연한 → 학업성취	1	.072	.000
부모교육연한 → 교우관계	1	.332	.000
연간가구소득 → 애정적 양육	1	.128	.000
연간가구소득 → 휴대전화 오락추구적 이용	1	.490	.000
연간가구소득 → 학업성취	1	.098	.000
연간가구소득 → 교우관계	1	.891	.000
애정적 양육 → 교우관계	1	8.864**	.001
애정적 양육 → 휴대전화 오락추구적 이용	1	.104	.000
애정적 양육 → 학업성취	1	.239	.000
교우관계 → 휴대전화 오락추구적 이용	1	.034	.000
교우관계 → 학업성취	1	.008	.000
휴대전화 오락추구적 이용 → 학업성취	1	.000	.000
14개 경로제약	14	15.653	-.003

주: $\chi^2=348.551(df=150)$, TLI=.969, CFI=.975, RMSEA=.024

* $p<.05$, ** $p<.01$.

남녀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로는 아래와 같다. 먼저 부모 학력이 휴대전화의 오락추구적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의 경우 통계적으로 부모 학력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 부모 학력이 휴대전화의 오락추구적 이용을 낮추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교우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발휘하였으며 이는 남녀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보고되었다. 다만 애정적 양육방식의 효과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8 ▶ 구조동일성 모형과 부분측정동일성 모형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로

경로	남학생		여학생	
	b	β	b	β
부모교육연한 → 휴대전화 오락추구적 이용	.008	.041	-.015*	-.079
애정적 양육 → 교우관계	.411***	.443	.291***	.370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논의

휴대전화는 휴대가 용이하며 언제나 소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컴퓨터 및 텔레비전과 같은 기존 매체와 또 다른 특징을 지닌다. 과거에는 단순히 소통의 수단으로만 인식되어 오던 휴대전화가 최근에는 그 기능과 디자인 등이 발달하면서 무선 인터넷 접속, 카메라, MP3, 동영상 시청 등 전통적인 매체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탑재한 휴대전화는 청소년에게 단순한 통신 수단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소통 및 정보 검색을 포함하여 여가를 즐기는 도구이므로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매체로 부상하였다(김지혜, 2012).

하지만 휴대전화 기능의 진화로 인해 기기의 과다사용이나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자기통제력이 떨어지고 학업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에 과도하게 의존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 신체 및 정신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학교적응이나 학업성취에도 부정적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 더욱이 근래의 휴대전화는 연락 수단 이외에도 게임, 동영상, 사진 등 엔터테인먼트적인 기능을 제공하므로 연락 수단 외의 이용행태에 따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휴대전화를 게임이나 오락을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학생은 친구들과 연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용행태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이용행태 가운데 오락추구적 이용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구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오락 목적의 인터넷 활용을 덜 한다는 연구결과(김은미, 정화음, 2007; 전윤지, 김정근, 2013)와 비교하여 부모 학력이 휴대전화 이용에도 유사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가구의 연간소득은 오락 목적 휴대전화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구소득은 교우관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또래애착이 강할수록 휴대전화를 오락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김지혜(201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가구소득이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도록 지도하는 것과 동시에 또래애착이 휴대전화의 오락추구적 이용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가정에서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애정적 양육태도는 교우관계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이 교우관계를 매개하여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애정적 양육태도는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 증가에 더욱 큰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교우관계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교우관계 형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강화하되, 교우관계를 통해 오락 목적의 휴대전화 이용에 몰입하는 현상으로는 이어지지 않게끔 가정에서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교우관계는 오락 목적의 휴대전화 이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김지혜, 2012)와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교우관계는 학업성취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을 매개하여서는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김지혜(2012)에 따르면 또래애착은 휴대전화 의존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았지만 오락 목적으로 혼자 사용하거나 친구와 연락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의존도를 증가시켰다. 결국 또래애착이 높아지면 오락 목적 휴대전화 이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휴대전화 의존도를 높여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행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오락적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의 휴대전화 이용행태는 부모의 학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오락 목적의 휴대전화 이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학생에게서는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오락 목적의 휴대전화 이용에 있어 여학생이 가정배경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예측케 해준다. 한편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은 남녀를 불문하고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만 오락 목적 휴대전화 이용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학업성취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오락을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음을 상기해볼 때, 오락 목적 휴대전화 이용을 줄일 수 있는 교육이 남녀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특히 남학생의 오락 목적 이용행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정배경과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행태를 매개하여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가정배경은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오락 목적 휴대전화 이용을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가정배경은 교우관계를 매개로 하여 오락추구적 휴대전화 이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우관계는 그 자체로 학생의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였으나 오락 목적 휴대전화 이용을 매개할 때 학업성취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교우관계와 휴대전화 활용 간의 적절한 균형을 찾고 매체 사용을 통한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는 미디어 관련 지도·감독에 힘써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중학생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향후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연구대상을 확대해 연령별 비교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 스마트폰 보유 연령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으며 연령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행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패널조사는 휴대전화의 종류를 조사하지 않아 최근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스마트폰 관련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 종류 및 이용시간, 학습적 이용행태 등을 폭넓게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휴대전화의 영향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동진. (2005). **내외통제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휴대폰의 과다사용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구현영. (2010).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과 예측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6(3), 203-210.
- 권영란, 박명숙. (2012).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학교적응력이 인터넷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21(2), 99-107.
- 기강도. (2001). 사회계층과 자녀양육 및 비행 간의 관계 분석. **형사정책연구**, 12(3), 134-173.
- 김경근. (1998). 한국에서의 교육수요 결정의 사회적 기제. **교육사회학연구**, 8(2), 1-32.
- 김계수. (2004). **AMOS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SPSS 아카데미.
- 김수혜, 김경근. (2010). 세대 간 지위이동 결정요인의 구조적 관계: 사교육 및 어학연수의 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0(3), 1-26.
- 김영민, 임영식. (2013). 민주적 양육방식, 자아탄력성 및 휴대전화의존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2), 273-299.
- 김선희. (2005). **휴대폰 중독적 사용: 고등학생의 심리특성과 학교생활 적응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세현. (2010).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휴대전화의 사용: 가족, 친구, 학교 공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미, 정화음. (2007).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격차에 관한 탐색. **언론정보연구**, 43(2), 125-161.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지혜. (2012). 부모요인, 친구요인, 개인요인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용도를 매개로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4(3), 97-120.
- 김현숙, 서미정. (2012).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이용 목적에 따른 생태체계적 요인의 차이. **청소년상담연구**, 20(2), 271-294.
- 김현숙. (2013).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이용 목적에 따른 심리적 특성. **수산해양교육연구**, 25(1), 87-101.
- 김현주, 이병훈. (200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 **한국인구학**, 30(1), 125-148.
- 문영임, 구현영, 박호란. (2005).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인터넷 중독 실태와 영향 요인.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1(3), 263-272.
- 박소영. (2008). **청소년 교우관계 질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관계구조**.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은모, 진성희. (2012).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휴대폰 활용이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8(4), 441-467.
- 성은모. (2013). 초기 청소년의 휴대폰 활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를 중심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9(2), 253-281.
- 신명호. (2004). **사회계층간 자녀의 학업성취도 격차와 양육문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명호. (2011). **왜 잘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나?**. 서울: 한울아카데미.
- 여성가족부. (2011). 2011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여지영, 강석영, 김동현. (2014). 초기 청소년의 애착불안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충동성, 외로움의 매개효과: SNS 집단과 게임 집단의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2(1), 47-69.
- 유백산, 김경근. (2013). 가정배경, 가정 내 의사소통 방식, 학업성취 간 구조적 관계. **교육학연구**, 51(3), 51-78.
- 이동후, 손승혜. (2006). 휴대전화 이용의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0(1), 249-284.
- 이영남. (2009).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 정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숙, 명신영. (2007).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실태 및 휴대폰 중독 정도에 따른 또래관계의 질,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67-86.
- 이중섭, 이용교. (2009).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국가족복지학**, 26, 159-191.
- 이해경. (2008).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133-157.
- 임양미. (2014).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속성이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3(2), 163-174.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9(5), 161-187.
- 전윤지, 김경근. (2013). 가정배경, 교사 지지, 컴퓨터 이용 행태, 학업성취 간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9(1), 5-34.
- 정미경. (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복자. (2010). **부모양육태도, 또래관계의 질과 휴대폰 사용행동의 관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차미숙. (2006). **외로움이 청소년의 휴대폰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재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 (2014). 2014년 청소년 통계. 서울: 통계청.
- 한국교육개발원(2013). 스마트폰·인터넷 중독 예방: 중·고등학교 교사 지도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2012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YCPS) 중1패널 1-2차년도 User's Guide.
- 한상훈. (2008). 중학생의 휴대폰 중독유형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8(1), 403-420.
- 한정선, 김세영. (2006).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용 유형, 자기 통제력, 자기조절학습능력

-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2(2), 161-188.
- 허묘연. (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순옥, 문명순. (2007).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에 미치는 영향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과의 관계. *아동교육*, 16(2), 57-70.
- Andrew Lepp., Jacob E. Barkley., & Aryn C. Karpinski.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cell phone use, academic performance, anxiety, and Satisfaction with Life in college stu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1, 343-350.
- Augner, C., & Hacker, G. W. (2012). Associations between problematic mobile phone use and psychological parameters in young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57(2), 437-441.
- Bianchi, A., & Phillips, J. G. (2005). Psychological predictors of problem mobile phone use. *Cyberpsychology & Behavior*, 8, 39-51.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 Hofferth, S. I., & Anderson, K. G. (2003). Are all dads equal?; Biology versus marriage as a basis for parental inve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5(1), 213-233.
- Hong, F. Y., Chiu, S. I., & Hong, D. H. (2012). A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mobile phone addiction and use of mobile phones by Taiwanese university female stu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 2152-2159.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Jacobsen, W. C., & Forste, R. (2011). The wired generation: Academic and social outcomes of electronic media use among university student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5), 275-280.
- Jencks, C., J. Crouse, & P. Mueser. (1983). The Wisconsin Model of Status attainment: A National Replication with Improved Measures of Ability and Aspiration. *Sociology of Education*, 56(1), 3-19.
- Junco, R., & Cotton, S. R. (2011). Perceived academic effects of instant messaging use. *Computers & Education*, 56, 370-378.
- Junco, R., & Cotton, S. R. (2012). No A 4 U: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tasking and academic performance. *Computers & Education*, 59, 505-514.
- Kamiveppu, K., & Sugiura, H. (2005). Impact of the mobile phone on junior high-school students' friendships in the Tokyo metropolitan area. *Cyber psychology & Behavior*, 8(2), 121-130.
- Scherer, K. (1997). College life on-line: Healthy and unhealthy internet use.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38(6), 655-665.
- Young, J. R. (1998). Students are unusually vulnerable to Internet addiction, article says.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44(22), A25.

부표 1. 측정변수의 상관행렬 및 기술통계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성별	1														
2. 부모교육연한	.014	1													
3. 연간가구소득	.004	.379**	1												
4. 애정1	-.010	.049*	.031	1											
5. 애정2	-.024	.084**	.072**	.456**	1										
6. 애정3	-.048*	.040	.037	.559**	.520**	1									
7. 애정4	-.047*	.057**	.065**	.522**	.550**	.577**	1								
8. 의사소통	.154**	.065**	.083**	.231**	.239**	.258**	.306**	1							
9. 신뢰	.133**	.056**	.082**	.226**	.220**	.263**	.285**	.741**	1						
10. 소외	.016	.036	.036	.141**	.096**	.170**	.154**	.283*.014	.377**	1					
11. 게임오락	-.135**	-.005	.002	-.006	-.020	-.014	-.011	.152**	.020	.006	1				
12. 사진촬영	.344**	.081**	.028	.018	-.007	.020	.023	.070**	.127**	.028	.181**	1			
13. 동영상	.038	-.021	.007	-.008	.004	.013	.007	.080**	.058**	-.028	.335**	.437*.315*	1		
14. 음악	.092**	-.053*	-.027	-.009	.022	.056**	.019	.139**	.081**	.024	.326**	.463**	.1	1	
15. 학업성취	.053*	.303**	.279**	.096**	.123**	.072**	.114**	.113**	.113**	.100**	-.059**	-.071**	-.109**	1	1
평균	.4947	14.1088	8.1568	3.0802	3.0179	3.0565	2.8902	2.9046	3.0326	2.9828	2.9158	2.7996	2.2258	2.9554	4.1890
표준편차	.50008	2.3222	.79040	.79939	.80757	.79851	.81791	.59169	.63603	.63885	.96678	.92454	.96376	1.07685	2.13436
왜도	.021	.310	-3.357	-.625	-.538	-.594	-.407	-.317	-.468	-.490	-.472	-.279	.357	-.617	.049
첨도	-2.001	-.628	29.576	-.026	-.167	-.052	-.308	.930	.388	.277	-.800	-.798	-.812	-.935	-1.240

* $p < .05$, ** $p < .01$.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인쇄일 2014년 10월 30일

발행일 2014년 10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빌딩 8, 9, 10층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02) 2263-5087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